2015년 한·중 우호와 협력을 위한

2015年 增进韩中友好合作为主题的大学(研究)生有奖征文通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공 동 주 최:
联合主办单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후원:
赞 助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년 한·중 우호와 협력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Contents

06 ≫ 권두언

07 ≫ 격려사

08 ≫ 개요

09 ≫ 논문공모전 수상 논문 / 論文公募展 受賞 論文

11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가능성 연구 _ 한정민, 관령옥

43 > 为和平解决慰安妇问题对韩中民间组织合作可能性的研究 _ 韩政潤, 管玲玉

69 > 베이징지역 대학교 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현황 연구 _ 이성원, 이사묘

89 > 北京地区高校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研究 _ 李晟援, 李斯淼

113 >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문화 적응 _ 유혜신, 장사월
129 > 在韩中国留学生的韩国大学文化适应 —以高丽大学为对象 _ 俞慧信, 張思越

141 > 베이징 한국 유학생 생활상태 및 권리보호 연구 _ 손성재, 도화
155 > 在京韩国留学生生活状况及权利保护的研究 _ 孙晟宰, 涂畵

166 > 한·중 방송산업 교류현황 및 발전방향 _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_ 최유라, 창위단
181 > 中韩在广电行业上的交流现状及发展方向 ‘以综艺节目为中心’ _ 崔有罗, 常玉丹

191 > 한·중 법률시장개방과 향후과제에 대한 고찰 _ 문혜정, 홍효운
211 > 中_韩法律市场的开放与今后的课题 _ 文蕙贞, 哄晓芸

230 > 한·중 유학생 역할의 중요성 및 문화외교 _ 김미혜, 진희
248 > 中韩留学生作用的重要性和文化外交 _ 金美惠, 陳曦

264 > 한·중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에 대한 법적 고찰_동아시아 인권관 형성을 기대하며 _ 김현수, 왕중양
277 > 关于中韩合作解决慰安妇问题的司法上的考察 ‘东亚人权观的形成可行性’ _ 金炫秀, 王仲阳

293 > 혈연외교 : 공공외교의 새로운 접근 _ 은진석, 자오레위한
313 > 血缘外交：公共外交的新形势 _ 殷振碩, 趙瑞晗

331 > 한·중 에너지 정세 및 에너지 협력 _ 장지혜, 류정림
362 > 中韩能源局势与能源合作 _ 蒋智惠, 刘程林

393 > 역사 속에서 찾은 제주도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 '한민족에 내재된 바다 지향성을 중심으로' _ 김은미, 대림검
406 > 寻找历史上中国与济州岛的漂流民交流 '以发现韩民族的向海性为中心' _ 金恩美, 戴琳剑

419 > 항일전쟁시기의 한·중 공조 : 광복 70주년에서 보는 역사적, 현재적 의의 _ 조대희, 야오쥔상
441 > 抗日战争期间的中韩合作 _ 赵大熙, 姚锦祥

460 >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한·중 영화산업의 경쟁력분석과 합작 전망 _ 조은상, 류금전
472 > 基于钻石模型的韩中电影业竞争力分析和合作展望 _ 赵恩祥, 劉金典

484 > 해상연행 '중국 청나라 해관보고서에서 본 한·중 무역과 항구변화 (1882_91)' _ 김성진, 엄지덕
493 > 海上燕行 '从清国海关报告看中朝贸易与港口更迭(1882—91)' _ 金成真, 严智德

501 > 반중vs.반한,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모델 연구 _ 이정성, 우정
536 > 反韩 VS. 反华:消除相互文化偏见,改善形象的模型研究 '以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形象调查为中心' _ 李廷性, 牛晶

567 > 중국인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위한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_ 김예진, 최신
582 > 迎接中国游客"千万"时代, 韩中旅游业交流促进方案 '以导游问题及解决办法为中心' _ 金艺真, 崔晨

588 > 중국 내 한국어 교육시장의 부진원인 및 발전방향 모색 _ 이준성, 최여여
600 > 浅析中国国内韩国语教育市场不振的原因及发展方向 '以世宗学堂为中心' _ 李俊成, 崔茹茹

605 > 한·중 FTA를 통한 지방경제협력과 발전방안 : 웨이하이(威海)·인천을 중심으로 _ 김슬기, 장예즈
624 > 中韩FTA背景下的区域经济合作与发展 ：以威海和仁川为例 _ 金슬기, 张延泽

637 > 한·중 문화콘텐츠의 교류_우호증진을 위한 노력 _ 허지강, 마성로
647 > 韩中文化交流 —从增进友好关系的方向 _ 许智刚, 马圣璐

657 > "반한·반중" 속에서 한·중 관계 연구 및 해결 방안 _ 김은석, 장아문
670 > "厌韩排华"下中韩关系的考量与解决方案 _ 金恩奭, 张雅汶

2015년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자 논문 자료집 권두언

동북아역사재단이 한국과 중국의 젊은 지성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우정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느 해보다 알찼던 2015년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자들의 논문을 묶어 이렇게 자료집으로 펴냅니다.

이 자료집에 실린 논문들은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견을 좁혀 마침내 동의한 것들을 찾아 학술적으로 논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청년들이 서로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점이야말로 바로 우리 재단이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 취지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 쌓은 경험, 거쳐 온 과정은 이웃나라로서 한국과 중국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후 세계 어느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전 분야에서 떼려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양국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교류가 잦아지고 만남이 일상이 되면,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건전한 관계 발전을 가로 막는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위해서는 이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 미래를 짊어지고 갈 두 나라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 자료집에 실린 논문들은 두 나라에 꼭 필요한 노력과 경험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논문 작업에 함께 한 · 중 젊은이들에게서 두 나라의 화합과 협력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 · 중 양국의 활발한 인적 · 물적 교류에 걸맞은 신뢰를 쌓는데 필요한 교훈을 역사에서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술연구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과 같이 한 · 중 젊은이들은 물론 청소년과 전문 연구자들의 교류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2015년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빛내주신 수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 수상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꺼이 좋은 논문을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에 실린 논문들이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공동연구 분위기를 더욱 북돋우고, 나아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 8. 10.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2015년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자 논문 자료집 격려사

2012년, 한국과 중국의 국가수교 2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된 한,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이 벌써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교류는 연간 2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바야흐로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인적교류 또한 연간 800만명이 양국을 왕래하고 있으며 중국내 한국인유학생과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수가 각각 6만명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4회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그 동안의 성원을 바탕으로 입상 규모 또한 확대되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양국의 우호증진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논문공모전을 계기로 양국의 청년들이 더 많이 만나고,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논문공모전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우호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 부상으로 주어지는 역사 · 문화 답사 체험 프로그램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협력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학업일정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열정으로 우수한 논문을 제출하여 수상의 기쁨을 차지한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비록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논문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또한 앞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에 커다란 포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논문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이 행사를 준비한 동북아역사재단과 역사NGO포럼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청년세대들이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이삼열

2015년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대상(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가능성 연구

43 为和平解决慰安妇问题对韩中民间组织合作可能性的研究

한정민, 관령옥 韩政泯, 管玲玉

북경대학교 北京大学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가능성 연구

한정민, 관령옥
북경대학교

요 약

광복 혹은 항일전쟁 승리 70 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어왔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적 상처를 되돌아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각 국가의 민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여성인권 침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초국가적이고 탈민족주의적인 해석과 접근방법이 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 협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민간단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한-중 양국에 존재하는 민간단체들의 연구와 활동을 분석하고, 협력 가능한 측면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VANK)' 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새봄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활동의 특질과 그 상호작용에 대해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를 다각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서 중국의 정치환경적 특수성을 제안하고, 중국 내 민간단체가 겪는 정치적 혹은 제도적 제약이 한-중 민간협력 부재의 중요한 원인이라 결론 지었다. 현재 중국으로 파견된

한국의 민간단체 중 하나인 ‘아시아아프리카난민교육후원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우영아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민간단체가 중국에서 겪는 현실적인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중국 시민사회의 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중국 민간 활동가들의 최근 눈에 띄는 행보를 고려한다면, 현재 불거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민간협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 키워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초국가주의, 한-중 민간단체 협력,
중국의 정치환경적 특수성

I. 서론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광복 70주년’으로,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항일전쟁 70주년’이라 칭하며 2015년을 특별히 기념한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념되지만,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로서의 한-중 양국의 역사적 해석과 정서적 공감대는 한 곳을 향하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4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 연설에서의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비난하며,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시민사회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연극과 영화의 공동합작을 추진하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미국 등지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중 시민사회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아시아연구협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의 186명의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공동서명(open letter)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침해에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nationalist ends)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해석(path to a “correct history”)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사문제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있어서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1]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2015, p. 2

이와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의회는 ‘결의안 121(Resulution121)’을 통하여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며, 2014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보고서를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인정, 사과, 어떠한 형태의 배상도 받지 못하였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민족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논문은 일관되고 올바른 국제사회의 역사관 정립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중 민간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민간단체의 협력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찾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은 각각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가? 본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민간단체들은 어떠한 역할을 각각 맡아왔는가?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민간단체들은 어떠한 협력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 중에 어떤 한계를 발견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본 논문의 목적은 여기에 제시된 질문들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중 양국 민간단체의 접근방식상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그 한계의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양국의 민간차원 협력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데 있다.

II. 본론

1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현주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주요한 정치외교적 현안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제기는 피해자 여성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되어 시작되었지만, 곧 이는 식민지 역사경험과 결부되어 민족국가 전체의 역사적 피해의식을 자극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내의 민족주의적 해석뿐만 아니라, 중국 및 기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관심을 야기하면서 점차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민족주의와 초국가주의에 결부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이 본 문제를 보는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1 한국과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1.1.1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90년대 동아시아의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것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요구로 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1월 한겨레신문에 기재된 윤정옥 씨의 일본군 위안부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는 군 혹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여론이 뜨거워졌다. 1년 뒤, 김학순 씨가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요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의 진상조사를 하고 카토 코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정부의 관여를 일부 인정하였다. 또한, 1996년 8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는 간접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와 보상금을 제안한다. 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있었고,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아시아여성기금과의 협력을 거부하였다.[2]

한국정부의 외교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잔존' 한다는 공식적인

[2] 아시아여성기금, "디지털기념관"; http://www.awf.or.jp/k3/index.html

입장을 취하고 있다.[3]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한국정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록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2015년 4월 기준으로 등록된 일본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8명으로 집계되며, 그 중 국내에 48명, 국외에 5명이 생존해 있고,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8.4세이다.[4]

1.1.2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5년 4월 28일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엄중한 반인도적 죄행"이라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5]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민간연구자 장솽빙(張雙兵)의 중국인 위안부 127명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 최근 개봉한 '다한(大寒)' 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6] 하지만,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이다.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난 이후에서야, 이에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산시(山西)성의 만수화(万爱花)씨는 중국위안부피해자 대표로 199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의 미미한 정책과 지지 속에 1996년에 일본에서 시작된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 대상자에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제되었다.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첫 연구는 1993년 역사가 쟝하오(江浩)로부터 시작되었다.[7] 그는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한중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학자 쑤즈량(苏智良) 교수가 추진하여 상해사범대학교에 중국 최초의 위안부문제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00년 위안부문제연구소는 역사연구 편집부, 그

---

[3]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입장" ;
http://www.mofa.go.kr/trade/areaissue/weasia/bomb/index.jsp?menu=m_30_30_10

[4]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e-도서관, 정부등록자현황" ;
http://hermuseum.go.kr/sub.asp?pid=22

[5] 데일리안, 2015년 4월 28일, "중국 '일본군 위안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 ;
http://www.dailian.co.kr/news/view/502497/?sc=naver

[6] JTBC, 2015년 5월 19일, "중국서 ' 위안부 실상' 영화 제작…' 복수 아닌 평화' "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1970

[7] 胡银平,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p77

리고 항일전쟁연구 편집부와 공동주최하여 위안부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175명의 학자가 참가한 이 회의는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조명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록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최근 들어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8] 중국의 상하이사범대학교 위안부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생존자는 20명으로 나타나 있으며,[9] 영화 '다한(大寒)'의 시나리오 작가 장솽빙(張雙兵 · 62 · 사진)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산시(山西)성과 허베이(河北)성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그가 인터뷰한 위안부 피해자 127명 중 11명만이 생존해 있다.[10]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속의 민족주의와 초국가주의

한국과 중국 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다양한 가치들을 지향하는 모습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단체들이 연대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비록 그 시작은 페미니즘에 기초하여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확산되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의 대립구도 속에서 본인이 속한 민족국가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과 특정한 민족에 대한 이중적 착취에 기인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가 시민에게 가한 보다 보편적인 인권침해로도 이해할 수 있다.[11]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초기에는 여성단체로부터 제기되었지만 한국 내의 타 민간단체로 그 영향이 확산되었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해되면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석이 한국 내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중국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난징 대학살이나 일본 교과서 문제 등의 다른 역사해석문제나 다오위다오(센카쿠)등의 영토갈등과 결부되면서 민족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및 타 피해국의 민간단체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점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향이 초국가적이고 보

[8] 胡银平,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p78;

[9] 이는 2015년 5월 31일 상하이사범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사무실의 쩐지엔싱(阵建行) 씨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에 비롯한다.

[10] 중앙일보, 2015년 5월 19일, "중국 위안부 참상 폭로 127명 중 생존 11명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30767&cloc=olink|article|default

[11] 정신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Vol11 No.1, 2002, p21

편적인 인권침해로의 이해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다른 목소리들도 부각되어 왔다.[12]

1.2.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해체로 인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큰 틀 안에서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의 번영과 존속이 국가의 주요목표로 재등장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일본의 '국가 정상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일본의 수정주의적 역사해석은 한국과 중국에게 일본 제국주의적 사고관의 부활이라 염려되며 1990년대 초부터 불거지는 동북아 역사갈등의 시초를 제공하였다. 악화되는 동북아 역사갈등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 존재했던 민족의 피해를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2.1.1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기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여성에 대한 일본의 성 침탈로 이해되었고, 이것은 개인 여성에 대한 것이자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과 정대협 및 다른 한국의 시민단체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침략정치의 골수'이자 '전후문제 처리의 시금석'이라 간주되며 민족주의적 해석이 확장되었다.[13]

하지만, 전세계 각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이러한 경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페미니즘의 연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14]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민족의 피해'로 추상화되면서 피

---

[12] 정진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Vol11 No.1, 2002, p22

[13]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3

[14] 허란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7

해자 여성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주목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면에서는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된 여성운동에서조차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회적 약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비가시화 하는 억압적인 이념으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15]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여성연대가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되자, 한국여성과 일본여성들이 주최로 1990년대 초부터 20년간 아시아연대회의가 열려왔다. 이를 통해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민족주의적 태도와 그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여성연대의 초국가적인 패미니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6] 또한, 1998년 4월 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모임에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대표인 마츠이 야요리가 제안하고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결정되어, 200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열리게 되었다.[17] 비록 민간법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식민주의라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수성이 전시 성폭력과 여성인권 침해라는 보다 일반적인 틀과 결합되어 본 문제에 접근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18]

1.2.1.2 중국 민족주의의 특수성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중국 민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나 일본의 민족주의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한(漢)민족이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55개의 서로 다른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가진 민족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존재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설립되기 전까지는 근대서구사회에서 해석되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전제, '한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존하는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역사분쟁 속에서 야기되는 '민족주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존재하는 각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권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애국주의' 혹은 '중화민족주의'로서 해석되어야 적절

[15]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3

[16] 문소정,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Vol95, 2012, p315

[17] 두산 시사상식 사전, 여성국제전범법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51&cid=43667&categoryId=43667

[18]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

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의 중국은 다민족국가인 동시에 '중화민족국가' 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공동체로서 그 특수성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1980년대 발생한 일본과의 난징대학살 관련 역사교과서 문제로 야기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은 1990년대 이후에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고조된 중국 남동해 영토분쟁으로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중-일 외교적 마찰이 급속도로 가시화 되었다. 2013년부터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의 자리를 이어받은 후, 중국의 민족주의적 색채는 더욱 뚜렷해져 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꿈' (中国梦, China's dream)을 기조로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공산당은 중화사상(中华思想, Sinocentrism)의 부흥을 민족주의적 가치로서 강조했다.[19] 한국외대의 국제학부 황재호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 의 제 1 목표는 '국가적 통합' 이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 을 제시함으로써 13억 중국 인민이 민족, 지역, 빈부계층을 막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묶어낸다고 언급하였다.[20]

1.2.2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초국가주의적 가치

2015년 4월, 일본 정부의 조선인 노동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국가간 외교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족 대 민족' 혹은 '국가 대 국가' 로 이해되던 위안부 문제 또한 국제사회 무대로 옮겨가면서 문제의 성격이 더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시민 기본권에 대한 핍박과 성노예를 통한 여성인권 침해라는 초국가적인 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점차 커져왔다.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제 3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법적 조치를 권고해왔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국가주의적 추세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유엔이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권고하는 등, 유엔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적 착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발언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19] 최춘흠, 시진핑 시대 중국 보수 • 민족주의 색채 띨 듯,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년 12월호(통권 제324호), 2010, pp. 22-23

[20] 황재호, 「시진핑과 중국의 꿈」, 경향신문 국제블로그 경계를 넘어서(경향 국제칼럼), 2013; http://world.khan.kr/560

권고하였다.[21] 그리고 2014년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보고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 및 보상에 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현존하고,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정, 사과, 어떠한 형태의 배상도 받지 못하였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22]

둘째,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 내의 다자간협력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회의이다. 본 회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최하여 한국,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일본 8개국들의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직접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정치, 역사, 민족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전쟁과 여성의 인권 문제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대협은 1992년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일본군과 정부가 체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조직하여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충분치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고 주장하였다.[23] 2015년 5월 21일, 제 1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제 1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며 "각국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여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4] 한편으로는 “전후 7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

[21]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JPN/CO/3, 17 May 2013, Article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lasting effects of the exploitation and to guarantee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comfort wome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ducate the public on the exploitation of “comfort women” so as to prevent hate speech and other manifestations of hatred that stigmatize them.”

[22]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JPN/CO/7-9, 29 August 2014, Article 18; “…The Committee also notes information on compensation provided through the Asian Women Fund established by the State party in 1995 and Government expressions of apology, including the apology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in 2001. Bearing in mi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surviving “comfort women” persist as long as their rigts to justice and reparation are not fully realized,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most of “comfort women” have never received recognition, apologies or any kind of compensation.”

[23]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2013), *The joint resolution of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1; ”Military Sexual Slavery’ is a cold-blooded act which was fulfilled systematically by Japanese military power and autocracy… However, Japanese government’s apology against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on July 6 was hardly satisfactory. Japan’s never admitted its brutal wrongdoing and just tried to avoid any responsibility.”

[24] 통일뉴스, 2015년 5월 20일, “8개국 모여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행동 나선다”;

반평화적 행보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였다.[25] 동시에, 이번 결의문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해 과거 연합군 정부가 보관했던 일본군 위안부 범죄 자료를 공개해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였다.[26]

셋째,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동북아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외교전(外交战)으로 불거지는 만큼 제 3국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 중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의회의 '결의안 121(Resulution121)' 통과는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본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일본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사과해야 하고, 이에 대해 다음 세대들에게도 명확히 교육시켜야 함을 명시하였다.[27] 이후, 2007년 한 해에만 유럽의회, 네덜란드 하원의회, 캐나다 하원의회, 호주 상원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만 미국의 뉴욕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 뉴저지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일리노이 주의회의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 결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과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발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54

[25] 국민일보, 2015년 5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회피하는 日정부 엄중 경고'…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9828&code=11110000&cp=nv

[26] 연합뉴스, 2015년 5월23일, "일본군 위안부 회피 日정부 엄중경고" 亞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3/0200000000AKR20150523036400004.HTML?input=1195m

[27]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 45; "the Government of Japan (1)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2) should have this official apology given as a public statement presented by Prime Minister of Japan in his official capacity…. (4) should educate current future generation about this horrible crime whil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comfort women'"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북경의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28]

본 설문조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학생들의 일반적 인식 정도를 이해하고자 시행하였다. 그 질문들은 크게 교육과정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학습경험 및 중요성 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중 협력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우선,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학생의 40 명 중의 40 명(100%), 중국학생들의 124 명 중 119 명(96%)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역사수업 시간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국학생 124 명 중 64 명(51.6%)이 '나왔다' 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학생들 40 명 중 36 명(90%)이 '나왔다' 고 대답하였다. 비록 중국에서 거주하여 중고등학교의 일부 기간만을 한국에서 보낸 한국 유학생들도 포함되었으나,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들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주의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혹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학생들은 98 명(79%)의 학생들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학생들의 40 명 중 19 명(47.5%)만이 '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혹은 중-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중국학생들의 124 명 중 111 명(89.5%)이 '필요하다' 라고 대답하였고, 한국학생들의 40 명 중 25 명(62.5%)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들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보였으나, 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본 설문조사는 본 논문의 구체적인 흐름과 방향이 확실해지기 이전에 시행된 이유로 질문의 구체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공동 관심사임을 확인 함으로써, 연구주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8] 본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11일부터 2015년 5월 24일까지 2주간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학생 40명과 중국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채팅애플리케이션(WeChat, KakaoTalk)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2 장.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민간단체 협력의 필요성

본문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국가의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인권문제나 전쟁노예문제와 관련된 초국가적인 가치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현존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과 그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화해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해왔다.[29] 이에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면서 동시에 초국가적인 성향, 그 자체에 대해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기보다 현존하는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한-중의 민간단체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속의 탈민족주의적 행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은 일본제국주의 하의 침탈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과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지 36년은 한국인의 근현대적 정체성과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두 국가간의 전면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도한 민족주의적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갈등을 위한 갈등'이라 비판 받을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기본권과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에 있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는 한중일의 역사갈등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길이다. 민족주의적 해석은 자칫하면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또 다른 역사적 문제 혹은 국가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들을 끌어들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구분하는 등의 행동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대협의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 내의 다자간협력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국제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요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결정되어, 200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일본군

[29] 허란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8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이 열리게 되었다.[30] 그 이후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본 인권에 대해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초국가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2.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독립성과 연속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화되기 이전인 초기 단계에서 민족주의는 본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시민단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른 역사문제들뿐만 아니라 한중일 사이의 영토분쟁 등을 포함해 민족주의적 맥락하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를 국가 간의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른 전후 보상문제와 함께 국가간 외교 문제로 결부되면서, 한-중-일 세 정부의 외교정책 하에 본 문제가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뜨거워진 관심 속에 동북아 삼국의 국제외교전쟁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정치화된 갈등구도는 동북아 삼국의 협력을 통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2.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의 역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정치화 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대중의 기대가 더 커져왔다. 한국의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시민단체인 정대협은 2014년 성명서에서 '한국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당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31] 본 성명서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루어 낸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한국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유엔에서도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내보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일외교행보는 시민단체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지

[30]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여성국제전범법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51&cid=43667&categoryId=43667

[31] 정대협 공동대표 윤미향 블로그, 정대협 성명, '한국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당당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요구한다' ; http://blog.daum.net/hanagajoah/961

는 못하고 있다. 국가의 '헌법적 의무' 로서의 당면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북아 역사문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부로서 존재한다. 정부가 외교관계를 통해 국가위상의 증진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정하에,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독립적인 요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고, 이에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적극적인 입장은 정부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 관계는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묶여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국가간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딜레마적 관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정부간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전면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시민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의 다각적이고 초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의 협력 가능성

본 논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의 초국가적 협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에 비해서 국제정치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한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국가간 민감한 갈등에 있어서도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지속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뒤따를 수 있었던 것도 민간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 때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각 개인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나섰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문제의 성질 중 개인인권문제의 중요성은 퇴색되고 피해국가 민족공동체의 역사문제로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올해 5월 아시아연구협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의 186명의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침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32]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갈등해결과 범지구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탈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협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일제제국주의의 침탈의 역사를 공유하는 두 국가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본에 지

[32]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2015),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p.2

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일제침탈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비중도 상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활동은 한-중 양국의 탈민족주의적이고 초국가적인 문제접근을 위해서 필요하다. 각 국가의 민족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초기에 조명한 여성인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그 중요성을 맞춰나가는 공동연구 및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양국 민간단체의 협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연구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초로 관심을 보인 나라로서 민간단체들의 행보 또한 그 역사가 깊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해왔다. 반면, 중국은 사회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일부 제한되어있어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중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위안소나 위안부 기록물 등의 증언과 증거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의 민간단체들의 협력은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있어서 발전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장. 한국과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단체 현황과 그 역할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로서 각 국가의 민간단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연구와 사회활동에 있어서 활발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는 민간단체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 국가 간에 서로 존재하지 않는 민간단체의 특징들에 주목하겠다.

3.1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및 특성

3.1.1 한국 민간단체 현황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주요 민간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에 발족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확장하여 그 연구와 활동 또한 다채로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들 중 활동이 왕성한 민간단체 다섯 곳,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 '나눔의 집', '희움'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전반적인 연구 및 활동 현황을 조명하고자 한다. 비록 본 다섯 민간단체 이외에도 다른 주요 민간단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민간단체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로 그 기능과 특성이 많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본 다섯 개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3.1.1.1 한국정신대연구소 [33]

한국정신대 연구소는 1990년 7월에 발족하여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학술교류활동, 출판활동 등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에 기여해왔다. 1994년부터 해외실태 조사를 통해 해외에 남아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중국거주 생존자들에게 생활지원 및 귀국 추진을 하는 등의 활동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조사들은 문헌자료, 사진영상자료, 증언자료 등으로 축적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관련 연구서, 대중서 등을 발간하여 정보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신대 연구소의 소식지는 1998년 8월호를 창간호로 현재 53호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최근 동향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최신 소식지 53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조사와 여성주의-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왕성한 연구활동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등 다양한 관련 단체의 지원과 연대 활동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

3.1.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990년 11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7개 여성시민종교학생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들었다.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회의 결의사죄와 법정배상, 역사교과서 상의 명확한 기록과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등을 직접적으로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1991년 최초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1992년 1월 8일 낮 12시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기 수요시위를 시작하였고, 계속된 시위는 2011년 12월 7일 1000번째 수요시위를 맞았다. 또한, 1992년 1월 24일 외무부내 '정대협실무대책반'을 운영하여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지원법(1993년)' 제정을 통한 임대아파트 제공과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1997년)'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대협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정하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33]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truetruth.org/index.htm

[3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womenandwar.net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결의문에 포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아시아연대회의의 개최와 함께 아시아에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협조를 통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다.

3.1.1.3 나눔의 집[35]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주거복지시설로서, 1992년 10월을 시작으로 현재 총 359평의 건물을 소지하고 생존자 할머니 중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눔의 집 관련 업무종사자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대협의 수요시위 참여하고, 나눔의 집에 거주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뜻있는 일본인들의 성금으로 세계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을 1999년에 열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12일에 설립된 국제평화 인권센터는 올바른 역사세우기와 여성의 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보호 조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3.1.1.4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36]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 및 방송, 언론과 문화예술인의 연대로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필리핀, 대만 등의 수도 및 대도시에서 공연과 전시를 해왔다. 전세계 젊은이와 청소년들의 서명 운동 등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촉구하는 행사' 를 기획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사회운동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글로벌한 사회문화 운동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와 현실 재발견을 촉구한다. 1994년 초연 당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한일합작 '위안부의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중일 삼국의 예술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의 공연 '그들만의 진실'은 한국과 중국의 예술인들이 합작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이다. 2015년 3월 14일, 서울 광화문 아트홀에서의 낭독 공연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의 동시 확대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35] 나눔의 집 홈페이지; http://www.nanum.org/

[36]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 홈페이지; http://www.safmis.or.kr/

3.1.1.5 희움[37]

희움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의 브랜드이다. 할머니들의 압화작품을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 대중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 프로젝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디자인과 상품명의 가방, 액세서리, 도서, 엽서 등의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고, 일부 수익금을 대구에 지어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였다. '할머님들의 못다 핀 희망을 꽃 피워드린다' 는 의미를 지닌 고려대의 'Enactus Blooming Project', '청소년희움서포터즈', '평인권캠프'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재해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3.1.2 한국 민간단체 특성

위의 〈3.1.1 한국 민간단체 현황〉에서 살펴본 한국의 다섯 민간단체들만으로 한국 전체에 존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단체의 특성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위의 다섯 민간단체의 왕성한 활동과 그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3.1.1 한국 민간단체 현황〉에 제시된 연구를 통해 한국 민간단체의 전반적인 특성을 상당한 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진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업화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들마다 서로의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된 '문제의 해결' 의 의미는 정대협의 '일곱 가지 요구사항'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38] 그 일곱 가지의 주요 내용은 주로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보상을 통한 올바른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신대연구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직의 목적을 "'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 발족하였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39] 하지만,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존재함과 동시에, 각 민간단체들의 기능은 분업화되어 본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연구자료의 생성과 유통,

---

[37] 희움 홈페이지; http://www.joinheeum.com/index.html

[38] 정대협 홈페이지, 정대협의 활동과 7가지 요구(1.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진상규명, 3.국회결의사죄, 4.법적배상, 5.역사교과서 기록, 6.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책임자 처벌);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101

[39]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정신대연구소 소개; http://www.truetruth.org/about/about.htm

출판에, 정대협은 정기수요시위, 생존자 복지활동, 국제연대 활동에, 그리고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와 희움의 경우는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등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들은 정부와 단체의 협력 혹은 단체간 연대활동에 적극적이다. 비록 〈3.1.1 한국 민간단체 현황〉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 민간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연대나 정부와의 협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교부 홈피이지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e-역사관을 통해서 정대협이나 한국정신대연구소로와 같은 관련 민간단체들의 홈페이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대협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해외 민간업체나 국제기구의 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종종 중국의 소식을 전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하나의 한국 민간단체들의 홈페이지도 중국어 버전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대중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연대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록 직접적인 국제연대에 대한 정보는 얻기 쉽지 않지만,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한국 국내 위주의 포럼과 회의의 개최를 통해 국내 대중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충분히 이끌고 있다. 특히, 1992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1000회를 맞은 정대협의 수요시위와 민간단체들의 관련 활동에 대한 열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언론의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2015년 들어 15회를 맞은 아시아연대회의도 아시아 8개국이 참가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독자적 회의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간단체들의 국제사회로 향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3.1.3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인터뷰 (前반크연구원 김새봄)[40]

현재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석사생 김새봄 씨는 반크(VANK)에서 연구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반크(VANK)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영어약자로서 사이버 국제학급교류사업, 한국홍보자료망 구축 사업,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이버외교사절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다.[41] 김새봄 씨는 특정한 부서에 속해있지 않았고, 주로 동북아에서의 독도 문제, 역사왜곡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답하였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1)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국 내의 민간단체 활동 현황, 2) 국외

[40] 본 인터뷰의 내용은 2015년 5월 29일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북경대학교 내 광화(光华) 카페 내에서의 한정민과 김새봄 사이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41] 반크 홈페이지, 반크이야기, “반크의 꿈”;
http://diplomat.prkorea.com/vank_story/bank_dream.jsp

홍보 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3)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중 협력 현황 및 전망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김새봄 씨는 VANK의 활동이 국내 학술단체와 민간단체간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였다. VANK의 경우, 학술적인 연구나 전문적인 자료는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자문 받으며, 이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통해 VANK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비록 그 모든 네트워크가 MOU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협력으로 단체간의 사업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외 홍보 접근 방식은 한국의 역사나 민족 중심의 차원보다는 '여성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홍보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협력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아직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중 양국 간의 이해 및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공통된 역사경험'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3.2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및 특성

3.2.1 중국 민간단체의 현황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보상 문제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본 문제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생존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1993년 중국역사학자 쟝하오(江浩)로부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첫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술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지는 부족하였다.[42] 중국 학자들은 1997년에 42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동경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战争与对女性的暴力)' 토론회와 1998년 동경에서 열린 '국제위안부문제 세미나(国际慰安妇问题研讨会)', 그리고 같은 해에 캐나다에서 열린 '항일전쟁역사보호회 연회의(世界抗日战争史实维护会年会)' 등의 학술회의들을 통해 중국에서의 독자적인 일본 위안부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43] 본 장에서는 상하이사범대학교의 일본군위안부연구소와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민간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

[42] 胡银平,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p. 77;

[43] 中国慰安妇研究中心 홈페이지, 中国慰安妇研究中心成立;
http://renwen.shnu.edu.cn/Default.aspx?tabid=6631&language=zh-CN

3.2.1.1 일본군위안부연구소(慰安妇研究中心)[44]

상하이 사범대학교의 인문미디어학과 학과장 쑤즈랑(苏智良)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있어서 중국의 독보적인 연구자로서, 1999년에 상하이사범대학교 일본군위안부연구소(慰安妇研究中心)를 설립하고, 2007년 7월 5일, 중국의 항일전쟁 시작 70주년을 맞이하여 상하이사범대학교의 일본군 위안부연구소에 자료관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비록 미미한 정부의 지원과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서울과 동경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자료관으로서 한미일 삼국의 정상들과 시민들의 참관이 이루어졌다.[45] 본 연구소는 현재까지 일본의 오카마사하루 나가사키 평화 박물관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의 자매 연구소로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짧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미미한 지지로 아직까지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군위안부연구소장 쑤즈랑(苏智良) 교수는 2005년 '상해일군위안소실록(上海日軍慰安所實錄)'의 출간을 밝히면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과 연구를 위해 한·중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46]

3.2.1.2.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会)[47]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会, All-China Women's Federation(ACWF))는 1949년에 설립되어 중국여성들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되었다. 본 단체는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경제와 정치, 문화 과학, 사회와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여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와 함께 현재 언론매체나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어와 영어로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 본 단체는 홈페이지 상의 '인물' 코너를 통하여 중국 위안부 할머니를 소개하거나 '뉴스' 코너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타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직접적으로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비록 설립 이후 중국공산당에 예속된 기관에서 1995년에 비정부기관(NGO, 혹은 민간기관)로서의 공식적인 등록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중국공산당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로 인해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

[44] Ibid.

[45] 中国'慰安妇'研究中心 홈페이지, 资料馆介绍;
http://cms.shnu.edu.cn/Default.aspx?tabid=6671&language=zh-CN

[46] 경향신문, "中 쑤즈량교수 '위안부문제 한•중 공조 필요'", 2005/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0191741381&code=960100

[47] 中华全国妇女联合会 홈페이지; http://www.womenofchina.cn/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48]

3.2.2 중국 민간단체의 특성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간기관의 활동은 증언과 증거를 기본으로 한 학술적 연구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 조사와 그들에 대한 보상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상하이사범대학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나 올해 5월 개봉한 중국 영화 '다한(大寒)'의 제작자로 주목 받은 장솽빙(張雙兵)과 같은 민간연구자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장 쑤즈랑(苏智良) 교수는 1992년부터 13년 동안 800일의 현장답사를 통해 일본군에 무참히 유린당한 중국인 군위안부 피해자 27명의 증언을 담은 '여상(女殇)'을 중국에서 출간했다.[49]

또한, 쑤즈랑(苏智良)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이 집중된 상하이에서 발견된 149개의 위안소를 바탕으로 상해일본군위안소실록 (上海日本軍慰安所實錄)' 발간함으로써 위안소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50] 그는 본인의 저서인 전시일본군의 제1위안소 (战时日军的第一个慰安所), 상하이의 네 개 위안소 조사 (关于上海四个慰安所的调查), 중국침략 일본군의 제도약론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등에서 위안소 자료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그는 그 중에도 '关于上海四个慰安所的调查'를 통해서 상하이에 위안소가 160개 이상이 있었고, 그 중 상하이에 최초로 설립된 '양가댁오락소(杨家宅娱乐所)'과 1932년 1월 일본 해군 육전대사령부가 해군 특별위안소로 지정한 상하이 홍커우(虹口)구의 '대일살롱(大一沙龍)' 등 일본인 개설 여관 4곳이 일본군 위안소의 시초임을 발견하는데 기여하였다.[51]

---

[48] Zhang, 2001, pp.159-179; in Ping-Chun Hsiung, Maria Jaschok, and Cecilia Milwertz (eds.) *Chinese Women Organizing: Cadres, Feminists, Muslims, Queers*, Oxford, England: Berg Publishers (2001) "In Search for 'Authentic' NGOs: the NGO Discourse and Women's Organizations in China," pp.159-179 in Ping-Chun Hsiung, Maria Jaschok, and Cecilia Milwertz (eds.) Chinese Women Organizing: Cadres, Feminists, Muslims, Queers, Oxford, England: Berg Publishers (2001)

[49] 中国青年报, 2014年 12月 16日; "《女殇》：为最后27位慰安妇送行";
http://zqb.cyol.com/html/2014-12/16/nw.D110000zgqnb_20141216_2-09.htm

[50]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소' 찾아낸 쑤즈량 교수, 2005/6/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28753

[51] 中國新聞網, 2014年 8月 11日, "调查显示日军在沪慰安所逾160家";
http://www.chinanews.com/sh/2014/08-11/6481851.shtml

하지만, 중국에서의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민간기관은 학술연구에 그 기능이 한정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중국 내의 여론형성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고, 상하이사범대학교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연구소장인 쑤즈랑(苏智良) 교수가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를 홀로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학술연구에 한정되어 해석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중국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 연구로 그 연구범위가 좁아질 경우, '여성주의' 나 '인권주의' 와 같은 초국가적인 가치보다 중국의 '민족주의' 차원에서만 한정되어 해석될 경향이 강하다.

4 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민간단체의 협력 가능성과 그 전망

최근 들어 중국 내의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주목 받고 있다. 중국위안부연구소의 연구소장 쑤즈랑(苏智良) 교수는 중국의 첫 '난징대학살 희상자 추모일' (2014 년 12 월 13 일) 하루 뒤인 14 일, 중국 일간지 징화스바오(京华時報)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념일을 지정, 국가적 차원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국가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런 국가적인 추모일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홀로코스트 추모일'과 같이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991 년 8 월 14 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던 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일을 제정하자" 고 한중의 협력적인 움직임을 제안했다.[52]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추세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중의 민간협력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비정부기구의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민간기관의 정치환경적 특수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것이 한-중 민간단체 협력에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52] 京华時報, 2014年 12月 24日, "苏智良：抗战研究还需要更多高水平成果" ; http://epaper.jinghua.cn/html/2014-12/14/node_102.htm

4.1 한국과 중국 민간단체의 협력 현황

2014년 2월 8일과 9일에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지의 학자들이 한국과 일본 학자들과 함께 상하이에서 "소통, 협력, 추진 – 아시아 '위안부' 문제 회의"라는 이름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중국의 상하이사범대학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위안부 전문가, 중국 당안국 관계자, 한중일 언론방송매체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회의 대표자들은 각국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와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심도 깊은 조사와 국가 간 협력 업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다.[53] 발표자로 참가한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일본은 한국에서의 위안부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였다"면서 "현재 한국 내에 남아 있는 자료는 수량이 제한적이어서, 중국 당안국을 비롯한 중국 내 자료에 대한 열람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54] 본 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상해와 난징의 중국 국가기록보관소 당안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상해시와 남경시 당안국 관계자는 "일본 침략전쟁 당시 자료가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으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위안부 관련 당안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절차를 통해 자료를 연구하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양국 연구 협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55]

하지만, 1999년에 발족한 상하이사범대학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15년이 지난 2014년에야 비로소 성균관대 동북아시아연구소와 첫 공동학술연구 회의를 주최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위안부연구소가 설립 초기부터 일본의 오카마사하루 나가사키 평화 박물관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자매 연구소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던 바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또한, 상하이사범대학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영어와 일본어 버전만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영어와 일본어만을 번역본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지금까지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4.2 한국과 중국 민간단체의 협력의 한계와 중국 정치환경의 특수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중 민간협력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학술적인 연구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

[53] MBN뉴스, 2014년 2월 16일, "'中 일본군 위안부 20만명…한국보다 많다' 연구 결과 나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1648854

[54] 상해한인신문, 2015년 2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초로 상하이 국제학술회의 개최"; http://blog.naver.com/shkonews/60209142191

[55] Ibid.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비(非)학술민간단체의 부재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한국의 비(非)학술민간단체와 대응하여 협력할만한 중국의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나마 역사가 깊은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会)가 중국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 신장에 있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의 '생산(生産)' 이 아닌 '유통(流通)' 에만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으며 주동적인 활동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접근과 그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된 풀뿌리(grassroot)식 활동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환경의 특수성 하에 중국의 민간기관 혹은 비정부기구(NGO)가 겪는 정치적 민감성 및 제도적 한계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그 제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대부분의 비정부기관(NGO)을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기구' 라는 뜻의 'GONGO (Government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라 지칭하며 그 존재와 활동의 많은 부분이 중국공산당에 종속되어있다고 지적해왔다. 중국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분류기준은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의 비정부기구는 '관반(官办, officially organized)비정부기구' 와 '민반(民办, popular)비정부기구' 로 나뉜다.[56] '관반비정부기구' 는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은퇴한 정부인사가 그 기관의 장(長)으로서 임명된다. 반면, '민반비정부기구' 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순수히 시민의 자발적인 투자와 참여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관반비정부기구' 는 '자상이하(自上而下, top-down)' 으로, '민반비정부기구' 는 '자하이상(自下而上, bottom-up)' 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57] 이러한 비정부기구에 대한 분류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방식과 다르다. 중국의 '관방비정부기구' 는 그 재원의 출처와 인사임명방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민반비정부기구' 만 한국의 비정부기구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1998년에 제정된 중국공산당의회의 법규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의 모든 비정부기구들은 필수적으로 '업무주관단위(业务主管单位)' 를 본 기구들의 스폰서로 두어야 한다.[58] 이 때의 '업무주관단위(业务主管单位)' 는 자치주 혹은 그 이상의 정부기관이거나 그러한 정부기관으로부터 권위를 위임 받은 기관에 한정된다. 특히 '민반비정부기구' 의 경우 조직의 특성과 구성의 모호성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더 엄밀히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치환경은 중국에서의 민간기관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제약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3 중국내의 비정부기구 종사자〉에서 현재 중국에 파견되어

[56] Lu, 2009, p 4-5.

[57] Lu, 2009, pp 4-5

[58] Ibid., p4

있는 한국 비정부기구 아시아아프리카난민교육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영아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시민사회의 민간단체 조직과 활동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중국의 정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성인권' 등과 같은 초국가적인 가치에 호소하여 한-중의 협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로부터 민간단체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과 같은 초국가적인 가치는 중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우려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한-중 양국간의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4.3 중국내의 비정부기구 종사자 인터뷰 (아시아아프리카난민후원회 우영아)[59]

현재 한국의 비정부기관 아시아아프리카난민후원회의 북경지점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우영아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한국에 그 소속을 두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 범위나 그 내용,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에 의해 겪게 되는 제약 등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영아 씨는 현재 아시아아프리카난민교육후원회에서 8개월 째 파견직으로 일해왔다. 주요업무는 초등학교 교육지원(인성교육, 예체능 등)과 나눔교육(중, 고등학교 대상 리더십교육)이다. 그녀는 '한국 NGO의 중국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직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민감하며 외국의 비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비정부기구의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정식적인 등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 맞춰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녀의 대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부기구는 외국계 비정부기구로서 등록하고 점차 중국 내의 비정부기구로서 등록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월드비전(World Vision)이나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같이 세계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비정부기구들도 등록에 3-4년은 걸렸고 한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난민교육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 중국 내 비정부기구 등록절차가 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비정부기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어떤 비정부기구던지 그 이념과 활동이 중요하므로 한국의 국가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 진출할 방법은 외국계비정부기구(INGO)로서 등록하는 것이 우선인데, 북경은 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등

[59] 본 인터뷰의 내용은 2015년 5월 30일 한정민과 우영아 사이에서 이메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접간 가능한 경우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는 상급주관단위(上级主管单位)의 허가도 필요하고 지역별로 등록규정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4 한국과 중국 민간단체의 협력에 대한 전망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의 민간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 존재하는 정치환경적 특수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의 민간협력에 제약적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1998년 중국공산당의회의 법규제정을 비정부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이 아니라 비정부기구를 보장하는 법치기반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비록 제정된 법규에서 정의하는 비정부기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비정부기구의 기능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지만, 법규의 제정은 시민사회의 늘어나는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중국정부가 구체화 혹은 조직화하여 정치체계에 반영한 결과라는 시각이다.[60] 또한, 다양화되는 중국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국제사회와의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교류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중국정부에게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이후의 중국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제화의 물결에 함께하는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제비정부기구(INGO)의 중국진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중국의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며 중국사회의 급진적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쑤즈랑(苏智良)과 장솽빙(張雙兵)과 같은 민간활동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변화의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국정부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을 찾아가며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기민히 움직이며 증언을 수집하고, 정부와 달리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존하는 위안소를 찾아 조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직 교사 장솽빙(張雙兵)의 증언집을 기반으로 올해 제작발표회를 연 영화 '다한(大寒)'은 중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민간활동이 상당히 개방되고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60] Ma, 2006, p76

III. 결론

본 논문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떠올려보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는 예전과 다르게 비쳐진다. 매주 수요일마다 울리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 역사 속의 '한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고, 70여 년 전에 동북아에 건재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로 인해 야기되어온 동북아의 역사갈등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에,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각기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한-중-일 삼국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성인권'이라는 초국가적인 가치로서의 이해가 요구되어왔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끈끈한 역사적 공감대가 증명하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해석과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한-중-일 삼국이 문제해결에 대한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만을 달릴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동북아 평화의 한 국면을 시작하는 작은 움직임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정치환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양국의 민간단체 협력의 부재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시급성과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앞으로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까지 그 움직임이 학술연구 협력에 그쳐왔지만, 중국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연대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학술논문

문소정,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Vol95, 2012, pp.315-345

정진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Vol11 No.1, 2002, pp.21-40

최춘흠, 「시진핑 시대 중국 보수·민족주의 색채 띨 듯,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 년 12 월호(통권 제 324 호), 2010, pp.22-23

허란주,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亞細亞硏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p.7-40

학위논문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기타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2013), *The joint resolution of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해외문헌

단행본

Lu, Yiyi. (2009).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hina (The rise of dependent autonomy),* Rourtledge

Ma, Quisha. (200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China, Paving the way to civil society?*, Routledge

Zhang, Naihua. (2001). "In Search for 'Authentic' NGOs: the NGO Discourse and Women's Organizations in China,"

학술논문

胡银平,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于招娣. *从慰安妇问题管窥日本文化*. MS thesis. 延边大学, 2009.

苏智良, and 陈丽菲.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 4 (1998): 89-104.

苏智良. "关于上海四个日军慰安所的调查." *抗日战争研究* 2 (1999).

苏智良, and 陈礼茂. "我研究 "慰安妇" 问题的历程." *史林* 1 (2006)

苏智良.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新发现的关东军 "慰安妇" 档案解读."*社会科学战线* 7 (2014): 019.

江文君, and 苏智良. " "战争与和平" ——中日关系历史研究 (四篇): 困扰中日关系的历史问题——以 "慰安妇" 为例." *甘肃社会科学* 3 (2007): 119-123.

赵青青. *日军 "慰安妇" 幸存者生存状况调查与 PTSD 初步探究*. MS thesis. 上海师范大学, 2012.

经盛鸿, and 胡卓然. "南京日军 “慰安所” 与 “慰安妇” 概论." *日本侵华史研究* 3 (2013): 10-25.

胡银平. "中国 “慰安妇” 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24.1 (2008): 76-79.

田苏苏. "日军慰安妇政策在华北地区的实施." *抗日战争研究* 2 (2005): 166-188.

潘德昌. "日本学术界 “慰安妇问题” 研究述论." *社会科学辑刊* 4 (2004): 112-117.

기타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5),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The United Nations (201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C.12/JPN/CO/3)*

The United Nations (201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CERD/C/JPN/CO/7-9)*

为和平解决慰安妇问题对韩中民间组织合作可能性的研究

韩政澗，管玲玉
北京大学

摘要

迎接抗日战争或者光复胜利70周年的中国和韩国政府强烈批判日本安倍政府歪曲日军慰安妇问题真相。中国和韩国在回顾过去受日本侵略历史时将日军慰安妇问题当成是各自国家民族共同体全体的问题，并希望得到国际社会的援助。另一方面，美国和欧洲许多历史学者在对中国和韩国的民族主义态度表现出担忧的同时，称日军慰安妇问题的本质士日本政府对女性人权侵害问题的无所谓的态度。本论文认为，在日军慰安妇问题作为女性人权受侵问题在国际社会上受到更多关心的同时，将该问题理解维超国家主义和脱民族注意的解释和研究方法是和平解决该问题的核心。本论文提议维和平解决慰安妇问题中国和韩国的民间团体需要进行合作，并探讨了相关可能性。中韩两国关于日本慰安妇问题的相关民间机构在国内外政治变化的形势下依旧一直坚持自发的和独立的研究与活动。在该层面上，本论文首先对中韩两国的民间机构的研究和活动进行相关研究，并探讨合作的可能性。

笔者在与韩国民间机构VANK工作人员金新春的访谈中更加详细的了解到韩国民间机构在慰安妇问题上活动的特征和相互作用。相反，在中国，虽然慰安妇问题得到很多的关注和持续的研究，但是中国的民间机构目前尚未能对该问题进行多角度的活动。本文认为造成该现象的重要原因是中国政治环境的特殊性、以及在中国的民间机构受到的制约以及中韩民间机构合作的不足。我们将会通过描述对现在中国的韩国民间机构亚洲非洲难民教育后援会工作的吴英儿女士的访谈

来了解现在韩国民间团体在中国体会到的现实性的制约因素。但是，鉴于国际社会对中国社会文化的开放和日军慰安妇问题上中国民间活动家的显著的活动，我们不能只是从悲观的角度来分析解决最近较热的日军慰安妇问题。

关键词：

日军慰安妇问题、 中韩民间机构合作、民族主义、脱民族主超国家主义、中国政治环境特殊性

序论

2015年是二战结束70周年，韩国称之为“光复70周年”，中国则称之为“抗战胜利70周年”。虽然名称不同，但同为日本帝国主义侵略受害者的中国和韩国在解读历史以及情感共鸣上想必是一致的。2015年4月日本首相安倍晋三访问美国时发表演讲，并且提出修改宪法第九条，中国和韩国政府均公开强烈批判此种行为。此外，两国民间组织还进行了一系列合作，例如共同制作以慰安妇为主题的话剧和电影，在美国等地建立慰安妇少女像等，两国民间要求日本反省历史的声音越来越高。

2015年5月，亚洲研究协会的186名世界历史学者发表共同声明，敦促日本首相安倍晋三用行动来反省慰安妇等问题。但与此同时，他们还指出慰安妇问题的本质是女性权益受到侵犯，而中国和韩国的爱国主义倾向反而成为解决慰安妇问题的障碍。[1]因为韩国、中国或者日本的政治或者意识形态的倾向给正确认识历史带来威胁。在历史问题上，民族主义倾向不仅对韩日、中日，且对中韩共同研究慰安妇问题带来了难题。

国际社会要求日本就慰安妇问题进行道歉的呼声加强。2007年7月30日美国下议院通过“决议案121”，认识到日本在日军慰安妇问题上的历史责任以及正式的道歉的需要。2014年联合国人种差别撤销委员会在联合国报告书上称，大部分的慰安妇受害者没有得到承认、道歉以及任何形式的赔偿。在国际社会对该问题给予关注的形势下，慰安妇最大受害国的中国和韩国最近也加强了合作。这将成为将慰安妇问题从民族主义的锁链中打开，回归问题本质，和平解决该问题的基础。

本论文试图通过建立对慰安妇问题的一贯的、正确的历史观，解释为和平解决历史问题，韩中民间机构合作的必要性。在寻找慰安妇问题相关的中韩两国民间机构合作方案的过程中发现了以下问题：中国和韩国在慰安妇问题上是否存在认识差异？为和平解决慰安妇问题中韩民间机构

[1]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2015, p.2

合作的必要性在哪儿？为解决慰安妇问题中韩民间机构至今作出了什么样的努力，此种努力具有什么样的特征？为解决慰安妇问题怎样制定中韩民间机构的合作方案？本论文的目的是通过回答以上问题来探索两国民间层面的合作方案。

第一章 日军慰安妇问题，及东北亚现状

日军慰安妇问题在20世纪90年代初成为东北亚三国主要政治外交问题之一。在韩国，虽然人们最初是从人权侵犯的角度来看待慰安妇问题，但是却不可避免地与殖民地历史经验结合，引起了韩国人作为一个民族整体的受害意识。韩国国内对慰安妇问题作出了民族主义的解释，该问题在中国以及其它亚洲国家也受到关注并渐渐成为一个国际性问题。本章将解释慰安妇问题如何在韩国和中国被提出，以及如何将此问题与民族主义和超越国家主义结合来分析。本文还以居住在北京的40名韩国学生和124名中国学生为对象进行乐关于日军慰安妇问题的问卷调查，从这样一个侧面来介绍韩国和中国人对该问题的认识。

1.1 韩国和中国的日军慰安妇问题

1.1.1. 韩国国内的日军慰安妇问题

20世纪90年代东亚各国对日军慰安妇问题形成舆论的主要原因为韩国民间机构的积极活动和诉求.1990年1月한겨레신문报纸上曾发表过一篇윤정옥写的关于慰安妇的文章。日本参议院预算委员会对此回应称“日军慰安妇与军队和政府无关”。对此，韩国舆论强烈要求日本政府正式道歉并还原历史真相。1年后，金学顺作为太平洋战争受害者提出赔偿要求，日本政府在1992年和1993年经过两轮调查，通过加藤紘一和河野洋平两位国防部长的谈话承认了慰安妇问题上日本政府的干预。日本政府还在1996年8月建立亚洲女性基金，间接地向日军慰安妇受害者表达歉意及提供赔偿金。但是，韩国挺身队问题对策委员会对此强烈反对，韩国政府和舆论要求日本政府的正式道歉以及法律上的措施，拒绝与亚洲女性基金的合作。[2]

韩国外交部根据2005年韩日会谈公开文后民间合作委员会公布的结果称，慰安妇问题“是反人类的违法行为，不能根据请求权协定来解决，日本政府仍未付其应付的法律责任”。[3]20世纪90

[2] 아시아여성기금, 디지털기념관; http://www.awf.or.jp/k3/index.html

[3]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양국 입장;

年代以后，日在军慰安妇问题影响韩日外交的形势下，韩国政府加快与民间机构的合作，积极促进慰安妇受害者的注册。截至2015年4月，注册的慰安妇受害者为238名，韩国国内健在人数48名，国外5名，平均年龄为88.4岁。[4]

1.1.2 中国的日军慰安妇问题

2015年4月28日中国外交部发言人洪磊在例行记者会上表示，“慰安妇问题是日本在二战时犯下的罪责滔天的反人类罪行”，他对访问美国的日本首相安倍晋三的“慰安妇人身买卖”的言论表示强烈批判。[5]此外，中国日军慰安妇民间研究者张双兵以127名慰安妇受害者的证言为基础制作的电影《大寒》中表现了中国普通人对慰安妇问题的认识。[6]不过，中国国内对慰安妇问题的正式关注始于20世纪90年代以后，并且是受到韩国集中报道慰安妇问题，要求日本政府的正式道歉和赔偿的韩国民间机构的影响。此后，中国国内对慰安妇受害者也开始关注起来。山西省的万爱花大娘作为中国慰安妇受害者的代表从1992年开始6次向日本政府投诉，要求其正式道歉和赔偿。但是，中国政府和社会团体和舆论给予的支持力度并不够。1996年，日本亚洲女性基金的赔偿对象中，中国的慰安妇受害者被排除在外。

中国慰安妇问题最先的研究者是江浩。[7]他进行了大量的调查，对中日韩慰安妇受害者进行采访，并搜集相关资料。1999年慰安妇问题学者苏智良教授建立了中国慰安妇问题研究中心，这是中国第一个研究慰安妇问题的中心，这加快了中国慰安妇问题研究的步伐。2000年慰安妇问题研究所、历史研究编辑部和抗日战争研究编辑部共同举办了慰安妇问题的学术会议。世界各国的175名学者参加了此次会议，这成为了中国慰安妇问题研究的重要契机。虽然有人指出中国对慰安妇问题研究的历史较短且民间机构的关注和支持不足，但是慰安妇问题开始成为国际性问题，最近中国的慰安妇研究也受到关注。[8]据中国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研究中心的数据，2015年注册的

---

http://www.mofa.go.kr/trade/areaissue/weasia/bomb/index.jsp?menu=m_30_30_10

[4]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e-도서관, 정부등록자현황;
http://hermuseum.go.kr/sub.asp?pid=22

[5] 데일리안, 중국 ‘일본군 위안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아베겨냥;
http://www.dailian.co.kr/news

[6] JTBC, 중국서 '위안부 실상' 영화 제작…"복수 아닌 평화", 2015/5/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1970

[7] 胡银平，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p. 77;

[8] Ibid., p78;

慰安妇受害者仍然健在的有20名，[9]电影《大寒》剧作家张双兵从1992年开始到现在的在山西和河北省的调查，2015年他采访的127位受害者中仅有11名仍然健在。[10]

1.2 日军慰安妇问题中的民族主义和超越国家主义

韩国和中国对日军慰安妇问题存在多种认识，且在同一国家内也存在不同价值观的情况，且不同价值观的机构之间也存在相互联系和冲突。从最初的女权主义发展到民族主义，中国和韩国的大多数民众对日军慰安妇问题倾向于将其认知为国家对国家或者民族对民族的对立结构，并纳入相对应的民族国家的共同体问题上。

另一方面，日军慰安妇问题一方面是从女性人权和对特定民族的剥削引来的问题，另一方面还可以理解为国家附加于人民身上的普遍的人权侵犯问题。[11]慰安妇问题从1980年代后期开始在韩国受到关注，在早期由女性团体提出，后来受到其它民间机构的影响范围扩大。在韩国曾是日本殖民地这一历史史实的基础上，以民族主义为基础，在韩国国内获得了广大范围的支持。在中国，慰安妇问题与南京大屠杀、日本教科书等其它历史问题以及钓鱼岛争端等领土纠纷结合在一起，表现出民族性。但是，随着时间流逝，日本与其它受害国的民间团体的联系形成，国际社会上，日军慰安妇问题渐渐发展为超越国家层面的具有普遍意义的人权侵犯的问题。[12]

1.2.1 日军慰安妇问题和民族主义

对历史赋予民族主义色彩是从20世纪80年代后期苏联解体、冷战体系瓦解时形成的。冷战结束后美国的霸权主义在多极化的环境下进行，国家的主要目标不再是意识形态而是民族的繁荣与发展。日本在20世纪80年代经济发展，强调日本的国家本质性，并发展为日本的“国家正常化”。在这一过程中的日本修正主义的历史解读方法在韩国和中国表现出担忧日本帝国主义历史观的复活，也成为20世纪90年代初活跃的东北亚历史纠纷的缘由。在此种背景下，韩国和中国强调过去

[9] 该数据来自2015年5月31日与上海师范大学国际关系学学生暨陈建行先生的邮件中了解到。

[10] 중앙일보, “중국 위안부 참상 폭로 127명 중 생존 11명뿐”, 2015/5/1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30767&cloc=olink|article|default

[11] 정신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Vol11 No.1, 2002, p21

[12] 정진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Vol11 No.1, 2002, p22

民族的苦难，对日军慰安妇问题也走向了用民族主义来解读的倾向。

1.2.1.1. 韩国对慰安妇问题的民主主义解读

在韩国，20世纪90年代以批判女性人权侵犯为基调，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会（挺队协）开始要求日本政府对慰安妇受害者们进行正式的道歉以及法律上的赔偿。慰安妇问题被认为是日本对韩国女星的性侵夺，这既是对女性个人的也是对整个韩国社会的性暴力。在亚洲女性基金和挺队协以及其它民间机构间的矛盾升华后，慰安妇问题成为“侵略政治的骨髓”以及“战后问题处理的试金石”，民族主义的解读进一步扩大。[13]

但是，全世界各国的女权主义者们对韩国的这种民族主义立场表示批判，并认为这种倾向不利于为解决慰安妇问题而超过国家建立的女权主义联盟的发展。[14]因为将慰安妇问题抽象化成“民族所受伤害”时就很难讲重点集中在受害女性个人的具体的经历。另一方面由女性主导的女性运动因为民主主义而使得女性的经历边缘化，因此有主张称韩国的民族主义将社会上弱势群体的经历和声音变得不可视，反而起到一种压迫的作用。[15]

日军慰安妇问题相关的女性联盟因为受到民族主义的限制而不自由，由韩国女性和日本女性共同主办的从20世纪90年代到现在20余年的亚洲联盟会议一直召开。通过这些会议女性人权运动家们就与慰安妇问题相关的民族主义态度和倾向表示理解，并开始强调女性联盟的超国家的女权主义的实践活动。[16]并且，1998年4月9日联合国人权委员会女性团体机会中“战争与女性上的暴力日本网络”代表松井和比提议第5次亚洲联盟会议得以决定，从2000年开始日军慰安妇问题上的刑事责任和相关的日军性奴隶专法国际法庭召开。[17]虽然由于是民间组织所以协定不具有法律约束力，但是却具有将慰安妇问题，比起是一个韩国民族主义的特殊性殖民主义，更把它看做是一个战时性暴力与女性人权侵犯问题，将其放到一个一般性的框架与结合的问题上，从这点看，

---

[13]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3

[14] 허란주,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7

[15]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3

[16] 문소정,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Vol95, 2012, p315

[17] 두산 시사상식 사전, 여성국제전범법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51&cid=43667&categoryId=43667

具有重大意义。[18]

1.2.1.2 中国民族主义的特殊性与日本慰安妇问题的解读

在慰安妇问题上，中国的民族主义视角因“中国民族”的特殊性而与韩国或者日本的民族主义不同。以2010年为准，中国的汉族人口占总人口的91%，其它55个少数民族各自拥有自己固有的传统与文化，共同构成了“中国人民共和国”。即，中国人民共和国在1949年成立以前近代西欧社会上所揭示的“民族主义”，“单民族国家”的概念在中国并不存在。在这种意义上，东北亚国家间的历史纠纷引起的“民族主义”在中国的立场上有被解释成中国各民族自主权和独立权的意味，所以在中国“民族主义”应当解释为“爱国主义”或者“中华民族主义”。

中华人民共同国成立以后中国一方面作为一个多民族国家，另一方面在“中华民族国家”的概念下生活。在20世纪80年代发生的日本关于南京大屠杀的历史教科书问题引起中国人的反日情绪后，20世纪90年代产生的慰安妇问题一起，持续地扩大。2010年以后中国东南海领土纠纷引起中国国内抵制日货的活动，中日的外交摩擦加大。2013年开始习近平任中华人民共和国国家主席后，中国的民族主义色彩更加明显。特别是，以“中国梦”为基调的习近平主席的中国共产党中华民族复兴的民族主义价值观得到强调。[19]韩国外国语大学国际部教授黄宰浩称习近平的中国梦的第一目标是国家统合，他通过提出中国梦讲13亿的中国人不论民族、地区和贫富阶层凝聚成乐一个共同体。[20]

1.2.2 日军慰安妇问题和超国家主义的价值

2015年4月，日本政府将征用朝鲜人的设施遗址申请登录世界文化遗产，而韩国女性家族部从2014年开始遗址致力于将日军慰安妇记录材料登录为世界纪录遗产名录等，与历史问题相关的东北亚国家间的外交战火力大开。这样的“民族对民族”或者“国家对国家”的慰安妇问题以国家社会为背景舞台，事件的重要性被扩大。就像之前提到的那样提均为安抚问题是对国家人民的基

[18]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

[19] 최춘흠, 시진핑 시대 중국 보수·민족주의 색채 띨 듯,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2010년 12월호(통권 제324호), 2010, pp. 22-23

[20] 황재호, 「시진핑과 중국의 꿈」, 경향신문 국제블로그 경계를 넘어서(경향 국제칼럼), 2013; http://world.khan.kr/560

本权的逼迫和性奴隶 对女性人权的侵害，在这种超国家的清香中，国家社会的关注和支持渐渐扩大。不仅是联合国，并且国家人权团体，以及第三国第三国也对日军慰安妇问题最近持续向日本要求道歉、赔偿以及法律的措施。慰安妇问题的国际化趋势可从以下三个方面整理。

第一，最近联合多对日本要求解决慰安妇问题等，联合国内对想慰安妇受害者的人权保障和司法赔偿的要求的声音加大。在2013年的联合国社会权威委员会报告书中要求日本正对解决慰安妇受害者因性榨取而持续受到的不良影响，采取一切措施。并且要求日本政府停止对慰安妇受害者的恶意言论和污名。[21]2014年联合国人种差别撤销委员会通过联合国报告书表达出，如果不对慰安妇受害者进行司法接触以及赔偿，他们的权利没有得到完全刑事的话，对他们的人权侵害就是一直在持续的。大部分的慰安妇受害者没有受到承认、道歉以及任何形式的赔偿。[22]

第二，韩国和中国的民间组织表现出将日军慰安妇问题国际化的积极态度。亚洲联合会议通过亚洲内部的多方间合作将慰安妇问题国家化来解决问题的代表性会议。亚洲联合会议是叶舟内部通过多方合作来使得慰安妇问题国际化并要求解决问题的代表性的回忆。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议主持，韩国、中国台湾地区、东帝汶、印度尼西亚、菲律宾、中国、荷兰、日本等8国的受害者与活动家门直接参加，将慰安妇问题从一个单纯的政治、历史、民族的问题扩大为具有普遍意义的战争和女性人权的问题，意义就在此。1992年第一个亚洲联合会议召开，决议通过了“日本军队和政府系统地组织和管理了日军慰安妇，对此日本政府并没有充分地道歉，且只想回避问题。”[23]2015年5月21日第13届为解决日本慰安妇问题的亚洲联合会议召开并受到关注。 挺身协代表尹美香在会议上要求，第13届亚洲联合会议在首尔召开是为了解决日军慰安妇问题，希望各

---

[21]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JPN/CO/3, 17 May 2013, article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lasting effects of the exploitation and to guarantee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comfort wome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ducate the public on the exploitation of “comfort women” so as to prevent hate speech and other manifestations of hatred that stigmatize them.”

[22]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JPN/CO/7-9, 29 August 2014, Article 18; “…The Committee also notes information on compensation provided through the Asian Women Fund established by the State party in 1995 and Government expressions of apology, including the apology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in 2001. Bearing in mi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surviving “comfort women” persist as long as their rigts to justice and reparation are not fully realized,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most of “comfort women” have never received recognition, apologies or any kind of compensation.”

[23]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2013), *The joint resolution of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1; ”Military Sexual Slavery’ is a cold-blooded act which was fulfilled systematically by Japanese military power and autocracy… However, Japanese government’s apology against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on July 6 was hardly satisfactory. Japan’s never admitted its brutal wrongdoing and just tried to avoid any responsibility.”

国的活动家集聚首尔尽早解决日军慰安妇问题。[24]另一方面对二战结束70周年日本政府回避解决慰安妇问题的反和平行为作出严重警告。将敦促日本政府的反省和谢罪的决议案传达给日本大使馆。[25]同时，该决议案还向国际社会要求公开过去联合军政府保存的日军慰安妇的犯罪材料，联合国对真相进行调查等，希望国际社会能够采取行动[26]。

第三，日军慰安妇问题不仅是东北亚的外交问题，更扩大成为了整个国际社会的外交战，非当事国的第三国家的声音也出现。其中在国际社会上影响力最大以及与中国、韩国和日本具有紧密关系的美国的公开立场可以说是最重要的。[27]2007年7月30日美国下院议会通过的决议121引发了国际性的影响。决议案指出，委员会应敦促日本就慰安妇问题的历史责任，日本首相应当公开的承认和道歉并且将这一事实如实地告诉下一代国民。

1.3 慰安妇问题上韩国和中国学生的认识：问卷调查

笔者对北京大学127名中国大学生进行了问卷调查，结果显示，98名学生认为中国政府应该更加重视慰安妇问题，90名学生认为在慰安妇问题上韩中应该进行合作。特别是很多被调查对象认为应该通过民间合作交流和研究活动来赔偿慰安妇受害者的利益以及促进相关福利政策。[28]

第二章 为和平解决慰安妇问题中国与韩国民间组织合作的必要性

[24]통일뉴스, 2015년 5월 20일, “8개국 모여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행동 나선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54

[25]국민일보, 2015년 5월 25일, “’ 일본군 위안부 회피하는 日정부 엄중 경고’ …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9828&code=11110000&cp=nv

[26]연합뉴스, 2015년 5월23일, “일본군 위안부 회피 日정부 엄중경고” 亞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3/0200000000AKR20150523036400004.HTML?input=1195m

[27]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 45; “the Government of Japan (1)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 (2) should have this official apology given as a public statement presented by Prime Minister of Japan in his official capacity…. (4) should educate current future generation about this horrible crime whil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comfort women’ ”

[28] http://www.wenjuan.com/report/project/5559d419f7405b68267a862d

在第一章中我们已经说过日军慰安妇问题不仅是受害者国家的民族的问题而且是女性人权问题或战争性奴隶问题相关的超越国家价值的问题。到现在许多学者在慰安妇问题上现存的各不相同的视角和之间的矛盾，以及对和解可能性做了研究。[29]因此，本论文比起慰安妇问题上现存的民族主义的同时超国家的倾向，对本身的规范的价值判断，更加注重为和平解决该问题韩国和中国的解决方式。并且，对解决该问题政府应起的作用以及其局限性，及在此问题上韩中民间组织合作的可能性。

2.1 日军慰安妇问题下的脱民族性的过程

对慰安妇问题的民族主义的倾向对于曾在日本帝国主义剥削的历史的韩国和中国来说很自然不过。特别是韩国，曾经有36年是日本帝国主义的殖民地，这给近现代的韩国带来了很多的影响，因此，慰安妇问题是韩日两个国家全面关系中最重要的事件。但是，对慰安妇问题带着过多的民主主义倾向的话有可能会干扰分析问题本质的方法且有着“为引发矛盾而矛盾”的副作用。

日军慰安妇问题的本质是“人类基本权和女性人权的侵犯”。对此要求的道歉和赔偿是超过中韩日历史纠纷而具有着超越国家层面的价值。区分韩国慰安妇受害者和日本慰安妇受害者等行为可以说是忘记问题本质的方式。在此层面上挺队协的亚洲联合会议通过亚洲内部多方合作来使得日军慰安妇受害者的基本人权国家化，并要求解决问题，意义就在于此。第5届亚洲联合会议上决定从2000年开始对日军慰安妇问题进行形势问责的“日军性奴隶战犯国际法庭”召开。[30]后来国际社会对慰安妇受害者的基本人权受到更加关注，这成为了在慰安妇问题上要求韩国和中国超越国家层面的接触的契机。

2.2 日军慰安妇问题的独立性和连续性

日军慰安妇问题在国际化之前的初期阶段，民族主义在引起大众关注上起了很大的作用。经历过日据时期的悲惨历史的许多韩国人组织市民团体，为了对慰安妇问题进行学术研究和敦促政府相关政策的实施。但是，如之前所说，慰安妇问题在其它历史问题以及中日韩领土纠纷等民族主义的框架下被解释的倾向很强。并且，慰安妇问题受到大众关注后中国和韩国认为这是国家间应该解决的问题，并期待政府的作用。慰安妇问题和其它战后赔偿问题一起成为国家间的外交问

[29] 허란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8

[30]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여성국제전범법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51&cid=43667&categoryId=43667

题，并带有强烈的政治化的倾向。这使得慰安妇问题在国际社会强烈关注下上升为东北亚三国的国际外交战争。这种政治化的竞争结构不利于解决具有独立性以及持续性的慰安妇问题。

2.3日军慰安妇问题上中国和韩国政府的作用

如前所述，日军慰安妇问题国际化后人们对政府采取何种措施非常期待。韩国的具有代表性的日军慰安妇市民机构挺队协2014年在声明中称，为正确和迅速的解决慰安妇问题，希望韩国政府能够采取积极和堂堂正正的措施。[31]该声明主张2011年日军慰安妇受害者们的控诉得到实现的宪法愿望审判的结果，韩国政府为解决慰安妇为问题进行积极地努力时宪法规定的国家的义务。朴槿惠政府上台以来，韩国政府为解决该问题两次向日本政府提议进行双方协议，在联合国也敦促日本进行有责任的措施。韩国政府的此种对日外交行为获得了民间机构的部分肯定的评价，但是以日本政府的国家责任为背景的法律上的解决的主张不能够完全的开展起来。国家的宪法上义务上的韩国政府不能进行全面和积极地对日外交政策的原因是什么呢？

慰安妇问题是东北亚历史问题中的一个。政府通过外交关系提高国家威信和追求国家利益，在此目标下韩日关系中的慰安妇问题不可能作为一个独立的因素。即，国家间的外交是疏导各种事件的负责的关系，再次看来政府对慰安妇问题的非积极的立场可以看出政府的本质的特性。且韩日两国关系受到韩美日安保同盟的影响的同时并不能解决历史上国家间的敌对的感情，处于此种外交困境上。因此，因为以上的原因日军慰安妇问题上并不能全面的依靠政府间的合作来解决问题。即，要减少纠纷，不仅是政府，还需要以各国间的市民成为中心的民间团体进行多方的超过国家层面的努力。

2.4 为解决日军慰安妇问题韩国和中国民间机构的合作可能性

本论文试图提出一个保有独立性和连续性的解决慰安妇问题的研究和纠纷的方案民间机构应当进行超过国家层面的合作。作为民间团体，更不容易收到国际政治的影响，能够较独立地进行研究。即使是像慰安妇问题等国家间的敏感纠纷，也不会受到国内政治上的很大的顾虑，且能持续地进行活动。在韩国慰安妇问题被提出并得到市民的支持也是因为民间机构的独立性的活动。批判日本帝国主义下的女性人权侵犯的许多民间机构主张保护每个慰安妇受害者个人的人权。但是，在得到许多国民的支持的同时，作为问题性质的个人人权问题的重要性褪色而被服役一种民族共同体下的历史问题。对此，2015年5月亚洲联合会议的186名世界历史学家通过共同声明提出韩国和中国的民族主义倾向正在阻碍日军慰安妇问题的解决，慰安妇问题的本质是女性人权侵

[31]정대협 공동대표 윤미향 블로그, 정대협 성명, ‘한국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당당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요구한다’ ; http://blog.daum.net/hanagajoah/961

犯。[32]即，日军慰安妇问题上国际社会的关注度提高，这要求中国和韩国再次反省慰安妇问题的本质。因此，为和平解决分歧以及追求普遍价值在慰安妇问题上应当采取一种脱离民族主义的超越国家视角的接触方法。

因此，本论文向从韩国和中国民间机构层面上探讨和平解决慰安妇问题的方案。日本帝国主义侵略历史的中国和韩国作为两个国家对慰安妇问题上一直像日本政府表明正式的立场。对日本亲率的受害意识的程度多深，对慰安妇问题的民族主义的解释就有多大。在这种情况下，需要中国和韩国的民间力量合作进行共同研究和开展活动来进行中韩脱民族主义的和超越国家的问题解决方式，回到初期的女性人权等本质问题上来进行共同研究和活动非常重要。并且，两国民间团体的合作比慰安妇问题更加优质的研究也被提上日程。韩国作为第一个关注慰安妇问题的国家，其民间机构的活动以及其历史比较久远，并且民间团体的自由的活动得到保障，可以多角度以及广范围地应对该问题。而中国对社会问题上民间机构的活动受到一定限制研究并没有得到充分地进行，中国本土上发现的慰安所或者慰安妇材料等证言和证据相对来说较丰富。两国间的民间团体相互扬长补短为解决慰安妇问题作出贡献。

第三章 韩国和中国在慰安妇问题上相关民间机构的现状和角色

本章在探讨韩中民间机构合作方案之前将分别分析两国的国家机构的特性。韩国和中国分别对日军慰安妇问题进行了研究并有相关的社会活动，我们将对这些民间机构进行调查，并总结两国机构的异同之处。

3.1 韩国的慰安妇问题相关机构的现状和特性

3.1.1 韩国民间机构现状

韩国大部分的慰安妇相关的民间机构创建于20世纪90年代初期，后来逐渐发展到国际联合的程度，相关的研究和活动也更加多样化。本论文将对这其中的活动比较丰富、具有特性的5个民间机构“韩国挺身队研究所”、“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揭露日本军慰安妇真相的文化知识人联盟”、“分享之家”、'HEEHUM'的介绍来对韩国的慰安妇相关民间机构的全面的研究和活动现状进行分析。除了这五个机构之外，韩国还有很多其它的机构活跃在慰安妇问题上，但本论文暂取这五个职能和特征不是特别重复的机构来进行研究

[32]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5),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p.2

3.1.1.1 韩国挺身队研究所[33]

韩国挺身队研究所建于1990年7月，主要进行调查研究、学术交流、出版等进行活动。从1994年开始为调查海外情况了解海外的慰安妇幸存者的存在并对在中国居住的健在者提供生活支援以及回国帮助，这项活动一直进行了15年。这些调查的结果以文献资料、图片影像资料、证言材料等形式保存下来，并刊行日军慰安妇证言集、相关研究书、大众书等，这些材料在信息交流上作出了重要的作用。特别是韩国挺身队研究所的刊物从1998年8月创刊以来至今已出版53期，保存了主要慰安妇受害者们最新的动向以及记录最新研究成果。最新的53号刊包含了慰安妇问题上中国方面的调查情况和对女性主义、民族主义的研究内容。这些活跃的研究活动是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分享之家、挺身队奶奶的市民集合、东北亚历史财日本慰安妇受害者的E-历史观等多样的相关团体的支援和联合活动来获得合作效果。

3.1.1.2 韩国挺身问题对策协议会[34]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成立于1990年11月16日，是为了阐明并发掘慰安妇问题的真相，对慰安妇受害者提供支持，由37个女性市民宗教学生团体组建而成的。挺队协不仅要求日本政府承认慰安妇罪行、揭露历史真相，并且要求日本国会的谢罪 在历史教科书上如实记录 以及建立慰灵塔和史料馆等直接要求

该机构还对最先召开记者会控诉日本政府的慰安妇受害者金学顺等3人提供援助。在1992年1月8日中午12点开始，每星期三在日本大使馆前进行定期示威，要求日本政府解决慰安妇问题。截止2011年12月7日，已经迎来了第1000次示威。在1992年1月24日在外务部内运营“挺身队 实务对策班” 通过与内务部和大韩红十字的合作受理了“挺身队受害者起诉”。通过这些制定了“生活安定支援法（1993年）”，提供租赁房屋以及“日本战犯的出入境禁止法案（1997年）”等。挺身协不仅在韩国国内而且在国际社会上也大大提高了慰安妇问题的关注度。在1992年的北京世界女性大会上将日军慰安妇问题纳入议题范围，1995年的北京世界女性大会上将慰安妇问题纳入决议案范围。从1992年开始通过亚洲联合会议上帮助亚洲健在的受害者为解决问题作出贡献。

[33]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truetruth.org/index.htm

[3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womenandwar.net

3.1.1.3 分享之家[35]

分享之家是一个为慰安妇受害者的居住福利设施建立于1992年的10月。占地面积359平米，共有10位受害者盛会在这里。分享之家的工作人员将她们的现状传达给大众。此外，通过普通民众和一些日本的捐助在1999年建立了实际上第一个性奴隶主题的人权博物馆“日军慰安妇历史馆”，树立对慰安妇问题的正确的历史观。此外，2002年12月12日建立的国际和平人权中心，为了树立正确的历史观和女性人权意识以及人间的权益保护等组织多次青少年青年志愿者活动。

3.1.1.4 为揭露慰安妇真相的文化知识人联合[36]

日军慰安妇真相揭露的文化知识人联合是亚洲各国的市民团体和广播电视媒体及文化艺术人的联合，他们就慰安妇问题在韩国、中国、日本、菲律宾和中国台湾地区的首都和大城市进行表演和展示。他们通过全世界年轻人和青少年的签名运动等来追求历史真相的活动并且通过YOUTUBE和SNS等社交媒体的方式来进行社会运动。通过这些持续的和全球的社会文化运动来追求重新发掘亚洲的价值和再发掘现实。1994年初演当时曾引起话题的韩日合作“慰安妇的真相”项目喜剧“女骗子，英子”在2014年再次被放映再次引起了韩中日三国艺术界人士的关注。最近上映的韩国和中国合作的最初的关于慰安妇问题的喜剧“他们自己的真相”。2015年3月14日，首尔光华门艺术大厅开始朗诵演出直到2016年将同时促进在韩国和在中国的同时扩大演出。

3.1.1.5 HEEUM[37]

HEEUM是“与挺身队奶奶在一起的市民机会”的品牌，将慰安妇受害者们制作的压花产品来向社会大众传播日军慰安妇问题，以期获得解决方法。在网络上销售与慰安妇问题相关的包、首饰、图书、明信片，一部分收益用在将建于大邱的日本军慰安妇历史馆上。这些都可以看作是通过各种方式来吸引青少年和青年对慰安妇问题的关注并将此问题用文化艺术的方法重新解读。

3.1.2 韩国民间机构的特性

[35] 나눔의 집 홈페이지; http://www.nanum.org/

[36] 위안부 진실을 위한 문화지식인 연대 홈페이지; http://www.safmis.or.kr/

[37] 희움 홈페이지; http://www.joinheeum.com/index.html

如上所述，将韩国的5个民间机构的特征适用到一般的民间机构上具有一定的限制性。但是，因为以上5个民间机构活跃的活动和代表性，可以管窥到韩国民间机构的相当大部分的特征。因此，将通过这5个机构总结的韩国的民间机构的特征总结如下。

第一，多种多样的民间机构在拥有共同目标的同时行使着职能。虽然每个民间团体的接触方式不同，但是都依着“解决日军慰安妇问题”为目标来进行活动。这里的“解决问题”的意义在挺身协7大要求事项中也很明显地体现出来。[38]这7大要求主要是在慰安妇问题上对日本政府的正式道歉和法律上的赔偿的合理解决。韩国挺身队研究所也在主页上表示，本组织的目标是为正确解决慰安妇问题所需要进行的调查和研究等。[39]但是，即使拥有者“正确解决慰安妇问题”这样的共同目标，每个民间机构的职能本土化，将这次问题从多个方面进行接触。韩国挺身队研究所从集中在研究材料的生成、流通和出版，挺身协进行周三定期示威、健在受害者的福利活动、国际联合活动，HEEHUM藏文化共鸣的方向，各个机构都以多种多样的、不同的方式对问题的解决作出贡献。

第二，政府和机构的合作或者机构间的联合活动积极。虽然3.1.1韩国民间机构现状中没有体现出这点，但是在每个民间机构的主页上都有与其它民间机构或者政府的合作活动。外交部主页和女性家族部主管的e-历史馆上也可以看到挺身协或者韩国挺身队研究所等民间机构的内容。还有很多民间机构也自觉地加入到周三的定期示威上来。相反地，与海外的民间机构或者国际机构的委员会的合作活动比较少、特别是，虽然经常发布中国方面的消息，但是所有民间机构的主页上竟然连中文版本也没有，这点值得注意。

第三，韩国的民间机构积极地引导大众参与并且促进国际联合。如之前提到的，虽然直接的国际联合的相关信息很难得到，但是韩国的民间机构通过以韩国为主的论坛和会议充分地获得了国内民众以及国际社会的关注。特别是，从1992年开始的、到2011年为止已经进行了1000次的挺身协的周三示威和民间机构对此的热情也得到了国内外媒体的关注。并且，进入2015年已经召开15次的亚洲联合会议是亚洲8国参加的关于慰安妇问题的唯一会议，也体现了韩国民间机构面向国际社会的热情与意志。

3.1.3 采访北大国际关系学院硕士生金新春[40]

[38]정대협 홈페이지, 정대협의 활동과 7가지 요구(1.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결의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101

[39]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정신대연구소 소개; http://www.truetruth.org/about/about.htm

[40] 该内容由韩政潤在2015年5月29日晚8-9点在北京大学光华咖啡馆对金新春先生进行采访的内容整理而成

本采访为韩政潤与北大国际关系学院硕士生金新春在2015年5月29日下午8点在北京大学泊星地咖啡馆的采访的内容。

金新春现在是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硕士生，他曾经在作为研究院从2011年到2013年大约工作了3年。VANK是韩国志愿者网络机构的英语缩写，开展网络学级交流产业、韩国宣传资料网构建产业、东北亚和平网络构建产业等多种多样的活动，同时也是一个网络外交使节团。[41]他没有在特别的部门工作，主要从事在东北亚的独岛问题、历史歪曲问题、日军慰安妇问题等工作。本采访的内容主要分为三个部分。一：关于慰安妇问题的韩国国内的民间机构的活动现状。二：怎样向国外宣传慰安妇问题。三：在慰安妇问题上韩中合作的现状以及展望。

金新春VANK的活动主要在国内的学术机构和民间机构的正式或者非正式的范围内进行。它的学术的研究和专业性的材料是要接受韩国东北亚历史财团的咨询，并根据此来进行使用和流通。虽然不是所有的联系都用备忘录的形式记载下来，但是以非正式的形式进行的机构间的交流非常密切。在向国外宣传时，一般不从韩国的历史或民族的角度考虑，而是从女性人权保护这一层面来进行活动。但是在一些人权观念不是很强的发展中国家进行宣传的时候就需要从历史层面来进行介绍了。

3.2 中国的慰安妇问题相关的民间机构的现状和特征

3.2.1 中国民间机构的现状

在中国虽然日军慰安妇问题在二战结束后作为一个重要的历史问题被重视，但是因为对该问题研究的不足导致现在对中国国内慰安妇受害者及健在者的具体数字的把握很困难。虽然从1993年开始中国历史学家江浩第一个开始研究日军慰安妇问题，但是相关的学术机构或者市民机构等民间机构的支持非常不足。[42]中国学者通过参加1997年的42个国家学者参加的东京“战争与对女性的暴力”讨论会以及1998年东京的国际慰安妇问题研讨会，以及同年在加拿大举行的“世纪抗日战争史实维护年会”等学术会议，使得中国国内对慰安妇问题研究的重要性得到意识。[43]本章将就上海师范大学的日军慰安妇研究所和中国全国女性联合会作介绍。

---

[41]반크 홈페이지, 반크이야기, “반크의 꿈”;
http://diplomat.prkorea.com/vank_story/bank_dream.jsp

[42]胡银平,《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p. 77;

[43]中国慰安妇研究中心 홈페이지, 中国慰安妇研究中心成立;
http://renwen.shnu.edu.cn/Default.aspx?tabid=6631&language=zh-CN

3.2.1.1 日军慰安妇研究中心[44]

上海师范大学人文学院院长是中国慰安妇研究的权威，他在1999年在上海师范大学建立慰安妇研究中心，2007年7月5日抗日战争开始70周年时建立上海师范大学日军慰安妇研究所资料馆，加快对慰安妇问题的研究。虽然得到了较少的政府支持和大众关注，这是继首尔和东京以后世界上第三处日军慰安妇研究所，韩美日等国的领事以及市民都来过参观。[45]现在与日本的长崎和平资料馆建立了姊妹关系进行共同研究，以及还进行着其它国际联合活动。但是因为历史较短政府与社会的支持较少现在对健在受害者的把握以及对受害者所要采取的措施等仍在非常不足。对此慰安妇研究所所长苏智良教授在2005年的上海日军慰安所实录出版时称，为了尽早解决慰安妇问题以及相关研究，韩中间的相互帮助非常重要。[46]

3.2.1.2 中华全国妇女联合会[47]

中华全国妇女联合会于1949年成立，其宗旨是中国妇女的自由与人权的保障。该机构支持社会主义发展，在经济、政治、文化科学、社会与环境等多个方面为妇女谋求福祉。并且在大众每日以及非盈利机构上的慰安妇问题的相关信息翻译成中文和英语。在主页上的人物一栏中含有中国慰安妇的介绍以及新闻栏中现在正在进行的关于中国慰安妇的相关信息会出来。但是，并没有直接的对慰安妇问题的研究以及直接的活动。[48]

3.2.2 中国民间机构的特性

中国民间机构对慰安妇问题的认识以相关证言和证据为根基。日军慰安妇问题上的关注较晚，

---

[44] 中国慰安妇研究中心 홈페이지, 中国慰安妇研究中心成立;
http://renwen.shnu.edu.cn/Default.aspx?tabid=6631&language=zh-CN

[45]中国‘慰安妇’研究中心 홈페이지，资料馆介绍;
http://cms.shnu.edu.cn/Default.aspx?tabid=6671&language=zh-CN

[46]경향신문, “中 쑤즈량교수 ‘위안부문제 한•중 공조 필요’”, 2005/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0191741381&code=960100

[47]中华全国妇女联合会 홈페이지; http://www.womenofchina.cn/

[48] Zhang, 2001, pp.159-179; in Ping-Chun Hsiung, Maria Jaschok, and Cecilia Milwertz (eds.) Chinese Women Organizing: Cadres, Feminists, Muslims, Queers, Oxford, England: Berg Publishers (2001) “In Search for ‘Authentic’ NGOs: the NGO Discourse and Women’s Organizations in China,” pp.159-179 in Ping-Chun Hsiung, Maria Jaschok, and Cecilia Milwertz (eds.) Chinese Women Organizing: Cadres, Feminists, Muslims, Queers, Oxford, England: Berg Publishers (2001)

对慰安妇受害者的记录也没有得到正式的发布。受害者与健在者的相关信息的收集依存于上海师范大学日军慰安妇研究所以及今年5月上映的中国电影“大寒”的制片人张双兵等民间研究等。日军慰安妇研究所所长苏智良从1992年开始历经13年通过现场采集的方式出版了受到日军蹂躏的27名慰安妇受害者证言的《女殇》。[49]

并且，苏智良以此为基础，还以在上海集中发现的149处慰安所为基础，发行了《上海日本军慰安所实录》，开启了慰安所研究的新篇章。[50]他在自己的著作《战时日军的第一个慰安所》、《关于上海四个慰安所的调查》、《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等文章中提出上海的慰安所数量超过160个，其中上海最初建立的杨家宅娱乐所是1932年日本海军陆战队司令部建立的上海的第一个慰安所。[51]

在中国与慰安妇问题相关的民间机构限于学术研究，对该问题的多方面接触没有得到实现。中华全国妇女联合会等民间机构对中国国内的舆论形成的作用微乎其微，上海师范大学慰安妇研究所与所长苏智良教授是中国该领域研究的带头人。在此背景下，中国慰安妇问题研究仅限于学术研究，这种限制使得社会上对该问题的关注与参与度较低，且很容易像比起“女性主义”、“人权主义”等超越国家层面的价值，偏向于“民族主义”的倾向。

[49]中国青年报, 2014年 12月 16日; “《女殇》: 为最后27位慰安妇送行”;
http://zqb.cyol.com/html/2014-12/16/nw.D110000zgqnb_20141216_2-09.htm
[50]연합뉴스, `일본군 위안소' 찾아낸 쑤즈량 교수, 2005/6/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28753
[51] 中國新聞網, 调查显示日军在沪慰安所逾160家, 2014/8/11;
http://www.chinanews.com/sh/2014/08-11/6481851.shtml

第四章为解决日军慰安妇问题韩中民间机构的合作可能性以及展望

近来中国国内对日本慰安妇问题的关注增加，为解决该问题，中韩合作也受到关注。中国慰安妇研究中心所长苏智良教授在中国的第一个南京大屠杀祭奠日的第二天接受《京华时报》的采访时表示，“国家纪念日是国家层面上的重视某种事情的意味”，“1991年8月14日金学顺大娘的勇敢作证的日子，也希望这天可以成为纪念日”，并建议中韩进行合作。[52]本章将对在以上趋势下中韩合作的现状，以及合作过程中出现的限制和对之后的展望等进行论述，并通过现在在中国活动的韩国非政府机构工作人员的采访了解中国机关的环境特殊性。

4.1 中国和韩国民间团体的合作现状

2014年2月8日到9日，南京、北京、上海等地的学者以及中国慰安妇研究中心的相关人员与韩国、日本的学者一起在上海召开了以“'沟通、合作',促进亚洲慰安妇问题会议”的国际学术会议。

本会议是由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研究中心和韩国成均馆大学东亚研究所共同举办，参会的有慰安妇专家、中国当局相关人员、中日韩美等50余名代表。与会者对各国慰安妇问题的相关材料与研究现状进行了深层次的分析和调查，并共同商讨了国家间的合作。[53]作为发言者的成均馆大学李新哲教授说，“日本有组织地将与慰安妇有关的资料进行了销毁”，现在韩国内保存的资料非常有限。希望中国可以帮忙借阅一些资料以及共同合作研究”。[54]参加此次会议的还有上海和南京的中国国家记录保管所的相关工作人员。他们称“在日本侵略战争时留下了很多的资料，要单独分析慰安妇问题的相关材料需要时间与精力。如果韩方提出请求，将会按照流程给予帮助”，对两国合作作出了积极的表态。[55]

4.2 中国和韩国民间机构合作的限制以及中国政治环境的特殊性

现在与慰安妇问题相关的中韩民间合作的最大限制即在于内容仅限于学术研究。这与当今中国研究慰安妇问题的非学术民间机构的缺失有很大的关系。即，能够与从多方面、多角度的形势引导社会大众积极参加解决问题的韩国非学术民间机构对应的中国的民间机构并不存在。如之前提到的，历史久远的中华全国妇女联合会在中国社会中在女性人权以及管理上活动活跃，但是在慰安妇问题上只是起着“流通”的作用而非“生产”，它的职能收到限制，相关活动也没有。 即，在慰安妇问题上它与社会大众的多方接触以及相关活动非常不足。这与中国特殊的政治环境以及中国民间机构或者非政府机构经历的制度上的不自由和对人权的敏感性有着很深的关系。

---

[52]京华時報, 2014年 12月 24日, “苏智良：抗战研究还需要更多高水平成果”;
http://epaper.jinghua.cn/html/2014-12/14/node_102.htm

[53] MBN뉴스, “'中 일본군 위안부 20만명…한국보다 많다' 연구 결과 나와”

[54]상해한인신문, 2015년 2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초로 상하이 국제학술회의 개최”;
http://blog.naver.com/shkonews/60209142191

[55] Ibid.

中国的非政府组织的分类标准与其它国家有着差异。中国的非政府机构分为官办和民办两种。[56]官办机构在财政上接受政府的支持，领导多是一些退休的政府工作人员。相反，民办非政府机构并不能接受政府的财政支持，只是单纯依靠民间的投资与参与。据此，可以说官办非政府组织是自上而下的，而民办非政府组织是自下而上的。[57]而韩国却与此不同。韩国的官办被政府组织因为财政来源和人士任命方式的原因并不属于非政府机构，所以只有民办非政府机构才属于非政府组织。

根据1998年中国共产党党会的规定，现在中国的所有非政府机构都必须接受业务主管单位相关机构的赞助。[58]这里的业务主管单位必须是自治州或者其以上的政府机关或者从政府机关获得批准的机关。特别是民办非政府机构，因为组织的特性和构成的模糊性，需要更加严密地遵守以上规定。这样的限制性的政治环境使得中国的民间机构的自由的成立于活动受到限制。不仅如此，韩国的慰安妇相关民间团体在中国的活动也受到很大的制约。这点在《4.3中国内的非政府机构工作人员》中将会具体谈到。

因此，考虑到中国特殊政治环境下的民间机构的组织与活动受到限制这一情况，在呼吁超越国家层面的维护女性人权等口号，促进韩中合作上确实会受到限制。因为如果得不到政府的支持，一些民间机构的多样性和独立性反而得不到保障。

4.3 对在中国工作的韩国非政府机构工作人员的采访（对象为亚非难民后援会北京分处的吴英儿小姐）[59]

本采访的目的在与了解地处中国的而韩国机构在中国活动的一些情况以及因为中国政治上的特殊性是否会经历一些障碍。

吴英儿现在在亚非难民教育后援会工作已经有8个月，主要工作是初中教育支援以及分享教育等。她对韩国NGO组织如何进军中国的问题回答道，现在中国政府对非政府组织的活动表现得比较敏感，不仅是韩国，对中国本国的非政府组织的注册也比较困难。且正式的注册耗时较长，相应的政策不断变化。她称，外国的非政府组织一开始要注册为外国的非政府组织，接下来还要走一系列的中国的非政府组织走的程序。像“world vision”或者“save the children”等世界范围内较活跃的非政府组织在中国的注册也要花3-4年的时间。且像亚非难民教育后援会等帮助并未注册的学生们的项目注册程序更加困难。

在对慰安妇问题非政府组织进入中国怎么看这一问题上，她回答道，如果韩国机构如果想要进驻中国最好通过外国非政府组织的名义来进行，在北京更是如此，估计会越来越困难。此外，

[56] Lu, 2009, p 4-5.

[57] Lu, 2009, pp 4-5

[58] Ibid., p4

[59] 该内容根据韩政潤在2015年5月30日与吴英儿小姐通过邮件进行的访谈内容整理而成

需要得到上级主管部门的批准，注册程序也是非常的复杂，还具有地区的差异，因此，需要特别注意。

4.4 对中国与韩国民间机构合作的展望

中国特殊的政治环境对韩中民间合作会起到一定的制约作用。但是，有学者也认为，中国共产党规定的对非政府机构的条例也是保护非政府机构的法制基础。虽然法律法规上非政府机构的概念比较模糊，非政府机构不能完全脱离政府，但是这也反映了市民社会对政治社会问题的关注增加为此需要一个组织化的法规的现实。[60]

中国在慰安妇问题研究上起重要作用的苏智良教授和张双兵等民间活动家正是中国的此种变化的证人。他们前往中国政府机关没能去的地区进行采访研究，并扩大了慰安妇研究领域的广度和深度。特别是在此刻慰安妇受害者们很可能不久于人世的时候，以他们的证言集为基础而上映的电影《大寒》在反应了在中国慰安妇问题的民间活动已经得到很大发展。

III. 结论

在本论文完成的这一时期，驻韩日本大使馆的“周三示威”依旧将要进行。通过每周三的呼喊，我们仰视作为女性的她们，70年前中国和韩国的土地上日本帝国主义和其引起的历史纠纷也出现脑海中。对在这一问题上中国和韩国分别所持的意见也产生了思考。但是，即使可以在不同的视角上来看，为了东北亚的和平稳定，这是中日韩三国必须共同解决的问题。

最近国际社会对解决慰安妇问题呼声提高的同时，对把握事情本质是“女性人权”的超过国家层面的价值的理解也被提上要求。当然，因为中国和韩国的历史经验，将这一问题从民族主义的角度来解释是无可厚非的。但是，过度的民族主义解读和过度依赖政府层面的外交政策，是对中日韩三国问题解决上的没有意义只是相互划分和平线的意味。因此，本论文宗旨在于为了东北亚的和平，从小处出发，为解决慰安妇问题中国和韩国的民间机构存在哪些合作可能性的问题。

虽然因为中国和韩国政治环境的差异造成两国民间机构合作的缺失，但是该问题的紧急性以及中国的根本性变化也打开了新的“合作之窗”。虽然目前为止合作仅限在学术研究上，但是随着中国的市民社会的发展及开放性的扩大，国际社会的关注和联合活动将会增加，中韩两国民间机构的合作可能性将会增大。

[60] Ma, 2006, p76

[参考文献]

韩文文献

学术论文

문소정,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Vol95, 2012, pp.315-345

정진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 군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Vol11 No.1, 2002, pp.21-40

최춘흠, 「시진핑 시대 중국 보수·민족주의 색채 띨 듯,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년 12월호(통권 제324호), 2010, pp.22-23

허란주,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족적 책임: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亞細亞硏究(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3 No.3, 2010, pp.7-40

学位论文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其他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2013), The joint resolution of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外国文献

单行本

Lu, Yiyi. (2009).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hina (The rise of dependent autonomy), Rourtledge

Ma, Quisha. (200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China, Paving the way to civil society?, Routledge

Zhang, Naihua. (2001). "In Search for 'Authentic' NGOs: the NGO Discourse and Women's Organizations in China,"

学术论文

胡银平,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Vo.24 No.1, Jan 2007

于招娣. 从慰安妇问题管窥日本文化. MS thesis. 延边大学, 2009.

苏智良, and 陈丽菲.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 4 (1998): 89-104.

苏智良. "关于上海四个日军慰安所的调查." 抗日战争研究 2 (1999).

苏智良, and 陈礼茂. "我研究 "慰安妇" 问题的历程." 史林 1 (2006)

苏智良.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新发现的关东军 "慰安妇" 档案解读."社会科学战线 7 (2014): 019.

江文君, and 苏智良. ""战争与和平"——中日关系历史研究 (四篇): 困扰中日关系的历史问题——以 "慰安妇" 为例." 甘肃社会科学 3 (2007): 119-123.

赵青青. 日军 "慰安妇" 幸存者生存状况调查与 PTSD 初步探究. MS thesis. 上海师范大学, 2012.

经盛鸿, and 胡卓然. "南京日军 "慰安所" 与 "慰安妇" 概论." 日本侵华史研究 3 (2013): 10-25.

胡银平. "中国 "慰安妇" 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24.1 (2008): 76-79.

田苏苏. "日军慰安妇政策在华北地区的实施." 抗日战争研究 2 (2005): 166-188.

潘德昌. "日本学术界 "慰安妇问题" 研究述论." 社会科学辑刊 4 (2004): 112-117.

其他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5), Open Letter In Support of Historians in Japan

The United Nations (201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C.12/JPN/CO/3)

The United Nations (201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CERD/C/JPN/CO/7-9)

2015년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외교부장관상)

69 베이징지역 대학교 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현황 연구
89 北京地区高校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研究

이성원, 이사묘 李晟援, 李斯淼
북경대학교 北京大学

베이징지역 대학교 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현황 연구

이성원, 이사묘
북경대학교

개요

국제관계 이론 중, 포스트 모던의 “구성주의” 이론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급격히 변환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국제관계학문제가 되었다. 한, 중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 공동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중 양국 언어에 모두 능숙하며 다 방면적인 지식에 박식한 복합형한국어인재가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필요성이 명백하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 상품을 중심으로 한 “한류” 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일반 대중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수도 급 증가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중 다 영역 교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엘리트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되돌아보며 신세대를 향한 복합형 한국어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중국대학교에서 양성 해야 하는 복합형 한국어 인재는 기초적인 한국어능력 외에 국제적인 안목, 구체적인 영역의 전문지식, 융통성 및 다문화 교류능력이 있는 한, 중의 다 영역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신 세대 한국어 인재다. 이는 한, 중 우호 합작, 양국의 다방면 교류발전 등 한중 우호관계 형성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고찰, 정책분석, 설문조사, 취재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북경지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 인재 배양 현황을 분석하여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여 한, 중 교류가 한층 새로운 단계로 오를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중 복합형인재 양성 과정에는 구식교육모드; 교육중심이 언어로 너무 기울어 타 영역의 내용의 부족함; 적합한 교재 부족; 교사자원 부족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새로운 한국어교육방식, 문화각도에 언어의 미발견, 새로운 형식을 갖춘 다양한 학생을 위한 교재와 참고자료의 출판 등 건의를 내세우고 있다.

취재와 설문조사를 통해 북경지역 대학교의 한국어 인재 배양 상황은 위에 쓰여진 문제점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중에는 제도, 체계의 부족함, 학생모집정책의 잠재적인 문제, 심각한 “발판” 현상 등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합형 인재 배양의 개념은 개념으로만 남는 현상도 심각하다. 한, 중 대학교간, 기업간의 교류와 실습기회 등 협정들은 중, 장기적인 계획안이 없으며, 이미 체계된 협의도 실제적인 실행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 중 양국의 우호관계 촉진을 위하여: 한, 중 정부 특별이 교육부는 체계적인 정책협의에 체결, 기업과 재단은 중점 대학교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언어, 어법만 중요시하는 현재와 다른 한국문화, 역사, 문학 및 경제, 정치, 사회와 관련된 수업을 늘린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한국은 중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한국학 교수 배양으로서 이들이 한국어인재 배양 중 독특한 시각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투자 하여야 한다.

키워드: 한국어교류 복합형인재 북경지역대학교

I.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2014 년 초, 한국 SBS 방송국 수, 목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2014 년 10 월, 중국 절강성 방송국은 SBS방송국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판권을 사드리며 제작한 대형 실외 경기 예능프로 〈뛰어라 형제여〉는 엄청난 시청률을 끌고 있다. 한국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K-POP등 문화상품으로 중심이 된 “한류”는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며 화제의 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을 향한 이런 다양한 문화상품을 토대로 한 한국

유행 문화는, 급변하는 국제형세를 대비해 보이는 "소프트파워"[1] 와 "매력공세"[2]를 펼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유행문화가 중국 대중에게 받아 드려지는, 익숙해져 가는 동시에 한국어 전공 인재 배양 과정 속에 문제점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학 연구와 학술 역량이 부족하여, 한국기업들 요구의 부합한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양한 한국어 전공의 인재들이 타 영역으로 유실 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도 낮다. 중국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시장에서 한국어 전공을 졸업한 학생의 실업률이 많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3]

한국어 고등교육의 교육모드를 개선할 필요성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종합적 한국어 엘리트 인재 배양이 그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 년, 중국은<국가 중, 장기 인재 발전기획 개요(2010----2020 년)>에서 명시하는 고등교육에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 배양"[4] 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전공 인재 양성은 종합적으로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리트 한국어 인재란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외에 국제적인 시야와 구체적인 영역의 전공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융통성과 다문화 교류 능력이 있는 한, 중 다방면 교류와 합작을 추진할 수 있는 신세대 한국어 인재이다. 이는 한중 우호 합작, 양국의 다방면 교류 발전 등 한중 우호관계 형성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문의 연구의미는 북경고교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현황분석과 고등교육 중 한국어교육이 한, 중 우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세워진 상관된 정책 건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유행 문화 연구중심, 한국의 복합형 중국어 인재배양과 글로벌화 중의 다국적 전문 인재 배양 연구의 경험을 제공 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 중 교육합작 구조와 한국어 교육 전공과정을 기초로 고교 한국어 교직자들과의 인터뷰와 한국어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현재 고교 한국어 인재 배양 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중국 고교 한국어 교육 점의 지리적 특정과 필자의 북경대학교 학부생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연구, 범위를 확정했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강한 정치적 민감성과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다. 한, 중 수교 이후 많

[1]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
[2] "魅力攻势"译自 *Smart Power*，首次出现于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7. Pxi
[3] 麦克思数据有限公司. 2009 年度大学就业能力排行榜
[EB/OL].http://edu.sina.com.cn/j/2009-06-04/2220172420.shtml.
[4] 庄智象，等:《关于国际化新型外语人才培养的思考》原载于《外语界》2011 年第六期，P71-78.

은 중국 대학교들은 한국어 전공을 개설했다. 북경대학, 대외 경제 무역대학, 북경 제 2 외국어대학 등 북경지역대학교의 뿌리 깊은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경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원도 타 지역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경지역 대학교의 종합실력도 더 높으며, 한국어 교육 중에서도 언어에만 집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북경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전국에서도 선두적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연구함은 현실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필자는 교육수평과 종합적인 명성 및 자료 수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북경대학, 북경외국어대학, 중앙민족대학의 한국어 인재 배양모드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3. 문헌회고

3.1 학계기존연구성과

근래 학계는 한, 중간 첨단 인재 배양에 대해 상관된 연구를 하였다. 한국학자 민현식은 한국어 교육역사를 세 기간으로 나눴다: 1. 전통 교육기 (고대- 1860 년대) 2. 근대 교육기(1870 년대 - 1945 년 광복 전) 3. 현대 교육기 (1945 년 광복 후- 현재). 중국에 한국어 교육은 역사가 깊다. 중국에서는 '주례'(周礼)에 사이(四夷)의 통역관을 두어 동방어의 역관은 '기'(寄)라 불렀는데 후일에는 역관(译官), 역사(译士), 설인(舌人), 통사(通事) 등으로도 불렸다. 명나라는 '사이관'(四夷馆, 1407), '회동관'(会同馆)에서 역관을 양성하였는데 회동관 (会同馆, 1492) 은 조선관, 일본관 등 13 관이 있었으며 여기서 펴낸 '화이역어'(华夷译语)의 처음에 조선어학습서인 '조선관역어'(朝鲜馆译语)가 나와 중국 외교에서 조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청나라도 이들을 통합한 '회동사역관' (会同四译馆, 1748)에서 역관들을 배출하였다.[5] 중국학자 장영미는 〈중국고교 한국어 전공 국제화 복합형 인재 배양방식, 탐구 분석---겸 논 취업경향특점〉 중 시간을 맥락으로 중국의 한국어 인재 배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문장은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대략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 단계는 1949 년도부터 1992 년 한, 중 수교 전. 이시기는 한국어교육의 기초 시기이다, 이시기에 한국어교육은 북경대학, 연변대학, 낙양외국어대학, 북경대외경무대학, 북경 제 2 외국어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2 년 8 월 24 일, 양국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이는 한, 중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양국간 다방면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중 교육합작도 포함되었다. 2012 년까지 20 년 동안, 중국에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학교는 154 개 (국립, 사립전문대학 포함)이며, 학생 인원수는 3 만 여명 (학부생 2 만 여명, 전문대학생 1.5 만 여명) 에 도달했다. 교육인원도 1200 여명 (외국인교수 포함)으로 늘었다. 또한, 한국어전공의 취업방향도 몇 단계에 변화

[5] 민현식(2006), "한국어교육학 개관", 〈한국어교육론 1〉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를 거쳤다. 개방 전은 통일지령분배 위주였으며; 개방부터 1995 년까지는 자유선택으로 변해져 갔다. 2002 년에 졸업생과 취직회사의 쌍방선택 등, 취업의 방향도 외교부, 문화부, 국방기관에서 차츰 기업 등 다양한 선택으로 변해졌다.[6]

김병운, 오상순은〈현재 중국대학교 한국어교육의 주요문제와 해결방안〉에서 자신 들의 교육경험을 결합하여 한국어 교육 발전 방향은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네 등급으로 나눠지며 한국어 교육은 학생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의 초, 중급의 능력에 만족하면 안되고, 한, 중 양국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등 다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고급, 최고급한국어 인재배양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한국어교육 중 과학적이며 체계를 갖춘 교재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수준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7] 이산, 장전하, 손비비는 〈고등교육학교의 한국어 교육현상과 창신분석〉중에서 현재 한, 중 양국은 경제, 문화 등 영역에서의 합작이 깊어져 가지만 한국어 인재 배양중의 교육자 자원부족 교재 부족과 교육방식이 따분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8]

3.2 한국어교육정책제도

이를 대비하여, 한, 중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방향지도를 개시했다. 1992 년 한, 중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뒤, 1993 년 중국은 한국으로 정부장학생과 자비유학생을 보냈다, 교사대표단과 교육 행정관원 대표단[9]도 보냈으며, 한국과 함께 인재 배양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했다. 2008 년 5 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중 체결한 '한중 고등교육 학력 학위 상호 인정 양해각서' 는 한, 중 고등교육영역의 새로운 합작을 시작했다. 한, 중 고등교육학교간의 합작교류 추진의 정책지지가 되었고 중국학생이 한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이수하는 것을 지지했다. [10] 2012 년 5 월 21—23 일, 제 5 회 APEC 교육부장회의기간, 중국교육부 원귀인 부장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를 만나며' 한중 2012-2014 년 교육교류 합작 협의' 을 체결했고," 아시아학원" 프로그램 실행에 힘을 합하며 양국의 한국어 인재 배양 교류합작이 새로운 단계로 오를 수 있도록 추진 하기로 했다.[11] 그러나, 한중 복합형 한국어 인재 연합배양의 구체 영역에선 정부의 총체적인 토대 제도 설계가 아직 없다, 예를 들면 대학간의 교류 종목의 확정과 설계는 한, 중 학교간 자체 합의에 이루

---

[6] 张英美:《中国高校韩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倾向特点》原载于《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3 年 12 月 第 46 卷第 6 期，P138

[7]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8] 李珊，张传霞，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 年第 7 期。

[9] 邱红:《中韩两国人才交流和合作开发研究》原载于《东北亚论坛》2008 年 11 月第 17 卷第 6 期。

[1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与科学技术部关于高等教育领域学历学位互认谅解备忘录》http://www.cdgdc.edu.cn/xwyyjsjyxx/dwjl/xwhr/xwhrxy/264843.shtml 检索日期：2015-5-22

[11] 焦新:《袁贵仁与韩国教育科技部部长李周浩举行会谈》载于《中国教育报》2012 年 5 月 22 日 第 01 版

어 지고 있고 중, 장기간의 계획, 교류 협의안의 실질적인 실행상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중점 학교들에게 지원 되어야 하는 자금과 자원도 부족하다.

II. 본문

1. 복합형한국어인재배양현황분석

1.1 북경지역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북경대학교 동방언어문화학부 조선/한국언어 문화전공은 1946 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중국에 관련된 학과 중 최초로 생긴 전공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북경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화 학과 인재 배양방안[12]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배양과정은 이와 같다:

배양방식 및 교육목표

본 전공은 외교, 무역, 국제문화교류, 섭외기업관리, 신문, 출판, 외국어 교육 및 외국문제 연구 등 일을 종사할 수 있는 성품과 재능을 겸비한 전문인재와 북한, 한국학연구의 최고 인 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어기초 외에 한국, 북한의 사회, 역사, 문화, 외교, 정치 및 경제에 대해 이해하며 영어 4 급 실력이 되야 한다. 매년 북한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 하는 본과, 석사, 박사생을 모집한다. 학부생을 위한 과정은 기초조선(한국)어, 조선(한국)어 회화, 한중 또한 중한번역, 조선(한국)문학사, 조선(한국)어 어법, 조선(한국) 국제관계사, 조선 (한국)경제 등 수업이다. 학생에게 한국과 북한에 가서 언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학생들이 경제, 철학, 예술 등을 부전공으로 하는 것을 지지한다. 석사, 박사과정에는 한국어 발전역사, 한국어 어법이론, 한국 문화교류역사, 한국사상사, 한반도 문제 연구 등 과목이 있다.

학점요구 및 교육과정 총 학점: 142 점, 그 중:

(1) 필수과목: 86 학점

전교공공필수과목 : 32 학점

과목번호	새 번호	과목	주간학습시간	학점	개강학기
03835061		대학영어(1)	4	2	가을
03835062		대학영어(2)	2	2	매년
03835063		대학영어(3)	2	2	매년
03835064		대학영어(4)	0	2	매년

[12] “北京大学朝鲜（韩国）语言文化系简介丨科学的人才培养方案”
http://www.olc.pku.edu.cn/korea/list.php?sortid=78#page7405 检索日期：2015-5-22

과목번호	새 번호	과목	주간학습시간	학점	개강학기
04030150		사상성품교양	2	2	
04030170		모택동 사상개론	2	2	
04031490		마르크스주의철학원리	2	2	
04031380		당대 세계 경제와 정치	2	2	
04031340		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원리	2	2	
04031370		등소평 이론	2	2	
00831610		문과기초컴퓨터(상)	3	3	
00831611		문과기초컴퓨터(하)	3	3	
60730020		군사이론	2	2	
————		체육	—	4	

전공필수과목 : 56 학점

과목번호	새 번호	과목	주간학습시간	학점	개강학기
03531781	KOR-0-001	한국(조선)어(1)	10	8	가을
03531782	KOR-0-002	한국(조선)어(2)	10	8	봄
03531461	KOR-1-001	한국 (조선) 어 말하기 듣기 (상)	2	1	봄
0353146	KOR-1-002	한국 (조선) 어 말하기 듣기 (하)	2	1	가을
03531783	KOR-0-003	한국(조선)어(3)	10	8	가을
03531784	KOR-0-004	한국(조선)어(4)	10	8	가을
03531681	KOR-1-003	한국 (조선) 명편선독 (상)	4	2	가을
03531682	KOR-1-004	한국 (조선) 명편선독 (하)	4	2	봄
03531761	KOR-0-005	한국(조선)어 회화(1)	4	2	봄
03531762	KOR-0-006	한국(조선)어 회화(2)	4	2	가을
03531763	KOR-0-007	한국(조선)어 회화(3)	4	2	봄
03531771	KOR-1-005	한국(조선)어(5)	10	6	가을
03531772	KOR-1-006	한국(조선)어(6)	10	6	봄

(2) 교양과목 : 50 학점

본과교양선택과목 : 16 학점

A. 수학 및 자연과학 류 : 최소 2 학점

B. 사회과학 류 : 최소 2 학점

C. 철학 및 심리학류 : 최소 2 학점

D. 역사학류 : 최소 2 학점

E. 언어/문학 및 예술류 : 최소 4 학점, 최소 한 과목은 예술류 여야 함

전공선택과목 : 최소 20 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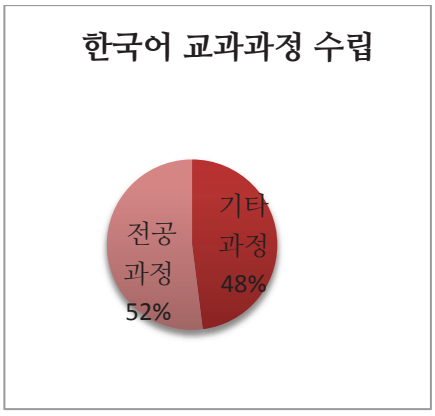
과목번호	새 번호	과목	주간학습시간	학점	개강학기
03531520	KOR-0-008	조선반도개황	2	1	봄
03531551	KOR-1-007	한국 (조선) 어 신문 선독 (상)	2	1	가을
03531552	KOR-1-008	한국 (조선) 어 신문 선독 (하)	2	1	봄
03531560	KOR-1-009	한 (조) 중 번역	2	2	가을
03531580	KOR-1-010	중 (조) 한 번역	2	2	봄
03531611	KOR-1-011	한국 (조선) 문학사 (상)	2	2	가을
03531612	KOR-1-012	한국 (조선) 문학사 (하)	2	2	봄
03531670	KOR-0-009	한국 (조선) 문화	2	2	봄
03531540	KOR-1-013	한국 (조선) 어 어법	2	2	봄
03531710	KOR-1-017	한국 (조선) 경제	2	2	가을
03531720	KOR-1-018	한국 (조선) 국제관계사	2	2	가을
03531720	KOR-1-019	한국 (조선) 역사	2	2	봄
03531760	KOR-1-020	한국 (조선) 당대 정치와 사회	2	2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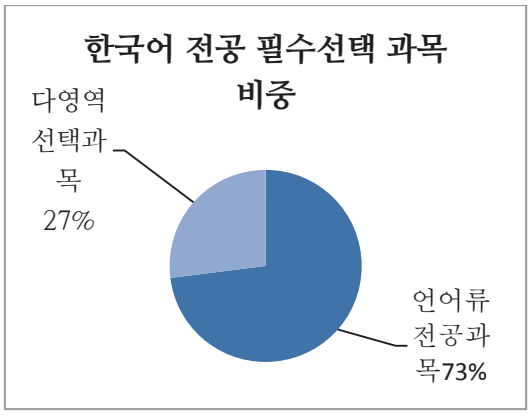
기타교양과목 : 본과전교교양과목 와 전공교양과목이 교양과목 50 점에 미달할 경우, 위 과목들 중에서 보충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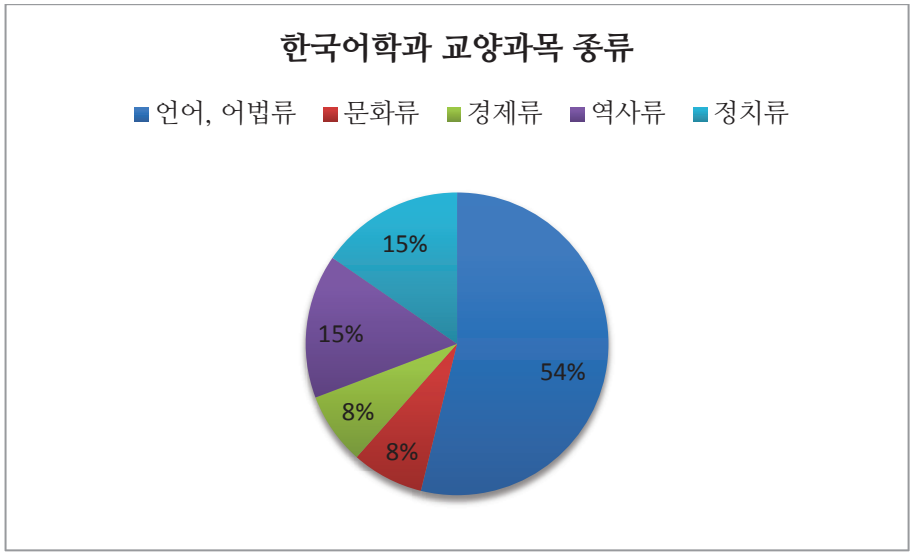
⑶ 실습 : 필수, 학점 무

⑷ 졸업논문 : 5 학점

북경대학조선(한국어)언어문학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어 전공 필수과목 와 교양과목은 모든 과정의 절반(52%) 정도를 차지한다. 학생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구함을 볼 수 있다. 전공 필수과목 와 교양과목 수량 안배상 언어 중심으로 된 전공과정이 교양과목보다 조금 더 많았다. 대학교 일/이학년 은 전공수업비중이 높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기초언어능력의 배양을 중요시 하고 있다. 고학년 때는 언어수업을 명작선독, 회화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한 전공 교양 과 목에서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졌다. 교양과목에서 제일 많은 과정은 언어, 어법 류(54%) 이며, 기타 종류의 전공교양과목은 정치 류(2 과목), 문화 류 (1 과목), 역사 류(2 과목) 이었다. 기타교양과목은 수량상 많지 안으며, 개론형식의 과목이 많아 상 관련된 영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북경외국어대학 조선(한국)어학과는 아시아 아프리카학원 밑에 소속된 16 개 어종 중에 하나이다. 1994 년 설립되었고, 1994 년부터 2004 년도까진 2 년에 한번씩 학부생을 모집했다. 2005 년부터는 매년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교수도 채용하고 있다. 4 년 본과 교육은 1, 2 학년 기초단계와 3, 4 학년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에선 어음, 어법, 회화, 듣기, 한국어 정독 등 수업이 있으며 제 2 단계는 한국어통역, 한국 개황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종교, 문화, 민속 등) 등 과목이 있다. 중앙민족대학 조선(한국)어 학부는 1972 년도 설립된 중앙민족학원 중국어 조선어 번역 전공에서 시작됐고, 1995 년 조선한국 언어 문학학과로 변하였다. 현재 조선언어문학 과 중, 한 경제 무역 번역 두 세부 전공이 있다, 매년 대략 70 명 정도의 학부생을 뽑고 있다. 조선언어문학전공은 어언학 개론, 현대한어, 중국고대문학사, 조선현대문학사, 조선역사, 조선문화사 등 50 개 과목이 있고, 중, 한 경제 무역 방향 학생은 현대한어, 한국어 어법, 중, 한 언어비교, 한국경제, 한국문학사, 국제무역 실무 등 50 개 과목을 배우고 있다.

1.2 탐방: 인재배양 측의 시각

한국어 교육의 전공 과정 분석 외에, 필자는 인재 배양 측이 제공한 시각으로 복합형 한국어 인재 배양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시도했다. 북경대학교 외국어학부 부주임 남연 교수님께서 취재에 응해 주셨다, 이하는 정리한 취재 내용 이다:

(1) 문: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 한국어학과의 역사 소개?

답: 본 전공은 국내 고교 중 최초로 설립된 조선어 전공이다. 1945 년도에 설립됐으며, 그 전신은 곤명 국립 동방 언어 전문대학 한국어학과 이다, 1946 년도에 남경으로 옴 겼으며, 1949 년 북경대학교 동방언어학과로 합병됐다. 92 년 한, 중 수교 당시, 북경대학교 조선어(한국어) 는 독립적인 학부가 아니었다. 1992 년 이전 조선어(한국어)전공의 주요 연구 대상은 북한이었다. 북경대학교 조선어 전공의 교육중심과 교재 선택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한국어 어법과 사용하는 언어상의 변화를 이루게 됐다. 2009 년,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은 조선(한국) 학부를 설립하였고, 한국학 연구기관도 생겼다. 현재, 한국어학부는 매년 15~16 명의 학부생을 모집 하고 있다. 수능성적으로 뽑힌 학생과 미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선발한 학생의 비율은 1:2 정도 된다. 모든 한국어 전공은 중국 교육부에 조선어 전공으로 등록 되어있다.

(2) 문: 지금 북경대 한국어의 교육중점은? 어떻게 학생에게 한국과 관련된 다방면 지식을 알려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답: 본과학생은 사전 한국어 기초가 없기 때문에, 1,2 학년은 언어 위주로 가리키고 있다. 3 학년부터 한국사회/문학/역사 등 내용의 비중을 늘리며 이런 내용들을 교재 안에 유화시켜 가리키고 있다.

(3) 문: 졸업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진로 방향?

답: 한국어 실력은 학생마다 다르지만, 2 학년 때 TOPIK 중, 고급수평을 통과하는 학생이 상당수며 졸업 후 절반 이상의 학생은 유학을 선택하는데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을 주로 택한다. 졸업생 중 석사 전공을 바꾸는 예가 많다, 특히 경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학생이 많다. 한국으로 가는 학생수는 비교적 적은 편 이다.

(4) 문: 학부는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가?

답: 2 년 전부터, 삼성한국본부는 매년 우리학과에 와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여름방학인턴프로그램에 참가시키며, 일을 잘하는 학생에게 정식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북경대학교학생은 취직선택 범위가 넓으며, 기회가 많아, 졸업 후 한국기업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적다. 많은 졸업생들의 반응에 의하면 한국회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와 민족 단결주의로 인해 발전할 공간이 적으므로, 학생들은 한국기업에서 경험만

쌓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외교부도 매년 학생들을 뽑아간다.

(5) 문: 한중 학생 교류 활동 현황?

답: 북경대의 학교간 교환 협정은 모든 한국어 전공 학생에게 교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전공(경제, 국제관계, 사회학, 중문 등)까닭에 교환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한 학기 정도이다. 우리 학과 학생은 국비장학생으로 북한대학으로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교환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 학기 수업이 이미 시작되어, 북한에 가는 학생수가 적다.

(6) 문: 북경지역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교들의 한국어 교육 중점에 대하여?

답: 타교의 상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북경대학교 한국어학과는 다양화 적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고, 대외경무대학과 낙양외국어대학교는 학교자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경제무역과 군사)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7) 문: 한국어 교육 발전의 전경과 제일 큰 부족?

답: 어떤 학자들은 “한류” 열기는 이미 최고봉에 도달했으며 머지않아 이 열기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중한 관계의 우호적 발전 방향과 양국 리더들이 상호간 교류에 지지도를 본다면 이 열기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본다, 한국어 교육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한국어 교육 중에서 부딪친 제일 큰 난관들은 이하와 같다: 먼저, 적합한 교재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고학년 학생을 위한 좋은 교재가 없다, 한국에서 만든 교재는 내용이 풍부하고 신선 하지만, 중국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교육 인원도 부족한 편이다. 현재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 한국어학과는 총 6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 두 분은 곳 은퇴 하실 예정이시다. 한국인 교수님들은 중국어 능력 때문에 가리키는 과목이 한정 되어있다, 중국어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과정들은 가리키기 어려운 편이다. 중국은 한국처럼 연구년 제도가 없어, 많은 교수님들은 학술적인 “충전”을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학술연구나 방문학자를 못한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어종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국어는 중국에서 변두리 신세다. 북경대 한국어 학과는 고정된 운영 자금이 없어, 자금 부족 또한 한국어학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8) 문: 어떠한 영역에서 중, 한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답: 중, 한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많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문화교류는 적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자주하는 얘기 중 북한의 핵 문제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한국의 우수한 정서와 철학 또 이를 담아낸 책들의 번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곤 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1.3 설문조사: 인재 측 시각에서

2015 년 5 월 17 일,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 에서 열린 한국어 변론 대회에 참가한 북경대학, 북경외국어대학, 중앙민족대학 이 3 학교의 일학년에서 사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유효한 설문조사 63 분을 회수했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일이 학년 학생이 많았다.

설문조사 원본:

북경지역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생 설문조사

학교_____ 이름_____ 성별_____

1. 한국어 랭귀지 파트너가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2.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A. 네 B. 아니요

3.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_____

4. 대학교에 입학한 방식은?

A. 수능시험 B. 특례

5. 한국어가 1 지망 이었나요?

A. 네 B. 아니요

6. 부전공이 있습니까?

A. 네(_____) B. 아니요

7. 한국어를 공부해본 결과, 현재 한국의 관해 제일 관심 있는 방면은? (단답형)

□언어 □경제 □정치 □역사 □문화 □과학기술 □예술 □기타 (_____)

8. 수업 내용 중 한국과 북한의 관한 내용 비중은? _____

9. 현재 한국어 교육에 있어 부족한 점은? (다답형)

□교육방식 □내용난이도 □선생님 과 학생비율 □외국교수 비율 □비언어 과정비중 □한국어 전공을 대한 국가투자 □기타 (_____)

10. 현재 한국어 공부 중 부딪친 어려운 점 과 이유? _____

11. 한국과 연관된 국제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12. 졸업 후 계획은?

A. 중국에서의 석사과정 (a. 한국관련전공 b. 다른 전공)

B. 취직 (a. 한국에서 취직 b.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다른 외국기업 c. 컨설팅 d. 기타)

C. 유학 (a. 한국어전공과 관련된 전공 b. 다른 전공)

13. 중한교류에 대한 건의, 중한교류를 펼치기에 적절한 영역 세가지를 고르시오:

□교육 □문화 □경제 □환경 □정치 □자원 □기술 □예술 □기타 (_____)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경대 한국어전공 학생 중 수능을 걸쳐 들어온 학생과 외고에서 미리 선발된 학생수 비율은 거의 1:2 였다, 그 중 한국어가 제 1 지원인 인원은 29.1% 였다. 조사한 2,3 학년 학생은 부전공이 다 있었으며, 대학교 1 학년 학생일 경우, 아직 부전공을 선택하지 못 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경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생은 거의 100%에 가까운 부전공률임을 예측 할 수 있다. 북경대 한국어전공 학생 중에선 도약을 위해 발판으로 삼는 현상도 심각하다. 이는 미래 발전 계획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편이며, 이들이 택하는 전공도 한국과의 연관성이 깊지 않다, 설문 조사 내용 통계에 의하면 한국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계획하는 학생은 12.5%였다.

북경외국어대학 학생 중 모든 학생은 다 중국 수능시험을 거쳤고, 학생을 취재한 결과 최근 6~7 년 동안 다 수능생 만 뽑은 걸로 알려졌다. 20.8% 학생이 제 1 지망을 한국어로 선택하였다. 한국과 관련된 석사과정, 중국 내 한국기업에서 취직 및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희망하는 비율은 세 학교 중 제일 높았다, 8.3%, 29.2%와 8.3%였다. 부전공률은 북경대 보다 많이 낮았다, 16.7% 학생만 부전공이 있었다. 중앙민족대학은 33.3% 학생이 한국어를 제 1 지원으로 썼다, 중앙민족대학은 부전공을 제공하지 않는다. 똑같이 자동 조정, 배치 현상이 심각했으며 학생들은 한국어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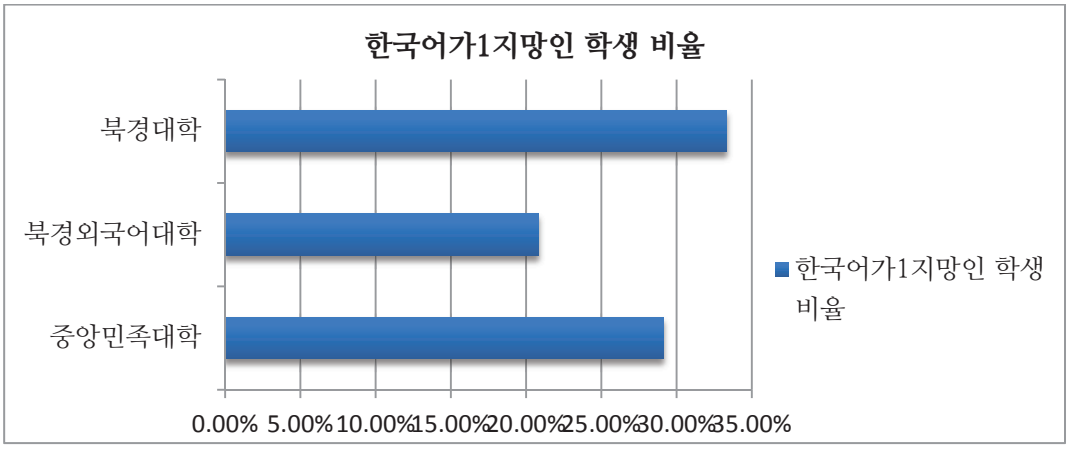


표 3-1

마지막 문제에서 제일 많이 뽑힌 영역은 문화 73.01%, 경제 52.4% 와 교육이었다 52.4%. 이 결과는 한, 중간 교류가 경제 외에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더욱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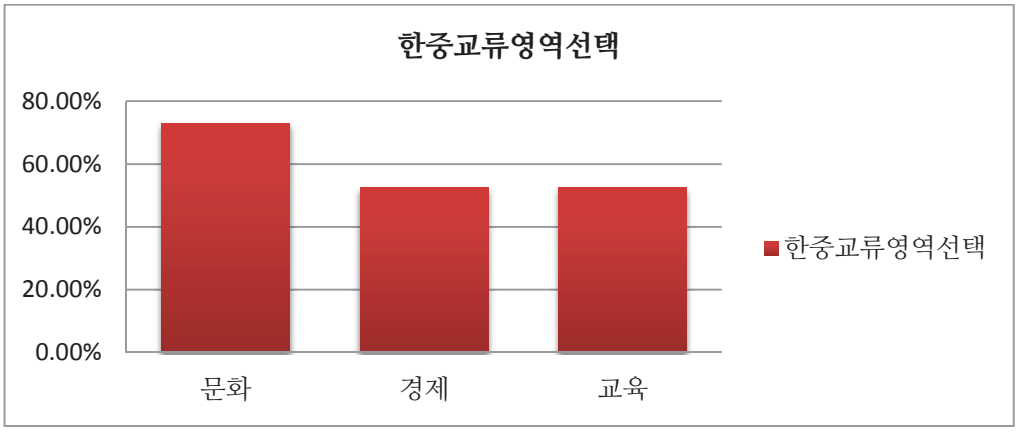


표 3-2

1.4 복합형한국어인재배양종합분석

a. 언어중심으로 과다 기울어진 배양모드

세 학교의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 봤을 때, 한국어 교육은 아직도 언어능력 위주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본과 초급 단계엔, 중앙민족대학 중, 한 경제 무역 번역 전공 외(이 전공 또한 한국어 통역, 번역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 다른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 등 기본적인 능력을 다진다, 기타 방면에 과목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 본과 3 학년부터는, 북경대학교 한국어 전공을 예로 하면, 비교적 많은 사회, 문화 등 한국에 대한 다 시각적인 과목이 비교적 많아졌다. 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의 단절감을 느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학업의 난이도 증가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런 다 시각적인 과목들의 중심도 사실상 기본 언어 능력의 훈련이며 학생들은 깊이 있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북경외국어대학 임항 교수님과의 교류 중, 북경지역 대학교 한국어 교육은 전제적으로 언어문학에서 다양한 한국학으로 개혁하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b. 심각한 “발판” 현상

한국어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정공의 대한 태도는 극과 극을 달리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한국어전공을 일 지망으로 쓴 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한국어 발음과 언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에 학생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명확한 공부동기와 흥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저자는 학생들의 지망 선택과 상관 되어있다고 생각 된다). 이 세 대학 한국어전공학생 중, 제 1 지망이 한국어인 비율은 낮았다, 특정 학교를 들어오기 위한 자동 조정 배치를 따른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의 학생은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학업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이는 한국어인재의 심각한 유실현상이 심

각하며, 복합형 인재 배양의 아주 큰 타격이 되고 있다.

c. 적합한 교재 부족

중국사람에게 적합한 특히 한국어전공 고학년 학부생을 위한 교재가 부족하다. 중국자체에서 출판한 교재는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언어, 단어 등 기초적인 내용의 충실하지만 다양화가 부족하다. 한국본토에서 만들어진 교재는 내용이 풍부하며 참신하지만 중국학생이 사용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예를 들면 한국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중국사람은 모르고 있는 배경지식은 생략 해 버리는 것이다. 좋은 교재의 부족함은 한국어 전공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에 넘어야 할 산중에 하나이다. 김병운교수는 한국어교재의 부족한 점들에 대한 건의를 4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새롭개 구성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각 학생층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필요하다; 체계적이며 상호 관련된 교재가 필요하며 교재내용은 더욱더 합리적이며 과학적 이어야 한다.[13]

d. 부족한 교사자원

현재 한국어 교사 자원은 부족하며 미래에는 결핍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수업 부담이 크며 자신의 학술연구의 많은 힘을 쏟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우수한 학술성과의 창조의 지장이 되고 있다. 한국어 전공학생들 중 졸업 후 한국어와 관련된 정공을 석사방향으로 목표를 정하는 수가 적으므로, 고학력 한국어 인재의 부족함은 중국 한국어교육의 “교육” 과 “배움” 이 끊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중국대학교의 복합형한국어인재 배양에 매우 불리하다.

e. 학생모집정책의 잠재적인 문제

2015 년 중국교육부 〈2015 년 교육부 고교학생부서 고등교육학교부분 특례학생 모 집에 대한 통지〉 중 특례학생부분은 이하와 같은 규정을 새웠다 “고등교육학교는 특례형식으로 학교의 문화시험을 보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학생 입학을 금지하며, 특례를 이용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모집한 학생을 외국어 전공이 아닌 타 전공으로 조정배치 할 수 없다.”[14] 이는 “특례형” 모집이 “특권성” 모집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일종의 예방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통지〉는 2016 년부터 차츰 외국어고등학교의 추천 한도를 줄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어전공의 발전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설문조사와 취재를 통해 얻은 결 과를 대비 해 보면 중국 수능을 걸친 학생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특례로 뽑힌 학생은 학습능력 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외고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학과 선생님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공부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13]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14] 教育部高校学生司（2015）1 号文件《教育部高校司关于做好 2015 年高校部分特殊类型招生工作的通知》2015 年 1 月 15 日

2015 년 학생 추천이 가능한 외국어 고등학교 추천 한정수

외국어고등학교	추천 한정수
천진외국어학교	120
석가장외국어학교	175
태원외국어학교	160
장춘외국어학교	165
상해외국어대학부중 (포동´ 포서校区포함)	180
남경외국어학교	200
항주외국어학교	140
하문외국어학교	160
남창외국어학교	135
제남외국어학교	220
정주외국어학교	195
무한외국어학교	150
광주외국어학교부속외국어학교	95
심천외국어학교	185
중경외국어학교	125
성도외국어학교	120

III. 결론 및 정책 조언

교과서의 편찬은 중국 학생들이 사용할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사들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국민 정서"를 중요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과정에서 중국적 인식을 가지고, 다방면적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지식 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15]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 체계는 교과서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교습 환경, 학생의 언어 수준, 학습 시설 등의 차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16] 학생의 학습 참여도와 흥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모의 상황극 등의 교육 내용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충분한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평가 방식도 중요하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는 교육 체계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결합하여, 문화의 측면에서 언어의 의미를 찾아내고, 학생의 다방면적 지식을 충족시키며 한국 문화와 사회의 친근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구성이 참신하며, 다양한 계층 학습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다양한 교과서 또한 필요하다. [18]교과서 간의 체계를 이루고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단어, 문법과 문장 유형에 중점을 둔 교과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고려된다. 오히려 보기와 듣기를 결합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며, 학습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 다양한 능력을 강조한 학습 흥미를 증진할 교과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참고 문헌 등 다른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충 도구가 될 것이다.

교사들의 배양과 교육 수준과 질도 향상해야 한다. 현재 재중 한국어 학과 교사들은 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과 교사들은 이론적 기초 지식과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재 임용을 더 많이 늘려야 하며, 한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중국 고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재직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교사 방문 교류 등 더 나은 체계를 구상하고 한국어 교육 교사 자격의 갱신도 필요하다.

---

[15] 李珊，张传霞，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 年第 7 期。
[16] 许坤:《浅析大学院校韩语教学的创新》原载于《中国科教创新导刊》2013 年第 17 期，P24
[17] 王立群:《关于高校韩语教学的创新研究》原载于《科学中国人》2014-08-01
[18]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른 제안을 더 보충하고자 한다.

1. 현재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종합 인재 양성 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충분하고, 전체적인 방향도 비교적 명료하다. 즉 새로운 국내와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언어와 다른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겸비한 종합적 한국어 인재 양성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복합적 한국어 인재가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소질과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실질적인 체계와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종합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개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는 바이다.

2. 현재 한, 중 대학 간, 대학교와 한국 기업 간의 교류와 실습 협정 등은 모두 각자 실행하고 있고, 더 효율적이고 전면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자원 공유의 플랫폼은 없다. 또 한, 중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협정의 이행에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3. 한•중 정부, 특히 교육부 간의 전체적이고 중 장기적인 정책 제정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 배양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의 한국어 교과 과정 설정에 지도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중 정부와 기업 간 중점 대학교에 자원과 자금의 투자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어 종합 인재의 양성은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이며,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무역, 문화와 사회 등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점 대학교의 종합적 한국어 인재 양성에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 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각 중국대학교와 한국 대학교, 한국 기업, 그 외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이론적 교육을 실전과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습에 참여하고, 교류 활동에 함께하므로 한국 사회의 각 방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다면, 실습과 교류의 과정에서 스스로 종합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4. 한국어 인재 배양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교과서와 교사진들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측에서는 교직자들의 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자들을 더 많이 배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참신한 교과서 외에도 한•중 양국의 교류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중국어로 수업이 가능한 한국어 교사를 충분히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사들이 중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인재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파견된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인재 배양 과정 중에서 “보충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한•중 관계의 여러 방면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한국어 교사들도 한국에서 연수 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사들의 교습과 연구 실력을 향상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서 한•중 양국의 여러 영역에서의 인재 배양을 해야 한다.

5. 현재 교과 과정 설정에는 언어와 문법에만 중점을 두는 체계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른 영역의 교육 중점을 발전시켜 한국의 문학, 역사, 문화 그리고 기타 경제, 정치, 사회 영역의 교과 과정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고전 문학 작품 등 책의 번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비록 2016 년 이후 중국은 점차 외국어 고등학교의 수시 전형을 좁혀 나가고 추천 학생 수도 줄일 계획이지만, 아직도 중점 도시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한국어 인재를 배양하는데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더 나은 언어적 기초와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필자는 한 • 중 양국의 문화 교류,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사 간의 교류에 기초 한 더 다양한 교류를 증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국내 중점 외국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일대일 방식의 교류도 장려하면 좋을 것이다. 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우수한 한국어 인재라면, 한국어 교과 과정의 지도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庄智象, 等：《关于国际化新型外语人才培养的思考》原载于《外语界》2011年第六期

张英美：《中国高校韩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倾向特点》原载于《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3年12月 第46卷第6期

金秉运, 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年第5期

李珊, 张传霞, 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年第7期

邱红：《中韩两国人才交流和合作开发研究》原载于《东北亚论坛》2008年11月第17卷第6期

焦新：《袁贵仁与韩国教育科技部部长李周浩举行会谈》载于《中国教育报》2012年5月22日第01版

教育部高校学生司 (2015) 1号文件《教育部高校司关于做好2015年高校部分特殊类型招生工作的通知》2015年1月15日

许坤：《浅析大学院校韩语教学的创新》原载于《中国科教创新导刊》2013年第17期

王立群：《关于高校韩语教学的创新研究》原载于《科学中国人》2014-08-01

Nye, J.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 2004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与科学技术部关于高等教育领域学历学位互认谅解备忘录》http://www.cdgdc.edu.cn/xwyyjsjyxx/dwjl/xwhr/xwhrxy/264843.shtml
检索日期：2015-5-22

“北京大学朝鲜 (韩国) 语言文化系简介丨科学的人才培养方案”
http://www.olc.pku.edu.cn/korea/list.php?sortid=78#page7405检索日期：2015-5-22

민현식(2006)： “한국어교육학 개관”, 〈한국어교육론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北京地区高校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研究

李晟援，李斯淼
北京大学

内容概要

在国际关系理论中，后现代的“建构主义”(Constructivism) 理论近年来引发了国际社会的热烈讨论。在风云变幻的国际社会，国家之前如何能够实现真正的相互学习，相互了解，避免过度猜测带来的“修昔底德陷阱”是国际关系的重要研究问题。中韩两国一衣带水，交往历史源远流长。要形成“共识”和“认同”，就需要了解中国和韩国两国多领域情况，通晓两国语言的复合型韩语人才发挥重要的桥梁作用。

近年来，随着韩国文化产品为核心的“韩流”在中国持续发酵，广大一般民众对于韩国的文化逐渐熟悉，学习韩语的学生数量日益增多，然而在中韩交往的各个领域面临着尖端人才缺乏的尴尬境地。以培养尖端精英人才为任务的高等院校面对这种状况亟待重新探讨传统的韩语教学模式，进行以培养面向新时期的全方位复合型韩语人才的韩语教学改革。高校韩语专业需要培养的复合型的韩语精英人才，是指除了掌握基本的韩语语言能力之外，有国际化视野，具备具体领域专业素养和能力，思维灵活，有跨文化沟通能力，立志于推动深化中韩多层次多领域的交流合作的新时期韩语人才。这对于促进中韩友好合作，推动两国多层次交流发展，实现精英人才自身价值都具有重要意义。

本文结合文献综述、政策分析、问卷调查、访谈等多种研究方法，通过对北京地区高等院校韩国语教学和人才培养现状的探析，思考如何培养出适应新形势、新时期下的复合型韩语人才，促进中韩两国友好合作迈入新阶段。

我们在既有学术成果的综述和研究中发现，现有学界在研究中韩复合型韩语人才培养时普遍认为现在的韩语教学主要障碍在于教学模式过于陈旧；教学的侧重仍过于偏重语言为主，对于其他领域的涉及较少或较浅；教材编写不利于中国学者使用，韩语教学师资力量不足等问题，因此许多学者呼吁要形成韩语教学的新思维；提出应创新教学模式，从文化深层次的角度挖掘

语言的意义，编写结构新颖、满足各个层次学习者需要的多样化教材，形成有体系、相互关联的教材，补充师资力量，提升教学水平等建议。

在进行实地访谈和问卷调查后发现，高校的复合型韩国语人才培养中的问题远比以上罗列的复杂。现在的复合型韩语人才培养中还存在制度框架含混不清，“跳板”现象严重以及招生政策带来潜在问题情况。同时，现在对于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更多是概念意义层面的推广，中韩高校间和高校与韩资企业之间的交流、实习工作协定同样缺乏中长期的规划，协议具有落实、执行困难。

因此，中韩政府尤其是教育部门应该从宏观层面加强整体和中长期的政策框架制定；各大企业财团应增加对于重点高校的资金、资源扶持力度；韩方应注重培养有中文授课能力的韩语教师，使这些教师在韩语人才培养中提供独特视角；矫正当前的课程设置中过多侧重于语言和语法的情况，特别注意推广韩国文学、历史、文化，以及其他经济、政治、社会领域的课程；鼓励韩国高校加强与国内重点外语高中的交流联系，宣传韩国历史文化等。

关键词： 韩语教学 复合型人才 北京高校

Ⅰ. 绪论

一、研究背景和目的

2014 年初，韩国SBS电视台播放的水木剧《来自星星的你》在中国产生强烈反响；2014 年 10 月，中国浙江卫视通过引进韩国SBS电视台综艺节目《Running Man》制作的《奔跑吧兄弟》大型户外竞技真人秀节目再次引爆收视。以韩剧，综艺，K-Pop等韩国文化产品为核心的“韩流”在中国持续发酵，引发热议。这种以丰富多样的文化产品为载体，面向广大中国普通民众的韩国流行文化成为韩国面对当今风云变幻的国际形势施展其国家“软实力”[1]，展开“魅力攻势”[2]的重要手段。

然而，与普通大众对韩国文化逐渐熟悉的良好趋势相伴生的，却是韩语专业人才培养中面临的种种问题。韩国学研究后备学术力量匮乏，韩资企业难以觅得复合要求的人才，部分高校韩语专业培养的韩语人才流失到其他领域，且韩语专业毕业生面临就业难，有研究指出，韩语

[1]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

[2] “魅力攻势”译自 *Smart Power*，首次出现于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7. Pxi

专业已成为中国大学生就业市场中失业率最高的专业之一[3]。充足事实表明，高校的韩语教学模式亟待改革，培养面向新时期的全方位复合型韩语人才成为韩语改革的核心问题。

2010 年颁布《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 年)》提出，高等教育的任务之一是“培养高层次创新型科技人才”。[4]韩语教学也不例外。高校韩语专业需要培养的复合型的韩语精英人才，是指除了掌握基本的韩语语言能力之外，有国际化视野，具备具体领域专业素养和能力，思维灵活，有跨文化沟通能力，立志于推动深化中韩多层次多领域的交流合作的新时期韩语人才。这对于促进中韩友好合作，推动两国多层次交流发展，实现精英人才自身价值都具有重要意义。

本文的研究意义体现在，通过对北京高校培养复合型韩语人才的现状讨论，研究高等教育中的韩语教学如何更好地促进中韩友好合作，提出相关政策建议。进而补充当前对于韩国流行文化的研究侧重，也为韩国的复合型汉语人才培养，和全球化浪潮下跨国专业尖端人才培养提供一些经验。

二、研究方法和研究范围

本研究以既有中韩教育合作框架和韩语教学课程设置为基础，通过和高校韩语教员深入的访谈和针对高校韩语专业本科学生的问卷调查，分析当前高校韩语人才培养中存在的问题并以此为出发点提出相关政策建议。研究范围的确立结合了中国高校韩语教学点的分布特点，和笔者北京大学本科学生的身份。

北京作为中国的首都，具有较强的政治敏感性和资源优势。在中韩建交之后各大高校纷纷开设了韩国语专业，但是不可忽视北京大学、对外经贸大学、北京第二外国语大学等北京地区高校的韩国语教学的历史较为悠久，教员较其他地区更为充足有经验。同时北京地区高校的学校综合实力较为突出，对于韩国语教学不单一倚重于语言，在全国的韩国语教学中有前瞻性，选择此地区进行研究更加具有现实意义。因此，笔者基于教学水平和声望综合考量，以及资料获取的可操作性，最终选择北京大学，北京外国语大学，中央民族大学的韩国语人才培养模式进行详细的案例研究。

[3] 麦克思数据有限公司. 2009 年度大学就业能力排行榜
[EB/OL].http://edu.sina.com.cn/j/2009-06-04/2220172420.shtml.

[4] 庄智象，等:《关于国际化新型外语人才培养的思考》原载于《外语界》2011 年第六期，P71-78.

三、文献回顾

（一）学界现有研究成果

近年来学界对中韩之间的尖端人才培养进行了相关研究。韩国学者闵宪植将韩国语的教育历史分为了三段：传统教育期（古代—1860 年）；近代教育期（1870 年代——1945 年光复前）；现代教育期（1945 年光复后—现在）。中国的韩国与教学由来已久。中国在“周礼”中的“四夷”设翻译官，东方语的史官当时的称谓为“寄”，后来也被称为译官、译士、舌人、通事等。明朝时期，“四夷馆”、“会同馆”负责培养史官，会同馆下有朝鲜馆、日本馆等 13 馆，在这里编撰的“华夷译语”中的“朝鲜馆译语”是中国的第一份朝鲜语学习教材，由此可见，朝鲜在当时中国外交上的地位重要。之后的清朝也在会同四译馆培养了史官。[5]中国学者张英美在《中国高校韩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倾向特点》一文中，按照时间脉络梳理了新中国高校韩语人才培养的历程。文中指出，新中国的韩国语教育大致分为两个阶段。第一阶段是 1949 年到 1992 年中韩建交之前。这一时期是韩国语教学的基础时期，教育点集中于北京大学、延边大学、洛阳外国语大学、北京对外经贸大学、北京第二外国语大学。1992 年 8 月 24 日，《中韩关于建立外交关系的联合公报》正式签署，这标志着中韩两国步入邦交正常化，其中促进两国多层次交流的工作，包括教育合作逐渐展开。在二十余年的时间内，截至 2012 年，全国范围内开设韩语专业的院校达到 154 所（包括国立、私立的大专院校），学生人数达到 3 万多名（本科生 2 万多名，专科生 1.5 万多名），教师队伍壮大到 1200 余名（包括外教）。同样，韩语专业的就业去向也经历了几个阶段。包括改革开放之前以统一指令分配为主；从改革开放到 1995 年向自由选择过渡；再到 2002 年，毕业生和就业单位双向选择等。就业的方向也从为外交部、文化部、国防等国家机关部门，逐渐过渡到合资、独资企业等多种选择。[6]

金秉运，吴相顺在《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中，结合自己的教学经历，提出韩语教育发展方向涵盖了初级、中级、高级、顶级四个级别，韩语教育不能只停留于培养学生听、说、读、写、译的初级和中级能力，而应该培养在中韩两国经济、文化、政治、外交等众多领域活跃的高级和顶级韩语人才。他们还提出，当前韩语教学中缺乏体系科

[5] 参见（韩）闵宪植：《韩国与教育学概况》载于《韩国语教育论 1》，国际韩国语教育学会编，韩国文化社，P22

[6] 张英美：《中国高校韩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倾向特点》原载于《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3 年 12 月 第 46 卷第 6 期，P138

学结构新颖的教材，教师的水平也有待提高等。[7]李珊，张传霞，孙飞飞在《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中指出，当前中韩合作在政治、经济、文化等多领域不断深化，但是韩语人才培养中仍然存在诸如师资力量薄弱，教材匮乏，教学方式单一等问题。[8]

（二）政策制度框架

对此，中韩政府从政策层面提供了相关方向指导。1992 年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1993 年中国开始向韩国派遣政府奖学金生和自费留学生，与此同时对韩国派遣教师代表团和教育行政官员代表团[9]，与韩国方面合作开设多种培训课程培养人才。 2008 年 5 月，时任韩国总统李明博访问中国，签署了《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科学技术部关于高等教育领域学历学位互认谅解备忘录》开启了中韩高等教育领域的新合作，为中韩高校增进合作交流提供政策支持，鼓励中国高校学生前往韩国交流学习并攻读硕士、博士学位。[10] 2012 年 5 月 21-23 日，第五届亚太经合组织（APEC）教育部长会议期间，中国教育部袁贵仁部长会见了韩国教育科学技术部部长李周浩，双方共同签署了《中韩 2012-2014 年教育交流与合作协议》，双方一致表示认真组织实施好“亚洲校园”项目，推动两国在韩语人才培养交流合作迈上新台阶。[11]然而，对于中韩联合培养复合型韩语人才的具体领域，政府缺乏一个有体系的整体框架制度设计，如在高校间的交流项目确定和设计多依赖于中韩高校自身沟通协调，缺乏中长期的规划，交流的协议落实也不到位、执行困难，且对于重点高校的资金、资源扶持力度也有待加强。

[7]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8] 李珊，张传霞，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 年第 7 期。

[9] 邱红:《中韩两国人才交流和合作开发研究》原载于《东北亚论坛》2008 年 11 月第 17 卷第 6 期。

[1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与科学技术部关于高等教育领域学历学位互认谅解备忘录》

http://www.cdgdc.edu.cn/xwyyjsjyxx/dwjl/xwhr/xwhrxy/264843.shtml 检索日期：2015-5-22

[11] 焦新:《袁贵仁与韩国教育科技部部长李周浩举行会谈》载于《中国教育报》2012 年 5 月 22 日 第 01 版

II. 正文

一、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分析

（一）北京高校韩国语教学课程设置

笔者首先尝试从课程设置上来探究当前高校韩语人才培养现状。北京大学东方语言文化系朝鲜/韩国语言文化专业始创于 1946 年，是我国相关学科中最早建立的专业。2009 年，北大外国语学院成立朝鲜（韩国）语系。现有教授 4 人、副教授 3 人。笔者获得的北京大学朝鲜（韩国）语言文化系人才培养方案[12]（课程设置）如下所示：

1. 培养方向及教学目标

本专业培养能从事外交、外贸、国际文化交流、涉外企业管理、新闻、出版、外语教学和外国问题研究等工作的德才兼备的应用型专门人才及朝鲜、韩国学研究的高尖端精英人才为目标。要求学生扎实掌握韩国（朝鲜）语语言文学基础知识和能胜任实际工作的听说读写译技能，对韩国、朝鲜的社会、历史、文化、外交以及政治、经济现状等有较广泛的了解，对中国和世界文化有比较广博的知识，英语水平达到四级，具有较好的汉语水平和表达能力，具备独立学习的能力、初步的研究能力，以及较好适应不同社会职业需要的能力。

本专业每年招收研究朝鲜、韩国语言文化方向的本科生、硕士研究生及博士研究生。为本科生开设基础朝鲜（韩国）语、朝鲜（韩国）语视听说、朝鲜（韩国）语会话、朝（韩）汉/汉朝（韩）翻译、朝鲜（韩国）文学史、朝鲜（韩国）语语法、朝鲜（韩国）经济、朝鲜（韩国）国际关系史、朝鲜（韩国）史、韩国当代政治与社会等课程，在实际教学中以训练学生的韩国（朝鲜）语基本功为重点，注重对学生听说读写译等技能的训练。

另外，本专业还创造条件为学生提供赴朝鲜、韩国进行语言实习的机会，鼓励学生在学好专业课的基础上攻读经济、哲学、艺术等系的第二学位或辅修专业，强调对学生实际应用能力的培养，力争把学生培养成为既具有扎实的专业基础知识，又具有较强的敬业精神和适应能力的复合型人才。

本专业为硕士研究生和博士研究生开设韩国语发展史、韩国语语法理论、韩国文化交流史，

[12] “北京大学朝鲜（韩国）语言文化系简介丨科学的人才培养方案”
http://www.olc.pku.edu.cn/korea/list.php?sortid=78#page7405 检索日期：2015-5-22

韩国思想史，朝鲜半岛问题研究，韩国文化史料导读、韩国译学研究等课程，为社会培养具有较高科研水平的专门人才。

2．学分要求与课程设置

总学分：142 学分，其中：

（1）必修课程：86 学分

全校公共必修课程：32 学分

课程号	新课号	课程名	周学时	学分	开课学期
03835061		大学英语（一）	4	2	秋季
03835062		大学英语（二）	2	2	全年
03835063		大学英语（三）	2	2	全年
03835064		大学英语（四）	0	2	全年
04030150		思想品德修养	2	2	
04030170		毛泽东思想概论	2	2	
04031490		马克思主义哲学原理	2	2	
04031380		当代世界经济与政治	2	2	
04031340		马克思主义政治经济学原理	2	2	
04031370		邓小平理论	2	2	
00831610		文科计算机基础（上）	3	3	
00831611		文科计算机基础（下）	3	3	
60730020		军事理论	2	2	
————		体育系列课程	—	4	

专业必修课程：56 学分

课程号	新课号	课程名	周学时	学分	开课学期
03531781	KOR-0-001	韩国（朝鲜）语（一）	10	8	秋季

03531782	KOR-0-002	韩国（朝鲜）语（二）	10	8	春季
03531461	KOR-1-001	韩国（朝鲜）语视听说（上）	2	1	春季
0353146	KOR-1-002	韩国（朝鲜）语视听说（下）	2	1	秋季
03531783	KOR-0-003	韩国（朝鲜）语（三）	10	8	秋季
03531784	KOR-0-004	韩国（朝鲜）语（四）	10	8	春季
03531681	KOR-1-003	韩国（朝鲜）名篇选读（上）	4	2	秋季
03531682	KOR-1-004	韩国（朝鲜）名篇选读（下）	4	2	春季
03531761	KOR-0-005	韩国（朝鲜）语会话（一）	4	2	春季
03531762	KOR-0-006	韩国（朝鲜）语会话（二）	4	2	秋季
03531763	KOR-0-007	韩国（朝鲜）语会话（三）	4	2	春季
03531771	KOR-1-005	韩国（朝鲜）语（五）	10	6	秋季
03531772	KOR-1-006	韩国（朝鲜）语（六）	10	6	春季

（2）选修课程：50 学分

本科素质教育通选课：16 学分

A. 数学与自然科学类：至少 2 学分

B. 社会科学类：至少 2 学分

C. 哲学与心理学类：至少 2 学分

D. 历史学类：至少 2 学分

E. 语言、文学与艺术类：至少 4 学分，其中至少一门是艺术类课程

专业选修课：至少 20 学分

课程号	新课号	课程名	周学时	学分	开课学期
03531520	KOR-0-008	朝鲜半岛概况	2	1	春季
03531551	KOR-1-007	韩国（朝鲜）语报刊选读（上）	2	1	秋季
03531552	KOR-1-008	韩国（朝鲜）语报刊选读（下）	2	1	春季
03531560	KOR-1-009	韩（朝）汉翻译教程	2	2	秋季
03531580	KOR-1-010	汉（朝）韩翻译教程	2	2	春季

03531611	KOR-1-011	韩国（朝鲜）文学简史（上）	2	2	秋季
03531612	KOR-1-012	韩国（朝鲜）文学简史（下）	2	2	春季
03531670	KOR-0-009	韩国（朝鲜）文化	2	2	春季
03531540	KOR-1-013	韩国（朝鲜）语语法	2	2	春季
03531710	KOR-1-017	韩国（朝鲜）经济	2	2	秋季
03531720	KOR-1-018	韩国（朝鲜）国际关系史	2	2	秋季
03531720	KOR-1-019	韩国（朝鲜）历史	2	2	春季
03531760	KOR-1-020	韩国（朝鲜）当代政治与社会	2	2	秋季

其它选修课程：如所选本科素质教育通选课和专业选修课不够选修课程 50 学分的要求，在此类课程中补齐学分。

（3）实践实习：必修，无学分

（4）毕业论文：5 学分

以北京大学朝鲜（韩国）语言文化系的课程设置情况来看，我们可以分成析出：韩语系的专业必修和选修课程在韩语系的整体课程体系中占比例约为一半（52%），可以看出在对学生的培养上比较着重综合素质的整体把握。在汉语专业必修课和选修课的课程数量和设置上，语言能力为核心的专业课程数量略多于选修课程。在大一大二阶段的专业课占比例较多，且着重于对读、写、视、听、说等基础语言能力的培养；大三大四的语言能力培养拔高到名篇选读、会话的阶段，同时在选修课上有了更多自由选择的空间。在选修课的类别设置上，主要的课程类别还是以语言语法类为主，占到 54%，其他类别的选修课为政治类（2 门），文化类（1 门），经济类（1 门），历史类（2 门）。其他类别选修课的数量较少，且多为概论性课程，对于相关领域的涉及并不深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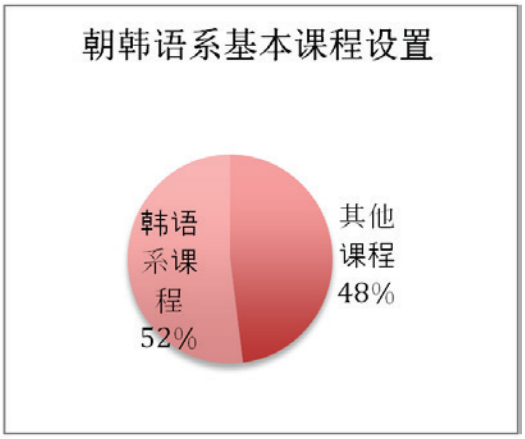


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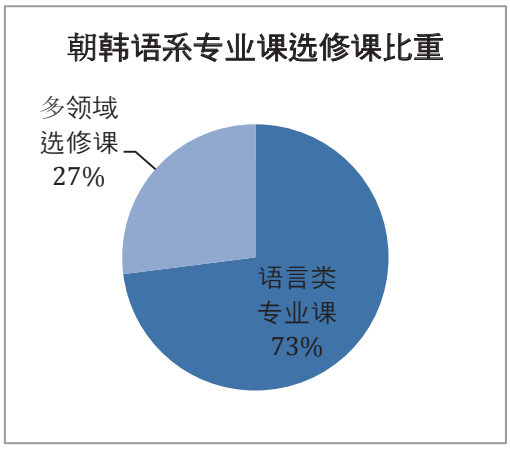


表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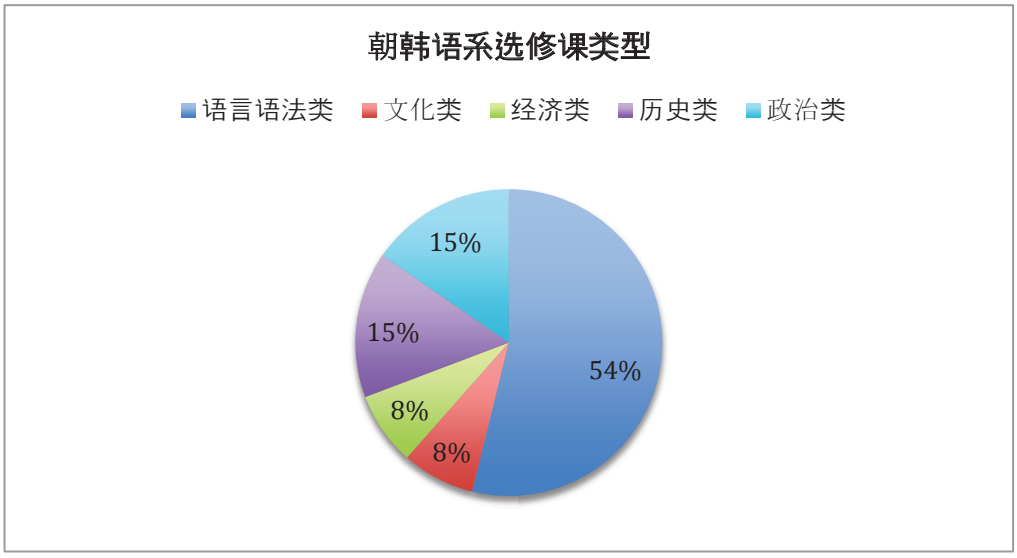


表 1-3

此外，笔者调查了解到，北京外国语学院朝韩语系为 23 个教学单位中的亚非学院下 16 语种中的一个专业。创建于 1994 年，本科 1994 年至 2004 年每两年招收一届学生，2005 年起改为每年招生，每年都会聘请韩国教授任教。四年本科教学分为一、二年级基础阶段和三、四年级提高阶段。第一阶段开设语音、语法、会话、听力、韩语精读等课程；提高阶段开始韩国语精读、写作、口译、笔译、泛读、视听说、韩国概况（包括政治、经济、法律、社会、宗教、文化、民俗等）、韩国文选、报刊宣读等。

中央民族大学朝鲜语言文学系(简称朝文系)沿源于 1972 年创办的中央民族学院汉朝翻译专业，于 1995 年改为朝鲜语言文学系。现设有朝鲜语言文学和中韩经贸翻译两个本科方向，每年招收 70 名本科学生。其中朝鲜语言文学本科方向主要课程有语言学概论、现代汉语、现代朝鲜语、古代朝鲜语、汉朝语言对比、朝鲜语文体学、文学概论、中国古典文学史、中国现代文学史、朝鲜古典文学史、朝鲜现代文学史、中国朝鲜族文学史、外国文学史、翻译理论与实践、精品选读与写作系列、新闻写作、朝鲜历史、朝鲜文化史、计算机应用、外语等 50 门课程。中韩经贸翻译本科方向主要课程有现代汉语、韩国语语法、中韩语言对比、翻译理论、中韩（韩中）经贸翻译、精品选读与写作系列、中韩经贸文体与写作、经济学概论、韩国经济概况、国际贸易实务、旅游服务礼仪与管理、韩国文学史、中国文学史、计算机应用、外语等 50 多门课程。

综合三校的课程设置，我们大致分析得出，除了中央民族朝鲜语言文学系下的中韩经贸翻译方向对于中韩经贸关系，中韩文学史等领域有较为深入的涉及，总体而言现在北京地区高校的韩语人才培养还是侧重于对基础语言能力的培养，在课程设置上寄予了读、写、译、视、听、说多于对韩国社不同的政治、经济、文化、社会等领域的深入研究学习，这在一定程度上限制了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

（二）访谈：人才培养的供给视角

除从韩国语教学的课程设置分析，笔者尝试从人才培养的提供方视角探析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北京大学外国语学院副系主任南燕老师接受了笔者的采访，以下为访谈内容的整理：

1. 问：关于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鲜（韩语）系的历史介绍?

答： 本专业是国内高校中开设最早的朝鲜语专业，成立于 1945 年，前身是 1942 年成立的昆明国立东方语言专科学校韩国语科，1946 年迁至南京，1949 年并入北京大学东语系，改称朝鲜语专业至今。92 年中韩建交时，北大的朝鲜语（韩国语）也并没有立即成为一个独立的学系。1992 年之前，朝鲜语专业主要的研究对象是朝鲜。北大的朝鲜语专业的教学重点以及教材的运用从朝鲜转移至韩国，经历了语法和用词上的改变。2009 年，北大外国语学院成立朝鲜（韩国）语系。

如今，北京大学朝鲜（韩国）语系每年会招收 15~16 名本科生。统招的学生与提前在外国语高中招收的学生比例大致为 1:2。所有韩国语专业在中国教育部的登记名均为朝鲜语系或专业。

2. 问：现在北大韩语系教学中的重点？如何让学生在多层次上认识韩国，现采用的教学模式有哪些？

答：由于学生在进入韩语系时都是零基础，大一大二阶段的韩语人才教学重点主要是放在语言上；经过第一阶段的语言的重点培养，从大三课程设置上开始会增加更多关于韩国社会、文学、历史等知识，将这些方面的内容融入到学生的教材当中教授。

3. 问：学生在毕业时的韩语水平以及大致的发展方向？

答：虽然韩语水平因人而异，但是大二后 TOPIK 过中高级水平是北京大学普遍的情况。毕业后，接近一半以上的学生会去美国、日本、英国、韩国以及国内其他知名学府继续深造。同时毕业生中转专业的情况较多，如转经济等，而去韩国的同学相比之下较少。

4. 问：学院是否有向同学提供实习工作机会？

答：从前两年起，三星韩国本部已连续两年来我系选拔优秀学生参加其公司的暑期实习活动，并对实习中表现优秀的同学，予以择优录取的机会。由于北大学生择业方向宽泛，机会较多，所以毕业后进入韩企的学生占少数。此外，现在也有毕业生在韩企工作后跳槽，表示不愿意长期留在韩企工作的情况，他们认为韩国企业由于多存在家族性的经营模式或民族团结性的因素，以后发展和上升的空间太少。中国的外交部每年也会招收一些学生。

5. 问：中韩学生交流活动现状如何？

答：北大的校际交换机会能覆盖到每个韩语专业的学生，但是由于学生们几乎都有双学位（经济、国关、社会、中文等），所以去留学的时间不长，仅为一个学期。同学也有机会以国家公派留学生的身份去朝鲜高校交换，但是由于和我校的学期时间衔接不太便利，前往的学生不多。

6. 问：北京地区高校间的韩语教学有什么不同侧重点？

答：我不能说清楚地了解其他学校的侧重点，但是北大的朝韩语系旨在培养多样化的人才。据我所知，对外经贸大学和洛阳外国语大学会结合本校自身（经贸和军事）特点教授韩语。

7. 问：韩语教学的发展前景以及遇到的最大困难和不足？

答：虽然许多学者质疑“韩流”的热度已经达到峰值且韩流热将逐渐褪去，但是从中韩关系友好趋势以及中韩领导人对中韩交流的支持上看，这种热度应该可以持续下去，韩语教学的发展前景还是比较乐观的。韩语教学上遇到的最大困难和不足主要为以下几点：首先，教材建设上存在严重的不足，尤其是没有适合教授大三大四中国学生的韩语教材，韩国自编的教材虽然形式新颖，但是内容在深度和难度上不适合外国人学习。其次，教师队伍上的不足也是一大问题。现在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韩语系共有6名中国籍教师和4名外教，中国教授中有两名教授即将退休，师资不够，而外教老师受中文水平的局限，一些需要中文解释的课程无法胜任。此外，师资队伍的紧缺以及制度上不像韩国教授一样有研究年，许多教授们无法从教学中脱身去“充电”，做较为长期的研究以及访问学者等。最后，小语种在中国仍处于边缘地区，而北大朝韩语系也并没有固定的机构费用，因此经费的不充裕也造成了进一步推动韩语学科发展的障碍。

8. 问：如何更好促进中韩交流，适合在哪些领域进行？

答：中韩的交流政治、经济上的多，然而文化领域上的少，我也常常告诫学生说朝核问题固然重要，但是韩国优秀书籍的翻译以及思想、哲学的介绍，这种看似不起眼的“小事”从长期来看对人类发展意义非凡。

（三） 问卷调查：人才培养接收方视角

笔者在从人才培养提供方视角理解分析复合型韩语人才培养现状和问题的基础上，尝试从人才培养的接收方，即高校韩语专业学生的视角来理解这一问题。笔者在2015年5月17日在北京大学外国语学院新楼举办的北京大学、北京外国语大学、中央民族大学三校韩语辩论赛中向参加活动的大一至大四的学生分发了问卷。共收回效问卷63份，受访者中大一、大二的学生居多。

问卷原文：

北京高校韩语系学生问卷调查

学校_____ 年级_____性别_____

1. 您是否有韩国语伴？

A. 是　　B. 否

2. 您是否有或想找韩国国籍的另一半？

A. 是　　B. 否

3. 请问您学习韩语的原因（动机兴趣）是_____

4. 请问您进入贵校韩语系的方式是？

A. 高考　B. 保送　C. 自主招生

5. 请问您的第一志愿是韩语吗?

A. 是　　B. 否

6. 您有双学位或辅修吗?

A. 有（请注明_____）　　B. 没有

7. 经过之前阶段的学习，您现在对韩国最感兴趣的方面是：（单选）

☐语言 ☐经济 ☐政治 ☐历史 ☐文化 ☐科技 ☐艺术 ☐其他（请注明_____）

8. 在课程教学中您对于韩国和朝鲜的分别涉及比重？_____（请填写比率）

9. 您觉得目前的韩语教学有什么不足？（多选）

☐教学模式

☐内容难度

☐师生比例

☐外教比例

☐非语言课程设置比重

☐国家对韩语教学投入

☐其他（请注明_____）

10. 您目前学习面临的困难和原因?

_____

_____

11. 您是否有与韩国有关的出国交流经历?

A.有（请注明项目名称_____） B.无（是否有意愿参加_____）

12. 您未来的职业发展计划是：

A.保研（a.韩语专业相关 b.转系）

B.工作（a.去韩国工作 b.在国内的韩资企业&其他外企 c.咨询 d.其他）

C.出国读研（a.韩语专业相关 b.转系）

13.您对促进中韩交流的建议：请在下列选项中，选出3个您认为最适合开展中韩交流的领域：

□教育 □文化 □经济 □环境 □政治 □能源 □技术 □艺术 □其他（请注明_____）

通过对收回的有效问卷进行统计，我们发现北京大学的韩语系学生从生源来看高考生与保送生的比例近似1:2，第一志愿者在受访者中只29.1%。若考虑到大一新生可能还没有报上双学位和副修的情况而大二至大三的学生几乎每人都有双学位，北大韩语专业学生的双学位比例可谓极高。然而，北大的“跳板现象”较严重，所谓“跳板现象”就是借助小语种项目（相较更容考入北大）进入北京大学达到转系或相同目的，这在未来的职业与发展计划中体现的非常明显。多数学生选择出国读研，而理想学校多在欧美，赴韩留学的意愿低，其专业也往往与韩语不相干，受访者中愿意保与韩语专业相关研的学生只占12.5%。

北京外国语大学从生源来看，近六到七年全部学生来自高考选拔。第一志愿为韩语的学生占 20.8%。韩语相关专业的保研、在国内韩企工作、到韩国读研的比例在三校中最高，分别占8.3%、29.2%、8.3%。有双学位或辅修的学生相比北大要少得多，在此次受访者中有无比例分别为16.7%（有），83.3%（无）。

中央民族大学受访者中 33.3%的学生在填写志愿时将韩语专业列为第一志愿，学校不提供双学位或辅修，同样存在调剂现象，并存在学生没有学习动力与热情的表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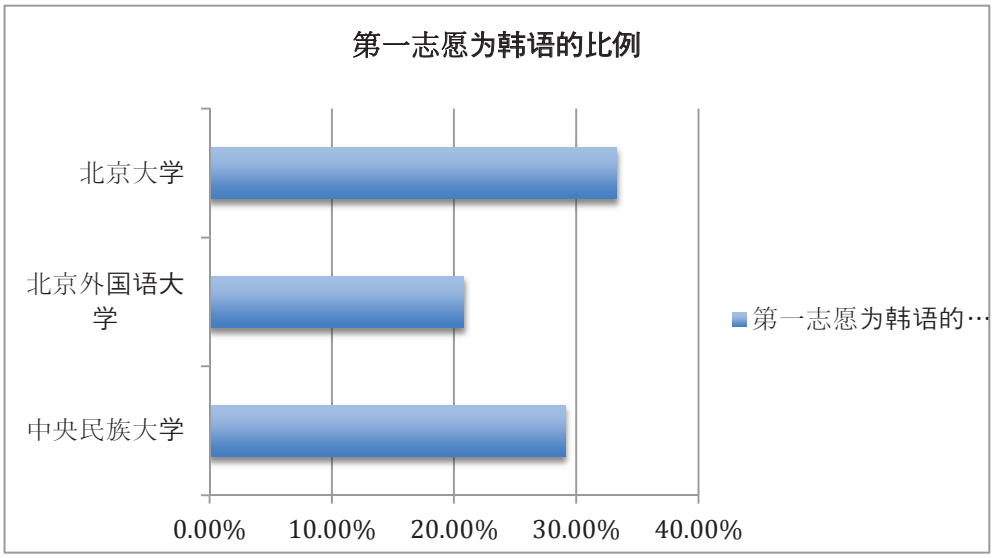


表 3-1

三个学校的学生在答最后一题（中韩交流适合领域）时，出现频率最高的领域依次是文化 73.01%、经济与教育并列第二，占 52.4%。中韩间经济领域交流频繁，结果可以在一定程度上反映中韩间的交流需要向文化和教育等多领域进一步推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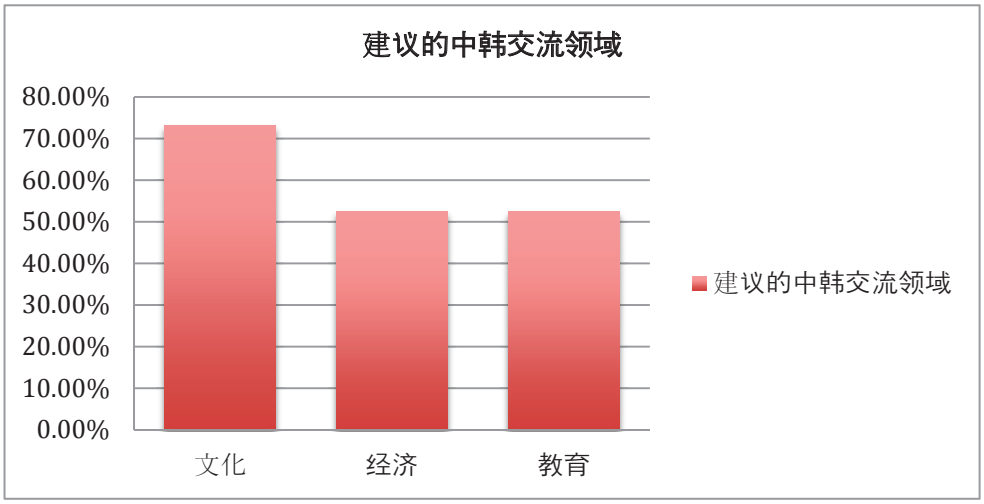


表 3-2

（四）高校复合型韩语人才培养状况的综合分析

1. 过度侧重于语言能力培养

综合三校的课程设置情况笔者分析，当前高校韩语系的教学仍然以语言能力为中心为主，

在本科的初级阶段，除中央民族大学中韩经贸翻译专业外（尽管该专业课程仍然以培养语言的口、笔译能力为核心），其他学校的课程设置主要强调培养学生的视、听、说、读、写、译等基本能力，对于社会文化历史等多维度课程开设较少甚至不开设。从本科三年级开始进入第二阶段，此阶段以北京大学韩语系为例，开设了较多的社会文化等多维度认识韩国的课程，然而在调查中学生也反映出，这种课程设置容易产生低年级与高年级教学见的断层感，突然增大的课程难度与要求让学生学习压力骤增。同时，这些看似多维度的课程教学内核仍以训练基本语言能力为主，并未真正做到引导学生深入学习相关领域。在与北京外国语大学任翔老师的交谈中，我们了解到北京地区高校的韩语教学整体上有从关注语言文学本身向文化等多元化的“韩国学”改革趋势，但是应看到目前的课程设置仍亟待改革。

2. 跳板现象严重

韩语专业学生对待专业的态度存在两种两级分化现象，部分学生（多为将韩语专业列为第一志愿的学生）的态度是较为积极的，他们对韩语的发音以及语言本身有较大的热爱。而另一部分学生显得较为消极、无奈，没有学习韩语的明确动机与兴趣（笔者认为这在很大程度上与学生填报志愿时是否将韩语专业列为第一志愿有关）。这三所大学韩语专业学生当中，第一志愿为韩语的学生所占比例小，而为“进入学校”而“服从调剂”占的比例高。相当数量的学生毕业后不再从事与韩国有关的学业或职业——专业性的韩语人才流失严重，缺乏复合型人才。这对韩语教育师资力量的培养也是不小的冲击。

3. 缺乏适宜的教材

缺少适合的教材，尤其是适合高年级本科生的教材。中国自编的教材会按照中国人的思维习惯，注重对语言词汇等基础性内容，却缺乏多样化。韩国本土教材虽然有许多形式新颖、内容丰富的教材但是对于中国学生在深度上唯恐不适，有许多背景内容因韩国学生熟知而省略或一概而过。优秀教材的缺乏是限制韩语专业进一步发展的瓶颈之一。金秉运教授韩国语教材存在的很多不足之处，金教授提出过四点看法：首先应该编写结构新颖的教材；其次，应该编写出满足各个层次学习者需求的多样化教材；第三，应该编写有体系、相互关联的教材；第四，教材的内容表述应该更加科学而合理。[13]

[13]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年第5期

4. 师资不足

师资存在紧缺、未来很可能短缺的问题。首先，既有的高校韩语教师并不充足，因此很难能够在自己学术研究的道路上进一步倾注精力，从而创造更多更深的学术研究成果。而未来，基于韩语专业学生本科毕业后继续往韩国语相关专业深造的意愿较低，高学历韩国语相关专业的人才缺失很可能导致韩国语或韩国学“教”与“学”的断层，不利于高校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

5. 招生政策带来潜在问题

教育部与 2015 年出台的《教育部高校学生司关于做好 2015 年高校部分特殊类型招生工作的通知》关于保送生招生部分的规定“严禁高校以保送生招生形式违规录取未经本校文化测试和相关考核的考生。严禁高校以保送生招生形式将外国语中学推荐保送的学生录取或调整到非外语类专业。”[14]这是为了防止“特殊类”招生成为“特权性”招生的预防措施。除此以外《通知》更是规定了从 2016 年起，逐步减少具有推荐保送生资格的外国语中学相应推荐限额。然而逐渐减少推荐外语类保送生这项规定在笔者看来却并不利于韩国语专业的发展，基于先前做的问卷调查与访谈，高考生与保送生在学习能力与效果上并无较大差异，而保送生在一定程度上通过事先的考察更容易适应韩语的学习。

2015 年具有推荐保送生资格的外国语中学推荐限额

外国语中学	推荐限额
天津外国语学校	120
石家庄外国语学校	175
太原外国语学校	160
长春外国语学校	165

[14] 教育部高校学生司（2015）1 号文件《教育部高校司关于做好 2015 年高校部分特殊类型招生工作的通知》2015 年 1 月 15 日

外国语中学	推荐限额
上海外国语大学附中（含浦东、浦西校区）	180
南京外国语学校	200
杭州外国语学校	140
厦门外国语学校	160
南昌外国语学校	135
济南外国语学校	220
郑州外国语学校	195
武汉外国语学校	150
广外附设外语学校	95
深圳外国语学校	185
重庆外国语学校	125
成都外国语学校	120

III. 结论和政策建议

从中韩建交前，韩国语人才培养就是中韩关系发展的重要因素。中韩建交后，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更是推动两国关系持续向前发展的重要动力，也是面对风云变幻的国际局势的需要。现有学界在研究中韩复合型韩语人才培养时普遍认为现在的韩语教学主要障碍在于教学模式过于陈旧；教学的侧重仍过于偏重语言为主，对于其他领域的涉及较少或较浅；教材编写不利于中国学者使用，韩语教学师资力量不足等。基于这些认识，现有研究认为：

应形成韩语教学新思维，学习韩国教育中注重培养的“国民精神”，在韩语教学中要培养有中国“国民精神”的韩语人才。全面提升学生多领域知识，形成完备的知识结构体系。[15]

应创新教学模式。现有的教学模式过度依靠教材按部就班进行讲授，为能适应不同学校教学环境、学生水平、教学设施的差异具体调整，内容缺乏新意，[16]应创新教学方法，提升学生参与兴趣，如进行情景模拟教学等，[17]同时应创新教学评价方式，形成师生之间的良性互动，开发学生自主学习的潜力。

将韩语教学和韩国文化相结合，从文化深层次的角度挖掘语言的意义，充实学生多方面的知识，培养学生对于韩国文化和韩国社会的亲近感。

编写结构新颖、满足各个层次学习者需要的多样化教材，形成有体系、相互关联的教材。[18]现有教材以词汇、语法和句型为主，缺乏对于学习者的认知和感悟的考量。应尤其加强视听说教材的开发，形成以学习者为中心、强调多种能力、增强学习兴趣的教材。同时开发与韩语教材相配套的参考书目，作为韩语学习的不补充和重要工具。

补充师资力量，提升教学水平。现有的韩语系教师队伍面临师资匮乏同时教学水平良莠不齐的问题。一些韩语系教员本身缺乏理论基础知识和教学经验。应加大人才引进力度，吸引韩国名校毕业生来中国高校任教，形成更好的互访制度，保持教师队伍的不断更新充实。

通过本次研究，笔者对上述结论进一步提出以下补充建议：

1. 当前的高校复合型韩国语人才培养制度层面已有相关政策指引，整体的方向较为明确，即面向国内国际新形式培养具有语言能力精通各个领域的复合型韩语人才。但是具体来看，对于复合型韩语人才应具有的具体素质和重点培养的领域没有具体的规划，即没有落到实处的有体系的整体框架和具体细则。现在对于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更多是概念意义层面的推广，而未能真正落到实处。

[15] 李珊，张传霞，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 年第 7 期。

[16] 许坤：《浅析大学院校韩语教学的创新》原载于《中国科教创新导刊》2013 年第 17 期，P24

[17] 王立群：《关于高校韩语教学的创新研究》原载于《科学中国人》2014-08-01

[18]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2. 现有的中韩高校间和高校与韩资企业之间的交流、实习工作协定多依赖于各方执行的协调确定，缺乏一个更有效的平台提供及时全面的资源整合。同时缺乏中长期的规划，协议具有落实、执行困难。

3. 建议中韩政府尤其是教育部门应该从宏观层面加强整体和中长期的政策框架制定，同时明确相关人才培养细则，如对高校的韩国语教学课程设置提供一些指引。中韩政府和各大企业财团应增加对于重点高校的资金、资源扶持力度。复合型韩语人才的培养是发展中韩双边关系的要求，对于中韩的政治、经济、贸易、文化、社会更方面都将会产生深远影响。加大对于重点高校复合型韩语人才的资金、资源支持在中长期看都是有重要意义和收获的投入。扩大各高校和韩国大学、韩资企业和其他机构的合作和联系，有利于韩语系学生将理论教育和实践相结合，通过参与实习、交流活动，加强对韩国社会各方面以及中韩关系的认识，在实习、和交流的过程中不断提升自己作为精英人才的综合能力。

4. 对于韩语人才培养中面临的教材和师资问题，除了强调中方应加强教师队伍建设，扩大韩语师资的数量提升教学质量，多样化教学模式，编写适合中国高校学生使用的新颖的教材之外，基于中韩之间逐渐深化的教学往来，笔者建议韩方也应注重培养有中文授课能力的韩语教师，并为这些教师前往中国高校进行韩语人才培养提供制度、资源上的支持。从而使这些教师在韩语人才培养中发挥不仅仅是当前“补充”的角色，而是真正为学生提供中韩关系中各个领域的深入剖析和独特视角。同时，鼓励促进中国的韩语教师前往韩国进修，不断增强韩语教师队伍的教学和科研实力。通过双方的共同努力以期实现中韩联合培养出适合两个国家不同领域中的精英人才。

5. 对于当前的课程设置中过多侧重于语言和语法的情况进行一定的矫正。增强对于其他领域，尤其是韩国文学、历史、文化，以及其他经济、政治、社会领域的课程。特别是要注意加大对韩国经典文学作品等书籍的翻译工作。

6. 尽管 2016 年后中国将逐步减少具有推荐保送生资格的外国语中学相应推荐限额，但是仍然应该看到重点省份的外国语高中在提供优秀韩语人才的生源上具有的优势，如更好的语言基础和语言学习能力。基于这种观察，笔者建议在增强中韩文化交流尤其是高校间学生、教师交流的基础上，鼓励韩国高校加强与国内重点外语高中的交流联系，向优秀的有志于成为复合型韩语人才的高中生提供韩语课程指导，宣传韩国历史文化等。

[参考文献]

庄智象，等：《关于国际化新型外语人才培养的思考》原载于《外语界》2011 年第六期

张英美：《中国高校韩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倾向特点》原载于《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3 年 12 月 第 46 卷第 6 期

金秉运，吴相顺：《目前中国大学韩国语教育的主要问题及解决的方案》原载于《黑龙江民族丛刊》2008 年第 5 期

李珊，张传霞，孙飞飞：《浅析高等院校汉语教育现状及创新》原载于《时代教育》2011 年第 7 期

邱红：《中韩两国人才交流和合作开发研究》原载于《东北亚论坛》2008 年 11 月第 17 卷第 6 期

焦新：《袁贵仁与韩国教育科技部部长李周浩举行会谈》载于《中国教育报》2012 年5 月22 日 第01 版

教育部高校学生司（2015）1 号文件《教育部高校司关于做好 2015 年高校部分特殊类型招生工作的通知》2015 年 1 月 15 日

许坤：《浅析大学院校韩语教学的创新》原载于《中国科教创新导刊》2013 年第 17 期

王立群：《关于高校韩语教学的创新研究》原载于《科学中国人》2014-08-01

Nye, J.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 2004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7.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与科学技术部关于高等教育领域学历学位互认谅解备忘录》http://www.cdgdc.edu.cn/xwyyjsjyxx/dwjl/xwhr/xwhrxy/264843.shtml
检索日期：2015-5-22

“北京大学朝鲜（韩国）语言文化系简介丨科学的人才培养方案”
http://www.olc.pku.edu.cn/korea/list.php?sortid=78#page7405
检索日期：2015-5-22

参见（韩）闵宪植：《韩国语教育学概况》载于《韩国语教育论 1》，国际韩国语教育学会编，韩国文化社,2006 年

2015년 한 · 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상)

11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문화 적응
129 在韩中国留学生的韩国大学文化适应 —以高丽大学为对象
유혜신, 장사월 俞慧信, 張思越
고려대학교 高丽大学

141 베이징 한국 유학생 생활상태 및 권리보호 연구
155 在京韩国留学生生活状况及权利保护的研究
손성재, 도화 孙晟宰, 涂畫
청화대학교 清华大学

166 한 · 중 방송산업 교류현황 및 발전방향_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81 中韩在广电行业上的交流现状及发展方向 _以综艺节目为中心_
최유라, 창위단 崔有罗, 常玉丹
복단대학교 复旦大学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문화 적응

유혜신, 장사월
고려대학교

〈초록〉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한 이래로, 한중양국의 교류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2008년, 한중양국은 수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한중 양국 간의 교류는 기존의 경제적 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문화 등 민간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에 한중 교류단계의 격상에 따라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도 상응하게 증가했다.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먼저 서로를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 한국 문화를 배우고 중국에 돌아가 전파할 수 있는 중국 유학생이야말로 미래 한중관계의 가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재들을 키워감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높고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이라 불릴 수 있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살펴보고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4 부분으로 나뉜다.

제 1 장: 서론 부분으로 주로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및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제 2 장: 연구방법에 관한 소개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 사례를 통한 연구의 결과로 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인간관계, 생활, 문화, 제

도 및 종합에 대한 설명이다.

제 4 장: 결론 부분이다. 이 연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개선할점, 학교와 학생회에게 하는 건의 및 문화교류에 대한 건의이다.

키워드: 재한중국유학생, 한국의 대학문화, 적응,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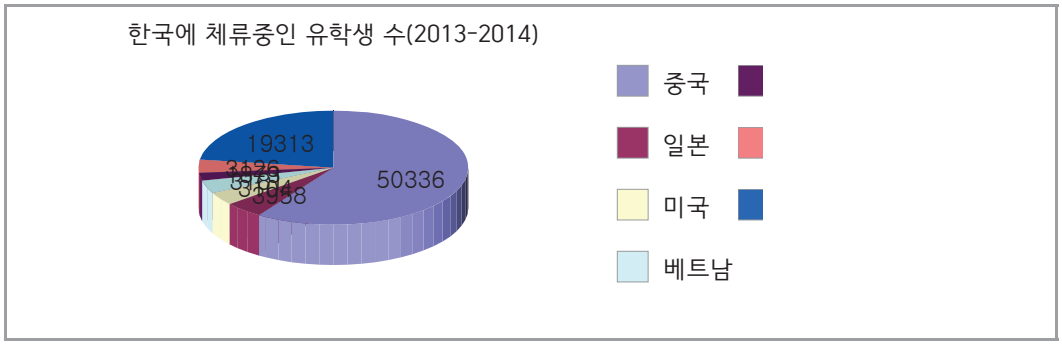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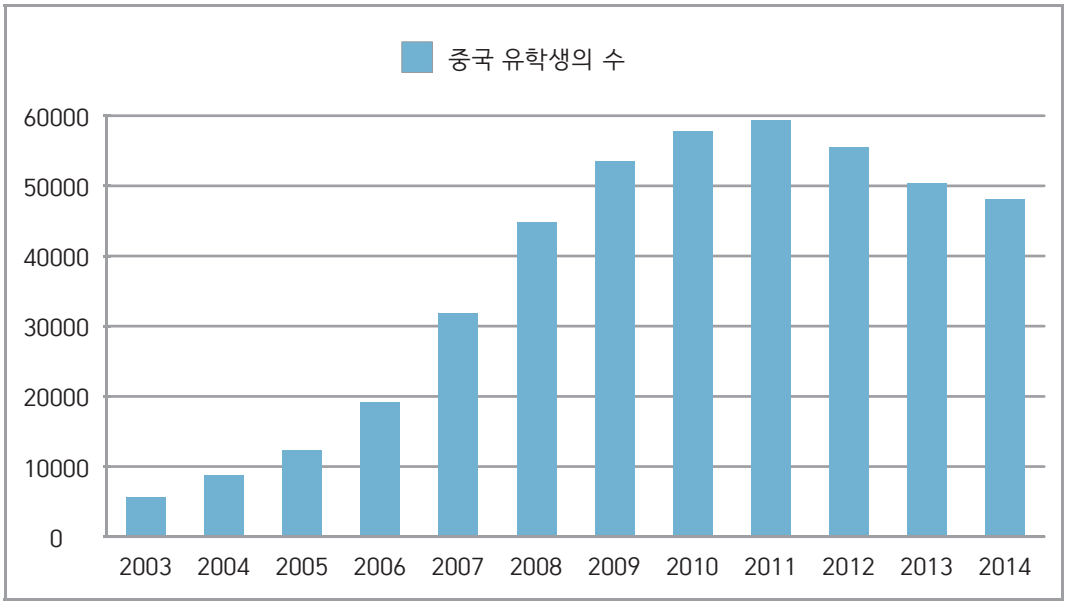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문화에 적응할 때, 어떠한 부분이 적응을 힘들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한 이래로, 한중양국의 교류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한 성장의 사례로써, 수교한지 채 20년이 되지 않은 2008년, 한중양국은 수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순서로는 단순 수교관계에서 우호관계로, 우호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에서 혈맹관계의 순으로 점차 협력수위가 높아진다.

한중 교류단계의 격상에 따라서 한중을 오가는 유학생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재중 혹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상대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더 나아가 자국의 친구들 혹은 동료들에게 상대국을 알릴 수 있다. 유학생들이야 말로 한국과 중국을 잇는 교량이다. 한중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한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하기 위해서는 한중모두를 잘 이해하고 두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의 교량이 될 인재들을 키워감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우호와 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014년 교육부가 공개한 중국에 유학을 간 한국 유학생의 수는 63,465명에 달했다. 또한, 교육부가 공개한 2013-2014년의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수에 따르면〈표1〉, 중국 유학생이 50,336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이 3,95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이 각각 3.7%, 3.7%, 2.2%, 3.7%를 차지한다. 이처럼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의 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점 뿐 아니라 한국에 유학을 오는 중국 유학생들의 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소폭 감소해서 2014년에는 2011년에 비해서 만 명 이상이 줄었다〈표 2〉.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 수의 감소에서 본다면, 2011년 전체 유학생의 수는 89,537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84,891명이다. 전체적인 유학생 수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4년제 대학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에 비해 7,957명이가 감소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2012년 1만5,378명에서 2014년 1만7,453명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 유학생의 수는 2011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재한 유학생들을 20만명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재한 유학생들이 '지' 한, '친' 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호응하여, 한국의 대학들도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그 나름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유학생의 유치와 증가에 따른 대응과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학생의 감소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해보니 유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한국 대학과 취업문제, 외국인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에 실망해 대학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야기 한다.

"외교부가 지난해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부족한 학사관리가 원인이 돼 "한국이 비우호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 조사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밭대, 배재대, 경북대, 전북대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 10명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호감을 갖고 한국에 왔다가 오히려 불쾌감을 갖게 됐다는 게 면접 대상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2015)."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높은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중국 유학생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어떠한 부분이 한국의 대학문화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대학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연구(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며, 한국문화를 잘 수용할수록 대학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연구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준다(임춘희, 2009).

(2)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문화적응에 대한 논문으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임춘희, 2009)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한국 대학에서의 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문화차이, 교육적, 심리적, 경제적,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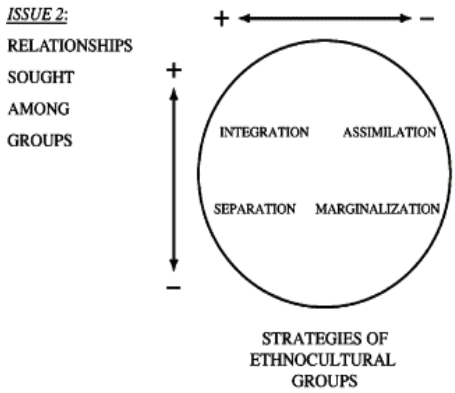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화적응에서, 백지숙(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화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어학능력은 일정시간(3년정도)이 지난후에는 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홍직, 2011).

한국 대학에서 적응을 순조롭게 하는 요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며, 주변인들의 지지 등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홍직, 2011).

3. 이론

berry(2005)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을 개인의 문화성을 유지하는 정도와 타 문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로 범주화 했다. 그것으로는 통합(intergration), 동화(assimlation). 격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이다.

통합(intergration)란 개인의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도 수용하는 것이고, 동화(assimlation)란 개인의 문화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타문화는 수용하는 것이고, 격리(separation)란 개인의 문화성만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를 배척하는 것이고, 주변화(marginalisation)란 개인의 문화성을 유지하려는 관심과 타문화를 수용하려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berry는 통합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주변화를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그림 1〉.



〈그림 1〉

이러한 berry(2005)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개인의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한국의 문화 수용을 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대학교는 '민족고대' 라고 불리 우며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많이 반영한 대학교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문화 적응연구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지방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을 대학으로 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임춘희, 2009)와 비교 분석 함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의 절차는 우선 중국인 유학생인 연구자가 눈덩이 표집을 하여서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직접 방문하여 중국 유학생에게 심층면접을 하였고, 대상자는 중국어로 질문을 받고 중국어로 대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학업, 언어, 문화차이 문제 그리고 심리적 압박과 한국 대학에서의 일상생활 등을 다룰 것이다. 이것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지로는 학업, 제도, 인간관계, 생활과 문화이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문화 적응에 관한 질문이 중심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자가 부연설명을 하였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문화 적응에 한국에서 채류한 기간이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채류기간별로 각각 2명씩 Sampling 하였다. 채류기간으로는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 그리고 3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체류기간이 평균 3년이상인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 능력으로 인한 문화적응 어려움이 감소하거나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이홍직, 2011).

성별간에 남학생5명과 여학생3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평균 연령은 23.5세이다.

이 논문은 심층 면접으로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있음으로 중국 유학생의 진정한 생활과 의식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교에 적응할 때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지 혹은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더욱 좋은 학교 환경을 위한 개선 방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와 한중의 우호 증진에도 기어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조사대상 중국인 유학생의 배경

조사대상자	성별	전공	학년	체류기간
사례 1	남	사회학과	학부	3년 이상
사례 2	여	사회학과	학부	3년 이상
사례 3	남	LSOM	일반대학원	2-3년
사례 4	여	국어국문	일반대학원	2-3년
사례 5	여	마케팅	일반대학원	1-2년
사례 6	남	마케팅	일반대학원	1-2년
사례 7	남	한국어	어학원	1년 이하
사례 8	남	한국어	어학원	1년 이하

Ⅲ. 연구결과

1. 학업

(1) 학업적 어려움

연구자가 학교의 학사 연구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을 마주쳤다. 그 중국인 유학생은 어떤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한국 대학생들에게 필기를 빌리려고 했으나 쉽게 빌려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교수님을 찾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학사 지원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학사 지원부에서도 마땅하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그 중국 유학생을 그냥 돌려보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학업이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접한 유학생이 많지 않다. 또한 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다. 노트필기를 비교적 쉽게 빌려주는 중국의 정서와는 다른 문화에 중국 유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강의 방식도 교수님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 중심이며, 스스

로 공부해야하는 것들이 많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조별과제 등을 준비할 때 언어의 한계 등으로 마찰이 있으며, 팀의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깊었다.

"제가 학과의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대학과정과 고등학교과정의 차이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모두 혼자서 배워나가야 함으로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선생님께서 무슨 과제를 내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필기를 빌리려고 해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에는 대학문화 적응도 쉽지 않은데 수업내용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사례 1)

"한 수업당 많은 조별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문제이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한 사람분량을 해가지 못할 때가 많다. 조 숙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힘들다. 이러한 조 숙제는 항상 피곤하다." (사례 2)

(2) 언어적 어려움

중국 유학생, 특히 한족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언어능력에 많은 압력을 받는다. 주요 적으로는 학문용어와 한식(韓式)영어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몇몇의 중국 유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일상언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많은 한국대학이 영어강의를 강조하고 있다. 고려대 또한 교수님들께서 영어로 강의하시기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매 국가가 그들의 특수한 영어 발음이 있듯이 한국도 그러하다. 한국식 영어발음의 문제와 한국식 사고방식이 투영된 영어강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느끼기에는 공부하는 것이 주요적인 원인이 아니야, 결국에는 말이 않 통하는 것이자. 일상생활은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학문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어렵더라고." (사례 3)

"언어는 가장 큰 문제에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의 처리에 있어서 언어 장애가 가장 커요. 교수님과 대화 할 때도, 학업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 때도 시원하게 이야기 하시 힘들어요."(사례 5)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또 3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지만 역시 한국인들과 잘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뭔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TOPIK점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교류하기 힘들어요." (사례 1)

"한국식 영어는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f발음과 v발음이 특히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수업할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생각해야 해요." (사례 5)

"한국인들이 영어 문장을 쓸 때, 영어 문장이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매요." (사례 6)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은 정말 날 어리둥절하게 해요. 알아 듣기가 매우 힘들어요." (사례 3)

(3) 교수님과의 관계

한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는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있어서 교수님들의 말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압력을 준다.

"매번 수업 전에 교수님이 많은 양의 논문을 읽어오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논문들이 객관적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본인의 학문적 관점이 상당히 농후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쉽게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3)

(4) 진학과 취업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서의 방향이 모호 하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 중국에 돌아가서 직업을 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6월이면 이제 졸업이에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는 것이 나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이상적인 취업 자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례 1)

"저는 박사과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한다면 그 후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6)

2. 인간관계

(1) 중국 유학생과 한국인과의 인간관계

한국사회의 인간관계 문화는 중국의 그것과 매우 차이가 있다. 한국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중국인보다 개방적이고 직접적이다. 중국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향적이고 함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긴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 양국의 일처리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종종 오해가 생기고는 한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겸양하려고 하면,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예의를 보인 것이 저의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죠" ° (사례 3)

(2) 대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

고려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중에서 선후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후배가 선배에게 보이는 존중과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중국 유학생들은 이러한 선후배 관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고려대가 선후배관계가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선배에 대한 절대복종 같은 것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선배의 뜻을 잘 모르거나,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더라도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사례 6)

"우리 과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커피를 사와라 간식을 사와라 하고 지시해요. 더욱이 이것들을 그들이 있는 곳까지 배달해야 해요. 저는 이러한 관계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례 3)

"국내에서는 후배들이 어떠한 의견을 말하거나 혹은 선배에게 반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후배의 의견이 좋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선배들의 말과 의견이 최고인 것 같아요."(사례 3)

(3) 중국에 대한 고유한 편견과 역사문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관점이 틀리고,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월하거나 열등한 문제가 아닌, 양국의 우호를 위한 상호 존중의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상으로 매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서로 의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러한 논쟁들로 인해서 한중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그러므로 교수님들이 한국의 관점뿐 아니라 중국의 관점도 설명해줘서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특별히 중국을 이야기 하시면서 중국은 민주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민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를 어떻게 정의 하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례 2)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냉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세요, 그러나 국내에서 배웠던 내

용이랑은 좀 달라요, 어떨 때는 교수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불편해요." (사례 1)

3. 생활

(1)심리적 압박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있어서 주로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낀다.

"제가 처음왔을 때, 진짜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혼자서 고시원에 있었어요. 사방에서 모르는 언어를 하고, 학업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사례 8)

"제가 처음 왔을 때, 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적었어요, 매일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수업할 때도 같이 수업을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중국인 유학생이 많으니까요." (사례 1)

⑤종교문화와 식문화

중국인의 입맛은 다양하다 지방특색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노골적인 포교행위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수 있다.

"한국김치는 진짜 매워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처음 한국음식을 먹었을 때는 차가운 물만 마셨어요."(사례 8)

"나는 광동인이지만 한국 김치가 입맛에 맞아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사례 2)

"길을 가다보면 종교인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요, 말을 붙이는데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인 것을 알고 중국인들이 대부분 종교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더 붙잡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전도는 중국 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매우 난처해요." (사례 4)

4. 문화

(1) 실제와 이상이 동떨어짐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유학생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유학에 대해서 동경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적인 한국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한국사람들은 수양이 매우 좋아보였어요. 길거리에서 시끄

럽게 떠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술취한 아wj씨나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소리지르는 것을 봤어요”(사례 7)

(2) 남녀불평등

한국사회에는 보편적으로 남녀 불평등현상이 존재한다. 어릴 때부터 남녀평등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중국 여학생에게는 이러한 남녀 불평등이 불만 요소이다.

“저의 연구실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교수님께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르게 대하세요. 이러한 차별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가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다고 했죠?”(사례 4)

“제 남성인 한국인 친구는 여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후에 집에서 가정주부밖에 할 수 없다고요. 기껏해야 현모양처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여자잖아요?” (사례 6)

(3) 음주문화

고려대학교는 한국 내에서 음주를 많이 하는 학교들 중 순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화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엠티에가서 술을 강권하면 힘듦니다. 술을 마셔야 친구도 사귀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수 있는데, 저는 술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폭단주 같은 술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한 회식과 음주 없이는 이 환경에 녹아들기가 힘듭니다.”(사례 1)

5. 제도

(1) 학교의 장학금제도와 유학생 관리제도

고려대학교의 장학금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다. 고려대학교의 국제화정도가 높다. 유학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유학생 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뒤쳐졌다.

“고려대학교의 장학금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장학금은 입학할 때 결정되고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해서 아무리 이후에 성적이 오르거나 좋아진다고 해도 바꿀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B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성적이 좋게 나와도 A장학금으로 바꿀수 없습니다.”(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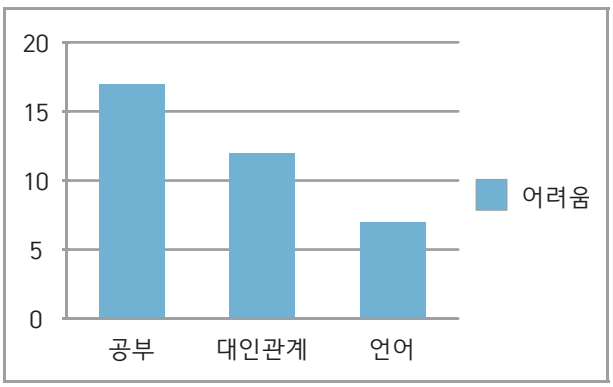
“타 대학들, 예를 들어 연세대와 서울대의 유학생관리는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관된 일정보고도 없고 취업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사례 3)

(2) 숙소문제

고려대학교는 큰 학교지만 유학생 기숙사가 부족하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방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한국에 지인이 적고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학생숙소는 많지 않아요, 거기다 밖에서 방을 얻으려고 해도 서울에서의 방값이 매우 비쌉니다. 또한 방값이 싼곳은 어둡고 외진곳이 많아서 집에 갈 때 무서워요. 기숙사에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2)

6. 종합



〈표4〉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적응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가장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열했다. 그리고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그리고 3순위로는 1점을 부여해서 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였고, 그 다음으로는 대인관계와 언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1) 중국 유학생들이 개선할 점

중국 유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서 극복한다면, 보통 학생들이 얻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얻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것이 문화적응이며 독립적인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를 알수 있으며 성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긍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Berry(2005)가 서

술한 것처럼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수용할 줄 알아야 성공적으로 문화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그 본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교양수준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생활 중에서 그 나라를 비난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해야 한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가 많다. 알아듣지 못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 유학생으로 어떠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를 배우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심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런 장애들을 그냥 장애로 볼 것이 아니라 유학생활에 필이 찾아오는 친구로 생각하고 천천히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와 학생회에게 하는 건의

①교사와 행정원의 훈련을 한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도 이러한 다원화되는 학교의 수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문화의 다원화 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은 각기 다른 국가와 지방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이 나라에 왔다. 교사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원들의 태도와 업무처리는 학교의 대표한다. 유학생들이 학교의 행정업무에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는 유학생의 건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만족에 힘을 써야 한다.

②전문적으로 유학생을 관리하는 사람의 부재

유학생들이 분산적으로 다른 전공에서 공부하고, 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전문적으로 유학생을 관리하는 선생님을 두지 않는다. 그냥 지도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을 관리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 아이들도 본인의 지도교수님을 잘 뽑지 못한다. 첫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바쁘신 경우가 대다수이고, 라포를 형성하기에는 기회가 잦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조직에서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을 일대일로 엮어 준다면, 한국 학생에게는 중국의 문화와 중국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중국 학생들은 수업에서나 수강 신청 등 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유학생들과 친구 맺기 같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며, 또한 같은 과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확률이 적다.

③인터넷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현대의 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하였지만,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유학생을 위한 게시판 혹은

페이지가 없다. 학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학술회나 문화 활동 등등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유학생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대화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학생 홈페이지는 유학생들이 유학생의 신분이고 또 언어가 되지 않아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도와주고 완화시켜줄 것이다.

(3) 문화에 대한 건의 ——양국의 문화교류를 강화

한류가 강하다. 한국에서 많은 매체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의 매체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 중국을 잘 알릴 수 있는 매체들을 상영하여서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자료

〈국내 문헌〉

1.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93-112
2. 이홍직, 201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사회적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19(2):183-194
3.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관련 변인들의 주재효과 검증”, 『스트레스연구』 18(2):145-152
4. 백지숙, 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 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29(3):119-131

〈국외문헌〉

1. berry, 2005. “Acculturative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697-712

〈신문기사〉

1. 한국일보」 2015년 5월 16일자. “"Bye Korea" 발길 돌리는 외국인 유학생”

在韩中国留学生的韩国大学文化适应 —以高丽大学为对象

俞慧信，張思越
高丽大学

摘要

1992年中韩正式建交以来，中韩两国的关系获得了长足的发展，两国在2008年正式宣布：将中韩关系提升到战略合作伙伴的高度。随着中韩两国关系的进一步发展，两国不仅是在经贸上的交流增大，而且在社会，文化等其他民间领域的交流也在不断扩展。由此，随着中韩两国合作关系的不断深化，来到韩国学习韩国文化与发展经验的中国人留学生数量也相应有所增长。

若两国的国民想相互友好相处，则必须要首先相互了解并信任。了解韩国文化并回国后能够传播韩国文化的中国留学生将成为中韩两国友好交流的桥梁。只有通过培养更多这样的‘韩国通’，才能够促进中韩两国民众的相互了解与友好。

这项研究通过针对韩国最高的私立大学，以及韩国的民族情绪最高涨的高丽大学中国留学生进行采访及研究，意在了解中国留学生在韩大学生活最困难的地方以及这些问题的改善方案。
本论文共分为四个部分：
第一章：序论部分，主要说明并介绍研究的目的，先行研究的内容及理论知识。
第二章：介绍研究，主要说明并介绍研究的方法及研究对象的基本情况。
第三章：通过事例的介绍研究的结果，以此说明中国人留学生在韩学习过程中学业，人际关系，生活情况。
第四章：总结结论，通过这次研究得出的结论，提出改善方案，并向学校，学生会以及中国留学生群体提出如何提高中国留学生与韩国社会融合度的建议。

关键词：在韩中国留学生，韩国大学生活，适应，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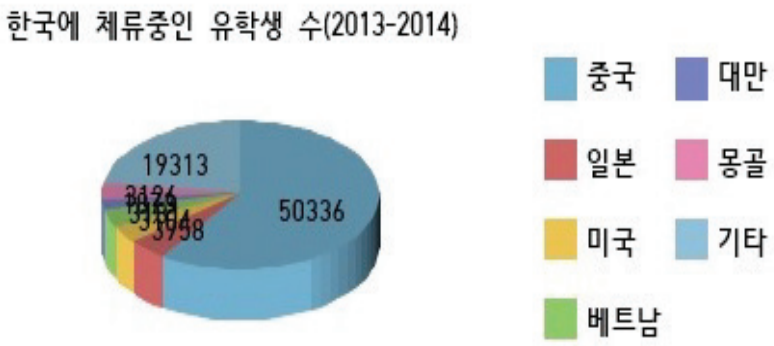
Ⅰ. 绪论

1. 研究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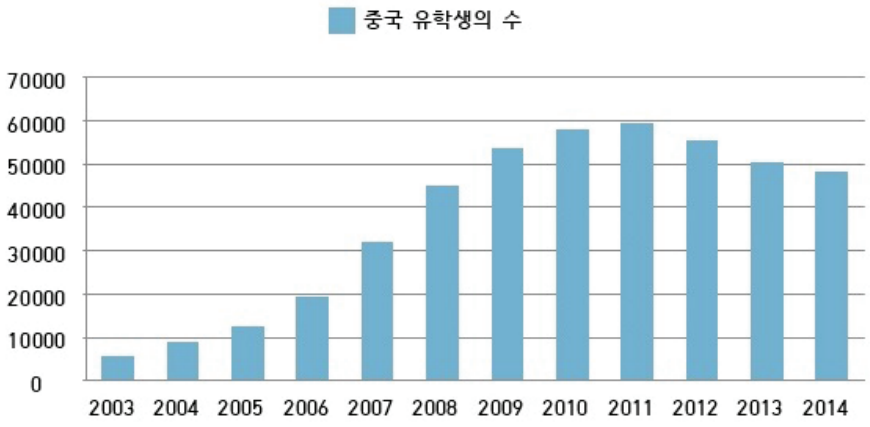
本研究是对在韩国的中国留学生大学文化适应程度的研究，哪个部分适应困难、或者怎样改善当前状况都有详细介绍和研究。

1992年，韩中正式建交以来，韩中两国的交流取得瞩目性的进步。从这些进步来看，建交不到20年的2008年，韩中两国成为战略伙伴关系。在韩国的外交国家中，中国成为第五阶段的国家，这个不只是单纯的友好关系，还是战略伙伴关系，渐渐成为具有战略同盟性质的协力关系。

伴随着韩中教育交流的快速发展，韩中两国之间的留学生数量也大幅增加。在韩或者在中的留学生们能够很好的理解双方的文化，将来回到自己的祖国也能很好的传达给朋友或者同事们。留学生们起到把韩国和中国相连接的桥梁作用。为了能够加深韩中两国的友好关系，对韩中两国对很了解能够把两国相连接的人才是很急缺的。因此，只有培养优
秀的人才，韩中两国间的关系才能够增进。



2014年韩国教育部公布的在中国留学的韩国留学生的数量为63，465名。根据《表1》 韩国教育部公布的2013-2014年在韩国中国留学生的人数为50，336名，达到在韩全部留学生的59.3%，接下来是日本留学生3，958名占总数的4.7%。其次是美国、越南、台湾、蒙古各自为3.7%、3.7%、2.2%、3.7%。在韩中国留学生数和别的国家相比达到压倒性的数量。



根据《表2》，这不是短时期的增长，从2003年开始到2011年出现持续增加的趋势。但是2012年以后小幅减少，2014年比2011年减少1万名以上。

根据教育部的统计，是全部留学生的数量在减少，2011年留学生的数量为89,537名，2014年为84,891名。 留学生总数没有很大幅度的减少，4年制大学本科的外国留学生数和2012年比较减少7,957名。外语语学研修生2012年从15,378名增加到2014年17,453名。 中国留学生的数量从2011年以后有一个很大幅度的减少。

韩国政府在2012年设定的目标是在2020年在韩中国留学生的数量达到20万名。而且，希望在韩的中国留学生都能做到“知”韩、“亲”韩。得益于政府设立这样的留学教育方针，韩国的大学都在积极引进中国留学生。

但是只是强调维持数量的政策，也凸显了该政策的副作用。和留学生数量的增长不同，也出现其相对应的管理体系有所不足等问题。

据韩国《韩国日报》的报道，该新闻分析：留学生的减少是源自赴韩以后，韩国的大学对于留学生的管理措施之薄弱，以及韩国社会对外国人的排他性，最终导致许多外国学生放弃在韩留学的机会。

这条新闻使用了一个调查数据：韩国外交部在去年进行了一个关于‘在韩中国留学生状态调查’的非公开调查。根据这个调查的结果显示：韩国国民针对中国人的反感以及韩国大学薄弱的留学生管理措施导致‘中国留学生对韩印象下降’。这项调查通过对首尔大学，高丽大学，成均馆大学等全韩多所四年制大学就读的10名中国留学生进行深层次的面试，得出一条结果：许多中国留学生来韩国时对韩国抱有好感，但是来到韩国却因为上述的原因，最终导致对于韩国的印象直线下降。

正如上述调查结果，在韩的中国留学生基数虽然不小，但是针对中国留学生的政策非常混乱，没有系统性。本次研究通过针对韩国最具有民族性的高丽大学中国留学生进行采访及调查，来获得关于在韩中国留学生在适应韩国大学文化的过程中有什么样的困难，以及和如果改善这些问题提供合理而有效的建议。

2. 先行研究

(1) 针对在韩中国留学生文化适应和大学适应间关系的研究

据《针对在韩中国留学生的大学生活压力及大学生活适应间关系研究》（Park Eum-Mi, Huang Byeong-Yi, Jeong Tae-Yeon, 2010）研究结果显示，中国留学生针对大学生活，沟通以及韩国生活过程的压力及麻烦越大，越难适应大学生活。而针对韩国文化的理解程度及收容性越强，越有利于适应韩国的大学生活。另外，还有相似的研究结果显示‘韩国大学生对于中国文化的理解程度会影响到对于中国留学生在大学的适应程度。”（Yim Chun-Hee, 2009）

(2) 针对在韩中国留学生适应韩国文化的影响因素的研究

关于如何在全新的文化圈中适应的论文有《针对中国留学生在韩国大学文化中的压力与适应的研究》（Yim Chun-Hee, 2009），根据这个研究结果，中国留学生因为中韩两国间的文化差异而感到压力，使这些留学生在韩国大学难于适应的因素有文化差异，教育，心理，经济，语言问题以及大学生活的压力。

关于男女大学生的文化适应方面，根据Baek Ji-Suk（2011）的研究结果显示，男女学生在适应韩国文化的过程并没有统计上有意义的差异。而根据Lee Hong-Jik在2011年的研究结果显示：语言能力在留学生赴韩留学3年左右之后对于文化适应方面没有大的影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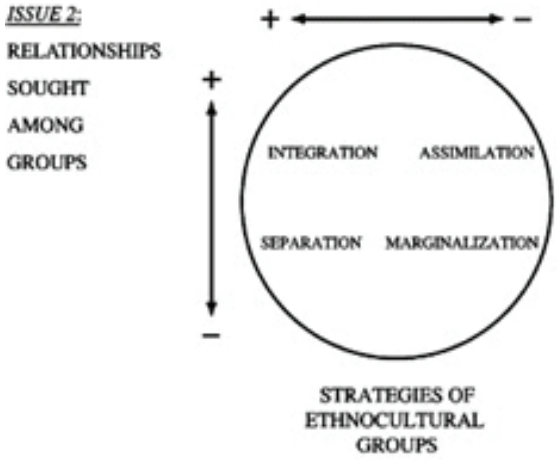
关于如何让留学生在韩国大学的适应过程比较顺利，Lee Hong-Jik在2011年的研究结果表明：对韩国文化深层次的理解非常重要，而在统计学的角度来看，周边人的支持对于在韩中国留学生克服文化适应的压力有正面的影响。

3. 理论

berry(2005)对于别的文化的适应，在保持自身的文化性上有混合有4个他文化集团的范畴化研究。这四个是统合(intergration)、同化(assimlation)、分离(separation)、周边化(marginalisation)。

统合(intergration)是保持个人自身的文化的同时又接受他文化。同化(assimlation)是消除个人的文化性完全接受他文化。分离(separation)是仅保持个人的文化排斥他文化。周边化(marginalisation)是想保持个人的文化，但又对他文化没有特别兴趣。Berry认为统合是最成功的，周边化是最不成功的，参照《图1》。

本文的理论主要是以berry(2005)的理论为基础，保持中国留学生个人的文化性的同时，也对他文化也能够成功地接受。



《图1》

Ⅱ. 研究方法

本次研究调查是以高丽大学中在校的中国留学生为对象进行的。高丽大学被称为“民族高校”，由于是一所反映很多韩国的民族情调的大学，由此判断中国留学生对韩国大学文化适应研究具有代表性。并且，与以地方大学中在校的中国留学生为对象作成的“有关中国留学生的大学文化生活适应研究”（林春熙，2009）进行比较分析，认为很有意义。

调查的步骤首先是以对作为研究人的中国留学生的雪球抽样来进行的。调查员直接访问并对中国留学生做了深层面试，调查对象接受中文提问并用中文回答。通过本次研究，掌握了在韩的中国留学生的学业、语言、文化差异问题、心理压力以及在韩国大学的日常生活等方面。此项可以分为五大类，分别为学业、制度、人际关系、生活与文化。对于在韩的中国留学生的提问以大学文化的适应为中心进行，并且为了对问卷内容的理解有所帮助，调查者还做了补充说明。

《表3》调查对象—中国留学生背景

调查对象者	性别	专业	学历	来韩国时间
案例1	男	社会学	本科	3年以上
案例2	女	社会学	本科	3年以上
案例3	男	LSOM	研究生	2-3年
案例4	女	国语国文	研究生	2-3年
案例5	女	市场营销	研究生	1-2年
案例6	男	市场营销	研究生	1-2年
案例7	男	韩语	语学院	1年以下
案例8	男	韩语	语学院	1年以下

如表3中所示，在韩停留时间会对文化适应产生影响，因此以中国留学生停留时间为类别各抽取两名作为样本。停留时间分为不满一年、一年以上两年未满、两年以上三年未满与三年以上。以停留时间平均三年以上的在韩中国留学生的情况来说，由于语言能力的提高，对于文化适应的困难减少，或者会产生微不足道的影响，由此来进行分类调查的。（李洪直，2011）.

在性别上以男学生五名，女学生三名来构成，平均年龄是23.5岁。

本研究通过深层面试，有助于同研究者的意识构成，能够很好地展现中国留学生的真实生活与精神世界。并且中国留学生在适应韩国大学期间，哪一方面困难或者成为问题都可以很好地展现出来。可以说通过这样的研究为创造更好的学校环境提供了改善方向。期待政府能够积极促进留学生维护和韩中友好发展。

Ⅲ. 研究结果

1. 学业

(1) 学业上的困难

研究者在学校的学事研究室里遇到了一位中国留学生。那中国留学生在修某一门课程，因为课程内容难以理解想向其他韩国学生借用笔记但是没有人借他。但是又不敢去找教授，于是去了学事支援部求助。但是由于支援部也无法给予合适的帮助，那位中国留学生只得空手而回。

对中国留学生而言，在韩国求学并不容易。从小接触韩语的中国留学生不多。而且因为留学生的身份，难以融入到韩国学生中。不同于中国相对容易借到笔记的文化，中国留学生承受着很大的压力。比起以教授为中心，韩国的大学以学生自身为中心的授课方式以及有很多需要依靠自己独立学习的东西，也承受着巨大的压力。

而且，在准备小组作业时，因为语言言的限制而产生的摩擦，容易被认为是小组里的负担。

“我在上系里的课时，教授不会把所有的内容都说明一遍。虽然可以认为是不同于大学和高中的课程原因，但是什么都要靠自己学习，有很多时候觉得吃力。很多情况下，甚至都完全不知道老师布置了什么作业，想要借笔记也没有人愿意借给自己。需要靠自己的力量做的事情太多，很难适应大学的文化，也难以跟上课程的进度。”（案例1）

“每节课都有很多小组作业。这对于留学生而言是很难的。因为语言不通，好像总是在给我们组里的人添麻烦，很多时候分担不了每个人应该做的分量。因为给他人造成了麻烦，自己也辛苦。小组作业真的很累人。”（案例2）

(2) 语言上的困难

中国留学生，特别是汉族的留学生，在大学生活中因语言能力承受着很大的压力。主要的困难来源于学术用语和韩式的英文。而且有几名中国留学生表示，甚至日常生活中用于人际关系交流的一些日常用语也难以理解。

很多韩国的大学在用英语授课。高大以及一些教授正在倡导用英语教课。但是，就像其他国家

有自己特殊的英语口音一样，韩国也是如此。参杂了韩式的英语口音以及韩式的思考方式的英语授课，也造成了很多不便。

“我感觉学习不是主要的原因，最主要是语言不通的原因。虽然日常生活没有太大的问题，但是要顾上学习是很难的。”（案例3）

“语言是最大的问题。有时候，在处理人际关系中，语言的障碍是最大的。跟教授交流的时候也是，讨论学业上的观点的时候也是，很难流畅的表达。”（案例5）

“在韩国上了语学院又上了3年的大学，感觉还是不能很好的跟韩国人交流。总觉得还是差点什么。虽然有Topik的分数，但是日常的交流还是困难。”（案例1）

“韩式的英语很难听懂的。比如F和V的发音尤其难听懂。上课时第一遍总是听不懂，总是要思考。”（案例5）

“韩国人用英语写文章时，会把韩语直译成英语。这种时候，无法理解那句英语的意思，模棱两可。”（案例6）

“韩语和英语的混用真的让我很茫然。太难懂了。”（案例3）

(3) 与教授的关系

在韩国的大学中，教授占据着主导地位。而且尤其对于大学院的学生来讲，教授的话是绝对权威。这种事实也给中国留学生造成了压力。

“每次上课前教授都让读很多论文以后再来。但我不知道那些论文是否客观。很多论文带有教授本人相当浓厚的学术观点。但又不能随意反驳。如果有那种自由讨论学习的氛围就好了。”（案例3）

(4) 升学和就业

中国留学生在韩国大学毕业后方向是模糊的。对于是在韩国继续学习，还是回中国求职很是苦恼。

“我现在是大四了，6月毕业。好像迷失了。不知道回国就业好不好。感觉在中国离家近的地方就业就好了。虽然也想过在韩国工作，但是没有找到理想的工作岗位。所以在苦恼，是继续留在韩国是回去。”（案例1）

“我想修博士课程。但是不知道是不是应该在韩国继续学习。不管怎样，好像还是去美国读更好一点。因为感到迷茫，不知道在韩国上完博士以后会怎样。”（案例6）

2. 人际关系

(1) 中国留学生和韩国人的人际关系

韩国社会的人际关系文化和中国的有很大的差异。韩国人在待人处事上比中国人更开放和直接。很多中国人在待人处事上由于内向含蓄而造成了误会。而且在人际关系上，中韩两国方式不同，也造成了很多误会。

“我要是想对韩国人遵守礼仪，表示谦让，韩国人不会意识到，而且会觉得那是我的义务。这种时候自然会有误会。”（案例3）

(2) 大学里的前后辈关系

高丽大的学校生活中，前辈和后辈的关系是很重要的。后辈对前辈表现出的尊重和前辈对后辈的领导提携是很重要的。中国留学生对于这种前后辈关系不熟悉，从而感到难以适应。

“首尔大，延世大，高丽大里好像前后辈关系最明显。我好像难以做到对前辈绝对服从。特别是在不知道前辈的意思或者不想同意的时候也要表现出绝对服从的样子。”（案例3）

“在国内，后辈说什么意见或者说反驳前辈的意见不会造成太大的问题。但是在韩国，就算后辈的意见是好的，也难以被接受。好像前辈的话和意见是最好的。”（案例3）

(3) 对中国的固有偏见和历史问题

韩中两国走的是不同的路。所以两国的观点不同，造成了很多的纷争。这不是单纯的优越劣等的问题，是为了两国友好的相互尊重的问题。韩国和中国在历史上有很多争论。这些争论也导致了两国意见的不同一。

但是不谈哪一方对一方错，这些争论对两国友好关系带来的害处对两国都有损害。所以教授不仅应该讲述韩国的观点，中国的观点也应该说明，这对于韩国学生更好的理解中国是很重要的。

“上课时教授提到中国的事，说中国没有民主。但是我认为中国也有自己所谓的民主。我认为这是对民主如何定义的问题。难以接受这种单方面的定论。”（案例2）

“教授在上课时讲到了很多冷战的事情。但是跟在国内学到的东西不一样。有时候不能同意教授的观点，也不太舒服。”（案例1）

3. 生活

（1）心理压抑

中国留学生对于大学生活主要感到孤独感和孤立感。

“我初次来这儿的时候，真的很孤单，没有朋友，一个人在考试院待着。周围全说着听不懂的语言，学业也跟不上，前途一片漆黑。”(案例8)

“我初次来这儿的时候，学校里中国留学生很少，每天自己一个人吃饭，一个人学习，一个人做作业，一起上课的人都没有。现在已经好很多了。因为现在又很多中国留学生。”（事例1）

（2）宗教文化和饮食文化

中国人的口味很多样，也有很多地方特色，有些人爱吃辣的，有些人爱吃甜食。所以每个人对韩食的适应上有一定的差异。

再有，露骨的传教行为使中国留学生感到不快。

“韩国泡菜真的好辣，所以很难适应这个味道。刚开始吃韩食的时候只喝凉水。”(案例8)

“虽然我是广东人但是韩国泡菜很和我口味，所以能吃好多。”(案例2)

“在街上走着，遇到信教的人想要传教，一旦被搭话，也不容易句拒绝，我是外国人，特别是知道我是中国人，中国人大多数没有宗教信仰，所以更加想要抓着不放地传教，这种方式的传教在中国国内是不会体会的到的，实在让人难办。”(案例4)

4. 文化

（1）现实和理想相去甚远

在韩流的影响之下，中国留学生在来韩国之前向往能来韩国留学。但是当他们真的到了韩国，实际上感受到了与想象中的韩国相去甚远的韩国真实的模样。

“在韩国电视剧里反映出韩国人有着很好的修养，在街上不会吵闹喧嚣，也不会让鄙人感到不快，但来韩国一看原来并不是这样。经常看到酒醉的大叔大妈在街上大声吼叫。”(案例7)

（2）男女不平等

在韩国社会，普遍存在着男女不平等的现象。对于从小接受着完整的男女平等教育成长的中国人来说，这种男女不平等是他们不满的重点。

“我的研究室里男女学生都有。有时教授对待男学生和女学生有所区别。这样的差别让我觉得很别扭。谁说男生就一定比女生优秀呢？”(案例4)

“我的某些男性韩国朋友抱着女学生无论读书有多好都没有意义的想法。他们认为女性以后就只能在家里当家庭主妇。也就只能做贤妻良母。但是，现在的韩国总统不就是女性吗？”（案例6）

(3) 饮酒文化

高丽大学进入了韩国国内饮酒严重的学校排位。这样的文化让中国留学生感到头痛。

“在MT活动中，被强行劝酒是很累的事情。只有喝了酒才能交朋友，才能建立起人际关系，但是我不太能喝酒。特别是炮弹酒一类的酒实在是很吓人。如果不遵循这样的会餐和饮酒文化很难融入韩国社会环境。”(案例1)

5. 制度

（1）韩国的奖学金制度和留学生管理制度

高丽大学的奖学金制度不差。但是在几个方面体现出一些不合理的部分。高丽大学的国际化程度很高。观察一下留学生的分布，会发现几个国家的留学生在这里学习。另外，中国留学生的比例非常之高。但是在留学生管理上多少有些落后。

“根据高丽大学的奖学金制度，外国人的奖学金是在入学的时候就决定完毕，以后是不能变更的，所以无论之后成绩进步还是变好了都不能更换。现在我是B奖学金的授予者，即使成绩变得更好也不能换得A奖学金。”(案例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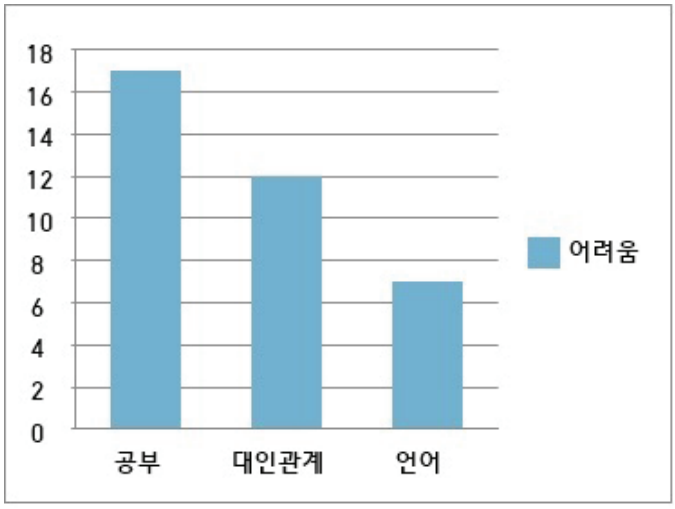
“其他大学里，比如延世大学和首尔大学的留学生管理让人觉得比较完美。但是高丽大学并不是这样。相关的情报也没有，就业情报也没提供。”(案例3)

（2）宿舍问题

高丽大学拥有很宽阔的校园环境，但是留学生宿舍却不足。很多学生必须得自己在外找房住。这样的情况对于那些在韩国没什么熟人，语言有不通的留学生来说，不是一般的困难。

“留学生宿舍数量不多，想在外租房的话，首尔的房价太贵了。还有，房价便宜的地方又黑又偏僻，回家时都很害怕。如果能住在宿舍就好了。”(事例2)

6. 综合



《表4》

把中国留学生在适应韩国大学时所遇到的让自己感到最困难的问题按照顺序排成第一、第二、第三并罗列出来。那么，第一位是3分，第二位是2分，第三位是1分，最后得出成绩。结果表明，中国留学生感到最困难的是学习，其次是人际关系和语言。

Ⅳ. 讨论与结论

（1）中国留学生自己需要改善的地方

中国留学生遇到此类困难并克服的话，会得到一般学生得不到的珍贵经验，并且不管什么情况都能适应文化环境并懂得怎么独立负责解决事情的话，也会让自己快速成长。

可以用积极的态度接受别人，如同Berry(2005)所说的“遵守自己国家的文化并懂得活用其他国家文化才是真正成功的文化适应。”

每个国家都有一些本来就存在的问题。每个人的教养程度也千差万别。与其在生活中非议这个国家倒不如用积极的态度面对生活。

因为语言问题而导致的障碍有很多，因为听不懂成绩不是很容易提升等问题。作为留学生要学习这个国家的文化、历史和语言也不是件很容易的事情。所以抱着这种想法不要勉强自己、一直保持者平和淡定的心情才是最重要的。

并且不要把这些障碍当做障碍，而是把他们当做留学生活中来找的朋友一样，慢慢去克服才是最重要的。

(2) 对学校和学生组织的建议

①教授和行政老师的培训

韩国的大学现在正渐渐变得更加国际化，教授也需要跟上日渐国际化的脚步。教授在教学的时候也需要注意文化的多元性。留学生是带着自己国家和地区与众不同的文化来到这个国家的，教授也需要尊重别的国家的文化，也必须让学生可以自动的表达意见和想法。行政人员的态度和处理方式往往代表着学校，所以需要让学生乐于接触学校的行政事务，并且对于学生的意见给予充分理解，对于留学生的学习和生活满足也需要花点心思。

②专职管理留学人员的缺失

留学生都是分散到各个专业学习的，而且人数不是很多，所以一般大学里并没有安排专门负责留学生的老师，只是让负责教学的老师管理。但是连韩国学生都很难见到教学的教授，从第一次见面就知道教授很忙，观念形成后更是机会不多了。所以由学校组织中国学生和韩国学生一对一，对于韩国学生来说可以有机会学习到中国文化和汉语，对于中国学生来讲在学习上和选课上也有一定的帮助。实际上给中国留学生找朋友的活动也是有的，但是效果不是很显著，而且是同一个专业的概率也很大所以实际上得到帮助的概率也会变小。

③互联网提供综合性信息

现在的技术和互联网虽然很发达，但是学校的官网上专门为留学生设立的公告栏或者网页却是很少的。我认为学校需要为外国留学生专门设立一个页面，转达给留学生一些有关学校的学术会或者文化活动等信息。留学生可以在这个页面上自由交流，在这个网站上留学生以留学生的身

份，并且帮助他们克服因语言不通而导致难以获得信息的困难。

（3）对文化的建议—强化两国间的文化交流

韩流文化很强　　大。在韩国有非常多的媒体，但是偏偏没有中国的媒体。我认为应该在韩国上映一些有关中国的视频，加深两国之间互相理解也非常重要。

Ⅴ. 参考资料

<韩国国内文献>

1. 林春熙, 2009. “中国留学生大学生活的压力和适应”,『韩国生活科学学志』18(1):93-112

2. 李宏值, 2011. “在韩中国留学生的文化适应压力决定因素”,『压力研究』19(2):183-194

3. 朴银美, 黄炳熙, 郑太炎, 2010. “在韩中国留学生的大学生活压力和大学适应的关系”,『压力研究』18(2):145-152

4. 朴智淑, 2011. “国内外国留学生的个人背景、自我存在感、文化适应压力对大学生活的影响”, 『韩国家庭管理学志』29(3):119-131

<国际文献>

1. berry, 2005. “Acculturative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29(6):697-712

<新闻时事>

1. 韩国日报, 2015年5月16日. “"Bye Korea" 调转脚步的外国留学生”

베이징 한국 유학생 생활상태 및 권리보호 연구

손성재, 도화
청화대학교

요 약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재중 한국유학생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1992년 수교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숫자상으로는 물론, 재중 유학생중 비율상으로도 두드러지는 집단이다. 유학생은 국가교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이 되는 집단으로, 그들의 관점과 입장은 해외에서 민족의 그것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32조 1항은 이하와 같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와 더불어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정치목표 반포 이후, 헌법이 부여한 그들의 권리의 보장 또한 국가적 과제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학생의 기본권은 필히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중 한국유학생의 평등권, 정신문화활동의 자유, 사회 경제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생활과 사회 서비스 등 방면에서의 불평등, 종교 활동의 자유 침해,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제한 및 교육권의 침해 등이 그러하다. 본 논문은 각각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규정과 그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학생관리기관 및 행정기관 그리고 중국 국민 각각의 시점에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그들의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포함한 사회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제도상의 개혁과 민족 윤리의 발전에 대한 요구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로 하여금 유학생들의 중국인 집단과의 조화를 원활히 하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양국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한중 국가교류 촉진의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핵심어
한국유학생 기본권보호 한중문화교류

Ⅰ. 서론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정책과 문화 융합이 국가적 화제로 떠오름에 따라, 재중 유학생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유학생 수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은 203곳 서로 다른 국가의 37만7천여 명의 유학생을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의 755곳 고등학교, 연구소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한 통계는 재중유학생 중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차례대로 한국,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2008년까지의 한국 유학생 수는 64481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중 반 이상의 유학생이 북경에 거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제32조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의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법률은 재중 유학생의 기본권과 이익을 보장한다. 이것은 중국 근본법의 요구이며 국제인권보호의 추세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중 한국 유학생의 중국 생활을 다양한 방면에서 조사하여 그들의 기본권보호 실태가 중국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았다. 재중 한국유학생의 평등권, 정신문화활동의 자유, 사회 경제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한중 국가교류의 토대의 핵심은 유학생임을 대전제로 침해실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학생 권리보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赵婀娜˝ 高莹：《来华留学，呈现哪些新特点》2015년 4월 30일 18호 인민일보 기재됨. 참고
2) 亓华˝ 李秀妍 (韩) ：《在京韩国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究》, 2009년 가을 호《青年研究》기재됨. 참고.

Ⅱ. 연구의의

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와 그들의 교육 수준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와 국제화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그 국가의 외국과의 관계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3]유학생 출신에 대한 노동시장과 정치권의 수요의 부단한 증가를 비추어보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역할은 교류 자체의 함의를 이미 넘어섰으며, 직접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및 외교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방대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무역, 문화 방면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한중 양국협력의 추세 하에 유학은 한중 양국의 국민이 교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도이고 유학생은 국가 간의 연결고리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교류 수단의 강화로서 한중 양국 교류에 있어 실질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먼저 유학생의 권리 보호는 각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로 상호간 심리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즉,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더 많은 한국인을 학업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 문화, 경제 협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두 번째, 중국 헌법은 인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권 보장은 유학생을 제외하지 않는다. 유학생 기본권 보호는 국제인권보호의 추세에 부합하며 국제명망 제고와 국제지위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평화적 교류에 이바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기본권 보장은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의 조건중 하나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32조 1항은 이하와 같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와 교육기관은 개혁을 통해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현재 유학생문화에 대한 연구 이론의 대다수는 '문화적응(文化適應)' 에 편중되어있으며, 국가별 특징에 따른 유학생 권리의 연구는 더더욱 빈약하다.[4] 대학은 유학생을 증수의 수단이 아닌 잠재적 미래자원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한 충분한 지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5]중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국가통치 목표를 실현하고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학생 권리보호 문제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유학생의 기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중국의 유학생제도 개혁과 국제적 책임 부담을 촉진 및 양국 간의 인적자원 개발, 그로 인한 한중 우호, 협력 촉구에 그 의의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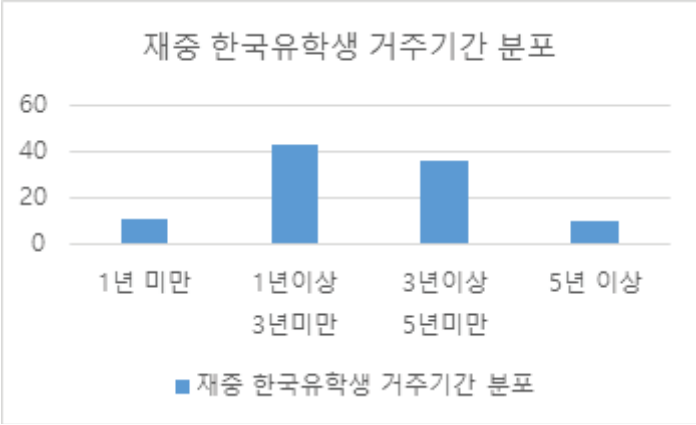
---

3) 贺向民:《从数据看我国来华留学生教育的发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참고.
4) 문화적응은 영어로는 "acculturation"로 번역된다. 외국문화권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그들의 보편적 행위를 배우며 겪는 심리변화를 뜻한다.
5) 중국신문《中国学生占韩国留学生人数58.6%仍被韩国人歧视》참고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및 설문 설계

가.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2015년 청화, 북경대학교의 100명의 한국인 유학생으로 한다. 대상의 남녀비율은 62:38이며, 평균 연령은 22세이다. 설문지는 단답형을 위주로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피조사자의 중국 거류 기간은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 〉

나. [6]설문의 주된 내용은 한국유학생의 중국권리보장제도에 대한 입장이다. 구체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평등권 : 사교생활, 생활 서비스
2) 정신 · 문화 활동의 자유 : 종교생활
3) 사회경제권 : 거주와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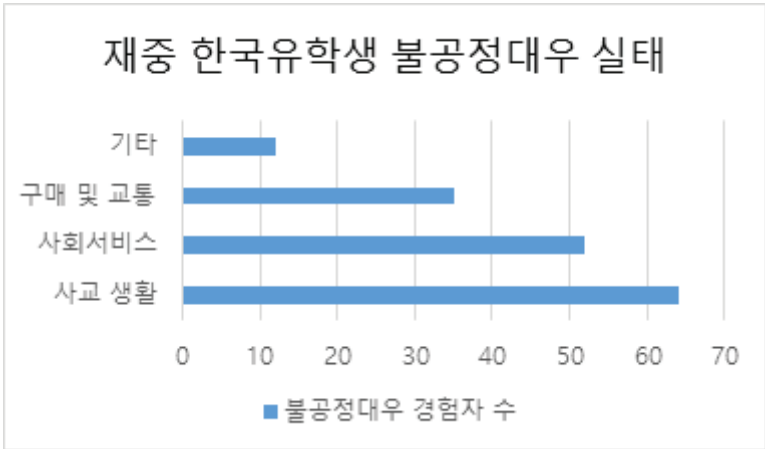
6) 이 부분은 학술적 논쟁이 있는 분류로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청화대학교 법학과 린라이판(林来梵)교수의《헌법학강의(宪法学讲义)》2011년法律出版社의 분류법을 사용함. 린라이판교수의 정의에 따라 외국인은 헌법상의 '특수주체 '에 속하므로, 통상 일부 사회권과 정치권이 제외된 자유권 등의 부분적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조사는 위의 조사에서 제외함.

2. 조사결과 분석

가. 평등권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의 분류 중에서 상대적 평등을 다루고자 한다. [7] '국제법의 일반원칙 'ㅇ 규정한 국민대우의 요구에 따라, 모든 국내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와 자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고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또한, 일련의 사항을 금지하는데 그중 "국적의 차이로 인권의 향유와 행사방면에서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8]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법을 근거로 외국인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의 의무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70%의 한국유학생이 자신이 중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중 사교방면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방면의 불공정 대우가 그 뒤를 이어 52%를 기록했다.



그림〈 3 〉

사교에 있어서 중국학생이 대부분 한국유학생과의 팀 프로젝트, 실습 등의 단체 활동을 꺼려한다고 피조사자들은 기술했다. 12%의 피조사자(그중 75%인 9명은 중국 거주경험 5년 이상인 자)들만이 '중국인들과의 교류에 어떠한 장애도 없다' 라고 답변했다. 그들은 동아리활동, 수업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인들과 사교활동을 한다고 기술했다. 27%의 피조사자들은 '중국인 친구가 거의 없음 'ㅇ 표기했고, 언어문제, 사유방식의 차이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거리낌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기술했다.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한민국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위화감과 포단현상(抱團現像:단체 끌어안기 현상, 자신이 속한 단체 구성원과의 교류만을 원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취

7) 刘欢欢：《外国人非法就业的认定及权利救济的研究》참고.
8) 戴瑞君：《外国人权利的法律保护——从国际法到中国法的考察》참고.

함을 의미)을 형성하기 쉽다. [9]이에 따라 특히나 사교 활동에 있어 한국 유학생들은 중국인들과 의사소통 과정 중 자신의 표현에 적합한 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 만일 중국학생이 냉정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교류를 원하는 한국학생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게 된다. 또한, 냉전 후의 한중 양국에서 강조되어온 민족주의 정신이 민간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원한정서가 다시 작용하게 되기도 한다. 2005년 한국의 ' 강원단오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오해가 도화선으로 양국 간의 정서는 더욱 악화 되었고 적대 의식이 형성되었다. 조사 중 61%의 피조사자가 중국학생에게 반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서비스 방면에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 내 경제 발전 국가 중 한 국가로서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기초설비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다.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식당, 공항 혹은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가 우수하며 전면적이다. 54%의 피조사자는 '중국 상품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봤거나 직접적 충돌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행정기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 외로 49%의 피조사자가 중국에서 씨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체 북경에는 20개의 씨티은행 혹은 ATM기 설치 지역만이 있으며 어떠한 대학도 씨티은행 ATM기를 교내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유학생의 구매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나 답변자들은 불편한 점으로 중국 은행의 인터넷 뱅킹의 시스템을 지적하였는데, 지부보(支付寶)라는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 뱅킹에 등록을 하는 과정이 유학생에게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지부보(支付寶)는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100명의 피조사자 중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교통, 구매방면에서 유학생들은 중국학생들보다 비싼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피조사자들은 답변하였다. 조사 과정 중 중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불공정 대우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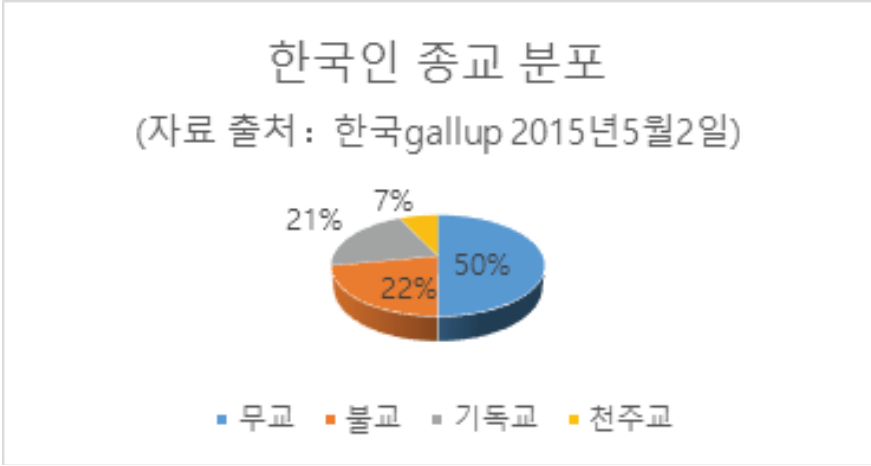
이외에도 일부 중국 대학교의 한국 유학생들은 학교 교과과정에 불만을 가졌다. 북경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대학생을 위한 정치사상수업을 유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놓은 정책이 불합리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나. 정신 · 문화 활동의 자유 : 종교 신앙의 자유.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6조는 "국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

9) 方嘉雯 : 《北京五道口地区韩国餐饮业空间布局特征与集聚机理分析》, 《经济地理》에 기재, 2014년 12월, 제34권 12회 참고

한다. 중국은 또한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신앙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낙후된 입법, 행정보호의 부족, 사법보호의 빈약 등의 문제로 법제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한국갤럽(Gallop)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월 2일까지 28%의 한국인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



그림〈 4 〉

이에 반해, 본 논문의 조사에서 23%의 한국 유학생이 중국인의 종교에 대한 태도가 객관 ·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회의, 팀 프로젝트 준비 등의 단체 활동을 주말에 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반면, 일부 한국 유학생은 신앙 활동의 원인으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한국인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한 피조사자는 이러한 중국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국인들은 단체 활동을 홀시하며, 학업에 열정적이지 못하다' 라며 면전에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 사회경제권

1)경제자유권

가) 직업 선택의 자유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해 외국 유학생이 근로 학생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한은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유학생은 2002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비상근의 비정규직 형태

10) 巫升海 : 《当代中国宗教信仰自由的法律保护》, 2005년9월.참고.

의 취업이 허용되며 근무시간은 주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학생의 근무시간이 20시간이 넘을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소위 '불법' 이란 '유학생이 중국에서 어떤 제도의 항목을 위반할 경우 그들의 취업이 무조건 범죄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11]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정에는 처벌적 조치가 허다하며, 권리 구조의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68%의 피조사자는 "중국이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신청은 국가고시인 사법고시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 소유를 신청자격 조건의 하나로 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수많은 한국유학생은 중국의 합법적 변호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의 취득이 학력상의 제한(로스쿨)에 한정되며 국적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직업 제한에 대해 피조사자 중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7명은 모두 "법률의 허점(Legal loophole)이 바로 중국 법률의 직업제한에서 나타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나 몇몇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온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어 수준이 한국어 수준보다 높으며, 현재 귀국하여 취업할 언어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이 어려움은 물론, 변호사, 의사 등의 취직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나) 거주와 이동의 자유

《세계 인권선언》 제 13조는 모든 인간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이 유학생을 한국인 학생과 함께 기숙사에 배정하는 반면, 청화 · 북경대학교 등의 중국 대학들은 《외국인관리조례》에 의해 유학생만의 기숙사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에 대해 48%의 피조사자는 " 지가와 중국학생의 기숙사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며(80위안/1일), 자신과 중국학생 사이에 벽을 두는 행위로서 자신의 사교범위에 제한, 정보전달상의 장애 발생원인" 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세웠다. 72%의 피조사자는 '자신들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 표기했다.

2) 사회권리

가) 교육 받을 권리

11) 刘欢欢 : 《外国人非法就业的认定及权利救济的研究》 참고

한국의 대학은 징병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휴학을 일반휴학과 병역휴학 두 가지로 분류한다. 덕택에 학생들은 국방의 의무를 완료한 후 대학에 돌아오더라도 재 휴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중국의 대학은 비록 2006년부터 한국 유학생들의 2년간의 병역기간을 허가했지만, 그것을 휴학의 일부로 여겨 총합 휴학 기간은 여전히 2년으로 제한된다. 만약 한 재중 한국 유학생이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다면 다시는 휴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한 학생이 복무기간 24개월의 공군에 입대하게 되거나 21~23개월의 병역을 마치고 중국의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학생에게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엄중 처벌이 가해진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피조사자 중 약90%의 남성 피조사자들은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라고 답변했다.

Ⅳ. 개선방안 및 권리보호의 발전방향

유엔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의 권리보호를 "긴급하며 부단히 증강하는 인권의 도전" 이라고 표명한 적이 있다. 한국유학생은 재중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생활습관, 문화, 신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많은 재중 유학생을 포섭하는 길이며 한중 경제 문화 교류의 기석이다.

1. 평등권

가. 행정기관

1)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평등한 대우의 규정이 필요하며, 행정기관, 고등교육기관, 기업 등의 주체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의 신분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격 불평등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 조사를 통해 중국어 실력과 권리 침해 빈도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언어상의 문제가 기본권 권리 침해 여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기본권 보장의 근본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정보 제공시 현 재 한중관계의 발전정도에 발맞추어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자 수속과 학적 인정 등의 과정에서 재중 한국 유학생의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권리보호와 주도면밀한 정부 투명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고발 접근성을 강화하여 청구권 보호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3)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신분이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상적인 권리 보호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행정기관은 한중관계의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힘써야 한다. 예로 한국인들의 인터넷 뱅킹 신청과정을 간소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지부보(支付寶)부터 기차표구매까지 여권을 기타 신분증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 재중 한국인들의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제도적 · 개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대학 내의 한국인이 사용가능한 ATM기 설치 등 목적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4) 여권과 기타 신분증의 동등한 위치 확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아시아 신분증" 에 대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재중 한국 유학생들에게 여권이 필요한 상황은 이미 '귀찮은 것'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허가가 난 신분증임에도 불과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한중 양국을 시작으로 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인 참여를 통한 아시아 평화정착과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적 변경, 영구거류와는 관련이 없으며, 양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입국한 조약 체결국가 국민들에게 자국 국민의 신분증과 최대한 동등한 지위의 신분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 고등교육기관 유학생관리기구

(1) 고등교육기관은 그들과 중국학생의 교육과 생활방면에서의 평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유학생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치 하에서 유학생 관리 기구는 행정재량권을 갖는다. 즉, 중국정부와 유학생과의 연결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방면에서 관리기구는 유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학점인정과 학적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 즉, 각각 다른 주체들의 합리적인 분류 및 평등 실현을 의미한다. 먼저 유학생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 학점 요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국어 실력에 맞춘 별도의 방과 후 수업 개설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 특유의 정치사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들을 유학생들 필수 수업으로 개설하는 등의 강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업들은 정치 성향과 종교에 따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학생들에게 대체수업 개설 혹은 면제 자격 부여 등의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방면에서 관리 기구는 유학생과 중국 학생을 동등하게 보아 합리적으로 기숙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외국인과 중국인 분리 거주의 현행 제도는 국적을 기준으로 같은 학생을 분리시켜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적, 개인적 이익에도 손실이 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학생과 유학생들의 교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상술된 한국 유학생과 중국 학생이 서로 꺼려하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양국 학생 간의 인식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2) 유학생 관리 기구는 교육기관 내의 동아리 혹은 조직과 협력하여 한중 학생 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전문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유학생은 중국 문화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담화와 같은 언어 위주의 활동은 그들의 언어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위챗(Wechat)이라는 중국 최대 규모의 SNS부터 학업 생활에 필수적인 지망(知网)이라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실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는 양국 학생은 이후 학과과정 중 더욱 심화된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중 양국 간의 감정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장기간의 안정된 교류를 보장하게 된다.

2. 정신 · 문화 활동의 자유

가. 행정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중국 국무원 제정 법규),《미션스쿨 외국인고용 방법》및《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실시규정》(국가종교삼무국 제정 규정)을 준수하여 외국인의 종교의 자유에 기초하여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즉, 종교 전파의 환경에 대한 정화과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종교와 합법적인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 일부 종교의 이름으로 비종교적 목적을 도모하는 소위 '사이비종교'를 규제함으로써 진정한 종교자유의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나. 유학생 관리원들이 정기적인 문화교육을 받아 다른 문화의 특징과 외국인들의 습관, 성향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한 관리 방식을 적용함을 통해 유학생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수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유학생관리조직은 유학생 등록 시 최대한 그들의 종교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중 금기시 되는 활동 등을 조직원에게 교육시켜 그들이 종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2)]

다. 중국학생은 자유권에 관한 이해의 심화로 종교에 대해 관용적 입장을 택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일률평등의 원칙 '을 지켜나가야 한다. 종교인들의 정상적인 신앙 활동 권리를 존중하여 그들의 신앙 활동으로 인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하는 관용이 필요하다.

3.사회경제권

가. 직업 선택의 자유

1) 취업방면에서 중국정부는 한국인 유학생의 실질적 상황(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긴장된 정책을 좀 더 완화하여 직업 자격의 범위를 넓히고 유학생 비자의 권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귀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남아 한중 경제협력에 인해 생겨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 [13)]아무리 능력 있는 유학생이라도 자격의 제한으로 고용을 못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12) 孙宛秋：《我国高校留学生管理的研究》. 참고.

13) 李秀珍´ 孙钰：《外国留学生在华就业政策改善方案》, 2015년1월 제 34권 1호.《洛阳师范学院学报》에 기재. 참고

2)재중 한국 유학생들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하에 고용계약에서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정부는 국제법 일반 원칙인 국민대우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장 기제를 마련하여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인권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된 관리부문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통일된 유학생 관리부문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여러 관련 부문의 서로 책임 떠밀기 현상이 벌어짐은 물론,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유학생들이 항의할 대상도 불명확해진다. 중국 당국은 국민은 외국인 불법취업의 법률의식과 인권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취업의 감독과 권리 구제 제도를 완벽히 함에 힘써야 한다.

나. 거주와 이동의 자유

유학생이 있는 학교는 한국유학생이 자유롭게 거주할 곳을 선택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한국이 채택한 제도처럼 유학생은 유학생 기숙사 혹은 중국학생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현재의 몰아넣기식 유학생 기숙사 관리가 아닌, 동성끼리 같은 방, 같은 기숙사가 배정되어 기숙사 내의 충돌과 문란한 생활을 방지하는 주도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유학생의 징병제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한국 남성 유학생의 학적, 학점인정 등의 항목에 있어 더욱 융통성 있는 정책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한국 유학생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권의 권한 부여를 통해 한국 유학생의 순탄한 학교생활과 졸업을 돕고 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Ⅴ. 결론

2013년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범해(泛海)'를 인용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최치원은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다. 그가 9세기 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은 이후 19세기 유길준의 최초 일본, 미국 유학과도 천 년이나 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나라 빈공진사에 합격하고 그의 계원필경집의 한국 최고사료, 당나라 실록의 보완 등의 가치가 인정받으며, 황소의 난을 진압한 그의 토황소격문은 한국인, 중국인들에게도 이젠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한국인 중국유학의 이러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속화되는 한중관계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북경 한국인 유학생 밀집지역은 왕징(望京), 우다오코우(五道口), 이(順義) 세 곳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코리아타운(韓國村)으로 잘 알려진 이곳들은 이제 이미 단순한 상업구역의 개념이 아니다. 한국유학생의 권리보호는 우리 혀끝에 매달려있는 공염불이 아니다. "中日冷得跺脚, 中韩热得烫手"(중일 관계가 차가워져 발이 시리고, 한중 관계가 뜨거워져 손이 데인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중 관계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14]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 태세에 걸맞게 한중관계의 기석인 유학생을 더 이상 현재 낙후된 조건아래 방치할 수 없다.[15] 의법치국(依法治國)의 목표와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평등대우를 지향하여 한중교류를 촉진하고 한중관계의 신국면을 펼쳐야 한다.

14) 何波：《北京市韩国人聚居区的特征及整合 ——以望京"韩国村"为例》, 《城市问题》에 기재, 2008년제10회 참고

15) 石源华：《中日冷得跺脚 中韩热得烫手》, 《世界知识》에 기재, 2015년01회 참고

참고문헌

1.亓华′ 李秀妍 (韩) .在京韩国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究[N]. 青年研究에 기재, 2009년02월 발간.

2.赵婀娜′ 高莹. 来华留学, 呈现哪些新特点[N]. 인민일보, 2015 년4월30일(018).

3.方嘉雯. 北京五道口地区韩国餐饮业空间布局特征与集聚机理分析[J]. 经济地理기재, 2014년, 34(12).

4.孙乐岑′ 冯江平′ 林莉′ 黄筱衫. 在华外国留学生的文化适应现状调查及建议[J]. 语言教学与研究, 2009년, (1).

5.李秀珍′ 孙钰. 外国留学生在华就业政策改善方案[J]. 낙양사범학교 학보(洛阳师范学院学报), 2015년, 34(1).

6.何波. 北京市韩国人聚居区的特征及整合 ——以望京“韩国村”为例[N]. 城市问题, 2008,10.

7.정인섭- 신국제법 강의[M] 박영사 2014년 1월 10일

8.이희옥- 한중관계의 재구성[M]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년 4월 30일

9.월간코리아인, 『한중 관계의 도약, 교육기구가 디딤돌이다』 2015년 2월 23일

在京韩国留学生生活状况及权利保护的研究

孙晟宰，涂書
清华大学

摘要　随着中国国门的日益开放，越来越多的外国人来到中国留学。由于中国和朝鲜半岛山水相连、唇齿相依的地理位置优势以及自 1992 年建交以来两国友好交流的态势，在京韩国留学生呈现出数量多、比例大的特点。不可否认，留学生是两国文化交流的纽带和两国关系的未来，他们的观点和立场很大程度上代表了整个国家和民族的看法。根据我国《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 32 条第 1 款规定：“中国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为坚持依法治国，树立人权大国形象，同时促进两国在各个领域的进一步合作，保护宪法赋予留学生的基本权利的重要性不容小觑。然而根据调查显示，韩国留学生在中国的平等权、精神文化活动的自由，社会经济权利却遭到了不同程度的侵害，具体表现在人际交往和社会服务的不平等，宗教活动的不自由，择业自由、居住和迁徙的自由受到限制，以及受教育权的侵害。为此，本文从留学生管理部门、行政机关以及社会公民的角度阐释了如何平等对待韩国留学生，保护他们正常的宗教活动不受侵害，以及在最大程度上维护他们的社会经济权利。既涉及到制度上的改革，也有对国民素质的期待。我们希望通过本次探讨帮助韩国留学生更好的适应中国生活，让他们成为宣传中国文化的使者，最终推动两国关系的进一步发展。

关键词　韩国留学生 权利保护 中韩文化交流

一、引言

随着中国国门的日益开放和文化吸引力的日益增强，来华留学生总数在过去的十年内不断增长，目前我国已跃升为世界第三大留学生输入国。据中国教育部的有效统计，2014 年中国共有来自 203 个国家和地区的 37.7 万各类外国留学人员在 31 个省（自治区、直辖市）的 775 所高等学校、科研院所和其他教学机构学习。[1]按国别统计，来华留学生人数排在前五位的国家分别为韩国、日本、美国、越南和泰国。截至 2008 年，韩国在华留学生人数达 64481，其中约有一半集中在首都北京。[2]

《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 32 条第 1 款规定：“中国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保障留学生在华的基本权利和利益，既是我国根本大法的要求，也符合国际人权保护趋势，既是依法治国战略的体现，也有利于我国树立良好的国际形象。本文针对韩国留学生在华生活的种种状况，通过调查问卷、文献调查等方法，深入分析原因，并为更好的保护留学生权利提出了建议。

二、研究意义

一个国家的外国留学生规模和层次是体现该国政治、经济、文化、外交实力和国际化的重要指标之一，而外国留学生教育也是促进国家之间合作交流的重要途径。[3]随着我国留学教育的不断发展，外国留学生的作用显然已经超出了教育交流本身的意蕴，而直接指向更为广阔的政治、经济、文化乃至外交的意义。就中韩关系而言，自 1992 年两国建交以来，就一直保持着友好合作的关系，在政治、经贸、文化方面开展了广泛而深入的合作。留学是中韩两国民间往来的重要途径，留学生是两国关系的纽带，保护他们的权利有着极为重要的现实意义。

首先，保护留学生的权利有利于提高中国在大韩民族心中的地位，促进中韩两国文化交流。留学生在华所感受的一切直接关系到他们对中国的评价，充分保障他们的权利有利于他们将对中国的积极评价带回韩国，吸引更多的人来华工作和学习，形成多层次、多渠道、形式多样的交流合作关系。

[1] 参见赵婀娜、高莹：《来华留学，呈现哪些新特点》，载《人民日报》，2015 年 4 月 30 日，第 018 版。

[2] 参见亓华、李秀妍（韩）：《在京韩国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究》，载《青年研究》，2009 年 02 期。

[3]参见贺向民：《从数据看我国来华留学生教育的发展》，北京语言大学出版社。

其次，保护留学生的权利符合国际人权保护的趋势，有利于树立国际威望，提高国际地位。我国坚持以人为本，尊重和保障人权不能将留学生排除在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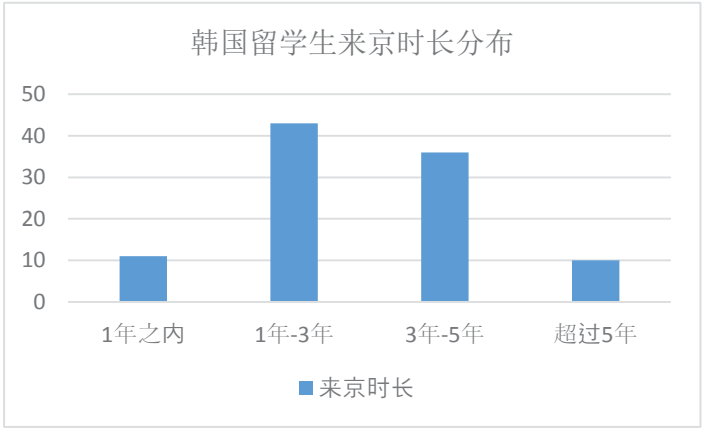
最后，保护留学生权利是我国依法治国战略的要求。我国宪法明确规定：“中国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基于这一点，我国政府和教育管理部门应当努力变革，实现从形式法治到实质法治的过渡。

目前中国学者对留学生文化的理论研究大多停留在“文化适应”[4]、语言学习的层面上，很少谈及对留学生权利的保护，且缺乏分国别的细致研究。大学不能把留学生看做增收的手段，而应该把他们看成是潜在的资源，建立充分的支持体系。[5]中国作为人权大国不能忽视留学生的权利保护，（这句话删除）本文针对留学生基本权利受侵害的事实提出了保护的具体建议与措施，有利于促进中国留学生保护制度的改革，更好的承担国际责任。

四、研究结果与分析

（一） 调查对象及问卷设计

1. 本次研究调查对象是2015年清华大学和北京大学总共100名韩国留学生。调查男女比例为：62:38，平均年龄为22岁。题型以单选题为主，问卷使用的语言为汉语。其中，各留学生来京时长分布如下图：



[4]文化适应又译作“涵化”，英文是“acculturation”，表示“来自外文化者对新文化中的行为模仿所导致的心理变化”。

[5]参考中国新闻网《中国学生占韩国留学生人数58.6%仍被韩国人歧视》。

2. 问卷设计方面主要考虑韩国留学生对中国权利保障制度的看法：[6]

1） 平等权：人际交往、生活服务

2） 精神文化活动的自由：宗教活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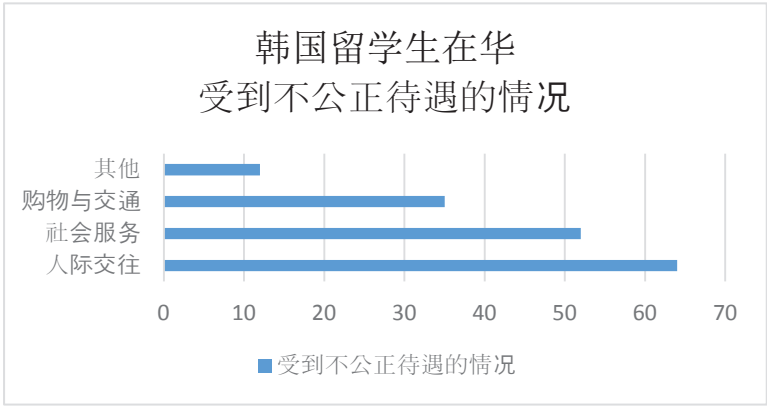
3） 社会经济权利：居住和迁徙的自由、择业自由、环境权

（二） 调查结果分析与研究

1. 平等权

平等并不是意味着绝对的平等，而是相对的平等。依据国际法一般规则所规定的国民待遇的要求，凡是居住在我国境内的外国人和我国公民享受宪法和法律的保护，享有普遍人权。[7]它禁止基于一系列事项，其中包括国籍，而在人权的享有和行使方面给予不同的人以不同的对待。中国依据国际人权法承担保障外国人权利的法律义务。[8]

然而，70%的韩国留学生都认为自己曾经在中国受过不公正的待遇，其中，人际交往中的歧视所占比例最高，为64%，生活服务次之，为52%。



在人际交往中，中国学生大多不愿意和韩国学生组成学习小组或者一起参加实践活动。仅有12%的人（其中有9个人在中国生活超过5年）认为和中国学生的交流中完全没有障碍，他们通过社团活动、课程小组来结交中国朋友；27%的人认为自己几乎没有中国朋友，原因依次为语言障碍、

[6] 该部分权利分类方法参考林来梵：《宪法学讲义》，2011年法律出版社。其中，因为外国人属于宪法上的特殊主体，通常来说享有自由权而不完全享有社会权，因此政治权利被排除在这次调查中。

[7] 参见刘欢欢：《外国人非法就业的认定及权利救济的研究》。

[8] 参见戴瑞君：《外国人权利的法律保护——从国际法到中国法的考察》。

思维方式的不同以及对中国人的抵触情绪。大韩民族集体主义文化盛行，在他们的思想中有着与中国人相似的“围合”感，容易形成“抱团”现象。[9]因而他们特别注重人际交往，在与他人的沟通过程中，有着需要他人回馈自己所付出的强烈预期。一旦中方同学表现冷漠倾向，就会给韩国留学生带来挫败感。同时，冷战后两国民族主义情绪日益抬头，潜藏在中韩民间的抵触、怨恨情绪凸显。以 2005 年韩国“江陵端午祭”申遗为导火索，两国民间关系倒退,敌对情绪强烈。在韩国留学生中表现犹为明显，61%的人对中国学生有抵触心理。

在社会服务上，韩国是亚洲经济发展水平较高的国家，服务业发达，基础设施完善，与中国相比，餐厅、机场、行政机关的工作人员态度良好，服务周到。 54%的留学生表示有因为中国服务人员态度不好生气或者直接发生冲突的经历，其中行政机关的工作人员被批评较多。另外有 49%的韩国留学生所持银行卡主卡为花旗银行卡，而在北京，整个北京城仅有 20 家花旗银行支行，各大学校园内均无花旗银行 ATM 机，这给韩国留学生的购物生活带来极大的不便。有一名回答者特意提到中国网上银行的支付系统、网上购票系统对留学生来说限制较多。另外，交通和购物方面也是不平等对待的重要方面，他们往往要用比中国人更高的价格买到相同的产品，在这一点上，中文水平与受到不公正待遇的可能性呈反比趋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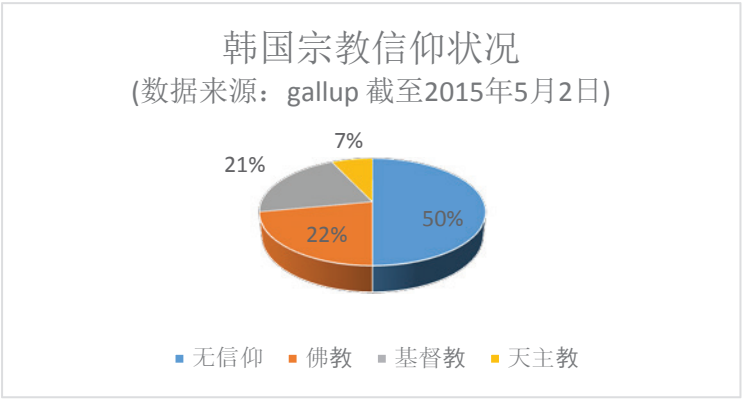
在其他方面，韩国留学生认为学校对留学生的部分课程要求较高，来自北京大学的一位韩国留学生说他们甚至要参加涉及到中国大学生政治教育色彩的课程，例如中国近代史纲要。

2. 精神文化活动的自由：宗教信仰自由

宗教从哲学本质上看，是指支配着人们日常生活的外部力量在人们头脑中的幻想的反映。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 36 条规定，国家保护正常的宗教活动。我国现行的宗教政策承认佛教、道教、伊斯兰教、基督教和天主教的合法地位。但我国在宗教保护方面还存在着法制不统一、立法落后、行政保护不力、司法保护薄弱等问题。[10]根据韩国gallup调查显示，截至 2014 年 5 月 2 日，50%的韩国人信仰宗教。然而，23%的留学生认为中国人对宗教所持态度不客观不宽容。

[9] 参见方嘉雯：《北京五道口地区韩国餐饮业空间布局特征与集聚机理分析》，载《经济地理》，2014 年 12 月，第 34 卷第 12 期。

[10]参见巫升海：《当代中国宗教信仰自由的法律保护》，2005 年 9 月。



3. 社会经济权利

1）经济自由权：

A. 择业自由：

我国的《外国人出境入境管理法》第四十三条规定了外国留学生在中国境内工作属于非法就业的情形：外国留学生违反勤工助学的管理规定，在超出规定的岗位范围或者工作时限就业的。[11] 根据法务部出入境管理局的规定，境内留学生自 2002 年 2 月 1 日起被允许按照小时制就业。在打工时限上规定学期中一周不超过 20 小时。可见，如果留学生的打工时间超过了 20 小时，那么就违背了《外国人出境入境管理法》，但并不意味着构成了严重违法犯罪行为。但目前在中国，对外国人非法工作的规定中，多惩罚性措施，而缺乏权利救济的措施。我国的法律没有明确规定外国人非法就业时有哪些权利救济的措施，其作为人在我国境内从事了非法就业行为，我国法律能够给予的权利保护范围也没有明确规定，只是规定了保护境内外国人的合法权益。为此，68%的人表示中国法律的规定侵害了他们的择业自由权，实质上是一种不平等和忽视人权的表现。

根据《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第 5 条规定，申请律师执业，应当通过国家统一司法考试，而司法考试的申请条件之一为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这也就意味着在中国大学法学院就读的韩国留学生将不能成为中国的合法律师。而在韩国，律师资格的取得仅有学历上的限制，没有国籍差异。就这一职业限制，7 个法学院就读的留学生认为这是法律的漏洞所在。尤其是从小就在中国长大的韩国人，中文水平高于母语，他们已经不具备回国工作的语言能力，过多的职业限制不利于他们的择业自由。

B. 居住和迁徙的自由：

[11]参见刘欢欢：《外国人非法就业的认定及权利救济的研究》。

《世界人权宣言》第 13 条规定：人人在各国境内有权自由迁徙和居住。不同于韩国大学将留学生和本国学生安排在一起住的情况，清华大学和北京大学均设置了专门的留学生公寓 48%的人却也认为价格昂贵（80 元/天）的公寓将自己与中国学生隔离开来，限制了自己的朋友圈，也不利于信息的传递和到达。72%的韩国人认为他们应当有权自由选择住宿的地方。

2）社会权利：受教育权

在韩国的兵役制度下，韩国的大学具备两种休学条件，即一般休学和兵役休学，以便学生在服完兵役之后有再休学的需要。中国的大学虽然从 2006 年起允许韩国留学生在大学就读的期间参军，但是休学的时间期限为 2 年。如果某个韩国留学生在就读之内参军并回校继续读书，则不能再一次申请休学。而且如果一个学生想参加为期 24 个月的空军兵役或者在回校过程中发生日程问题的，就无法正常毕业。在这个问题上，90％的男生认为这不利于维护他们的受教育权。

五、改进方法与发展方向

联合国高专曾指出，保护外国人权利“是一项紧迫的并且不断增强的人权挑战”。韩国留学生作为在华留学生中占比例最大的群体，值得特别关注。充分尊重他们的宗教信仰、生活习惯、性格特征，保障他们的基本权利，是吸引更多留学生来华学习，促进中韩两国经济文化交流的不二选择。

一、 平等权

1. 行政机关

1）在遵守上位法的前提下制定有关平等对待外国留学生的规定，从行政机关、高校留学生管理部门、企业商家等主体的角度合理限权，如规定企业商家不得恶意抬价，坑蒙拐骗等，保障留学生平等权不受侵害。

2）增加政府工作的透明度，扩大政府信息公开，实现信息发布的多语言化。获得信息是民主生活参与的基础，对于和韩国留学生利益相关的信息，如护照办理、学籍认定等工作，政府应做到主动、负责任的公布。同时，韩国留学生的母语为韩语，而当前政府发布的信息以中英文为主，如果能聘请相关语言学者帮助翻译，增加政府首页的韩语板块，能更快的实现政府意思上传下达，这一人性化的措施将会展现政府主动提供服务的良好姿态。

3）改善服务态度，提高服务质量，建立有效地政府服务体系。在部分韩国留学生眼里，护照和政府已经成为“麻烦”的代言词。为重新建立政府的公信力，政府工作人员应积极友好的提供帮助，简化韩国学生办理网上银行、支付宝业务以及网上购票的手续，提高工作效率，争取在最短的时间内为留学生提供最优质的服务，这是保护权利的要求，也是良好行政的体现。

4）放宽身份限制，减少国别歧视。对于留学生而言，护照是他们的“身份证”，然而其效力却远不及真正的身份证。为此我们想，能否通过政府机关构建一个类似于欧盟联合的“亚洲身份证”，改变现在很多留学生拿着护照不能有效证明自己身份的尴尬局面。“亚洲身份证”不同于“永久居留证”，也不涉及到国籍变更的问题，是中国政府对在华信誉状况良好的亚洲人的“绿卡”，通过它可以享受和中国人一样的待遇。

2.高校留学生管理机构

1）合理制定留学生管理制度，做到学习生活的相对平等。在高校自治的背景下，在处理留学生相关事宜时，留学生管理机构享有行政裁量自由权，是政府与留学生的连接点。在学习上，管理机构应对韩国留学生制定合理的学分认定和学籍管理制度。这里需要实现的平等是“实质平等”，即对不同类别的主体进行合理分类。首先，充分考虑韩国留学生的语言障碍问题，降低他们学业上的要求。留学生教育管理部门应当针对不同层次外国留学生开设汉语培训班,解决来华留学生汉语水平参差不齐的问题。 改革传统的大班制教学，实行因材施教；其次，对于部分具有鲜明中国特色的课程，应给予他们免修的资格。同时，注重国际化课程的建设。在生活上，管理机构应将韩国留学生和中国学生一视同仁，合理制定宿舍制度，将他们作为一个整体，基于性别、院系而非国籍的差别，分配到不同的宿舍。

2)与学校跨国类协会开展合作,通过丰富多彩的活动搭建韩国留学生和中国学生交流的平台，帮助韩国留学生更好的了解中国文化和更快地融入整个集体之中。对于刚进校的学生，要积极组织座谈等活动帮助他们了解中国，了解学校和周边动态，引导中国学生开展一对一的帮助，从微信这一社交软件的使用到常用学术数据库的查询，从对路边新疆人售卖切糕的警惕到小组课程作业的帮助与配合,在建立中韩学生友谊的基础上帮助留学生及时了解相关资讯,更快的融入集体。

（二）精神文化活动的自由

1. 行政机关遵守充分尊重与保障，严格依法规范的原则。依据《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国务院制定的法规）以及《宗教院校聘用外籍专业人员办法》和《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国家宗教事务局制定的部门性规章），在尊重外国人的宗教信仰自由的基础上规范我国宗教秩序。打击邪教活动和以进行宗教活动为名义的其他非法活动，净化宗教传播环境。对非法活动的打击才是对合法活动的保护。

2. 留学生管理人员应当定期参加跨文化管理培训，了解不同文化的特点和习俗，包括韩国宗教文化，提高他们对不同文化背景的学生的深层次理解，运用不同的管理方法和技巧进行跨文化管理，提高留学生管理的服务水平。[12]留学生管理部门应当在登记时尽量了解他们的宗教信仰，将他们在日常生活中的禁忌告知为他们服务的工作人员，尊重他们信仰宗教和开展正当宗教活动的自由，在他们学习圣经时不打扰。

（三）社会经济权利

1. 择业自由

1）在就业方面，对于在校留学生，中国政府在遵循法务部出入境管理局的相关规定时，在现行制度下赋予外国人工作范围的基础上对韩留学生在华就业方面适当放宽政策，扩大就业资格的范围，减少手续费。相对于专门性来华工作的商人、技术人员，留学生的目的更加单纯，同时具备在华工作的知识储备。对于已经毕业的留学生，应努力解决留学生签证难的问题，以打破一刀切地限制来华留学生毕业之后在华就业的情况。需要有条件地、有重点地给来华留学生提供在华实习与就业的机会，从而满足大型企业对外国留学生的需求。[13]

2）在权利救济方面，根据国际法一般原则国民待遇的要求，政府应当建立非法就业外国人的人权保障机制，保护普遍、无差别的人权。设立相对集中的外国人就业管理模式，并细化管理制度，如果不建立一个统一的机构专门处理留学生就业问题，就有可能造成各部门之间互相推诿责任，不利于有效管理，留学生在权利受到侵害时也就无处可以投诉。强化我国关于外国人非法就业的法律中的程序意识和人权保护意识，进一步完善外国人就业的监管和权利救济制度。毕竟，部分留学生年龄偏小，他们在尚未形成对世界的完整认识时就出国留学，工作中受到雇主伤害的可能性较大。

[12] 参考孙宛秋：《我国高校留学生管理的研究》。

[13] 参考李秀珍、孙钰：《外国留学生在华就业政策改善方案》，载《洛阳师范学院学报》，2015 年 1 月，第 34 卷第 1 期。

4. 居住和迁徙的自由

留学生管理部门应向学校建议，给韩国留学生自主选择宿舍的权利，留学生可以根据自己的需要选择住在中国学生宿舍还是专门的留学生宿舍。同时，在留学生宿舍中，应该尽可能实现男女同学的分楼分层的管理。

3. 受教育权

考虑到韩国留学生兵役制度的特殊情况，政府和教育部门应该制定更加灵活的政策，改革对要服兵役的韩国留学生的学籍管理和学分认定。在护照问题上，充分考虑韩国留学生的便利性，简化办理程序，尽可能让韩国留学生顺利毕业，保护好他们的受教育权。

六、结语

在高等教育日趋国际化大背景下，各国高等教育之间的联系与交流在不断的加深，世界学生的国际性流动越来越频繁，留学生教育也随之不断得到发展。目前在北京的韩国人主要形成了三大聚集区：望京、五道口和顺义。“韩国村”不再是单纯的商业城概念，保护韩国留学生的权利不能仅仅停留在将口头上。[14]在中国周边外交呈现出“中日冷得跺脚，中韩热得烫手”[15]的态势下，我们确有必要平等对待韩国留学生，保障他们的基本人权，在平等对待他们，保障他们在中国正常学习生活的基本权利，以留学生为纽带促进中韩文化交流，开创中韩关系的新局面。

[14] 参见何波：《北京市韩国人聚居区的特征及整合 ——以望京“韩国村”为例》，载《城市问题》，2008年第 10 期。

[15] 参见石源华：《中日冷得跺脚 中韩热得烫手》，载《世界知识》，2015 年 01 期。

参考文献：

1. 亓华、李秀妍（韩）. 在京韩国留学生跨文化适应问题研究[N]. 青年研究, 2009 年 02 期.

2. 赵婀娜、高莹. 来华留学，呈现哪些新特点[N]. 人民日报, 2015 年 4 月 30 日(018).

3. 方嘉雯. 北京五道口地区韩国餐饮业空间布局特征与集聚机理分析[J]. 经济地理, 2014, 34(12).

4. 孙乐岑、冯江平、林莉、黄筱衫. 在华外国留学生的文化适应现状调查及建议[J]. 语言教学与研究, 2009, (1).

5. 李秀珍、孙钰. 外国留学生在华就业政策改善方案[J]. 洛阳师范学院学报, 2015, 34(1).

6. 何波. 北京市韩国人聚居区的特征及整合 ——以望京“韩国村”为例[N]. 城市问题, 2008, 10.

한·중 방송산업 교류현황 및 발전방향–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유라, 창위단
복단대학교

논문 개요

정치적 이유로 단절되었던 한중 관계가 1992년 회복된 이래 줄곧 이어져 온 양국의 문화 교류도 어느덧 긴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를 선두로 한 한류가 중국 대륙을 휩쓸면서 양국 문화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양국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교류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한류를 이끄는 주역들도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에서 현재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한국 문화는 어느덧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일상만큼이나 익숙한 것이 되었다.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 가> 등 중국판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현지에서 이른바 '대박'을 치자, 포맷 거래 등 양국의 교류 및 협력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원작, 리메이크작을 불문하고 한국식 예능은 중국 시장에서 대중오락 문화 열풍을 일으켰다. 한국 예능 포맷 거래는 이제 양국 문화 교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중국이 포맷을 들여와 제작한 한국식 예능은 비단 일반 관중뿐만 아니라 학술계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그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각각의 예능 프로그램 연구, 한중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고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 한중 예능 프로그램의 교류형태를 정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강도에 따른 교류형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양국 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형태 및

발전방향을 예측하였다. 필자는 '예능'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전체적인 한중 문화 산업의 교류현황 및 발전과정을 새롭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향후 양국 교류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참고서를 제공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1. 서론

90년대 <질투>, <인어공주> 등 가족 드라마부터 시작, 최근 몇 년간 중국 방송계에는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상속자>, <별에서 온 그대>, <아빠 어디 가>, <런닝맨> 등 한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제 한국인 시청자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귀에도 매우 익숙하고, 심지어는 중국 내 열성팬까지 있을 정도이다. 2014년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과 동시 방영되었는데, 방영 당시 한국식 애칭 '별 그대'처럼 중국에서는 '싱니(星你)'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싱니미(星你迷)'라는 마니아층도 형성되었다. 드라마 종영 후에도 그 열기는 한동안 지속되어 그 해 4월 드라마 주인공 김수현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신징바오(新京报)에서는 1면에 "도민준 교수가 왔다"는 제목의 사진을 게재하였고, 13면 전체를 "베이징이 도 교수를 환영했다"는 기사로 도배하였다.[1] 2013년 10월 후난위성TV(湖南卫视)가 MBC 예능 <아빠 어디 가>의 포맷을 구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아빠 어디 가(爸爸去哪儿)>는 시청률 1%만 넘어도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중국 방송 사상 최초로 5%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속편 제작은 물론 극장판로까지 제작되었고, 중국 내 육아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시즌3도 제작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첫 방영될 예정이다.[2] SBS <런닝맨>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어 일찍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다가 2014년 저장위성TV(浙江卫视)가 포맷을 구입, SBS 제작팀과 공동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奔跑吧兄弟)>가 후에 나왔다. <달려라 형제>는 현재 중국의

[1] 신동아 2014년 6월 25일자, '[현지취재] 드라마, 영화, K팝, 미용, 쇼핑… 혐한(嫌韓) 가라앉힌 한류 3.0 열풍'

[2] TV Report 2015년 4월 10일자, '중국판 〈아빠 어디 가〉 시즌3, 광고 2천억원 대박'

'국민예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즌1에 이어 제작된 시즌2가 단 2회 만에 시청률 5%를 넘어섰다. 또한 2015년 4월 28일 기준 중국 SNS 웨이보(Weibo) 누적 팔로워 수는 184만 명을 넘어섰고, 열람 수는 자그마치 149억 6,000만 번에 달한다.[3] 위와 같은 통계만 보아도 중국에서의 한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한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거점으로 꾸준히 진화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 2014년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百度)에서 검색되는 한류 관련 기사가 130만 건에 달한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报)는 "한류가 새로운 시기인 '3.0시대'로 진입했다"며 한류의 진화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보도한 바 있다. 한류 1.0은 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등이 촉발한 최초의 한류이고, 한류 2.0은 K팝 스타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빅뱅이 일으킨 한류이다. 그리고 현재, 한류 3.0이라 일컫는 이 시대에는 Psy의 '강남스타일'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도 아래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다.[4] 이제는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 가>, <달려라 형제> 등의 잇달은 성공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식 예능의 전성시대'가 열리자, 한국과 중국의 방송계의 교류도 덩달아 활발해졌음은 물론이다. 과거 완성된 프로그램이나 포맷을 거래하는 형식에서 최근에는 한국 방송사가 제작 컨설팅을 해주거나 양국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교류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착안하여 한중 양국의 방송산업의 교류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2. 예능 프로그램 교류 현황 및 형태

2.1 교류 현황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완성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3] 아주경제 2015년 4월 28일자,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2〉 2회만에 마의 5% 넘으며 인기 고공행진'

[4] 신동아 2014년 6월 25일자, "[현지취재] 드라마, 영화, K팝, 미용, 쇼핑…혐한(嫌韓) 가라앉힌 한류 3.0 열풍"

<러브레터>와 <X-man>이 Contents 형태로 수입되어 방송된 이후로 중국시장에서 한국 예능 콘텐츠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왔다.[5] 당시 한국 예능은 '한국 드라마의 바통을 이을 한류의 차세대 주역'으로 여겨졌다. 반면 최근에는 포맷을 구입하여 현지인들의 구미에 맞게 재제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2003년 중국 CCTV가 KBS <도전골든벨>의 포맷을 사간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포맷 수입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2년 말 후난위성TV가 MBC <나는 가수다>의 포맷을 구입하여 2013년 1월 방송된 중국판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2013년 10월 수입한 MBC의 <아빠 어디 가>의 중국판 <아빠 어디 가(爸爸去哪儿)>가 대히트를 치면서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6]

한편 한국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던 포맷 수출이 2013년부터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다. 포맷 프로그램의 수출에 힘입어 드라마 중심의 한류는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수출 구조 역시 지상파 중심에서 기타 채널로 수출 주체가 다변화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포맷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지역이다. 2013년 수출 포맷 14편 중 10편이 중국으로 판매되었다.

표1) 한국 포맷의 해외 수출 현황

년도	방송사	포맷(원작)	중문명	수출국
2003	KBS	<도전골든벨>	-	베트남
2010	MBC	<우리 결혼했어요>	-	터키
2012	tvN	<슈퍼디바>	<妈妈咪呀>	중국
2013	KBS	<불후의 명곡>	<不朽的名曲>	중국
	KBS	<1박 2일>	<两天一夜>	중국
	MBC	<나는 가수다>	<我是歌手>	중국

[5] [중] 郑稳稳，〈用悬念和细节打造强势吸引力—韩国电视娱乐节目故事化分析〉，「声屏世界」，2007.08，pp. 62-3

[6] 월간 마이더스 15년 02월호: http://www.yonhapmidas.com/special_plan/plan/2015-02/150207194636_157992

년도	방송사	포맷(원작)	중문명	수출국
	MBC	<아빠 어디 가>	<爸爸去哪儿>	중국
	MBC	<진짜 사나이>	<真正男子汉>	중국
	MBC	<우리 결혼했어요>	<我们相爱吧>	중국
	MBC	<환상의 짝꿍>	-	터키
	SBS	<기적의 오디션>	<奇迹梦工厂>	중국
	SBS	<K팝 스타>	<中国好声音>	중국
	m.net	<슈퍼스타 K>	<我的中国星>	중국
	JTBC	<히든싱어>	<Hidden Singer China>	중국
	JTBC	<대단한 시집>	<囍从天降>	중국
	tvN	<슈퍼디바>	-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tvN	<더지니어스>	-	네덜란드
2014	tvN	<꽃보다 할배>	<花样爷爷>	중국
	SBS	<런닝맨>	<奔跑吧兄弟>	중국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爸爸回来了>	중국
	KBS	<개그콘서트>	<生活大爆笑>	중국
	SBS	<짝>	<牵手爱情村>	중국
	tvN	<꽃보다 누나>	<花样姐姐>	중국
2015	JTBC	<비정상회담>	<世界青年说>	중국
	MBC	<무한도전>	-	중국
	MBC	<복면가왕>	-	중국

출처 :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2014年放送影像产业白书)」, 한국컨텐츠진흥원, 2015.02

(단, 2014년 및 2015년 자료는 필자가 수정)

포맷 수출은 일종의 제작 노하우 수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플라잉 프로듀서(Flying Producer)를 통한 제작 자문, 공동제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중국처럼 수입량은 많지만 전문기술력이 미흡한 수입국의 경우, 위와 같은 한국의 지원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4년 5월 SBS는 중국판 <런닝맨> 제작을 위해 저장위성TV와 공동 작업하였으며, tvN은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Shanghai Media Group)의 드래곤TV(东方卫视)와 <꽃보다 할배(花样爷爷)>를 공동 제작하였다. 또한 MBC는 2013년 1월 <나는 가수다> 포맷을 후난위성TV에 수출하면서 조명기술도 함께 수출한 바 있다.

사실 공동제작이 활성화 된 배경에는 중국 정책의 영향도 있다. 중국이 한오령(限娱令) 등 해외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은 콘텐츠 직접 수출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부터의 탈피가 불가피 했던 것이다.[7]

2.2 교류 형태

필자는 양국 방송산업의 교류형태를 7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쌍방의 협력강도 순으로 나열해보았다. 협력강도는 ①이 가장 낮고, ⑦이 가장 높다.

①완성된 콘텐츠 (contents) 거래
②판권 (format) 거래
③자본투자
④인력교류
⑤공동제작
⑥공동출품
⑦합작 채널 및 회사 설립

그림1) 협력강도에 따른 교류형태

[7] 한국컨텐츠진흥원, 「2014년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 02, pp. 100-2

콘텐츠 거래는 말 그대로 이미 완성된 콘텐츠를 수출입하는 것으로, 자막이나 더빙작업만을 하여 그대로 현지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런닝맨>의 경우 먼저 완성된 콘텐츠 형태로 중국에 수입이 되었는데,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런닝맨>이 방영된 뒤 중국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포맷 수입 및 현지화 제작으로 연결된 케이스이다. 이처럼 콘텐츠 직접 거래는 교류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이자, 다음 단계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포맷 거래는 수입업체가 프로그램 포맷만을 구입하여 현지화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진이나 촬영지, 현지 시청자들의 기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포맷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투자는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교류형태이고, 인력교류는 프로그램 출연진 혹은 제작진 사이에서 일부 필요 인력이 오고가는 것을 말한다. 공동제작은 양국 방송사가 공동으로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런닝맨>, <꽃보다 할배>, <1박 2일> 등 리얼버라이어티 예능 포맷이 다수 중국에 수입되었으나 제작기술이 미흡한 탓에 중국 측에서 단독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 측에서 컨설팅 및 기술전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작진을 직접 현지로 파견하여 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공동출품은 양국 방송사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출품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영화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합작 채널 및 회사 설립은 협력강도가 가장 높은 교류형태로서, 2013년 10월 한국 방송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양홀딩스와 중국 베이징천천방송문화전파유한공사(DOX TV)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류 전문 채널 'DOX한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8]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협력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거래 형태에서 이전 단계의 교류형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상호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제작에는 인력교류 및 자본투자, 포맷 거래 과정이 따라온다. 또한 이것이 중국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는 원작 콘텐츠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원작의 지명도를 올려주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위의 교류형태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기타 대중문화상품 교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영화의 경우를 들면, <괴물>, <아저씨>, <미녀는 괴로워> 등이 이미 2006년, 2007년에 콘텐츠 형태로 중국 영화관에 상영되어 최대 관객 수 1400만 명이라는 대박을

[8] 한국컨텐츠진흥원, 「2014년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02, pp. 102-3

터뜨렸고[9], 최근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도 포맷 형태로 중국에 수입되어 올해 <20세여 다시 한 번(重返二十岁)>으로 재탄생, 5일만에 흥행수입 1억 4000만 위안을 벌어들이고, 누적 관객 수도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0]그 외 중국 배우 탕웨이(汤唯)와 한국 배우 현빈이 공동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만추>는 '인적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고, 소지섭, 장쯔이 주연의 <소피의 연애매뉴얼>(2009)로 시작한 CJ E&M은 중국 영화를 투자·제작한 지 올해로 벌써 5년째이다. 한국 쇼박스는 올해 중국 화이브라더스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법인 쇼박스차이나를 설립할 예정이다.[11]

3.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예능의 성공요인

앞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한국 예능이 중국에서 잇따른 성공을 거두면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거래의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식 예능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완성된 콘텐츠와 포맷 구입을 통해 재제작된 프로그램을 아우른 한국식 예능의 보편적 요인과 현지화된 프로그램만의 특수요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3.1. 한국식 예능의 보편적 요인

2009년 국제신문계(国际新闻界)에 등재된 쉬궈위안(徐国源)의 "오락 프로그램과 즐거움의 철학—한국 방송 오락 프로그램 분석(娱乐节目与快乐哲学—韩国电视娱乐节目分析)"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필자는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만들어진 2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첫번째는 <해피선데이>, <무한도전>, <X-man>과 같은 게임형 프로그램이다. 게임형 프로그램에서는 성인인 연예인들이 유년시절 즐기던 게임을 하면서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동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꾸미지 않은 가장

[9] [중] 章琪, 〈韩国电影产业进军中国电影市场的现况与展望〉, 「文化产业」, pp. 106
[10] Edaily 2015년 5월 15일자, ' 中 사로잡는 한류… 성장하는 영화산업에 주목'
[11] NEWSPIM 2015년 4월 7일자, '[한류4.0, 길을 찾다] K-무비, 대륙을 흔들어라…한중합작 영화 열풍'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편안한 오락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번째는 <상상플러스>, <야심만만>, 한 단계 더 진화된 예로 현재 방영중인 <안녕하세요>, <마녀사냥>과 같은 토크형 프로그램이다. 이전의 토크형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던 한편, 최근 토크형 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고, 출연자들이 그에 대해 호응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방송 촬영 현장에 있는 관객, 그리고 방송 중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청자의 참여도도 비교적 높다. 세번째로는 생활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원의 행복>, <몰래카메라>, 그리고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관찰 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된다. 생활형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은 일상생활 중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최고의 예능감을 보여준다.[12]이어서 최근 신생된 예능 종류를 살펴보면 대결 프로그램과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 있다. 대결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 <히든싱어>, <K팝 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과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요리 대결 프로그램 등 출연자들이 각종 분야에서 경쟁을 하면서 재능을 발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가상 현실 프로그램은 <우리 결혼했어요>, <나홀로 연애중>, <진짜 사나이>, <우리집에 연예인이 산다> 등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이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방송에서 재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예능 소재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었다.

한국 예능은 이처럼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공통점이 숨어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 리얼감(생동감)

필자의 생각에 한국 예능의 '리얼감'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는 간접체험 속 생동감 및 공감'과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진실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예능은 시청자 및 현장 관객들과의 소통이 잦다. 즉, 매우 개방적이다. 방송 중 무대 위의 출연자들은 무대 아래의 방청객들과 수시로 소통을 한다.

[12] [중] 徐国源，〈娱乐节目与快乐哲学—韩国电视娱乐节目分析〉，「国际新闻界」，2009. 03

한국 예능은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장 효과'를 중시한다. 방청객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출연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완성해간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리얼한 현장 분위기를 강조하고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TV 안과 밖의 시공간적 거리를 좁힌다. 사실 후자인 '프로그램 출현자들의 진실성' 역시 전자와 같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한다. 프로그램의 MC 및 게스트들은 예능에서만큼은 평소 스크린 상에서 보여주던 우상적 모습을 벗어나 꾸미지 않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던 그들의 소탈하고 개성 넘치는 또다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진실되게 다가온다.

3.1.2. 스토리텔링

두번째 스토리텔링 역시 한국 예능이 인기를 얻는 요인 중 하나이다. 스토리텔링은 예능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한다. 예능에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프로그램에는 재미와 볼거리가 많아지고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심과 몰입도를 높여준다. 이 때 '서스펜스'는 스토리 전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2004년 방영된 SBS 예능 <러브레터>를 예로 들면, 이 프로그램에서 서스펜스적 요소는 바로 'Perfect man'이다. 즉 모든 춤, 퍼포먼스, 게임 등이 '누가 이번 회의 Perfect man이 될 것인가'라는 커다란 서스펜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각 연예인들은 망가지는 것을 불사하고, 레슬링, 높이뛰기 등 각종 고난도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게스트들은 여자 게스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매 회 게임에서 경쟁을 하는데, 게임이 끝난 뒤 여자 게스트들은 모든 남자 게스트들을 칭찬해주면서 누구를 선택할 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첫번째 선택과 두번째 선택에 비로소 여자 게스트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스토리 전개가 바로 서스펜스 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에 편집자의 제작 및 가공이 더해져 프로그램의 서스펜스를 증폭시킨다.[13]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13] [중] 郑稳稳，〈用悬念和细节打造强势吸引力—韩国电视娱乐节目故事化分析〉，「声屏世界」，2007. 08, pp. 62-3

3.1.3. 문화적 유사성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즉 비슷한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은 중국인들에게도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유사성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빠 어디 가>를 들 수 있다. 중국판 <아빠 어디 가>가 중국인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한중 양국 문화가 '유교'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모두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남존여비사상과 고속 산업화는 자녀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빈 자리를 초래하였다. 항상 권위적이고 융통성 없는 이전 세대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 요즘 세대에 와서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수평적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각 가정마다 다양한 육아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빠 어디 가>는 양국의 전형적인 가정을 대표하는 연예인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거나 혹은 새로운 육아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교와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양국 모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14]

3.2. 현지화한 한국식 예능의 특수요인

다수의 한국 예능은 원작 그대로 들어와 프로그램 자체의 색깔로 중국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원작의 흥행은 중국판 리메이크작의 성공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달려라 형제>, 중국판 <아빠 어디 가(爸爸去哪儿)>,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K팝 스타(中国好声音)>처럼 현지화된 뒤 중국 방송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원작의 흥행기록을 뛰어넘고 있다. 그렇다면 현지화한 한국식 예능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표2) 중국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TOP5 (2015년 5월 8일 발표 자료)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시장점유율(%)
1	<中国好声音>	저장위성	5.613	16.63

[14] [중] 杨玉洁，〈中韩版“爸爸去哪儿”媒介文化比价〉，「中国广播电视学刊」，pp. 47-8

2	<奔跑吧兄弟>	저장위성	4.116	12.43
3	<爸爸去哪儿>	후난위성	3.927	16.82
4	<我是歌手>	후난위성	3.473	11.27
5	<最强大脑>	장쑤위성	2.378	7.97

출처: 중국 TV 시청률 순위 - www.tvtv.hk

현지화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출연진이다. 중국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인 눈에 익숙한 중국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판을 본 중국인 시청자들은 현지화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방식을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외국인이 아닌 그들과 친숙한 현지 연예인이 나온다는 점만으로도 신선함과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려라 형제>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고정 중 유일한 여성 출연자인 Angelababy는 한국인들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중국에선 '여신'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런닝맨>에서 단아한 이미지의 송지효가 이미지 변신을 한 것처럼, Angelababy도 <달려라 형제> 중 게임에서 남성 출연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왈가닥' 이미지로 변신하면서 중국인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매 회 방송이 끝난 직후엔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출연 게스트에 대한 기사들이 줄을 잇는다. 중국의 한 칼럼에서는 <달려라 형제>의 인기비결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연예인 효과'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리얼버라이어티·게임형 예능에서 '연예인 효과'는 시청률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라고 강조하였다.[15]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재구성도 현지화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유사성'을 보편적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인 만큼 차이점도 분명 존재한다. 한국 예능 중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질감을 걷어내고 중국적인 요소를 첨가한 현지화 예능은 더욱 쉽게 중국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인 <우리 결혼했어요>와 <우리 사랑하기로 했어요(我们相爱吧)를 보면 한국판과 중국판의 프로그램명부터 다르다. 한국 원작은 '결혼'인 반면, 중국 리메이크작은 '사랑(연애)'이다. 중국 제작팀은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것이 "한국 원작의 '가상 결혼'과 완전 다른 개념"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15] [중] PCLADY 2015년 5월 7일자 칼럼, '奔跑吧兄弟节目爆红内幕首揭秘'

남녀 연예인들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베이스로 하여 첫 만남부터 한 걸음씩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비교적 보수적인 연애관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연애'라는 과정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므로 중국 제작팀은 프로그램 현지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16]

4. 현 시점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4.1. 문제점

한류의 바람으로 방송 영역에서 양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래 대중문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80년대 한국의 극장가를 휩쓸었던 홍콩영화 <영웅본색>에 한국 가수가 부른 <희나리>를 리메이크한 곡이 삽입되는 등 한중간의 대중문화는 일정 정도 쌍방향이었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비해 중국의 대중문화는 거대한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예능의 경우, 최근 대량으로 수입된 한국 예능이 중국 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전까지 중국 현지 예능은 오랜 시간 천편일률적이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유럽 및 아메리카 예능 역시 중국 시장에서 이렇다할 영향력을 행사하진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대중문화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은 더 이상 재미없는 중국 프로그램을 외면하게 됐고, 반면 중국인들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에 재미까지 가미된 한국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중간 쌍방향적이 아닌 일방적 대중문화교류를 초래하게 되었다. [17]

그러자 중국 정부는 중국 방송 콘텐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오령(限娱令)'과 '한외령(限外令)'을 연달아 시행함으로써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의 폭을 좁혀왔다. 2011년 10월에 정식 시행하고 2013년 강화된 '한오령'은 각 위성종합채널이 수입할 수 있는 해외 포맷을 연 1편으로 제한하고 황금시간대인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하는

[16] [중] 人民网 2015년 5월 14일자 칼럼, '七成韩国综艺节目已被"汉化" 中国电视散发泡菜味'
[17] 디지털타임즈 2015년 5월 7일 자 칼럼, '한중 방송 협력모델 기대 크다'

것과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전체 위성종합채널을 통틀어 매 분기당 단 1편만 황금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고, 그 또한 광전총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오령으로 인해 TV에서는 사실상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되자, 중국인 시청자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해외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자, 2014년 9월 중국 정부는 다시 한 번 '한외령'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에 방영되는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전에 광전총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조치하였다.[18] '한오령'과 '한외령'은 중국 정부가 한중 양국의 방송 시장에서 열세에 있는 중국 방송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수입 예능 프로그램의 수량을 제한하여 현지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수입 열풍에 휘말려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나, 이와 같은 자국 시장 보호 정책은 필연적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 받는 오늘날, 자국의 대중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좀 더 재미있고 신선한 것을 찾는 현지 시청자들로부터 자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한중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었다.

4.2. 발전방향

그렇다면 한중 방송산업 교류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최근 나타난 몇 가지 변화의 사례를 통해 '이상적인 한중 방송 협력모델'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먼저 현재 제작중인 중국판 <무한도전>과 <복면가왕>의 경우, 과거처럼 한국측이 가르치고 중국측은 배우는 형태가 아닌 쌍방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는 합작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합작기간도 단기가 아닌 장기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예능이 한국으로 역수출된 예도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선생님이 된 연예인과 학생들의 리얼 캠퍼스 라이프를 그린 예능, 후난위성의 <일학년(一年级)>은 순수하게 중국에서 제작된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 방송국의 주목을 받아 2014년에 포맷

[18] 한국 컨텐츠 진흥원,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 02, pp. 279-80

수출에 성공하였다.[19] 마지막으로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중 공동 출품작인 글로벌 뮤직 차트 프로그램 <The Show>을 꼽을 수 있다. <The Show>는 한국 SBS Plus와 중국 투도우(土豆)가 공동으로 제작한 K-POP 차트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K-POP을 사랑하지만 지역적·언어적 제한 때문에 수동적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국 팬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함은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간에 방영되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중국 팬들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인기차트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자회견에서 양웨이둥(杨伟东) 투도우 대표는 이를 계기로 "단순히 포맷을 수입했던 이전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생산과정부터 함께 참여·소통하여 전방위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20]

그의 말처럼 한중 양국은 이제 단순히 일방적인 교류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중국은 중국만의 특색과 창의성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출입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방송 합작은 <The Show>의 예처럼 초기 프로그램 구상부터 공동연구와 개발을 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즉 단순히 한국 예능, 중국 예능이 아닌 한중 공동 예능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선 소통을 통해 한중간 작업환경 및 제작이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간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멀리 내다보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예능 프로그램의 교류형태를 기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한국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은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한중 양국간 방송산업에서 쌍방향적 협력 관계를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19] [중] 前瞻网 2014년 10월 31일자, '原创综艺〈一年级〉将输出韩国 综艺节目创新逆袭改"引进"格局'
[20] [중] 新华网 2014년 9월 24일자, '土豆携手韩国打造首档跨国音乐节目〈The Show〉'

中韩在广电行业上的交流现状及发展方向 -以综艺节目为中心-

崔有罗，常玉丹
复旦大学

摘要

中韩文化交流源远流长，近代以来，由于政治原因而中断的中韩交流也在1992年重新恢复。以韩国电视剧为主的韩流，首先以巨大的影响力席卷中国大陆，极大地促进了中韩双方文化上的交流。韩流所蕴涵的内容随着中韩双方交流程度的加深，从电视电影、流行音乐已发展到目前受到中国观众热捧的综艺。韩国文化已经成为中国观众很熟悉的一部分。在以《我是歌手》、《爸爸去哪儿》为代表的中国版韩国式综艺节目大获成功之后，中韩双方在综艺版权引进制作等方面合作日益加深。无论中国版还是韩国版，韩国式综艺节目在中国掀起了大众娱乐的文化热潮。韩国综艺版权交易已经成为中韩文化交流不可分割的组成部分。中国引进制作的韩国式综艺节目不仅吸引了普通观众的眼球，也引起了学术界的重视。虽然分别针对中韩综艺节目的研究已经比较丰富，比较研究也略有成功，但是根据最新数据重新认识中韩综艺节目的交易模式的研究并不多。本文提出了按合作强度排序的交易模式，还试图找出在交易的过程中韩国式综艺节目在中国市场成功的普遍因素及本土化节目的特殊因素，并定位交易过程中出现的问题，预测未来可能出现的新交易模式以及发展方向。笔者希望透过综艺节目这一方面认识整个中韩文化产业交流状况，清晰地梳理出此发展过程，并为未来的发展方式提供参考。

1. 序言

从20世纪90年代开始，随着《嫉妒》、《人鱼公主》等家庭系列长剧在中国的热播，韩流就开始风靡中国。近几年韩流又以强劲的势头穿透中国市场。《继承者》、《来自星星的你》、《爸爸去哪儿》和《Running man》等韩国流行电视节目的名字不仅是韩国观众，中国观众也都很熟悉，甚至在中国国内产生了数目庞大的忠实粉丝群体。

譬如，2013年12月开播的SBS电视剧《来自星星的你》在中国某个视频网站和韩国同步上映，当时正如在韩国的昵称“별그대”，它在中国被昵称为“星你”，而热爱”星你”的粉丝也被称为“星你迷”。虽然电视剧结束了，但”星你”的热气还持续了相当一段时间。去年4月电视剧的男主角金秀贤访问北京时，新京报在头版登上以“都敏俊教授来了”为标题的照片，在第十三版全版刊登了这条新闻。[1]2013年10月由湖南卫视购买MBC综艺节目《爸爸！我们去哪儿？》的版权制作的中国版《爸爸去哪儿》，收视率高达5%，在中国电视史上头一次破五。中国国内有一千多个电视频道，因此收视率只要达到1%，已经很不错了，按这种标准来看，《爸爸去哪儿》的纪录可称为一个奇迹。后来湖南卫视还推出了《爸爸去哪儿》第二季和电影版。《爸爸去哪儿》系列在中国引发了“爸爸育儿热潮”。目前《爸爸去哪儿》第三季正在录制中，即将于今年7月开播。[2]SBS《Running man》在中国视频网站播放时获得了好评，2014年浙江卫视购买版权，与SBS制作团队联合制作推出了《奔跑吧兄弟》。《奔跑吧兄弟》已经相当于中国的“国民综艺”，第一季完结后开播的第二季，刚播出了两集，收视率就已超过了5%。至2015年4月28日截止，《奔跑吧兄弟》的微博累积关注数已高达184万，阅览数也高达149亿6千万次。[3]这些数据可以清晰地反映出韩流在中国强劲的影响力。

前几年“韩流”以中国及亚洲地区为起点在全球上渐渐拓展其影响力。至2014年5月中旬为止，在中国最大搜索引擎百度上被搜索的韩流相关新闻有130万条，其中，共产党机关报人民日报曾报道一条以“韩流的发展史”为主题的新闻，此时提到“韩流进入‘3.0时代’”。该文章介绍：韩流1.0是由电视剧《大长今》、《冬季恋歌》、《天国的阶梯》等引发的韩潮；韩流2.0是由K-Pop歌星东方神起、少女时代、KARA、Bigbang等引发的韩潮；如今，韩流3.0时代，在由Psy的《江南Style》和电视剧《来自星星的你》引领下，韩流扩散到整个文化领域，除了电视剧、音乐之外，在娱乐界上也崭露头角。[4]《我是歌手》、《爸爸去哪儿》、《奔跑吧兄弟》等节目连续成功，这意味着“韩国式综艺节目的全盛时代”的到来，随之，中韩两国广电界的交流变得更加活跃。以综艺节目为例，过去的交流形式主要是将完整的节目或者版权的买卖，但最近韩方提供制作顾问服务，或双方联合制作节目等，中韩在交流模式上出现了多元化。该论文从此着眼，

[1] 【韩】신동아 2014年6月25日报，“[현지취재] 드라마, 영화, K팝, 미용, 쇼핑… 혐한(嫌韓) 가라앉힌 한류 3.0 열풍”

[2] 【韩】TV Report 2015年4月10日报，“중국판 <아빠 어디 가> 시즌3, 광고 2천억원 대박”

[3] 【韩】아주경제 2015年4月28日报，“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2> 2회만에 마의 5% 넘으며 인기 고공행진”

[4] 【韩】신동아 2014年6月25日报，“[현지취재] 드라마, 영화, K팝, 미용, 쇼핑…혐한(嫌韓) 가라앉힌 한류 3.0 열풍”

以中韩综艺节目的交流合作为出发点来思索中韩两国的广电行业之间的交流现状及未来的发展方向。

2. 综艺节目的交流现状及交易模式

2.1 交流现状

在综艺节目方面，一开始最流行的是引进Contents的交易模式。其实，中国电视市场对于韩国综艺节目的Contents购买从2006年购买《情书》在中国大陆的播放版权开始。同在2006年韩国综艺节目《X-man》也引进中国，在南方电视综艺频道播出。[5]当时韩国综艺节目就被预言是继韩剧之后中国观众的新宠。但近几年流行的一种交易方式，是购买版权后重组为符合本地人口味的节目。中国对韩综艺节目版权的进口，是从2003年中华人民共和国国家电视台（CCTV）引进KBS智力节目《挑战金钟》的版权开始的。此数量在2012年之前寥寥无几，直到2012年年底，由湖南卫视购进MBC《我是歌手》的版权并在2013年正式出品的歌唱节目《我是歌手》和2013年10月购买MBC《爸爸！我们去哪儿？》的版权制作的真人秀节目《爸爸去哪儿》在中国大陆取得了巨大成功，此后两国之间的版权交易量节节飙升 。[6]

从韩国角度看，其在2012年之前屈指可数的版权出口量在2013年已飙升至两位数。在版权出口市场的激活下，以电视剧为主的韩流扩散到综艺及娱乐节目，并在出口商方面开始由韩国三大电视台延长到其他电视台。中国是韩国节目版权方面的最大出口国。2013年韩国对外出口的版权有14档，其中10档往中国出口。

表1）韩国娱乐节目版权对外出口现况

年度	电视台	版权(原作)	重组名（中文）	出口国
2003	KBS	〈도전골든벨〉	-	越南
2010	MBC	〈우리 결혼했어요〉	-	土耳其
2012	tvN	〈슈퍼디바〉	《妈妈咪呀》	中国
2013	KBS	〈불후의 명곡〉	《不朽的名曲》	中国
	KBS	〈1박 2일〉	《两天一夜》	中国
	MBC	〈나는 가수다〉	《我是歌手》	中国
	MBC	〈아빠 어디 가〉	《爸爸去哪儿》	中国

[5] 郑稳稳，《用悬念和细节打造强势吸引力—韩国电视娱乐节目故事化分析》，「声屏世界」，2007.08，pp. 62-3

[6] 【韩】월간 마이더스 15年02月刊: http://www.yonhapmidas.com/special_plan/plan/2015-02/150207194636_157992

年度	电视台	版权(原作)	重组名（中文）	出口国
	MBC	〈진짜 사나이〉	《真正男子汉》	中国
	MBC	〈우리 결혼했어요〉	《我们相爱吧》	中国
	MBC	〈환상의 짝꿍〉	-	土耳其
	SBS	〈기적의 오디션〉	《奇迹梦工厂》	中国
	SBS	〈K팝 스타〉	《中国好声音》	中国
	m.net	〈슈퍼스타 K〉	《我的中国星》	中国
	JTBC	〈히든싱어〉	《Hidden Singer China》	中国
	JTBC	〈대단한 시집〉	《囍从天降》	中国
	tvN	〈슈퍼디바〉	-	阿根廷、墨西哥、哥伦比亚
	tvN	〈더지니어스〉	-	荷兰
2014	tvN	〈꽃보다 할배〉	《花样爷爷》	中国
	SBS	〈런닝맨〉	《奔跑吧兄弟》	中国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爸爸回来了》	中国
	KBS	〈개그콘서트〉	《生活大爆笑》	中国
	SBS	〈짝〉	《牵手爱情村》	中国
	tvN	〈꽃보다 누나〉	《花样姐姐》	中国
2015	JTBC	〈비정상회담〉	《世界青年说》	中国
	MBC	〈무한도전〉	-	中国
	MBC	〈복면가왕〉	-	中国

资料来源：「2014 방송영상산업백서(2014年放送影像产业白书)」, 한국컨텐츠진흥원, 2015.02 （但，2014年及2015年的资料由笔者添加）

版权出口等于“制作Know-how的出口”，这直接涉及到通过“Flying Producer”进行的制作顾问和联合制作。对于中国这样大量引进韩国综艺，但是却缺乏专业技术的版权输入国来说，更需要韩方提供这些服务，所以制作顾问或者联合制作的合作形式在目前的中韩综艺节目交流中极为普遍。 2014年5月SBS与浙江卫视联合合作《奔跑吧兄弟》，tvN也与中国上海媒体集团的东方卫视联合制作《花样爷爷》，2013年1月MBC输出《我是歌手》的版权时，同时提供照明技术。

实际上，这几年两国之间在节目制作方面的合作猛涨，也是因为中国在广播电视方面的对外政策。由于中国政府加强“限娱令”等对海外电视节目的限制，韩方免不得去找出另一种渠道，如联合制作等。[7]

[7] 【韩】한국컨텐츠진흥원, 「2014년 방송영상산업백서」, pp. 100-2, 2015.02

2.2. 交易模式

按合作强度排序，双方合作强度①最小，而⑦最大。

①输出/输入完整的节目（contents）

②输出/输入版权(format)

③资本投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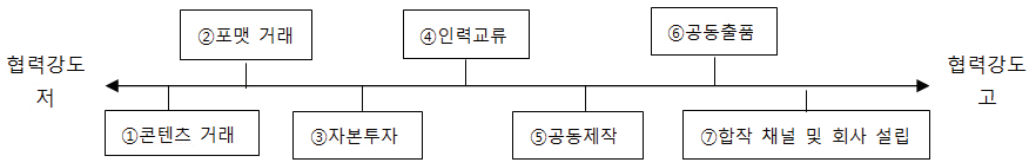
④人员交流

⑤联合制作

⑥共同出品

⑦设立合作频道或合作公司

图1）按合作强度排序的交易模式



Contents交易，意思就是已制作完成的节目的播放权的交易，进口商在做完最起码的字幕、配音等加工之后就直接播出节目。《Running man》先以完整的Contents形式被引进中国来并在中国视频网站播出，受到了中国观众的欢迎。此后中方决定购买版权在本地出品。如此，Contents直接交易不仅是最初步的交易模式，也会起到下一个阶段（模式）的桥梁作用。版权交易是进口商购买版权，亲自在本地重组、出品的模式。综艺节目的话，由于需要考虑人选、摄影地和本地观众的口味等各种因素，所以这种交易模式最近很流行。资本投资是投资制作经费的经济型模式。人员交流是演员或者制作人员的往来。联合制作是双方共同参与制作的模式。最近《Running man》、《花样爷爷》、《两天一夜》等很多真人秀综艺节目引进中国，但有时候中方缺乏制作技术，无法单独进行制作。此时，韩方提供顾问服务或传授专业技术，甚至将韩国的制作团队派到中国，全程积极地参与制作。共同出品是双方以共同的名义出品节目的模式，主要出现在电影领域。最后，设立合作频道或合作公司是合作强度最高的交易模式，最有代表性的例子是2013年10月由韩国电视节目出口商“Hanyang Holdings”与中国北京天天放送文化传播有限公司（DOX TV）联合设立的韩流专门频道“DOX韩流”。[8]值得指出的是，随着交流模式强度的递增，上一阶段的交流模式并不会被完全取缔，而是以更积极的姿态有机地融入下一阶段的交流模式中。例如，联合制作必然有人员交流、资本投入，版权购买的相关手续，也不会取代原版节目在中国各大视频网站的播放，甚至会提高原版节目的知名度。另外，这种交易模式还可以应用于

[8] 【韩】한국컨텐츠진흥원, 「2014년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02, pp. 102-3

其他大众文化产品交流上，比如电视剧、电影、音乐等，而不仅仅是综艺节目。以电影为例，《怪物》、《大叔》、《美女的烦恼》等早已分别在2006年、2007年以Contents形式来引进中国，上映在中国各大电影院，创造了1400万总票房，[9]2014年在韩国上映的《奇怪的她》以版权形式来引进中国重新制作成《重返二十岁》，在短短5天的时间内就创造了收入1亿4000万元、1000万票房的记录。[10]此外，由中国女演员汤唯和韩国男演员玄彬联合担任主演的电影《晚秋》是“人员交流”最有代表性的一个例子。CJ E&M从苏志燮和章子怡主演的《非常完美》（2009） 就开始参与“资本投资”以及“联合制作”电影，今年已经是第五年了。韩国SHOWBOX今年和中国华谊兄弟签署了独家合作合同，并以此为基础，将会设立合作公司“SHOWBOX CHINA”。[11]

3. 韩国综艺在中国市场的成功原因

如上所述，韩国综艺在中国市场纷纷获得成功，随之，中韩两国在此方面的交流更加活跃，交易模式也逐渐变得多样化。那么韩国式综艺在中国成功的原因是什么？笔者将其分为在完整的Contents和通过版权购买重组的节目里存在的韩国式综艺的普遍因素和中国本土化节目的特殊因素，各自进行分析。

3.1. 韩国式综艺的普遍因素

2009年在国际新闻界登载的徐国源的《娱乐节目与快乐哲学—韩国电视娱乐节目分析》将韩国综艺节目分成三种类型，笔者在此再添加了最近出现的两种新类型。一是游戏类节目：《快乐星期天》、《无限挑战》、《X-man》等。这些节目既记录成年人做儿时游戏的过程，唤起电视机前观众的童真，又展示明星们自然诚实、不修饰、不骄矜的一面，营造轻松娱乐的氛围；二是谈话类节目：《想象PLUS》、《夜心万万》，进一步发展的事例有正在热播的《你好》和《魔女捕猎》等。前几年流行的节目主要展示明星们坦诚地分享自己的故事，给观众带来感动，但这种主持方式只能造出单方性效应。最近的新型节目追求与观众双方性互动。例如，电视外的观众亲自给电视台的节目组寄出自己的故事，然后电视里的主持人及嘉宾对这些故事作出呼应或进行讨论等，积极地与观众沟通交流，并且参与的不仅是当事者和现场观众，场外观众通过网络或者手机APP联动等方式，参与的积极性也较强；三是生活类节目：《万元的幸福》、《明星隐藏摄像机》，还有最近很受欢迎的《爸爸！我们去哪儿？（爸爸去哪儿）》、《超人回来了（爸爸回来了）》、《我独自生活》等观察类节目。内容以反映明星的日常生活为主，最大程度地开发明星的娱乐价值。[12]接着，最近新生的类型是“对决类节目”和“假想类节目”。对决类节目是如

[9] 章琪，《韩国电影产业进军中国电影市场的现况与展望》，「文化产业」，pp. 106

[10] 【韩】Edaily 2015年5月15日报，“中 사로잡는 한류… 성장하는 영화산업에 주목”

[11] 【韩】NEWSPIM 2015年4月7日报，“[한류4.0, 길을 찾다] K-무비, 대륙을 흔들어라…한중합작 영화 열풍”

[12] 徐国源，《娱乐节目与快乐哲学—韩国电视娱乐节目分析》，「国际新闻界」，2009.03

《我是歌手》、《Hidden Singer》、《K-POP STAR》等歌唱比赛节目和《拜托冰箱》等厨艺对决节目，由各种方面的专家在竞争过程中展现出自己的专业能力的节目。假想类节目是如《我们结婚了》、《我独自恋爱中》、《真正的男人》、《明星到我家》等，将实际上没有发生过，但“如果这样会怎么样？”的想象在节目上实现的节目。这种节目要求很大的创意性，同时把综艺的范畴扩展到无限。

韩国综艺这样种类很多，但其中有共同点。具体的内容如下：

3.1.1. Real感（生动感）

笔者认为，韩国综艺的“生动感”有两个含义，是“观众在间接体验中感受的生动感和共情”和“节目里明星的真实性（真面目）”。首先就前者来看，韩国综艺与场内外观众的互动性很强，或者说，具有“开放性”。在节目演播中，台上的明星们和台下的观众不时地进行沟通。韩国综艺非常重视在这个沟通过程中台上、台下互动产生的“现场效应”。观众不是节目的旁观者，而是积极的参与者，和台上的明星们一起完成节目。除此之外，韩国综艺强调把自然真实的现场，通过网络、手机APP等各种渠道与观众沟通，真实体现电视时空与生活时空紧密勾连的状态。事实上，后者“明星的真实性”也跟前者一样，在追求“自然随性”的部分有共通之处。在电视里出现的主持人和嘉宾们，他们从银幕或屏幕的“偶像”角色中走出来，把出现在观众视野里的自己再度“生活化”，看上去像生活中一样自然，不修饰、不骄矜，表现诚实，毫不娇柔造作。平时表现完美的他们，在综艺节目上可以傻头傻脑，个性十足，这会加深观众心理上的亲近感和认同感。

3.1.2. 故事化

故事化也是韩国综艺的成功原因之一。故事情节有着独特的魅力，将故事融入综艺节目中，无疑增加了节目的看点和趣味性，在很大程度上保证了本身的吸引力和观众的忠诚度。此时，悬念是故事情节得以发展的生命力。以2004年开播的SBS综艺《情书》为例，这个节目每一期的开始都有一个大的悬念：谁是这一期的“Perfect man”。所有的舞蹈、表演、游戏都围绕着这一个悬念展开。每个明星在节目中并没有什么拿腔捏调的架子，摔跤、跳高、摸爬滚打样样都放得开。当每一个男嘉宾都展示自己优秀的一面，而且都得到女嘉宾的赞赏时，女嘉宾的选择就会扑朔迷离。直到第一个选择和第二个选择，才公开女嘉宾要选谁，这种故事情节就是悬念之一。然后，再加上编导的制作及后期加工，加深悬念。[13]这样完成的节目，每个细节展开得津津有味，扣人心弦。

3.1.3. 文化的相似性

中韩两国因为既在地理上很近，又有共同的历史背景，在文化层面上有很多共同之处，就是

[13] 郑稳稳，《用悬念和细节打造强势吸引力—韩国电视娱乐节目故事化分析》，「声屏世界」，2007.08, pp. 62-3

说Code（口味）相似，因此符合韩国人的胃口的节目，一般来说，符合中国人的胃口的可能性很大。在这个方面，最有代表性的例子是《爸爸去哪儿》。中国版《爸爸去哪儿》之所以能够赢得中国观众的共鸣，是因为中韩两国同属于东亚儒教文化圈。两国都有重视教育子女的传统。男尊女卑的传统及快速产业化进程，导致在对孩子的家庭教育中父亲的缺位。上一代的父亲总是以权威、管教式的态度对待孩子，缺乏和孩子的共情。直到新生代，父子/女关系才能有更多平等的互动。在这种父子/女关系发生震荡的过程中，同时并存着多种教育方式，而《爸爸去哪儿》中五个家庭，每个都可以象征现代中国/韩国某一种典型的家庭结构，他们展示出父子/女的互动模式，由此引起观众的关注，并展现新的教育方式。这点在重视“儒教”和“家庭教育”的两国社会上都成为了广泛的议论。[14]

3.2. 本土化节目的特殊因素

很多韩国综艺原版本身已经凭借其特色在中国培养了大批观众，这保证了引进制作的中国版综艺节目在中国市场上的观众基础。但《奔跑吧兄弟》、《爸爸去哪儿》、《我是歌手》、《中国好声音》等经过本土化之后，不仅超越原版的记录，收视率不断创新记录，震动中国市场。那么经过本土化的韩国式综艺节目有哪些特点？

表2）中国综艺节目收视率TOP5（于2015年5月8日公布）

排名	名称	频道	收视率(%)	市场份额(%)
1	〈中国好声音〉	浙江卫视	5.613	16.63
2	〈奔跑吧兄弟〉	浙江卫视	4.116	12.43
3	〈爸爸去哪儿〉	湖南卫视	3.927	16.82
4	〈我是歌手〉	湖南卫视	3.473	11.27
5	〈最强大脑〉	江苏卫视	2.378	7.97

资料来源：中国电视节目收视率排行 - www.tvtv.hk

本土化节目中最显眼的变化是“主持人和嘉宾”。中国观众眼里最熟悉的中国明星在中国节目上登场，那是理所当然的事情。已经看过韩国版的中国观众，大概知道本土化节目会如何组成和进行，可是只要眼熟的本地明星登场，本土化节目仍然可以给那些观众带来新鲜感和趣味。拿《奔跑吧兄弟》举例说，节目中唯一的固定女队员Angelababy，这个名字虽然对韩国人来说并不熟悉，但在中国，她是个“女神”。如同在《Running man》中平时端庄文雅的宋智孝展现出自己不同于在电影电视中的角色的另一面，在《奔跑吧兄弟》中女神Angelababy也尽显女汉子本色，完全是巾帼不让须眉，这吸引了中国观众的密切关注。每一集播完之后涌出来的相关新闻，内容除了搞笑的细节，就是这一集上台的嘉宾。据相关专栏分析，“明星效应”是《奔跑吧兄弟》节

[14] 杨玉洁，《中韩版“爸爸去哪儿”媒介文化比价》，「中国广播电视学刊」，2014年第五期，pp. 47-8

目的成功秘诀之一。这是真人娱乐游戏的关键要素，是收视率的保障。[15]

其次，因文化差异而对引进节目的适当改编。本文在上面提到了中国和韩国的“文化的相似性”为韩国综艺在中国成功的普遍因素之一。但是，中韩毕竟是不同国家，两国之间的文化必然存在一些不同点。撇去韩国节目中令中国人较难接受的那些极端的不同性质，再补上中国式要素，经过这些本土化过程的节目更加容易引起中国观众的共鸣。在这个方面，最有代表性的例子是韩国的《我们结婚吧》和中国的《我们相爱吧》，两个节目从名称就不同；韩国原版是：“结婚”，中国版则是“相爱（恋爱）”。该节目制片人解释称，“我们坚持走真实恋爱的路线，这和‘虚拟结婚’的概念是完全不同的。男女明星在基于双方真实意愿的基础上，从初遇的相亲开始，一步步发展他们的关系。”对于在感情方面相对保守的中国人而言，不经“恋爱”的过程就直接“结婚”是难以接受的，所以中国制作团队在本土化过程中反映出了这点。[16]

4. 两国交流中出现的问题及发展走向

4.1. 两国交流中出现的问题

托“韩流”的福，两国在广电行业里交流飙升，但如果要长期保持这种现象，还有很多事情要解决。国与国之间的大众文化本来应该是互相沟通才对。譬如，20世纪80年代风靡韩国电影界的香港电影《英雄本色》中插进改编自韩国流行歌曲《白色百合》等，此时的中韩大众文化在一定的程度上维持双向性交流。后来韩国大众文化走上世界化的路线，飞跃发展，相反，中国满足于巨大的内需市场，偏向故步自封。以综艺节目为例，在此次大量韩国综艺被引进中国为中国综艺节目市场注入巨大活力之前，中国的本土综艺长期以来因为同质化、低俗化为中国电视观众所诟病，引进的欧美综艺也都是不温不火的状态。总体来讲，中国在大众文化方面的发展相对迟缓。结果，韩国人渐渐开始不理无趣的中国电视节目，中国人则对有相似文化背景并且趣味齐全的韩国电视节目疯狂，这就是如今中韩间导致单向性交流的原因。[17]

中国政府为了保护中国电视Contents市场执行“限娱令”和“限外令”等，将对海外节目的开放度缩起来。2011年10月正式启动，2013年加强的“限娱令”规定每家卫视每年新引进版权式节目不得超一个，当年不得安排在黄金时间（19:30~22:00）播出，至于歌唱选拔类节目，每季度总局通过评议会选择一档歌唱类选拔节目安排在黄金时段播出，其余不得安排在19：30~22：30之间播出。由于限娱令，中国观众在电视上看不到好看的韩国节目，但“网络媒体”却成为韩国电影电视节目进军中国市场的主要渠道。例如，换渠道引进来的《来自星星的你》在中国引起了巨大的“韩潮”。针对此，2014年9月中国政府又下发“限外令”，从2015年1月1日在网上开放的海外节目，与电视节目一样，也必须提前通过广电总局的审议。[18]颁布“限娱令”和“限外

[15] PCLADY 2015年5月7日报, “奔跑吧兄弟节目爆红内幕首揭秘”

[16] 人民网 2015年5月14日报, “七成韩国综艺节目已被″汉化″ 中国电视散发泡菜味”

[17] 【韩】디지털타임즈 2015年5月7日报, “한중 방송 협력모델 기대 크다”

[18] 【韩】한국 컨텐츠 진흥원,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02，pp. 279-80

令”是中国政府出于保护在中韩交流中仍处于弱势地位的中国电视市场的考虑，因为限制引进综艺节目数量可以保护本土制作的节目不被引进狂潮压制而丧失生存空间，这是合理的带有国家利益色彩的政策。但不可忽视的是，这些保护中国市场的政策必然会在中韩大众文化交流上产生阻碍作用。

4.2. 发展走向

那么，中韩交流将来应该走向哪个方向？笔者通过一些最近出现的变化归纳出“最理想的中韩广电合作模式”。

第一个例子是目前正在录制中的中国版《无限挑战》和《蒙面歌王》。两个节目在制作过程中，中韩双方共同参与研究开发，而不是像过去那样韩方传授，中方学习，并且也逐渐发展到长期合作。还有例子是中国综艺被引进韩国。讲述一群一年级新生进入校园之后的生活故事，并担任老师的明星陪伴孩子们的成长的校园纪实综艺，湖南卫视《一年级》是一档纯粹由中方推出的节目，以崭新的点子引起某一家韩国电视台的关注，2014年版权出口成功。[19]最后，中韩合作、共同出品的跨国节目《The Show》是如今最先进的模式。《The Show》是由韩国SBS Plus和中国土豆网共同制作的K-POP（韩国流行音乐）打榜类节目。过去，热爱K-POP的中国粉丝由于地域和语言的限制，只能被动接受韩国传输出来的部分音乐，但目前这个节目可以让他们解渴。这个节目的特色在于，节目上不仅有韩国最流行歌手尽展才华，且与韩国同步直播节目内容，甚至让中国粉丝参与到韩国流行音乐排行榜的投票中，并对最终结果产生重要影响。土豆网总裁杨伟东在一个采访中说：“在韩娱内容的来源上，土豆希望从以往单纯的版权购买，逐步过渡到参与内容的生产环节，将线上线下打通，整合新产品、新技术、全方位围绕用户需求拓展内容体验。”[20]

如他所说，中韩两国需要摆脱以往的单纯、单向的交流模式，为此，中国应该努力开发具有中国的文化特色和独特创意的内容，改善中国大众文化节目的进出口结构。另外，如《The Show》，正在进行的合作也应发展到一种全程合作模式，即从初步节目构想到共同开发研究。在这个过程中，最重要的是“沟通”，通过充分的沟通，以理解及克服双方来自工作环境与制作理念的差异。最后，双方应该求同存异，不应设置不合理的文化政策，在顾全双方利益的同时，相互相信，摸索共同利益，以求共同发展，将综艺娱乐节目的交易合作模式全面推入到电视、电影、音乐等文化产业中。这样，韩方可以更好的进入中国市场，中方也可以提升自己的文化产业的竞争力，以此中韩可以建立两国广电行业密切而深入的双向合作关系。

[19] 前瞻网 2014年10月31日报, “原创综艺《一年级》将输出韩国 综艺节目创新逆袭改’引进’格局”

[20] 新华网 2014年9月24日报, “土豆携手韩国打造首档跨国音乐节目《The Show》”

2015년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역사NGO포럼(대표상)

191 한·중 법률시장개방과 향후과제에 대한 고찰
211 中_韩法律市场的开放与今后的课题
문혜정, 홍효운 文蕙贞, 哄晓芸
화동정법대학교 华东政法大学

230 한·중 유학생 역할의 중요성 및 문화외교
248 中韩留学生作用的重要性和文化外交
김미혜, 진희 金美惠, 陳曦
북경사범대학교 北京师范大学

264 한·중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에 대한 법적 고찰 _
동아시아 인권관 형성을 기대하며
277 关于中韩合作解决慰安妇问题的司法上的考察 —
东亚人权观的形成可行性
김현수, 왕중양 金炫秀, 王仲阳
서울시립대학교 首尔市立大学

한·중 법률시장개방과 향후과제에 대한 고찰

문혜정, 홍효운
화동정법대학교

◆ 논 문 요 약 ◆

한-중은 FTA체결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 하였다. 한-중 법률시장 개방으로 주요 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 파트너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로펌의 입장에서는 한-중 로펌의 합작을 통한 로펌의 기업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한-중은 유독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처럼, 한-중 양국이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중 로펌이 영미법계 로펌에 비해서 규모나 전문성에서 경쟁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자국로펌들이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외국로펌에게 자국 내 법률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리적인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시장 개방은 결국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한-중 양국도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법률시장 개방을 두고 한-중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규제는 한-중 양국의 법률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착화를 초래할 뿐이다. 한-중은 현실성 있고 과감한 법률개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자국 로펌의 해외진출이 상호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중의 협력방안과 한-중 양국이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제 II장에서 한-중 법률시장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비교 한 후, 한-중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한 이유와 법률시장 개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 III장에서 한-중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국 법률시장 개방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한-중 법률시장 개방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법률시장 개방이후 한-중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키워드: 한-중FTA, FTZ, 법률서비스, 한국법, 중국법

Ⅰ. 서론

한-중은 1992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마친 한-중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한-중 양국 무역 및 서비스분야의 장벽이 완화된다. 한-중FTA체결은 한-중 양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중 경제 및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중국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신창타이(新常態)[1]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한-중FTA은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가 증폭될 것이며, 이러한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해외 현지법인 경영 및 기업거래 활동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수요의 확대로 직결 될 것이다. 즉, 한-중 사이에 의미 있는 법률시장 개방은 법률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한-중 양국의 고용창출의 기반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한-중 법률시장개방을 대비하여 한-중 양국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한-중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논의한다. 제 II장에서 한-중 법률시장이 개방논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제 III장에서는 한-중 법률시장 개방정책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한-중 법률시장 개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1)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허난성을 시찰하면서 "중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언급된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키워드로 부상함. 신창타이(新常態)는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서비스업 구조 개선에 힘써 서비스업 발전에 이로운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데, 법률서비스 개방도 그 범위에 포함됨.
이봉걸(2014).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2면.

Ⅱ. 한-중 법률시장 개방논의의 중요성

본 장에서는 한-중 법률시장이 개방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먼저, 양국 법률시장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비교 한 후, 한-중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한 이유와 법률시장 개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나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협의된 법률시장 개방수위를 확인한 뒤, 한-중 양국이 의미있는 법률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검토한다.

1. 한-중 양국 법률시장 규모 및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개업 변호사 수는 1만6,340명이고[2] 중국의 변호사 수는 약 27만 명으로 집계된다[3]. 한국 변호사 수는 국민 약 3,200명 당 1명이지만, 중국은 약 5만8,000명당 1명으로 인구수 대비 한국보다 중국의 변호사 비율이 높다. 하지만, 한국은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약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중간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에 대한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들이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 이였다. 정부의 로스쿨 도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한국 내 법률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로스쿨제도 도입이후 변호사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생계유지마저 위태로운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법조계는 현재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 있으며 법률시장 회복을 위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

[표1] 연도별 한국 법률시장 신규법조인 수

연도	사법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요구			대한변호사협회 요구		
		응시	합격자수	신규법조인	응시	합격자수	신규법조인
2012	1000명	2000명	1500명(75%)	2500명(법무부 확정발표)			
2013	800명	2500명	2000명(80%)	2800명	2500명	1000명(40%)	1800명
2014	700명	2500명	2000명(80%)	2700명	3500명	1000명(28.5%)	1700명
2015	500명	2500명	2000명(80%)	2500명	4500명	1000명(22.2%)	1500명
2016	300명	2500명	2000명(80%)	2300명	5500명	1000명(18.2)	1300명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한편, 중국의 경우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M&A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중국 로펌은 글로벌 로펌과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로펌은 1993년 베이징의 군화(君和)법률사무소가 최초로 뉴

2)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 월간 변호사 현황(2015.03.31. 방문)
3) 人民网, http://me2.do/5J7seWDM, (2015.05.28. 방문)

욕에 지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4], 2015년 5월 중국 최대 로펌인 다청(大成)이 글로벌 로펌 덴튼스(Dentons)와 합병 하였다[5]. 중국 로펌 다청(大成)은 덴튼스(Dentons)와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 50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게 되었고, 약 6500명의 소속 변호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중국 로펌들과 글로벌 로펌들이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진출이 많은 자국 기업들에게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중국 내 법률시장에서 해외 로펌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로펌과 합병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로펌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른 글로벌 로펌과 제휴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다양화 및 투자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표2] 2014 한-중 10대로펌 현황 비교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South Korea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china		
Rank	Firm	Total lawyers and partners	Rank	Firm	Total lawyers and partners
1	Kim & Chang	559	1	Yingke Law Firm	3976
2	Bae, Kim & Lee LLC	330	2	Da Cheng	3410
3	Lee&ko	324	3	Zhong Yin Law Firm	1458
4	shin&kim	259	4	Grangall Law Firm	1210
5	Yoon & Yang LLC	245	5	DaHeng Law Offices	1106
6	Yulchon LLC	213	6	King &Wood Mallesons	1091
7	BARUN	145	7	Zhong Lun Law Firm	966
8	JIPYONG	108	8	AllBrights Law Offices	959
9	DR & AJU	103	9	Long An Law Firm	601
10	DONGIN	100	10	Jun He Law Offices	531

*The left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South Korea** 2014[6]
*The right :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china** 2014[7]

2. 한-중 법률시장 개방의 필요성

법률서비스는 크게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여기서 법률자문이란 법정에서 소송을 다루는 소송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소송대리 분야는 개방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범위가 논의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는 법률시장 개방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하더라도 외국변호사가 직접 자국법정에

4) 장운정(2012), "한 · 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5) 다청(大成)로펌,http://me2.do/FkMqXCIe, (2015.05.24.방문)
6) Korean Bar Association, www.koreanbar.or.kr, (2014.04.01. 방문)
7)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 홈페이지,http://www.legalbusinessonline.com, (2015.05.29.방문)
8) 최남석(2014),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 KERI칼럼,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서 소송대리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 등을 통하여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고, 고용한 자국변호사로 하여금 국내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법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나 국내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로서는 법률시장 개방이 주는 직접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중 법률시장 개방은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의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수합병을 비롯한 복합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법률시장에 대한 높은 투자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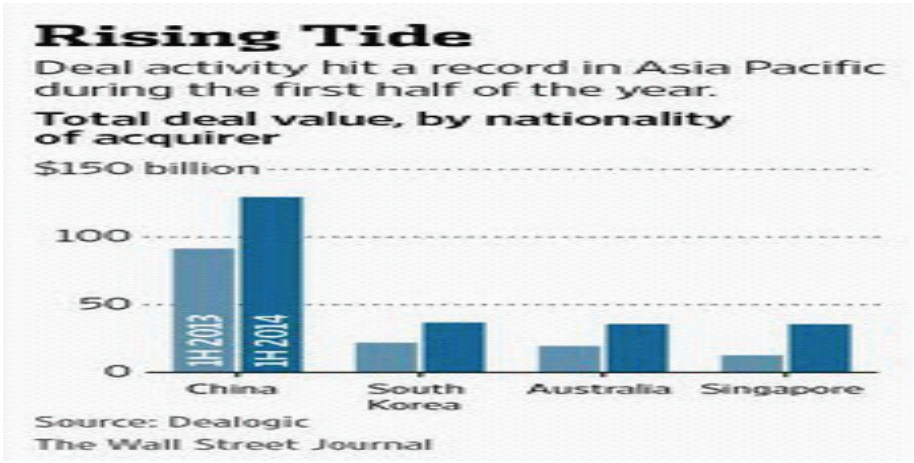
[표3] 한-중 교역규모현황

(단위: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 · 중	교역규모 (수출+수입)	1,409	1,883	2,205	2,150	2,289	1,716
	수출韓→中	867	1,168	1,341	1,343	1,458	1,060
	수입韓←中	542	715	864	807	831	656
	무역수지 (수출-수입)	325	453	477	536	627	404
전체교역규모(한국)		6,866	8,916	10,796	10,674	10,752	10,981

* 출처: 한국무역협회

[표4] 2013-2014 아시아 주요국 M&A 추이[9)]



Major Asian countries M&A (Units : $ 1 billion)
*A light-blue (The left) : the first half of 2013 *Dark blue (The right) : the first half of 2014
**From left, China, South Korea, Australia, Singapore

9) 송경재,"아시아 상반기 M&A 사상최대", 『파이낸셜뉴스』,(2014.07.09.)

아울러, 법률서비스 개방과 함께 주요 소비자가 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 파트너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계 로펌을 이용 할 수 있다. 기업은 자국계 로펌을 이용함으로써 신뢰관계에 기초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기밀유지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자국계 로펌은 자국기업에 대한 경영환경을 인식하고 기업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밀하게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로펌의 입장에서도 한-중 법률시장 개방은 로펌의 기업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국제사회에서 법률시장은 결국 개방될 수 밖에 없는데, 로펌의 기업화는 국내 로펌이 막대한 인프라와 자본을 가진 글로벌 로펌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한-중 로펌간의 합작이 이루어 진다면, 한-중은 아시아시장에서 글로벌 로펌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법률시장 개방범위[10)]

한-중FTA에서 협의된 법률시장의 범위는 한-미FTA 및 한-(EU)FTA의 1단계 개방에 해당한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한-중은 상대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로펌에 대한 업무범위를 국제법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국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은 국내법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이 공동으로 일을 수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제휴를 하거나, 상대국 변호사를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FTA에서 협의된 법률시장 개방범위는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나,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CEPA)[11)]에서 협의된 법률시장 개방범위에 비하면 개방 수위가 매우 낮다

10) 한-중 FTA 서비스 주요 양허 (부속서 8-가)
11)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을 골자로함.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음.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 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함. 외국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CEPA 수혜 가능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eHcPlyw,(2015.05.24.방문)

[표5] 중국-홍콩 CEPA상 법률시장 개방 협의내용[12)]

시기	발효일	주요내용
CEPA Ⅰ	2004.01.01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홍콩로펌과 중국로펌이 연합경영가능. 다만, 제휴참여 홍콩변호사의 중국법 업무금지 중국로펌의 홍콩변호사 고용허용. 다만, 그 홍콩변호사의 중국법업무금지 중국국적을 가진 홍콩영구거주자의 중국사법시험 응시자격허용 합격 후 중국법 업무소송제외 종사가능 홍콩로펌의 심천 광주 대표처 소속변호사에 대한 거주요건포기 다만, 다른 곳 설치 대표처의 소속변호사는 매년 2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함
CEPA Ⅲ	2006.01.01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한 홍콩로펌은 그 소재지 해당성 법률사무소와 제휴가능
CEPA Ⅳ	2007.01.01	중국근무 홍콩변호사의 거주요건 면제 중국변호사에 대해 홍콩에서 가사상속사건 대리허용 홍콩변호사에 대해 중국에서 민사소송 대리허용 시민자격
CEPA Ⅶ	2011.01.01	중국에 대표처 설립후 1년 경과된 경우 중국로펌과 제휴허용

자료 : hong-kong-economy-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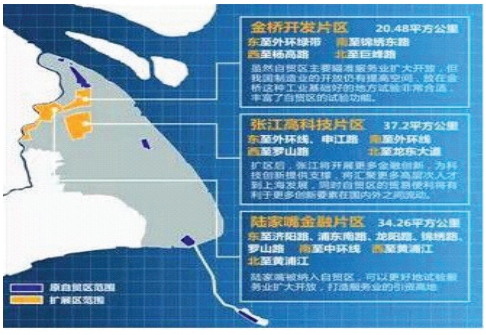
다만, 한-중은 예외적으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FTZ)[13)] 내 설립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함께 합작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6]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2013년 9월 설립 시

출범: 28.8 ㎢, 여의도 10배 면적

2015년 3월 확장 후 (노란색이 신규)



확대: 127.72 ㎢, 여의도 50배 면적

○ 출범: 2013.9.29. ○ 면적: 127.72㎢
○ 범위: 4개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구, 와이가오차오 보세지역, 푸동공항 종합보세지역,양산 보세항구) + 3개 보세구(루자주이 금융지구, 진차오 개발구, 창장산업단지: 2015년 3월부터)

12) http://tuney.kr/3XvSnY, (2015.04.30 방문)
1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shanghai FreeTrade Zon)는 중국정부가 상하이에 설립한 지역성 자유무역원구로서 중국 자유무역원구의 범주에 속함. 시범구는 2013년 8월2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고, 9월29일 정식으로 발족하였음. (海)自由贸易试验区门户网站, 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2015.05.30 방문)

여기서 의미하는 한-중 로펌의 합작이란 한-미, 한-EU와의 FTA의 2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형태이다. 앞으로, 한-중로펌은 자유무역시험지구(FTZ)내에서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FTZ) 내라 하더라도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중국법률에 관한 업무는 중국 변호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고, 외국로펌은 외국 법률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 가능하다. 즉,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FTZ) 내에 설립된 외국로펌이라 하더라도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FTZ)에서 한국로펌이 중국로펌과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한-중FTA 체결과 상관없이, 중국정부가 상하이를 따로 떼어내 경제특구로서 운영하는 경제우대정책의 일환이라는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표7] 한-중FTA 법률시장 개방범위 및 절차

시기	내용	비고
FTA 발효와 동시에 바로 실행	상대국에 대표사무소 설립,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허용 국제상사중재에서 대리허용	
FTA 발효와 동시에 바로 실행	한국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합작허용 한-중로펌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 및 이익배분	상하이 FTZ 한정
FTA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 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예정	

*** 출처 : 한-중FTA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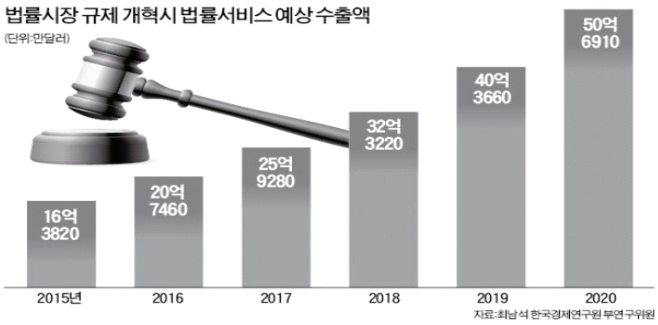
4. 소결론

한국과 같이 자유무역협정(FTA) 에 의거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법률시장을 개방함에 있어 상대 국가별로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중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로 의미있는 법률시장 개방을 이루어 낸다면, 한-중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영업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이 법률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는 사항은 로펌의 합작가능 여부 및 외국로펌이 협약 체결 상대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한-중FTA에서 협의된 법률시장 개방범위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중 사이에 협의된 내용만으로는 한-중 FTA가 발효되더라도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한 거대한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중FTA 체결 전에도 이미 한국로펌은 관례적으로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 중국로펌은 필요한 경우 한국로펌과 업무제휴를 맺는 형식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FTZ)내에서 한중로펌의 합작가능성을 제외한다면 한-중 사이에 협의된 법률시장 개방 수위는 의미 있는 개방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단지 법률시장 개방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표8] 한국 법률시장 규제 개혁 시 법률서비스 예상 수출액[15)]



Ⅲ. 한-중 법률시장 개방정책 비교

본 장에서는 한-중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정책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다. 먼저, 한-중 양국의 법률시장 개방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국 법률시장 개방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아울러, 한-중 법률시장 개방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한-중 법률시장 개방정책

(1)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정책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고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와 한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 한국은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협의한 FTA 협약국에 대해서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14) 중국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제15조
15) 최남석,"법률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대한변협신문』,(2014.12.22)

[표9] 한국 법률시장 단계별 개방 주요내용

단계	시기	내용
1단계	FTA 발효와 동시에 바로 실행	상대국에 대표사무소 설립,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허용 국제상사중재에서 대리허용
2단계	FTA 발효 후 2년 내	한국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 가능 외국법, 국내법 혼재사건 처리가능 수익배분 가능
3단계	FTA 발효 후 5년 내	한국로펌과 합작사 설립가능 국내변호사 고용가능

상기 내용은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협의한 FTA 협약국에 한함 *** 출처 :한국 법무부**

우선, FTA발효 즉시 상대국 내 사무소를 설립하고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고, 협정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상대국 로펌과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외국 로펌이 한국 로펌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 가능해진다. 다만,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외국로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 직접 고용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외국로펌은 한국 로펌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서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한국은 한-EU FTA 한-미FTA체결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국가에 대해서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현재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사안별로 협력하여 업무제휴가 가능한 2단계 개방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로펌들에, 2017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 로펌들에 한국 내 법률 시장이 최종 개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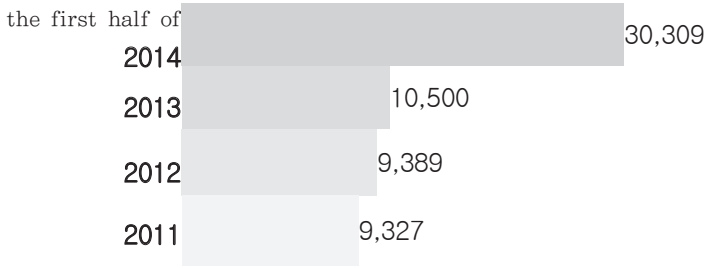
[표10] FTA체결을 통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COUNTRY	LEVEL	Progress	Constant after
US	3 단계	1단계 (2012.03.15.) 2단계 (2014.03.15)	2017.03. 15. 3단계 개방예정
EU	3 단계	1단계 (2011.07.01.) 2단계 (2013.07.01.)	2016. 07. 01. 3단계 개방예정
ASEAN	2 단계	2단계 (2011.04.30)	
Peru	2 단계	2단계 (2013.08.01)	
India	1 단계	1단계 (2010.01.01.)	
EFTA	1 단계	1단계 (2006.09.01.)	

* 출처: **한국 법무부**

한국 내 2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이루어지 전까지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한국법률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 로펌들을 통해 자문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수위가 2단계로 접어들면서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이 업무제휴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법률시장 개방수위 2단계 부터는 외국로펌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현재 한국 시장 내 외국로펌의 입지가 크게 향상 되었다.

[표11] 상위 10위권 내 외국계 로펌 자문액 (Units : $ 1 million dollars)[16]



한국정부는 외국 로펌이 한국 로펌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 가능해지는 제3차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2016년 6월까지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2015년 3월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현재, 법 개정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와 외국로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

[표12] 쟁점별 법무부 외국로펌 입장[17]

쟁점별 법무부 vs 외국로펌 입장

법무부	쟁 점	외국로펌
외국로펌 지분 최대 49%로 제한	지분율	자율에 맡겨야
한국변호사 ≥ 외국법자문사	파트너 수	자율에 맡겨야
외국로펌 본사	합작주체(외국로펌)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로펌 설립, 변호사 경력 각각 5년 이상	합작주체(한국로펌)	규정 삭제해야
합작회사의 주체인 외국로펌 본사에 무한책임	책임	외국사례와 같이 변호사전문보험으로 해결해야
한-EU FTA와 비례, 개방제외 목록에 따라야	로펌의 업무범위	FTA 취지에 안맞아 업무제한 없애야
합작회사만 한국변호사 고용 가능 한국변호사도 합작로펌 업무범위로 제한	한국변호사 고용	합작회사 아니더라도 일정조건 하에 한국변호사 고용할 수 있어야
선임(파트너급)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 각 2명 이상 의무화	합작회사 구성	합작회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 출처: **한국 법무부**

(2)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정책

중국은 원칙적으로 FTA나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협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중국은 변호사법[18] 및 외국변호사 사무소 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19]를 통해서 외국 로펌의 주중 대표기구의 설립 및 법률 서비스

16) 정지성 · 이용건, "외국로펌 국내 M&A 싹쓸이", 『매일경제』, (2014.07.17)
17) 박지연, "외국로펌 '강한 반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 『법률신문』, (2015.03.12)
18) 중국 변호사법(律师法) 제58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국경내에 기수를 설립하여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 한다.
19) 중국 외국변호사 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는 외국변호사 사무소의 주중 대표처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로펌의 주중대표기구는 중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업무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첫째, 변호사 업무허가를 받은 국가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국제협약, 국제관례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만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외국포럼은 의뢰인 또는 중국 로펌의 위탁을 받고 해당 대표기구가 변호사 업무허가를 받은 국가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외국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국 로펌에 중국 법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넷째,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로펌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위탁관계 유지 할 수 있다[20].

아울러, 외국로펌의 중국 대표기구는 상기 내용을 제외한, 기타 법률 서비스 활동이나 기타 영리 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 로펌의 주중국 대표기구에 소속된 외국인 변호사가 직접 중국 법정에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21], 특히, 외국로펌은 중국 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22]. 다만, 예외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FTZ)내에서는 일정한 규제 하에 외국로펌과 중국로펌이 변호사를 상호 파견하거나, 중국로펌과 공동영업을 할 수 있다[23]. 상호 파견 가능한 인원수는 3명까지 가능하며. 공동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로펌은 중국법률업무, 외국 법률업무, 그리고 국가 간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24]. 다만, 중국법률업무 및 국가 간 무역거래업무의 경우 중국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국로펌이 담당하고, 외국법률업무 및 국제거래 업무의 외국부분에 대한 업무는 외국로펌이 담당하도록 한다. 중국 변호사는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상하이소재 중국대표기구에 파견된 경우, 파견처에 중국법률 관련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률에 준거한 민사 상사 소송과 소송 이외의 법률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법률서비스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임.

제1조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의 설립 및 그 법률서비스 활동을 규범화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외국변호사 사무소가 주중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20) 외국 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제 15조

21) 외국 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제 32조

22) 외국 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제 16조

23)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11월 상하이시정부가 공표한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에 대한 중국 및 외국 변호사 사무소간 법률 고문으로 변호사의 상호 파견 실시에 관한 방법" 및 "상하이 자유 무역 시험구의 중국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공동 영업의 실시에 관한 방법"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王凤梅,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 联营焦点十问” , 『中国律师网』,,(2014.12.10.)

24) 상하이 자유 무역 시험구의 중국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공동 영업의 실시에 관한 방법 제10조

25)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에 대한 중국 및 외국 변호사 사무소간 법률 고문으로 변호사의 상호 파견 실시에 관한 방법 제11조

2. 한–중 법률시장의 문제점

(1) 한국 법률시장의 문제점

한국 법률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국내로펌이나 기업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의 업무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둘째, 제3차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로펌과 한국로펌의 합작형태 및 지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둘러싼 부분이다. 우선, 한국의 외국법자문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변호사는 법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26].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가 기존 국내로펌 혹은 기업 소속의 외국 변호사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법 규정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도 외국 변호사는 한국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기존의 외국변호사의 업무와 외국법자문사의 업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표13] 한국 10대 로펌소속 외국변호사 현황[27] (2013년 4월 기준)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페루	뉴질랜드	일본	total
Kim& Chang	147	7					5	3	1						1	164
Bae, Kim & Lee LLC	33	6	1	1	2	1										44
Lee & Ko	36	5	1	1	1	1										45
SHIN & KIM	31	5		2	1	1	2									42
Yoon&Yang LLC	14	1				3	1								1	20
Yulchon LLC	33	2		2	1	2	1	1		2			1	1		46
BARUN	7	1												1		9
LOGOS	5	1								6						12
JIPYONG	9	6	1		1	1				3	2	1				24
HMP	2	1		1	1											5
total	317	35	3	7	7	8	10	4	1	11	2	1	1	2	2	411

* 한국 10대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411명 중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0명.
* 출처: 법률신문

한국은 FTA의 체결에 의거한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로펌이나 기업들은 외국변호사를 고용하여 간접적으로 외국법 관련 자문을 진행해 왔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행할 때는 고객을 상대로 직접 자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 변호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법 자문자의 자격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법자

26) 한국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27) 임순현, "국내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록싸고 논란", 『법률신문』, (2013.06.03)

문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의 외국변호사들이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등록절차를 거쳐서 활동하게 되면, 한국 법무부와 대한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외국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특별한 제약 없이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법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28]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2015년 3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최대 지분비율을 49%로 제한하고,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파트너의 수가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합작 주체를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으로 하였다. 이 에 대해, 외국로펌들은 한국 법무부의 개정 의견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법률시장에 대한 투자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9].

[표14] 한국내 진출 외국계 로펌 현황[30]

명칭	설립일시	본점소재국
Ropes & Gray LLP	2012. 07. 19	US
Sheppard Mullin Richter&Hampton LLP	2012. 07. 19	US
Clifford Chance LLP	2012. 07. 19	EK
Cohen &Gresser LLP	2012. 09. 14	US
Slmpson Thacher & Battlet LLP	2012. 09. 14	US
Mc Dermort Will& Emery LLP	2012. 09. 26	US
Paul Hastings	2012. 09. 26	US
Cleary Gottleb Steen & Hamilton LLP	2012. 09. 26	US
Squire Sanders LLP	2012. 09. 26	US
Covington & Burling LLP	2012. 10. 18	US
O' Melveny & Myers LLP	2012. 11. 06	US
K &L Gates LLP	2012. 11. 15	US
DLA Piper LLP	2012. 12. 24	EK
Herbert Smith Freehills LLP	2013. 02. 20	EK
Greenberg Traurig LLP	2013. 02. 20	US
McKrnna Song & Aldridge LLP	2013. 03. 05	US
Linklaters LLP	2013. 04. 11	EK
Baker & MCkenzie LLP	2013. 04. 25	US
Skadden Arps State Meegher & Flom LLP	2014. 03. 17	US

* 출처: **한국 법무부**

(2) 중국 법률시장의 문제점

중국 법률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로펌은 원칙적으로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중국정부가 외국로펌들에 대해

28) 한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2조
29) 양병훈, "법무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지분 49%로 제한", 『한국경제』, (2015.03.10)
30) 이경기, "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달, 법조계는 지금…", 『내일신문』, (2013.08.09.)

서 차별적인 과세대우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외국 로펌으로 하여금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로펌으로 하여금 포괄적 법률서비스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설령, 중국인 등록 변호사가 외국로펌에 고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외국로펌에 고용된 중국변호사는 중국 법무부에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반납해야한다. 이로 인해서, 외국로펌 소속의 중국변호사는 중국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국의 이러한 제한 정책은 중국 내 외국로펌의 업무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법률 소비자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중국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외국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 법률시장에 대한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정부는 외국로펌들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대우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로펌은 중국로펌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외국로펌은 법인소득세법상 비거주자법인의 고정사업장[31]으로 분류되어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32]. 하지만, 중국로펌의 경우 과세목적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35퍼센트에 이르는 5단계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외국로펌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 나아가, 외국로펌의 종사자는 개인소득세법상 최고 45퍼센트에 달하는 누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국 로펌의 중국인 파트너들은 종종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면제 되기도 한다.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외국로펌과 중국로펌에게 차별적 대우는 중국의 WTO 가입시 자국의 법률서비스 양허 약속 상 내국민대우와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33].

3. 소결론

한국 법률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째, 한국에 진출한 외국로펌도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로펌이나 기업이 기존의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현상은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의 법적용이 명쾌하지 못해 발생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경우 일반 외국 변호사들과 차별화되는 혜택 및 구별사항을 중심으로 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차 법률개방을 앞두고 외국 로펌의 최대 지분비율을 49%로 제한하고, 합작 투자기업의 외국인 파트너 수가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는, 상대

3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조 본 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그 실제 경영관리 기구가 중국 국경내에 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경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3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 기업 소득세의 세율은 25퍼센트로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적용 세율은 20퍼센트 로 한다

33) 산업연구원(2014), "한-중 서비스 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10면.

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로펌이 향후 해외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중에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률시장 개방 후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 폭을 확대 하였다[34]. 즉, 한국도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이행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상대국 로펌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법률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변호사에 대한 고용을 금지하고, 외국로펌에 대한 조세차별 정책은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로펌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높은 장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과 비슷하게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법률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FTA 체결국을 상대로 점차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탄력적인 개방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과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통하여 법률시장에 대한 의미 있는 개방을 진행하였고, 긴밀한 협조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법률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FTA 체결을 통한 단계적 · 점진적 개방을 통하여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법조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Ⅳ. 한-중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한-중 법률시장 개방이후 한-중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중 로펌의 합작을 통한 경쟁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를 통한 한-중 로펌 제휴

중국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내 설립된 로펌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중 로펌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35].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외국로펌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구, 지분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 진입제한 조치를 일시정지 혹은 철폐하며, 각종 투자자의 평등한 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4) 임순현, "일본 최대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2014.10.24)
35) 中国政府网, http://www.gov.cn/zwgk/2013-09/27/content_2496147.htm, (2015.05.30. 방문)

따라서, 한국로펌은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에 한국로펌의 주중대표기구의 설립하고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중로펌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업무를 제휴하여, 기업에 인수합병(M&A)를 제안하고 기업 인수합병 후에는 제 3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매각 사건[36]으로 인하여 인수합병(M&A)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역으로 잘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을 결합하여 제 3국에 투자한다면 한-중 모두 윈윈 가능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해외의 로펌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내에서 중국로펌과 업무를 제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베이징시펀쉰로펌(北京市奮迅律師事務所)과 미국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 로펌이 2015년 4월 15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내에서 연합운영을 시작 한 것을 들 수 있다.[37] 이러한 업무제휴로, 중국로펌 입장에서는 외국 대형로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각 지역 고객의 중국 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 로펌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고객의 해외 투자 업무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급 인재를 중국으로 모아 국제 법률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상호 법률서비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38] 한-중 로펌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전문분야를 특성화 한 한-중 로펌간의 합작추진

한-중은 일정한 전문분야를 특성화 하여 한-중 로펌간 합병이나 합작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중이 체결한 FTA는 동북아지역의 첫 번째 FTA로 한 · 중 · 일을 하나의 무역구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펌의 업무자체가 기업자문을 비롯한 금융,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로펌이 합작을 통하여 아시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둔다면 장기적으로는 미래 아태무역구 건립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정 전문분야를 특성화한 한국의 중소로펌들과 막강한 자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로펌과의 합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아시아문화권 로펌인 한-중 로펌의 합병하면 문화적 유사성으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중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합병 후에도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6) 상하이 자동차는 이러한 쌍용차를 2005년에 인수했지만, 2009년 법정관리에 넘김으로서 먹튀 논란이 있었다.
김태환, "신뢰 회복 메시지 전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코노믹리뷰 』, (2015.01.18)

37) Baker & McKenzie , http://tuney.kr/3Xx4FV, (2015.05.30.방문)

38)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3ghzwpD, (2015.05.30.방문)

Ⅴ. 결론

동북아 경제에서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한중 양국이 앞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법률서비스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적 서비스 산업으로서 지식축적도가 높기 때문에 여타 서비스 업종보다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다[39]. 따라서, 한-중 양국 정부는 법률서비스 산업이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 로펌의 업무제휴 혹은 합작을 진행하여 양국 로펌이 서로의 경영기법과 서비스를 전수하여 법률서비스 능력과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 한-중 로펌이 협력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동북아 시장에서 글로벌 로펌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중은 협력을 통하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 양국모두 동북아 지역에서 법률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9) 최남석,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14.04.23.)

〈참고문헌〉

신문자료

정진건,"중국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창, 어디로 향하나?", 『MK뉴스』,(2015.01.08.)
송경재,"아시아 상반기 M&A 사상최대", 『파이낸셜뉴스』,(2014.07.09.)
정지성 · 이용건, "외국로펌 국내 M&A 싹쓸이", 『매일경제』, (2014.07.17.)
박지연, "외국로펌 '강한 반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 『법률신문』, (2015.03.12.)
임순현, "국내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록싸고 논란", 『법률신문』, (2013.06.03.)
양병훈, "법무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지분 49%로 제한", 『한국경제』, (2015.03.10.)
이경기, "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달, 법조계는 지금…", 『내일신문』, (2013.08.09.)
임순현, "일본 최대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2014.10.24)
김태환, "신뢰 회복 메시지 전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코노믹리뷰 』, (2015.01.18)
최남석, "법률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대한변협신문』, (2014.12.22)
王凤梅,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 联营焦点十问”, 『中国律师网』,,(2014.12.10.)

홈페이지 자료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http://www.legalbusinessonline.com
다청(大成)로펌,http://me2.do/FkMqXCIe
한국 법무부, www.moj.go.kr
대한 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한중FTA, www.fta.go.kr/cn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
Baker & McKenzie , http://tuney.kr/3Xx4FV,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eHcPlyw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3ghzwpD
中国政府网, http://www.gov.cn/zwgk/2013-09/27/content_2496147.htm
人民网, http://me2.do/5J7seWDM

연구보고서 자료

이봉걸(2014).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2면.

최남석,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14.04.23.)

산업연구원(2014), “한-중 서비스 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10면.

장운정(2012), “한 · 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中–韩法律市场的开放与今后的课题

文蕙贞，哄晓芸
华东政法大学

◆ 论文 摘要 ◆

中–韩FTA生效后对中–韩两国间的相互投资起到了催化剂的作用，外界广泛认为这将给中–韩两国的经济与社会文化带来巨大的影响。使中–韩两国在服务业市场进一步提升竞争力。具体来说，被认为在服务业领域具备先进体系的韩国企业面向中国的投资活动正在不断活跃化，可以预见到，与韩国企业向中国的投资、在中国的子公司的经营与企业交易活动相关的法律服务需求将不断扩大。这段时间,中–韩两国对于法律市场开放坚持慎重的立场。因为,中–韩律师事务所比英美法系律师事务所规模和专业性上竞争力薄弱。所以，中–韩两国政府在国内法律市场开放的同时更要考虑到回流的问题。但是，在政治、经济、文化等社会的多个领域，地理上的影响已经减小了，开放法律服务市场最终也会实现。在这样的情况下，中–韩两国若不确保在亚洲法律服务市场上的竞争力，将难于进入世界法律服务市场，必须通过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的合并来确保竞争力。中–韩两国针对特定的专业领域，通过合并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来确保竞争力。若同属亚洲文化圈的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合并，可以确保文化相似性与同质性，而且中–韩两国在第一位置上十分接近，合并后可以以最低限度的试行错误达到最大的效果。

本文的目的在于，对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中–韩两国政策及法律进行讨论，探索中–韩两国相互开放法律服务市场的方向。本文的结构大体分为三部分，第一章为序论，第二章考察讨论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的重要性，比较两国法律服务市场的规模与现状，分析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必要性与开放法律服务市场将带来的效果。进而确认中–韩FTA协定中协议的法律服务市场开放水平，提出在中–韩FTA协定即将正式签署的当下，中–韩两国须继续讨论的方向。第三章对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进行比较，对中–韩两国采用的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进行比较分析，通过比较、讨论外国投资者提出的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问题，提出改善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方案。第四章着重对促进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提出对策。对中–

韩法律服务市场开放后，中-韩两国合作促进发展的方向提出建议。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可以成为两国律师事务所通过学习经营技巧和服务以提高法律服务能力和质量，提升国际竞争力的机会，而且可以提高开拓新市场的可能性。本章将对促进中-韩两国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法律服务业务的方案和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通过合并提高竞争力的方案进行研究。

关键词 ：中-韩FTA，FTZ，开放法律服务市场，韩国法律，中国法律

Ⅰ. 序论

中-韩两国自1992年邦交正常化之后，持续构建两国间的经济合作关系。两国首脑结束中-韩FTA协定的实质性谈判，2015月2月25日，两国初步签署了英文版协定，这促进了中-韩两国的经济合作，成为两国缓和贸易与服务领域壁垒的契机，对中-韩两国间的相互投资起到了催化剂的作用，外界广泛认为这将给中-韩两国的经济与社会文化带来巨大的影响。特别是，中国正脱离过去以制造业为中心的出口型成长模式，提倡将服务业作为经济开发政策的一环，以此为中心促进发展的新常态[1]。中国这样的经济开发政策与中-韩FTA协定的签署将形成协同效果，使中-韩两国在服务业市场进一步提升竞争力。具体来说，被认为在服务业领域具备先进体系的韩国企业面向中国的投资活动正在不断活跃化，可以预见到，与韩国企业向中国的投资、在中国的子公司的经营与企业交易活动相关的法律服务需求将不断扩大。与中国国内的法律服务需求扩大这一观点相关的是，中国提倡将依法治国理念作为治理国家的基本方略，这一点值得关注。在这样的背景之下，若能开放中-韩两国的法律服务市场，不仅仅要形成创造更多聘用机会的基础，而且在金融、保险、科学及技术服务业等多种相关产业中产生的协同效果也将不断提升。本论文的目的在于，对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中-韩两国政策及法律进行讨论，探索中-韩两国相互开放法律服务市场的方向。

本文的结构大体分为三部分，第一章为序论，第二章考察讨论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的重要性，第三章对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进行比较，第四章着重对促进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提出对策。

1) 习近平第一次提及“新常态”是在2014年5月考察河南的行程中。当时，他说：“中国发展仍处于重要战略机遇期，我们要增强信心，从当前中国经济发展的阶段性特征出发，适应新常态，保持战略上的平常心态。
이봉걸(2014).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2면.

Ⅱ. 讨论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重要性

本章将讨论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重要性。首先，比较两国法律服务市场的规模与现状，分析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必要性与开放法律服务市场将带来的效果。进而确认中-韩FTA协定中协议的法律服务市场开放水平，提出在中-韩FTA协定即将正式签署的当下，中-韩两国须继续讨论的方向。

1. 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的规模与现状

2015年4月，韩国的执业律师人数为16,340人[2]，中国的执业律师人数约为27万人[3]。在韩国，每3,200个韩国国民中有1名律师，而在中国，每58,000个中国人中才有1名律师，从人口比例上来看，从律师的人数占总人口的比例来看，中国要高于韩国。但是，韩国自2009年引进LawSchool制度后，每年约新增2,500名律师，可以预见，今后中-韩两国间律师人数占总人口的比例差距将逐渐缩小。

韩国引进LawSchool制度的目的在于，让国民能够以低廉的价格享受优质的法律服务。问题在于，韩国政府没有考虑法律服务市场的现实需求与供给的问题，单纯的律师人数增加，导致了有限的韩国法律服务市场中律师供给过剩，竞争愈加激烈，许多律师难以维持生计的现状。目前，在这样的情况下，韩国的法律界已经陷入严重的低迷，亟需探索恢复法律服务市场活力的突破口。

[表 1] 韩国法律市场新的司法人员数

年度	司法考试	法学院协议会要求			大韩律师协会要求		
		应试	合格人数	新司法人员	应试	合格人数	新司法人员
2012年	1000人	2000人	1500人(75%)	2500人(韩国法务部发表)			
2013年	800人	2500人	2000人(80%)	2800人	2500人	1000人(40%)	1800人
2014年	700人	2500人	2000人(80%)	2700人	3500人	1000人(28.5%)	1700人
2015年	500人	2500人	2000人(80%)	2500人	4500人	1000人(22.2%)	1500人
2016年	300人	2500人	2000人(80%)	2300人	5500人	1000人(18.2)	1300人

*资料：大韩律师协会，法学院协议会

另一方面，在中国，随着企业“走出去”以及并购等对法律服务的需求激增，中国的律师事务所正在通过与全球性的律师事务所合并以确保其竞争力。以1993年最早在纽约设立代表处的北京市君和律师事务所为首[4]，2015年5月，中国另一大所大成律师事务所与全球性的律师事务所

2)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 월간 변호사 현황(2015.03.31. 방문)
3) 人民网, http://me2.do/5J7seWDM, (2015.05.28. 방문)
4) 장운정(2012), “한 · 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Dentons（德同）合并[5]°达成通过此次合并，将在全世界50个国家拥有分所，约有6500人律师°

中国的律师事务所之所以这样热衷于促进与全球性的律师事务所的合并，主要理由是：第一，为了向“走出去”的本国企业提供法律服务；第二，由于外国律师事务所在中国国内法律服务市场中的业务范围受限，通过与全球性的律师事务所合并来解决这一问题°这样一来，中国的律师事务所为了提高效率，通过与其他的律师事务所加深合作，促进服务多样化和进行投资来克服危机°

[表 2] 2014 韩–中 十大律师事务所现状比较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South Korea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china		
Rank	Firm	Total lawyers and partners	Rank	Firm	Total lawyers and partners
1	Kim & Chang	559	1	Yingke Law Firm	3976
2	Bae, Kim & Lee LLC	330	2	Da Cheng	3410
3	Lee&ko	324	3	Zhong Yin Law Firm	1458
4	shin&kim	259	4	Grangall Law Firm	1210
5	Yoon & Yang LLC	245	5	DaHeng Law Offices	1106
6	Yulchon LLC	213	6	King &Wood Mallesons	1091
7	BARUN	145	7	Zhong Lun Law Firm	966
8	JIPYONG	108	8	AllBrights Law Offices	959
9	DR & AJU	103	9	Long An Law Firm	601
10	DONGIN	100	10	Jun He Law Offices	531

*The left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South Korea** 2014[6]
*The right : **Most influential law firms in the china** 2014[7]

2. 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的必要性

法律服务可以分为诉讼代理与法律咨询两大块[8]°此处的法律咨询，包括除了在法庭上打官司的诉讼代理之外的所有业务°与开放法律服务市场相关，一般的诉讼代理领域并不包括在开放的讨论对象之内，法律咨询领域的开放则是开放的讨论核心所在°因此，即便全面开放法律服务市场，也不会产生外国律师直接在本国的法庭上代理诉讼的情况，外国的律师事务所通过与国内的律师事务所合作等，聘用国内的律师事务所，被聘用的本国律师处理国内的法律事务°这样一来，需要国内法律服务的一般国民与主要负责国内诉讼的律师，可能无法直接感受到开放法律服务市场的好处°但是，从国家经济这一大框架来考虑，开放中–韩法律服务市场并不仅仅意味着法律服务市场本身的开放，也与中–韩两国的经济合作直接相关°之所以这样说，是因为中–韩两国企业的海外投资活动正在不断增加，对以并购为代表的复合型法律服务的需求正在不断增加，

5) 다청(大成)로펌,http://me2.do/FkMqXCIe, (2015.05.24.방문)
6) Korean Bar Association, www.koreanbar.or.kr, (2014.04.01. 방문)
7)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 홈페이지, http://www.legalbusinessonline.com, (2015.05.29.방문)
8) 최남석(2014),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KERI칼럼,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这表明两国的法律服务市场具有很高的投资价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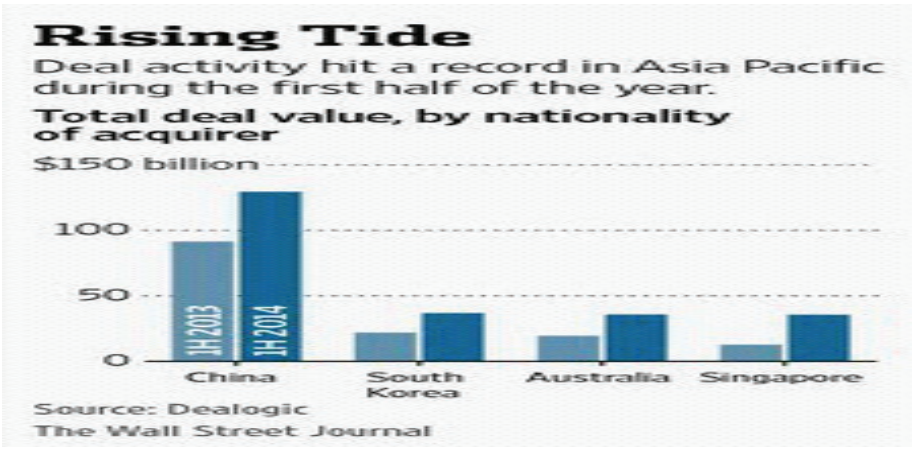
[表 3] 中-韩 交易规模情况

(单位:亿美元)

区分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韩 · 中	交易规模 (出口+进口)	1,409	1,883	2,205	2,150	2,289	1,716
	出口 韓→中	867	1,168	1,341	1,343	1,458	1,060
	进口 韓←中	542	715	864	807	831	656
	贸易收支 (出口-进口)	325	453	477	536	627	404
全体贸易规模(韩国)		6,866	8,916	10,796	10,674	10,752	10,981

*资料: 韩国贸易协会

[表 4] 2013-2014 亚洲主要国家 M&A现状[9)]



Major Asian countries M&A (Units : $ 1 billion)
*A light-blue (The left) : the first half of 2013 *Dark blue (The right) : the first half of 2014
**From left, China, South Korea, Australia, Singapore

并且, 伴随着法律服务市场的开放, 从作为主要的消费者的企业的角度来看, 可供选择的法律服务合作伙伴的选择面也拓宽了, 对法律服务的满意度也将提升° 例如, 韩国企业入驻中国或中国企业入驻韩国时, 可以接受本国的律师事务所的服务, 基于信赖关系可以确保专业性, 也可以保证为企业的商业秘密保密° 除了这些优点, 没有语言障碍´ 更了解本国企业文化的本国律师事务所熟悉本国企业在国外的经营环境´ 把握企业的需求, 可以提供更加细致的服务, 在这一点上, 可以进一步确保提供法律服务时的正确性°

另外, 从作为法律服务提供者的律师事务所的角度来看, 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也可以促使律师事务所企业化, 确保其提升竞争力° 从长远的角度看, 国际社会上的法律服务市场也终究会开放, 律师事务所的企业化, 在为国内的律师事务所面对拥有充足的基础设施和资本的全球性律师事务所作为对手具有竞争力打下基础这一点上, 是很有意义的° 从这一角度来看, 中-韩法律

9) 송경재,"아시아 상반기 M&A 사상최대", 『파이낸셜뉴스』,(2014.07.09.)

服务市场开放后，属于同一文化圈的中-韩两国律师事务所进行合作，能够确保中-韩两国在亚洲市场上面对全球性律师事务所具有充分的竞争力。

3. 中-韩FTA协定中法律服务市场开放的范围[10]

中-韩FTA协定中协议的开放法律服务市场的范围与美韩FTA协定、欧韩FTA协定第一阶段开放的范围一致。中-韩FTA协定生效后，中-韩两国将在对方国家开设事务所，能够开展国际条约与国际公法相关的法律咨询服务。但是，外国律师事务所的业务范围仅限于国际法相关的范围，入驻对方国家的外资律师事务所不能处理国内法事务（韩国的律师事务所不能处理中国法事务，中国的律师事务所不能处理韩国法事务）。这样一来，原则上还是韩国的律师事务所与外国的律师事务所共同工作、分配利益的业务合作模式，限制聘用对方国家的律师。中-韩FTA协定与韩国与美国签订的美韩FTA协定、与欧盟签订的欧韩FTA协定，以及与香港签订的FTA协定中的《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CEPA）[11]相比，开放水平还非常低。

时期	生效日	内容
CEPA Ⅰ	2004.01.01	允许内地律师事务所聘用香港法律执业者，被内地律师事务所聘用的香港法律执业者不得办理内地法律事务。 允许香港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按照《国家司法考试实施办法》参加内地统一司法考试，取得内地法律职业资格； 通过者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在内地执业，但仅能在内地律师事务所从事非诉讼法律事务。 允许香港大律师以公民身份担任内地民事诉讼的代理人。 要求香港律师事务所（行）在除深圳、广州以外的内地代表处的代表每年在内地的最少居留时间为2个月。
CEPA Ⅲ	2006.01.01	对香港律师事务所驻内地代表机构的代表在内地的居留时间不作要求，为更多的港澳律所进入内地市场打开通道
CEPA Ⅳ	2007.01.01	允许取得内地律师资格或法律职业资格并获得内地律师执业证书的香港居民，以内地律师身份从事涉港婚姻、继承案件的代理活动，这一规定突破了香港律师仅能从事非诉讼业务的限制。 允许香港大律师以公民身份担任内地民事诉讼的代理人。
CEPA Ⅹ	2014.01.01	允許香港律師事務所與廣東省律師事務所以協議方式，由廣東省律師事務所向香港律師事務所駐粵代表機構派駐內地律師擔任內地法律顧問

10) 한-중 FTA 서비스 주요 양허 (부속서 8-가)

11)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을 골자로함.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음.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 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함. 외국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CEPA 수혜 가능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eHcPlyw,(2015.05.24.방문)

[表 5] 中国-香港 CEPA上法律市场开放范围[12)]

*资料: hong-kong-economy-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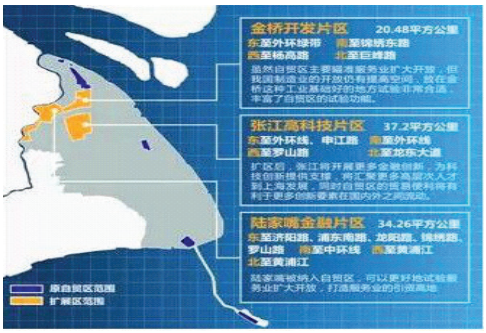
但是, 作为例外, 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FTZ) [13)]内, 中国的律师事务所与韩国的律师事务所之间的业务合作方式是可能的°

[表 6]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FTZ)

2013年 9月 成立时

成立 : 28.8 ㎢

2015年 3月 现在 (加黄色的部分)



现在: 127.72 ㎢

- 成立时间: 2013.9.29. 总面积: 127.72㎢
- 规模: 上海自由贸易试验区范围涵盖上海市外高桥保税区´ 外高桥保税物流园区´ 洋山保税港区和上海浦东机场综合保税区´ 金桥出口加工区´ 张江高科技园区和陆家嘴金融贸易区七个区域°从 2015年 3月开始)

今后, 在该试验区内, 外国的律师事务所可以与中国的律师事务所互相派遣律师, 与中国的律师事务所共同营业° 这里所谓的业务合作方式, 与美韩FTA协定´ 欧韩FTA协定第二阶段的法律服务市场开放的业务合作形态一致, 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可以共同处理国内法与国外法混同的案件, 分配收益° 也就是说, 即便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 韩国的律师事务所也不能聘用中国的律师, 与中国法律相关的业务由中国的律师提供服务, 外国的律师事务所只能为与外国法律相关的业务提供服务, 对外国的律师事务所来说, 法律服务市场说不上已经全面开放° 另外需要注意的是, 上海自由贸易区里的韩国律师事务所能够与中国的律师事务所进行业务合作, 并不是中-韩FTA协定的产物, 而是中国政府将上海的一部分地区作为经济特区实施的经济优惠政策的一部

12) http://tuney.kr/3XvSnY, (2015. 04. 30. 방문)

13) 中国政府设立在上海的区域性自由贸易园区(shanghai FreeTrade Zon), 也是中国大陆境内第一个自由贸易区, 位于浦东境内, 属中国自由贸易区范畴° 该试验区于2013年8月22日经国务院正式批准设立, 于9月29日上午10时正式挂牌°
(上海)自由贸易试验区门户网站, 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2015.05.30 방문)

分°

[表 7] 中-韩FTA 法律市场开放范围

时期	内容	其他
FTA生效的同时开始	允许外国法律顾问从事有关“外国法律及美国缔结的条约´普遍承认的国际习惯法”的咨询 外国律师事务所在韩国设立分所	
FTA生效的同时开始	允许韩国律师事务所和中国律师事务所之间提供业务协助,韩国和中国两国的律师事务所可以共同受理存在韩国法律中国法律适用争议的案件和分配收益°	FTZ 内限定
FTA生效后2年内	服务´ 投资领域续协商将	

*资料：中-韩FTA网页

4. 小结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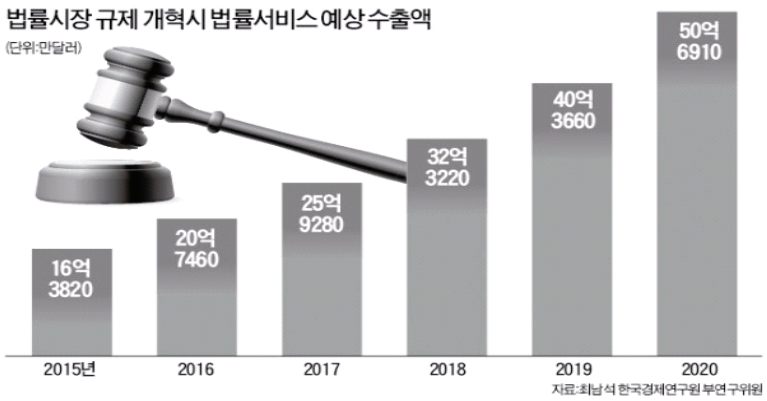
像韩国这样根据FTA协定开放法律服务市场的情况下，在开放法律服务市场时，可根据签订FTA协定的对方国家的态度进行灵活的应对，这是通过FTA协定开放法律服务市场的优点° 因此，中-韩两国若以签订FTA协定为契机，牵动法律服务市场的开放，可以克服国内市场的限制，开拓走向国外的道路°

然而，遗憾的是，开放法律服务市场中的争议事项虽然是律师事务所的合并与外国的律师事务所能否聘用本国的律师，但中-韩FTA协定中协议的法律服务市场开放内容中没有包含这部分的内容，到目前为止，仅凭中-韩两国达成协议的内容难以对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的开放效果报以很高的期待° 之所以这样说，是因为在签署FTA协定前，韩国的律师事务所已经在中国设立代表处开展限制范围内的业务，在必要的情况下以中国的律师事务所与韩国的律师事务所形成业务合作的形式提供服务[14)]° 因此，这次中-韩两国间协议的法律服务市场开放水平很难评价为有突破意义的开放，只是确认开放法律服务市场意愿的程序而已°

目前，围绕法律服务市场开放，韩国与中国两国国内的意见很多，如果继续这样掩耳盗铃式的规制，只会阻碍中-韩两国法律服务产品的发展° 基于中-韩两国开放法律服务市场的现实性，果断地形成开放法律服务市场的合意，促进企业的海外投资，协调步调，构建相互合作使本国的法律事务所能够“走出去”的关系是很重要的° 中-韩FTA协定目前处于实质性谈判已经终结的状态，还未正式签署并通过国会的通过程序，接下来拟对细节内容进行协商，其结果备受关注°

14)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十五条

[表 8] 韩国法律市场规制改革时,法律服务出口额预[15)]



Ⅲ. 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比较

本章将讨论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不同之处° 首先, 对中-韩两国采用的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进行比较分析, 通过比较´ 讨论外国投资者提出的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问题, 提出改善中-韩两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的方案°

1. 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

(1) 韩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

韩国根据FTA协定开放法律服务市场° 也就是说, 特定国家的外国律师为了在韩国执业, 前提是该国与韩国签订了FTA协定° 韩国向同意全面开放法律服务市场的FTA协定缔约国在5年内分3个阶段开放法律服务市场°

15) 최남석,"법률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대한변협신문』,(2014.12.22)

[表 9] 韩国法律市场应在协定分三个阶段进行开放

阶段	时期	内容
第一阶段	FTA生效的同时开始	允许外国法律顾问从事有关“外国法律及外国缔结的条约˙普遍承认的国际习惯法”的咨询及外国律师事务所在韩国设立分所
第二阶放中	FTA生效后2年内开始	允许外国律师事务所和韩国律师事务所之间提供业务协助, 从第二阶段开始韩国和外国两国的律师事务所可以共同受理存在韩国法律和外国法律适用争议的案件和分配收益°
第三阶段	FTA 生效后5年进行	允许外国律师事务所和韩国律师事务所进行合伙(同业), 而且具备一定条件的合伙(同业)律师事务所可以雇佣韩国内律师

*资料: 韩国法务部

首先, FTA协定生效后, 可以设立对方国家的律师事务所, 提供国际法相关的法律咨询服务, 协定生效2年后, 允许与对方国家的律师事务所进行业务合作° 协定生效后5年内, 外国的律师事务所与韩国的律师事务所设立合资(jointventure)事务所, 可以聘用韩国的律师° 但是, 即便全面开放法律服务市场, 还是不允许外国的律师事务所直接聘用国内的律师, 外国的律师事务所与韩国的律师事务所设立合资事务所后才可以聘用国内的律师° 韩国分别与美国˙欧盟签订了美韩FTA协定˙欧韩FTA协定, 就全面开放法律服务市场达成合意, 从2016年7月1日起向欧盟的律师事务所˙从2017年3月15日起向美国的律师事务所最终开放韩国国内的法律服务市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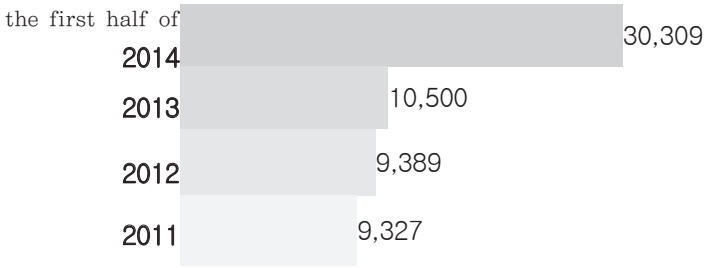
[表 10] 韩国法律市场应在协定上开放现状

COUNTRY	LEVEL	Progress	Constant after
US	3 阶段	1阶段 (2012.03.15) 2阶段 (2014.03.15)	2017.03. 15. 第3阶段 进行开放
EU	3 阶段	1阶段 (2011.07.01) 2阶段 (2013.07.01)	2016. 07. 01. 第3阶段 进行开放
ASEAN	2 阶段	2阶段 (2011.04.30)	
Peru	2 阶段	2阶段 (2013.08.01)	
India	1 阶段	1阶段 (2010.01.01)	
EFTA	1 阶段	1阶段 (2006.09.01)	

*资料: 韩国法务部

韩国的第二阶段法律服务市场开放前, 入驻韩国的外国企业需要咨询韩国法律的相关问题时, 通过国内的律师事务所委托咨询° 但是, 在法律服务市场开放的第二阶段, 外国的律师事务所可与同国内的律师事务所进行业务合作, 外国的律师事务所也可以接受入驻韩国的外国企业就韩国的法律问题提出的咨询, 目前, 外国的律师事务所在国内法市场的地位大大提升°

[表 11]在韩国外国法律事务所咨询金额预计[16] (Units : $ 1 million dollars)



韩国政府拟在外国的律师事务所与韩国的律师事务所设立合资(jointventure)事务所´ 可以聘用韩国律师的第三阶段法律服务市场开放的2016年6月底前修改《外国法律顾问法》, 并于2015年3月就法律修改召开了听证会° 围绕法律修改的内容, 韩国政府与外资律师事务所之间产生了激烈的对立°

[表 12] 韩国政府与外资律师事务所之间的对立 [17]

쟁점별 법무부 vs 외국로펌 입장

법무부	쟁 점	외국로펌
외국로펌 지분 최대 49%로 제한	지분율	자율에 맡겨야
한국변호사 ≥ 외국법자문사	파트너 수	자율에 맡겨야
외국로펌 본사	합작주체(외국로펌)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로펌 설립, 변호사 경력 각각 5년 이상	합작주체(한국로펌)	규정 삭제해야
합작회사의 주체인 외국로펌 본사에 무한책임	책임	외국사례와 같이 변호사전문보험으로 해결해야
한-EU FTA와 비례, 개방제외 목록에 따라야	로펌의 업무범위	FTA 취지에 안맞아 업무제한 없애야
합작회사만 한국변호사 고용 가능 한국변호사도 합작로펌 업무범위로 제한	한국변호사 고용	합작회사 아니더라도 일정조건 하에 한국변호사 고용할 수 있어야
선임(파트너급)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 각 2명 이상 의무화	합작회사 구성	합작회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资料: 韩国法务部

(2) 中国法律服务市场开放政策

无论中国是否为FTA协定及服务市场开放的相关条约的缔约国, 对世界上所有的国家都一律开放° 中国通过《律师法[18]》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19]》对外国律师事务所的

16) 정지성 · 이용건, "외국로펌 국내 M&A 싹쓸이", 『매일경제』, (2014.07.17)
17) 박지연, "외국로펌 '강한 반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 『법률신문』, (2015.03.12)
18) 中国 律师法 第五十八条 外国律师事务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机构从事法律服务活动的管理办法, 由国务院制定°
19) 中国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一条 为了规范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的设立及

代表机构的设立及法律服务活动的范围作出规定°

在中国国内设立的外国律师事务所的代表机构，允许在中国国内开展以下内容的法律服务业务° 第一，提供该外国律师事务所律师已获准从事律师执业业务的国家法律的咨询，以及有关国际条约´国际惯例的咨询；关于中国法律，只能开展提供法律相关信息的业务；第二，接受当事人或者中国律师事务所的委托，办理在该外国律师事务所律师已获准从事律师执业业务的国家的法律事务；第三；代表外国当事人，委托中国律师事务所办理中国法律事务；第四，通过订立合同与中国律师事务所保持长期的委托关系办理法律事务；第五，提供有关中国法律环境影响的信息[20]° 除了上述内容，外国律师事务所在中国的代表机构不得从事其他法律服务活动或者其他营利活动[21]°

因此外国律师事务所在中国的代表机构的外国律师不能直接提供在中国的法庭进行辩护的服务，外国律师事务所不能聘用中国的执业律师[22]° 然而，作为例外，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可以互相派遣律师，与中国的律师事务所共同营业[23]° 相互派遣的人数总共不得超过3人，不的派遣中国律师事务所及分所的负责人´外国律师事务所及中国外表机构的负责人作为法律顾问°

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设立的本部或分所的一家中国律师事务所，只能与在该试验区内设立的一家外国律师事务所进行共同经营[24]° 签订共同经营合同的中国与外国律师事务所以共同的名义受理中国法律事务´外国法律事务´跨境国际事务的委托，可以以共同的名义收取费用[25]° 但是，中国法律事务及跨境国际事务中的中国部分事务须由中方负责，外国法律事务及跨境国际事务中的外国部分事务须由外方负责° 中国的律师是外国律师事务所的，被派往其在中国的代表机构，不仅可以向代表机构提供中国法律相关的信息，也可以根据中国法律，直接代理民事´商事´诉讼以及诉讼以外的法律服务业务[26]°

其法律服务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的规定，制定本条例°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二条　外国律师事务所设立驻华代表机构(以下简称代表机构)，从事法律服务活动，适用本条例°

20) 中国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十五条

21) 中国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三十二条

22) 中国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第二十六条

23)2014年11月18日，市政府办公厅转发了市司法局制定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标志着自贸试验区法律服务扩大开放措施进入正式实施阶段°

王凤梅，“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联营焦点十问”，『中国律师网』,,(2014.12.10.)

24)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第十条

25)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 第十一条

26) Korea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10

2. 中-韩法律服务市场存在的问题

(1)韩国法律服务市场存在的问题

韩国的法律服务市场主要存在2大问题° 第一, 国内律师事务所和企业聘用的外国律师和外国法律顾问的业务范围区别不明确；第二, 第三阶段法律服务市场开放前, 围绕规定外国律师事务所和韩国律师事务所的合资形式和股权比例范围的问题° 首先, 关于国内律师事务所和企业聘用的外国律师和外国法律顾问的业务范围的区别, 根据韩国《外国法律顾问法》的规定, 在韩国作为外国法律顾问开展业务的外国律师, 必须按照法律程序进行注册°

但是, 以前的国内事务所或企业聘用的外国律师们与外国法律顾问的业务没有明确的区别, 有人对法律规定本身的时效性提出了质疑° 即使韩国完全开放法律服务市场, 外国律师不能在韩国的法庭代理诉讼, 事实上, 一般的外国律师的业务与外国法律顾问的业务基本上是相同的°

[表 13] 韩国十大律师事务所的外国律师的现状[27] (2013年 4月标准)

	美国	中国	英国	加拿大	澳大利亚	俄罗斯	德国	法国	瑞典	缅甸	柬埔寨	越南	秘鲁	新西兰	日本	total
Kim& Chang	147	7					5	3	1						1	164
Bae, Kim & Lee LLC	33	6	1	1	2	1										44
Lee & Ko	36	5	1	1	1	1										45
SHIN & KIM	31	5		2	1	1	2									42
Yoon&Yang LLC	14	1				3	1								1	20
Yulchon LLC	33	2		2	1	2	1	1		2			1	1		46
BARUN	7	1												1		9
LOGOS	5	1								6						12
JIPYONG	9	6	1		1	1				3	2	1				24
HMP	2	1		1	1											5
total	317	35	3	7	7	8	10	4	1	11	2	1	1	2	2	411

韩国根据签署FTA协定开放法律服务市场以前, 律师事务所和企业习惯于聘用不能注册外国法律顾问的外国律师, 间接地进行外国法律相关的咨询° 当时的咨询, 以辅助韩国律师的形式开展, 无需另行取得资格认证° 根据《外国法律顾问法》的规定, 外国法律顾问和外国法律顾问事务所应受法务部和大韩民国律师协会的监督等, 作为一般的外国律师开展业务的话, 可以不受约束地活动, 但注册外国法律顾问后, 可能产生必须遵守复杂的程序的情况[28]°

27) 임순현, "국내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록싸고 논란", 『법률신문』, (2013.06.03)
28) Korea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32

第三阶段法律服务市场开放之前，2015年3月召开的法律修改听证会上，法务部规定参与合资的外国律师事务所的投资比例最多不得超过49%，合资事务所的外国人合伙人的数量不得超过全体合伙人的一半，合资主体为外国律师事务所和国内律师事务所°与此相对，外国律师事务所强调韩国法务部的修改意见过于严格，使得对韩国法律服务市场的投资价值降低，主张应当征求完善制度的方案[29]°

[表 14] 韩国内外国律师事务所现状[30]

名称	设立日	国家
Ropes & Gray LLP	2012. 07. 19	US
Sheppard Mullin Richter&Hampton LLP	2012. 07. 19	US
Clifford Chance LLP	2012. 07. 19	EK
Cohen &Gresser LLP	2012. 09. 14	US
Slmpson Thacher & Battlet LLP	2012. 09. 14	US
Mc Dermort Will& Emery LLP	2012. 09. 26	US
Paul Hastings	2012. 09. 26	US
Cleary Gottleb Steen & Hamilton LLP	2012. 09. 26	US
Squire Sanders LLP	2012. 09. 26	US
Covington & Burling LLP	2012. 10. 18	US
O' Melveny & Myers LLP	2012. 11. 06	US
K &L Gates LLP	2012. 11. 15	US
DLA Piper LLP	2012. 12. 24	EK
Herbert Smith Freehills LLP	2013. 02. 20	EK
Greenberg Traurig LLP	2013. 02. 20	US
McKrnna Song & Aldridge LLP	2013. 03. 05	US
Linklaters LLP	2013. 04. 11	EK
Baker & MCkenzie LLP	2013. 04. 25	US
Skadden Arps State Meegher & Flom LLP	2014. 03. 17	US

*资料：韩国法务部

(2) 中国法律服务市场存在的问题

中国的法律服务市场存在的问题主要可以分为2点°第一，外国律师事务所原则上不能聘用中国律师；第二，中国政府对外资律师事务所实施差别税收待遇°首先，中国禁止外国律师事务所聘用中国律师，使入驻中国的外国律师事务所不能全面的提供法律服务°例如，中国的职业律师即便被外国律师事务所聘用，必须向中国司法部撤销自己的律师资格，因此不能开展外国律师事务所的中国律师实质需要的业务°中国这样的政策限制了在中国的外国律师事务所的业务，也限制了消费者在法律服务市场上可以选择的机会，从中国律师的角度来看，限制了他们在外国律师事务所工作´增强处理国际事务能力的机会，由此可见，这样的政策抑制了中国法律服务市场的成长°中国政府对外国律师事务所实施差别收税待遇，使外国律师事务所在与中国律师事务所的竞

29) 양병훈, "법무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지분 49%로 제한", 『한국경제』, (2015.03.10)
30) 이경기, "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달, 법조계는 지금…", 『내일신문』, (2013.08.09.)

争中处于不利的地位°

具体来说，在中国的外国律师事务所被分类为企业所得说上非居民法人的固定营业场所[31]，适用25%的企业所得税率[32]，而中国律师事务所被分类为税收目的上的个人营业场所，适用5～35%的5层级税率° 另外，外国律师事务所的职工，最高须缴纳高达45%的累进个人所得税，而中国律师事务所的中国人合伙人们不是个人所得税的纳税对象° 与税收政策相关的差别政策及政府对服务相关的制约，在中国加入WTO时，约定本国的法律服务情况，存在与国民待遇抵触的措施° [33]

3．小结论

关于韩国的法律服务市场中存在争议的问题° 第一，入驻韩国的外国律师事务所也可以聘用未注册外国法律顾问的外国律师，不能说有失公平° 但是，韩国律师事务所和企业中现有的外国律师未注册外国法律顾问的现象，利用了目前《外国法律顾问法》法律适用不明确´ 模糊的弱点，因此韩国政府应当以在注册外国法律顾问的情况下区别其与一般外国律师之间存在差别的特点及区别为中心修改法律°

第二，第三阶段法律服务市场开放之前，外国律师事务所的最高持股比例限制在49%，合资事务所的外国人合伙人的数量不得超过全体合伙人的半数等限制，是使处于相对弱者地位的韩国律师事务所今后能够与国外的律师事务所在对等的地位上竞争所需的最小限度的“缓刑期”° 在中国和韩国之前，日本的法律服务市场开放被认为是成功的典范° 即便如此，日本也是在开放法律服务市场后经过17年分阶段扩大开放程度的[34]° 也就是说，韩国在开放法律服务市场时，在具备竞争力之前也需要一定的时间° 但是，韩国政府也应当为与对方国家的律师事务所需要合作的情况做准备，不断交流意见，努力改正立场上的错误°

中国的法律服务市场中存在争议的禁止聘用中国律师´ 对外国律师事务所实施差别税收政策，从想投资中国市场的外国律师事务所的角度来看，的确是较高的障碍° 但是，与中国一样对法律服务市场的开放持谨慎立场的韩国，多少可以理解中国对法律服务市场的限制政策°

因此，中国考虑向作为FTA协定缔约国的对方国家逐渐开放法律服务市场采取灵活的政策，应该说是比较明智的° 中国与香港通过签署《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CEPA），在一定程度上开放了法律服务市场，通过紧密的合同达成了显著的效果° 中国在法律服务市场开放的问题上，通过签署FTA协定分阶段逐渐地进行开放，保护国内消费者，维护安定的市场秩序，为了促使国内法律界增强竞争力，应当进行多角度的讨论与努力°

---

31)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第二条 企业分为居民企业和非居民企业°
本法所称居民企业，是指依法在中国境内成立，或者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但实际管理机构在中国境内的企业° 本法所称非居民企业，是指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且实际管理机构不在中国境内，但在中国境内设立机构´ 场所的，或者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 场所，但有来源于中国境内所得的企业°

32)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第四条 企业所得税的税率为25%° 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适用税率为20%°

33) 산업연구원(2014), “한-중 서비스 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10면.

34) 임순현, "일본 최대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2014.10.24)

Ⅳ. 促进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的措施

本章将对中-韩法律服务市场开放后，中-韩两国合作促进发展的方向提出建议。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可以成为两国律师事务所通过学习经营技巧和服务以提高法律服务能力和质量，提升国际竞争力的机会，而且可以提高开拓新市场的可能性。本章将对促进中-韩两国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法律服务业务的方案和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通过合并提高竞争力的方案进行研究。

1. 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设立韩国律师事务与中国律师事务所推进业务合作

中国政府对设立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的律师事务所给予了各种优惠，应当充分利用这些优惠政策。[35]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开放领域有金融服务、航空运输服务、商业服务、专家服务、文化服务及社会服务领域。其中，社会服务领域中包括了法律服务市场的开放，暂停或废止了对投资者的资格要求、股权比例限制、经营范围限制等进入限制措施。因此，韩国律师事务所有必要在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设立韩国律师事务所的代表机构，与中国律师事务所推进业务合作。
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通过业务合作，可以结合韩国的技术与中国的资本思考如何进入第三国市场。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共同向企业提出收购方案，企业收购后，通过在当地建设工厂进入第三国市场，可以取得巨大的利益。韩国国内因上海汽车集团并购双龙汽车案件对并购抱有不良的印象[36]，但如果能够充分利用并购对第三国投资，则可以成为中-韩共存的机会之一。
2015年4月15日，中国首家自由贸易试验区内的中外律师事务所联合经营的示范案例已经出现，北京奋迅律师事务所与美国的Baker&McKenzie律师事务所开始联合经营[37]。中国律师事务所通过外国的大型律师事务所的全球网络，可以促进海外各地区客户的中国投资相关业务。另外，可以将高端人才集聚到中国，强化国际法律业务的专业性，相互传授法律服务的管理技巧，这一点具有非常重大的意义[38]。

2. 中-韩律师事务所之间的合并

中-韩两国针对特定的专业领域，通过合并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来确保竞争力。中-韩两国签署的FTA协定是东北亚地区首个FTA协定，将成为联结中日韩形成一个贸易区的基础。但是，律

35) 中国政府网，http://www.gov.cn/zwgk/2013-09/27/content_2496147.htm，(2015.05.30. 방문)
36) 상하이 자동차는 이러한 쌍용차를 2005년에 인수했지만, 2009년 법정관리에 넘김으로서 먹튀 논란이 있었다.
김태환, "신뢰 회복 메시지 전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코노믹리뷰 』, (2015.01.18)
37) Baker & McKenzie , http://tuney.kr/3Xx4FV，(2015.05.30.방문)
38)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http://me2.do/F3ghzwpD，(2015.05.30.방문)

师事务所的业务本身就是以企业咨询为中心，涉及金融´国际投资´知识产权´劳动关系等各种领域的业务，通过中–韩两国律师事务所的合并，确保在亚洲市场的竞争力，可以形成未来亚太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基础°若同属亚洲文化圈的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合并，可以确保文化相似性与同质性，而且中–韩两国在第一位置上十分接近，合并后可以以最低限度的试行错误达到最大的效果°

例如，针对特定的专业领域，通过韩国中小规模的律师事务所与拥有强大的资本能力与国际网络的中国律师事务所之间的合并，克服国内市场的限制，能够探索跳跃与战略°在政治´经济´文化等社会的多个领域，地理上的影响已经减小了，开放法律服务市场最终也会实现°在这样的情况下，中–韩两国若不确保在亚洲法律服务市场上的竞争力，将难于进入世界法律服务市场，必须通过中–韩两国的律师事务所的合并来确保竞争力°

Ⅴ. 结论

中–韩两国在东北亚地区经贸领域中占有举足轻重的地位,为了中–韩两国的经济发展需要重视努力服务贸易领域的激活°其中，法律服务是典型的知识密集型服务业[39]°因为，知识积累率也很高，所以，比其他服务行业国家之间自由转移也容易°因此,中韩两国政府也需要努力法律服务产业的发展°

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可以成为两国律师事务所通过学习经营技巧和服务以提高法律服务能力和质量，提升国际竞争力的机会，而且可以提高开拓新市场的可能性°中–韩法律服务市场的开放是韩中两国面临的重要问题°因此，韩中两国在共同努力下，积极地实行开放对策的话，中–韩两国能把握更强的国际竞争力以及夺得东北亚地区的法律及其他服务领域的领导地位，就经济联系的核心国家的发展°在区域一体化和经济全球化的贸易环境下，中–韩有必要更进一步扩大服法律服务市场，实现双赢°

39) 최남석,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14.04.23.)

〈参考文献〉

新闻资料

정진건,"중국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창, 어디로 향하나?", 『MK뉴스』,(2015.01.08.)
송경재,"아시아 상반기 M&A 사상최대", 『파이낸셜뉴스』,(2014.07.09.)
정지성 · 이용건, "외국로펌 국내 M&A 싹쓸이", 『매일경제』, (2014.07.17.)
박지연, "외국로펌 '강한 반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공청회", 『법률신문』, (2015.03.12.)
임순현, "국내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록싸고 논란", 『법률신문』, (2013.06.03.)
양병훈, "법무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지분 49%로 제한", 『한국경제』, (2015.03.10.)
이경기, "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달, 법조계는 지금…", 『내일신문』, (2013.08.09.)
임순현, "일본 최대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2014.10.24)
김태환, "신뢰 회복 메시지 전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코노믹리뷰 』, (2015.01.18)
최남석,"법률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법률서비스 수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대한변협신문』,(2014.12.22)
王凤梅,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联营焦点十问”, 『中国律师网』,,(2014.12.10.)
人民网, http://me2.do/5J7seWDM, (2015.05.28.)

网站资料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http://www.legalbusinessonline.com
다청(大成)로펌,http://me2.do/FkMqXCIe
한국 법무부, www.moj.go.kr
대한 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한중FTA, www.fta.go.kr/cn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
Baker & McKenzie , http://tuney.kr/3Xx4FV,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eHcPlyw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http://me2.do/F3ghzwpD

이봉걸(2014).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2면.

최남석, “한미 FTA발효와 법률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14.04.23.)

산업연구원(2014), “한-중 서비스 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10면.

장운정(2012), “한 · 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유학생 역할의 중요성 및 문화외교

김미혜, 진희
북경사범대학교

요 약

'슈퍼 차이나'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중국, 향후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예상하는 중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물밀듯이 중국으로 온다. 한국 또한 1992년 8월 한·중 수교 후 한국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이후 k-pop, 드라마와 같은 '한류' 에 큰 열기가 가해졌으며, 21세기에 와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의 패션, 미용, 화장품 등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TV·영화 촬영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과 중국은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나 앞으로는 양국의 인문교류와 협력이 중요시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유학생 개개인 모두가 자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외교관이며, 미래 "한·중 교량의 리더"인 양국유학생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유학생의 주요 문제점인 '언어소통'과 '교류부족'을 토대로 문화교류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외교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따른 학교측, 국가, 매체전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프트파워를 접목시킨 양국간의 문화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결과 학교측 건의는 1+1 Partner program과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류 연합동아리, 국가는 한중 합작TV편성과 양 국가 측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매체를 통한 전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한 문화외교방안으로는 점유율이 높은 웨이보 (微博) , 웨이신 (微信) 등의 SN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간의 문화협력에 대한 방안들을 살펴보았으나 정부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과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이끌어갈 한중 청년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긍정적으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문화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유학생 본인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폭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양국의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외교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유학생, 한중, 문화외교, 소프트파워, 교류, 협력

I. 서론

1. 연구주제

한·중 유학생 역할의 중요성 및 문화외교

2. 본 연구의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2015년은 한중 수교 23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한중간의 교류는 지난 23년 사이 교역규모가 17.3배(2014상반기)나 늘어났다. Kotra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한중 교역총액이 1992년의 63억 달러에서 2289억 달러로 그 규모가 36배에 달하였으며, 한중 교역상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다. [1)] 교역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도 양국은 다양한 교류와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심지어 배역을 맡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한류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온 상태이며,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도 굉장히 긴밀하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에 맞춰 한국은 경제, 문화, 외교 등 중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习近平)현 중국국가주석은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젊은이들이 한·중 양국의 우애를 계승하기 위한 교류

[1] kotra 중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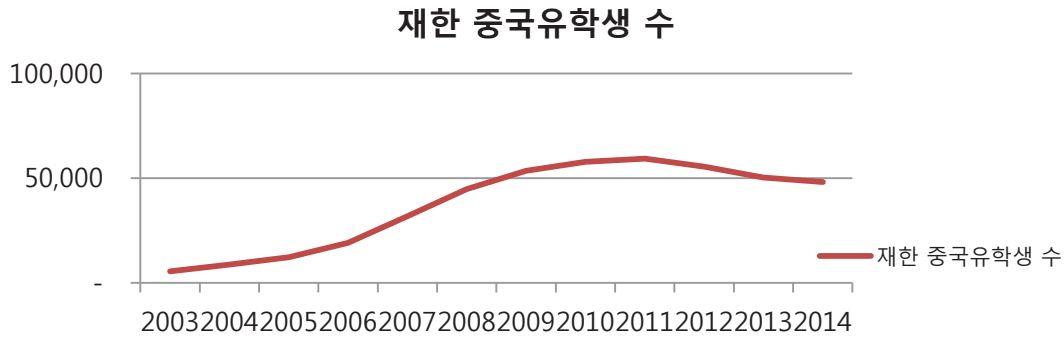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으며, "인문교류" 와 "협력" 을 강조하였다. [2] 위와 같이 이러한 때에 한국, 중국 양국 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민간외교관인 한·중유학생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한중 교량의 역할을 하는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유학생 역할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소프트파워를 접목시킨 양국간의 문화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유학생에 필요한 문화교류와 소프트파워와 문화외교의 요소를 분석하고, 문화를 통한 협력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양국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전파시키고, 문화외교를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개인과 개인이 하나의 작은 외교부터 시작해 학교, 국가 측의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한·중 교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Ⅱ. 본론

1. 한중 유학생 현황 및 영향분석

가. 한중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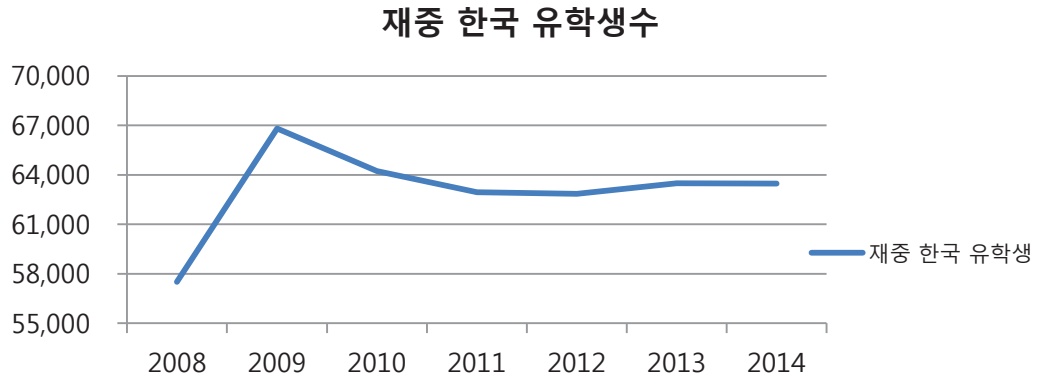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학생수	5607	8677	12312	19160	31829	44746	53461	57783	59317	55427	50343	48109

〈표1〉 재한 중국유학생수 출처: 한국 통계청

대한민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5천명이었던 중국 유학생이 2011년도에는

[2]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习近平在韩国国立首尔大学发表重要演讲 强调中国始终做维护和平的国家、促进合作的国家、虚心学习的国家，同韩国共创中韩合作未来，同襄亚洲振兴繁荣』2014.7.4(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533.노식)

5만9천명으로 최고치를 달하였다. 2014년도 국내 총 외국인유학생은 8만 4천명에 이르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5만 명으로, 국내 총 외국인유학생 전체의 60%를 육박했다. 재한 중국인유학생수는 많지만, 보시다시피 〈표〉1를 보면 재한 중국유학생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학생수	57504	66806	64232	62957	62855	63488	63465

〈표2〉 재중한국 유학생수 출처: 한국 통계청

2014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은 21만9천명에 달하며, 그 중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도 2014년 아시아 유학생 11만 명 중에 6만 명이 중국을 선택해 한국유학생들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많이 찾는 국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양국의 유학생들이 다방면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 한중 유학생의 고충

먼저 양국 유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끼리끼리 문화'로 인한 교류의 부족함이다. 필자의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은 유학생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동아리 또한 중국인동아리, 유학생 동아리로 따로 나뉘어져 있어 자신이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중국인학생들과의 교류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식사시간, 수업 때도 한국유학생들끼리만 모여 다니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바로 중국유학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끼리끼리 문화란 같은 국가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을 말한다. 유학생활 중 언어 실력이 퇴보하는 일이 발생하는 계기도 사실 이런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초래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에 유학을 왔지만 많은 시간을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인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중국에 머물러있더라도 당연히 언어실력이 향상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있어 중국학생들과

교제하는 일이 매우 드물며, 다가가고 싶어도 재학생과의 활동이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 교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언어장벽 또한 유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 중 일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한국에 가면 한국어를, 중국에 가면 중국어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하지만 유학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지 못한 언어에 대한 대비의 소홀함과 언어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자동적으로 성적부분에서 낭패를 보는 상황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대학의 중국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아닌'차별'과'인식문제'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부족한 학사관리가 원인이 돼 "한국이 비우호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라는 결과와 2013년 4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인 유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활 만족도는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중국의 지인에게 한국 유학을 권유하겠는가라는 질문에'부정적'이라고 답한 일본 내 유학생에 비해 중국유학생은 3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이러한 재한 유학생들의 실태는 1992년 수교 이래 한중간의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상호접촉이 질적으로는 한계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이며, 중국유학생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지 않나 싶다.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한·중유학생의 공통의 문제인 교류문제 및 언어문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유학생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중국 유학생을 접하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한국의 '매력'을 통한 인식문제 해결방법에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문화외교

가. 문화외교의 개념

1) 문화외교란?

문화외교는 예술, 언어, 교육 등 '문화'를 수단으로 실행하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문화외교의 근본적인 목표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4] 다시 말해 문화외교는 정부기구 혹은 정부기구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이 주체가 되어 타국의 정부와 외국인들에게 예술, 언어, 정보 등을 수단으로 하여 외교를 펼친다. 이로 인해 자국에 대한

[3] 김우종,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011

[4]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의 관계: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를 담아내는 가장 큰 그릇이며,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더 나아가 상대국 내 자국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이다. 이 점에서 공공외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외교는 전통 외교를 보충하거나 뒷받침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교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Richard T.Arndt 전 국무부 문화외교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간섭 없이도 자연스레 자란다고 했다. 이것이 맞는다면 문화외교는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식적인 외교일 때, 정부를 도와주고 국가적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에 쓰여진 대로 문화외교는 정부의 일이지만, 민간부분 또한 중요하다. 정부자체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유기적인 성장의 영향을 정부의 방침대로 정의하고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시도될 뿐이다. 문화외교는 이러한 요소들과 성과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시도한다. 그러므로 문화외교는 정식적인 외교일 때 성립된다. 하지만 민간부분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5] 그러므로 문화외교는 단순히 정부를 주체로 하는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즉 공공외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문화외교는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외교에 매우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한국외교의 중점은 정치분야에 국한되어 있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통상이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였다면, 2000년에 들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대두로 '문화'가 세 번째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 Soft power

한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지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인위적인 요소들이 그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경제, 정치, 기술 등 제도적인 측면과 문화, 교육, 외교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실력 또한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 국제관계의 성격이 하드파워중심이었다면, 현 국제관계의 성격은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나날이 갈수록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다.

앞서 여러 차례 소프트파워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소프트파워란 무엇인가? 소프트파워(soft power)또는 연성권력(軟性權力)은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소프트파워란 설득의 수단으로서 무력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즉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6)]

특히나 국제적 맥락 차원에서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한 국가의 문화나 사상, 기회의 보장,

---

[5] "Cultural Diplomacy, political influence, and integrated strategy," in strategic influence: public Diplomacy, Counterpropaganda, and Political Warfare, ed. Michael J. Waller (Washington, DC: Institute of World politics press, 2009), 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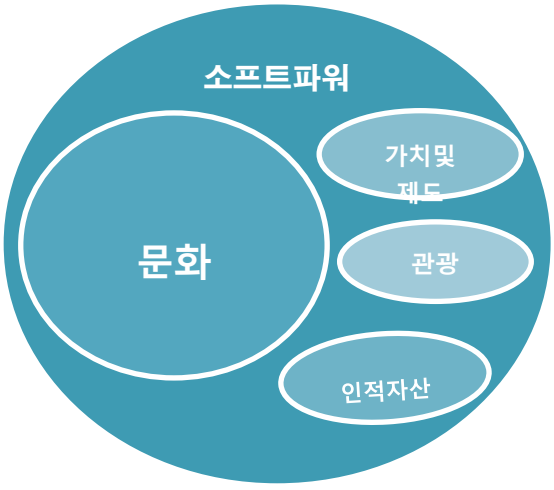
[6] 조지프 나이는 1990년에 출간한 《주도국일 수밖에 없는 미국: 미국 국력의 변화하는 본질》(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이라는 서적에서 이 용어를 만들어냈으며, 더 나아가 2004년에 출간한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권리 등과 같이 그 나라가 추구하려는 국가정책 과 정치적 목표 등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프트 파워란 특정한 국가의 추구하는 체계를 존중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본보기를 따르게 하면서,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권력이다.

나이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측면을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의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다.

자국이 통제하기에 무척 힘든 소프트파워는 가치, 문화 등 주요 요소들을 통해 매력을 어필하는데 그 중 '문화'의 비중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예를 들어 런던 하면 신사, 2층 버스를, 일본 하면 만화, 온천, 초밥 등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음식, 장소, 문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한 국가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가치와 인지도도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 또한, 권력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권력은 다름아닌 소프트파워다. 즉 소프트 파워는 정보는 공유하는 능력, 즉 신뢰를 얻어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그림1〉 한국 소프트파워의 주요 자산 (자료: 한국외교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볼품 없었다. 자동차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제국가'에 불과했으며, 그저 분단, 북한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이 '한류'라는 이름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배우려는 움직임도 늘어갔다.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운영하는 국제정책대학원 학생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며, 한해 150명 가량의 외국인이 한국식 정책과정을 배우고 현지로 돌아가 정부와 기업에서 활동한다.[7)]

[7] 『한국경제신문』, 『 "소프트파워 배우자"…외국인들 ' 한국 성장모델' 열공』, 2012. 6. 14

다. 문화외교와 soft power의 관계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 "2014/15 모노클 소프트파워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엘, 러시아, 노르웨이보다 높은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다.[8] 스마트 폰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 국제행사,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온 덕분이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문화외교로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중국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조사를 한결과, 중국학생들은 한국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한국 하면 "김치"와 "오빠"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보통 중국의 CCTV 국제 채널에서 본 한국에 대한 사건이나 인터넷을 통한 몇몇의 연예인 정도나 알뿐이다. 또한 아래 사진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중국음식점 간판이나 메뉴 판을 보면 한국의 김밥을 '寿司(일본초밥, 스시)' 라고 표기하며, 대다수의 중국사람들도 '寿司 (shou si) '라고 부른다. 심지어 바이두 검색사이트에서 '寿司'라고 검색하면 김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명확한 국가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한·중 양국의 인문왕래의 확대와 각국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주요자산 요소들을 통해 문화외교를 실현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프트파워랑 문화외교는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다.

〈사진1〉 직접 찍은 "할리우드" 메뉴 김밥 표기 명

[8] http://monocle.com/film/affairs/soft-power-survey-2014-15/

〈사진2〉 바이두에서 찾은 김밥 출처: 중국 바이두

3. 한중 유학생과 문화외교의 관련성

가. 한중 유학생의 중요성과 역할

한 국가의 이미지는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로 외국인의 눈에 비춰지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각국에 거주하는 한·중유학생들은 양국 교류의 "문화사자(使者)"로 써, 그들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시로 중국 유학생은 분명히 자신이 습득하고 체험한 한국의 모든 것을 자국민 또는 타국민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정보전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달을 통해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한국에 대한 인상과 기본적인 국가이미지를 차차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스스로 세워 나갈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인상을 다른 국가에 전파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직접 매개로 하는 전파는 신뢰성이나 의존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각 국의 교육산업정책은 산업 측면에서 유학생의 유치를 증가시켜 왔다. 즉 유학생들은 체류를 하면서 관광과 관련 소비계층으로 기능하기도 하므로 교육과 소비라는 부분에서 중시된 것이다. 이외 중요한 요인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프트파워의 증대를 즉 자국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9)]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화외교는 기존의 정치, 경제와는 또 다른 외교력의 새로운

[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1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전통적인 하드파워 중심의 전통외교만으로 더 이상 국가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외교가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한중 유학생 상호간의 교류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유학생들은 상대국에 가서 학문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 미래에 있어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넓히고 교역을 포함한 교류를 증대시키며 상생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화협력방안

가. 학교측 방안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추진 계획을 세웠다.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10]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통한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우호 여론 형성, 효과적인 민간외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운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친한(亲韩)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제도나 인식이 부족하며 오히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국내 학생과 유학생이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류 정책과 방안으로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1) 1+1 partner program

1+1 partner program이란? 대학 내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1:1 상호교류활동을 의미한다.

대상

A, B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언어소통을 목적으로 한국대학 재학 중 한글에 어려움이 있는 중국인유학생과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학생. 중국대학 재학 중 중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인유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B그룹은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중국인유학생, 중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한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방법

A(언어)그룹은 매주 혹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학습주제 자유) 예) 1시간의 계획하에 30분 한국어, 30분 중국어 공부 실행

B(문화)그룹은 격주에 한번 중국,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명소, 박물관,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탐방을 간다. 당국학생이 가이드가 되어 유학생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한다. 예)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선택하거나 전통음식, 문화를 겪을

[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1

수 있는 곳을 모색하여 체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 학기 마다 A그룹, B그룹 각 3팀씩 우수 그룹을 선발해 수상, 장려금 지급. 모든 활동팀의 결과는 유학생 연구에 사용가능.

기대효과

첫째, 집중도 증가. 1:1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과 재학생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소통하며 교류한다. 둘째, 언어장벽 보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학습에 흥미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셋째, 상호교류의 출발점을 더불어 mentor와 mentee 역할을 수행 가능케 한다. 넷째, 중국유학생의 반 한국 인식을 대화와 교류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도와준다. 다섯째, 탐방을 통해 당사자는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으며, 유학생은 자국민의 상세한 설명으로 신뢰감 증진, 흥미를 유발 시킨다. 또한 유학생들은 교통수단문제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

2) 유학생을 위한 문화교류 연합동아리 개설

각 대학교마다 문화교류 동아리를 개설하여 매주 한번씩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 소개를 중점으로 한국음식을 만들기, 예절배우기, 춤, 태권도 등 분야를 선정해 K팝, 드라마와 또 다른 한국의 '멋'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매 학기 말에 각 학교의 문화교류 연합동아리가 모여 행사를 열어 유학생들이 그간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실력을 뽐내기 위해 대회를 주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이러한 '한국 알리기' 활동을 통해 중국유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바탕 하에 대학생활의 활력소를 충전시키고, 한·중 청년들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마음을 열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 국가측면

1) 한중TV 합작채널 편성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달려라 형제' 등 중화 권에 진출한 한국 예능프로그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중 72.45%가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전체 중국 TV 채널의 43.27%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11] 이러한 한국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같은 문화권, 프로그램 성격과 제반 요건들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 하게 된 것이다.

중국CCTV와 한국TV 방송국을 연계하여 한 채널 안에 한중에 대한 예술, 교육, 전통, 문화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것이다.

[11] 『아주신문』, 『[AJU TV] 중국 TV 점령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국 시청자 반응? 』 2015. 5. 12

프로그램 내용기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K&C trip 여행프로그램. 중국에서는 한국학생이 중국의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음식과 생활풍습, 문화를 체험하고, 반대로 중국학생이 한국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지역을 통해 한국의 정서, 전통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좀더 상세하게 그려낼 수 있다.

둘째, 전통음식소개 및 제조과정을 담아내는 요리교실 프로그램. 식 문화를 소개하여 정확한 음식명칭과 조리법을 통해 가까이서도 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음악프로그램. 한국은 비단 한국의 K팝과 같은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판소리, 전통 악기로 연주한 한국 고유의 음악도 함께 알리며, 중국은 중국의 현대음악과 더불어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중국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극, 비파 등의 악기 연주 또한 동시에 알린다.

넷째, 한중 합작 드라마 혹은 영화 상영. 기존에 흥행했던,'신화', '이별계약','만추','삼국지'등 혹은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이다.
모든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APP,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간접적인 체험효과 및 TV매체를 통한 문화전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방면으로 상업적 문화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여행프로그램을 통한 사라져가는 문화와 명절 되 살리며,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의 공동행사를 통한 점진적인 진출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한중 TV교류 또한 사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화외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국의 문화교류증진과 더불어 한쪽 문화만 치우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2) 중국의 역할

중국은 중국어와 중국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보급하기 위해 2004년 서울에 공자학원, 주한 중국문화원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문화산업진흥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전파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 한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성을 느낄 수 있는 중국전통 춤이나 전통악기 등 중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지만 정작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거나,'중국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런 '배움 교실'을 정부측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좀더 많은 중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관을 활발히 운영해야 한다.

중국 내 한류 진출 시 급진적인 한류 정책보다는 중국문화를 인정하면서 중국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점진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상에 중국의 색을 알릴 수 있는 개선방안과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중국 정부측에서 제공하여 한중 공동, 자선적 행사 등을 통한 양국간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3) 한국의 역할

한국은 주로 김치, 드라마, K팝 등을 이용한 획일화된 방법으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한복, 탈춤, 판소리 등 전통적인 문화는 물론, 막걸리, 파전과 같은 식 문화, 전통가옥까지 외국인 입장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것이 널려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드라마로만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적 문화, 한국의 멋과 같은 '포괄적인 한류' 를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더불어 한국의 난타와 주방을 합친 'cooking 난타'와 같이 기존의 전통과 지금 시대에 알맞게 개조하여 퓨전의 방식으로 문화를 재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호응과 설문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의 기호와 맞게 구성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 중 몇 부분이라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면 소프트파워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매체를 통한 전파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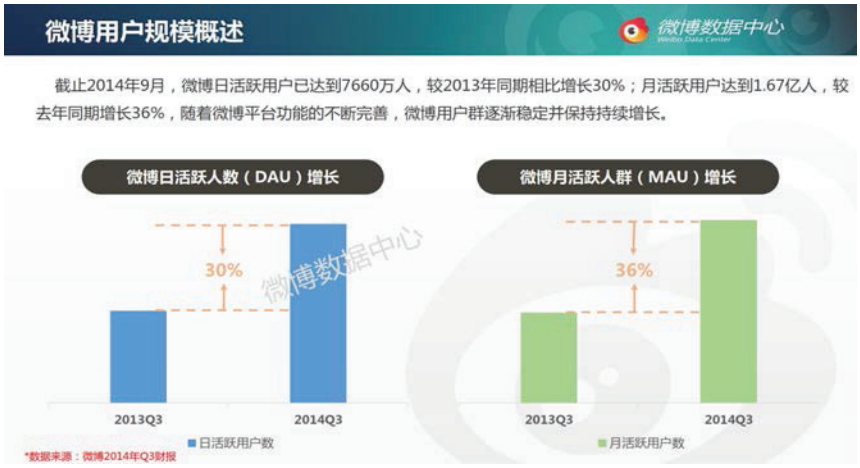
슈야오웬(XU Yao Wen) 중국 숭청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CIO)은 "모바일인터넷은 중요한 문화콘텐츠 접속의 채널로 중국 인구의 40%가 모바일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성공적인 IP 문화 상품을 만들면 영화,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으로 파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12)]

중국 미디어산업은 최근 6년간 15%씩 성장했으며 소비가 늘고, 정책지원, 모바일 산업이 강화되었다. 중국 문화미디어산업 성장의 3대 키워드로 90后(1990년 이후 출생 자), 모바일인터넷, IP(Intelectual Property)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익숙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90后는 문화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2]The Bell,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주목해야"[2015 China Conference]슈야오웬 숭청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C IO). 2015.5.22

〈표3〉 연령별 웨이보 사용자 수 출처: 웨이보

〈표3〉에서도 나타나듯이 연령별 웨이보 사용자중 90后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바일인터넷은 중요한 문화콘텐츠 접속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2013, 2104 웨이보 사용자 수 비교 출처: 웨이보

보시다시피 〈표4〉를 보면 중국 웨이보 사용률이 일년 사이에 각30% 증가했으며 2014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웨이보 사용자수가 2.5억에 달한다고 하였다.

영국의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연말에, 웨이신 사용자수는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증가하여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 중국사교매체 스마트 폰 응용의 무료메신저를 내놓아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지반에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13] (Financial Times 2015.3.14)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웨이신과 웨이보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현재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자가 중국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중국인이 많다. 그러나 정작 그것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중국에서 열리는 한국문화행사라던가 한국교류 활동에 대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방법이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분명히 중국인을 위해 개최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자 입장으로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늘날 미디어 매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선전의 중요성을 더 할 나위 없다. 보다시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문화미디어 산업을 통해 이런 정보습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face book처럼 한국에서 많은 기업이나 정부의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웨이보 (微博) , 웨이신 (微信) 등의 SN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 계정을 만들어 한국을 홍보하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나 혹은 한류에 대한 행사 및 정보를 중국의 웨이보에 계정을 만들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웨이신, 웨이보를 통한 미디어 전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원활한 참여를 통한 한국과의 교류와 인식이 호전되기를 기대한다.

Ⅲ. 결론

외교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문화외교는 정부측뿐만 아니라 민간외교라고도 볼 수 있으며,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문화외교를 통해 상대국 내 자국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외교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문화외교와 소프트파워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중간 정부의 역할 속에서 '한국','중국'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잇는 유학생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이며, 한중 유학생 개개인 모두가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며 동시에 작은'한국'과'중국'인 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작은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프트파워를 접목시킨 양국간의 문화협력에 대한 방안들을 살펴보았으나 정부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과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평판은 그 국가가 가진 국사적, 경제적 파워보다 유용하다는 미국의 정치학자 저비스(Robert Jervis)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

[13] 人民网，『英媒：微信用户突破5亿 腾讯移动互联网地盘扩大』，2015.3.20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여야 비로소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앞서의 해결책을 원활히 실행 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은 민족주의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호 협력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국문화 정신이 강하여 외국인들에 대해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반성해야 하며, 겸손한 태도로 외국인을 대해야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유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다양한 차원의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을 국내의 산업경제 인재로서, 귀국 후 중국 내 한국 전파 자로서 한·중 교류의 실제적 교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개방된 태도로 이들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역사 및 문화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며, 이처럼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중국에도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양국 유학생들의 문제점을 교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여 한·중 청년들의 우애를 증진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문화협력을 통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수어지교'처럼 한중 양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영문자료-

[논문]

▪ Jonathan Mcclory, 〈The New Persuaders Ⅲ〉 (A 2012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cience 616〉, 2008.3

[기사]

▪ MONOCLE, 〈 Soft Power Survey 2014/15〉, 2014.11
(http://monocle.com/film/Affairs/soft-power-survey-2014-15/)

-중문자료-

[기사]

▪ 人民网, 『英媒：微信用户突破5亿 腾讯移动互联网地盘扩大』, 2015.3.20

▪ 中商情报网 『2014年新浪微博用户发展报告』, 2015.1.28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韩国国立首尔大学发表重要演讲 强调中国始终做维护和平的国家´ 促进合作的国家´ 虚心学习的国家, 同韩国共创中韩合作未来, 同襄亚洲振兴繁荣』 2014.7.4

-한글자료-

[논문]

▪ Xu pan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과 한계 분석〉, 2012

▪ 구수화, 〈중국의 연성권력에 관한 연구: 대 아프리카 ODA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13

▪ 김우종,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011

▪ 신영미, 〈중국내 반한정서의 현황과 동인-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2010

▪쭈후,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한국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2013.2

▪최지영, 〈재한(在韓)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국제정치논총』

[단행본]

▪ 『KOTRA』, 〈중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삼성경제연구소』, 〈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2013.1.10

▪『외교부』,〈문화외교매뉴얼〉, 2010

▪ 『외교부』, 〈지구촌한류현황〉, 2014

[기사]

▪ The Bell,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주목해야”[2015 China Conference]슈야오웬 숭청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C IO). 2015.5.22

▪『아주신문』, 『[AJU TV] 중국 TV 점령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중국 시청자 반응? 』2015.5.12

▪ 차이나통, http://www.chinatogod.com/main/ctg_print_page.php?no=1049

▪『프레시안』, 『중국인 유학생들 한국 생활하며 반한 감정 생겼다』 2014.11.11

▪『한국경제신문』, 『 "소프트파워 배우자"…외국인들 '한국 성장모델' 열공』,2012.6.14

▪『한국일보』, 『발길 돌리는 외국인 유학생』, 2015.5.16

中韩留学生作用的重要性和文化外交

金美惠，陳曦
北京师范大学

摘要

拥有‘超级中国’这个称号的中国，预想今后成为世界一等经济大国的中国，是很多人潮水般涌入的地方。韩国在 1992 年 8 月中韩建交之后，以 k-pop 和电视剧等形式开始正式地介绍、向世界传播韩国大众文化，让‘韩流’发挥了很大的作用。到了 21 世纪，青年群体通过网络媒体为中心对韩国的时装，美容，化妆品等有所了解，使学习韩国语的人数正在逐渐增加。最近来韩国电视、电影取景地参观的中国人游客正在逐年增多，现在韩国和中国正在在多方面建立密切的关系，特别是今后两国的人文交流和合作越来越受到重视。

在这种关系之中，每个留学生都是代表自国的外交官，是未来中韩桥梁搭建的领导者。两国留学生的作用会成为未来更重要的因素。

本研究提出‘语言沟通’和’交流缺乏’是中韩留学生的主要问题，不但提出解决文化交流的问题对策，而且根据文化外交和软实力的重要性，具体地在学校，国家，媒体三部分，探索以软实力为重点的两国间的文化合作方案。例如在学校层面提出 1+1 partner 项目和外国人文化交流联合小组，国家提出中韩合作电视节目和两国方面的解决方案。并且通过媒体显示出传播的重要性，并积极地利用使用率极高的微博，微信等社交服务。

查看了一些两国间的文化合作的方案之后，发现即使政府或国家层次制定了一些政策，但如果不努力实施的话，所有的政策只能形式化。

因此首先最重要的应该优先消除带领未来的中韩青年的认识问题。为了积极地传播文化，应该以纠正这种个人心态为基本。韩国要改善对外国人的认识和态度，形成崭新的形象象征，使其

成为一个有吸引力的因素，作为韩国的软实力来有效地实现文化外交。

留学为留学生提供了开阔眼界看世界的机会。希望可以通过以留学生本人明显的目标意识，积极利用在中国和韩国的交流机会，完善自己健康的留学生活，进一步期待两国的互相合作的文化外交。

关键词：留学生，韩中，文化外交，软实力，交流，合作

Ⅰ绪论

1. 研究主题

中韩留学生作用的重要性和文化外交

2. 本研究的问题提出和研究目的

2015 年是中韩建交 23 周年。直至 2015 年，中韩之间的贸易交易规模相比于过去的 23 年间增长了 17.3 倍。根据Kotra的统计，2013 年，中韩交易额从 1992 年的 63 亿美元增长到 2289 亿美元，数量高达 36 倍。1这是自中韩开始贸易往来以来达到的交易额最高峰，展现出了世界上罕见的增长速度。中韩两国之间不但在贸易，在许多其他领域中韩之间都建立了联系。

目前，韩剧《来自星星的你》剧中角色的名字也为中国人所熟知，中国人对于韩流表现非常热情，许多专家预测未来中韩间将会有更加紧密的联系。韩国的很多工厂已经搬到了中国，很多人也在中国投资。因此，可以说中韩之间的关系很紧密，也及其重要。

为了保持与中国发展的同步性，就更加需要在政治、经济、文化等各个社会领域的专家。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首尔大学的演讲中提到“为了继承两国友爱的交流事业，期待中韩两国的青年人能有更多的交流机会，同时强调了要加强中韩两国间的人文交流。”2在这种时候，中韩两国留学生在中韩两国关系中的重要性就凸显了出来，并且这种重要性将越来越突出。因此作为建立

[1] Kotra，跟中国的交易和特征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习近平在韩国国立首尔大学发表重要演讲 强调中国始终做维护和平的国家、促进合作的国家、虚心学习的国家，同韩国共创中韩合作未来，同襄亚洲振兴繁荣』
2014.7.4(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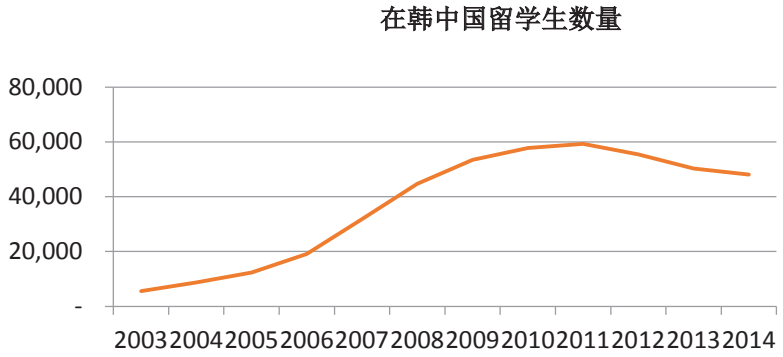
未来中韩交流桥梁的中韩学生遇到的问题急需解决，并提出解决方案。同时提出留学生的重要性和依据两国软实力提出文化交流方案是本研究的主要目的。

本论文是分析中韩留学生对于文化交流需求的必要性，以及软实力和文化交流的要素；通过研究两国文化特点提出可行的文化交流方案；来达到积极地传播两国的文化，提出如何面对文化外交的意见。从个人之间的外交开始，进一步找出学校，国家层面的解决方案，希望能从多个方面提出更多更好的中韩青年交流方案。

Ⅱ本论

1. 中韩留学生现状和影响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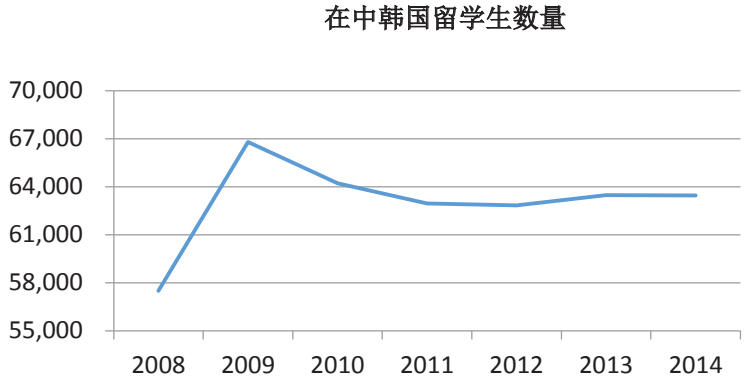
A. 中韩留学生现状分析



年份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留学生数	5607	8677	12312	19160	31829	44746	53461	57783	59317	55427	50343	48109

《表 1》 在韩中国留学生数量 来源：韩国统计局

据韩国教育部统计，2003 年，5000 名中国留学生在韩国留学，2011 年则有 59，000 名中国留学生，达到有史以来最高值。2014 年，韩国国内总外国留学生达到 84，000 名，其中中国留学生 50，000 名，接近韩国国内外国留学生总数的 60%。在韩中国留学生人数很多，但是从表 1 中也可以看出，在韩中国留学生数量从 2012 年开始到现在是呈不断下降的趋势。



年份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留学生数	57504	66806	64232	62957	62855	63488	63465

《表 2》 在中韩国留学生数量 来源：韩国统计局

2014 年，在国外的韩国留学生共有 219，000 名，其中在中国留学的学生占总数的 30%。韩国在亚洲各国的留学生共有 110，000，其中 60，000 选择中国，所以中国是在亚洲国家中韩国留学生人数最多的国家。

但是这种急剧的流入导致两国留学生在各个方面都面临着不少的困境。

B. 中韩留学生的困难

首先两国留学生共同的问题是：

第一，“扎推”导致交流的不足。笔者的学校中，留学生只和留学生相处，中韩两国学生的各种活动彼此分离。如果不主动和对方国家的留学生交流的话，学生之间的交流就被阻断了。甚至在就餐，上课时也可以看到韩国留学生只和韩国留学生一起相处的状态。在中国留学的最大问题之一就是这样的“扎推文化”。“扎推文化”就是人只和自己国家的人相处的倾向，它也是留学生生活中中文水平退步的原因。韩国学生来中国留学，大多数情况都只和韩国学生交往，除非有特殊的情况，接触中国人的机会很少。就算在中国呆很长时间，中文水平当然也不会有提高。这样的“扎堆文化”一旦形成，和中国学生相处的机会就更少了。留学生即使有交往的意愿也没有合适的机会和活动，想要主动交流也不是容易的事。所以说他们正在面临着交流的困境。

第二，语言的障碍也是留学生的压力之一。大部分中国学生期待能在韩国提高韩语水平，韩国学生则希望能在中国提高中文水平。但是留学生对于现实认识不足，没有一定的语言基础，所

以不能自由地交流，自然学习成绩受到影响。

韩国大学中中国留学生面临的最大问题是差别和认知问题。去年韩国外交部非公开进行的“在韩中国留学生状况调查和政策提案”调查结果表明：中国人对韩国产生否定态度，管理不足是重要的原因之一，韩国的形象变为“非友好”。该结果在 2013 年 4 月由韩国贸易协会国际贸易研究所调查得出，对象是 562 名中国留学生。按照外交部发表的“韩日两国中国留学生比较研究报告”得出，在韩中国留学生生活满意度相比于日本下降比例更大。就亲属是否推荐在韩留学这个问题，持否定态度的中国留学生相比日本而言高出 3 倍。3

中国在韩留学的困境也对自 1992 年的建交以来中韩间的全方面接触产生了限制，这点是十分令人惋惜的部分，也是留学生数量减少的主要原因。

所以政府的留学生政策要更具体，更现实些。中韩留学生的共同问题——交流问题，需要解决方案。特别是中国留学生受到的差别待遇这一问题的解决迫在眉睫。怎样使中国留学生从各方面感受到韩国的魅力是需要思考的。

2. 文化外交

A. 文化外交的概念

1） 文化外交

文化外交意味着以文化为手段的外交活动。文化外交根本的目标是“在国际舞台上增大自国的影响力”。当按照这个观点来分析时，文化外交与公共外交 4是相通的。并且，文化外交是以政府机关或者政府机构为主体，利用艺术，语言，信息等与外国政府和外国人展开外交。因此来提高外国对于本国的好感，增进相互理解，也是为了进一步改善自国形象和推进增强国家影响力等的外交活动。在这点上，可以看出二者的相似性。文化外交不是完善了传统外交的概念，而是形成了新的外交支柱。

前美国文化外交专家 Richard T. Arndt 说：“值得注意的是，像上面提到的文化外交只是一种政府活动，然而民间的交流也是不可忽视的，因为政府不会创造文化。所以只有用政府的力量来使这一方法变得更加有效。文化外交就是尽力在利用这些文化资源和成就来增强自己的国际影响力。5

[3] 김우종, 〈韩国和日本的中国留学生申办前略比较研究〉, 『国际贸易研究院』2011

[4]公共外交和文化外交的关系：公共外交里有软实力，文化外交是公共外交的下一层的概念。

[5] “Cultural Diplomacy, political influence, and integrated strategy,” in strategic influence:

几年前，文化外交都不是韩国政府关注的对象。21 世纪以来，文化外交成为了韩国外交活动的支柱。直到 1980 年，韩国外交都只局限于政治领域。1990 年开始，经济通商成为韩国外交的重要部分，2000 年以来，由于新媒体技术的发展和认识到软实力的重要性，文化外交成为韩国第三大的外交支柱。

B. 软实力

影响一个国家形象的因素有地理和人文两方面。像政治，科学，经济等方面，还有文化，教育，外交等软实力。目前国际关系的重点正在从硬实力转移到软实力，软实力的重要性越来越大。

文中多次提到软实力，但是软实力是什么呢？软实力是由哈佛大学的Joseph S. Nye Jr.提出的概念，软实力不是利用武力或者权利等强迫性的手段，而是说服，通过展现自身的魅力来获取影响力。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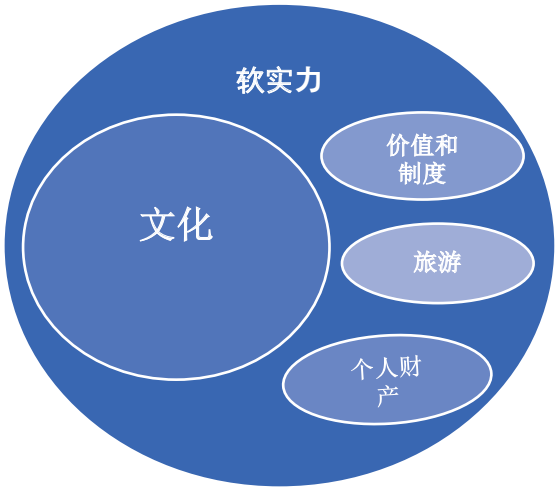
特别是在国际角度，软实力是与一个国家的文化或者民族主义，人权，及人权的保证相关联的，是与一个国家政策相关联的。软实力尊重特定国家的价值体系， 尊重国家的本质，以国家行为的合法性和道德观为基础。

要理解软实力的层面就包括文化，政治的价值，外交三部分。事实上，软实力是无法控制自身的一种力量。特别在国际层面想要控制软实力是非常困难的事情。要通过软实力的价值，文化等主要因素展现魅力，其中文化占的比重是不言而喻的。

例如伦敦的绅士，双层公交，日本动漫，温泉，各种各样的寿司这样的形象，就是那个国家的软实力。如果一个国家的食物，名胜，文化等能够广泛的传播，那么这个国家的能力和价值也上升了。而且在行使权力的过程中，吸引弱者的权利也是软实力的体现。这也就是软实力共享信息的能力，并且依靠于信任的能力

public Diplomacy, Counterpropaganda, and Political Warfare, ed. Michael J. Waller (Washington, DC: Institute of World politics press, 2009), 74-75.

[6] Joseph S. Nye Jr.在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1990）上显示软实力的概念，2004在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发展了软实力的概念。



<图 1> 韩国软实力的主要要素（来源：韩国外交部）

1990 年的韩国软实力不够强大。不过是生产，出售和汽车产品的'经济国家'，并以作为存在安保威胁的国家闻名过。不过最近 10 余年其他国家看待韩国的目光已经发生了改变。各种各样的电视剧、音乐等文化事业在叫'韩流'的名字中扩散，随之而来的是经济和社会全面的发展。在国策研究所韩国开发研究院(KDI)运营的国际政策研究生院学生之中，一半是外国人，每年 150 多名的外国人在学习韩式政策。这些外国人回到本国后，在政府和企业中工作。7

C. 文化外交和软实力的关系

过去几年前韩国的软实力正在日益变强。根据“2014-2015 年monocle软实力力度调查”，韩国超越俄罗斯，挪威，比利时，名列世界第 15 位。8通过主办国际活动，智能手机等的科学技术的发展，电视剧和KPOP的文化传播等，韩国提高了自己的国家形象。

通过软实力的文化外交，韩国增强了竞争力，但是在外国人中，韩国的形象还是没能明确地传播出去，外国人不能正确地理解韩国到底是什么样的国家。 笔者在周围的中国学生中做了小范围的调查，发现中国朋友虽然知道校内里有很多韩国人，但是如果实际上提到韩国，只会想到“泡菜”、“欧巴”等。 中国人一般通过 CCTV 了解韩国的新闻或互联网的一些演艺人员来了解韩国。参考以下图片：如大家看到的，大部分中国饭店招牌或菜单上韩国的紫菜包饭被标记为寿司(日本寿司)。甚至大部分的中国人也把紫菜包饭叫做寿司。如果在百度搜索网站上搜索“寿司”，结果

[7] 『한국경제신문』,『 "소프트파워 배우자"…외국인들 '한국 성장모델' 열공』,2012.6.14

[8] http://monocle.com/film/affairs/soft-power-survey-2014-15/

会显示出来紫菜包饭。这对于韩国人真的是令人遗憾的事。所以通过软实力正确地传播韩国文化迫在眉睫，使韩国的文化能够得到更准确的传播显得非常重要。要为两国的人文来往的扩大和两国国民的相互理解和爱好和平做贡献，软实力是主要的组成要素，并由此来实现文化外交。

总而言之，软实力和文化外交是像针和线一样不能脱离的关系。

〈照片 1〉 来源：中国百度

〈照片 2〉 中国菜单

3. 韩中留学生和文化外交的关联性。

A. 韩中留学生的重要性和作用

一个国家的形象通常不是由自身决定的，而是在外国人的眼中形成的。

因此居住在各国的留学生是两国交流的文化使者，在形成国家形象，宣传方面正在起着非常重要的作用。

例如中国留学生一定会把自己了解的韩国传达给本国人或别的国民，这个可以是一个信息传达。接受这种信息的人会通过这些信息形成自己对韩国这个国家的基本认识。并且中国留学生会自己建立韩国的国家形象，这样把自己形成韩国的国家形象传播到别的国家。这种个人和个人自助媒介的可靠性或依赖性尤其高。

各国的教育产业政策在产业层面下增加留学生的数量，造成留学生滞留。教育产业政策对观光和关联消费群体也起作用，所以教育和消费的部分应受到更多的重视。想要增加各国的魅力，在世界上增强国家的软实力，就要在公共外交的层面上开始增强留学生的申办和管理能力。

根据时代的变化，文化外交正在成为新的外交力量支柱，现在传统的硬实力外交的传统外交已无法完全发挥国家的外交力，因此应该定为把软实力作为基础的文化外交作为新的文化外交中心。为了实现这种目标，两国留学生的交流有非常重要的意义。留学生去对方的国家，学习知识和那个国家的文化，可以在未来扩大两国利益往来，增加包括贸易在内的交流， 可以成为发展共存的原动力。

4. 文化合作方案

A. 学校层面

中国教育部 2012 年制定了’学习韩国 2020 项目’推进计划：目标是到 2020 年增加 20 万名外国人留学生。9

政府想通过留学生形成对于韩国的中国友好舆论，实现有效的公共外交等。期待在韩国学韩国语言和文化的留学生回到本国成为“亲韩使者”。不过由于容纳或接受的制度和认识不足，国内学生和留学生都有很多不便。

所以，与盲目地增加留学生数相比，首先应以交流政策和可行的方案帮助留学生适应留学生活。

[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1

1) 1+1 partner program

1+1 partner 是 1+1 意味着大学内韩国学生和中国人学生 1:1 相互交流活动。

对象：

将学生分为 AB 两组，A 组是在韩中国学生和在中韩国留学生有语言沟通困难的留学生。以及在中国学习汉语的韩国留学生和想学韩国语的中国学生作为对象。B 组是以文化体验为目的。对象是对于想体验韩国文化的中国留学生，想了解中国文化的韩国留学生。

方法：

A 组(语言组) 每星期或根据各自的时间，具体地实行计划。(学习主题自由)

例)在 1 个小时的计划之下 30 分韩国语，30 分汉语。

选择 B(文化)群有可以每两周一次感受中国和韩国传统的游览名胜，参观博物馆等。本国学生作为导游，向留学生进行关于历史和文化的说明和介绍。

例)选择可以感受到历史和文化的名胜，或者可以体验传统饮食，文化的地方，游览之后，写出体验感受。

每个学期，A 群体，B 群中各选拔 3 队优秀群体，提供奖金奖励。所有活动队伍的结果可以用于留学生研究使用。

预期效果

1+1 program

第一，集中度增加。通过 1:1 项目，留学生和本国学生可以以更具体，更系统的方式沟通，交流。可以制定语言沟通和交流方案，第二，通过交谈和交流，可以增加学习兴趣。第三，以相互交流为出发点，一起作为 mentor 和 mentee 执行。第四，通过交流可以改善中国留学生的反韩国认识和韩国留学生的反华认识，可以创造积极的的国家形象。第五,通过探访,本人可以回味自国的文化和历史。留学生因为本国人详细的说明，来增强对国家的信任感，激发兴趣。并且可以帮助留学生消除交通工具问题的不便。

2)开设留学生文化交流联合小组。

各大学中，开设文化交流小组。以留学生为对象每周一次，开展各种各样的文化交流活动。以韩国的各种各样的文化介绍作为重点，例如做韩食，学习礼节，学习舞蹈，跆拳道等，可以学习除了 KPOP，电视剧之外韩国不一样的“美”。各学校的文化交流联合小组聚集在一起举办活动，留学生提前学习并展示也是一个好办法。

通过这种'宣传韩国'活动，增加了中国留学生的学习热情，同时大学生活也更加充实。增进中韩青年的友谊，敞开心扉，互相理解，构筑相互协助关系。

B. 国家层面

1)中韩电视合作

最近几年来，'我是歌手'，'爸爸去哪儿'，“Running Man”等韩国综艺节目进军中国的速度是无法想象的。北京青年报(北京) 报道称韩国人气艺能节目中 72.45%的节目向中国进军，中国全部电视频道的 43.27%正在播放韩国娱乐节目。韩国独特的想法和文化圈，节目特性使电视观众与其形成共识。

中国中央电视台和韩国电视台合作，在节目中播放关于中韩的艺术，教育，传统，文化等节目。

程序内容筹划如下：

第一，K&C trip 旅游项目。在中国韩国学生可以来往于中国的各种各样的地区，体验各地区的食物和生活风俗，文化。同样的，中国学生可以去韩国各地感受韩国的文化，有更多体验传统文化的机会，可以形成更具体详细的韩国印象。

第二，展示传统饮食和制造过程的烹饪教室节目。介绍饮食文化，通过介绍食物名称和准确的烹饪方法，使中国人即使在中国也可以近距离体验对方国家的饮食文化。

第三，现代和传统共存的音乐节目。韩国不仅仅用 KPOP 这种现代音乐，而且可以展示韩国传统戏剧，传统乐器演奏等韩国传统音乐；中国可以展示，在韩国不能感受到中国的传统的京剧，琵琶、古筝等器乐演奏，并且与中国的现代音乐相结合。

第四，中韩合作电视剧或电影。之前票房很高的'神话'，'晚秋'，分手合约'三国志'等中韩合作娱乐节目。

开发能够播放的所有节目的 APP，使其更便利。

期待效果

第一， 可以通过间接的体验和电视媒体的文化达到传播的效果。

第二， 通过这几个项目，可以多方面创造商业性文化的利益。

第三，通过旅游项目可以使即将消失的文化和节日重新焕发生机，感受传统文化。

最后，通过中韩联合活动为中韩交流双赢方案提供改进方向和建议。

这样中韩的电视交流也是一个文化外交手段。两国的文化交流更加公平，避免文化偏重，提出相互补充的解决办法。

2)中国政府方案

中国为了普及汉语和加强中国文化等软实力，从 2004 年在首尔设立孔子学院，驻韩中国文

化院。2009 年 7 月起国务院常务会议制定了’文化产业振兴计划’。不过这种文化传播的交流项目比起韩国来确实不足。很多韩国人想感受中国的传统性的中国传统舞蹈或传统乐器等中国的文化，但是实际上没有可以学习的地方；即使有，少数’中国文化院’的项目并不完善。因此中国政府可以完善’学习教室’方案，为了传播更多中国的文化，建立组织机构，制定具体的项目，使之更好的运行。

在韩流进入中国的时候，比起激进的韩流政策，韩国方面更需要渐进的走进，并且承认中国文化，不让中国感到异质感。中国应该摸索通过软实力，找出代表中国的色彩，来展示给世界中国的文化魅力。通过多样的改善方案和活动，由中国和韩国官方提供联合舞台，通过慈善性的活动等实现两国间互相的交流，对各种各样的文化交流活动做双赢的改善方案。

3)韩国政府方案

韩国主要利用泡菜,电视剧,KPOP 等单一化的形式形成了国家形象。而现在应重点介绍韩服，假面舞，和传统的韩国鼓词等文化；还有韩国米酒，葱饼之类的饮食文化；韩屋等。这些对外国人来说有趣的文化就是他们眼中的韩国。不是以演艺人员或单纯地有名的电视剧来介绍韩国。而是运用韩国式的文化，创造韩国的’总括性的韩流’。

与韩国的传统文化和现代文化混搭的’cooking NANTA’。传统的文化和当代韩国的 NANTA 和厨房,并且以混搭的方式对文化进行再创作。而且以韩国文化活动的中国人的响应和参与为基础，想出适合中国人的喜好的方法。

其中几个部分可以达到世界性的知名度，会成为软实力的强项，在国际舞台的影响力不断得到扩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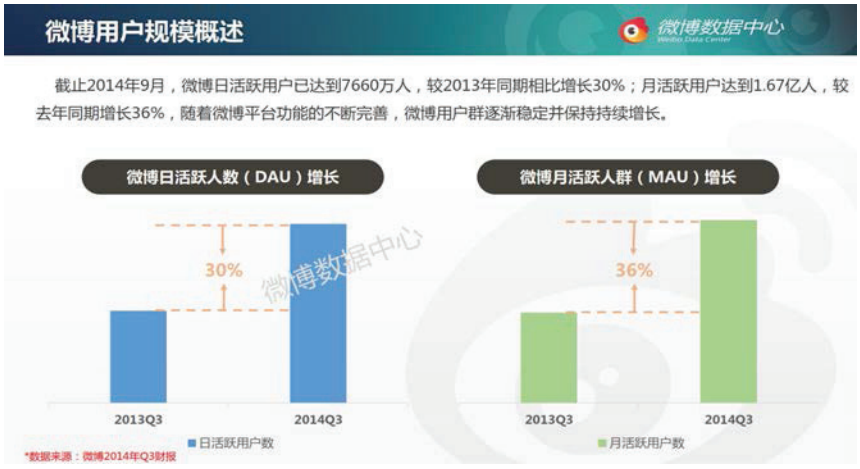
C. 通过媒体传播的重要性。

许耀文(XU Yao Wen)中国娱乐投资总监(CIO)说"中国人口的 40%正在使用移动互联网，移动互联网是重要的文化内容连接的渠道"

中国传媒产业最近 6 年间消费增长了 15% 以上，政府也加强政策支援互联网移动产业。从中国文化媒体工业成长的 3 大关键词——90 后(1990 年之后出生者)，移动互联网，IP(Intelectual Property)可以看出来，对互联网熟悉并且追求个性的 90 后会成为主要文化消费群。

<表三>微博月活跃人群年龄比重：新浪

在<表三>中可以看出，就用户年龄来说，90 后占有很大的比重，可以说是移动互联网重要的文化内容连接的渠道。



<表 4> 2013，2104 活跃用户数比较 :新浪

如大家看到的<表 4>，中国微博使用率在一年之间各增加 30%，2014 年 12 月结果表示微博用户数达 2.5 亿。

2014 年年末，英国的"Financial Times"报道，微信用户数比同期增加 41%，达到 5 亿。中国社交媒体智能手机应用的免费聊天工具的基地会在移动互联网领域扩大。(Financial Times

2015.3.14)10

目前移动互联网的用户占中国人口的40%，以后也会有越来越多的人会使用微信和微博。

在中国生活，而且喜欢韩国，想了解韩国文化的中国人很多。不过实际上会经常发生信息缺乏的情况。即使想参与在中国举行的韩国文化活动，韩国交流活动，可是由于信息宣传力度不大，明明是为中国人举办的活动，不知道有活动的人很多。这样的事情以笔者立场来说实在是太可惜了。

如今在媒体重要的兴起期间，通过互联网宣传难道不是非常重要的途径吗?通过正在快速地成长的中国文化媒体产业，弥补这种信息不足的问题。在韩国有很多像face book一样，通过SNS通知企业或政府的消息一样，在中国里积极地利用使用率高的微博，微信等SNS服务，申请账号，宣传韩国。在中国的微博申请帐户，使更多的人可以接触韩国外交部或对于韩流的活动和信息，可以得到微信，微博的媒体传播效应。并且期待中国人通过顺利参与的韩国的交流来使其对韩国的认识有所好转。

Ⅲ. 结论

成为外交力重要支柱的文化外交分为官方和民间外交，通过越来越重要的文化外交改善自己的国家形象等等，这种方法在多方面具备很大的影响力。并且为了实现这种外交，绝对需要软实力的作用，文化外交和软实力是绝对不能分割的关系。

并且在中韩政府的作用下，拿着'韩国''中国'的名片的留学生能够彼此更加亲近的接触，是十分重要的存在。中韩留学生每个人都是代表各国的外交官，同时也可以被认为是小'韩国'小'中国'，所以应该注意自己细微的言行。

至今摸索了以软实力为重点的两国间的文化合作的方案，但是即使政府或国家层次制定了一些政策，不努力实施这些政策的话，所有政策都只能是形式化。

在国际关系中，一个国家友好的形象和评判，和那个国家的军事、经济力量一样有力。韩国想在国际社会中被认定为先进国家，需要社会的全面发展。只有提升国家形象才才可以在国际社会被认定为先进国家。

为了顺利执行解决办法，韩中两国改善民族主义感情，应该努力保持互相合作的精神。因为韩国单一民族的自豪感和本国文化精神很强大，对外国人的存在倾向很强，所以要反省这种部分，

[10] 人民网，『英媒：微信用户突破5亿　腾讯移动互联网地盘扩大』，2015.3.20

应该以谦虚的态度对待外国人。因此应该把在韩国的中国留学生的问题解决作为我们努力的部分，理解在韩中国留学生特性，提供给他们的各种各样的活动。同时作为国内的工业经济人才，回国后这些人会被认定为中韩交流的实际性交点，在社会各地以开放的态度接纳这些人。

中国在解决与邻国的历史和文化问题的时候应该更慎重，应该关照对方。作为亚洲人，从互相尊重、理解这种小小的努力为起点，慢慢地开始文化外交。

通过本研究提出两国留学生的问题,并提出通过交流解决问题的方案。增进两国青年的友爱，互相理解，希望得到形成合作关系的契机。

并且通过中国和韩国的文化合作，希望为像鱼不能离开水的'鱼水之情'的韩中两国间的相互补充的形成关系作出贡献。

参考文献

-英文-

[论文]

▪ Jonathan Mcclory, <The New Persuaders Ⅲ > (A 2012 Global Ranking of soft Power)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cience 616>, 2008.3

[新闻]

▪ MONOCLE, < Soft Power Survey 2014/15>, 2014.11
(http://monocle.com/film/Affairs/soft-power-survey-2014-15/)

-中文-

[新闻]

▪ 人民网，『英媒：微信用户突破5亿　腾讯移动互联网地盘扩大』，2015.3.20

▪ 中商情报网 『2014 年新浪微博用户发展报告』, 2015.1.28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习近平在韩国国立首尔大学发表重要演讲 强调中国始终做维护和平的国家、促进合作的国家、虚心学习的国家，同韩国共创中韩合作未来，同襄亚洲振兴繁荣』2014.7.4

-韩文-

[论文]

▪ Xu pan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과 한계 분석>, 2012

▪ 구수화, <중국의 연성권력에 관한 연구: 대 아프리카 ODA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13

▪ 김우종,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국제무역연구원』2011

▪ 신영미, <중국내 반한정서의 현황과 동인-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010

▪ 쭈후,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한국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2013.2

▪최지영, <재한(在韓)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국제정치논총』

[单行本]

▪ 『KOTRA』, <중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삼성경제연구소』, <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2013.1.10

▪『외교부』, <문화외교매뉴얼>, 2010

▪ 『외교부』, <지구촌한류현황>, 2014

[新闻]

▪ The Bell,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주목해야”[2015 China Conference]슈야오웬 숭청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C IO). 2015.5.22

▪『아주신문』, 『[AJU TV] 중국 TV 점령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중국 시청자 반응? 』2015.5.12

▪『프레시안』, 『중국인 유학생들 한국 생활하며 반한 감정 생겼다』 2014.11.11

▪『한국경제신문』, 『 "소프트파워 배우자"…외국인들 '한국 성장모델' 열공』, 2012.6.14

▪『한국일보』, 『발길 돌리는 외국인 유학생』, 2015.5.16

한·중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에 대한 법적 고찰 –동아시아 인권관 형성을 기대하며

김현수, 왕중양
서울시립대학교

Ⅰ. 들어가며 : 위안부 문제의 세계 이슈화

1. 문제의 제기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침략전쟁과 위안부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하버드 대학교 강연에서도 한 학생의 직설적인 질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만 했을 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에 대해 동아시아 국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인권의식이 날이 갈수록 증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악독한 행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에 대하여 국가정부가 매춘을 강요한 20세기의 끔찍한 반인권적 유린이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보여줬다면, 일본의 위안부는 인간의 자유와 인격에 대한 가혹행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동아시아국가에만 국한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 프랑스, 네덜란드, 필리핀, 중국 등도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와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침략전쟁 피해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인권의 중요한 세계적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주도적인 해결이 시대적으로 요청된다.

최근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증명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역사대응이 또 하나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상 중국과 대결구도

에 있는 미국이 일본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사대응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및 침략전쟁에 대한 외면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여 접근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이 일본의 침략전쟁의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정치적으로 비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은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위안부 문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다. 당시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으며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통해 당시의 극악무도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개선하여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요구되며, 이는 단순한 외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해결되어야할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중 위안부 문제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한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 가부에 대한 각 국내법적 검토 및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통해 한중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방안을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한중 연대 기구 설치 및 연대 네트워크 형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 위안부 문제 해결이 동아시아 고유의 인권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과 동아시아 인권 문제 해결 및 국제 인권에 있어 주도적 지위를 선점하는 등의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연구를 마친다.

Ⅱ. 한중 위안부 문제의 현황 및 실태

1. 위안부의 정의 및 현황

1) 한국에서의 위안부의 정의 및 현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가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1] 본 정의를 분절해서 보면,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점,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본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8명으로 그 중 생존자는 53명에 불과하다. 생존자 중 국내에는 48명이, 나머지 5명은 국외에 거주중이다. 국외에 거주하는 생존자는 미국 1명, 일본 1명, 중국 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최연소 80세, 최고령 99세로 평균 연령 88.4세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표 1〉 정부등록자 [2015년 4월 기준] [단위:명]

계	생존자			사망자
	소계	국내	국외	
238	53	48	5	185

2)

〈표 2〉 연령별 현황 [2015년 4월 기준] [단위:명, 만 나이 기준]

계	연령				
	80-84세	85-89세	90-95세	95세이상	평균 연령
53	8	27	14	4	88.4

3)

한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를 법적 토대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 간병인지원, 치료사업 등을 통해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동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함을 물론,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4)]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령상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보험혜택, 임대주택 우선입주, 간병인 지원, 치료사업(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수단, 시도별 자체적으로 지방

2) 출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3) 출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항

비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등이 있다.

2) 중국에서의 위안부의 정의 및 현황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다. 학문상 논의되는 범위 내에서 위안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그 군대의 명령에 의해 외부의 핍박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성행위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노예가 되는 여성을 가리킨다. 즉, 일본 군대의 전속 성노예를 의미한다.

중국 위안부는 1931년 일본 해군이 당시 그 가장 규모가 큰 해외 군사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하이에 4개의 '해군 지정 위안소'를 설립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38년까지 중국에 있는 위안소에 대한 통계 수치는 다음과 같다.

지역	상해	항주	구강	무호	한구	남창	하문
개수	7	4	24	6	20	11	
종사자수		사업자 4 종사자 36					사업자 4 종업원 4 위안부 13

중국 위안부 문제 전문가 소지양 교수는 최소 20만 명의 중국 여성이 위안부였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알려진 위안부 숫자 및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과 공동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있는 중국 위안부 피해자는 17명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으로는 해남성이 8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최연소자는 85세이고 최연장자는 93세로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령대가 동일하다.

아쉬운 점은 중국은 한국과 달리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는 정부기관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은 정부 측면에서 어떠한 원조가 있는 알기 어려우며 대개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2. 위안부 관련 소송 및 판례

1) 한국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일피해보상소송 첫 공판은 1992년 6월 1일에 개시되었다. 위안부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법정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한 바 있다.[5] 본 사건은 1998년 4월 28일이 되어서야 1심 재판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해당

5) "정신대 일법정 첫 증언", 동아일보, 1992. 6. 1.

재판부는 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강제연행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배상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국가배상을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6] 그러나 본 사건은 결국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청구기각되었다. 다른 위안부 및 강제징용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없음과 소멸시효 만료가 주된 선고 요지였다.

이와 달리,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대비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7] 한국 대법원은 우선,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일본국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 설립되었을 경우에 해당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또,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한 사안에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본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이 협정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이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 장애 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며 부작위 위헌확인을 한 바 있다.[8]

2) 중국

중국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 최근 두 개의 사건이 있다. 하나는 2007년 4월 27일에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

6) "일법원, 위안부 국가배상 판결" , 한겨레, 1998. 4. 28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8)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권이 없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9)]

다른 하나는 2001년 7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당하고 2010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청구소송을 기각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징용돼 피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점,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10)]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달리 일본에 대한 피해 책임의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의 통치구조적 특성에서 기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의 요청도 그다지 구체화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특징에 관해서는 중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부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Ⅲ. 한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1. 한중 정부와 일본의 조약에 대한 고찰

1) 한일 협정과 개인 청구권의 관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 청구권 협정 '이라 한다)' 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줄곧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의 의견이 충돌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이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9) 최이락, "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 인정..소송은 기각" , 연합뉴스, 2007. 4. 27.
8) 박종국, "日최고법원,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 , 연합뉴스, 2010. 3. 4.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제2조 제3항은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장에 타당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개인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고 협약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조약의 체결 과정과 취지를 배제한 문자 그대로의 분석이 불과하다. 본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양 당사자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사안인데다 한 쪽의 당사자는 그 불법성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소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보여주는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한 주장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경과 의의, 취지 등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외면하고 최소한의 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 중일 성명과 개인 청구권의 관계

한국의 청구권협정과 같이 중국은 일본과 연합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기에 근거하여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중일 연합성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5조이다.

(五) 中华人民共和国政府宣布：为了中日两国人民的友好，放弃对日本国的战争赔偿要求°

제5조에서 중일 양국국민들의 우호를 위해 중국은 일본에게 전쟁의 배상 요구의 포기를 선포하였다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규정을 이유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것은 '전쟁의 배상요구'라는 단어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표된 이 성명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이 성명서 또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승전국으로서의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 전쟁에 대한 논의는 대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배상요구를 포기했다는 표현에서 그러한 자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고려된 것은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으킨 전쟁 배상만이 논의되었으며,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청구권 포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진강은 중국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기각에 대해 기자회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하였고, 2심에서는 중국과 일본 간의 연합성명서에 의해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진강은 중일연합성명서의 성격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인 문서라고 말하면서 일본 법원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설명은 모두 법적이지 않고 무효라고 하였다.

이어서 신강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국주의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국민에게 범한 죄행이며 극심한 반인도적 죄행이라고 평가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한 바 있다.

3) 소결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협정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문제되고 있다. 일본측은 꾸준히 개인 청구권이 해당 협정을 통해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의 반인권적 전쟁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 가능한지 여부 및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인권법적 고찰

1) 본 사안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쟁점

(1) 국제법과 국민 개인의 관계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이 앞서 제시된 협정들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대 국제법과 맞지 않는 법적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우선주의에 바탕하여 개인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여겨졌다. 이에 따라 타국에 의해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해국에 대한 청구권은 소속 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고 난 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으로 인간의 자체에 대한 인권 관념에 발전하게 되었고, 국민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개인에 대해서 논의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청구권 소멸 주장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국가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셈이다.

(2)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사항의 포기 가부

노예제 금지, 인권 침해 등은 강행규범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국가 간의 조약이라

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이는 개인 청구권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사항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지 국가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포기했다고 협정을 맺더라도 포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국가에 의한 개인 청구권 포기 주장은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인 셈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계속 유지해간다면 이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에 대한 국가우위적 주장을 견지해나가는 것이다.

(3) 소멸시효 적용 가부

일본 최고재판소는 줄곧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당 범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게다가 UN은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다.

(4) 당시 범죄가 아니었다는 주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제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대법의 특징 중 하나로, 당시에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전쟁 범죄라도 부를 수 있을 만한 국제적 합의는 물론, 이념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의해 종결된 문제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전범 피고인들은 위에 같은 논리로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항변했다. 당시 법원에서 전쟁 범죄에 대해 새롭게 정의되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가 규모로 일어나는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었다.

결국 당시 범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본 사안을 협소하게 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후에 개시된 동경 전범재판에서도 소급 처벌의 정치적 필요가 확인되었다.

2) 국제인권법 적용 가부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개인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가해국가에 대하여 그 개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국제법에 대한 논의이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했을 때 이와 같니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법의 영역을 벗어나있다. 이것이 국제법 영역에서 국제인권법이라고 일컫는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 논의하면, 국민 개인의 청구권 인정,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사항의 포기 불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 불인정, 당시 범죄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반인권적 전쟁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를 격하시켜 일반 국제법의 영역에서 접근하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민주국가인 일본이 삼권분립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후진 국가로서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Ⅳ. 한중 위안부 문제 해결이 가져다 줄 기대효과

1. 동아시아 고유의 인권관 형성 기여

서구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인권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급격한 근대화를 겪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미얀마,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의 인권 문제는 큰 진전이 없다. 이는 서양의 인권 기준을 동양에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식에서 동아시아 고유의 인권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서구 유럽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며 확장하여 나갔다. 중간계급이 부상하면서 불합리한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유럽 전체에 평등과 자유, 인권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서양의 인권관이 결국 서양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지금의 인권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이러한 자발적 의식이 형성되는 시간이 부족했다. 서양의 식민지 전쟁과 일제의 침탈은 시민의식의 함양보다는 국가의식의 형성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강한 국력을 추구하고 있다. 침탈의 역사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한 결과, 인권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국력을 강조하면서 다시 인권의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고유의 인권관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잡아야한다. 위안부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피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성인권, 강제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근본적인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인간 개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제법상 인권, 국가 간의 협상과 개인 청구권의 문제 등 국제법상 논의의 실익이 큰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한중 위안부 문제의 이러한 중요성과 특성으로 볼 때,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한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기준을 징검다리로 삼아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인권관을 형성하는 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 인권 의식 함양 도모 및 주도적 지위 선점

한중 위안부 문제가 여러 인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동아시아의 인권 의식을 향상되는 계기가 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유교의 가부장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는 단순히 국가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인권 담론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중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단순히 여성 인권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형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인권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지침으로서 동아시아 관련 국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개혁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여성의 인권 신장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파급력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수용되어왔던 서양의 인권관에서 극복하여 동아시아 고유의 인권관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정 사이에서 여성 인권, 강제 성매매 등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담론에서 한국과 중국은 주도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한중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관련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 가능하다.

Ⅵ. 나오며 : 한중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본 연구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슬픈 기사를 접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중 한분이신 이효순 할머니께서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시면서 이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52명으로 줄었다. 이렇듯 위안부 피해자의 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가해국인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 피해자가 줄어들수록 역사적 증언들은 점차 흐려질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존재는 곧 청구권 행사의 불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 대개 한국인을 위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유일한 피해국은 아니었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중국 또한 위안부 문제의 피해국이었으며, 필리핀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을 위주로 고려했다. 이 또한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인권을 바라보지 못한 귀책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중대한 인권 문제인 만큼, 단순히 국가의 범위 내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의 틀을 벗어나 인권 그 자체의 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쟁점은 법적으로 충분히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귀를 막은 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및 교류, 연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위안부 관련 자료들의 공유와 확보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현장에서 접근하는 NGO들의 연대도 필요하다. NGO의 연대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 공유와 연대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학자들의 이론적 탐구도 요구된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위안부 문제의 중대성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참고 문헌-

최철영,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법학논집, 대구대학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제5호, pp. 57-89, 2002. 8.

도시환,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5권 제4호, pp. 305-322, 2011. 11.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제53권 제3호 통권 제112호, pp. 41-68, 2008년.

윤미향, “20년간의 수요일”, 한국여성신학,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제74호, pp. 146-174, 2012년.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호, pp. 46-51, 2012년 가을.

오경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북아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 제17집 1호, pp. 197-212, 2007년.

조백기,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1권 1호, pp. 415-457, 2011년.

김영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검토”,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5권 제2호, pp. 75-86, 2013년 12월.

胡银平, “中国 ‘慰安妇’ 问题研究综述”, 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周口师范学院学报, 第24卷 第1期, pp.76-79, 2007年7月.

苏智良, “ ‘慰安妇’ 问题的过去也近况”, 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 《百年胡》 pp.60-65, 2007年10月.

苏智良, “日本 ‘慰安妇’ 问题再掀波澜”, 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 《国际观察》 pp.1-9, 2007年, 第4期

陈丽菲 苏智良, “中国 ‘慰安妇’ 问题国际学术研讨会综述”, 《抗日战争研究》, 2000年, 第2期, pp.235-248, 2000年4月.

何吉 管宁, “日军强逼中国妇女为 ‘ 慰安妇’ 资料摘编”, 《抗日战争研究》, pp.37-51, 1993年第4期.

陈景彦, “日军侵华期间强征中国慰安妇问题”, 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东北亚论坛》, pp.60-63, 2001年8月, 第3期.

关于中韩合作解决慰安妇问题的司法上的考察
—东亚人权观的形成可行性

金炫秀，王仲阳
首尔市立大学

主题导入：深受国际社会重视的“慰安妇”问题。

1. 问题的提起

出席美国上下议院联合演说的日本首相安倍晋三，对于日本二战时期的侵略战争与强行征召各国女性充当慰安妇的罪恶史实只字不提，这种逃避责任的行径引起了社会各界大众的不满与愤怒。并且，安倍首相在出席哈佛大学的讲演的过程中，在回答一位学生就历史真相的提问时，只是以“很心痛”这样的语言草草了事，全然没有半点对历史的反省的态度。

安倍的这些言词深深地刺痛了曾经受到日本伤害过的东亚各国百姓的心，也激起了国际社会的愤怒。在现如今，随着时代的进步人权问题越发被重视的大潮下，这种将女性视为性奴隶的恶行绝对不容被掩盖。“慰安妇”问题的本质便是对属于社会弱势群体的女性的一种国家政府有组织有预谋的强制性侵害行为，是 20 世纪里被永远载入史册的对人类人权骇人听闻的一种蹂躏行为。如果说德国的种族屠杀政策是对人类生命的一种残忍剥夺的话，日本的慰安政策就是对人的自由和人格的一种虐待行为。

正因如此，所以“慰安妇”问题并不只是东亚这些受到日本入侵的国家的地域区限性的问题。从美国的下议院到荷兰、加拿大、欧洲议会等都有针对“慰安妇”问题作出过决议。包括中国、韩国、法国、荷兰、菲律宾在内的诸多国家都对日本政府就“慰安妇”问题提出过异议。这已经不单单只是被害国家与日本政府间的战争遗留问题了，而已近成为 21 世纪的一个重要人权热点问题。与此同时，这个引起世界关注的人权问题同样也是促使中国与韩国联系起来共同寻找突破方

案的一个契机。

如今的中国也一直在不断试图揭露在第二次世界大战的当时，那段被日本残酷侵略的事实。但是，不能完全排除中国在试图还原那段历史的时候会有偏向性的视角出现的可能性。加上东亚复杂的政治环境，与中国处于某种“竞争”关系的美国也与日本维持着“战略同盟”的关系，这种关系也会对还原“那段历史”真相的作业造成不利的影响。

宏观上来看，对于日本的侵略战争及“慰安妇”问题上中国与韩国需要寻求联合的一个重要原因便是如此。韩国，与中国有着同样被日本侵略的遭遇，可以说在相应的问题上同样具有很强的发言权。另一边，韩国也与日本一样，是美国在亚洲的重要同盟伙伴之一。韩国的这一身份可以一定程度消除因为政治上的意识形态差异而对还原历史真相造成阻碍的可能性。加之，中国也韩国也是“慰安妇”问题直接的被害国，所以中国与韩国在试图解决这类历史遗留问题时，如何携手共同面对是一件相当有必要思考的事。

“慰安妇”问题并不是一个彻底属于过去的事件，当时的那些受害者们到今天为止依然有艰难生活着的幸存者，她们无法忘却所经历的痛苦。通过这些艰难生存下来的受害们讲述发生在自己年轻时候的悲剧，正是在提醒着如今的世界，反思那段惨无人道的历史以此为戒并不断推进社会进步。为此，有必要要求日本政府真心诚意地为当年犯下的罪行而谢罪。这里需要强调的一点是，要达成这个结果单单只靠呼吁日本政府是无法实现的，必须要联合起来共同寻找解决途径。

2. 研究目的

在本次的研究中，我们试图把握中韩“慰安妇”问题的现况与状态，通过关于中韩“慰安妇”问题所涉及到的个人请求权问题的国家法案及国际法的探讨，希望从中找出解决中韩“慰安妇”问题的阶段性的方案。并且以此为基础，继续在中韩合作的相应机构的设立上及联合研究的信息网络的设置上开展更深层的建设。中韩“慰安妇”问题的解决，在稳固与阐明东亚固有人权观念这一点上具有重大的意义，与此同时在扩大东亚甚至国际人权问题的话语权上具有着不小的战略意义。

一. 中韩“慰安妇”问题的现况与状态。

1.“慰安妇”的定义以及现况。

1）韩国“慰安妇”的定义以及现况

依据‘对日本占领期间受日本军侵害的慰安妇被害者的生活援助及纪念产业保护法’所明示的类容，日军“慰安妇”被害者所指的是：日本帝国主义所强制动员的，被强制为其提供性服务并且受到性虐待的被害者[1]。下面来解析此定义，在“强制动员”及“受到性虐待”以及“被迫提供性服务”这几点上，可以看出当时日本政府所施行的这种“慰安妇”政策是多么的违反人伦道德[2]。

现在韩国政府所录入的韩国“慰安妇”受害者总 238 名，其中现存幸存者不超过 53 名。幸存者中有 48 人生活在韩国本土，其余 5 人现居住在境外。境外居住者被认定为，美国 1 名、日本 1 名、中国 3 名。幸存者的年纪，最小的为 80 岁，最大的为 99 岁，平均年纪为 88.4 岁，对此需要警惕的是随着受害者的年纪越来越大，留给“慰安妇”问题解决的时间不多了。

共	年龄				
	80-84岁	85-89岁	90-95岁	95岁以上	平均
53	8	27	14	4	88.4

〈表1〉政府收录者［2015年 4月 基准］ ［단위:명］

共	幸存者			死亡者
	小计	国内	国外	
238	53	48	5	185

[3]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3] 출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2015 年 4 月 基准]　　[单位:名;　年满 基准] [4]

共	年龄				
	80-84岁	85-89岁	90-95岁	95岁以上	平均
53	8	27	14	4	88.4

2）中国的“慰安妇”定义及现况

中国与韩国的状况比起来有一些区别，中国对于“慰安妇”的法律上的定义目前还处于空白状态。在学术界有“慰安妇”问题研究者提出的定义，一般意义上“慰安妇”一词是指：在日本政府和其军队的命令下，在这种外部的逼迫下沦为给军人们提供性服务的“性奴隶”。即，被迫沦为日军“性奴隶”的女性。

1931 年，上海作为当时日本海军最大的海外军事基地，日本政府在上海设立了 4 所“海军指定慰安所”，可以视此为日本政府在中国施行“慰安妇政策”的开端。到 1938 年为止，对中国的“慰安所”所统计得到的数据如下图。

地域	上海	杭州	九江	芜湖	汉口	南昌	厦门
个数	7	4	24	6	20	11	
从事者数		事业主 4 从事者 36					事业主 4 服务员 4 慰安妇 13

中国“慰安妇”问题专家苏智良教授根据自己的调查结果，认为中国先后有 20 万左右的女性沦为了日本军队的“慰安妇”。对于同一问题，韩国方面所得到的“慰安妇”的数字与构成的结果与中国有着较大的差异，从这点不难看出关于“慰安妇”问题的具体调查本身难度较大，以及两国间需要就各项调查展开合作。

按照中国“慰安妇”研究中心的调查结果，目前现存的中国“慰安妇”幸存者仅有 17 名。 其中以在中国海南省居住的幸存者最多，有 8 名。 海南省的这 8 名幸存者里，年纪最小的为 85 岁，

[4] 출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年纪最大的为 95 岁。这与韩国“慰安妇”幸存者的年纪世代大体相当。

颇为可惜的的是，与韩国不同在中国与“慰安妇”问题相关联的的政府设立的相应机关或组织目前我们还没有明确找到。 韩国政府按照法律明确规定了韩国“慰安妇”受害者们应当享受的福祉与救助。中国在政府层面上出台的关于中国“慰安妇”受害者的援助政策目前还没有找出，目前只知道在市民慈善团体层面上有对“慰安妇”幸存者提供经济上的援助。

2.“慰安妇”关联的诉讼与判例

1）韩国

韩国对日本政府提起的被害者诉讼于 1992 年 6 月 1 日首次开始。韩国“慰安妇”被害者以原告身份第一次在日本法庭状告日本日军蛮行[5]，一审于是在 1998 年 4 月 28 日，一审判决以“国家赔偿”收场。当时该案件的法官援引“河野谈话”的类容并以此为依据做出了给予原告“慰安妇”被害者国家赔偿的决定，但是驳回了原告的得到日本政府公示性谢罪的要求[6]。除此以外，其余的“慰安妇”或强制征用的诉讼都被日本法院以没有请求权或法定申诉期限已过为由驳回。

与之不同的是，韩国大法院和宪法裁判所对日本最高裁判所的判决做出了反对判决[7]。韩国大法院首先以日本帝国主义的那些不法的公司虽然解散了，但后又以新的名目从新成立了，所以根据国际法要求这些相应的公司必须承担损害赔偿。其次，韩国对于向相应的日本公司在日本本土的起诉最终被认定为“确定败诉”，这是不能被接受且不具有效力性的。因此韩国方面认为，韩国受害者依然拥有向相应公司或集团提出损害赔偿的请求权。以“大韩民国与日本国间的关于财产及请求权的问题的解决与经济合作协定”为借口，是无法否认韩国民众的个人请求权的。

值得注意的是，“大韩民国与日本国间的关于财产及请求权的问题的解决与经济合作协定”并非针对日本的殖民地赔偿而被制定的协议，根据“旧金山条约”第 4 条，解决韩日两国间的财政性的、民事性的债券及债务关系；在商定“协定请求权”的过程中日本政府否认其在殖民地发下的不法行为，并逃避赔偿责任；在这种情况下，作为个人性质的请求权是很难被视为该协定所认定的对象的，所以日本方面不能以该协定为依据剥夺被害者的个人请求权的。

对于在要求日本实现赔偿请求权及恢复作为人的尊严与价值上有着不小的难度，韩国政府自身由于在没有明确“请求权”正确概念的状态下与日本政府签订了协定，所以自己也有着一部分

[5] “정신대 일법정 첫 증언”, 동아일보, 1992. 6. 1.

[6] “일법원, 위안부 국가배상 판결”, 한겨레, 1998. 4. 28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责任。因此，为了打破这种僵局需要更进一步具体的维护自己权益[8]。

2）中国

最近两起中国的“慰安妇”被害者向日本法院提起诉讼。其中一个是2007年4月27日，中国的几位“慰安妇”被害者的遗属联合向日本法院提起诉讼，要求得到日本政府的损害赔偿，但是却遭到了日本最高裁判所的驳回。日本最高裁判所认定了日军在当时的劫持与暴行，但是最终却以《中日联合声明》的部分内容为借口，做出了“慰安妇”被害者失去了请求权的判决[9]。

另一起是，在2001年7月要求日本政府做出公示性的谢罪的诉讼案件。在其一审与二审全部遭到法院驳回之后，于2010年遭到日本最高裁判所的终审驳回诉讼的判决。当庭法官虽然认定原告遭受日军侵害的事实，但是分别以此次诉讼已过“公诉时效期”与1972年被签订的中日联合声明中“中国放弃要求日本赔偿”的内容这点为理由，驳回了原告的诉讼请求[10]。

这里有趣的一点是，虽然与韩国一样中国也是二战中曾经遭到日本侵略的国家，不过不同的点是中国政府似乎不愿过度强调战后日本的战争赔偿问题。或许是由于中国与韩国的政府机构的运行机制不同的原因也不得而知。关于中国的这种外交特征，以及中日联合声明与个人请求权间的讨论会在之后的内容里涉及。

二. 对于中韩“慰安妇”问题的司法考察。

1. 关于中韩政府与日本签订的条约的考察

1）“韩日协定”与个”人请求权”的关系

日本最高裁判所主张根据“大韩民国与日本国间的关于财产及请求权的问题的解决与经济合作协定”（以下成为“请求权协定”）的内容，韩国国民失去了对日本政府的请求权。这对《韩日协约》的这一条上，韩国大法院与日本最高裁判所的意见存在冲突，问题出现在协约的第二条的第一行和第三行上。

[8]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9] 최이락, “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 인정..소송은 기각”, 연합뉴스, 2007. 4. 27.

[10] 박종국, “日최고법원,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 연합뉴스, 2010. 3. 4.

第二条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双方缔约国确认关于双方国家与该国民（包括法人）的财产，权力，利益和双方缔约国与该国民之间的请求权的问题(包括 1991 年 9 月 8 日在圣弗朗西斯科跟日本国署名的和平条约第 4 条(a)的规定），得出完全且最终的解决。）

(중략)

3. 2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按照遵守 3.2 规则来条件，‘一方缔约国（韩国）’以及该国民的财产，权力与利益从此次协定的署名日为期，关于‘他方缔约国（日本）’管辖下的措施与‘一方缔约国以及该国民（韩国和韩国国民）‘对于‘他方缔约国与该国民（日本和日本国民）’的一切要求，假若该要求是同日子（协定的署名日）之前发生或缘起的话，一方缔约国不允许做出任何主张。）

第二条的第一行内容可以视为是对韩国与日本间的请求权的一种完全的最终的解决。第二条的第三行里提到：国民的财产、权利、利益等全部的请求权都将失去。只是单纯的从字面上理解这里的第三行的内容的话，日本最高裁判所的主张似乎有一定的道理。个人请求权问题被完全解决了，所以继续追究的必要也不存在了。

但是，这种看法是与此条约在签订过程中的主旨相违背的。在此“请求权协定”中，日本帝国主义的殖民支配的不法性与那段殖民时间里发生的不法行为的损害赔偿的内容并没有被涉及。“慰安妇”问题是重大的人权侵害事件，并且在条约签订的当时，“慰安妇”问题还没有浮出水面。也就是说在协约被签订的时候，双方都没有此条约的内容会与“慰安妇”问题有关的考虑。

正因如此，日本最高裁判所所做出的判决是一种不负责任的不考虑人权问题的行为，为了维护自己本国的利益所带有政治立场的主张罢了。日本最高裁判所明显有意歪曲“韩日请求权协定”的背景和主旨，并以其歪曲的理解为基础从法律的层面上恶意的剥夺了“慰安妇”受害者的赔偿请求权，日本方面的这种做法难以让人接受。

2）“中日联合声明”与“个人请求权”的关系。

同韩国的请求权协定一样，中国与日本签订了中日联合声明书。在中国慰安妇被害者在向日本法院申述的判决阶段，日本法官就以中日联合声明书中的一条条约内容为借口，驳回了被害者请求损害赔偿的诉讼。一个被引用的条约便是第五条。

（五）中华人民共和国政府宣布：为了中日两国人民的友好，放弃对日本国的战争赔偿要求。

在第五条里，为了中日两国国民间的友好，中国放弃向日本提出战争赔偿。日本最高裁判所正是以这条条约的内容为理由主张中国慰安妇被害者失去了赔偿请求权。不过，在这里值得瞩目的单词是“战争赔偿”。

中国与日本共同发表的这份声明与韩国同日本间缔结的协定的性质有所不同。中国与韩国不同，中国是以其作为第二次世界大战的胜利国身份与战败国日本签订的这份声明书。出于有意尽快与日本建立国家外交，或者是因为是战胜国的一种姿态，中国主动放弃了对日本的战争索赔。

不过重要的是，与韩国同日本之间签订的那份协定一样，中日联合声明书里没有一个字涉及到慰安妇问题。也就是说在生命签订的当时所考虑的赔偿只是日本帝国主义在直接的战争侵略过程中所造成的损失，在当时慰安妇问题还没有被公之于众，这点与韩国一样，不能被认定为慰安妇被害者也适用于这个声明所以失去了请求赔偿权。

中国外交部发言人秦刚就“日本最高裁判所驳回中国慰安妇的赔偿请求诉讼”一事发表了中方立场。在该诉讼的一审判决中，虽然法官认定了被害人的赔偿请求权，但是以已过申述时间为由驳回申述。二审以中日联合声明书的第五条为由再次驳回上诉。对此秦刚表示，中日联合声明书的性质为中国政府与日本政府双方所发表的政治性的文书，日本法院单方面所做出的任何解释都是没有任何法律效律的。并且，秦刚表示，慰安妇问题是日本军国主义对包括中国在内的多个国家的人民犯下的极为严重的反人类罪行，直到今天依然有慰安妇被害者饱受伤害的艰难生活着，希望日本政府能够真正反省恶行，尽快处理慰安妇问题。

3）小结

如上所述，中国与韩国都因各自与日本签订的条约的存在而对个人请求权的行使产生了阻碍。日本方面不断的以所签订的协约的内容为借口，主张中国与韩国在协约签订之后便失去了请求权的行使资格，但是无论韩国大法院还是中国外交部都认为日方的这种说法是无稽之谈。对于国家

的战争所造成的反人权性的犯罪，被害者个人的损害陪伴请求权的可能与否是只有国际法庭才能做出裁决的。

2. 国际人权法的考察

1）此类“案件”在适用于《国际人权法》道路上的争论点

（1）国际法与国民个人的关系

日本政府以上文提及的协定为由主张他国的“慰安妇”受害者已经失去了赔偿请求权。这是一个与现代国际法相违背的主张。传统的国际法是建立在国家优先主义的思想之上的，视个人为国家的构成成分。因此，受到他国侵害的被害者如果向加害于自己的加害国行使请求权的话，会被视为受害者所属国家与家害国间的诉讼行为。

但是现在不同，在经历了残酷的第二次世界大战之后国际人权法案有了长足的发展，此时的个人是以一个人类的身份为基准被认定的，而不是属于某个国家的国民，这是现代人权法的一大特征。日本政府的所谓请求权已近失去的主张其实是一种很危险的思想。

（2）能否放弃归于强行规定的事项

如同奴隶制、人权侵害问题这般重大的问题，即使是国家间在公平友好的环境下所签订的合法条约也无法对此类人权问题的请求权做出限制性的规定。这种个人的请求权并不是作为国民被赋予的，而是来自与我们作为人类的身份，应该以一种与生俱来的权利来被认识。所以对于这种个人所具有的权利，任何国家都不能仅仅凭借所签订的条约就可以无视的。

正因如此，日本政府通过国家间签订的协定来个人的请求权做出强制规定的行为是不合理的，没有效用的。如果日本的这种主张一直持续的话是一种使人个权利性的人权观念往国家优位主义观念的一种倒退。

（3）废止时效是否合理?

日本最高裁判所主张“慰安妇”被害者的申述已经过了法律保护的时间。不过这个说法则从一个侧面肯定了日军曾经的犯罪行为。并且，联合国在 1968 年颁发了“对于战争犯罪不适用于申述时效性的有关国际条约”，在国际法上确认了对于战争犯罪及反人道主义行为将不再使用申述

时效性的原则。“慰安妇”也属于日本战争期间的战争罪行，所以日方的这种说法在国际法上是站不住脚的。

（4）“当时不属于犯罪”的主张

关于日军“慰安妇”问题在时间因素上的探讨。近代的司法有一个特征，在事件发生当时不属于犯罪行为的话即使在日后被认为违反了现代的法律也不会被认定为是犯罪。这一特征被称为“刑罚不溯及”原则。以这种原则为基础，有一种观点认为当时正处于战争时期，所以认为在战争这种非正常时期日军的行为也许可以不以犯罪的行为来认定。

不过，纽伦堡战犯裁判案显然终结了这个问题。纽伦堡战犯案的被告人们以上面描述的情况类似，战犯们也是一同样的借口为自己辩护。在纽伦堡战犯案的庭审中形成了对战争犯罪的新的定义，这种所谓“刑罚不溯及”将不会再成为战争罪犯们逃脱制裁的借口。不过制裁这种以国家单位引发的犯罪行为而在国际层面上所指定的法律不足，这也算是一个历史性的教训。

最终所谓“刑罚不溯及”的主张只不过是战犯们自己的借口罢了，对于类似“慰安妇”问题这种重大的人权侵害犯罪的罪犯们来说，“刑罚不溯及”原则是根本无法被涉及的。在纽伦堡审判之后的东京审判也维持了对战争罪犯来说不涉及“刑罚不溯及”原则的共识。

2）能否适用国际人权法

对于日本帝国主义的强制征用以及“慰安妇”问题，日本最高裁判所依然坚持其所谓“请求权已经失去”的判决。国际法上对于国家与国家间的权利和义务有条例规定，被害个人的国籍国行使外交保护权，具有向加害国要求赔偿本国受害公民的请求权，这些都在国际法中有明确规定。

四．对中韩解决“慰安妇”问题后可以带来的深层影响的期待

1. 对于形成东北亚“共有的人权观”的贡献

与欧洲人权观念漫长的形成过程不一样，东亚对于人权观念在还没形成共识的情况下便在经济和科技上经历了极速的近代化。以北韩人权问题为首的缅甸、越南等亚洲诸国的人权问题还处

在亟待解决的状态下。但是如果照搬欧洲的人权体系无法保证不会在文化与历史同欧洲有着较大差异的亚洲出现“水土不服”的现象。因此解决亚洲人权问题的指导意识有必要转向从亚洲固有的人权思想中找到方案。

英国的光荣革命、美国的独立战争、法国大革命等的一连的历史事件推动了整个西方文明在人权观念上的发展。社会的中产阶层联合在一起努力打破当时社会的不公正，逐渐开始整个欧洲社会对于平等、自由、人权的观念形成了自己的固定意识。正是这样，欧洲的人权观念伴随着整个西方文明的进步并进一步成为了当今世界人权观的主流思想。

另一边，东亚没有如同欧洲这般个人意识高度发展的历史时期，对于饱受西洋殖民之苦以及后来的日本帝国主义的侵害的东亚各个地区来说，比起培养“市民意识”更易于促成“国家意识”的增进。以至于东亚各国的居民在这种历史的背景下会更加在意追求国家力量的强化。反省本国曾经会遭到别国掠夺的原因，为了防御人权被侵害而强调国力的强化的同时再次助长了侵害人权的行为。所以，为了打破这种恶性循环需要寻找出一个东亚固有的人权思想，以此作为化解东亚人权难题的解决方案。

“慰安妇”问题的解决已经不只是中国和韩国、日本三国间的政治性的问题这么简单了，而是承载着一个东亚人权进步的契机。“慰安妇”的问题不只是由于帝国主义国家的殖民政策而遭受迫害的问题，而是涉及到女性人权、强制性买卖、人生买卖等根本性的人权问题。对于最为人类的个人，国家的作用、国际法上的人权、国家间的协商与个人的请求权的关系等等因素紧密地交织在一起。

当我们以这种重视的眼光来审视“慰安妇”问题时，努力想达到的目标不会只到“慰安妇”被害者得到应有的赔偿而止，该如何进一步推动东亚人权观念的落实，并以此为指导打破目前东亚各地人权危机的僵局才是最终的核心论题。

2. 尝试培养国际性的人权意识及其主导地位的抢占

中韩两国的“慰安妇”问题是一个牵涉到众多基本人权问题的复杂案件，这个案件有效解决的同时也是催促东亚人权意识形成的绝佳机会。东亚诸多国家都长久以来生生的受到传统的儒学式的家长中心质的思维影响，所以即使到现代社会对于女性人权的意识并没相比较于曾经有很大的发展。这不是一个国家的内在问题，是整个东亚的地域问题，往往当国际社会探讨女性的人权问题时很少能听到来自东亚国家的声音。

顺利解决“慰安妇”问题也不仅仅是形成了一个女性权益的基准点这么简单，在保护“慰安妇”受害者的权益的同时东亚各国也会从内部开始反省本国女性人权的诸多不足之处，对本国在

对待女性人权问题的时候也会有积极的意义，可以说这促使各个东亚国家自身开始在女性公民的人权保护上开始改革。加之中国、韩国、日本是目前东亚影响力最强的三个国家，源自这三个国家的改变将会在整个东亚地区有着重大的影响力。

以这种积极的而态度去寻求“慰安妇”问题的解决方案，会给东亚各国在是否一味照搬西方人权观念的难题中找到新的突破口，结合东亚原有的文化与历史背景，从中找出属于东亚自己的人权思维是最优之策。而且在女性人权及强制性买卖等等这类国际社会正热烈探讨 中的热点话题里中国与韩国可以站出来承担主导的任务。通过中韩“慰安妇”问题的解决给东亚各国的人权意识推进作业带来一股强劲的动力，催促各国形成具体的人权保护机制。

五．对解决方案产生后的展望：期待快速发挥效用

本研究论文在行将完成的时候接到了一个疼心的消息。又一位韩国人“慰安妇”被害者，91岁的李孝纯(音译)奶奶去世了。至此韩国“慰安妇”被害人幸存者人数下降到了 52 人。这种“慰安妇”幸存者们随着时间的推移渐渐离世的现实恰好是作为加害国的日本最为乐意看到的事情。随着被害者幸存人数越来越少这份揭露那段残酷历史事实的证据就会渐渐被人们遗忘。假设一直拖到全部慰安妇幸存者都离世的那一天，慰安妇问题自然没有被彻底解决的话，那么在想得到法律层面上的公正判决就几乎不可能了。

以前在讨论慰安妇问题时往往只会关注本国的慰安妇状况，但是慰安妇问题并不只是在某一个国家的存在问题，韩国　中国　菲律宾等等都存在慰安妇被害者，但是这些国家往往只是以自己国家上的慰安妇为主，把慰安妇问题的解决方案一直局限在国家的框架内，但事实上，慰安妇问题是个重大的人权问题。把其当作在国家单位内能妥善处理的单纯问题是不明智的，需要摆脱国家思维的局限，在人权本身的次元下开展作业。为此，在慰安妇问题的解决上国际性的联合很有必要。

就像之前论术的那样，慰安妇问题的国际性的论争本身是可以在司法的体系中被充分终结的。日本的最高裁判所的这种歪曲与躲避事实的态度就像堵起耳朵嘴里反复重复一句话一般，十分不讲理的行为。面对日本的这种不反省，继续掩盖自己罪行的态度，中国和韩国的合作交流将显得尤为重要。无论如何，首先要实现慰安妇被害者的证言及与慰安妇问题相关联的资料的共有化。并且，在慰安妇问题上要尽快开始 NGO 的联合作业。在 NGO 的联合网络里向中韩两国人民公示慰安妇问题的信息，使人民认识到慰安妇以及人权问题的紧迫性。在中韩两国间建立资料共享的便

利通道下，同时两国的相关领域的法学专家也应合作起来，共同落实战略路线。在这个被建设起来的交流网络内可以持续的提醒外界慰安妇问题的重大性。

参考文献

최철영,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법학논집, 대구대학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제5호, pp. 57-89, 2002. 8.

도시환,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5권 제4호, pp. 305-322, 2011. 11.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제53권 제3호 통권 제112호, pp. 41-68, 2008년.

윤미향, “20년간의 수요일”, 한국여성신학,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제74호, pp. 146-174, 2012년.

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6호, pp. 46-51, 2012년 가을.

오경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북아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 제17집 1호, pp. 197-212, 2007년.

조백기,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1권 1호, pp. 415-457, 2011년.

김영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검토”,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5권 제2호, pp. 75-86, 2013년 12월.

胡银平，“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周口师范学院学报，第24卷第1期，pp.76-79,2007年7月.

苏智良，“‘慰安妇’问题的过去也近况”，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百年胡》pp.60-65，2007年10月.

苏智良，“日本‘慰安妇’问题再掀波澜”，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国际观察》pp.1-9，2007 年, 第4 期

陈丽菲 苏智良，“中国‘慰安妇’问题国际学术研讨会综述”，《抗日战争研究》2000年, 第2期，pp.235-248，2000年 4月.

何吉 管宁，“日军强逼中国妇女为‘ 慰安妇’ 资料摘编”，《抗日战争研究》，pp.37-51，1993 年, 第 4 期.

陈景彦，“日军侵华期间强征中国慰安妇问题”，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东北亚论坛》，pp.60-63,2001 年 8 月, 第 3 期.

2015년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숙명여자대학교(중어중문학부장상)

293 혈연외교 : 공공외교의 새로운 접근
313 血缘外交：公共外交的新形势
은진석, 자오레위한 殷振碩, 趙瑞晗
경북대학교 慶北大學

331 한·중 에너지 정세 및 에너지 협력
362 中韩能源局势与能源合作
장지혜, 류정림 蒋智惠, 刘程林
북경대학교 北京大學

393 역사 속에서 찾은 제주도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_
한민족에 내재된 바다 지향성을 중심으로_
406 寻找历史上中国与济州岛的漂流民交流 —以发现韩民族的向海性为中心
김은미, 대림검 金恩美, 戴琳剑
남경대학교 南京大學

혈연외교 : 공공외교의 새로운 접근

은진석, 자오레위한
경북대학교

요 약

고대부터 중국은 한국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해 왔으며, 한반도의 역사 전반에 중국이 끼친 영향이 막대했음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대립과 협력을 거듭해 온 한-중 관계는 냉전 시대의 종료,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21세기 그 중요성을 점차 더하고 있다.

현대의 외교는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성병욱, 2013). 특히 한류 확산의 결과로 증가된 문화 콘텐츠 수출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는 공공외교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한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국의 교류는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국내 언론을 위시한 국내 정서는 중국 및 중국인을 단순한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미디어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요우커(遊客)'로 대변되는 중국인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도의 결과로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인을 인적 교류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매개체로 보는 색채를 띤다. 한편 과거 중국인과 화교, 재중국동포의 유입에 따라 형성된 중국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현재까지 잔존하여 중국인을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시각이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자 중국인'과 '가난한 중국인'으로 구분되는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원인을 단일민족의 역사적 강조에 따른 순혈주의에서 기인한 타자화로 정

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혈연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 자체를 역으로 활용하는 역발상 전략을 한중 교류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키워드 : 공공외교, 민족주의, 순혈주의, 유교문화, 중국인, 한·중 교류, 민간외교, 인종주의, 동북아시아 지역통합,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범죄, 타자화

서론

고대부터 중국은 한국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해 왔으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중국이 미친 영향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대립과 협력을 거듭해 온 한-중 관계는 21세기들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한류에 기반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 따른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의 증가는 미디어가 중국 및 중국인을 '경제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인을 '가난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공존함으로써 중국인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한국의 순혈주의가 가져오는 타자화(他者化)로 정의하였으며 한국 내 순혈주의와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 순혈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인식의 재생산 효과, 그리고 그것이 중국인들로부터 불러오는 반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대 정부간 외교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나 현대의 외교는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성병욱, 2013). 당사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관찰이 어려울지 모르나 잠재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지닌 외교 전략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김우상, 2013). 한국의 경우 '한류'라 불리는 한국 문화 콘텐츠 선호 현상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형성되어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말한 순혈주의에 기반한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와 그에 대한 반한 정서 고조에 따른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순혈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집중적 고찰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민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혈연에 대한 인식을 공공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 · 중국인에 대한 한국 내 인식

20세기 이전: 탈중화 현상과 한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가난한' 중국이민자의 유입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조선이 중국에 정기적인 조공을 바치고, 중국은 조선의 통치자를 책봉하는 조공과 책봉에 기반한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였다 (권선홍, 2010). 중국은 조선을 다른 조공국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김우현, 2001)[1], 조선은 중국, 특히 명 왕조를 선진국이자 중심국가로 인정하였다. 중국에서 유래된 한자와 유교문화는 선진문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 졌으며, 유교가 조선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 사상에서 기원한 문화적 특성은 현재까지도 유교는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지역의 문화를 논할 때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던 사고는 명의 몰락 이후부터 변화를 맡게 된다. 명 몰락 이후 여진족에 의해 건국된 청을 한족 국가의 정통 계승자로 보지 않는 관점에 기반한 숭명배청(崇明排淸)의식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유미림, 2001). 약화되어 가던 한-중 관계는 1876년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중화세계 질서에서 벗어나고 (김우현, 2001), 한국전쟁으로 중국이 적성국가로 분류됨으로써 결정적 쇠퇴를 맞게 된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추진된 중국의 경제 개발은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정체되었으며, 이와는 상반된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격차를 증대시켜, 197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1,452달러[2], 중국의 1인당 GDP는 226달러[3]로 약 6.4배의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중국을 적이자 배척의 대상으로 여김과 동시에 미국을 새로운 중심국가로 인식 하였으며, 그 결과 영어는 한자를 제치고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열쇠(Key for success)'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았다 (Park, 2009).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한국을 이주노동의 대상지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4] (윤인진, 송백석, 김상돈, 송주영, 송영호, 2009). 1990년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2만여명 (곽영초, 2012)에 달했으며, 2011년 3월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0만 2715명으로 (김병조, 2011)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1 김우현 (2001) P. 163 - 167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2015년 4월 26일 조회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읽기 쉬운 중국도해 P. 68

4 윤인진 외 (2009) p. 29

대다수의 노동자는 한국 국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3D(Dangerous, Dirty, Difficult)' 업종에 주로 종사함으로써 (Kim, 2010) 이들에 대한 한국 내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인들이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의 예는 중국인은 '잘 안씻거나', '가난하고', 중국은 '안전하지 않으며', 중국 '물건은 나쁘다' (구자억, 2010)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임을 알 수 있으며, 경제성장기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현재까지도 일부 계층에 의해 수용되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기인하였다 (양계민, 2009).

21세기 이후:중국의 부상과 '부유한' 중국인의 유입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 2011년 기간 동안 중국의 1인당GDP는 2006년 2,063.9달러에서 2011년 5,183.9달러로 2.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경제적 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진출 패턴은 종래의 해외노동자 송출과 같은 경제적 이주에서 관광, 소비,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 선진국형 이동으로 전환되게 된다. 중국인 해외 유학생은 매년 30만 이상으로 (민귀식, 정순기, 조복수, 김지영, 김진영, 2014), 이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급인력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와, '바다건너에서 돌아온 사람' 또는 '해외유학 귀국파'를 의미하는 해귀파(海歸派)[5]의 중국 내 사회적 성공에 따른 관찰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부모들은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시행에 따라, 1자녀에게 가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의 양육 패턴을 보이는데 그 결과 유학 열풍에 중산층까지 가세하는 현상을 낳았다. 사업, 투자, 유학 등으로 증가된 중국인의 해외진출은 종래 중국인들이 진출한 국가의 현지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중국을 세계 경제와 패권의 새로운 강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위원화 절상 (장광루이, 2012)[6]으로 삶에 여유가 증가한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지속적인 증가추이에 있으며 (차경자 & 진학문, 2013), 속칭 '한류(韓流)'로 불리는 한국문화 선호현상에 따라 중국의 인접국인 한국 또한 이러한 추세의 수혜국이 되었다. 방한 중국 관광객의 증가는 한국 관광서비스업 특수로 이어졌으며 (이양수, 2012)[7], 국내 유통업의 운영 패턴을

5 조선일보기사 (2006.12.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21/2006122100164.html 참조

6 장광루이 (2012) P. 48

7 이양수 (2012) p. 89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8]. 백화점 등은 종래 일본관광객에 집중하던 판촉 전략에서 선회하여 중국인들을 주요 홍보 타겟으로 삼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거리에서는 중국어 홍보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9].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인의 대(對)중국인 인식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언론에서는 유커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의 결과로 '가난한' 중국인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일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경제수단화 함으로써 중국인에 대한 비인간화를 야기하였으며,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가난한, 노동인력으로써의 중국인'과 '부유한, 돈벌이 수단으로써의 중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분법적 인식은 장기적인 대(對)중국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실제 한국거주 경험이 있는 중국인, 특히 유학생을 중심으로 반한 정서가 관찰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신영미, 2011).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차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인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순혈주의 정서가 실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

미디어의 이분법적 시각: '부유한' 중국인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일견 변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서 중국인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한정 짓고자 하는 타자화(他者化)의 정서를 관찰할 수 있다 (이인희 & 황경아, 2013). 부유한 중국인을 부각시키는 관점은 일견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인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일시적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인 방문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멸시가 다시 대두할 것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정희 (2008)와 최지영 (2011)의 연구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중국 유학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한 유학생활 과정에서 한국인의 비하적 태도, 또는 자국의 사회·정치·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또는 소통 방식의 문제에 따른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인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그

8 한국경제 기사 (2014.09.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462731 참조

9 아시아경제 기사 (2015.04.0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0233103546 참조

들이 지닌 수단적(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국의 순혈주의가 조장한 자국민 중심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다. 하정희(2008)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자신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한국인 교우와의 관계에 실망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례[10]는 대상[11]의 수단화가 상호 교류관계 구축에 있어 장기적인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제시하는 단편적 예이다. 중국인을 경제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고는 향후 중국인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해 질 경우 '얻을 것이 없으면 버린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관점을 부름으로써 한-중 관계 개선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장기적인 한-중 교류관계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디어의 이분법적 시각: '위험한' 중국인

미디어의 역할은 단순히 중국인을 수단화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한국전쟁 이래 중국인에 대해 한국인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수년간 보도된 미디어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연루된 강력범죄를 다루는 경우 범죄자가 외국인임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다분하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라는 신조어를 낳은 한 방송국의 코미디 프로그램[12]에서는 재 중국동포에 의해 자행되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다루는데, 이 같은 사례는 중국인/중국동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미디어의 역할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보도에서 범죄자의 국적을 강조한 사례를 극히 일부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련매체	보도일	제목
대구일보	2014.12.22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대구도 안전지대 아니다[13]
NP뉴스포스트	2012.4.26	[심층취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 '온정주의'가 외국인 범죄 키운다[14]
스포츠서울	2007.10.19	안산공단 인근은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천국[15]
조선일보	2015.2.15	[주말뉴스 일]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수법도 흉폭해져…경찰 집중단속[16]

10 하정희 (2008) P. 482 - 483

11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12 한국방송공사(KBS)의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內 <황해> 코너에서 2013 년 5 월 26 일 ~ 2014 년 5 월 25 일 방영되었다.

13 http://www.idaegu.com/?c=5&uid=307628

14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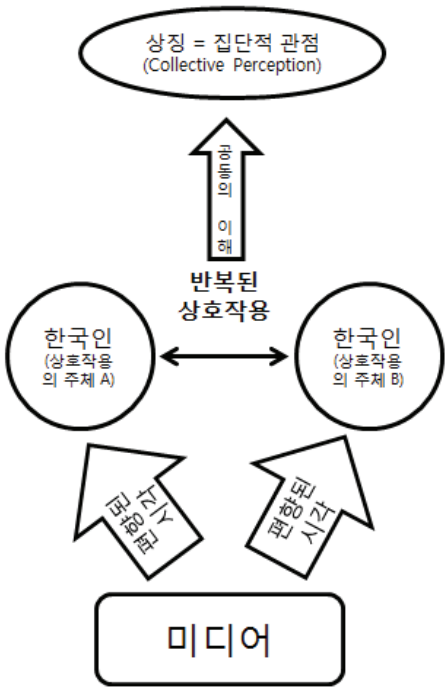
1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3&aid=0000080528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5/2015021502271.html

관련매체	보도일	제목
아시아경제	2014.10.6	월별 외국인 범죄 급증…경찰 전담 인력 태부족[17]
뉴스1 코리아	2013.9.28	“외국인 범죄 급증세…중국인 59.3%” [18]
팩트9뉴스	2014.12.25	흉폭해지는 외국인 범죄, 무엇이 문제인가?[19]
경남신문	2015.3.17	[진단] 빨라진 외국인 범죄 시계 (4) 대책은 없나[20]

<표 : 외국인 범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미디어 보도자료>

상기한 보도자료들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과 흉폭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문화사회 구축에 따른 외국인 유입 인구 증가에 비례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강력범죄와 범죄자의 국적, 인종 에 대한 통계적 접근은, 특정 인종과 범죄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는 인종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한 포용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인희와 황경아 (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집단을 문제의 잠재적 원인으로 규정하는 미디어의 보도 방식이 실제 이민자를 경계하고 배척하는 시각을 양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 상징(집단적 관점)의 형성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미디어가 형성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 이론에 따르면, 어떤 현상 에 대한 주체(개인)의 해석은 해당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집단의 관점, 즉 상징 또는 여론이 형성된다 (Crotty, 1998). 미디어의 보도는 <그림 1>과 같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주체, 즉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1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602312711326
18 http://news1.kr/articles/?1339308
19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88
2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42741

되는데,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를 통하여 형성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 간의 담화(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한국인 사이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상징, 즉 집단적 관점(Collective Perception)이 부상하게 된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위험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함으로써, 경계의 대상인 중국인을 배척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부자 중국인'의 이미지가 중국의 경제적 침체, 또는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흔들릴 경우 '가난한(위험한) 중국인의 이미지가 언제든지 재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인의 폐쇄성: '공동체 순응'과 민족주의

중국인이 가진 사회적 폐쇄성은 중국인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조성하는 원인 중 하나다. '공동체 순응(community conformism)' 이라 불리는 자국민 공동체 선호현상 (Colic-Peisker, 2005)은, 이민사회에서 한 이민자가 자신과 동일한 인종 또는 국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집단에 예속되고자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현지 공동체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Colic-Peisker, 2005),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지닌 중국인들 또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집단중시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 또는 그들의 후속 세대들이 현지사회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배반행위(disloyalty)'에 대한 비난[21] (Alba, 2005)은 이민자들이 자신 및 다른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상호 구속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신영미 (2011)의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전통과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중국정서가 한-중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반한 감정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발현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Alba (2005)가 제시한 배반행위란, 중국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우수한 문화적 배경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편입되고자 하는(또는 그러하다고 인식된)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인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자

21 비난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지에 유학(또는 이주)한 같은 국적 출신의 동양인 5 명과 현지인 1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이중 동양인 1 명(A 라 칭함)이 현지인과 현지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한다. A 와 현지인 간의 대화가 길어짐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동양인 4 명은 A 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 비난의 원인은 A 의 잘난 체(겸손하지 못한)하는 행동 때문이다. 이는 겸양과 집단을 중시하는 동양의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 나타난 A 의 행동은 동양적 사고에서 중시하는 집단 순응과 내향적(introvert) 행동양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인과의 대화를 주도함에 따라 A 는 동료들로부터 자국민으로 구성된 집단을 버리고 현지인 집단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며, 또한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에 따라 다른 자국민 동료들 앞에서 '잘난 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A 의 행동은 자국민 집단에 대한 일종의 배반행위이자 동양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되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박정수 (2013)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현상을 문화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라 정의하는데, 이는 문화 간에 '경계'를 지음으로써 향유하는 문화에 따라 '너와 나'가 분리되는 타자화를 낳는다. 청의 멸망 이후부터 현대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는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반한 감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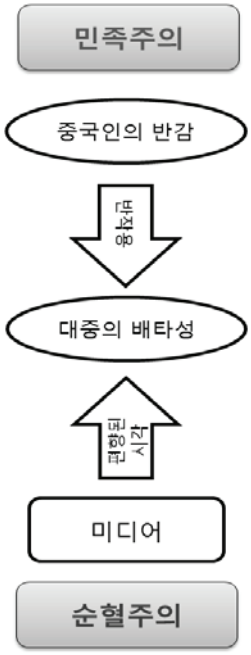
현상의 궁극적 원인 : '너희와 우리', 역사가 낳은 '만들어진' 환상'

한국은 단군신화를 건국신화로 삼고 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신채호에 의해 재해석되어 황국신민을 뜻하는 '국민' 보다 단군이라는 단일조상의 자손을 의미하는 '민족'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 지배 체제에 대항한 민족의 결집력 강화를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Choe, 2006). 원래 민족이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본질적 의미는 단일조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순혈주의로 변질되었다. '환향녀', '양공주'와 같은 단어가 의미하듯, 여성의 순결과 결부되어 외국인과 몸을 섞는 행위를 죄의식화 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순혈주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및 이들의 '혼혈' 2세대들을 배척하는 태도 (설동훈, 2007)를 통해 관찰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무의식에 깊이 내제되어 있다.

일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단일민족 신화에 기반한 한국의 순혈주의는 중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배타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귀식, 201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는 2007년도 보고서에서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일민족 강조를 지적하며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22], 한국인의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앞서 설명한 미디어의
중국인들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홍지아와 김훈순 (2010)이 제시한 한국인의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가치관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적 포섭과 배제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며, 한국 대비 경제적으로 저 성장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양산함으로써, 차별의 당사자로부터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반감이 반한정서로 귀결되는 원인이 되었다. 외세의 침범 및 일제의 강제점거에 맞선 민족 결집력 강화를 위하여 등장한 한국인의 순혈주의는 비록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 활용되었으나, 중국인을 비롯한 타국인들과의 교류를 저해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22 P. 91 참조

한편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한족중심의 정권이 아닌 만주족이 통치한 청을 계승한 현대 중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인종 정체성이 아닌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민족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중국의 고도 성장기 사회주의보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애국심 교육의 수혜자인 바링호우(80后)와 지링호우(90后) 세대 (최지영, 2011)의 민족적 우월감으로 발전하였으며, 한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반한 정서의 원인이 되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민족정체성은 한국의 경우 미디어에 의해, 중국의 경우 재한 중국인이 겪은 부정적 경험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며, 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림 2 :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사회 현상 이면에 숨겨진 민족의식>

해결책

순혈주의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 태도는 재한 중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배척과 무시를 통하여 중국인의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민귀식, 2012). 한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의 상당수가 유학생활 중인 20~30대의 중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대(對) 한국 인식 악화가 장기적으로 양국의 우호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이민자를 타자화하는 '우리와 너희(us-and-them)' 적 관점이 내제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순혈주의로부터 기인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국의 문화·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등장한 중국인의 민족주의에서도 한국인을 타자화하는 정서를 찾을 수 있다. 미래 양국간의 관계가 지닐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은 그 시급을 요한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배경 : 유교 - 혈연의 문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대 중국의 사회·문화적 바탕에서 출현한 유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개인-가족-제후-왕'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질서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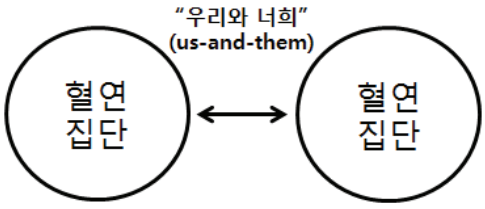
장 기초적인 단위로써 가족을 중시하였다 (Hofstede & Bond, 1988). 가족의 군집인 촌락은 더 큰 규모의 행정체계로, 그리고 행정지구들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수장인 왕 또는 황제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를 일원화된, 마치 '거대한 가족'과 같이 바라보는 유교적 관점은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의를 중시하고, 통치자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배 구조 하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중심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유교문화에서 집단에 순응하는 것이란, 대의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대의를 실천하는 자는 '군자'로 지칭되는 존경을 얻는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적 행동은 만인의 지탄을 받았다. 한 개인이 저지른 실수나 오점에 대한 비난은 그가 속한 가족 전체, 때로는 그들의 후대에까지 미치기도 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연좌제에 의하여 처벌이 가족 구성원 전반에 까지 미치기도 하였다 (심재우, 2011). 개인을 독립적 단위가 아닌 가족의 일부로 바라보고, 가족 전체를 소속 개인에 대한 판단 준거로 삼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양의 문화적 특성은, 동양 사회가 농업중심사회의 씨족공동체에 기반한 혈연중심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은 혈연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단위이며, 이는 개인-부모-조상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시하는 문화를 낳는다.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나의 직계 조상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진다. 유교문화에서 조상(祖上)은 자아(自我)보다 상위에 위치한 개념으로 나의 근본을 의미하는데, 나와 같은 조상을 모시는 사람은 나와 근본을 공유하는 대상, 즉 혈연으로 엮인 동질적인 존재로써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고대의 씨족사회가 보인 사회·문화적 특징은 현재까지도 집성촌의 형태로 관찰 가능하며, 한 개인에게 있어 고향이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자신의 조상이 거주하던 '시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향(同鄕)사람이라 함은 같은 씨족 공동체 내에서 교류해온 역사를 지닌, 직•간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가깝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의미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상대의 '고향'을 확인하는 행동은 혈연에 대한 인식이 양 국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가족과 혈연을 강조하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문화적 특성은 양국 간 혈연 코드를 활용 한 공공외교 전략이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다음 단락에서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해결책 : 혈연에 기반한 공공외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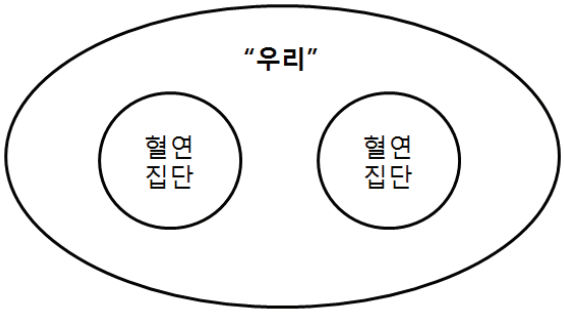
국내 한 매체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 당선 당시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시 소재의 한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음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하였다[23]. 반기문 총장과 같은 '판(潘)' 씨 집성촌인 판야오 마을에서 한국의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에 대해 기쁨을 표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12/2007011200835.html

같은 성씨를 지닌, 즉 같은 조상을 모시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큰 의미를 지닌다. 같은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혈연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것, 즉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질의식을 지닌 집단 내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갖는 효과를 지닌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를 반목하게 된 주된 원인은 서로를 타자화 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리와 너희(us-and-them)' 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관점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중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지닌 이분법적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의 근간에는 순혈주의라는 혈연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양국이 지닌 문화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은 각각 상이한 기준에 기반한 '상상된 민족 정체성 또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형성된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한 순혈주의 (Choe, 2006), 중국의 경우 청나라의 통일에 따른 한족 지배체제의 단절의 결과 대안으로 등장한 민족정신이 양 국민들의 민족 정체성, 즉 '상상된 혈연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혈연관계가 '상상된' 것이라 함은 사고의 재구조화(re-framing)에 따른 민족적 본질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식이 변화 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혈연 또는 민족의 중시는 <그림 3>과 같이 타자화를 통한 배척의 '원인' 이자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포용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a: '타자화'의 원인이 되는 혈연기반 사고>



<그림 3-b: 각 혈연집단을 더 큰 개념의 혈연공동체로 해석함으로써 동질화>

198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257개의 성씨 중 귀화성씨는 136개이다 (설동훈, 2007). 설동훈 (2007)에 따르면 이는 잦은 외세의 침략과 남방계·북방계로 분류되는 한국인의 생김

새와 더불어 한국인이 순수 혈통이 아님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고려시대 귀화 성씨 중 다수는 중국 성씨였으며 (이찬욱, 2014), 이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혈연 인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폐쇄성을 감소시키고, 대종회(大宗會)와 같은 단체를 통한 양국 국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외교 및 민간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혈연 코드를 활용한 공공외교 전략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민족간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와 너희(us-and-them)'적 관점을 '더 큰 우리(bigger us)'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통합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사례 : 2002년 월드컵과 '형제의 나라' 터키

혈연 코드가 양국간의 공공외교에 적용된 사례로 터키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터키인의 선조로 알려진 돌궐족과 고구려의 관계는 갈등관계 이후의 연대관계 (강선, 2006) 또는 전반적인 갈등 관계 (이정빈, 2014)였던 것으로 다소 상이한 해석을 보이는데, 역사적 사실을 떠나 터키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던 한국 대중이 터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지니게 된 것은 미디어에서 2002년 월드컵 당시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묘사한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재윤, 2012). 혈연코드를 내포한 '형제' 또는 '형제의 나라'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터키를 지칭하는 용어로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24], 이와 더불어 한국과 터키와의 관계를 고구려와 돌궐과의 관계로 연관 지어 설명하는 비 학술적 글들[25]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미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양 국민이 지닌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재구조화(re-framing)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에게 '형제의 나라'로 인식되는 터키의 사례는 혈연 코드를 활용한 공공외교 정책이 한-중 교류의 키워드로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4 사례: 대한일보 기사 (2015.03.22)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7

25 조인스 블로그: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kdk0070&folder=22&list_id=7110879 또는 http://blog.daum.net/enature/15851616 등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한계와 대응방안

동북공정

혈연 코드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통한 민족주의적 인식의 전환은 분명 동북아 각국에 존재하는 민족주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작용 또한 존재한다 할 수 있는데, 한 예로 동북공정을 들 수 있다.

흔히 동북공정으로 잘 알려진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은, 통일 등 한반도에서의 정세변환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이탈에 대비한 중국 동북부 지방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방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정부주도의 국책연구 사업이다 (차재복, 2012).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요하문명권'에 대한 부각은 잠재적으로는 해당 문명권 내 모든 고대 문명을 중국의 일부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차재복, 2012). 동북공정이 보이는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재해석 시도는 양국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혈연 코드의 악용에 대한 경계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동북공정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인식이 여전히 민족주의적 한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관점을 살펴보면 동북공정은 거주민 상당수가 재중국 동포로 구성된 동북아 지역이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이탈하는 만연의 사태에 대비한 '방어'적 사업이다. 한편 한국에게 있어 본 사업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방어'해야 할 침략 행위로 규정된다. 즉 양측의 논리는 모두 방어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킨다는 논리가 민족 정체성과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주의 및 순혈주의와 오묘하게 닮아 있다. 국가의 기원을 민족에서 찾는 민족주의 국가관의 대두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의 과거는 민족주의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양국민의 배타적 정서를 감쇄하고 발전적인 상호인식의 확산을 위한 혈연코드의 활용은, 한-중 교류 강화를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제언

순혈주의 해소를 위한 아시아지역의 다문화주의 관련 학술연구 및 포럼 개최

이전의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의 순혈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는 양국의 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주로 한국의 순혈주의에 기반한 자민족중심주의가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예로 중국인에 대한 비하적 태도 또는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무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학술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민족에 대한 학술교류는 한편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연구가 중립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확인 등을 통해 학술교류의 장이 상호간의 민족주의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단일민족 신화를 허물기 위한 미디어 보도 강화 및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현대인은 인터넷, TV 등 정보 매체와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전달이라는 역할에 있어 미디어가 지닌 접근성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를 다루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홍지아와 김훈순 (2010)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의 순혈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단일민족의 신화를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시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온정주의, 혐오주의, 차이에 대한 부각, 젠더 의식 등의 사고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자료수집 등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학술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다문화 출신 인사와 그들의 가족 등으로 구성된 패널의 조언을 통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한편 미디어가 취하는 태도는 수용자인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순혈주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제안할 교과서 개편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교과서 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과서는 단일민족 사고를 주입함으로써 순혈주의 인식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이 지닌 장점은 수용하되 통합은 꺼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어 중국인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불렀다. 교과서의 수용자가 아직 사고의 구축단계에 있는 1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단일민족 정서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지나친 미화(Glorification)는 개방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개편은 편향된 역사의 제시가 아닌 균형 잡힌 관점

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민족 정체성의 강조 보다는 다문화와 보편인류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귀화성씨 간 상호초청 행사를 통한 민간교류 강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성씨 가문은 대종회(大宗會)를 조직하여 친족집단 간 교류행사를 주관하고, 주기적인 족보 편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성씨를 보존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국내에는 다양한 중국 기원 성씨 가문이 운영하는 대종회가 존재하며, 이들 상호 간의 초청행사를 양국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제안 가능하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살펴 봄으로써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고, 개선된 인식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옅어지는 사례를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관찰 할 수 있는데 (문흥호, 전성흥, 이희옥, 김인, 민귀식, 2010)[26], 상호방문 행사를 통하여 양 국민의 민족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도모하고 나아가 상호 교류행사 지원을 통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의 사례를 참조한 아시아 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양의 가족적 정서를 고려한 아시아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양국 간 성씨집단을 중심으로 교환학생을 상호 초청하여 홈 스테이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당사국의 문화와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홈스테이 호스트는 초청학생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오해와 그에 따른 반감의 형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혈연의 재발견 - 사해동포주의를 향한 첫 걸음

본 연구에서는 혈연코드를 활용한 공공 외교를 통하여 한-중 교류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 뿌리내린 민족주의를 해소함으로써 동북아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초기 전략으로 혈연코드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제시하였다. 혈연코드의 활용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순혈주의를 순화하는 한 방편으로, 한국인이 지닌 단일민족에 대한 환상을 해소함으로써 중국인을 위시한 타국인들에 대한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공공외교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간의 공공외교 수단으로 혈연 코드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상대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혈연 코드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터키와의 관계에서 활용된 전례가 있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동북공정과 같은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26 문흥호 외 (2010) p. 108 - 109

혈연외교의 진정한 목적에 반하는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동북공정과 관련한 역사갈등 또한 민족주의의 또 다른 얼굴임을 인지하고, 양국간 학술교류와 외교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혈연 외교는 1차적으로 한-중간 교류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주의 해소를 통한 사해동포주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사상적 배경을 제시한다. 1·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은, 민족전쟁과 순혈주의가 준 교훈을 토대로 EU를 출범하여 민족 간의 경계를 점진적으로 허물고 있으며 (후쿠이노리히코, 2013), 이는 동북아시아 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순혈주의가 비록 역사적 필요에 따라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전 하였으나, 국제화가 가속화 되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현 시대에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장벽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양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혈연' 이라는 요소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역이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혈연 코드의 활용은 한-중 교류관계 강화라는 1차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외교의 새로운 접근방안이자, '민족은 없고 오직 세계민족만이 있다' 라는 사해동포주의적 사고의 구축이라는 2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인종과 민족이 지닌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lba, R. (2005). Bright vs. Blurred Boundaries: Second Generation Assimilation and Exclusion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28 (1)*, pp. 20-49.

Choe, H. (2006, March).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Vol. 19, Issue 1*, pp. 84-118.

Colic-Peisker, V. (2005). 'They're All Cleaning': Recent Refugees in the 'Secondary Labour Market' Paper presented at the TASA Conference 2005. Retrieved from www.tasa.org.au/conferences/conferencepapers05/.../ethnicity colic.pdf.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Crows Nest, Australia: Allen & Unwin.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o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Vol.16, Issue 4*, 5-21.

Kim, A. E. (2010). Increasing Ethnic Diversity in South Korea: An Introductory Essay.

Korea Observer Vol. 41. No. 4, 497-515.

Park, J. (2009). *The local construction of a global language: ideologies of English in South Korea.* Mouton De Gruyt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ttp://www.refworld.org/pdfid/473424062.pdf에서 검색된 날짜: 2015년 4월 13일

강선. (2006). 고구려와 突厥의 전쟁. “高句麗研究 第24輯”, 157-168.

곽영초.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 성격 분석: 화교집단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 장보고 CEO 포럼”, (페이지: 79-105).

구자억.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권선홍. (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1집 제2호”, 103-134.

김병조. (2011). 한국에서의 국제적 노동이동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해외취업 이출과 이주노동자 이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2749-2775.

김우상. (2013).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331-350

김우현. (2001). “세계정치질서.” 한울아카데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읽기쉬운 중국도해.”

문흥호, 전성흥, 이희옥, 김인, & 민귀식. (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민귀식. (2012). 상호인식. , 이희옥, & 차재복 외, (1992 ~ 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페이지: 223-25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민귀식, 정순기, 조복수, 김지영, & 김진영. (2014).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설동훈.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제52호”, 125-160.

성병욱. (2013년 2월).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0집 3

호”, 페이지: 1-23.

신영미. (2011). 중국내 반한정서(反韓情緖)의 현황과 동인(動因):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4호”, 107-141.

심재우. (2011).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5집”, 87-113.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387-421.

유미림. (2001). 조선 후기의 對중국인식: 숭명과 반청, 그 이념과 실제. “國際政治論叢 제41집 4호”, 277-296.

윤인진, 송백석, 김상돈, 송주영, & 송영호. (2009).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사) 아시아인권센터.

이양수. (2012). 제4장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 최석호, 중국인이 몰려온다! : 천만 관광객 시대의 한국관광 (페이지: 87-125). 서울: 백산출판사.

이인희, & 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 83-108.

이정빈. (2014).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호”, 285-314.

이찬욱. (2014). 韓國의 歸化姓氏와 多文化.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7집”, 253-277.

장광루이. (2012). 제2장 중국인 해외여행 추세와 전망. , 최석호, 중국인이 몰려온다! : 천만 관광객 시대의 한국관광 (페이지: 39-60). 백산출판사: 서울.

정재윤. (2012년 2월). 한국과 터키의 상호인식. “지중해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81-108.

차경자, & 진학문. (2013년 12월). 중국 국외관광의 발전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지역학논총 제6권 제2호”, 69-103.

차재복. (2012). 역사·문화. , 이희옥, & 차재복 외, (1992 ~ 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페이지: 185-221).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최지영. (2011년 3월). 재한(在韓)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

한·중 관계에서 함의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1집 1호”, 217-240.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2호”, 473-496.

홍지아, & 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TV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544 - 583.

후쿠이 노리히코. (2013) ″유럽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세상을 바꾼 400년의 시간″. 다른세상.

血缘外交：公共外交的新形势

殷振碩，趙瑞晗
慶北大學

〈摘录〉

从古代开始中国就和韩国之间持续着密切的相互作用，韩半岛的整体历史事实上很明显受着中国巨大的影响。反复对立与合作的韩中关系，随着冷战时代的终结和中国耀眼的经济发展等原因，在21世纪的今天开始显得愈加重要。

现代的外交正在超越政府间的外交以多样化的形态进化着，公共外交软实力的重要性急速增加（성병욱,2013）。尤其是韩国近年来韩流传播增加文化产业输出，从而提高对外形象，可以被称为是公共外交构筑基础的正确方向。从基于民间交流的公共外交层面来看，两国的交流算是活跃的类型，但是以国内言论为首的国内情绪来看，国内对中国和中国人的认识更多的倾向于单纯的‘经济手段’。如果调查媒体报道资料的话不难发现，以中国游客带来的经济效益方面的报道较为集中。这样的报道导致韩国人在看待中国人的时候，不是把中国人作为人与人交流的对象，而是把中国人看做是为了经济利益的媒介体。另一方面，随着过去中国人和华侨，及在中同胞的人员流入，使得人们过去对中国形成的“不卫生，贫穷”的偏见至今残存，这样的视角对韩–中关系带来的负面影响令人担忧。

*숙명여자대학교(중어중문학부장상)

韩国国内对于中国人通常有‘富有的中国人’和‘贫穷的中国人’之分，在本论文中，我们将这种二分法观点形成的原因定义为历史以来单一民族纯血统主义起因下的他己化°并且，本文将从问题的原因着手，将重视血缘关系和家族起源的韩国和中国的血缘文化活用，使这一反向策略作为韩•中交流强化的方案°

※关键词：公共外交，民族主义，纯血统主义，儒教文化，中国人，韩•中交流，民间外交，种族主义，东北亚地区一体化，中国人观光客，中国人留学生，外国人犯罪，他己化

序论

从古代开始，中国和韩国之间就持续着密切的相互往来，韩半岛的整体历史和文化显而易见地受着中国的影响°反复对立与合作的韩中关系，到了21世纪再次变得活跃起来，尤其是在韩流的基础下，两国的民间交流开展的十分活跃°随着中国经济的成长，到访韩国的中国观光客日益增多，这对韩国国内的经济带来了相当大的影响°但是，正是因为关于中国观光客增加的报道不断增多，使得韩国看待中国和中国人的观念上产生了两分性的认识，一部分人们在看待中国和中国人的时候，带有“摇钱树”这样一种偏向性的视角，另一部分则是偏见地认为中国人是“贫困的，危险的”°在本论文当中，将产生这样问题的终极原因定义为纯血统主义引起的他者化，本论文决定把韩国国内的纯血统主义和对中国人偏见形成的历史背景，受纯血统主义影响下的媒体对大众认知所产生的再生性效果，以及中国人带来的反感作为重点一一进行研究°

另一方面，政府与政府间外交的重要性尤为重要，但现代的外交超越了政府间的外交，正以多样化的形态进化着，公共外交软实力的重要性正在急速增加(성병욱,2013)°当事国“深入民心的”公共外交虽然表面上看来很难把握，但是是一种隐藏着强烈力量的外交战略°世界各国明白这种公共外交的重要性，正在为了抢占公共外交的优势持续竞争着（김우상,2013）°韩国根据“韩流”这一韩国文化资讯的喜爱现象，使得世界建立了对韩国友好的视角，可谓是对促进公共外交创造了有利的条件°由于前面所说的纯血统主义下的排他态度以及对此伴随的情绪在不断高涨，事态开始变得令人担忧°本论文在集中考察韩国的纯血统主义和中国的民族主义的同时，为了减少这种观念，将把两国国民对于根深蒂固的血缘认识作为公共外交的战略，从而提出有效的方案°

韩国国内对于中国•中国人的认识

20世纪以前：脱中華现象和韩国经济崛起下“贫困”中国移民者的流入

韩国人对于中国人的认识是随着时代的潮流不断变化的。在古代，朝鲜对中国定期朝贡，中国对朝鲜统治者进行册封，儒教家父长制思想下的中国和朝鲜，是朝贡与册封基础下的中心国与周边国的关系（권선홍， 2010）。中国相比其他朝贡国十分重视朝鲜（김우현， 2001）[1]，朝鲜认定中国，尤其是把明王朝的中国看作先进国和中心国。朝鲜把从中国传来的汉字和儒教文化作为先进文化来理解和接受，儒教也因此融入朝鲜的治国理念当中。起源于儒教思想的文化特性，使得直至今日在论及以韩国为首的东亚地区的文化时，儒教也依然是不可缺少的要素。

视中国为先进国的思想，随着明朝的没落开始改变。明朝没落以后，女真族建立了清朝，但是崇明排清意识的抬头，使得清朝并不被认作是汉族国家的正统继承者（유미림， 2001）。之后韩-中关系不断恶化，1876年通过和日本缔结的江华岛条约，使得朝鲜从中华世界秩序中摆脱出来（김우현， 2001），韩国战争是导致中国与韩国成为敌对国家的决定性原因。第二次世界大战以后，中国的经济发展随着毛泽东领导的大跃进运动的失败和文化大革命而停滞，与此相反，韩国经济的急剧成长使中国和韩国的经济差距不断增大，以1978年为基准，韩国的人均GDP为1,452美元[2]，中国的人均GDP为226美元[3]，两国的GDP大约存在6.4倍的差距。以韩国战争为契机，韩国将中国作为敌对排斥的对象的同时，把美国视为新的中心国家，这样的结果导致英语代替了汉字，韩国社会开始产生一种认为英语才是“成功的钥匙（Key for success）”的社会氛围（Park，2009）。

韩国经济的成长，导致以中国为首的发展中国家国民把韩国看作为移民劳动的目的地[4]（윤인진，송백석，김상돈，송주영，송영호，2009）。1990年代以企业研修人员身份流入韩国的外国人劳动者达到了2万余名（곽영초， 2012），2011年3月（包括未登录的移民劳动者在内）人数急剧增加至90万2715名（김병조， 2011）。一方面，大多数的劳动者主要从事的是韩国国民们回避的所谓的“3D(Dangerous，Dirty，Difficult)”业种（Kim，2010），因此韩国对于移民劳动者的社会认知是很低的。韩国人对于中国和中国人持有固定观念，比如他们觉得中国人“不爱洗澡”，“贫穷”，中国“不安全”，中国“东西不好”等等（구자억， 2010），而这些观念主要是源于社会•经济状态而产生的，从处在经济成长期的韩国人如何看待中国人的观点中就能反映出来。至今还有一部分阶层保有这样的固定观念，这是导致对中国人产生负面偏见的原因，这也是从韩国人的自我民族优越感（Ethnocentrism）中起因而来的（양계민，2009）。

21世纪以后：中国的崛起和“富有的”中国人的流入

1) 김우현 (2001) P. 163-167
2) 韩国银行经济统计系统（http://ecos.bok.or.kr/）：2015年4月26日调查
3) 对外经济政책研究院 (2013) 易读的中国图解 P.68
4) 윤인진 외 (2009) P.29

进入21世纪，中国的经济成长开始加速。2006年至2011年期间，中国的人均GDP从2006年2,063.9美元增长到2011年的5,183.9美元，增长了2.5倍以上（对外经济政策研究院，2013），随着经济上的成长，中国人的海外活动从一向的海外劳动者送出等经济性移民，向观光、消费、留学等目的的发达国家型转换。根据中国经济与企业发展所需高级人才的需求量不断增大，中国人海外留学生每年30万以上（민귀식，정순기，조복수，김지영，김진영，2014），这是“留洋派”或“海外留学归国派”等海归派[5]在中国国内社会成功所观察到的结论。受重视教育的儒教文化的影响，中国的父母按照一个家庭一个孩子的政策，采取集中所有家庭资源培养一个孩子的教育模式，导致了留学热风在中产阶层也很盛行的现象。由于事业、投资、留学等中国人海外进出人员的增加，韩国当地人对中国人持有的印象开始变化，认为中国是世界经济和霸权的新强者的观念开始扩散。

随着中国经济的发展中国人海外观光客数量急剧增加。经济收入水准的增长和人民币货币升值（장광루이，2012）[6]，使得中国人生活富裕了，去海外旅行的趋势持续增加（차경자 & 진학문，2013），由于对俗称“韩流”的韩国文化的喜爱，中国邻国的韩国或是成为了这样趋势的受害国。访韩中国观光客的增加不仅带动了韩国旅游服务业（이양수，2012）[7]，也致使韩国国内流通业的运营模式产生了变型[8]。这从韩国街道上的中文宣传语上就不难看出，百货店等企业从一向针对日本观光客的促销战略，已经转为把中国人作为主要的宣传目标[9]。

中国留学生与观光客的增加，为韩国人对中国人认识的转变起到了相当大的影响，舆论报道把游客访问的经济效益数值化。这样的报道令一向“贫穷”的中国人印象得到改善，另一方面，由于韩国人把中国人作为经济手段看待，使得对中国人非人的对待，因此产生了“贫穷，廉价劳动力的中国人”和“富有，摇钱树”这样两分化的思想。韩国人对中国人的两分化认识很可能会长期对中国交流上造成负面的影响，有实际在韩经历的中国人，尤其是以留学生为中心所反映的反韩情绪令人担忧（신영미，2011）。产生这样问题的首要原因在于媒体起到的作用，终极的实质性原因在于韩国人之间根深蒂固的纯血统主义情绪。

问题的原因

5) 朝鲜日报 新闻 (2006.12.2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21/2006122100164.html 参照
6) 장광루이 (2012) P.48
7) 이양수 (2012) P.89
8) 韩国经济 新闻 (2014.09.1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462731 参照
9) 亚洲经济 新闻 (2015.04.06.)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0233103546 参照

媒体的两分化视角：“富有的”中国人

正如上一章节所说，由于中国经济的崛起，中国游客的增加，使韩国人对中国人的认识有了巨大改变，但是另一方面，从这样现象的内因也使韩国人产生了把中国人看做经济手段的他者化情绪（이인희 & 황경아，2013）。刻画着富有中国人的观念乍一看意味着是对中国人认识的积极性转换，但实际上，另一方面，对中国人过去的负面认识还得不到改善，结果导致存在着这样的潜在危险：中国人访问带来的经济利益减少的话，蔑视的情绪又将再次抬头。从하정희(2008)和최지영(2011)的研究中调查得之，中国留学生在韩留学生活的过程当中，多少经受过韩国人贬低的态度，或者感受到韩国人对中国社会•政治•文化的认识不足，也许也是因为交流方式的问题而导致了不愉快的经历，这也导致了中国留学生对韩国产生了负面的认识。人们之所以对中国人缺乏根本的理解，仅仅利用中国人的经济价值，正是由于社会风气和韩国纯血统主义主张的自我名族中心的态度所带来的反作用。하정희(2008)在研究中提到，中国留学生在和追求“互相帮助”目的性的韩国人交友时感到失望[10]，把对方（这里指的是中国人）作为手段，追求相互交流的关系会导致长期性的问题。把中国人看作经济手段的思想，在未来，若中国人对韩国经济效益起不到积极的作用时，“物尽其用，进而弃之”的短浅观念将会给韩–中关系的改善带来反作用，从而进一步将长期恶化韩–中交流关系的基础。

媒体的两分化视角：“危险的”中国人

媒体的作用不仅是单纯地把中国人经济视角化，韩国战争以来还使韩国人对中国人的负面认识加深。调查数年间报道过的媒体资料的话，在看待连累外国人犯罪的事情上，总是有突出显示犯罪者的国籍的倾向。一方面在一家电视台的喜剧节目[11]中出现了“顾客您很惊慌吗？”这样一句新造语，节目中把在中国同胞肆意声讯诈骗的故事作为素材，这更是加重了人们对中国人的负面认识。在媒体报道中强调犯罪者国籍的一部分事例如下：

相关媒体	报道日期	题目
大邱日报 (대구일보)	2014.12.22	增加的外国人犯罪…大邱也不是安全地带[12]
NP新闻邮箱 (NP뉴스포스트)	2012.04.26	[深层取材] 外国人犯罪的实况和对策 – ‘温情主义’致使外国人犯罪[13]
体育首尔 (스포츠서울)	2007.10.19	安山工业区附近是外国人劳动者性犯罪的天堂[14]
朝鲜日报 (조선일보)	2015.02.15	[周末新闻]激增的外国人犯罪，手段也逐渐残暴…警察集中管制[15]
亚洲经济 (아시아경제)	2014.10.06	每月外国人犯罪激增…警察人力十分不足[16]
新闻1KOREA	2013.09.28	“外国人犯罪成激增趋势…中国人占59.3%”[17]

10）하정희（2008）P.482–483

11） 2013年5月26日～2014年5月25日期间在韩国放送公社（KBS）放映的的节目搞笑演唱会中的《黄海》部分

(뉴스1 코리아)		
事实9新闻 팩트9뉴스	2014.12.25	手段逐渐残暴的外国人犯罪，究竟问题的主因是什么?[18]
庆南新闻 (경남신문)	2015.03.17	[诊断] 外国人犯罪增长趋势加快（4）没有对策吗[19]

<表格 ： 集中报道外国人犯罪的媒体报道资料>

以上的报道资料都是在集中报道外国人犯罪的增加率和残暴性。尽管外国人犯罪处在增加趋势是事实，但是这应该归结于是因为在构筑多文化社会时外国人流入人口所增加的比例，外国人流入人口多了，按比例自然有可能犯罪的案例也会增多。关于暴力犯罪和犯罪者的国籍、种族所做的统计，是在以种族主义的视角来寻找特定种族和犯罪类型间的相互关系。这也说明了我们社会在为了构筑多文化社会时所需的包容力还仍然不足。이인희和황경아（2013）的研究中说，媒体把移民者集团作为问题的潜在原因进行报道，这样的媒体报道方式，实际上是在扩散对移民者警惕和排斥的情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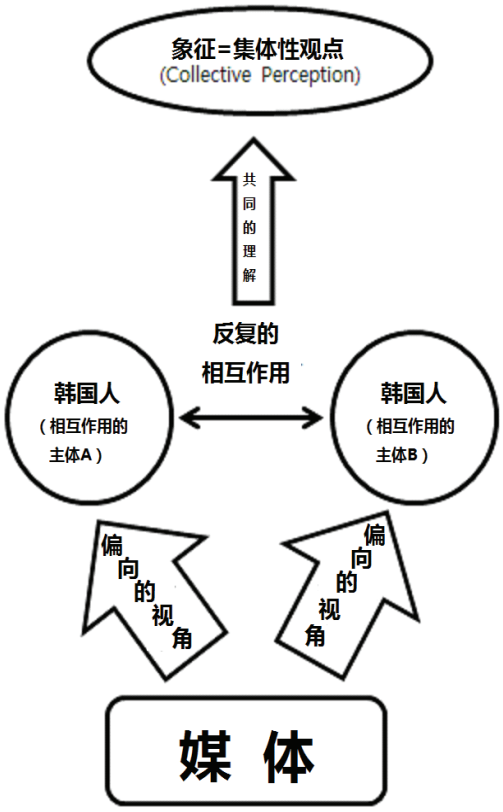
媒体所形成的关于中国人的负面视角，通过社会各构成间的相互作用不断再生成。依据象征式相互作用主义（Symbolic Interactionism）理论来看，对于某种现象的主体分析决定了有关主体和客体间相互作用的性质，这样的相互作用的结果和集体的观点，形成了象征或者舆论（Crotty, 1998）。根据Crotty(1998)的研究表明，正如〈图一〉所示，首先把中国人视作主体，也就是把韩国人对中国人的分析看作主体，在这之中媒体的报道会对主体造成影响。通过媒体的偏向性报道产生的有关中国人的负面认识，会对韩国人之间对中国人的有关谈话也造成负面影响，在这样的相互作用下，会使韩国人之间对中国人会产生一种负面的“象征”，这里的“象征”指的是一种集体观念（Collective Perception）。媒体生产出的“危险的”中国人的形象，是对中国人负面认识的传播，使中国人成为韩国人心目中要警戒和排斥的对象，这也就意味着当“富有中国人”的形象随着中国的经济停滞或游客数量减少等原因产生动摇时，这种“贫穷（危险）的”中国人的形象将随时再次登场。

中国人的封闭性：“共同体顺应”和民族主义

中国人具有的社会封闭性是造成中国人负面认识的原因之一。称为“共同体顺应（community conformism)"的本国国民共同体偏爱现象（Colic-Peisker, 2005），指的是在移民社会中的移民者隶属于和自身具有同一种族或国籍背景的移民者集体中的现象。这成为了妨碍移民者融入到当地共同体中的根本原因（Colic-Peisker, 2005），重视集体文化背景的中国人或因这样的问

12）http://www.idaegu.com/?c=5&uid=307628
13）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822
1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l=102&oid=073&aid=0000080528
1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5/2015021502271.html
16）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602312711326
17）http://news1.kr/articles/?1339308
18）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88
19）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42741

题得不到个性解放°尤其是从重视集体文化圈出身的移民者或是他们的后代们，在想要融入当地社会集体的过程当中，往往会被看作是“背叛行为”，饱受着来自于自己种族或同国人的非议[20]（Alba，2005），这样的非议与责难，成了移民者自身与其他移民者相互制约融入社会的工具，也成了移民者很难融入当地社会的主要原因°另一反面，신영미(2011)的研究中表示，守护自身传统和民族的中国情绪，是产生韩-中矛盾的原因，中国人虽然喜欢韩国文化，但是另一方面自己作为中国人的身份怕被蚕食的危机感，可以说是一种反韩情绪°Alba(2005)所提出的背叛行为，是指中国人抛弃自身优秀的背景文化，融入新文化当中的行为（或是想法），因此可以得知源于自我民族中心主义的中国人是不自由的°박정수(2013)将想要守护自身文化的现象定义为文化的“再领土化（re-territorialization)"，这将导致文化间的“警戒”情绪，从而衍生“你和我”之分的他者化°从清朝灭亡以后，中国人在进入到现代社会的过程中所形成的民族主义，这造成了中国人对韩国人产生排他的情绪，也是使“反韩情绪”扩散的原因°



〈图一：媒体对象征（集体观点）的形成所造成的影响〉

现象产生的终极原因：“你们和我们”，历史遗留下的“创造幻想”

韩国把檀君神话作为建国神话，在日本殖民统治时期，신채호重新解析了檀君神话，比起皇国

20）关于这种产生“非议”的情况，举实际事例说明如下：
假设有五名在当地留学（或移民）的同样国籍的亚洲人和一名当地人聚在同一张桌子那里聊天，其中的一名亚洲人（我们称之为A）和当地人用当地的语言在对话°如果A与当地人对话的时间过长，无法参与到对话中的其他4名亚洲人便会开始对A进行非议，一般这种情况下，A遭受非议的原因往往是因为其他4名觉得A的行为不够谦逊，不够重视他们的集体°亚洲文化圈往往重视谦逊和集体，A的行动，与亚洲人的集体顺应思维和内向型（introvert）行动模式所相反°所以在其他4人看来，A与当地人主导对话的行为，稍微带有抛弃本国的集体而转向当地人集体的意图，再则，如果A当地语言讲的非常流畅，那么其他的同国人又会感到一种A在他们面前“炫耀”的情绪°所以从亚洲人的思维立场来看，A的行为成了一种不顺应集体的“背叛行为”，所以A成了同国朋友口中非议的对象°

臣民的“国民”一词，更加强调表示着唯一祖先檀君子孙意义的“民族”一词，随着这种逻辑的发展，为了对抗统治体制，为了强化民族的凝聚力，韩国开始致力于思想上进行发展进步（Choe, 2006）。原先的“民族”一词，指的是有着同样文化和历史，有着共同集体意识的集团，但是在韩国民族主义的本质意义却变质的成了强调唯一祖先的纯血统主义。正如“还乡女”，“洋公主”这种单词所表达的，女性的纯洁在当时是很封建和重视的，和外国人身体结合的行为被看作是罪恶的，纯血统主义正是在这样的背景下发展而来，因此，人们对往往移民劳动者结婚所生的“混血”孩子持有排斥的态度（설동훈,2007），直到现在，韩国人的内心深处还无意识地潜在着这种想法。

立足于单一民族神话的韩国的纯血统主义在与日帝统治对抗的过程中壮大发展，纯血统主义也渐渐成为中国人从韩国人那里感受到排斥性的原因（민귀식, 2012）。UN种族歧视废除委员会（CERD）在2007年度的报告书中指责韩国小学的教科书有强调单一民族的行为（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21]，同时对韩国人的纯血统主义表示担忧。홍지아和김훈순（2010）提出，前面所说到的媒体关于中国人两分化的思维，是媒体以韩国人纯血统主义单一民族价值观为基础，进行“选择性容纳和排斥战略”所反映出的结果，同时홍지아和김훈순总结道，纯血统主义可以归结为是一个民族的民族优越感，是一个民族在察觉到他民族侵犯时防止被“杂种化”的一种罗辑思维。由于来自于比韩国经济低增长国家的外国人不断受到负面的歧视，外国人作为被歧视的对象所产生的反感最终成了造成反韩情绪的原因。在面临外势力的侵犯与日帝的强制占据时期，为了强化民族凝聚力而诞生的韩国纯血统主义，是历史下的必然产物，阻碍了韩国与以中国人为代表的外国人的交流，成为了妨碍构筑多文化社会的障碍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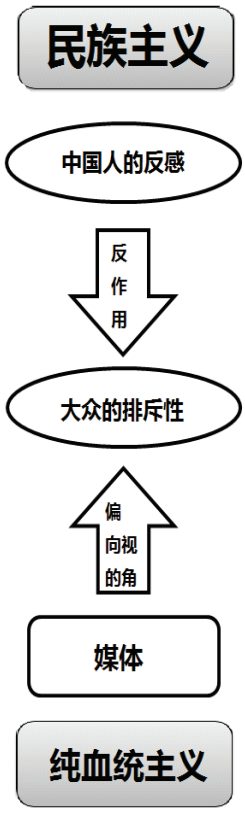
另一方面，中国的自我文化中心主义，不是汉族中心的政权，也不是继承清朝的现代中国历史背景下的种族体制，而是在强调同一文化下民族集体的政体性的过程中发展而来的。在中国的高度成长期，盛行强调民族主义的爱国教育，中国的80后和90后（최지영, 2011）正是这种爱国教育的受害者，中国的自我文化中心主义，从80后和90后的民族优越感发展而来，这也是“韩流”反作用下产生的反韩情绪的原因所在。如〈图二〉所示，正是因为两国的民族政体性，致使韩国媒体偏向性影响的作用和在韩中国人经历的负面经历不断扩大再生产，导致了两国间的矛盾不断增幅。

解决方案

源于纯血统主义基础下发展而来的韩国人的自我民族中心（Ethnocentric）态度，通过对在韩中国人，尤其是中国人留学生的排斥和无视，刺激了中国人的民族主义心理，并造成了反韩情绪的产生（민귀식,2012）。考虑到在韩国居住的中国人中有相当一部分是20~30岁正在留学中的中国人，他们对韩国认识的恶化会直接对两国的友好关系造成长期的恶劣影响。这种问题的根源其

21) 参照P.91

实在于把移民者他者化的“你我之分（us-and-them）”这一观念，这是一种纯血统主义起因下的现象。而且，从保留自国文化•民族政体性运动诞生的中国民族主义中，也能找到把韩国人“他者化”（排外）的情绪。考虑到未来两国间关系的重要性，为了改善两国人民的认识，找到快速有效的解决方案显得至关重要。为了改善两国间的这种问题，将从两国的历史•文化背景着手，寻找问题的解决方案。



〈图二：排斥态度社会现象内幕下隐藏的民族意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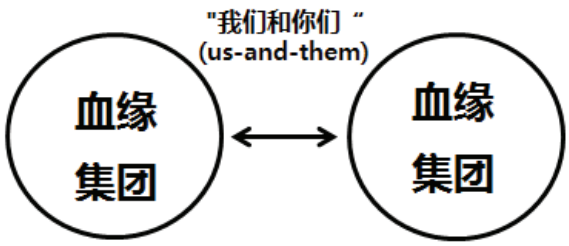
背景：儒教-血缘的文化

在以农业为中心的中国古代社会•地理背景下所诞生的儒教，提出了“修身齊家治國平天下”的思想，这种思想十分重视“家族”，并把“家族”作为最基本的单位，建立了“个人-家族-诸侯-帝王”的垂直体系（Hofstede & Bond, 1988）。家族聚居的村落作为是比家族更大规模的行政体系，各行政地区由中央政府及中央政府的首长--王或皇帝来掌管，整个社会构造是一种权利集中的构造。正是如此，一种把社会一元化，看作是个“巨大家族”的儒教思想，构建出了上下级间不平等的权利关系，上下级间要遵守礼节，在以统治者为中心的一元化支配构造下，儒教思想成了重视集团高于个人利益的集团中心文化的根基。在儒教文化里，服从集体是指为了大局甚至可以牺牲自己的行为，这种为了大局而牺牲的人，被尊称为‘君子’。反之，只在乎自己的利益而不顾大局这种“因小失大”的行为则会受到万人的唾骂。一个人犯了错误或者有了污点，那么他的整个家族都会受到牵连，有时甚至后代也会受到牵连，事态严重的情况下，“连罪制度”会使整个家族都难逃处罚（심재우，2011）。个人不是一个独立的单位，而是被看作家族的一部分，东洋的文化特性在于，儒教思想把家族整体归为对一个人的判断标准，东洋社会对基于农业中心社会的氏族共同体下的血缘中心文化所产生的影响如下。家族是血缘中最基本最重要的单位，因此重视“个人-父母-祖先”家谱的文化诞生了。谁是谁的子孙，谁的直系祖先又是谁，这样的问题在中国和韩国的社会中都被看作是很重要的事情。儒教文化里，祖先是存在于比自我更高层次的概念，祖先是自我的根本。和我祖先相同的人，也就是和我拥有共同根本的人，即拥有血缘关系并且值得信任的人。从古代氏族社会中看到的社会•文化性特征，至今也能从同姓村的形态中发现，对于一个个体来说，故乡代表的不是自己出生的地方，更多的是代表自己的祖先曾经居住过的“村落”。所以同乡人的意思就是，在同一个氏族里面，有着共同的历史，有着直接 · 间接的血缘关系，并且值得信任的人。因此，韩国人和中国人相互确定对方故乡的行为，正是两国人民关于血缘有着共同认识的证据，这种认识能够影响两国国民看待对方的心态产生变化。从中国与韩国共同具有重视家族与血缘的文化特征中完全可以看出活用两国间的血缘关系作为公共外交战略的可行性，在下一章节将具体阐述。

解决方案：血缘基础下的公共外交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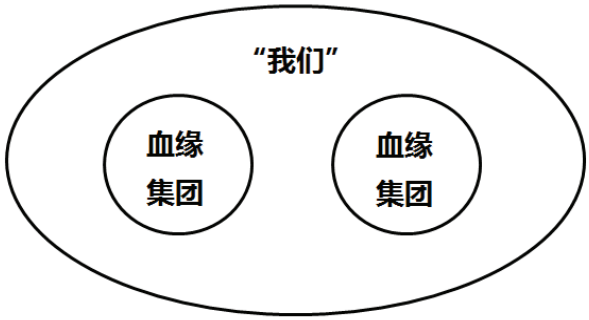
国内一家媒体引用中国当地媒体的报道[22]，报道了联合国秘书长潘基文被宣布当选的时候，远在中国河南郑州市的一个村庄的气氛却像过节一样开心。原来这个村子的村民都是“潘姓”，潘基文秘书长和潘窑村的人民有着同样的姓氏，那么为何潘基文秘书长的当选使远在中国的潘窑村村民为他一起庆祝呢？

原来，具有同样的姓氏，也就像前面所说的有着相同的祖先，是有着深层的意义的。祖先相同意味着他们存在于一个共同的血缘共同体内，也就意味着他们有着同样的共性。在拥有共性意识的集团内部关系中，相比一般普通的关系拥有更强的纽带感。令中国人和韩国人相互反目的主要原因，是因为相互他者化的所产生的‘你我之分’的观点。之所以出现这样的现象，是因为韩国人对中国人的排外性这样两分化的认识，在这种认识的基础上产生了血缘中心性思维。不仅两国之间有着文化上的共同点，韩国人和中国人还以’想象出来的民族政体或血缘关系‘为背景，根据各自以商议的基准在自己规范化着。以韩国为例，韩国在与日本殖民统治对抗时期诞生的檀君神话的历史背景下产生了纯血统主义（Choe，2006），中国则是因为清朝的统治，作为汉族支配体制瓦解的对策而登场的民族精神，对两国人民的民族政体性，也就是“想象出来的血缘关系”的形成造成了影响。在这里，“想象的”血缘关系的意思是指，在思维的再构造化(re-framing)影响下，有关民族本质的个人或集体的认识是有变化的可能性的。因此，血缘或民族的重视，正如〈图三〉所示，是产生他者化排斥心理的“原因”，也是扩大关于政体性的认识范围，展示出包容的“解决方案”。



〈图三-a：成为“他者化”原因的血缘基础思维〉

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12/2007011200835.html



〈图三–b：把各个血缘集团作为更大概念上的血缘共同体来解释同质化〉

以1985年的数据为基准，韩国国内257个姓式中有136个姓式是从外国归化过来的（설동훈, 2007）。根据설동훈(2007)指出，频繁的外部侵略及南北方的分裂证明韩国人的外貌和血统不是单一的。由于韩半岛与中国临界的地理特性，高丽时代的归化姓氏中多数是中国的姓氏（이찬욱, 2014），这之中有相当多的姓氏至今还延用着。这样的历史事实，可以帮助增加中国人和韩国人对血缘认识的范围，并减少封闭性，通过像大宗會这样的团体，为两国的国民或者地方自制团体间的公共外交以及民间交流提供了可能性。活用血缘关系的公共外交战略，在东北亚各国的民族间，抛弃“异质性”，强调“同质性”，通过把“你我之分（us–and–them）”的观点转换为“大家（bigger us）”的观点，促成整个东北亚地区的融合与团结

实际事例：2002年世界杯和“兄弟国家”土耳其

韩国与土耳其的关系就是把血缘关系适用在两国间公共外交中的真实事例。突厥族作为土耳其人的祖先而被熟知，突厥族和高句丽的关系，从矛盾关系直到后来的连带关系（강선, 2008），还有整体的矛盾关系（이정빈, 2014）一直存在着不同的说法。抛开历史事实，曾对土耳其陌不关心的韩国民众突然某天开始对于土耳其产生特别的感情，这起因于在2002年世界杯的时候，媒体所描绘的有关‘兄弟国家’的报道（정재윤, 2012）。直到现在，还有很多媒体经常用含有血缘关系之意的‘兄弟’及‘兄弟国家’这些词汇来称呼土耳其[23]，不仅如此，在网络上的博客中也可以轻易看到把韩国与土耳其的关系和高句丽与突厥的关系联系起来加以说明的非学术性文章[24]。之所以产生这样现象，可以说是媒体在其中起到了决定性的作用，正像前面所说的那样，

23）事例：大韩日报 新闻（2015.03.22）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7
24）JOINS博客：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kdk0070&folder=22&list_id=77110879
http://blog.daum.net/enature/15851616
在以上网址可以找到相关内容

这意味着两国人民之间关于民族政体性的认识是可以再构造（re-framing）的。所以，韩国人民把土耳其看作是‘兄弟国家’的事例充分表明，利用血缘关系进行的公共外交政策，可以作为韩中交流的关键词，韩国与土耳其建交的成功，就是血缘外交能够成功的强有力根据。

局限性和应对方案

东北工程

通过以血缘关系为基础的公共外交，进行的民族主义意识的转换，完全可以作为化解东北亚各国间存在的民族主义隔阂的手段，但是另一反面，也可能存在着反作用，引用东北工程的事例可以加以说明。

通常大家所熟知的东北工程全称叫做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工程，是一项随着韩半岛统一等局势变化，以及时应对中国东北地区分裂，及时确立东北部地方的历史政体性为主要目的，以防御性观点作为背景的中国政府主导的国策研究项目（차재복,2012）。作为本工程的一环，这个工程中在提到有关“粟末靺鞨文明”的描述时，潜在的表达出了把相关文明圈中所有的古代文明都归属于中国一部分的意图（차재복，2012)。东北工程中，对民族‘根源’再解析的试图，对两国之前的关系产生了不良的影响，考虑到这可能会对大局势产生潜在的恶劣影响，所以需要警戒血缘关系的滥用。

另一方面，东北工程中产生的韩国与中国之间的矛盾，其实是说明东北亚地区的国家认识仍然基于民族主义局限下的一个很好的例子。考察中方观点的话，东北工程是为了保证居民绝大多数为中国同胞构成的东北亚地区，用以应对韩半岛统一契机下防止分裂事态蔓延的“防御”性事业。然而另一方面，在韩国看来，这一工程是对韩民族的政体性和民族历史进行歪曲的“防御性”侵略行为。那么，分别以两国的立场来看，两国都是基于防御性的观念，为了不被抢占、保护民族政体性和血统时表露出的民族主义和纯血统主义观念，此时是多么的异曲同工。从民族中找到国家起源的民族主义国家观的兴起，从2次世界大战中走出阴霾的欧洲，在过去给了我们一个深刻的历史性教训--问题的关键就是一定要缓解民族主义。为了减少两国人民的排他情绪，为了两国相互认识的扩散，可以利用血缘关系这个概念来强化韩中交流，具体的方案将在下一章节进行阐述。

提案

为了缓解纯血统主义开展的有关亚洲多文化主义的学术研究及研讨会

正如之前的章节所说，韩国的纯血统主义和中国的民族主义是影响两国之间交流的绊脚石。矛盾的局面主要是因为韩国纯血主义下的自我民族中心主义使中国民族主义情绪产生反抗心理所引起的，相关的代表性例子有，韩国人对中国人贬低的态度和对中国社会与文化的无知等等。因此，在强化两国社会文化的学术交流的同时，持续开展有关民族政体性学术交流的必要性也显得愈加重要。有关民族的学术交流一方面可能会使事态发展到更加敏感的境地，所以要通过确认研究史料的中立性等手段，来确保学术的正常交流，防止学术交流变成相互间民族主义的论战。

为了打破单一民族神话开展的媒体报道强化和相关纪律片制造

现代人们的生活与网络、电视等媒体密不可分。所以，基于媒体与一般民众间的密切关系，媒体起到的是压倒性的作用。涉及多文化的韩国纪录片，大多数都像홍지아和김훈순（2010）所主张的观点一样，反应着韩国的纯血统主义视角。打破单一民族的神话，为了形成真正意义的多文化的视角，节目应该废除关于多文化家庭或外国人的温情主义，憎恶主义，刻画差异，性别歧视等内容。因此，以多文化为主题的纪录片，从资料收集等制作阶段开始就应该组建专家团队，或者向多文化出身的人士和他们的家庭成员等人群征询建议，确保节目是否从客观的角度出发是尤其至关重要的。其次，当媒体采取的态度要斟酌观众的需求时，应当从根本上改变韩国人的纯血统主义认识，这与将在下面内容中会提到的改善教科书内容有着密切的联系。

为了打击纯血统主义而进行的教科书改编

正如之前的论述，由于韩国教科书注入了单一民族的思想，致使纯血统主义思想不断强化，结果造成了“外国人所具有的长处得以吸取，却对外国人加以排斥”的社会认识，从而也造成了韩国人看待中国人的两分化思维。考虑到教科书的使用人群是10岁左右的青少年，教科书带给他们的影响是很大的。随着国际化社会的到来，单一民族情绪和过分美化本国的历史（Glorification）对如今强调开放性的现代社会来说，负面的影响远远大于正面的影响。所以，教科书在改编时，不能展示偏激的历史，而要向反应均衡的方向促进，相比起强调民族政体性来说，更应该往多元化和人类普遍价值的方向进行导向。

通过归化姓氏之间的相互邀请活动来强化民间交流

受儒教文化的影响，韩国社会中多数姓氏都组织有家族的大宗会，他们经常进行一些宗亲集体间的交流活动，通过定期编纂和修订家谱来保存自己的姓氏。正如之前所说，韩国国内有很多起源于中国姓氏的大宗会。两国政府应该出台些政策来支援他们相互展开积极的民间交流活动。韩国人通过访问中国可以直接认清中国的发展情况，也是改善对中国社会与文化认知的良好契机。有关对中国新的认识相信会在韩国其他民众之间扩散开来，有效帮助整体韩国人民改善对中国的认识。实际上通过访问中国，在以中国的韩国留学生为中心进行的观察中可以得知，韩国人对中国人的优越意识已经渐渐变弱了(문흥호，전성흥，이희옥，김인，민귀식，2010)[25]，通过相互访

25) 문흥호 외 (2010) P.108-109

问的活动，来改善两国人民的民族主义意识，同时也可以给旅游业的发展带来良好的效果°另一方面，参照欧洲的事例，可以考虑引进亚洲版的‘伊拉斯谟项目’°这种项目，以两国间姓氏集团为中心，通过相互邀请接待交换生学习和寄宿等项目，到当地国家体验文化和教育的方式来提高相互之间的理解°在这个过程中，提供住宿的户主作为接待交换生的文化桥梁，能够最大化的减少交换生对当地文化的误解和反感°

结论：血缘的再发现--向“四海同胞主义”迈出第一步

在本研究当中，试图把血缘关系的概念灵活运用到公共外交上来改善韩中关系°不仅如此，为了减少东北亚地区根深蒂固的民族主义思想，为了达到东北亚各国的共同目标，作为初期战略，提出了运用血缘关系的公共外交政策°血缘关系概念的利用，一方面能够净化韩国社会根深蒂固的纯血统主义，同时能减少韩国人对单一民族的幻想，为提高韩国人对待以中国人为首的外国人的开放性准备了契机°进入21世纪，公共外交在全世界都备受瞩目的形势下，作为中国与韩国间的公共外交的手段，运用血缘关系的公共外交是有可行性的°韩国作为发达国家，相比与其他国家，与富强中的中国进行公共外交其实更有益处°通过与土耳其成功活用血缘关系的公共外交的先例可以说明这是一个具有充分实践可行性的战略°另一方面，从东北工程的例子中可以看出，与血缘外交的真正目的相反也会导致令人担忧的结果发生，认清东北工程相关的历史矛盾和民族主义的另一张“面孔”，再加上两国间的学术交流和外交为基础，相信问题能够迎刃而解°血缘外交可以作为韩中交流强化的第一道外交战略，进而通过减少民族主义，为实现“四海之内皆兄弟”的亚洲地区融合打下基础°经历了1,2次世界大战之后萧条的欧洲，通过民族战争和纯血统主义给的深刻教训，成立了欧盟，欧洲各国间的警戒心也在逐渐解除（후쿠이노리히코，2013）°这些事例正是给东北亚地区社会“提了个醒”°本研究中所提到的纯血统主义，虽然是在历史需求下强调民族政体性的过程中发展而来，但是到了国际化的加速，国家间的交流不断活跃的现今社会，纯血统主义却成了无论如何都要消失掉的一种“隔阂”，为此，作为解决问题的方案，毫不回避东洋社会根深蒂固的“血缘”这一要素，反而正面利用“血缘”的概念来解决问题°“血缘关系”的运用，是公共外交的新式处理方法，能够帮助达成强化韩中关系的一次目标°同时为实现“没有民族，只有世界民族”的四海同胞主义思想的二次目标打好思想上的基础°再次，运用“血缘关系”的公共外交，能够通过对种族和民族本身意义的再解析，为多文化社会的融合做出贡献°

参考文献

Alba, R. (2005). Bright vs. Blurred Boundaries: Second Generation Assimilation and Exclusion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28 (1), pp. 20-49.

Choe, H. (2006, March).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Vol. 19, Issue 1, pp. 84-118.

Colic-Peisker, V. (2005). 'They're All Cleaning': Recent Refugees in the 'Secondary Labour Market' Paper presented at the TASA Conference 2005. Retrieved from www.tasa.org.au/conferences/conferencepapers05/.../ethnicity colic.pdf.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Crows Nest, Australia: Allen & Unwin.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o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Vol.16, Issue 4, 5-21.

Kim, A. E. (2010). Increasing Ethnic Diversity in South Korea: An Introductory Essay. Korea Observer Vol. 41. No. 4, 497-515.

Park, J. (2009). The local construction of a global language: ideologies of English in South Korea. Mouton De Gruyter.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ttp://www.refworld.org/pdfid/473424062.pdf에서 검색된 날짜: 2015년 4월 13일

강선. (2006). 고구려와 突厥의 전쟁. "高句麗研究 第24輯", 157-168.

곽영초.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 성격 분석: 화교집단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 장보고 CEO 포럼", (페이지: 79-105).

구자억.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권선홍. (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1집 제2호”, 103-134.

김병조. (2011). 한국에서의 국제적 노동이동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해외취업 이출과 이주노동자 이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2749-2775.

김우상. (2013).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331-350

김우현. (2001). “세계정치질서.” 한울아카데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읽기쉬운 중국도해.”

문흥호, 전성흥, 이희옥, 김인, & 민귀식. (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민귀식. (2012). 상호인식. , 이희옥, & 차재복 외, (1992 ~ 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페이지: 223-25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민귀식, 정순기, 조복수, 김지영, & 김진영. (2014).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설동훈.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제52호”, 125-160.

성병욱. (2013년 2월).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0집 3호”, 페이지: 1-23.

신영미. (2011). 중국내 반한정서(反韓情緖)의 현황과 동인(動因):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4호”, 107-141.

심재우. (2011).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5집”, 87-113.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387-421.

유미림. (2001). 조선 후기의 對중국인식: 숭명과 반청, 그 이념과 실제. “國際政治論叢 제41집 4호”, 277-296.

윤인진, 송백석, 김상돈, 송주영, & 송영호. (2009).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사) 아시아인권센터.

이양수. (2012). 제4장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 최석호, 중국인이 몰려온다! : 천만 관광객 시대의 한국관광 (페이지: 87-125). 서울: 백산출판사.

이인희, & 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 83-108.

이정빈. (2014).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호”, 285-314.

이찬욱. (2014). 韓國의 歸化姓氏와 多文化.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7집”, 253-277.

장광루이. (2012). 제2장 중국인 해외여행 추세와 전망. , 최석호, 중국인이 몰려온다! : 천만 관광객 시대의 한국관광 (페이지: 39-60). 백산출판사: 서울.

정재윤. (2012년 2월). 한국과 터키의 상호인식. “지중해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81-108.

차경자, & 진학문. (2013년 12월). 중국 국외관광의 발전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제지역학논총 제6권 제2호”, 69-103.

차재복. (2012). 역사•문화. , 이희옥, & 차재복 외, (1992 ~ 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페이지: 185-221).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최지영. (2011년 3월). 재한(在韓)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 한•중 관계에서 함의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51집 1호”, 217-240.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2호”, 473-496.

홍지아, & 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TV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544 - 583.

후쿠이 노리히코. (2013) "유럽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세상을 바꾼 400년의 시간". 다른세상.

한·중 에너지 정세 및 에너지 협력

장지혜, 류정림
북경대학교

개요

에너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와 에너지 안보는 현대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제로 떠올랐다. 제 2 차 세계 대전, 두 번의 석유 전쟁, 그리고 석유등 에너지를 둘러싼 많은 전쟁을 거치고 난 후, 에너지와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중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는데. 그중, 국가 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협력은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에너지 협력은 두 나라의 에너지 수급, 시설 건설과 사용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일컸는데 나라마다 자원 매장량과 장점이 틀리기 때문에 에너지 협력은 한 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 9 위, 1 위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두 나라는 소비량이 많고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등 여러 가지 공동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방면에서 중국은 "저우추취"(해외진출,走出去)를 전략으로 삼고 있고 한국 또한 적극적으로 나라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방면, 다원화된 협력 또한 중요하지만 본문은 한중 에너지 협력을 주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두 나라의 협력은 소비량, 에너지 효율, 대외의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에너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국의 에너지 믹스를 개선하고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본문은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정세와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양국의 에너지 협력 역사를 뒤돌아봄에 따라 양국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찰해보자 한다.

양국은 1992 년 정식 수교를 맺은 이래 에너지 협력을 점차 늘려왔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의 수준이다. 한중 양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교류 · 협력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한중 에너지는 아직도 많은 새로운 연구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이하 세 방면에 중점을 두었다.

⑴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정세와 협력에 대한 연구

국내외 한중 양국을 주제로 삼았던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 대상은 동북아 지역이나 한중일 삼개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한중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한중일은 동북아 지역의 세 중요한 국가로서 이들 간의 에너지 협력은 큰 연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을 두고 벌이는 공방이 매우 치열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화석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은 한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부문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 한중 양국은 기술이 세계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마주하는 에너지 문제가 비슷하다. 양국의 협력은 두 나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고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협력 잠재성이 크며, 근 몇 년간 협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두 나라의 친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역사, 정치 등 문제로 전진이 없는 가운데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다. 이 의미에서 볼 때, 한중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를 떠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⑵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이전의 에너지 연구는 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깊고 상세한 연구가 가능한 반면, 본 연구는 모든 에너지원 를 포함하여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정세, 에너지 정책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3)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

중국은 지금 심각한 에너지 문제와 맞닥트리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연구와 뉴스의 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시민의식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13 년도에 발표한 '제 2 차 에너지기본 계획' 등의 문안 또한 역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변환을 상징한다.

두 나라의 근 몇 년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이런 변화가 한중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더욱이 부족하다.

제 2 절 연구대상

제 2 장과 제 3 장에서는 한국와 중국의 에너지 정세, 에너지 산업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였다. 즉, 양국의 에너지 문제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해결 방법을 분석한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한중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책건의를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제 2 장 한국의 에너지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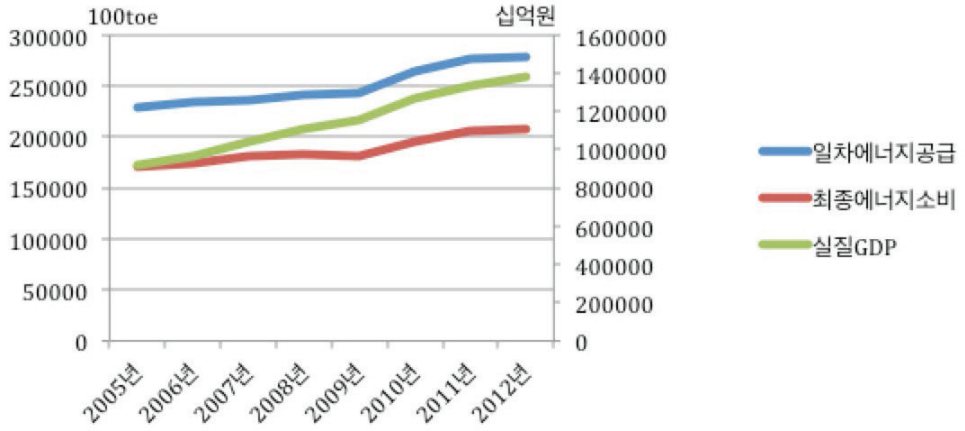
한국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려 노력 중이지만 에너지 자원의 결핍으로 오래전부터 석유, 석탄, 가스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세계시장의 에너지 수급,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커지는 국내의 수요를 맞추고 지속적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와 협력이 필요하다. 제 1 절은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었고 제 2 절은 최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에너지 문제

(1) 에너지 소비량과 수입의존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 년 한국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 위를 기록했다.[1]

〈그림 1〉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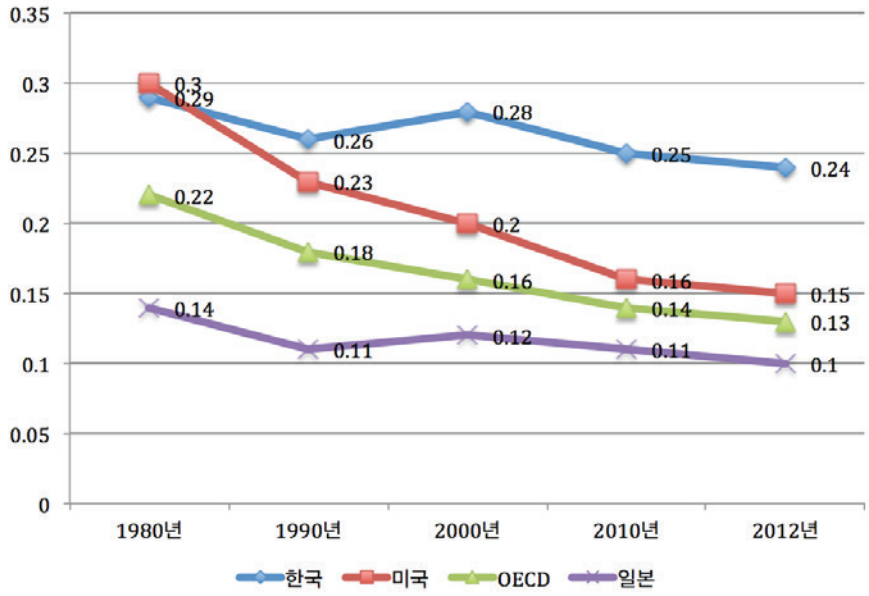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8 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받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수요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높은 에너지 수요는 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 한국의 높은 에너지 원단위를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 원단위의 1.8 배이며 부가가치창출이 낮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2]

[1]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 2014.9.15 No.52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 2014.9.15 No.52

〈그림 2〉 주요국가 에너지 원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2014.9.15 No.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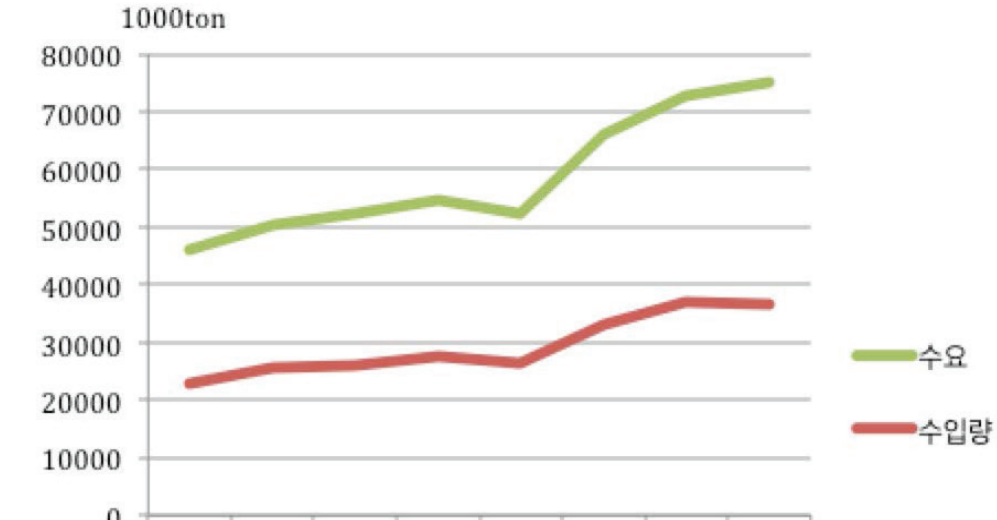
에너지자원이 없는 한국 실정에 따라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의 95~96%을 수입하는데 2013 년 LNG, 석탄 그리고 석유의 수입량은 세계 2 위, 4 위, 5 위에 달했다.[3]

석유를 예로 들면, 한국의 석유 소비량과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2012 년 소비량은 76,738.6 만 배럴, 수입량은 121,577.5 만 배럴에 달했다. 그중 중동 석유 의존도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1 년 사이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경제 부담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했던 경제적손실은 막대하며 경제적 요소 이외에도 단일한 수입원과 늘어나는 소비량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IEA, (2014).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Retrieved May 1, 2015, from http://www.eia.gov/

〈그림 4〉를 보면,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한국 천연가스 소비량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요	23350	24619	26664	27439	26083	33083	35603	38485
수입량	22317	25256	25569	27259	25822	32603	36685	36184
국내생산량	398	355	271	181	383	415	347	334

자료: 에너지 경제 연구원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축시스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석유를 예로 들면, 한국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일순 수입량을 기준으로 해 비축량 1 억 600 만 배럴은 115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 소비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는 60 일 사용량도 체 안되는 수준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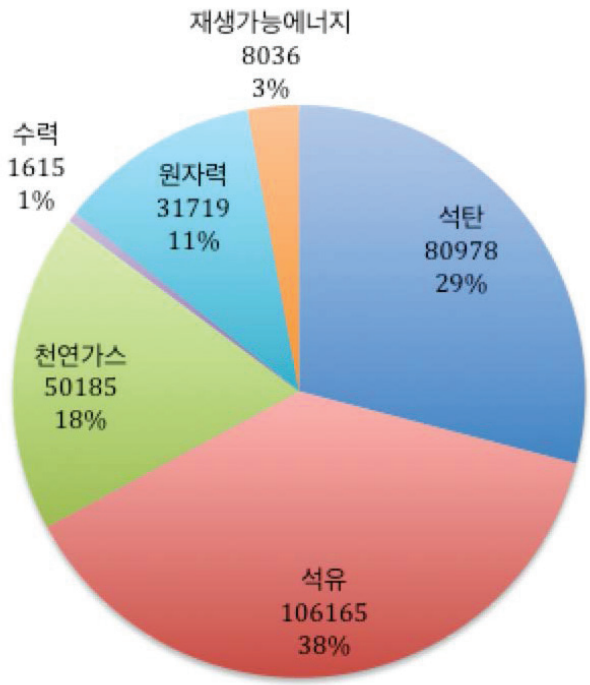
지금으로서는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소비량을 줄이고 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급 선무이다.

[4]정지우 기자. 60 일도 못 버티는 정부의 석유비축량. *파이낸셜뉴스*. 2015-04-25. http://www.fnnews.com/news/201503221620434578

⑵ 에너지 구조와 원자력

2011 년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화석에너지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일차 에너지 공급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석유 파동이 전 세계에 가져온 침체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한 데에 비해 한국은 원자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많은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며 에너지믹스를 개선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5〉 2012 년 한국 일차 에너지 공급(열량) (단위: 1000toe)



자료: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공급 구조 중 원자력은 11%에 달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의 더딘 한국의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 제 2 차 대전 이후 국력이 쇠약한 한국은 원자력을 과학대국,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삼았는데 전 세계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21 세기로

접어든 후, 원자력의 친환경적, 저탄소 특성이 부각되었고 현재 한국의 원전 수량은 23 개에 달하며 5 개가 건설 중에 있다.[5]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제 2 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 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41% (시설 기준)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많은 나라들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맞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3) 재생 가능 에너지와 환경문제

한국은 중국처럼 눈에 보이는 스모그 같은 환경문제는 없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3 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총 배출량 중 1.8%을 차지해 세계 7 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다.[6] 정부가 내놓은 '2020 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 목표는 최근 몇 년간의 배출 실적 등을 돌아봤을 때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7] 한국 정부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 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2020 년의 목표를 근거로 2030 년 목표를 너무 높이 지정한다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나라는 2030 년 감축 목표가 25%를 넘는 상황에서 너무 낮게 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석탄, 원유 소비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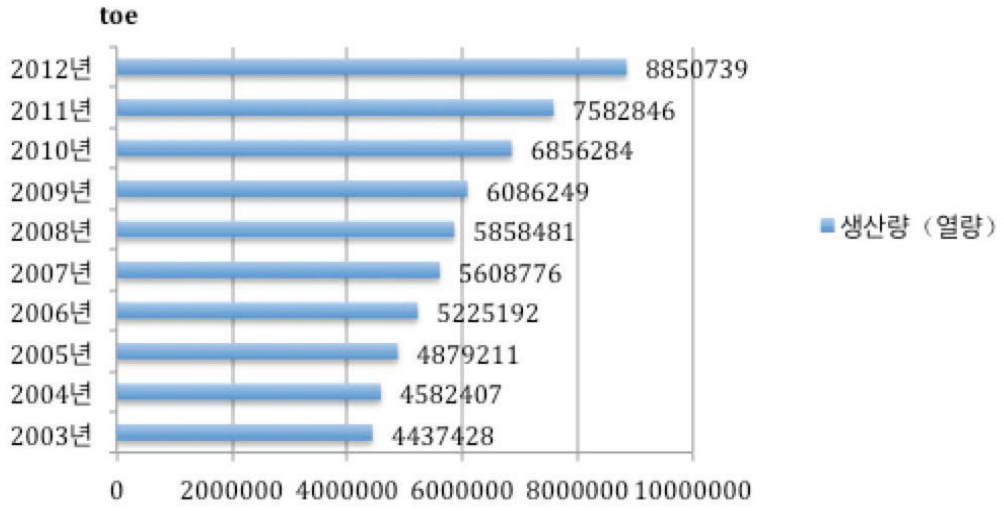
---

[5] 〈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연합뉴스*. 2015-04-2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22700020004 4&input=1363m

[6] G.J. Olivier (PBL)., Greet Janssens-Maenhout (IES-JRC), Marilena Muntean (IES-JRC), Jeroen A.H.W. Peters (PBL). (2013).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3 REPORT*.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Retrieved April 26, 2015, from http://www.pbl.nl/en/publications/trends-in-global-co2-emissions-2013-report

[7] 전경련.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산정해야. *연합뉴스*. 2015-0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049300003.HTML?input=1179m

〈그림 6〉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량



자료: 에너지 경제 연구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가격 방면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2012 년 전 세계 일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가 13.2%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중에서도 수력과 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태양능이나 풍력 등의 비율은 미미하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에너지 정책

'제 2 차 에너지기본계획' 은 5 대 중점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1)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2)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3) 환경, 안전 등 지속 가능성 제고 4) 에너지 안보 강화 5)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이는 '제 1 차 에너지기본 계획' 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안보의 광의의 개념에 더 부합하는 목표임일 알 수 있다. 공급이 아닌 수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충분한 공급이

[8] IEA. (2012). *Renewable ener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April 27, 2015, from http://www.iea.org/aboutus/faqs/renewableenergy/

보장되는 상황에서 절약과 에너지 구조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데 정부는 정책상으로 좋은 목표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전력 수요 전망치와 새로운 원전 설계 때문에 아직 공급 위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제고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맞물리지만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은 한국 정부의 개방적 사고방식을 반영했지만 원전 강제 설계는 이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에너지 비축과 효율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한국 정부는 석유파동 이후 1980 년부터 석유비축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2014 년 정부와 석유공사가 확보한 비축물량은 1 억 594 만 배럴로 앞에서 얘기했던 일 소비량으로 따지면 60 일도 체 사용 못하는 양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축시설의 안전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아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MBC 뉴스 취재에 따르면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안전 관리가 허술해 많은 곳이 녹슬거나 파손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9]

원라력과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자주성 높이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어왔다. 제 4 차 신재생에너지 기본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간주되지만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에너지가 부족했던 상황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하락하는 유가와 에너지 저가 기조에 정부가 내놓은 2035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 보인다.[10]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2014 년 4 월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선보였는데 이는 금융 · 제도 등 산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 연료전지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11]

---

[9]송양환기자. '위험천만' 국내 LNG 기지들‥안전관리 허술. *MBCNEWS.* 2012-10-11.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56793_13022.html

[10]이정훈 기자, 송찬영 기자. '의지있나' 에너지 신산업 주춤…' 철학있나' 환경은 팔짱. *에너지 경제.* 2015-02-2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3984

[11]정양호. 경제'묘수'될에너지신사업. *성울경제 오피니언.* 2015.05-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5/e2015051920310948120.htm

원자력 방면에서는, '제 2 차 에너지기본 계획'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낮추었지만 국내의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새로운 원전을 건설 중인데 영덕군, 삼척군 원전 건설 모두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사고 있고 월성 원전의 재가동 또한 비판의 대상 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탈핵화'를 외치는 지금, 국가는 빠른 시일 내에 민심을 달래고 원자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요약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는 95% 이상에 달해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외교가 특히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에너지 공급 안전이 취약하며 에너지 사용을 살펴보아도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에너지원단위가 낮고 총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에너지 비축시스템을 분석해보았을 때, 한국의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때문에 비축시스템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시해야 마땅하지만 시설관리의 부재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는 비축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대국이며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 에너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굉장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말해줬듯이 원자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전기 사용량을 과대평가하고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전을 건설하는 행위는 이성적이다고 보기 어렵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한국의 투자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 중 4%만을 담당한다. 그중,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보기도 힘든 폐기물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자력은 잠재적 위협이 크다. 이 상황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며 국내 시장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12]

[12] 许泰秀. (2010). *韩中两国新可再生能源政策比较与合作展望*. 硕士学位论文. 大连理工大学.

제 3 장 중국의 에너지 정세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중국의 에너지 정세와 정책의 변화 모두 주변 국가 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중국의 에너지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이가 한국 에너지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장은 3 절로 구성돼 있는데, 제 1 절을 중국의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제 2 절은 중국의 각 에너지원 종류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 3 절은 중국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과 정책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 1 장 에너지 문제

중국정부는 빠른 속도로 에너지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사적 이유로 생겼던 독점 체계는 그 폐단을 없애기가 어렵다. 개혁 해방 초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할 적에, 에너지 효율보다는 공급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 독점의 형식으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분배가 불균등해지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관련 부서와 기업의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졌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지속 가능 발전전략사상을 받아들인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이하 세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1) 소비량 과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1/5 에 달한다.[13] 중국정부의 규제 아래 에너지 가격은 현실의 수급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낮은 가격은 과도한 소비와 저조한 에너지 효율을 초래했다. 중국은 표준석탄 1 톤당 창출할 수 있는 GDP가 14000 인민폐에 그친다,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인 25000 인민폐에 비해 낮으며 미국의 31000 인민폐와 일본 50000 인민폐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14] 중국의 에너지 집약적 발전 방식은 '상태' (常態, Normal)가 되었다. 석유파동의 타격을 덜 받은 중국으로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이 과도 소비를 일으키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정신의

[13]我国能源消耗已经占到全球能源总量 1/5. *中国行业研究网*. 2015-04-30, 取自 http://www.chinairn.com/news/20140825/09595766.shtml

[14]央广网财经. (2013). 我国单位 GDP 能耗达到世界均值 2.5 倍. *腾讯财经*. 2015-04-30, 取自 http://finance.qq.com/a/20131201/002265.htm

형성이 시급하다.

늘어나는 소비량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예년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전기황(荒, shortage), 석유황, 천연가스황 등 에너지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기황과 석유황은 21 세기 초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 완화되었지만 천연가스 부족 현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

과도한 소비량은 공급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에너지 해외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1993 년, 2006 년 석유와 가스 순수입국으로 전환 후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2) 에너지 구조 문제

대부분의 나라는 발전 초기 값싼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지만 이는 심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함으로 석유, 가스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림으로 서 석탄의 소비를 낮추는 게 정상이다. 개혁개방이래, 석탄은 총 에너지 소비 중 70%의 비율을 항상 유지해 왔다. 2012 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37 억 톤으로 이미 세계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은 8 억 와트에 달하고 모든 발전량의 78%를 차지했을 정도로 그 소비량이 크다.[15]

2012 년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은 5.2%밖에 되지 않고 세계의 평균 수준인 24%와 비교했을 때 발전이 더딤을 알 수 있지만 근 몇 년간 중국의 가스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으여 2013 년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9%이나 증가해 1676 억 제곱미터를 달성하며 세계 제 3 소비국이 되었다. 석탄과 석유에 비교했을 때 저탄소 에너지라는 장점을 가진 천연가스는 앞으로 교통, 공업, 도시가스 등 많은 영역에 쓰일 예정이어서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16]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계속 늘려왔지만 석탄, 석유의 낮은 가격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2009 년 처음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 되고 2011 년에 미국에 잠시 내주었던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2013 년에 다시

[15]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 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p38.

[16] 2014 年我国天然气利用行业概况及现状分析. *中国报告大厅*. 取自 http://www.chinabgao.com/k/tianranqi/12475.html

되찾아오면서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개발 의지를 보였다.[17] 앞으로 초기 투자 단계를 거치고 난 후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환경문제

중국의 스모그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이다. 스모그에 뒤덮인 베이징 천안문 광장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상징하는데 이는 방대한 에너지 소비, 비합리적인 에너지 구조와 관련돼 있다. 85%의 이산화황, 67%의 질소 산화물, 8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8] 북경대학의 국가 발전 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03 년 GDP의 1.16%~3.8%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적게는 35 만 명에서 많게는 50 만 명에 이르고 석탄의 사용으로 북방 사람 등이 평균 수명이 5 년 낮아졌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19] 이는 중국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국이 발전을 위해 치러야 했던 크나큰 대가를 적절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제 2 절 에너지원별 현황

제 2 절은 에너지 정책과 체제 개혁을 논하기 전에 에너지원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주요 에너지를 네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 둘째는 탄소 함유량이 적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 셋째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원자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이다.

(1) 석탄과 석유

중국은 석탄 소비대국이다, 황금의 십 년(黄金十年) 간 중국의 석탄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했고 십 년의 기적적인 성장의 뒷받침이 되었다. 석탄에너지 집약적 발전 방식과 청정

[17]中国成最大可再生能源投资国. *新华网*. 2013-01-16. 取自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1/16/c_124237893.htm

[18]王敏：市场化改革是解决能源安全的根本之道. 新浪财经. 2014-07-29. 取自
http://finance.sina.com.cn/hy/20140729/112419849954.shtml

[19]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 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p39.

석탄 기술의 부족 등으로 중국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 석탄 가격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석탄 산업 개혁과 개발 브리핑' 에 따르면 2014 년 중국의 석탄시장은 생산과잉과 수입과잉으로 인한 공급과잉의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 내 석탄 가격 하락으로 석탄기업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선화, 쭝메이, 토메이, 이타이 등 대형 기업들이 가격전을 선포하여 경쟁의 악순환 속에 중소기업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석탄산업의 보호를 위해 공급량을 억제하고 석탄에 과세를 부과해 기업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믹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국가 석유 공사 경제 기술 연구원의 2014 년 '국내외 석유, 천연가스 발전 보고서' 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5.18 억 톤을 넘어섰으며 그중 수입량이 3.08 억 톤을 차지해 대외의존도가 59.5%에 달했다.[20] 중국의 석유 비축량은 대략 한 달의 수입량과 맞먹는데 이는 방대한 수요에 비교해 상당히 적은 양이어서 중국은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펼치면서 빠른 속도로 석유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2)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의 천연가스 보급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석탄 소비량을 억제하고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연가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천연가스는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뿐더러 석탄과 석유에 대비해 환경오염이 적다. 중국 대형 웹사이트 'ENERGY' 의 CEO한서평은 중국의 에너지 개혁의 핵심은 에너지 구조 개혁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천연가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을 정도로 천연가스가 갖는 의미는 크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천연가스는 가격 제도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어서 국내 천연가스 가격대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 낮은 가격은 빈번한 천연가스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 제도는 시장화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22]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중국은 방대한 수요량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자원 외교를 통해

[20]冉永平. 中国石油对外依存度近 60% 全年净进口约 3.08 亿吨. 2015-01-29, *人民日报*, 第 02 版.

[21]赵静. 能源改革等待细则 改革之纲在 "气" 上. *新浪财经网*. 2015-05-19.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50519/035822210541.shtml

[22]徐沛宇. 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 *新浪财经*. 2014-12-15.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국내의 채굴 속도와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원자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잠정 중단했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국가 에너지 발전 전략 실행 계획 (2014- 2020)'에 따르면 국제 안전 표준을 따르고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동부 연안에 새로운 핵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며 2020 년도에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5 천 8 백만 kw, 건설 중 용량 3 천만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국은 2030 년도 비화석 에너지의 소비량 비율을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중국의 원자력 이용률은 2.11%에 불과해 세계 평균 수준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중국정부의 투자 아래 원자력은 그 잠재적 시장이 매우 크다.[23]

(4) 재생에너지

중국에서 재생에너지는 각광받는 신흥사업이지만 발전은 아직 더디다. 국무부 참사관 겸 중국 재생에너지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쓰띵환은 한 기자회견 중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더딘 주된 이유가 중국이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때 닫지 못하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투자가 적기 때문이라 하였다.[24] 여기서 투자가 적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기 시작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총 투자량이 적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 BNEF 최근 몇 년간에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3 천백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 중국이 895 억 달러를 차지하며 투자 규모가 520 억 인 미국을 제쳤다.[25] 중국의 2014 년 투자 규모는 2013 년에 비해 32%나 증가했다. '국가 12 차 5 개년 에너지 계획'과
'국가 에너지 발전 전략 실행 계획 (2014- 2020)' 모두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총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

[23]俞菲. 2015 年起我国每年核电投资金额将达 600 亿元. *前瞻网*. 2014-11-18. 取自 http://www.qianzhan.com/qzdata/detail/149/141118-38ac13cb.html

[24]我国新能源发展缓慢的障碍分析. *中国行业研究网*. 2009-08-14. 取自 http://www.chinairn.com/doc/70310/452305.html

[25]远超美国 中国成全球新能源最大投资者. *集邦新能源网*. 2015-01-14. 取自 http://www.energytrend.cn/news/20150114-10576.html

제 3 절 에너지 정책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 제안된 중국 에너지 방침은 간단히 '개발과 절약, 절약이 핵심' 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급증해왔기 때문에 이 방침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 발전 전략 실행 계획 (2014-2020)' 은 '절약, 청정, 안전' 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원래의 방침에서 지속 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해 넣은 결과이다.[26]

중국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체제 시장화를 중심으로 전 국민의 절약정신을 수립하고 '경제 구조의 조정, 에너지 관리 강화, 에너지 기술 혁신' 의 구체적 방안을 따르는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정부는 '국가 12 차 5 개년 에너지 계획' 에서도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가의 발전 방식부터 개인의 에너지 소비까지 절약정신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정부는 '국가 에너지 발전 전략 실행 계획 (2014- 2020)' 중 "국내의 생태환경은 이미 조방식(粗放式) 발전 모델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녹색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낙후한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 외에도, 원문 중 "전형(转型)", "혁신", "개혁" 등 단어들이 각 3 번, 26 번, 46 번이나 등장했으므로 미루어볼 때 중국은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의 발전 모델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일대일로' 도 에너지 협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는 교통과 물류, 인프라, 금융, 환경 네 방면에서 에너지 협력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7]

그 외에도, 2014 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중국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실행계획을 전격 타결 지었는데 이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 년에 최고치를 달성한 후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조방식 발전 모드와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중국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이미 도광양회(韬光養晦)의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짐과 동시에 전 세계의 녹색 열풍을 선도하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

[26]倪建民, 郭云涛. (2009). *能源安全=Energy security.* 杭州：浙江出版社. p31.

[27]石泽：共建"一带一路"与变化中的能源格局. *中国石油新闻中心.* 2015-01-13. 取自 http://news.cnpc.com.cn/system/2015/01/13/001524631.shtml

제 4 절 요약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석탄 공급과잉과 석유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총 소비량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연가스의 보급은 에너지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급증하는 천연가스 소비량도 또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 환경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중국정부는 북경의 심각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집약적이고 심각한 오염을 불러왔던 산업을 북경에서부터 철거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구조상의 개선이 아닌 단순한 공간의 이동 효과만을 불러왔기 때문에 산업 단지들은 북경 부근인 톈진, 허베이의 스자좡 등 지역에 정착한 후 지속적으로 똑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 구조가 개선되기 전에 환경문제를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 또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화석 에너지의 가격체제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제 4 장 한중 에너지 협력

제 1 절 한중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

우선, 양국은 에너지 협력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2014 년 한국 공식 방문 중 얘기했듯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많은 공동된 문화를 나누며 경제적으로 상당한 상호 이익을 가지고 있고 우호교류의 역사가 깊다.[28]

1992 년 수교이래,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많은 협력을 이루어 왔다. 양국 관계는 2003 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어 2008 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투자, 금융, 통신, 에너지, 환경보호, 과학기술, 재산 에너지 등

[28]中韩文缘相通心缘相亲经济相融. *新浪新闻中心*. 2013-06-29. 取自 http://news.sina.com.cn/c/2013-06-29/074027529492.shtml

부문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치기로 하였다.[29] 2013 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사 방문 중 발표한 "중한 미래비전 공동성명 "과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행동 계획 " 또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상호 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등의 원칙에 알맞는다.

수교이래, 양국은 많은 에너지 협력을 이뤄왔는데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에너지 산업에 많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간 친밀한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제 2 장과 제 3 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많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로, 양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는 높은 에너지 원단위를 초래했고 시장화가 덜 된 가격체제나 높은 수요예측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졌다. 한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는 굉장히 높고 중국의 대외 의존도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양국의 에너지 산업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파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음을 말해준다. 그 다음으로, 양국의 에너지 구조를 보면, 양국은 화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환경, 대기 오염 등의 부가적인 문제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방면에서 양국은 투자시기가 길지 않고 기술력이 낮다. 이는 양국의 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 초기에 머물러있으며 또 하나의 협력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방면에서도 양국은 기술수출, 안전 관리, 시장 상호 보완성 등에서 볼 때 협력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같이 발전해 나가야 마땅하다.

제 2 절 한중 에너지 협력의 역사와 현황

본 연구는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2005 년 이래 한중 협력의 내역과 현황을 정리했고 양국의 에너지 정세와 정책을 토대로 미래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모든 에너지원은 대체 불가능하고 특수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의 에너지 트렌드와 양국의 에너지 정세를 토대로 보았을 때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에너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 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많은 에너지 문제들이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29]将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 *新浪新闻中心*. 2008-05-28. 取自 http://news.sina.com.cn/o/2008-05-28/070613935890s.shtml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에너지 소비 대국인 한국과 중국은 친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정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 에너지산업에 기여를 해야 한다.

(1) 화석에너지

〈표 1〉 한중 화석에너지 협력 내역

날자	협력내용
2006.11	한국가스공사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의 '천연가스 사업 양해각서' 체결
2008.5	한국대우인터내셔널과 중국 국가 석유 공사의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공동 탐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008.5	한국의 SK 에너지와 중국 석유 화학 공사의 우한 에틸렌 프로젝트 협력 [30]
2012.4	한국가스공사 북경지사 개소
2012.9	한국석유공사와 중국석유화학 집단공사(시노 펙) 자회사인 국제 석유탐사개발유한공사, 우니 펙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2.5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三菱) 상사, 로열 더치 셸, 중국석유천연가스(페트로차이나) 함께 캐나다 서해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동으로 생산
2013.6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SK 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국영기업인 시노 펙(Sinopec)의 우한 에틸렌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2014.7	중국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제 에너지보존환경보호 협회(IEEPA)와 대구테크노파크(DTP)의 업무 협약 체결
2014.8	SK그룹과 닝샤(寧夏) 자치구 인촨(銀川) 시에 있는 천연가스 개발업체 하마스(哈納斯) 그룹의 협력 계약 체결 [31]

대형 프로젝트 이외에, 한중 화석 에너지 협력은 기업 간의 트레이닝이 제일 빈번하다. 한국의 석유가 극도로 부족했기에 몇십 년간의 노력끝에 세계적인 석유 정제 기술이라는 성취를 낳았다. 중국의 본격적인 석유 수입은 90 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석유 정제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기술적 트레이닝 말고도 양국은 공동 개발과 공동탐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공동 탐사에 대한 양해각서' 와 우한 에틸렌 프로젝트 등은 한중

[30] 中国石化与韩国 SK 公司签署武汉乙烯项目合资经营合同. *中国新闻网*. 2013-06-28. 取自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6-28/4981892.shtml

[31] 哈纳斯集团与韩国 SK 集团在银川签署全面合作协议. *光明网*. 2014-08-07. 取自 http://difang.gmw.cn/nx/2014-08/07/content_12410407.htm

양국의 에너지 업 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의 친밀한 협력을 상징하는데 우한 에틸렌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80 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고 1200 억 인민폐의 가치를 생산하며 10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32]

양국은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에서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이하 세 가지 분야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

1 기술교류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 가공된 석유를 수출해 왔는데 국내의 치열한 경쟁구도 아래 한국의 석유 정제 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면 한국은 경제적 이익, 중국은 석유 품질의 상승이라는 윈-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급 안전

비록 석유가격의 하락과 함께 석유 '아시안 프리미엄'의 악몽은 잠시 끝이 났지만 천연가스는 아직도 '아시안 프리미엄' 현상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은 천연가스 소비 대국으로서 협력하여 계절별 · 지역별 LNG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원활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 석유비축

한중 양국은 적극적으로 공동 석유비축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방대한 비축시설이 있고 중국은 아직 새로운 비축시설의 건설이 끝나지 않았고 비축량이 적기 때문에 공동 석유비축은 파동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2) 원자력

〈표 2〉 한중 원자력 협력 내역

날짜	협력 내용
2005.1	제 1 차 한중 원전기술포럼 개최
2005.8	두산중공업은 중국 최대 발전설비 회사인 하얼빈 전력 집단(HPEC)과 협약서 체결함으로써 당시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던 650㎿ 및 1000㎿ 급 복제 원전 건설 사업과 중국이 계획하고 있던 중국형 원자로인 CNP1000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2007.4	제 2 차 한중 원전기술포럼 개최

[32]葛楠, 李名迟. (2013). 中石化与韩国 SK 公司合资经营武汉乙烯项目. *经济参考报*. 2013-07-01. 取自 http://jjckb.xinhuanet.com/2013-07/01/content_453071.htm

2011.11	한, 중, 일, 원자력 안전 협력 체제 창설 합의
2014.11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국 저장성 소재 중수로형 원전인 친산(Qinshan) 원전에 원전 제어용전 산기 운영 및 정비 기술 수출
2015.3	한국수력원자력과 중국의 원전 운영사 CNPP '제 1 회 한중 원전 사업자 안전성 증진 협력 콘퍼런스' 개최
2015.3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국 광동 화전 공정총공사(GPEC)와 320 만 달러(약 35 억 원) 규모의 시공 기술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
2015.5	'제 12 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개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의 원자력 방면의 협력은 포럼이나 콘퍼런스 개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양국의 원자력 시설의 총규모를 토대로 보았을 때 실질적인 기술과 건설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총 23 기의 원전을 보유한 원전 대국이고 중국 또한 원자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3 기 원전을 운영 중이며 26 기는 건설 중에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국은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높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원자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급속도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환경 개선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 중국 전원 구성에서 원자력의 비율은 현재 여전히 5%에 못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협력은 이하 두 방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1 기술수출

꾸준한 노력하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0)은 1992 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2,300 억 원을 들여 개발한 모델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밀접한 이 시점에 중국의 시장을 열수 있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안전 관리 교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인 공포를 가져왔고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한국 국내에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므로 원자력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국도 사고 이후 안전규제를 강화했으며 2 세대 원자로를 포기하였다. 이 시점에서, 한중 양국은 원자력의 안전 관리 교류 협력을 늘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재생 가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양국 간의 크고 작은 포럼, 회의 등 교류가 제일 많은 에너지원이다.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부합하며 양국의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감안했을 때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은 더 많아져야 마땅하다.

한국은 '제 1 차 에너지기본계획' 에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세 가지 기술의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고자 하였고 중국은 '신 에너지 산업 진흥 계획' 애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한중 양국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협력을 늘려나가 양국의 에너지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한국의 태양전지 실리콘 재료의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중국은 국내의 제조기업이 많이 않아 2007 년 국내 공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기술이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다. 한국은 기술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은 국내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하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국은 전면적 협력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2 바이오 매스 연료

바이오 매스 연료 방면에서, 한국은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중요시 여겨왔다. 한국은 뛰어난 유채 재배 토지 평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은 상용화하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생산이 어려워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반대로, 중국은 바이오 매스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황무지에서 사탕 수수를 대규모 재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 기술이 부족해 발전이 더디다. 양국은 이런 상호보완성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3 조력 발전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 때 발생하는 수위차를 이용하여 수차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수면 상에 수차를 띄워 조력에 의해 수차가 동력을 얻어 전기를 얻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경기만을 중심으로 한 서쪽 해안은 수위차가 커 한국 조력의 개발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 시화호 조력 발전소' 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는 25 만 4 천 kW 를 출력할 수 있다. 중국은 2012 년부터 조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 2.8 억 인민폐를 들여 여러 시험장 건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의 규모는 대다수가 200-400 kW 로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4 풍력발전

중국의 풍력발전 규모는 2004 년 세계 10 위 수준에서 2006 년 세계 6 위, 2007 년 세계 5 위를 거쳐 2013 년 세계 1 위로 올라섰다.[33] 이는 중국이 풍력발전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말해준다. 중국은 기어 박스, 회전 날개 등 간단한 부품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발전기, 기어, 베어링 등 핵심부품은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의 빌릿 제조기술은 중국보다 3 년 이상 앞서있는데 이 핵심 기술의 교류가 가능하다면 한중 풍력의 협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2013 년 중국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증가량은 세계 총 증가량의 45%를 차지하고 중국의 풍력 발전 설비 총용량은 세계의 28%에 달한다.[34]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 풍력업계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며 한국의 기술적 장점을 충분히 살려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 3 절 정책권고

한중 양국은 1992 수교를 맺은 후 23 년 동안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다. 작게는 기업 간의 포럼부터 크게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에너지 협력 논의까지 모든 크고 작은 노력이 양국의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이하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1 한중 양국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고질적인 역사인식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등의 문제가 양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반목과 불신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냉전체제부터 존재했던 대결 구조와 현재의 북한 문제, 영토분쟁은 양국의 한 발 더

[33]全球风力发电行业发展概况及趋势分析. *中国产业信息*. 2014-05-19. 取自 http://www.chyxx.com/industry/201405/245400.html

[34] 2014 年中国风电场建设规模质量齐升. 中国行业研究网. 2014-06-09. 取自 http://www.chinairn.com/news/20140609/172137284.shtml

나아간 협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35] 이러한 역사 문제가 야기한 에너지 협력의 중단과 충돌은 중일 양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공동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해 양국의 에너지 협력, 더 나아가서는 경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양국은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더욱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상회담, 에너지부 장관 회담, 기업 포럼 등의 형식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을 토론하고, 에너지 신 기술과 연구결과를 교류하는 등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단점을 상호보완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양국 기업의 협력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 중 정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간의 협력은 직접적으로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협력의 활성화해야 마땅하지만 한중 양국의 법률과 제도상의 제약이 커 협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인하하는 등 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4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피해야 한다. 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해외 에너지 공급은 상당히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반대로 양국에 유리한 장점으로 이용을 해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2011 년, 중국은 천연가스 수입량 중 29%,19%, 18%, 13%를 호주, 인도네시아, 카타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데에 비해 한국은 22% 21%, 11%, 10%를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에서 수입했다.[36] 양국이 협력한다면 더 낮고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공급 말고도 양국은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에서 많은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평등과 상호 이익을 토대로 협력을 한다면 양국의 한 발 더 나아간 국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5]李红起. (2012). *能源安全视角下中韩新能源合作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大学. p12

[36]International Gas Unions (IGU). (2013). World LNG Report. *FGE Gas Advisory.*

제 5 장 결론

한국과 중국은 세계 제 9 위, 제 1 위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양국이 풀어나가야 하는 많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근 몇 년간, 양국 정부와 기업의 추진 아래 에너지 협력은 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양국의 에너지 정세, 정책 분석과 양국의 에너지 협력 내용을 토대로 이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한중 에너지 협력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양국의 협력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자금, 기술, 시장의 상호보완성은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은 협력의 기초를 다져주고 있다. 근 몇 년 양국의 협력 내역이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2) 한중 에너지 협력은 꼭 필요하다. 양국은 많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전면적인 협력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에 커다란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한중 에너지 협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환경오염이 적어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데 양국의 기술과 시장은 높은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은 양국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며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협력을 통한 공동된 성장은 가능할뿐더러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친밀한 에너지 협력을 양국의 에너지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 No.52.

2.정지우 기자. 60 일도 못 버티는 정부의 석유비축량. *파이낸셜뉴스*. 2015-04-25. http://www.fnnews.com/news/201503221620434578

3.〈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연합뉴스*. 2015-04-2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227000200044&input=1363m

4.전경련.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산정해야. *연합뉴스*. 2015-0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049300003.HTML?input=1179m

5.박민철 기자. 한국 "올 비축유 75% 상반기 구매". *문화일보*. 2015-02-2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2601070403020001

6.송양환기자. '위험천만' 국내 LNG 기지들‥안전관리 허술. *MBCNEWS*. 2012-10-11.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56793_13022.html

7.이정훈 기자, 송찬영 기자. '의지있나' 에너지 신산업 주춤…' 철학있나' 환경은 팔짱. *에너지 경제*. 2015-02-2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3984

8.정양호. 경제'묘수'될에너지신사업. *성울경제 오피니언*. 2015.05-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5/e2015051920310948120.htm

1.倪建民, 郭云涛. (2009). *能源安全=Energy security*. 杭州：浙江出版社.

2.何清, 明茜. (2008 年 05 月 30 日). 李明博访华翻开新一页 中韩能源合作升级. *21 世纪经济报道*, 第 018 版.

3.冉永平. (2015 年 01 月 29 日). 中国石油对外依存度近 60% 全年净进口约 3.08 亿吨. *人民日报*, 第 02 版.

4.王淼. (2006 年 08 月 18 日). 中韩有必要加强能源合作. *中国改革报*, 第 006 版.

5.文婧, 谢婧怡. (2009 年 06 月 17 日). 韩国能源界向中国绿色产业伸出橄榄枝. *经济参考报*, 第 013 版.

6.张佩颖. (2005 年 01 月 27 日). 中韩联手共谋能源大计. *中国企业报*, 第 012 版.

7.国务院发展研究中心对外经济研究部 "中日韩产业合作研究" 课题组. (2012). 中日韩 8.能源资源合作前景和模式分析. *《发展研究》*, *2012 年第 3 期*, 4-8.

9.景跃军，陈英姿．(2008)．中韩两国污染产业对环境影响的比较研究．*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48 卷第 1 期，*153-158．

10.卢岩，王蕴．(2005)．东北亚能源合作及韩国在其中的作用．*亚太经济，2005 年第 3 期，*59-62．

11.李平．(2014)．中韩携手展开能源合作．*能源研究与利用，2014 年第 5 期，*6-7．

12.马鹏，李渝萍．(2012)．中韩两国清洁能源产业化模式比较及其启示．*南昌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 43 卷第 3 期，*108-114．

13.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53 卷第 6 期，*62-74．

14.王敏，徐晋涛，黄卓．(2014)．能源体制改革：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国际经济评论》，2014 年第 4 期，*

15.余建华．(2014)．韩国能源安全战略与中韩能源合作探析．*《国际关系研究》，2014 年第 2 期，*50-63．

16.张建全．(2009)．浅析中韩经贸合作的有利因素．*企业家天地，下旬刊，*21-22．

17.国务院办公厅．(2013)．《能源发展‘十二五’规划》．*国家能源局网站．*2013-01-01，取自 http://www.nea.gov.cn/2013-01/28/c_132132808.htm

18.葛楠，李名迟．(2013)．中石化与韩国 SK 公司合资经营武汉乙烯项目．*经济参考报．*2013-07-01．取自 http://jjckb.xinhuanet.com/2013-07/01/content_453071.htm

19.国务院办公厅．(2013)．《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 年)》．*中国政府门户网站．*2014-11-19，取自 http://www.gov.cn/xinwen/2014-11/19/content_2780748.htm

20.肖蔷．(2013)．潮汐能发电何去何从．*能源网．*2013-04-02．取自 http://www.cnenergy.org/yw/201304/t20130402_186513.html

21.徐沛宇.(2014)．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新浪财经．*2014-12-15．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22.俞菲．(2014)．2015 年起我国每年核电投资金额将达 600 亿元．*前瞻网．*2014-11-18．取自 http://www.qianzhan.com/qzdata/detail/149/141118-38ac13cb.html

23.赵静.(2015)．能源改革等待细则 改革之纲在“气”上．*新浪财经网．*2015-05-19．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50519/035822210541.shtml

24.2014 年我国天然气利用行业概况及现状分析．*中国报告大厅．*取自 http://www.chinabgao.com/k/tianranqi/12475.html

25.2014 年中国风电场建设规模质量齐升．*中国行业研究网．*2014-06-09．取自 http://www.

chinairn.com/news/20140609/172137284.shtml

26.关于开展私人购买新能源汽车补贴试点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10-05-31. 取自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005/t20100531_320528.html

27.韩国政府称未来将建造更多核电站. *网易探索*. 2011-12-27. 取自 http://discovery.163.com/11/1227/08/7M94LLUP000125LI.html

28.哈纳斯集团与韩国SK集团在银川签署全面合作协议. *光明网*. 2014-08-07. 取自 http://difang.gmw.cn/nx/2014-08/07/content_12410407.htm

29.煤炭改革政策牵头 粗放发展将成历史. *中国煤电网*. 2015-03-30. 取自 http://www.meidianwang.com/MD_HotNews/HotNewsDetail/1351.html

30.将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 *新浪新闻中心*. 2008-05-28. 取自 http://news.sina.com.cn/o/2008-05-28/070613935890s.shtml

31.全球风力发电行业发展概况及趋势分析. *中国产业信息*. 2014-05-19. 取自 http://www.chyxx.com/industry/201405/245400.html

32.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 *新浪财经*. 2014-12-15,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33.石泽：共建“一带一路”与变化中的能源格局. *中国石油新闻中心*. 2015-01-13. 取自 http://news.cnpc.com.cn/system/2015/01/13/001524631.shtml

34.我国新能源发展缓慢的障碍分析. *中国行业研究网*. 2009-08-14. 取自 http://www.chinairn.com/doc/70310/452305.html

35.我国能源消耗已经占到全球能源总量1/5. *中国行业研究网*. 2014-08-25, 取自 http://www.chinairn.com/news/20140825/09595766.shtml

36.央广网财经. (2013). 我国单位GDP能耗达到世界均值2.5倍. *腾讯财经*. 2013-12-01, 取自 http://finance.qq.com/a/20131201/002265.htm

37.亚洲核电蓬勃发展. *电力国际信息参考*. 2014-12-01. 取自 http://www.china-nea.cn/html/2014-12/31429.html

38.远超美国 中国成全球新能源最大投资者. *集邦新能源网*. 2015-01-14. 取自 http://www.energytrend.cn/news/20150114-10576.html

39. “一带一路”推动新能源产业发展. *中国国际招标网*. 2015-05-13, 取自 http://www.chinabidding.com/infoDetail/225137645-News.htm

40.中国成最大可再生能源投资国. *新华网*. 取自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

1/16/c_124237893.htm

41.中国石化与韩国 SK 公司签署武汉乙烯项目合资经营合同. *中国新闻网*. 2013-06-28. 取自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6-28/4981892.shtml

42.中韩文缘相通心缘相亲经济相融. *新浪新闻中心*. 2013-06-29. 取自 http://news.sina.com.cn/c/2013-06-29/074027529492.shtml

43.郭植昭. (2009). *中韩能源合作论析*. 硕士学位论文. 湘潭大学.

44.李红起. (2012). *能源安全视角下中韩新能源合作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大学.

45.孙远盛. (2010). *中韩油气产业国际合作研究*. 硕士学位论文. 中国海洋大学.

46.许亮. (2006). *经济全球化背景下的中韩经济政治关系研究*. 硕士学位论文. 青岛大学.

47.许泰秀. (2010). *韩中两国新可再生能源政策比较与合作展望*. 硕士学位论文. 大连理工大学.

48.殷慧慧. (2014). *中日韩能源需求与经济增长相关关系比较研究*. 硕士学位论文. 延边大学.

49.张雪. (2010). *低碳经济下中日韩能源安全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东北财经大学.

50.张隽. (2011). *韩国在东北亚区域经济合作中的地位和作用*. 硕士学位论文. 吉林大学.

1.Benjamin K. S., Marilyn A. B. (2010). Competing Dimensions of Energy Secur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Vol. 35* : 77-108.

2.International Gas Unions (IGU). (2013). World LNG Report. *FGE Gas Advisory.*

3.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PCC Fifth Assessment Synthesis Report:* 116-151.

4.Barton, B., Redgwell, C., Ronne, A., & Zillman, D, G. (2004). *Energy Security: Managing Risk in a Dynamic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IPCC, (2015).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B: Regional Aspects.*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6.BP, (2015). *Annual Report and Form 20-F 2014.* Bp. Retrieved May 3, 2015, from bp.com/annualreport

7.BP. (2015). *Energy Outlook 2035.* Bp. Retrieved May 2, 2015, from bp.com/energyoutloo

8.BP. (2015). *Sustainability Report 2014.* Bp. Retrieved May 2, 2015, from bp.com/s

ustainability

9.G.J. Olivier (PBL)., Greet Janssens-Maenhout (IES-JRC), Marilena Muntean (IES-JRC), Jeroen A.H.W. Peters (PBL). (2013).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3 REPORT.*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pbl.nl/en/publications/trends-in-global-co2-emissions-2013-report

10.IEA. (2012). *Renewable ener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iea.org/aboutus/faqs/renewableenergy/

11.IEA, (2014). *ENERGY SUPPLY SECURITY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iea.org/search/?q=ENERGY%20SUPPLY%20SECURITY%202014#gsc.tab=0&gsc.q=ENERGY%20SUPPLY%20SECURITY%202014&gsc.page=1

12.IEA, (2014).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Retrieved May 1, 2015, from, http://www.eia.gov/

13.Yergin, D. (2006).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Retrieved May 2, 2015,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06-03-01/ensuring-energy-security

中韩能源局势与能源合作

蒋智惠, 刘程林
北京大學

论文概要

能源被称为现代工业社会的血液。随着全球能源使用量增加，如今能源与能源安全是现代政治、经济与社会领域最热门的研究话题之一。经过第二次世界大战，两次石油危机与围绕能源的大大小小的冲突与战争，能源与能源安全已成为国家安全中不可或缺的重要一部分。而在国家之间相互依存度不断加深的时代，能源合作也已成为国家确保能源安全必不可少的环节。能源合作一般指两国在能源供给、需求与设施建设与使用等方面进行合作。不同国家的能源禀赋与优势不同，国家间合作是解决两国国内能源问题的有效解决方案之一。

中国与韩国是世界第一、第九能源消费国，两国同样面临着能源消费量多、能源进口量大、对外依存度高、能源效率不高、新能源技术开发起步比较晚、技术相对落后等问题，而这些问题都表明中韩两国的能源安全尚待提高。

中韩两国分别都采取了“走出去”和积极发展国际合作等政策以提高本国的能源安全。虽然多方面、多元化的合作是有必要的，但本文将着重探讨中韩两国的能源合作的重要性。两国所面临的能源问题相似，而所具有的优势互补。两国合作不仅有效解决两国面临的总量多、对外依赖高、能源效率低、环保性差能源安全问题，还将给中韩两国带来更多能源自主性与能源发展空间。

第一章 绪论

第一节 研究目的

本文希望通过分析中国与韩国的能源格局和能源政策，结合中韩能源合作的历史状况来阐述中韩能源合作的重要性与必要性，并预测两国合作情景，给出进一步扩大合作多需的政策建议。

虽然两国建交以来逐渐扩大能源方面的合作，但两国仍具有巨大的合作空间。国家间与民间的能源合作正得到前所未有的关注，而中韩能源仍有许多课题尚待学界的深入研究。基于此，本文希望达到的研究目的有以下三点：

（1）研究中韩两国能源情况与合作

国内外学术界针对中韩能源合作进行研究的文献较为少，一般文献都是以东北亚地区国家或中日韩三国作为研究对象，而中韩两国能源合作的研究尚未得到充分的挖掘。作为东北亚地区三个重要的国家，中日韩三国的能源合作虽然具有很大的研究意义，但中日作为亚洲两大经济体，其围绕俄罗斯的能源供应之争使得两国关系变得紧张，福岛核泄漏事故以来日本对化石能源的需求增加以后更是如此。再者，日本由于其在诸多技术方面的优势，导致日方在能源合作中常常表现出较为消极的态度。而相反地，由于中国与韩国所掌握的技术尚待提高、两国所面临的能源问题相似、存在很多共同利益、合作的互补性强，笔者认为两国之间存在较大的合作空间，而近几年的合作情况也恰恰证明两国加强合作的可能性。除此之外，在东北亚能源合作因政治，历史等问题迟迟得不到充分解决的情况下，中韩两国的合作作为东北亚地区能源合作中的重要的双边合作之一，应被给予重视。从这个意义上来说，剖析和探讨中韩两国能源合作的历史与未来，不仅有利于两国的合作，对推动中日韩三国以及整个东北亚的合作也有一定的参考意义。

（2）研究范围包括所有能源种类

学术能源研究一般是以一种能源作为研究对象，虽然针对一种能源的深入研究有利于挖掘能源所处的现状、问题，更好的分析能源未来的走向，提出该能源可行的发展方案，但是为了能够将两国宏观的能源局势更好地展现出来进行对比分析，本文将研究范围扩展到所有的能源种类，以全面的角度分析中韩两国在能源方面的政策，对比两国在能源政策上面的不同，找出两国在能源合作方面的利益立足点，并对两国的能源发展走向提出合理的建议。

（3）分析最新的中韩能源政策

中国正面临严峻的能源问题以及它所带来的环境问题等。中国国内层出不穷的研究论文与新

闻报道说明着中国政府与人民充分意识到了能源领域中存在的种种弊端。中国在能源问题上的认知正经历迅速的改变，随之而来的是能源政策上的大幅度改动与市民在能源使用上的节约意识的提升。而韩国刚发布的《第二次能源基本计划》也标志着韩国能源政策新的方向。现存文献中很少一部分能够及时反映出能源政策与市民意识的迅速改变带来的种种变化，而且目前没有文献分析研究这一变化将对中韩能源格局与合作带来的影响。

中韩能源局势的特性表明在长期内，中韩能源合作是必不可少的，而从近几年飞速发展的中韩两国政治、经济与文化关系，中韩能源政策与两国目前的合作情况也可看出，中韩两国正迎来两国能源合作的最好时机。

第二节 研究对象

第二章与第三章分别研究韩国与中国的能源情况、能源行业所面临的问题与相应的国家政策，换句话说，两国在能源安全上有什么样的困难而两国对这些困难的认知与解决方案包括什么样的内容。在第四章中，将结合第二三章的内容，探讨两国合作的可能性与必要性，即合作将给两国的能源安全带来什么样的正面效应，以及对中韩两国能源合作提出政策性建议。第五章将总结全文内容，对中韩能源局势及合作得出结论。

第二章 韩国能源局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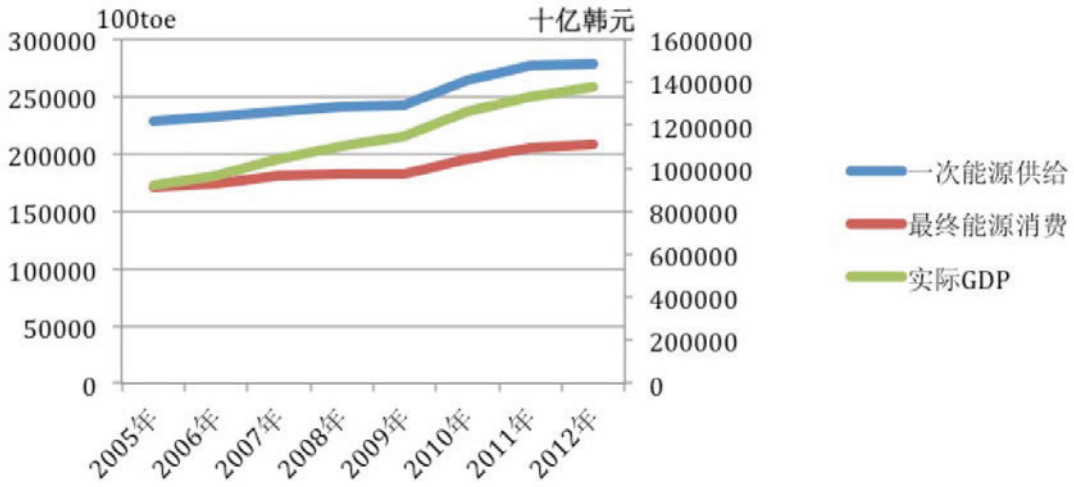
韩国虽然正努力扩大核电与新能源的开发以增加能源自主性，但其能源贫乏的特性使得韩国早已成为石油、煤炭和天然气等主要能源净进口国，韩国在世界能源市场中主要承担的是价格接受者的角色，因此如何积极展开能源外交与能源合作以满足国内发展需求，并研发新能源、再生能源以优化国内能源结构，减少对外依赖和增强自主性，再逐步实现可持续性的发展是韩国亟需解决的问题。在本章中，第一节将探讨韩国能源所面临的主要问题，第二节将简单考察近几年韩国能源政策与实施情况，第三节根据上述内容做出总结。

第一节 能源行业所面临的问题

（1）总量与进口问题

由图一可以看出韩国的能源消费量总体上呈不断增加的趋势，2012 年韩国能源消费总量是世界第九多。[1]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2014.9.15 No.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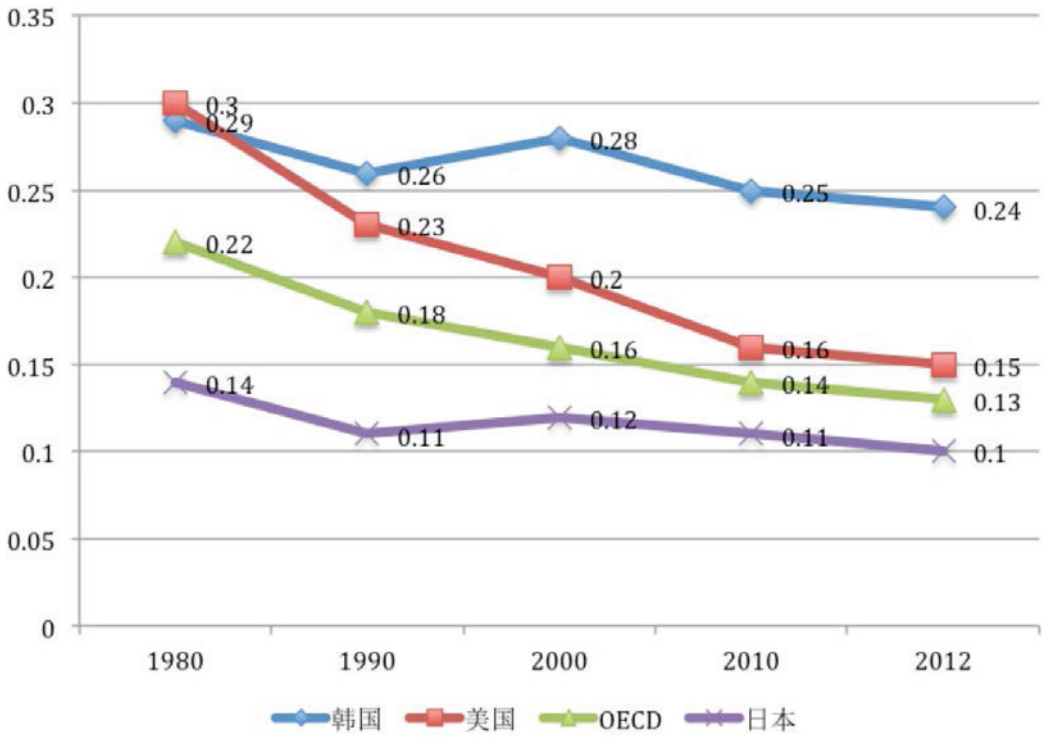


[图一] 韩国能源消费总量

来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201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虽然全世界收到了来自金融危机的打击，但是相比于其他发达国家，韩国的经济增长率波动小一些，不断增加的能源消耗量与其经济增长有直接的关系。除此之外，从韩国每单位GDP能耗就能看出低能源效率也是其主要原因之一。如图二所示，韩国的单位GDP能耗为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平均值的 1.8 倍，附加价值创造率低得制造业为主的产业结构是单位GDP能耗高的主要原因。[2]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2014.9.15 No.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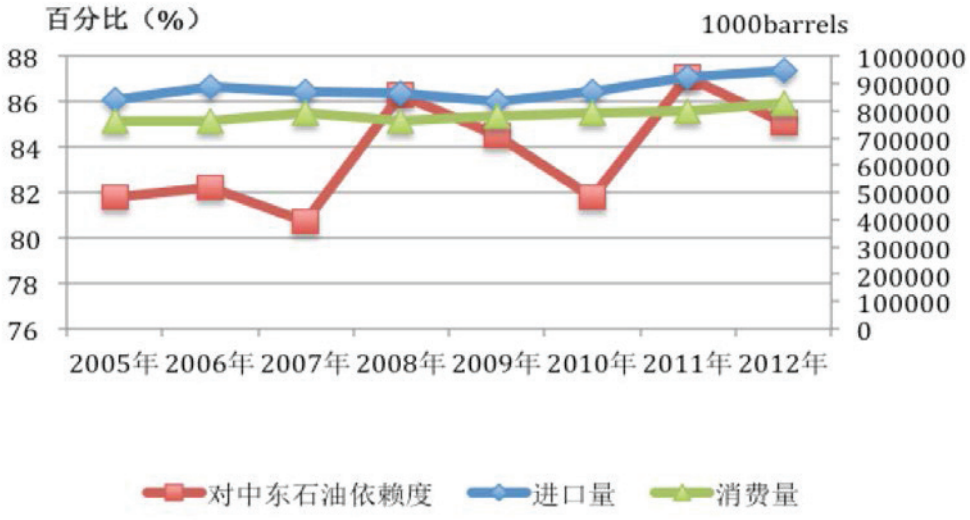


[图二] 单位GDP能耗对比图

来源: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由于韩国缺乏能源储藏量，其能源供应的95~96%依赖进口。在2013年，韩国是液化天然气(LNG)的第二进口国、煤炭第四进口国、石油和其他液体的第五净进口国。[3] 以石油为例，韩国的石油消费量和进口量不断增加，2012年消费量已达76,738.6万桶，进口量达121,577.5万桶，其中对中东石油的依赖度虽每年有高有低，但总体上呈上升的趋势。虽然最近走低的油价缓解了各国的财政负担，但有研究表明，“亚洲溢价”每年给韩国经济带来的损失相当严重。除经济因素以外，比较单一的进口源和不断攀升的总需求量对韩国的能源安全带来的挑战也是巨大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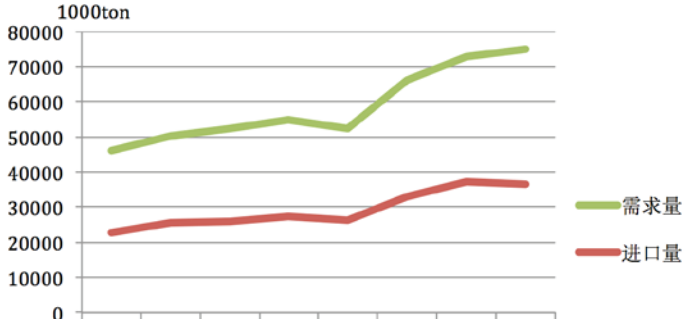
[3] IEA, (2014).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Retrieved May 1, 2015, from http://www.eia.gov/



[图三] 韩国石油情况图

来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201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如图四所示，天然气的消费量不断增加， 虽然2014年消费量有所降低，但是如何积极发挥谈判能力，在天然气市场由于低油价和页岩气革命等因素停滞不前的时候使得情况往往有利于韩国的方向发展，仍然是一件困难的事情。



	2005年	2006年	2007年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2012年
需求量	23350	24619	26664	27439	26083	33083	35603	38485
进口量	22317	25256	25569	27259	25822	32603	36685	36184
国内生产量	398	355	271	181	383	415	347	334

[图四]韩国天然气情况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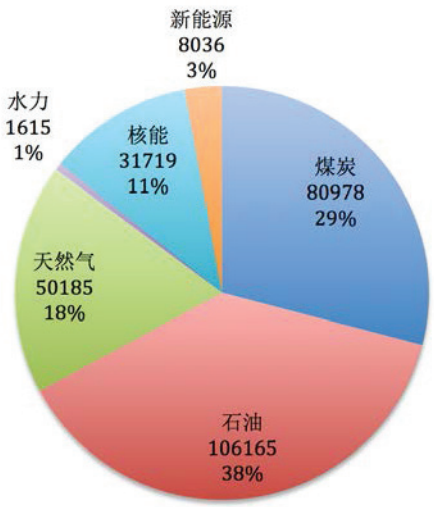
来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201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在大部分能源依赖进口的情况下，能源储备成为核心问题。以石油为例，韩国政府以每天的进口量为参照主张，1 亿 600 万桶石油储备可供韩国 115 天使用，但其实对于进口量占比过大的韩国来说以每天的消费量作为参照物更加合理，而如果在这种情况下的话，现在的储备量连 60 天的消费量也达不到。[4]

所以现在的条件下，以节约和开发新再生能源并进的方式控制进口总量并且迅速完善储备系统应成为韩国能源政策的首要目标。

（2）能源结构问题与原子能

2011 年韩国的能源供给结构如下，其中化石能源所占比例高达 85%，水力等新能源只占了所有一次能源供给的 4%。过高的对外依赖能够危及国家安全，就像石油危机曾经给世界经济带来过巨大的波动。为了避免此种情况，很多国家选择积极开发新能源，韩国的选择是借助核能，然而针对核能的争议非常大，其潜在危险并不是简单的扩大能源自主性能够合理化的。



[图五]韩国 2012 年一次能源供给（热量）图（单位：1000toe）

来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201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4] 정지우 기자. 60 일도 못 버티는 정부의 석유비축량. *파이낸셜뉴스*. 2015-04-25. http://www.fnnews.com/news/201503221620434578

核能在其中占比高达 11%，无可否认的是，对于几乎所有能源供应都依赖进口并且新能源的发展还处于初级阶段的情况来说，核能无疑缓解了能源供给带来的挑战。核能在韩国所具有的战略意义非凡。二战以来，对国力极衰的韩国来说核能一直被认为是通向科技强国、富国强盛的重要道路。大大小小的事故，即便切尔诺贝利核事故也没有能够阻止韩国发展核电设备的脚步。而21 世纪以来，核能的低碳特质又受到关注，韩国的核电设施数量已达 23 个，又有 5 个在建设当中。[5] 福岛核电站事故对韩国起到了警示作用，导致 2014 年 1 月份确定的《第二个能源基本计划》中核电设备占所有电力设备里的比重从 2030 年达到 41%的目标降低到 2035 年达到 29%。在许多国家重新审视或停滞核电计划的情况下，韩国如此依赖核电是否是正确的选择尚待研究。《第二次能源基本计划》由于国民强烈的反对降低其目标，核能威胁韩国人民的生存并且韩国已与国际社会承诺减排的情况下，新能源应得到更多的关注与支持。虽然新能源初期投资费用高，现在在所有供给中所占比例很低，但它的潜能不可低估。

（3）可持续发展与环境问题

韩国相对于中国，虽然没有可见的雾霾等环境问题，但是韩国二氧化碳排放量较高，占全球总排放量 1.8%[6]，较高的排放量也引来了不小的国际压力。并且从现在的情况来看，韩国并不能达到政府提出的 2020 年减排 30%[7]，如果韩国不加更改根据 2020 年的减排目标再制定 2030 年的目标，韩国在国际社会的公信力将受到质疑。但是由于考虑到美国、俄罗斯、日本等国家 2030 年减排目标都超过 25%的情况，韩国决策并不是那么容易，现在处于确定减排目标的进退两难状态。

二氧化碳排放量目标达不到要求的原因与煤炭、石油消费量不断增加，而核能与新能源没有能够按照原本的计划发展起来有很大的关系。2014 年 1 月份确定的《第二个能源基本计划》中核电设备比重从 2030 年达到 41%的目标降低到 2035 年达到 29%，2030 年达到再生能源占比 11%的目标从 2030 年推迟到了 2035 年。

虽然为了履行减排承诺，新能源应得到更近一步的重视，但由于新能源的初期投资成本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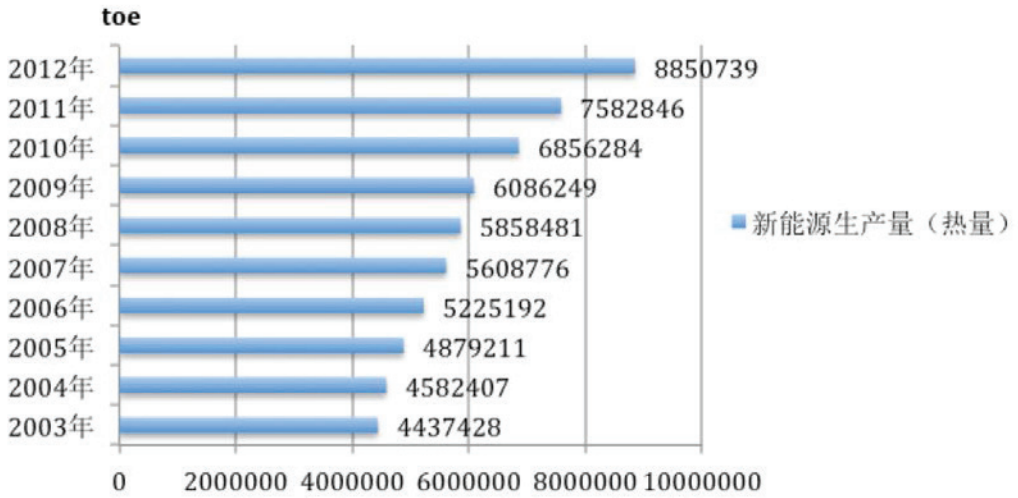
[5] 〈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연합뉴스*. 2015-04-2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227000200044&input=1363m

[6] G.J. Olivier (PBL)., Greet Janssens-Maenhout (IES-JRC), Marilena Muntean (IES-JRC), Jeroen A.H.W. Peters (PBL). (2013).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3 REPORT*.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Retrieved April 26, 2015, from
http://www.pbl.nl/en/publications/trends-in-global-co2-emissions-2013-report

[7] 전경련.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산정해야. *연합뉴스*. 2015-0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049300003.HTML?input=1179m

价格上竞争力不足等原因，其发展速度较慢。IEA研究表明 2012 年，世界一次能源供给平均有 13.2% 依靠可再生能源。[8] 相对于世界平均水平，在韩国可再生能源只占 4%，并且大部分都是属于水里与废弃物。光伏与风力等要求较高技术的新能源基本没有发展起来，可见韩国的可再生能源行业还有很大的发展空间。

但由图六可看出韩国国内新能源生产量不断增加。在全世界对新能源的关注度和投资高速增长，韩国倡导绿色生长的情况下新能源发展有望加速。



[图六]韩国可再生能源生产量增长图

来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201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第二节 能源政策

《第二个能源基本计划》以五个重点目标为其核心内容，内容以下：（1）以需求管理为主为重心的政策转换；（2）构造分散型发电系统；（3）环境、安全等持续可能性的考量；（4）能源安全强化；（5）调动国民的政策。

和《第一个能源基本计划》比起来，可以看出韩国政府对广义能源安全概念有了更加深入的理解。更加注重需求而不是供给管理为重心的政策，意味着在能够确保安全供应的情况下，只有从需求端推进节约、能源结构优化等政策才能解决诸多危及能源安全的问题。尽管如此，计划中对用电量的过高估计与建设核电厂的目标成为一些人批判政府仍实行以供给为主的政策的根据。

[8] IEA. (2012). *Renewable ener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April 27, 2015, from http://www.iea.org/aboutus/faqs/renewableenergy/

注重环境与可持续发展符合世界潮流，然而如何达到这一个目标仍是一个谜。调动国民，鼓励国民发出意见的能源政策也反映了韩国政府开放的思想，然而在众多反对核电的声音下仍坚持扩建核电厂与这一条目标是否符合有待商榷。

在石油、天然气等只能依靠进口的情况下，战略储备与效率管理是韩国的主要应对政策。经过第一、二次石油危机，韩国于 1980 年开始推进石油战略储备政策，2014 年末政府与石油公司获取的国内与国际储备量达 1 亿 594 万桶，可使用 116 天。[9] 但上文中有提到，按每日消费量计算，使用天数则不到 60 天，并且由于储备设施安全管理力度欠缺，建设往往遭到居民的反对，经MBC新闻社调查，韩国位于平泽市的国内最大LNG储藏机构安全管理十分落后，有多处生铁锈、有破损，安全管理政策与实践有许多不足之处。[10] 而节约使用能源的政策没有被足够重视，国民上下没有能够形成正确的节约观。

核电与新再生能源被认为是韩国提高能源自主性和减少对外依赖的方案。在新能源方面，虽然第四次新再生能源方案基本计划反映了韩国社会与政府对新再生能源的重视，政府主张到 2035 年将在一次能源供给中新再生能源的比例扩大到 11%，但是由于持续的油价走低动摇着国家计划，培养新能源产业的政策是在缺乏能源的情况下制定的，所以有关人士认为这一政策无法应对现在低油价的局面。[11]

新能源产业迟迟得不到发展的情况下，政府于 2015 年 4 月发布旨在未来 3 年中发展新能源产业的‘为应对气候变化的能源新产业活跃执行计划’，内容包括从金融、制度等方面构造对新能源发展有利的环境，并开发与增加光伏，燃料电池等核心技术以增大未来能源产业竞争力，这一计划能够带来多大的效应尚不清楚，但是表明了国家对新能源的重视。[12]

在核电方面，第二个能源基本计划仍坚持核电比例为 29%，考虑到将来的用电量将持续增加，政府正筹建新的核电站。盈德郡、三陟郡等新核电站的建设与月城郡核电站的延期使用都受到居民强烈的反对，包括医疗界与宗教界在内的多数国民主张“脱核化”社会的情况下，如何赢得民心，发挥核电强国的优势，是韩国将来的能源政策应努力解决的问题。

---

[9] 박민철 기자. 한국 “올 비축유 75% 상반기 구매”. *문화일보.* 2015-02-2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2601070403020001

[10] 송양환기자. ’위험천만’ 국내 LNG 기지들‥안전관리 허술. *MBCNEWS.* 2012-10-11.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56793_13022.html

[11] 이정훈 기자, 송찬영 기자. ‘의지있나’ 에너지 신산업 주춤…’ 철학있나’ 환경은 팔짱. *에너지경제.* 2015-02-2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3984

[12] 정양호. 경제’ 묘수’ 될에너지신사업. *성울경제 오피니언.* 2015.05-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5/e2015051920310948120.htm

第三节 小结

总结本章的内容可以初步得到结论，韩国高达 95%以上的能源对外依赖度使得韩国能源对外合作与能源外交成为国家重任之一，然而和中国、日本等大国相比，韩国的能源供给安全十分薄弱。从使用来讲，能源消耗量大且附加价值创造低的制造业为重心的产业结构使得韩国的能源效率非常低，能源消耗总量不断攀升，进一步威胁了供给安全。从能源储备来讲，韩国十分高的对外依存度使得它对化石能源储备设施与总量的要求理应满足或超过国际标准才能确保最低限度的能源安全。然而韩国的化石能源储备设施安全管理不当，威胁着居民的生存，并且韩国对自身的储备能力有高估的倾向。

争议最大的核电方面，核电的研发水平已足够使韩国成为世界主要的核电技术输出国之一，核电在韩国的总能源供给中已占相当大的比例，目前来说，核电是韩国的能源结构中除化石能源以外最重要的供给来源之一，具有不见而忽视的战略性意义。但是福岛核泄漏使得人类再一次见证了核能所具有的巨大的潜在破坏力，韩国高估国内用电量，不顾国民的反对扩建核电站并且允许就核电站继续使用等行为，缺乏理性思考。

新再生能源方面，由于投资不足，其在能源供给中所占的比例只有 4%，并且它还是以火烧废弃物的方式为主，废弃物能否被列为新再生能源，本身就是一个有很多疑问的问题。由于韩国缺乏能源的地理特性，核电潜在风险过大，韩国应扩大对新再生能源的投资是理所当然的事情。但目前韩国的技术相对于先进国家落后，市场规模也无法满足新再生能源发展的需要，有必要加强对外技术交流并及时并积极开拓海外市场。[13]

第三章 中国能源局势

中国作为世界性的能源消费大国，其能源基本情况的改变或政策的改变都会影响到其周边国家乃至全世界的能源格局。因此掌握中国能源格局的来龙去脉对理解世界能源格局以及它可能对韩国产生的影响都有十分重大的意义。本章分为三个部分，第一节将剖析中国能源行业所面临的严峻问题，第二节将分析近几年来中国各类能源的发展情况，第三节中将结合第一、第二章的内容深入探讨中国政府提出来的政策与它的含义。

第一节 能源行业所面临的问题

虽然中国能源体制改革，能源市场化的进程正轰轰烈烈地进行着，但由于历史原因，中国国内形成的能源垄断难以去除。中国在发展早期资源相对匮乏的时候，政府以行政性垄断方式对能

[13] 许泰秀. (2010). *韩中两国新可再生能源政策比较与合作展望*. 硕士学位论文. 大连理工大学.

源行业进行补贴性保护，在很长一段时间里，能源的使用效率不是最主要的问题，而供应安全才是最受重视的问题。而长期的垄断不仅带来了能源分配不均衡，能源消耗效率低的弊病，还为腐败提供了巨大滋生空间。[14] 人口基数庞大、能源使用效率低下、可持续发展目标的提出较晚等许多原因也造就了一系列问题，但其中最为突出的问题可以概括为以下三种：

（1）总量问题

中国能源消耗量不断增加，其能源消耗已经占到全球总量的 1/5。[15] 由于政府管制下的价格没有正确反映出市场的供求关系，而且其价格往往处于比较低的水平，导致了能源的过度消耗与利用效率低下。中国每消耗 1 吨标煤的能源仅创造 14000 元人民币的GDP，而全球平均水平是消耗 1 吨标煤创造 25000 元GDP，美国的水平是 31000 元GDP，日本是 50000 元GDP。[16]粗放式经济增长已成为中国能源的一个常态，提高能源使用效率的努力迟迟得不到突破性的发展。由于中国受石油危机的冲击相对小，所以不管是在工业中还是普通居民消耗能源都没能够形成节约能源的意识。

由于不断增长的需求量，长期以来，中国的能源供给始终处于十分紧张的状态。电荒、油荒、气荒等能源短缺现象却时有发生。每年进入冬季用电、用气高峰，这些能源供应变得十分紧张。油荒与电荒在 21 世纪初频繁发生，虽在近些年内通过不断的改革与调整已基本解决了问题，但气荒问题现在变得愈发突出。

总量引申出来的能源供应安全也是中国所面临的核心问题之一。为了满足国内巨大的能源需求量，中国从国外进口的能源量不断增高。导致中国在 1993 年成为石油净进口国，2006 年成为天然气净进口国，进口量迅速增大。中国在以十分积极的态度扩大海外能源开发，这对中国的能源外交构成了巨大挑战。

（2）能源结构问题

大部分国家都在发展的过程中曾以煤炭作为最为主要的能源，但由于其对环境带来超负荷的压力，转而依赖石油或开发新能源等种种途径来避免使用煤炭进行能源供应。改革开放以来，煤炭在中国的能源消费结构中的比重长期保持在 70%左右。2012 年，煤炭消费接近 37 亿吨，超过世

[14] 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p48.

[15] 我国能源消耗已经占到全球能源总量 1/5. *中国行业研究网.* 2015-04-30, 取自 http://www.chinairn.com/news/20140825/09595766.shtml

[16] 央广网财经. (2013). 我国单位 GDP 能耗达到世界均值 2.5 倍. *腾讯财经.* 2015-04-30, 取自 http://finance.qq.com/a/20131201/002265.htm

界煤炭总消费量的 50%；燃煤机组装机容量接近 8 亿千瓦，燃煤发电量约占全国总发电量的 78%。[17]

2012 年天然气在一次能源消耗结构中所占的比例仅 5.2%，和世界平均水平 24%比起来尚处于十分低的水平，但近几年天然气使用量急剧攀升，2013 年中国天然气表观消费量达到 1676 亿立方米，同比增长 13.9%，已成为世界第三大天然气消费国。由于相比煤炭与石油，天然气含碳量低的特点使得中国在城市燃气、交通运输、工业与发电等领域扩大用气量，天然气在中国发展前景十分明朗，将成为未来几年内发展速度最快的能源。[18]

中国在不断扩大对新能源的投资和开发，但是由于煤炭和石油较低的价格和新能源技术上的落后导致其发展缓慢。但是继 2009 年成为世界最大的可再生能源投资国，2011 年让位于美国后于 2013 年重新找回最大投资国地位。[19] 一旦经过几年的投资与研发积累，现在发展缓慢的局势将得到快速改善。

（3）环境问题

中国的雾霾问题已是全世界周知的，北京天安门被黄色雾霾笼罩的照片已成为严重的环境污染的象征。环境问题与能源消费总量、消费结构问题有紧密的联系。85%的二氧化硫排放量、67%的氮氧化物排放量、70%的烟尘排放量以及 80%的二氧化碳排放量都来自于燃煤[20]， 由北京大学国家发展研究院进行的研究表明，大气污染导致的健康成本大概占了 2003 年GDP的 1.16%到 3.8%。每年因大气污染早死的人数最保守的估计在 35 万到 50 万之间，由冬天燃煤所产生的空气污染导致北方人口均预期寿命下降 5 年。[21] 中国已经在为能源的环境污染问题付出高昂代价。

第二节 能源基本情况

在深入探讨能源政策与能源体制改革带来的总体效应之前，考察每个能源在中国的基本情况是有必要的。

本文将把能源分为三类，第一类是传统化石能源中在中国能源结构占了大部分比例的两种能

[17] 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p38.

[18] 2014 年我国天然气利用行业概况及现状分析. *中国报告大厅.* 取自 http://www.chinabgao.com/k/tianranqi/12475.html

[19] 中国成最大可再生能源投资国. *新华网.* 2013-01-16. 取自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1/16/c_124237893.htm

[20] 王敏：市场化改革是解决能源安全的根本之道. *新浪财经.* 2014-07-29. 取自 http://finance.sina.com.cn/hy/20140729/112419849954.shtml

[21] 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p39.

源，即煤炭，石油，第二类是其使用量迅速增加并适用范围不断扩大的天然气，最后一类是投资和增长速度都很大但是还没能够充分发展起来的新能源。

（1）煤炭与石油

中国历来是煤炭消耗大国，在过去的“黄金十年”中，中国的煤炭供应与消费不断增加，成为了十年辉煌的主要动力。而粗放式消费与开采方式，深加工技术的缺乏日益显露出其弊端，煤炭改革的步伐正不断加快。

根据《中国煤炭工业改革发展情况通报(2014 年度报告)》，中国 2014 年的煤炭市场需求不旺、产能过剩和进口规模达，导致供大于求的问题最为突出，价格下滑给煤炭企业带来的经营压力加大。在此情况下，神华、中煤、同煤、伊泰等大型企业开启的价格战更是让中小型企业没有站得住脚的余地。从 2015 年一季度煤炭行业各项数据结果来看，中国的煤炭行业早已成为产能过剩的重灾区，而煤企也陷入了一场竞争恶循环，“宁降价，不限产”成为各煤企的宗旨。[22]

中国政府不断加大对煤炭行业的扶持，限制进口量和煤炭总量，通过积极推进资源税帮助企业减轻负担的同时优化能源结构。

中国石油集团经济技术研究院发布的 2014 年度《国内外油气行业发展报告》显示，中国石油消费量超过 5.18 亿吨。其中，石油净进口约为 3.08 亿吨，石油对外依存度达到 59.5%。[23]中国的石油储备量目前是一个月的进口量，总的来说，中国国内石油的需求要远远大于现在国内石油的储备量。针对此现状，中国政府采取积极的能源外交政策，与多国签订石油贸易协定，以满足自己巨大的供应需求，除此之外，中国还大规模的扩大石油储备设施，以增加自己的石油储备量，防止能源危机。

（2）天然气

天然气虽然作为传统化石能源在世界其他地方已得到了广泛的运用，但是在中国的应用起步较晚。中国努力优化能源消耗结构，减少煤炭使用量并且石油供应紧张的情况下天然气对中国有十分重要的战略意义。首先，天然气的大幅度应用能够帮助满足中国日益增长的能源需求。其次，天然气相对于煤炭和石油，给环境带来的影响偏小。中国能源网CEO韩晓平认为“能源改革要抓的纲是能源结构的改革，而能源结构里天然气是纲”[24]，可见天然气在中国能源改革中具有的战略意

[22] 煤炭改革政策牵头 粗放发展将成历史. *中国煤电网.* 2015-03-30. 取自 http://www.meidianwang.com/MD_HotNews/HotNewsDetail/1351.html

[23] 冉永平. 中国石油对外依存度近 60% 全年净进口约 3.08 亿吨. 2015-01-29, *人民日报,* 第 02 版.

[24] 赵静. 能源改革等待细则 改革之纲在“气”上. *新浪财经网.* 2015-05-19. 取自

义。

尽管处于重要战略地位，但由于天然气定价机制的不合理性，其相对低的价格与紧张的供应很容易导致中国的气荒问题，但频繁的气荒背后不乏中国完善定价机制的努力。业内人士分析认为，天然气价格将朝着两个方面发展，一是定价机制不断完善，越来越贴近市场化；二是价格水平逐步在提高。[25]

即便矫正价格控制消费量，中国也仍面临巨大的天然气需求量。所以在此困境下，如何获取国外的供应链，提高国内开采技术与速度才是解决天然气难题的关键所在。

（3）核能

福岛事故后，中国国内核电项目审批暂停。从 2014 年以来，核电审批重启，《国家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 年)》里提出，在采用国际最高安全标准、确保安全的前提下，适时在东部沿海地区启动新的核电项目建设，研究论证内陆核电建设。到 2020 年，核电装机容量达到 5800 万千瓦，在建容量达到 3000 万千瓦以上。中国提出 2030 年非化石能源达到 20%， 而 2013 年，中国核电利用水平为 2.11%，远低于 14%的全球平均水平。在中国政府大力支持核电项目的情况下，它具有巨大的市场空间。[26]

（4）新能源

新能源在中国仍然是新兴产业，虽然倍受关注但是它所能起到得效应还处于微乎其微的水平。国务院参事、中国可再生能源学会理事长石定寰在一次记者专访中回答，中国的新能源发展缓慢的原因，主要由国家对新能源的地位和重要性的认识不足、自信心不够与投入过少导致。[27] 石定寰所指的投入过少可以理解为起步时间晚导致的投入总量少。

但是不可否认的是，中国现在正迅速扩大其对新能源的开发。根据BNEF彭博新能源财经近年来所统计的数据，2014 年全球在新能源开发方面的投资达 3100 亿美元。其中，中国的投资高达 895 亿美元，较 2013 年增加 32%，远比投资额位居第二总计 520 亿美元的美国多。[28] 无论是《能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50519/035822210541.shtml

[25] 徐沛宇. 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 *新浪财经.* 2014-12-15.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26] 俞菲. 2015 年起我国每年核电投资金额将达 600 亿元. *前瞻网.* 2014-11-18. 取自 http://www.qianzhan.com/qzdata/detail/149/141118-38ac13cb.html

[27] 我国新能源发展缓慢的障碍分析. *中国行业研究网.* 2009-08-14. 取自 http://www.chinairn.com/doc/70310/452305.html

[28] 远超美国 中国成全球新能源最大投资者. *集邦新能源网.* 2015-01-14. 取自

源发展“十二五”规划》（以下简称《能源规划》）还是《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以下简称《能源计划》）都以增大清洁的非化石能源在总能源消费量的比重为重点目标之一，所以在中国新能源的发展前景十分可观。

第三节 能源政策

中国在80～90年代提出的战略总方针为“坚持开发与节约并举，把节约放在首位”，中国巨大的能源消耗量与进口量使得到现在其以开发与节约为重心的总方向并没有太大的变化，《能源计划》中提出坚持“节约、清洁、安全”为总的战略方针，可以看出原来的基础上可持续性与环保得到了进一步的重视。

在节约方面，中国以广义节能为基础，以工业节能，石油节约和电力节约为重点，提高能源利用效率。节能的基本途径是：以市场为导向，树立全面节约观念，通过“调整经济结构，加强能源管理，节能技术改革和创新”三条途径。[29]

《能源规划》中中国政府再次重申基本原则以“坚持节约优先”，无论是国家的经济发展模式还是个体的消费模式都应遵循节约的美德。

《能源规划》中谈及国内能源问题时，中国政府认为“国内生态环境难以继续承载粗放式发展，国际上应对气候变化的压力日益增大，迫切需要绿色转型发展”并且“体制约束日益显现，深化改革势在必行”。此文中“转型”一词出现3次，“创新”一词出现26次，“改革”则多达46次，中国政府积极倡导国际合作、互利互惠，全力推动新能源投资、研究并努力实行绿色转型以达到国际标准等表现都表明了中国对待能源问题的积极态度。

“一带一路”的提出也将成为能源合作的催化剂。专家认为，随着“一带一路”建设的推进，将会在改善交通和物流、基础设施、融资环境与软环境等四个方面，对能源合作产生巨大的推动效应。[30]

2014年美国总统奥巴马访华期间，中美双方共同发布了《气候变化联合声明》，就温室气体排放作出承诺，虽然中方没有提供具体的减排数据，但是承诺2030年达到排放量峰值。中国粗放式增长与缺少可持续性的发展模式，过多的温室气体排放量一直是国际社会的指责对象，但针对于此，中国并没有持续“韬光养晦”的政策，反而挺身而出开始努力承担责任并且开始引领世界可再生能源的发展。

---

http://www.energytrend.cn/news/20150114-10576.html

[29] 倪建民, 郭云涛. (2009). *能源安全=Energy security.* 杭州：浙江出版社. p31.

[30] 石泽：共建“一带一路”与变化中的能源格局. *中国石油新闻中心*. 2015-01-13. 取自 http://news.cnpc.com.cn/system/2015/01/13/001524631.shtml

第四节 小结

中国面临的三个主要问题并不是短时间内可以解决的。首先，在全球煤炭产量过剩，价格持续走低的情况下，中国能源消费结构转型与总量控制十分艰难。天然气有助于结构优化，但如何以安全而多元化的方式满足国内急剧攀升的需求量是另一个要解决的问题。在环保方面，以北京雾霾为例，虽然中国政府把能源集约型的重污染行业从北京迁走，但是石家庄、天津等周围城市的污染仍然影响北京地区，没有联防联控的政策仍不能改善环境，一个城市被迁走的重污染行业总会转移到另一个地方。很显然，在整个国家的能源结构得到优化之前，指望能够短时间内解决环境问题是不可能的。

面对严峻的形势，中国能源局势开始迅速转变其面貌，从近几年的政策与实践可以看出，中国加速能源体制改革，能源结构优化的决心十分坚定，化石能源的定价机制设计已得到了显著的突破，对天然气的开发与运用十分重视，对核能与可再生能源的投资也已经超过世界很多国家。

因此，如何认知中国能源产业的转型，并做出正确的反映，将决定在这一场大变革中，中韩两国能否达到互惠互利的最佳情况。

第四章 中韩能源局势

第一节 中韩能源合作的必要性和可行性

中韩能源合作具有良好基础。正如现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 2014 年出访韩国时所说的一样，中韩两国地缘相近、文缘相通、心缘相亲、经济相融，友好交往源远流长。[31] 中国与韩国自 1992 年建交以来，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领域的合作都取得了长足进展。 2008 年，两国同意将将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积极深化和拓展双方在投资、金融、通信、能源、环保、科技、新能源开发利用等领域的互利合作。[32] 近几年中韩关系迅速发展，韩国总统朴槿惠于 2013 年 6 月 27 日至 30 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期间两个政府发表的《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和《充实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动计划》都旨在充实战略合作伙伴关系，落实两国“相互尊重、平等互利、和平共处、睦邻友好”的精神。

其中，能源是两国合作的重要领域之一，建交以来双方积极开展了相关的多边与双边能源合作。除了地理毗邻的先天优势，两国能源局势本身的特征促使两国的合作。由上文可以看出，中

[31] 中韩文缘相通心缘相亲经济相融. *新浪新闻中心*. 2013-06-29. 取自 http://news.sina.com.cn/c/2013-06-29/074027529492.shtml

[32] 将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 *新浪新闻中心*. 2008-05-28. 取自 http://news.sina.com.cn/o/2008-05-28/070613935890s.shtml

国与韩国面临的能源问题有许多相似之处。首先，韩国和中国能源密集型产业居多的产业结构使得单位 GDP 能耗高，缺少市场化的定价机制或过高的需求量估计等反应不了真实供求关系的能源价格导致能源消费总量高。韩国的能源对外依存度向来很高而中国对外依存度也在增加，世界能源格局的不确定性给中韩两国带来的很大的风险。其次，从两国能源消费结构可以看出两国严重依赖化石能源，不合理的能源结构会带来环境污染等其他问题。最后，两国都担负着减少温室气体排放量，向可持续发展模式转型的重任。这一目标的核心在于发展新能源、可再生能源，而两国由于投资成本过高、起步太晚、技术落后等问题，其新再生能源发展尚处于初级阶段。然而两国在核电发展上有促进安全管理，分享技术与市场等共同的利益，其未来合作潜力大。在可再生能源上，两国可以扩大交流合作共同摆脱落后的局面。

中韩两国近几年来多方面、不断加深的合作与两国关系的飞速发展，两国能源问题的相似性与一些优势的互补性都表明中韩两国的能源合作不仅是可能的，且是必要的。

第二节　中韩能源合作的历史和未来

本节将把能源分为化石能源、核电与可再生能源三个部分梳理中韩两国的合作历史，并结合两国的能源局势、政策，分析并建议两国的未来合作方向。虽然每一种能源在短时间内是不可代替并且具有十分重要的战略意义，但是鉴于世界能源发展趋势与两国所拥有能源特征，笔者认为两国未来能源合作的核心在可再生能源。两国在可再生能源的合作不仅能够极大改善两国所面临的种种问题，还能给双方国家带来经济利益、就业机会等等。

在全世界面临能源带来的巨大挑战的情况下，两个能源消费大国——韩国与中国紧密合作，尤其在可再生能源领域合作上贡献出自己的一臂之力，不仅会改善两国、地区的能源局势，还能加强两国的能源安全，为两国的战略伙伴地位奠定基础。

（1）化石能源

［表一］中韩两国化石能源合作历史

日期	合作内容
2006.11	中国海洋石油总公司与韩国天然气公司签署天然气合作谅解备忘录
2008.5	韩国大宇国际株式会社与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签订《缅甸油气联合勘探谅解备忘录》

日期	合作内容
2008.5	韩国SK能源株式会社与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达成武汉乙烯合作项目[33]
2012.4	韩国天然气公社（KOGAS）在北京代表处正式开张
2012.9	中国石化国际石油勘探开发有限公司、中国国际石油化工联合有限责任公司分别与韩国石油签署战略合作备忘录
2012.5	韩国天然气公社，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日本三菱公司与壳牌公司联合在加拿大的凯提马特共同建立液化天然气厂
2013.6	韩国SK综合化学和中国石化在湖北武汉签订了乙烯合作法人设立条约
2014.7	国际节能环保协会（IEEPA）与韩国大邱国家级科技园（DTP）签署全面战略合作协议
2014.8	SK集团与中国哈纳斯集团在宁夏银川正式签署全面合作协议，围绕天然气市场上、中、下游展开全面的合作[34]

根据不完全统计，21世纪以来中韩两国在化石能源上的主要合作有以上内容。化石能源合作一般集中于企业之间员工交流培训等。韩国极度缺乏化石能源的特性使得韩国贸易经验丰富，中国能源的对外依存度是上世纪90年代才开始逐步增加的，因此两国的深入交流有利于借鉴与学习。

但两国的合作应聚焦于共同勘探与共同开发。韩国大宇国际株式会社与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签订《缅甸油气联合勘探谅解备忘录》，韩国SK能源株式会社与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达成武汉乙烯合作项目等被认为是中韩两国在能源上下游的紧密合作，以乙烯合作项目计划为例，它年产80万吨乙烯产品及250万吨石化产品，预计将拉动1200亿产值，带动下游10万人就业。[35]

虽然共同勘探与乙烯项目等都表明着中韩化石能源合作不断地深入，但是两国之间还有很大的合作空间。两国应加强以下方面的交流，为两国获取在化石能源领域中更大的自主性，为两国的发展做出贡献。

1.技术交流

韩国多年进口原油加工后出口，在国内激烈的竞争下，韩国的炼油技术不断提升，丰富的经

[33] 中国石化与韩国SK公司签署武汉乙烯项目合资经营合同. *中国新闻网*. 2013-06-28. 取自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6-28/4981892.shtml

[34] 哈纳斯集团与韩国SK集团在银川签署全面合作协议. *光明网*. 2014-08-07. 取自 http://difang.gmw.cn/nx/2014-08/07/content_12410407.htm

[35] 葛楠, 李名迟. (2013). 中石化与韩国SK公司合资经营武汉乙烯项目. *经济参考报*. 2013-07-01. 取自 http://jjckb.xinhuanet.com/2013-07/01/content_453071.htm

验使得韩国拥有很高的炼油技术。两国的技术交流将带来化石能源加工成本降低，质量提升的效果。

2. 供给安全

虽然高油价与“亚洲溢价”的噩梦暂时因油价走低而暂时结束，但是天然气仍然面临“亚洲溢价”带来的困境。韩国与中国作为大国对化石能源的进价可以施加一定的影响，如果中韩能够协力对付石油与天然气“亚洲溢价”问题，将带来可观的经济效应。两国应加强油气联合勘探，共同对付这一问题，为两国获取充足、多元而价格合理能源供给。

3. 共同石油储备

中韩两国应积极考虑共同石油储备的方案，韩国拥有过剩的储备设施，而中国在积极扩展石油储备而设施容量不够的情况下，共同石油储备是两国能够在潜在的供应危及中共同渡过难关的方案之一。

（2）核电

［表二］核电合作

日期	内容
2005.8	韩国斗山重工业公司和中国哈尔滨电力集团在汉城签署一份谅解备忘录。中韩两家企业将就参与在建的 65 万千瓦和 100 万千瓦级发电机组项目以及计划建设的中国型核反应堆（CNP1000）项目开展合作。
2007.4	第二届中韩核电技术论坛在上海举办，来自中韩两国政府、企业和研究机构的两百多名代表参加论坛。
2011.11	韩国核能安全委员会，中国环境保护部核能安全司以及日本经产省核能安保院在日本经产省就建立“安全使用核能合作体系”一事达成共识。
2014.5	中韩两国在北京召开第 11 届中韩核能合作联委会会议，就两国核能研发和核能安全等领域的合作事宜交换意见。
2014.7	中韩两国领导人举行首脑会谈，会议就核电安全进行加强合作的讨论
2015.3	韩国水电与核电公司(KHNP)和中国核能电力股份有限公司(CNNP)在首尔洲际酒店举行“第一届增进核电安全会议”，双方发表了内容包括为保障东北亚地区核电安全而进行跨境合作的联合声明。

从表格可以看出，中韩两国至今在核电领域的合作大多停留在论坛、会议等交换意见与经验的阶段。虽然每一次合作有利于双方核电的安全发展，但是这种“消极”的合作应得到突破。

韩国是核电领域的传统强国，而中国在国家庞大的投资下正以惊人的速度赶上韩国。反观中国，中国目前拥有 23 座已经投运的核反应堆，此外还有 26 台核电机组正在建设当中。福岛核事故后，中国政府对核电规划进行了修订加强了管制，但是从长期看来，人们依然预计中国核电将以很快的速度增长，以满足极度高涨的能源需求和清洁空气的规定。由于中国核电目前在电源结构中的比重还远不及 5%，且该比例短期内可能不会提高，所以中国核电的扩张势头不容小觑。

1. 技术出口

韩国在核电技术方面已经处于世界领先地位，APR1400 型机组目前被认为是未来亚洲乃至全球领先的设计方案。而中国国内则拥有巨大的市场资源，且在环境污染和能源需求如此高涨的情况下，中国急需发展核能以替代化石燃料。所以技术出口对于韩国来说是当下最正确的选择，中韩关系的迅速升温为也技术出口也提供了便利，可以促进两国的共同发展。

2. 安全管理

福岛核事故后，引起了各个国家的恐慌，各国对核电站的管理纷纷提高了警惕。韩国国内对于发展核电一直以来就有很大的舆论，甚至有很多民众上街进行示威，所以加强核电管理，保证核电的安全运行是韩国当下发展核电最迫切的事情。中国在福岛核事故后也修订了一系列发展核电措施，由于对核电安全的更高要求，使中核集团和中广核集团不得不放弃了以前赖以生存的第二代核反应堆设计。所以针对核电安全管理，中韩两国可以定期展开交流合作，互相借鉴经验，以避免发生核泄漏或其他核事故，为东北亚、东亚乃至全世界的核安全做出贡献。

（3）可再生能源

［表三］ 中韩可再生能源合作状况

日期	内容
2005.5	中国科学院广州能源所与韩国能源所签订“可再生能源领域合作协议”
2008.7	中国建筑科学研究院、建设部科技发展促进中心和韩国 LG 化学公司“地面辐射供暖系统利用可再生能源综合技术研究”
2008.8	胡锦涛主席同李明博总统举行《高技术领域合作的谅解备忘录》
2009.5	韩国大韩商工会议所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主办，在北京召开“第 1 届中韩绿色经济论坛”
2009.5	韩国大韩商工会议所主办，在北京召开“首届中韩绿色经济合作论坛”《关于促进中韩绿色经济合作的谅解备忘录》

日期	内容
2009.9	国务院国资委外事局与韩国 SK 集团、中国节能投资公司在京举办“中韩新能源、可再生能源领域的合作研究”
2009.10	在中国上海召开《第 14 届中韩环境协力共同委员会》
2014.12	由韩国驻成都总领事馆和省人民政府共同主办“2014 韩国-四川省能源论坛”

从表三可以看出，两国对可再生能源领域的合作十分重视。大型合作次数也明显比化石能源与核电合作多，并且政府与国家领导人予以新能源以高度重视，这也与全世界谋求可持续化发展的趋势相一致。除此之外，两国严重依赖化石能源的能源消费结构和迫在眉睫的环境问题都注定两国在未来几十年内应竭力发展可再生能源，并加强双方合作。

韩国按照《第一个能源基本计划》战略，集中精力开发太阳能、风力、氢气燃料电池等三大技术，力求在新能源的开发上走上世界前列的道路。中国在《新能源产业振兴计划》中明确表明，利用太阳能、风能、核能等三大方面的新能源是其核心内容。两国对应每个可再生能源入手，可以充分发挥两国互补性优势，来最大化两国能源发展效益。

1. 太阳能

韩国的硅原料制造技术已经达到国际水平，而中国对太阳光发电设备需要的多晶硅原材料供应率十分低，2007 年才达到 10%。中国生产多晶硅的企业本身不多，且大部分的企业技术标准达不到要求，而且实际能源的效能低，韩国在这方面则是有较高水平的技术，可以与外界加强合作，发挥技术的优势。中国国内供需不均衡情况下，应与国际水平较高的韩国合作，一起研究太阳光发电设备的核心材料，多晶硅原材料的商业性生产，可以说是两国的共同需求。

2. 生物能燃料

在生物能燃料方面，韩国一直推动着生物质柴油的普及，所以在种植油菜的土地评估技术较好，但该产业实现的难度较大，所以不确定性和经济性限制了它的发展。相反在中国，为了更快的开发生物质燃料，则大规模的在荒地栽培高粱等非谷物，但由于缺乏对土地评估的科学性和计划性，使得生产能力的评估不准确。相对于两国的这种情况来讲，两国大可以对非谷物生物燃料原料作物的栽培技术进行广泛交流和信息交换，互相通过对非谷物的栽培事业进行良好合作，为两国的生物燃料夯实基础。

3. 潮力

利用潮力的新可再生能源分为利用退潮和涨潮的潮差的潮力发电和直接利用潮流的潮流发

电两种。韩国以京畿湾为中心西海岸中部海域潮差很大且海湾发达的天然潮力能源是资源宝库盛传已久。韩国通过生产清洁能源开发国家蕴藏资源而且通过开发替代能源以减少二氧化碳的排放，正在建设世界最大的 254MW 潮力发电站。中国从 2012 年开始加大对潮汐发电，政府已立项 2.8 亿多元支持海洋能海上试验场建设。中国目前的试验场多是 200-400 kW 的规模，远远小于韩国的规模。中国政府十分重视潮汐发电的情况下，两国之间在海洋能源的共同开发等合作上展望比较大。

4. 风力

中国的风力发电容量由 2004 年全世界中的第 10 位上升到 2006 年第 6 位，于 2007 年在德国、美国、西班牙等之后位于第 5 位，再于 2013 年赶超欧美国家后成为世界首位。[36]这一过程显出中国的风力资源十分丰富。中国虽然能够制造风力发电设备产品的变速箱、回转翼等一些简单配件，但对于核心的发电机、减速机、轴承以及电气控制装置不能独自进行开发生产。发电塔中的风力发电机寿命一般为 20 年，但由于长期处于荒无人烟的恶劣环境中，所以必须经得住高温和寒冷的耐久性。而在制造坯料的技术方面，韩国要领先于中国大概三年以上，所以在坯料方面和韩国合作，可以成为中韩两国风力合作的突破口。2013 年中国风电新增装机容量占世界新增容量的 45%，累计装机容量占世界累计装机容量的 28%，均居世界第一。[37]中国这一个庞大的市场是韩国风力产业是绝对不可忽视的机会，韩国应积极利用现在韩国所拥有的技术优势，在合作中共赢与共同发展。

第三节 政策建议

中韩两国自 1992 年建交以来，一直致力于发展两国能源的合作，两国在这 23 年的合作里也取得了较大的进步，小到公司之间的交流大会，大到价值上千亿的项目合作与国家领导人之间的交流，无不推动着两国的能源的发展。然而为了推动进一步的合作，使得两国间的合作更加稳定与长期，中韩两国需要做出以下努力，为中韩两国新能源领域的合作扫清障碍。

（1）克服历史现实障碍，推动合作发展

韩国和中国隔海相望，拥有共同的儒家文化圈，但由于历史政治原因，使两国关系产生隔阂。

[36] 全球风力发电行业发展概况及趋势分析. *中国产业信息*. 2014-05-19. 取自 http://www.chyxx.com/industry/201405/245400.html

[37] 2014 年中国风电场建设规模质量齐升. 中国行业研究网. 2014-06-09. 取自 http://www.chinairn.com/news/20140609/172137284.shtml

一方面，包括中韩在内的东北亚地区传统的历史遗留问题和现实的地缘政治障碍，导致两国有效合作的相互信任和认同基础欠缺。[38]东北亚地区是大国力量交汇、冲突之地，地缘关系复杂，朝鲜半岛对峙局势严峻；从中韩两国遗留的历史争议问题，到冷战时期两大阵营间的敌对关系，再到当今双方关于朝鲜半岛问题的政策差异，以及相关领海划界、岛礁归属方面的分歧，这些都无疑造就了双方相当程度的战略疑虑与隔阂，而两国沟通与互信的欠缺，也必然阻碍着双方深层次的交往合作，成熟、有效的区域能源合作机制难以构建起来。所以双方如果进行能源合作，首先要尽量克服历史现实障碍，在平等互利的基础上树立共赢观念，为两国的经济发展做出长足的贡献。

（2）建立两国能源合作机制，促进合作交流

中韩自建交以来就出现了许多在能源方面上的合作机制，比如中韩可再生能源论坛就是两国新再生能源合作中的一个重要表现，该论坛为中韩两国在新可再生能源上的互相学习，共同发展提供了一个有效的平台，并且也促进了中韩两国在新能源领域上的了解与合作。所以对于两国的能源合作，政府有必要建立更多的合作机制，通过举办峰会、论坛等形式，介绍中韩两国有关能源最新的发展政策、管理经验和当前的瓶颈、交流能源利用的先进实用技术、以探讨中韩能源科学技术的合作模式和未来新能源和可再生能源的发展方向。这样合作机制的开展将有利于中韩两国能源领域的交流与研讨，互相学习各自的先进经验，使两国的合作朝着更加务实且高水平的方向发展，实现优势互补，资源共享。

（3）营造有利环境，促进企业合作

对两国能源合作来说，政府在其中仅仅是宏观引导的作用，真正发挥实际效用的应该是两国企业，他们的积极参与与合作将会直接影响到中韩两国能源领域的发展，所以加强两国能源企业的合作，是中韩能源合作的最好表现。

中韩两国应该清除两国能源产品的贸易壁垒，降低关税，通过政策上的优惠，来营造中韩新能源合作的良好环境，为两国能源产品进入对方市场开通绿色通道，让中韩新能源的合作门槛降低。

两国企业间的合作来自法律与制度上的障碍最大。这其中，能源市场技术标准制度的不匹配是导致市场差异过大的原因。新能源市场如今正处于各国起步阶段，对于市场标准和规则的制定各国都有各自的准备。如果中韩两国能在这个阶段共同制定市场技术标准，对两国的科研技术进行统一化，在新能源市场的配件工业化体系走共同的工业流程，联合起来一起促进两国新能源市

[38] 李红起. (2012). *能源安全视角下中韩新能源合作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大学. p12

场的开发、发展、合作，将会拥有比一个国家更广阔的市场。因为两国在新能源领域的技术在亚洲里面都是出于中上等的地位，所以这些统一规范，不仅仅可以更加方便两国在新能源领域进行交流合作，减少技术交流的难度，为合作提供便利的条件，使合作关系更加紧密，还可以利用两国技术的领先优势，影响整个东北亚以致亚洲的规则制定，使两国新能源优势迅速拉大。

（4）加强能源购置合作，缓解双方趋同性竞争

中韩两国在能源消费结构和海外能源供应上存在着相当的趋同性，形成在国际能源市场上较大的同构竞争。在能源消费结构上，石油、煤炭和天然气均是两国主要的能源消费品种，两国不仅面临同样的油气短缺问题，而且在海外原油和天然气的进口来源上也存在相当大的重叠性。不仅中东海湾地区是两国原油进口最集中来源地，就以液化天然气进口来源而论，也呈现相当的重合度。[39]2011 年，澳大利亚、印度尼西亚、卡塔尔和马来西亚构成中国液化天然气进口来源的 29%、19%、18%和 13%；同年韩国液化天然气进口则主要来源于卡塔尔（22%）、印度尼西亚（21%）、马来西亚（11%）和阿曼（10%）。[40]所以，在能源购置方面，中韩两国可以形成抱团合作，用两国一起购买的方式以更低的价格一起购入，因为两国的需求量在世界能源的需求总量上还是占有相当比重的，所以中韩两国的能源购置可以在各个能源领域里展开大范围的合作。

此外，两国不仅在能源购置的问题上存在趋同性，在国际能源项目竞标中也有很多的相同项目，而对于竞标项目的相同则就意味着利益的冲突。所以，针对项目竞争的方面，中韩双方应该本着平等互利、合作共赢的原则，从维护两国社会经济的可持续发展和全球能源安全的大局出发，制定一系列有利于中韩双方利益的协定，具体到每一个措施的实行，使中韩两国战略合作伙伴的关系更加牢固，使两国在全方位、多层次、宽领域的形式上开展合作，开拓更广阔的能源合作前景。

第五章 总结

中韩两国作为世界第一和第九能源消费大国，面对日益严峻的能源安全形势和气候问题，加强两国的能源合作是两国为实现可持续发展的必然选择。近年来，在政府和企业的大力推动下，中韩能源合作虽然取得了长足的发展，但是两国之间还仍有很大的合作空间，并且两国在一些合作的机制上还存在着不少的问题。本文通过介绍中韩两国能源的发展政策、形势，分析中韩两国能源产业的发展现状、存在的问题，并梳理两国的能源合作历史得出以下结论：

（1）中韩能源合作的实现是可能的也是可行的。中韩两国得天独厚的地理位置为两国实现能

[39] 李红起. (2012). *能源安全视角下中韩新能源合作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大学. p12

[40] International Gas Unions (IGU). (2013). World LNG Report. *FGE Gas Advisory.*

源合作提供了区位优势；资金技术上的互补性可以使两国相互借鉴、取长补短；政策的相似性为两国能源产品进入对方市场扫除了一些政策上的障碍；两国能源合作的成功范例为两国更大范围的能源合作树立了榜样。

（2）中韩两国能源合作是必要的。两国面临许多类似的问题，合作不仅能够带来能源安全的改善，还能够带来巨大的经济效应。两国有互补的能源需求，合作既可以增强技术的交流，又能够促进经济的发展。

（3）新能源是未来能源发展的大趋势。因为新能源具有清洁性，对于国家环境压力小，发展清洁能源有利于保护生态环境。中韩两国的可再生能源技术相对于先进国家处于较落后的地步，双方的可再生能源技术与市场有极大的互补性。它的开发和利用可以降低中韩对传统能源的依赖，优化能源结构，改善环境从而几大提高国家能源安全的系数。

因此，面对世界能源发展的新形势，中韩两国应该抓住机遇努力实现中韩能源合作，这样不但可以取长补短、实现互惠共赢，还可以壮大中韩两国的能源产业力量，提高两国能源产品的国际竞争力，为占领未来国际能源市场提供有力保障。

参考文献

【韩文文献】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한 • 미 • 일 제조업! 에너지 생존게임에서 승자는?. *Trade Brief*. No.52.

2. 정지우 기자. 60 일도 못 버티는 정부의 석유비축량. *파이낸셜뉴스*. 2015-04-25. http://www.fnnews.com/news/201503221620434578

3. <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연합뉴스*. 2015-04-2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227000200044&input=1363m

4. 전경련.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산정해야. *연합뉴스*. 2015-0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049300003.HTML?input=1179m

5. 박민철 기자. 한국 "올 비축유 75% 상반기 구매". *문화일보*. 2015-02-2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2601070403020001

6. 송양환기자. '위험천만' 국내 LNG 기지들‥안전관리 허술. *MBCNEWS*. 2012-10-11.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56793_13022.html

7. 이정훈 기자, 송찬영 기자. '의지있나' 에너지 신산업 주춤…' 철학있나' 환경은 팔짱. *에너지 경제*. 2015-02-2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3984

8. 정양호. 경제' 묘수' 될에너지신사업. *성울경제 오피니언*. 2015.05-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5/e2015051920310948120.htm

【中文文献】

1. 倪建民, 郭云涛. (2009). *能源安全=Energy security*. 杭州：浙江出版社.

2. 何清, 明茜. (2008 年 05 月 30 日). 李明博访华翻开新一页 中韩能源合作升级. *21 世纪经济报道*, 第 018 版.

3. 冉永平. (2015 年 01 月 29 日). 中国石油对外依存度近 60% 全年净进口约 3.08 亿吨. *人民日报*, 第 02 版.

4. 王淼. (2006 年 08 月 18 日). 中韩有必要加强能源合作. *中国改革报*, 第 006 版.

5. 文婧, 谢婧怡. (2009 年 06 月 17 日). 韩国能源界向中国绿色产业伸出橄榄枝. *经济参考报*, 第 013 版.

6. 张佩颖. (2005 年 01 月 27 日). 中韩联手共谋能源大计. *中国企业报*, 第 012 版.

7. 国务院发展研究中心对外经济研究部"中日韩产业合作研究"课题组. (2012). 中日韩 8.能源资源合作前景和模式分析. *《发展研究》, 2012 年第 3 期*, 4-8.

9. 景跃军, 陈英姿. (2008). 中韩两国污染产业对环境影响的比较研究.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 48 卷第 1 期,* 153-158.

10. 卢岩, 王蕴. (2005). 东北亚能源合作及韩国在其中的作用. *亚太经济, 2005 年第 3 期,* 59-62.

11. 李平. (2014). 中韩携手展开能源合作. *能源研究与利用, 2014 年第 5 期,* 6-7.

12. 马鹏, 李渝萍. (2012). 中韩两国清洁能源产业化模式比较及其启示. *南昌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 43 卷第 3 期,* 108-114.

13. 门洪华, 刘笑阳. (2013).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 53 卷第 6 期,* 62-74.

14. 王敏, 徐晋涛, 黄卓. (2014). 能源体制改革: 有效的市场,有为的政府. *《国际经济评论》, 2014 年第 4 期,*

15. 余建华. (2014). 韩国能源安全战略与中韩能源合作探析. *《国际关系研究》, 2014 年第 2 期,* 50-63.

16. 张建全. (2009). 浅析中韩经贸合作的有利因素. *企业家天地, 下旬刊,* 21-22.

17. 国务院办公厅. (2013). 《能源发展‘十二五’规划》. *国家能源局网站.* 2013-01-01, 取自 http://www.nea.gov.cn/2013-01/28/c_132132808.htm

18. 葛楠, 李名迟. (2013). 中石化与韩国 SK 公司合资经营武汉乙烯项目. *经济参考报.* 2013-07-01. 取自 http://jjckb.xinhuanet.com/2013-07/01/content_453071.htm

19. 国务院办公厅. (2013). 《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 年）》. *中国政府门户网站.* 2014-11-19, 取自 http://www.gov.cn/xinwen/2014-11/19/content_2780748.htm

20. 肖蔷. (2013). 潮汐能发电何去何从. *能源网.* 2013-04-02. 取自 http://www.cnenergy.org/yw/201304/t20130402_186513.html

21. 徐沛宇.(2014). 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 *新浪财经.* 2014-12-15.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22. 俞菲. (2014). 2015 年起我国每年核电投资金额将达 600 亿元. *前瞻网.* 2014-11-18. 取自 http://www.qianzhan.com/qzdata/detail/149/141118-38ac13cb.html

23. 赵静.(2015). 能源改革等待细则 改革之纲在“气”上. *新浪财经网.* 2015-05-19.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50519/035822210541.shtml

24. 2014 年我国天然气利用行业概况及现状分析. *中国报告大厅.* 取自 http://www.chinabgao.com/k/tianranqi/12475.html

25. 2014 年中国风电场建设规模质量齐升. *中国行业研究网.* 2014-06-09. 取自 http://www.chi

nairn.com/news/20140609/172137284.shtml

26. 关于开展私人购买新能源汽车补贴试点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10-05-31. 取自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005/t20100531_320528.html

27. 韩国政府称未来将建造更多核电站. *网易探索.* 2011-12-27. 取自 http://discovery.163.com/11/1227/08/7M94LLUP000125LI.html

28. 哈纳斯集团与韩国 SK 集团在银川签署全面合作协议. *光明网.* 2014-08-07. 取自 http://difang.gmw.cn/nx/2014-08/07/content_12410407.htm

29. 煤炭改革政策牵头 粗放发展将成历史. *中国煤电网.* 2015-03-30. 取自 http://www.meidianwang.com/MD_HotNews/HotNewsDetail/1351.html

30. 将中韩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 *新浪新闻中心.* 2008-05-28. 取自 http://news.sina.com.cn/o/2008-05-28/070613935890s.shtml

31. 全球风力发电行业发展概况及趋势分析. *中国产业信息.* 2014-05-19. 取自 http://www.chyxx.com/industry/201405/245400.html

32. 十年气荒背后：人们对天然气价格仍存疑惑和不满. *新浪财经.* 2014-12-15, 取自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215/221521081737.shtml

33. 石泽：共建“一带一路”与变化中的能源格局. *中国石油新闻中心.* 2015-01-13. 取自 http://news.cnpc.com.cn/system/2015/01/13/001524631.shtml

34. 我国新能源发展缓慢的障碍分析. *中国行业研究网.* 2009-08-14. 取自 http://www.chinairn.com/doc/70310/452305.html

35. 我国能源消耗已经占到全球能源总量1/5. *中国行业研究网.* 2014-08-25, 取自http://www.chinairn.com/news/20140825/09595766.shtml

36. 央广网财经. (2013). 我国单位GDP能耗达到世界均值2.5倍. *腾讯财经.* 2013-12-01, 取自 http://finance.qq.com/a/20131201/002265.htm

37. 亚洲核电蓬勃发展. *电力国际信息参考.* 2014-12-01. 取自 http://www.china-nea.cn/html/2014-12/31429.html

38. 远超美国 中国成全球新能源最大投资者. *集邦新能源网.* 2015-01-14. 取自 http://www.energytrend.cn/news/20150114-10576.html

39. “一带一路”推动新能源产业发展. *中国国际招标网.* 2015-05-13, 取自 http://www.chinabidding.com/infoDetail/225137645-News.htm

40. 中国成最大可再生能源投资国. *新华网.* 取自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1/16/c_124237893.htm

41. 中国石化与韩国 SK 公司签署武汉乙烯项目合资经营合同. *中国新闻网.* 2013-06-28. 取自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6-28/4981892.shtml

42. 中韩文缘相通心缘相亲经济相融. *新浪新闻中心.* 2013-06-29. 取自 http://news.sina.com.cn/c/2013-06-29/074027529492.shtml

43. 郭植昭. (2009). *中韩能源合作论析.* 硕士学位论文. 湘潭大学.

44. 李红起. (2012). *能源安全视角下中韩新能源合作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大学.

45. 孙远盛. (2010). *中韩油气产业国际合作研究.* 硕士学位论文. 中国海洋大学.

46. 许亮. (2006). *经济全球化背景下的中韩经济政治关系研究.* 硕士学位论文. 青岛大学.

47. 许泰秀. (2010). *韩中两国新可再生能源政策比较与合作展望.* 硕士学位论文. 大连理工大学.

48. 殷慧慧. (2014). *中日韩能源需求与经济增长相关关系比较研究.* 硕士学位论文. 延边大学.

49. 张雪. (2010). *低碳经济下中日韩能源安全问题研究.* 硕士学位论文. 东北财经大学.

50. 张隽. (2011). *韩国在东北亚区域经济合作中的地位和作用.* 硕士学位论文. 吉林大学.

【英文文献】

1. Benjamin K. S., Marilyn A. B. (2010). Competing Dimensions of Energy Secur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Vol. 35* : 77-108.

2. International Gas Unions (IGU). (2013). World LNG Report. *FGE Gas Advisory.*

3.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PCC Fifth Assessment Synthesis Report:* 116-151.

4. Barton, B., Redgwell, C., Ronne, A., & Zillman, D, G. (2004). *Energy Security: Managing Risk in a Dynamic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 IPCC, (2015).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B: Regional Aspects.*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BP, (2015). *Annual Report and Form 20-F 2014.* Bp. Retrieved May 3, 2015, from bp.com/annualreport

7. BP. (2015). *Energy Outlook 2035.* Bp. Retrieved May 2, 2015, from bp.com/energyoutloo

8. BP. (2015). *Sustainability Report 2014.* Bp. Retrieved May 2, 2015, from bp.com/sust

ainability

9. G. J. Olivier (PBL)., Greet Janssens-Maenhout (IES-JRC), Marilena Muntean (IES-JRC), Jeroen A.H.W. Peters (PBL). (2013).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3 REPORT.*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pbl.nl/en/publications/trends-in-global-co2-emissions-2013-report

10. IEA. (2012). *Renewable energy*.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iea.org/aboutus/faqs/renewableenergy/

11. IEA, (2014). *ENERGY SUPPLY SECURITY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trieved May 3, 2015, from http://www.iea.org/search/?q=ENERGY%20SUPPLY%20SECURITY%202014#gsc.tab=0&gsc.q=ENERGY%20SUPPLY%20SECURITY%202014&gsc.page=1

12. IEA, (2014).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Retrieved May 1, 2015, from, http://www.eia.gov/

13. Yergin, D. (2006).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Retrieved May 2, 2015,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06-03-01/ensuring-energy-security

역사 속에서 찾은 제주도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
–한민족에 내재된 바다 지향성을 중심으로–

김은미, 대림검
남경대학교

1. 서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북쪽으로는 내륙아시아와 접하고 있어, 고대부터 근세까지 많은 왕조들이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조선 시대부터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상 활동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근 · 현대까지 이어졌는데, 해상 활동에 관한 국가의 관심 및 중요성이 거의 희미해지게 되었다.[1] 물론 해금 정책 등 국가의 해양 통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바다를 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 바다는 무시할 수 없는 생활환경 중 하나였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은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생활 수단이자 동시에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2] 특히 제주의 경우, 명실상부한 섬으로써 농경에만 기대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고, 반드시 주변의 바다를 잘 활용해야만 생활을 영유할 수 있었다. 즉, 제주 사람들은 바다와 그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척해나가는 '바다 지향성'[3]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바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자 무기였다.

본고에서는 '제주' 라는 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환경을 토대로, 각 시기별 제주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 지향성'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도서(島嶼) 지역으로써 제주 사람들이 바다와 직 · 간접적으로 연

1) 六反田豊, 「朝鮮前近代史研究と"海"――韓國學界の動向と「海洋史」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51号, 2013, 63쪽.
2) 홍석준, 「동아시아의 해양 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徐興慶· 陳明姿編, 『東亞文化交流: 空間·疆界·遷移』, 華東師范大學出版社, 2012, 82-83쪽.
3) '바다 지향성'이란 바다를 생활의 일부분으로써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칭한다.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조규익·최영호 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56-57쪽.

관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적인 주체로써의 탐라국(耽羅國)이 1105년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한 이후, 국가적 면모로써와 지역적 면모로써의 바다 이용이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고려시기 제주와 중국의 해상 교역 및 표류민 교류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표류 활동이 문헌상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 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 이 각 시기별 어떤 면모를 띠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해상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바다 지향성' 이 결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음도 밝히고자 한다.

2. 고려 시기 해상 활동 및 제주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

제주도는 고려 태조 21년(938)에 탐라국(耽羅國)의 태자가 입조하면서 고려의 속국이 되었고, 숙종 10년(1105)에 탐라군(耽羅郡)으로 이름을 고치며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 고려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당시 고려는 성종 원년(982)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교빙하는 사신에게 무역을 겸행하게 하고, 기타 사무역과 밀무역을 금지한 상태였다.[4] 제주가 고려에 편입되면서, 제주의 바다 역시 고려의 해상 관할 범위가 되어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생장하고 있으나, 토지에서는 먹을 것이 나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5]라는 최승로의 말처럼, 제주 역시 섬이었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다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제주도는 비록 국가의 해상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만, 생활을 위해 여전히 바다를 필요로 하는, 바다 지향성이 내재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제주의 경우, 육지에서는 나지만 섬에서는 잘 나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곡류와 소금 등의 물품이 많이 부족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해남이나 진도 등 육지나 육지와 가까운 도서와 교류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연안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6] 예로 예종 8년(1113)에 "진도현(珍島縣) 백성 한백(漢白) 등 여덟 명이 장사하러 탁라도(乇羅島)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송(宋) 명주(明州)에 표착했는데, 송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비단 20필과 쌀 2석을 주어 돌려보냈다."[7]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연안 무역 시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중국까지 표류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이나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안 교역 시 표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도서 지역의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교역을 지속했다는 사실 또한 어

4) 『고려사』 권93, 「열전」 6, 최승로, 목판본(규장각소장본) 제 55책, 14쪽 a면.
5) 『고려사』 권93, 「열전」 6, 최승로, 목판본(규장각소장본) 제 55책, 16쪽 a면.
6)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131-132쪽.
7) 『고려사』 권13, 예종 8년 6월, 목판본(규장각소장본) 제 8책, 26쪽 a면.

렴풋이 알 수 있다. 명주에 표착한 진도현 백성들은 구휼을 받은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명주는 영파(寧波)의 송대 지명으로, 고려의 사행선과 민간무역선이 송나라로 입항할 때 이용하던 항구도시이다. 물론, 천주(泉州)나 복주(福州)로 입항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과거 '해상 실크로드' 를 이뤘던 노선들 중 명주에서 동쪽으로 일본, 조선[고려] 등으로 가는 노선을 '명주동양도(明州東洋道)' 라고 명명할 정도로, 당시 명주항은 송과 고려의 교역 시 가장 핵심적인 항구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8] 이는 고려에서 표류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명주에 표착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송 원풍(元豊) 2년(1079) 송에 표류한 탐라인 최거(崔擧) 일행은 배를 잃어 천주 지역에 표착했다가, 후에 스스로 명주 지역으로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했다. 이에 명주 지주(知州)였던 증공(曾鞏)은 매일 식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5일에 한 번씩 별도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는 "남쪽의 오랑캐(蛮夷)가 사고를 만나 표류하며 먼데서 향토(鄉土)를 찾지 못해 스스로 중국에 부탁하니, 중국은 예의로써 후하게 무존(撫存)함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매일 식량을 제공하고, 며칠에 한 번씩 별도로 술과 음식을 제공"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9] 이를 통해 송이 고려의 표류민들을 대체로 적극적으로 구호 · 구휼하고, 무사히 송환할 때까지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명주의 이러한 구호 활동과 항구로써 가지는 지위는 고려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남송(南宋) 시기(1127-1279)가 되면, 명주를 통해 교류하는 무역선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는 명주가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고려로 가는 데도 가장 편한 노선이었기 때문이다.[10] 게다가 명주는 일본으로 가기에도 편한 노선을 제공하였는데, 명주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송상들은 한라산을 지표삼아 제주 바다를 거쳐 동진하였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상들이 '명주동양도' 을 따라 일본으로 갈 때 꼭 필요한 중요한 표지 역할을 했고, 기상 조건의 악화로 항해가 어려워 졌을 때, 송상이나 일본무역선들이 머물던 피난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제주에 머물게 된 송상들은 제주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채웠을 것이고, 제주 사람들 역시 이런 식으로 제주에 정박한 타국 상인들과 교류하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다.[11] 물론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후 몽골초원에서 흥기한 몽골이 중원을 점령하고 중국을 통일하면서, 제주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쿠빌라이는 고려와의 화친 이후, 일본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탐라를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로써" 주목하였고, 톡토르(脫脫兒) 등을 파견하여 탐라 등지의 도로를 살피게 하였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원은 제주에 목장을 설치, 말과 소 등을 보내 제주

8) 송상(宋商)들이 고려와 교역을 할 때 대체적으로 명주를 통해 이뤄졌고, 고려와 원이 교역을 할 때도 대체적으로 경원(慶元, 원 시기 명주의 명칭)을 통해 이뤄졌다. 이강한, 「13세기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도서문화』 제 36집, 2010.12, 39쪽.

9) 曾鞏, 『元豐類稿』 卷三十二, "存恤外國人請著爲令不曾上", 『四部备要』 集部 第75册, 中华书局校刊本, 1936, 239-240쪽.

10) 이진한, 『고려시대의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53-54쪽.

11) 이진한, 위 책, 47-49쪽.

12) 『元史』 卷208, 「列傳」 95, 外夷一·耽羅, 中華書局點校本, 4624쪽.

의 목장에서 기르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제주는 약 100년 동안 원에 지속적으로 군마와 모피, 소고기 등을 진공하였다.[13] 이 과정에서 원과 제주는 지속적인 해상 교류를 하고, 기상 조건이나 항해술 등의 원인으로 표류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그와 관련된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다의 중요성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들의 바다 지향성 또한 계속해서 내제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말기, 왜구(倭寇)의 침략이 빈번해지면서 고려 정부는 일본과 가까운 바다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또, 원명 교체기 염전 중개로 장강 유역에서 새롭게 성장한 군웅(軍雄) 장사성(張士誠), 방국진(方國珍) 등이 바닷길을 이용하여 사람을 보내 특산물과 진귀한 보물 등을 바치며, 고려와 호의를 맺고 무역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후 명이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14]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고려의 해상 무역 통제 및 억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제주의 해상 교역 및 활동 또한 이전보다 더 큰 통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도서라는 제주의 특성 상 바다를 중시하는 바다 지향성을 결코 버릴 수 없었고, 국가의 통제 아래서도 바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부단히 지속되었다. 따라서 고려 말기부터 제주는 국가와 지역적 측면에서의 바다가 공존하는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3. 조선 전기 제주와 중국 표류민의 교류

조선 초기, 조선 왕조는 고려 시기의 바다 지향성을 계승했다. 그러나 잦은 해구의 출현과 약탈로 바다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조선 태조 시기 거주민들이 사익으로 바다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였고,[15] 해금정책 또한 나날이 엄중해졌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이는 곧 생존의 길이 끊겼음을 뜻했고, 살기 위해 자신들이 태어난 터전을 떠나는 제주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 예로 조선 성종 8년(1477), 천여 명의 제주 사람이 스스로를 “두독야지(豆禿也只)”라 자처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연안에 정박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잡혔는데, 제주도로 송환되어 형벌을 받았다.[16] 이와 같은 사례들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금정책이 제주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를 떠나는 과정에서, 풍랑 등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표류를 하기도 했는데, 문헌을 통해 당시 제주 사람들의 표류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인의 표류가 계속

13) 배숙희, 「元나라의 탐라(耽羅) 통치와 이주(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 연구』 제 76집, 2012.02, 110쪽.
14) 이진한, 『고려시대의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80-81쪽.
15)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28일 (을사).
16) 『성종실록』 권86, 8년 11월 21일 (갑신).

되면서, 표류 과정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항해 시 만날 표류를 대비하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학자 어숙권(魚叔權)은 그의 저작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영파부(寧波府)에 표류한 제주 사람 김만현(金萬賢)이 한 말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말하길, "두서너 말의 쌀이 있고, 많은 옹기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태풍을 만나 수일이 걸리지 않아 영파부(寧波府)에 닿았으니, 어찌 환난(患難)이 있으리오?"[17]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 사람들은 이미 표류 시 얼마만큼의 식량과 물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지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연히 중국으로 표류된 제주 사람들은 당시 중국의 표류민 송환 제도에 따라 구휼, 송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은 중국의 표류민 정책이 상당히 후함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의로' 중국에 표류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명나라 사람 왕재진(王在晉)이 편찬한 『해방찬요(海防纂要)』에 조선에서 온 표류민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명 만력(萬曆) 39년(1611) 조선에서 온 일행 7명이 절강(浙江) 태주(台州) 해문현(海門縣)에 표착했는데, 그 중 5명이 남자였고, 2명이 여자였다. 남자는 모두 이(李) 씨였고, "부녀는 계(計) 씨" 였는데, "전라도 남원부(南原府)의 제주 강진현(康津縣) 사람" 이었다. 8월 25일 "남자와 부녀는 동쪽의 해안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 배를 정박하고 닻을 내렸다." 28일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는데, "배 안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 바닷물을 식수로 마시며" 명을 이어가다, 9월 21일에 해문현에서 구조되었다. 관아에서 항주에 사는 조선인 이대정(李大挺)을 통역으로 데리고 와, 제주 사람들의 단어와 차림새 등을 기록하고, 의복과 식량을 제공했다. 심문이 끝난 후, "신속히 본국(本國)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락하니, 본적(本籍)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전해라."[18]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남자와 부녀자' 가 함께 생업에 뛰어들 정도로 해상 생산 활동이 제주 사람들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출항이 표류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이들은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명을 이어 나갔는데, 이는 제주 사람들이 표류의 위험성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바다에 나갔음을 알려 준다. 즉, 제주 사람들은 바다의 위험성을 알고, 이에 맞서 생존해 나갔는데, 이는 그들 안에 내재된 바다 지향성이 가져온 수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출항을 한 제주 사람들 중에는 남성 거주민이 훨씬 많았다. 명 홍치(弘治) 연간(1488-1505), 조선인 최부(崔溥)는 제주에서 출발하여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강남 지역에 표착하게 되는데, 그 때 제주 사람 35명이 함께 동행하였다. 그 중 손효지(孫孝枝)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주 사람들의 출항과 표류 상황에 대해 "우리 제주는 멀리 큰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수로가 900여 리이다. 다른 바다와 비교하면 파도가 매우 험악하여 공선(貢船)과 상선의 왕래가 끊이지 않지만 표류하여 침몰하는 것이 열 중 대여섯이어서, 제주 사람들은 먼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죽는다. 그러므로 제주에 남자의 무덤은 아주 적고, 민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세 배나 많다."[19]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풍

17) 魚叔權, 『稗官雜記』 二, 조선고서간행회 편찬, 『大東野乘 一』, 1909, 439쪽.
18) 王在晉, 『海防纂要』 卷十, "朝鮮漁人", 『四庫禁毁書叢刊』 史部第一七冊, 北京出版社, 1997, 647쪽.
19) 崔溥著, 葛振家點注, 『漂海錄: 中國行記』,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50쪽.

랑을 만나 표류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죽는 것은 하루살이의 목숨과 같아서, 비록 평상시에 살아 있지만 어떻게 자신들의 방 안에서 죽겠다는 마음을 갖겠나.”[20]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 속, 생사의 관념은 이미 바다와 융합되어, 생명이 바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이 사료가 보여준다.

제주도에 표착한 중국 표류민의 경우, 조선 왕조는 인도주의에 따라 중국 표류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송환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명나라 시기, 조선 왕조는 사대(事大)의 도리로써 명나라의 표류민들을 송환하였다. 명종 9년(1554)에 중국 표류민의 송환에 대해 “다만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명 왕조에 주를 올려, 사대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21]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중국 표류민 송환 원칙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멀리서 온 중국 표류민을 대할 때, 제주는 그들을 구조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려 하였다. 명종 즉위년(1545) 제주로 표류한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들 중 “역청(瀝青) 만드는 법을 아는 자”와 “총통(銃筒) 만드는 법을 아는 자”가 있어, 만드는 법을 전습(傳習) 받았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전습을 위해 세 번에 걸쳐 중국인들을 송환하였는데, 당연히 기술을 보유한 자들이 가장 늦게 중국으로 송환되었다.[22] 이를 통해, 제주는 당시 타지에서 온 중국 표류민을 인도주의로써 송환했고, 만약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중국 표류민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명 영락제(永樂帝)가 북쪽으로 천도한 이후, 만주(滿洲)와 화북(華北) 지역의 육로 사용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었다. 이에 명은 조선과 교역할 시, 해로의 사용을 줄이고 육로를 통한 교역을 늘려나갔다. 조선 역시 육로의 사용이 해로보다 안전하다고 여겼기에, 교역 시 바다를 이용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조정의 바다를 향한 관심 또한 줄어들었다.[23] 이 외에, 당시 명에서도 강력한 해금 정책을 사용했기에, 바다를 통해 교역하기가 어려워졌고, 활발하게 이용되던 조선의 바다 또한 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강력한 해금 정책은 종래에 암암리에 이뤄지던 밀무역이 더욱 더 성행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무역 활동은 ‘법을 어기고서라도 바다를 넘겠다.’는 민중의 마음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표류와 관련된 사건이 모르는 새 엄청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표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바다를 이용하여 생존하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즉,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 안에 국가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의 바다 인식이 서로 뒤섞여 이중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 崔溥著, 葛振家點注, 위 책.
21) 『명종실록』 권17, 9년 7월 18일 (병진).
22) 『명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3일 (임술).
23) 김보한, 「전근대 ‘환한국해’ 권역에서 한반도 중심의 해상 네트워크」, 『한일관계사연구』 제 45집, 2013.8, 62쪽.

4. 조선 후기 제주와 중국의 표류민 교류

명 · 청 교체기 이후, 청나라는 명나라의 해금정책을 계속 이어받아 실시하였다. 조선 또한 본국 사람의 출항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조선 경내에 들어온 중국 선박에게 사행(使行)을 보내 엄격한 해금 정책을 표명하는 등의 조선 전기부터 계속되어 온 엄중한 해상 정책을 실시하였다.[24] 게다가 조선 조정은 도서에 봉쇄정책(封鎖政策)을 사용했는데,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표박(流離漂泊)하며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니, 세 읍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었다. 비국(備局)이 도민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25]라며, 제주 사람들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표류민의 왕래는 해상을 통한 양 국가의 유일한 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청나라는 조선의 표류민을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한다"[26]라는 생각으로 구휼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대만 학자 유서풍(劉序楓)은 36종의 당안(檔案) 사료 중 청나라의 해난(海難) 사료에서 조선과 관련된 사료 472건을 추려냈는데,[27] 당시 표류와 관련된 사건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건 중, 제주 표류민에 관련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흥미롭게도 이 많은 사료 중에 제주에서 온 표류민과 관련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만 봐서는 중국으로 표류한 제주 표류민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이나 『탐라계록(耽羅啓錄)』 및 각종 제주 표류민의 표해록[28] 등을 보면, 당시 제주 표류민은 여전히 많았다. 그렇다면 이는 어찌된 일일까?

철종 8년(1857), 제주의 표류민 김성진(金聲振) 등이 무역을 위해 출항하였다 돌아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들은 소주부(蘇州府)의 구조 후 탐문을 받을 때, "제주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의 사람이라고 사칭(詐稱)하는 관례를 따라, 조선국 전라도 해남현 사람이라고 대답했다."[29]고 한다. 즉, 중국으로 표류된 제주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의 표류민, 특히 제주 본토 사람들이 표류해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제주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사칭' 하는 방식[30]을 썼기 때문에 문헌상에서 제주 표류민과

24) 『숙종실록』 권55, 40년 7월 16일 (을묘).
25) 『인조실록』 권21, 7년 8월 13일 (을축).
26) 청 건륭(乾隆) 2년(1737), 청나라는 밖에서 온 표류민의 구조방법에 대한 관례를 정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관례는 "이후로 풍랑으로 인해 표류해 온 사람들과 선박이 있으면, 독무(督撫)가 유사(有司)를 데리고 가, 특별히 마음에 두어 구휼 하고, 국가의 공금(公金)을 사용하여 의복과 식량을 내리며, 선박을 수리해주고 화물을 조사하고 돌려주며, 본국으로 돌려보내어, 이런 행동을 통해 짐이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한다는 뜻을 내비추거라. 이후 이 범례를 따라 처리하라."라는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清實錄·高宗實錄』(一)卷五二, 中華書局影印本, 1985, 889쪽을 참조.
27) 劉序楓,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涉外篇)』,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04, 序, 9쪽.
28) 비교적 유명한 제주 표류민의 표해록으로는 문순득(文淳得)의 『漂海始末』와 이방익(李邦翼)의 『漂海歌』 등이 있다.
29) 『耽羅啓錄』, 鹹豊八年, 四月初七日條, 『각사등록 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6, 100쪽.
30) 제주 표류민의 사칭 문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松原孝俊, 「朝鮮における伝說生成メカニズムについ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17세기부터 해금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 또한 더욱 비참해졌다. 이를 생각한다면, 제주 사람들이 표류를 이용해 외지로 나가고 싶어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표류는 악몽과도 같은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국으로 표류한다면 구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표류민 송환 과정 중에 자신의 실제 신분을 밝힌다면, 본적지인 제주도로 송환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 이는 곧 자멸의 길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사람들은 자신의 본적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 사칭하였고, 사칭의 이유는 곧 표류의 배후에 숨겨져 있던 제주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조선 후기 제주 사람들은 표류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사료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제주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얻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표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외 세계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게 되었다. 척박한 국내의 생존 여건 역시 제주 사람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고의로 표류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로 제주 사람인 고한록(高漢祿)은 청 조정에서 이국의 표류민들에게 하사한 의복과 은량(銀兩) 등을 획득한 후에 4번이나 중국에 고의로 표류했는데,[31] 이러한 사례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고의로 표류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즉, 제주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표류'라는 바다 지향성을 부득이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적극적으로 쟁취함으로써 생존의 활로를 모색했던 것이다. 엄중한 해금 정책과 바다를 경시하는 풍토 속에서, 제주 사람들이 선택한 바다 지향성은 '고의적 표류'라는 또 다른 면모를 띠게 되었고, 실제로 이는 비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이 지역적 바다 지향성을 압제하는 것은 당시 제주가 외지에서 온 중국 표류민들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17세기 말, 조선 왕조는 조선에 표착된 중국 표류민들을 "배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순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 돌려보내고, 배가 손상되었을 경우 관인(官人)을 파견하여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관외의 사람이라면 봉황성(鳳凰城)으로 교부(交付)하고, 관내의 사람이라면 북경(北京)으로 압송(押送)하여 예부에 보고하게 하였다."[32]라는 방식을 따라 돌려보냈다. 또 19세기가 되면, "이국인(異國人)이 표착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뱃길이나 육로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송환 방식을 아뢰어 돌려보낸다. …… 표류인이 만약 경기(京畿)를 통과하여 갈 경우에는, 홍제원에 들어온 뒤에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다시 사정을 사문(査問)하고, 의복과 각종 물품을 따로 내어 주도록 한다."[33]

てーー主に琉球王子漂著譚を中心として」,『朝鮮學報』第137輯, 1990; 고창석,「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고창석 외,『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池內敏,『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六反田豊,「十九世紀濟州島民の海難と漂流ーー"濟州啟錄"の分析」,『年報朝鮮學』第7号, 1999;「朝鮮後期濟州島漂流民の出身地詐稱」,『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40号, 2002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연구들을 참조.

31) "…제주 백성 고한록(高漢祿)이 정해년(1827) 이후로 은밀하게 무뢰배(無賴輩)를 모집하여, 배를 훔쳐 타고 일부러 표류하여, 저쪽 땅에 깊이 들어간 것이 네 차례에 이르는데, 필담(筆談)을 나누며 통역하며, 돈을 구하여고 하였다고 합니다."『헌종실록』권5, 4년 7월 21일 (경신).

32)『同文彙考原編』권70, 漂民五·上國人, 국사편판위원회 영인본, 1978, 1329쪽.

라는 기록을 통해, 조선 조정이 한결같은 인도주의의 방법으로 표류민 송환 문제를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 표류된 중국 표류민 문제 역시 이와 같이 처리했는데, 순조(純祖) 19년(1819) 중국 소주(蘇州) 태창(太倉)에서 온 선박이 제주에 표류하였는데, "매일 음식을 제공하고", "따로 각각 술과 전, 생선과 고기, 과일과 채소 등을 후하게 배에까지 제공함으로써, 조정이 멀리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휼하는 덕의(德義)를 표했다."[34]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丁若鏞)이 이미 언급했듯이, "일단 표류선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섬들이 필시 망하게 된다. 고의성이 있는 표류선이 표착하게 되면, 섬사람들은 칼을 뽑고 활을 쏴, 살해의 기운을 내뿜어 도망치게 만든다. 또 만약 바람이 거칠고 암초가 사나워, 파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며 애환을 호소하고 구걸해도, 섬사람들은 이를 엿볼 뿐 나오지 않으니, 침몰하도록 내버려 둔다. 배가 물에 빠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이웃들이 비밀리에 회의해, 배와 그 안의 화물들을 불사르니,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10년 전에도 나주(羅州)의 여러 섬에서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35]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찌된 일일까?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는 '사대(事大)'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중국 표류민을 구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관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이는 지방관원의 부정부패를 초래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소주 태창선 표류민의 예를 통해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선박이 표착된 곳은 인구도 적고, 해산물을 얻지 못하는 척박한 지역이었는데, 백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표류민이 이 마을에 도착한 것이다. 표류민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보태 그들을 도와줬는데, 이 지역 지방관이 표류민 송환을 빌미로 예전에 없었던 '인정을 구하는' 예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막대한 양의 돈을 갈취했다. 결국 표류선을 위해 드는 제반 비용 모두를 백성들이 지게 되었는데, "그 양을 통계를 내 보니, 100금(金) 정도였다."라고 한다. 엄청난 돈을 충당할 수 없었던 이 지역의 백성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유리(流離)할 수밖에 없었다.[36]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 표류민이 제주 사람들에게 가지고 왔을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또한 곤궁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중국 표류민을 도와줬는데, 이는 그들 역시 표류민의 애환과 서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제주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다 지향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중국 표류민들의 행동 또한 논의할 가치가 있다. 예로 조선 고종 16년(1879), 중국 소주와 산동(山東) 등의 지역에서 온 34척의 배가 제주도와 나주 사이로 표류하였는데, 그때의 심문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문: 너희들의 고기잡이 부표가 본국의 해역에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하였다. 너희 역시 이 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

33) 徐榮輔·沈象奎 等, 『萬機要覽』 7, 軍政編一·備邊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1808.
34) 李綱會, 『雲谷雜稿』 권1, 대동문화연구원 편찬, 『다산학단문헌집성 七』, 성균관대학출판부, 2008, 132쪽.
35) 丁若鏞, 『牧民心书』 권3, 奉公六条·往役, 『여유당전서』 제 5집, 『한국문집총간』 285책, 357쪽.
36) 李綱會, 위 책, 152-153쪽.

찌하여 이를 행하는가?

답: 드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소. 대해(大海)가 이렇게 넓은데, 어찌 경계를 넘었다고 말하시오? 잠시 15~6일 정도 머물며 고기를 잡은 후 집으로 돌아가겠소.

문: 각국이 경계를 정하고 머무르니, 거주민들의 산업 역시 각각 특별하다. 월경(越境)하여 어업을 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는 것과 크게 관계되니, 속히 귀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 바람을 만나 여기까지 왔고, 딱 여기 고기가 있는데, 우리는 고기잡이 배이니, 10일 안 되게 머무르며 고기를 잡고 돌아가면, 어찌 행복하지 않으리오?

문: 여기 온 이후로 고기를 얼마정도 잡았는가?

답: 여러 배에서 잡은 고기를 합산해 보면, 2~3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되오.

문: 너희가 만약 바람을 만나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마침 순풍이 부니,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 어찌 법을 위반하며 고기를 잡고, 또 10일이나 머물려고 하는 것이냐?

답: 10여 일을 더 머물면,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으니, 이는 절대 실언이 아니오.

문: 너희 배들의 부표가 경계를 넘은 것이 명백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여, 몇 번이나 돌아갈 것을 권했으나, 너희는 어찌 법을 어기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고기잡이를 하지 말고, 속히 돌아가라.

답: 바람이 따라주지 않아, 며칠 더 있기를 요구하니, 동남풍(東南風)이 불 때 돌아가겠소.[37]

조선 문정관(問情官)은 계속해서 중국 표류민에게 되도록 빨리 귀환하라고 권유했고, 중국 표류선은 어획을 많이 하기 위해 집요하게 달라붙으며 오랫동안 남아있길 바랐다. 그들의 진정한 표류 목적은 월경(越境)하여 어획하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왜 장기 체류를 하려하는지 전혀 몰랐던 제주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본섬에 가까운 이국의 표류민을 위협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표류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제주 사람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부득이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은 점점 보수적인 방어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37) 『湖南啓錄』 第三冊, 己卯三月初十日條, 『각사등록 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6, 310-311쪽.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 시기 및 조선 전 · 후기 제주와 중국 간의 표류민 교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적 해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바다 지향성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려 시기, 국가의 적극적인 해상 무역과 강력한 해양 주권의 희망은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이 국가 및 지역적 측면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당시 표류와 관련된 비록이 비교적 적었기에, 본고에서는 이국에서 오는 바다 상인 등에 대한 고려인들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해 당시 제주 사람들 속에 이미 바다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약탈로 조선 초기 엄격한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 조선 왕조가 소극적인 해상 활동을 벌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물론 바다에 의지하고 사는 제주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섬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그들은 섬을 버리고 육지로 나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은 표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바다를 이용,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고, 심지어 고의로 중국 등으로 표류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으로 표류 시 다시 섬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제주 사람임을 밝히지 않는 관례도 생겨나게 되었다. 제주 사람들 안에 내재된 바다 지향성이 생존을 위한 표류라는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제주로 표류된 중국 표류민들도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구조하였지만, 동시에 이는 하층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 강남에서 제주로 표류된 여러 사례들을 통해, 표류민을 위한 구휼 등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큰 부담이 되었음을 밝혔다. 조선 전기, 바다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의 바다 지향성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점점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변하게 된다. 조선 후기 역시 생존을 위해 바다를 이용하였지만, 국가적 정책과 지역적 측면의 모순 속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다를 떠나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비극적인 면모 또한 바다 지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다와 그에 관련된 제반 활동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또한 달라지기 마련이다.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어 조선 시기 강력히 실시된 해금 정책은 한반도 전반의 해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조선 시기 해상 활동보다 육로를 통한 교역을 중시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특히 섬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생활과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렇기에 국가의 해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바다 지향성은 여전히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제주라는 지역과 중국 간의 표류민 교류 및 해상 활동을 통해 고찰하였다. 비록 시기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 지향성을 가지고, 바다를 이용하며 생활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주는 영향이 존재하지만,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바다 지향성은 결코 모두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제주와 중국 간의 표류민 교류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주제를 통해 한민족의 바다 지향성을 살펴보았기에, 아직도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더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본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목판본(규장각소장본).

『元史』, 中華書局點校本, 1976.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清實錄』, 中華書局點校本, 1985.

『同文彙考原編』 권70, 국사편판위원회 영인본, 1978, 1329쪽.

徐榮輔·沈象奎 等, 『萬機要覽』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1808.

魚叔權, 『稗官雜記』 二, 조선고서간행회 편찬, 『大東野乘 一』, 1909.

王在晉, 『海防纂要』 卷十, 『四庫禁毁書叢刊』 史部 第一七冊, 北京出版社, 1997.

李綱會, 『雲谷雜槀』 권1, 대동문화연구원 편찬, 『다산학단문헌집성 七』, 성균관대학출판부, 2008.

丁若鏞, 『牧民心书』 권3, 『여유당전서』 제 5집, 『한국문집총간』 285책.

曾鞏, 『元豐類稿』 卷三十二, 『四部备要』 集部 第75册, 中华书局校刊本, 1936.

崔溥著, 葛振家點注, 『漂海錄: 中國行記』,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耽羅啓錄』, 『각사등록 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6.

『湖南啓錄』 第三冊, 『각사등록 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6.

2. 단행본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劉序楓,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 (涉外篇) 』,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04.

이진한, 『고려시대의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3. 논문

김보한, 「전근대 '환한국해' 권역에서 한반도 중심의 해상 네트워크」, 『한일관계사연구』 제 45집, 2013.8.

六反田豊, 「朝鮮前近代史研究と"海"――韓國學界の動向と「海洋史」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51号, 2013.

배숙희, 「元나라의 탐라(耽羅) 통치와 이주(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 연구』 제 76집, 2012.02.

이강한, 「13세기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도서문화』 제 36집, 2010.12.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조규익·최영호 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홍석준, 「동아시아의 해양 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徐興慶· 陳明姿編, 『東亞文化交流: 空間·疆界·遷移』, 華東師范大學出版社, 2012.

寻找历史上中国与济州岛的漂流民交流
—以发现韩民族的向海性为中心

金恩美, 戴琳剑
南京大學

1. 绪论

朝鲜半岛三面环海，北接大陆，从古代到中近世，其诸王朝都有着活跃的海上活动。进入朝鲜时期后，由于海禁政策的实施，海洋逐渐受到轻视。至近现代，对于海洋的关注已渐趋式微。[1] 当然，海禁等国家层面的海洋管制是有存在，然对于临海为生的百姓而言，海洋是无法忽略的一种生活环境。因为海洋为靠海度日的人带来的是谋生手段和形成人际关系网络的场所。[2]特别是济州岛，作为名符其实的海岛，并非拥有可以依赖农耕而生存的环境，因而必须依存周围的海洋人们才能得以生计。换言之，济州人天生拥有积极利用海洋及其周边并与海洋一起生存的“向海性”[3]；于他们而言，海洋是绝对无法忽视的、最大的财产和武器。

本文以“济州”地区的地域性环境为基础，通过各时期济州与中国的漂流民交流来考察其所具有的“向海性”。选择济州为对象的理由有二：第一，济州作为岛屿，与海洋生活有着直接或间接的关联；第二，拥有独立主体性的耽罗国于 1105 年并入高丽版图后，体现出国家层面与地域层面的海洋利用互相交织的二重性。因此，本文将先概括性地回顾高丽时期济州与中国间的海上贸易及漂流民交流情况，再将重点置于文献上出现漂流事件记载更多的朝鲜前期与朝鲜后期，通过

[1] 六反田丰：《朝鲜前近代史研究と「海」——韩国学界の动向と「海洋史」を中心として》，《朝鲜史研究会论文集》第 51 号，2013，第 63 页。

[2] [韩]洪锡俊：《东亚的海洋世界与港口城市的历史和文化》，徐兴庆、陈明姿编《东亚文化交流：空间・疆界・迁移》，华东师范大学出版社，2012，第 82 页。

[3] “向海性”是指将大海作为生活的一部分，并努力为之经营利用的特性。[韩]曹圭益：《古典文学与海洋》，[韩]曹圭益、[韩]崔荣鎬编《寻找海洋文学》，集文堂，1994，第 56~57 页。

以上方式来考察国家政策与济州人的“向海性”是如何相互影响，以及济州人的“向海性”在各个时期是如何体现的，从而得出结论：尽管有国家层面的海禁政策，韩民族由来已久的向海性是绝对不会被轻易抹掉的。

2. 高丽时期的海上活动及济州与中国间的漂流民交流

济州岛于高丽太祖 21 年(938)随着耽罗国太子入朝而成为高丽属国，之后于肃宗 10 年(1105)更名为耽罗郡并编入高丽版图，开始受高丽的统治。当时的高丽接受了成宗元年（982）崔承老进呈的“时务 28 条”提议，要求聘使兼行贸易并禁断其余的“非时买卖”。[4]时属高丽的济州，其海域自然归入高丽的海上管辖范围。但正如崔承老所言，“诸岛居民，以其先世之罪，生长海中，土无所食，活计甚难”[5]，济州作为岛屿，为了生计仍然需要积极地活用海洋。换言之，济州岛虽然受到国家的海洋管制，但为了生存，依然表现出二重性的面貌——内在的海洋需求之向海性。

就济州而言，维持日常生活所必需的谷物和盐等都很匮乏——相较于陆地，它们在岛上更难获得。为此，济州不得不与海南、珍岛等陆地或靠近陆地的岛屿进行交流，这一过程助长了沿岸地区的贸易。[6]如睿宗 8 年（1113），“珍岛县民汉白等八人因买卖，往毛罗岛，被风漂到宋明州，奉圣旨，各赐绢二十匹米二石，发还”[7]，大略可知在沿岸贸易时会有遭风漂至中国的例子，而在造船及航海技术均不发达的情况下，这些岛民为了生存仍不惜冒着遭遇漂流的危险而持续贸易活动。最终这些漂到明州的岛民受到救助抚恤后被送还回国。

明州是宋代时期宁波的地名，乃高丽使行船与民间贸易船只进出宋朝的港口城市。当然，泉州或福州港口也可进出，然正如当今将过去“海上丝绸之路”中从明州出发向东至日本、朝鲜（高丽）的路线称为“明州东洋道”一样，当时的明州港乃是宋朝与高丽贸易往来的核心港口。[8]从高丽来的多数漂流民最后都漂至明州，也能反映这一点。宋元丰 2 年（1079），漂流至宋的济州人崔举一行弃船漂至泉州，后自己找向明州地区请求援助并乞求能归还本国。彼时的明州知州曾巩不

[4] 《高丽史》卷 93，列传 6，崔承老，木刻本（奎章阁藏本）第 55 册，第 14 页 a 面。

[5] 《高丽史》卷 93，列传 6，崔承老，木刻本（奎章阁藏本）第 55 册，第 16 页 a 面。

[6] [韩]金日宇:《高丽时期耽罗史研究》，新书苑，2000，第 131~132 页。

[7] 《高丽史·世家》卷 13，睿宗 8 年 6 月，木刻本（奎章阁藏本）第 8 册，第 26 页 a 面。

[8] 宋商的对高丽贸易基本通过明州来实现，元朝的对高丽贸易基本通过庆元（元朝时期明州的名称）来实现。[韩]李康汉:《13 世纪末期高丽对外贸易船只的活动与元代“关税”的问题》,《岛屿文化》第 36 辑，2010.12，第 39 页。

仅每日给他们提供食粮，还每隔 5 日给他们另外馈赠酒食。此外，曾巩认为“海外蛮夷，遭罹祸乱，漂溺流轮，远失乡土，得自托于中国，中国礼仪所出，宜厚加抚存”，并建议将“逐日给予食物，仍数日一次别设酒食”的漂流民救助制度化。[9]由此可知，宋朝对高丽漂流民大体上给予积极的救助抚恤，并支援他们直到其安全归国。明州的这种救助活动以及港口地位一直持续到高丽末期。

尤其到了南宋时期（1127~1279），通过明州交流的贸易船只越来越多。这不仅因为明州靠近南宋首都临安，更因为这乃是前往高丽最便利的途径。[10]此外，从明州前往日本也是相当便利，从明州出发前往日本的宋商经过济州海域时都以汉拿山为地标。因此济州岛是宋商们经由“明州东洋道”前往日本时所必需的重要标志，同时也是宋商或日本贸易船在遭遇恶劣天气无法航行时的临时避难所。暂留济州的宋商会与济州人交易以补充食粮物资，济州人亦可通过此方式与暂泊济州的他国商人进行交易而获得自己所需之物。[11]当然也可能有漂流的情况，由于几乎找不到相关记载而无法准确判断。

之后，蒙古从草原上崛起，在占领中原统一中国后，济州岛的重要性又再次体现。忽必烈在与高丽和亲之后继续准备远征日本，其间注意到“耽罗为南宋日本冲要”，并派遣脱脱儿等前往耽罗等地考察路线。[12]在此情况下，元朝在济州设立牧场，将牛马等置于其中喂养，之后近百年间，济州一直为元朝进贡军马、毛皮、牛肉等物。[13]这过程中元朝与济州有着持续的海上交流，其中因为天气或航海技术等原因而致的漂流事件也应有发生，然因几乎未留下相关史料，详细情况无从知晓。尽管如此，济州人在此过程中重新认识了海洋的重要性并一直维持着自身的向海性这一点，还是可以预见的。

高丽后期，海上倭寇渐发，朝廷开始严格管制日本近海。另外，元明交替时，以盐田中介身份在长江流域崛起的军雄张士诚、方国珍等通过海路向高丽进贡特产及宝物，以谋求与高丽的结盟及贸易，这也成为之后明朝实施海禁的理由之一。[14]类似事件均对高丽的海上贸易管制产生了巨大影响，济州海上贸易活动的受限则更为加重。但是，济州作为岛屿的特性，及其重视海洋的向海性终不曾改变，尽管受限于国家的统治，然向往利用海洋之心不曾间断。因此，济州从高丽末期开始，国家层面与地域层面的海洋开始明显地乖离、并存，这一直持续到了朝鲜时期。

---

[9] [宋]曾巩：《元丰类稿》卷三十二，“存恤外国人请著为令不曾上”，《四部备要》集部第 75 册，中华书局校刊本，1936，第 239~240 页。

[10] [韩]李镇汉：《高丽时期的贸易与海洋》，景仁文化社，2014，第 53~54 页。

[11] [韩]李镇汉，同上，第 47~49 页。

[12] 《元史》卷二〇八・列传第九十五・外夷一，高丽・耽罗条，中华书局点校本，第 4624 页。

[13] [韩]裴淑姬：《元朝的耽罗统治和移居，以及其踪迹》，《中国史研究》第 76 辑，2012.2，第 110 页。

[14] [韩]李镇汉，同上，第 80~81 页。

3. 朝鲜前期济州与中国间的漂流民交流

朝鲜初期，朝廷继承了高丽时期的向海性。但在对倭寇表现出固守海洋主权意愿的同时，为规避倭寇之害，朝鲜太祖时期开始便禁止居民私自下海获利，[15]海禁政策日渐严厉。这无疑是断了济州人的生存之路，因此不乏有擅自逃离岛屿的济州人。如朝鲜成宗 8 年（1477）便有记录，称有近千余济州人自称“豆禿也只（두독야지）”并带着家人移泊到庆尚、全罗等处。但若被抓住，将会被送回岛屿并受到惩罚。[16]类似事例亦散见于其他文献资料，足见海禁政策对济州人生活所造成的严重影响。

当然，在离开岛屿的过程中，由于风浪等天气原因会导致漂流事件的发生。通过文献可知，彼时的济州人漂流事件十分频繁。在朝鲜前期学者鱼叔权所著《稗官杂记》中，记录了漂到宁波府的济州漂民金万贤之言：“若有三五斗之米，数瓮之水，虽值飓风，不数日便达于宁波府，何患之有？”[17]可见济州人通过大量的漂流经验，已然学到在面对漂流时需要准备多少的食物及水才能挺过去。此外，当有济州人偶然漂至中国时，中国方面会根据彼时的漂流人救助方式给予救恤并送还归国。在这过程中，济州漂流民开始了解彼时中国接近制度化的漂流人救助方式及丰厚的抚恤待遇，这也成为此后的济州人“故意漂流”至中国的情况增多的契机。

明朝王在晋之《海防纂要》中有朝鲜漂流民的相关记录。明万历 39 年（1611），朝鲜一行七人漂至浙江台州海门县，其中五男二女，男均姓李，“妇计氏”，“为全罗道南原府济州康津县人”。八月二十五日“男妇往东海取鱼，驾舟下椗”，二十八日遭风漂泊，“船中水尽，取海水食之”，终在九月二十一日于海门县获救。官衙找来寓于杭州的朝鲜人李大挺做通译，记录了济州人的词汇、打扮，并补给衣粮。在审查完毕后，即“准迅回本国，转发原籍安置”。[18]由上可知，海上生产活动对济州人而言十分重要，以致于需要“男妇”共行。而他们应该清楚这种出行可能带来的漂流的危险性：他们在海上漂流了近一个月才到达中国沿岸，明显这些济州人是做好万全准备应对可能的漂流危险才出海的。换言之，这正是济州人敢于面对大海的内在情愫，不得不说正是受惠于其潜在的向海性。

不过总体上来看，大部分出海的济州人仍然是男性居多。明弘治年间，朝鲜人崔溥曾从济州出发遭风漂至中国江南地区，同行的济州人便有 35 人。其中一个叫孙孝枝的人，道出了济州人的

[15] 《朝鲜王朝实录 • 太宗实录》卷 26，太宗 13 年 7 月 28 日（乙巳）。

[16] 《朝鲜王朝实录 • 成宗实录》卷 86，成宗 8 年 11 月 21 日（甲申）。

[17] [朝鲜]鱼叔权：《稗官杂记》二，朝鲜古书刊行会编《大东野乘 一》，1909，第 439 页。

[18] [明]王在晋：《海防纂要》卷十，“朝鲜渔人”，《四库禁毁书丛刊》史部第一七册，北京出版社，1997，第 647 页。

出海及漂流情况：“我州邈在大海中，水路九百余里，波涛视诸海尤为汹暴。贡船、商舶络绎不绝，漂没、沉溺十居五、六。州人不死于前，则必死于后。故境中男坟最少，闾阎之间，女多三倍于男。”[19]且对于遭风漂流可能带来的生命威胁，他们亦有着充分的觉悟：“我等之死如蜉蝣出没，虽在平日亦岂以死于牖下为心哉？”[20]可见在济州人的心中，生死观念已与海洋融为一体，生命与海洋维持着紧密的关系。

另一方面，对于漂到的中国漂流民，朝鲜朝廷方面从人道主义出发，以救助及安全送回为主要原则。其中尤其在明朝时期的中国漂流民之送还，则成为了朝鲜朝廷表达事大之道的途径之一。如朝鲜明宗 9 年（1554）实录中，对于中国漂流民的送还即有如下记载：“只将唐人，奏闻天朝，则其于事大之道，可谓尽矣。”[21]可见彼时的朝鲜对于中国漂流民的送还原则是很明确的。此外，对于远道而来的中国漂流民，济州方面除了给予救助之外，还会利用他们的能力来为己所用。如明宗即位之年（1545），有中国漂流民漂至济州，济州方面发现其中有“能解沥青者”及“能解铳筒者”，为传习之，特意将这些人放置于送还批次的最后一批。[22]由此可见，对于外来的中国漂流民，济州方面是给予人道主义关怀，同时能从自身利益出发，对中国漂流民“人尽其用”，这亦不妨看作是对海洋积极利用的一个侧面。

此外从当时国家层面的意识形态来看，明朝永乐帝迁都北上之后，连接满洲与华北的陆路安全得以保证，朝鲜与明朝的交流及贸易途径逐渐转向了陆路。随着朝鲜方面认为陆路比海路更为安全，海路的使用逐渐减少，朝廷对于海洋的关注也逐渐降低。[23]另外，彼时明朝的海禁政策使得官方的海上贸易难以进行，这亦使得海上活动频繁的朝鲜海域受到影响。另外，海禁政策使得原本一直在暗中进行的密贸易更加盛行，这种私人性的贸易活动助长了民众“冒犯越海”心理的同时，也无形间增加了漂流事件发生的几率。对济州人而言，漂流既是危险，又是机遇——不妨说这亦是其向海性中，国家层面与地域层面的海洋认识相互交织的二重性的一种体现。

[19] [朝鲜]崔溥著，葛振家点注：《漂海录：中国行记》，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2，第 50 页。

[20] [朝鲜]崔溥著，葛振家点注，同上。

[21] 《朝鲜王朝实录・明宗实录》卷 17，明宗 9 年 7 月 18 日（丙辰）。

[22] 《朝鲜王朝实录・明宗实录》卷 2，明宗即位年 11 月 3 日（壬戌）。

[23] [韩]金普汉：《前近代“环韩国海”海域中韩半岛中心的海上网络》，《韩日关系史研究》第 45 辑，2013.8，第 62 页。

4. 朝鲜后期济州与中国间的漂流民交流

明清易代之后，清廷延续明朝之海禁；朝鲜方面除了持续限制本国人民的出海以及防范倭寇的威胁之外，对于中国船只的出没也是十分警惕，为此朝廷即曾下令要使行在入京之时重申本国的海禁之严。[24]而在对济州岛的封锁政策上则更是雪上加霜："济州居民流移陆邑，三邑军额减缩。备局请严禁岛民之出入，上从之。"[25]济州人的岛屿进出变得极其艰难。

在此背景下，漂流民的往来成了几乎唯一的途径。清朝对于朝鲜漂流民，多以"怀柔远人之意"加以抚恤并送还。[26]台湾学者刘序枫曾从 36 种档案史料中整理出与朝鲜相关的清朝海难史料 452 件，[27]足见彼时漂流事件之频繁。但若考察其中济州漂流民的样相，会发现清朝方面明确的济州漂流民事件记载十分罕见，似乎一下子没有了济州漂流民事件的发生；而从《备边司誊录》、《耽罗启录》以及各种济州漂流民之漂海录 [28]等来看，彼时的济州漂流民事件仍是数量众多的。这是怎么回事呢？

朝鲜哲宗 8 年（1857），济州漂流人金声振等出海做贸易，归途中遭风涛漂，经船救起至苏州府接受询问时，却"一依讳称济州之例，答以朝鲜国全罗道海南县人"[29]。原来，并不是突然没有济州漂流民事件的发生，而是济州漂流民——尤其是济州本地人——在漂到他国之时，采取了"讳称济州"的方式。[30]随着 17 世纪海禁的趋严，济州人的生活已是十分惨淡。若考虑这一点，就不难想象济州人欲利用漂流来寻求出路了。漂流不仅能够帮助他们远离噩梦般的岛屿，若漂到中国还能得到抚恤。但若在中国人送还漂流民时表明真实身份，则将会被重新送回原籍，对他们而言无疑是自取灭亡。恐怕这亦是济州漂流民讳称的原因之一，即为了掩盖漂流背后真正的意图。

其实，朝鲜后期济州人利用漂流来寻求利益的意图及举措是耳目昭彰的。济州人在反复的漂

---

[24] 《朝鲜王朝实录 • 肃宗实录》卷 55，肃宗 40 年 7 月 16 日（乙卯）。

[25] 《朝鲜王朝实录 • 仁祖实录》卷 21，仁祖 7 年 8 月 13 日（乙丑）。

[26] 乾隆 2 年（1737），清朝对外来漂人的救助方法始有定例："嗣后如有似此被风飘泊之人船，著该督抚率有司，加意抚恤，动用存公银两，赏给衣粮，修理舟楫，并将货物查还，遣归本国，以示朕怀柔远人之至意。将此永著为例。"见《清实录 • 高宗实录》（一）卷五二，中华书局影印本，1985，第 889 页。

[27] 刘序枫：《清代档案中的海难史料目录（涉外篇）》，中央研究院人文社会科学研究中心，2004，序，第 9 页。

[28] 较为有名的如文淳得之《漂海始末》、李邦翼之《漂海歌》等。

[29] 《耽罗启录》咸丰八年四月初七日条，《各司誊录 19：全罗道篇 2》，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86，第 100 页。

[30] 关于济州漂流民讳称济州的相关研究，可参考松原孝俊：《朝鮮における伝说生成メカニズムについて——主に琉球王子漂着谭を中心として>，《朝鲜学报》第 137 辑，1990 ；[韩]高昌锡：《19 世纪济州人的漂流实态》，[韩]高昌锡等：《19 世纪济州社会研究》，一志社，1997；池内敏：《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临川书店，1998；六反田丰：《十九世纪济州岛民の海难と漂流——『济州启录』の分析》，《年报朝鲜学》第 7 号，1999；《朝鲜后期济州岛漂流民の出身地诈称》，《朝鲜史研究会论文集》第 40 号，2002 等。

流经历中，会相互分享情报及经验，从而助长了那些未经历漂流的人对于海外世界的憧憬。济州人高汉禄为赚取清朝赏给他国漂流民的衣物银两而前后共四次故意漂流至中国的例子，[31]即明白无误地说明了彼时济州人漂流事件中的故漂事实。换言之，济州人是以“漂流”这一向海性的体现来积极争取随之而来的利益以谋求生路。在严厉的海禁政策下及漠视海洋的氛围中，济州人的向海性以“故漂”的形式得以展现，只是这不免多了一层悲剧色彩。

这种被国家意识形态所压制的地域层面的向海性，在彼时济州对待外来的中国漂流民上也有所体现。17 世纪末，朝鲜方面对于漂到的中国漂流民，“船完则候风发回，船破则差官解送。而关外人交付凤城，关内人押解北京并咨报礼部”。[32]至 19 世纪，“异国人漂到状启入来，水陆间从自愿还送之意，覆启知委。…漂人若路申京畿，则入弘济院后，发遣郎厅更为问情，衣袴杂物别为题给”[33]，体现了官方一贯的人道主义处理办法。济州也不例外。如朝鲜纯祖 19 年（1819），有中国苏州太仓船漂至济州，济州方面即“日供粮馔”、“别备酒饼、鱼肉、果菜，优厚宴饷于船上，以示朝家慰恤远人之德意”[34]。

但丁若镛曾言：“一经漂船，数岛必亡。故漂船到泊，岛民必拔剑开弓，示以杀害之色，使之遁去。又或风急石恶，祸迫呼吸者哀嚎乞救，而岛民窥而不出，任其覆没。既没既死，四邻密议，焚船烧货，以灭其迹。十余年前，罗州诸岛，屡有此事。”[35]这又是怎么回事呢？

原来，到了朝鲜时期，朝廷为表“事大”之心，主动承担对于中国漂流民的救助费用并由地方官来负责，这给了地方官员徇私牟利以可趁之机。以上文所示苏州太仓船漂流为例，其所漂到之处乃人口稀少、海产贫瘠之地，民众因此已是苦不堪言；然面对到来的中国漂流民的求助，当地民众于心不忍又凑钱给予抚恤。而地方官却还要制定前所未有的“人情讨索”之例来大量掠取民钱，导致救助漂船时的费用全部落到民众身上，“通计其数，将至百金”，民众们除了涣散流离，别无他法。[36]可见他国漂流民的到来反而会给济州人带来负面影响。尽管如此，当漂人恳乞食粮之时，济州人还是会不忍其挨饿而给予援助，其包容如海洋的胸怀也是其向海性的佐证之一。

只是除了地方问题之外，中国漂流民自己的举动也值得商榷。如朝鲜高宗 16 年（1879），来

[31] “…济州民高汉禄，自丁亥以后，密募无赖辈，偷船故漂，深入彼地，至为四次，笔谈通译，索钱幻银。”《朝鲜王朝实录・宪宗实录》卷 5，宪宗 4 年 7 月 21 日（庚申）。

[32] 《同文汇考原编》卷七十・漂民五・上国人，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78，第 1329 页。

[33] [朝鲜]徐荣辅、[朝鲜]沈象奎等:《万机要览》七・军政编一・备边司，抄本（国立中央图书馆藏本），1808。

[34] [朝鲜]李纲会:《云谷杂著》卷一，大东文化研究院编《茶山学团文献集成 七》，成均馆大学出版部，2008，第 132 页。

[35] [朝鲜]丁若镛:《牧民心书》卷三・奉公六条・往役，《与犹堂全书》第五集，《韩国文集丛刊》285 册，第 357 页。

[36] [朝鲜]李纲会，同上，第 152~153 页。

自中国苏州、山东等地的 34 艘船漂至济州岛与罗州之间，相关问情记录中有如下对话：

问：尔们渔標中，在本境海边捕鱼，毋许越境云。则尔当知法，而何如是行渔耶？

答：普天之下，莫非王土。大海宽阔，何曰越境乎？暂渔十五六归家。

问：各国之定界自在，居民之产业各殊。越境行渔，大关法禁，速速归去可也？

答：遇风到此，而此地有鱼，既是捕鱼船，故少待十日，捕鱼而归，岂不幸乎？

问：来此后，捕鱼为几许耶？

答：诸船所得，不过二三万之尾。

问：尔若遇风到此，则今既风顺，即当归去。而奚何犯法捕鱼，又待十日乎？

答：再住十日之外，俱以同归，决不失言。

问：尔船公標昭明，我国法禁至严，屡屡开谕，尔何冒法而不归乎？更勿行渔，即速速归去也。

答：一是风不便，当祈求几日，有东南风，则即归去。[37]

朝鲜问情官反复规劝中国漂流民速速归国，而中国漂流民则死乞白赖般希望能多留时日以捕更多鱼——他们的漂流目的十分明确，即越境捕鱼，然殊不知他们的多留，给当地人所造成的是更大的负担。因此，恐吓靠近本岛的他国漂流民抑或对其呼救置之不理等行为，也一定程度上体现了济州人自身的无奈。在此背景下，其向海性转化成了保守的防御型态度，但这更像是为生计所迫的不得已之举。

5. 结论

以上，本文考察了高丽时期及朝鲜前后期济州与中国间的漂流民交流情况，并指出尽管有国家层面的海禁，韩民族的向海性依旧是存在的。高丽时期，受惠于国家层面积极的海洋贸易及强烈的海洋主权意愿，济州人的向海性在国家及地域层面有着相对一致的体现。由于彼时的漂流记录相对较少，本文通过对济州人对待外来海商的积极态度的考察，认为彼时的济州人已然具有内在的向海性。

随着高丽后期的倭乱频发，直至朝鲜时期，海禁政策开始实施并逐渐严厉，这种倾向对之后朝鲜王朝消极的海洋活动产生巨大影响。靠海而生的济州人所受的影响自不例外，随着岛屿生活

[37] 《湖南启录》第三册，己卯三月初十日条，《各司誊录 19：全罗道篇 2》，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86，第 310~311 页。

愈发苛刻，他们开始离开岛屿前往大陆。在这过程中，济州人不惜冒着漂流的危险而利用海洋出走寻求生路，更有选择故意漂流至中国的事例。而为了不被送回岛屿内，济州漂流民选择讳称济州更是成为了惯例。济州人内在的向海性在为了生存而选择漂流这一点上得到体现。

当然，漂向济州的中国漂流民也对济州人的向海性产生影响。国家层面虽然给予人道主义救助，但同时也给一般百姓以沉重的经济负担。本文通过考察从中国江南漂至济州的数个事例，指出为了漂流民的救助而对济州人生活环境所带来的负担。朝鲜前期济州人的——与漂流大海的人们交流来获得知识的——向海性，到了朝鲜后期表现出一种保守的防御型态度。朝鲜后期济州人虽然为了生存仍在利用海洋，但在国家与地域层面的认识矛盾中，是为了生存而不得不面向大海——向海性得到的是一种悲剧性的体现。

海洋活动随着国家政策的变化而变化，以海为生的地域民众的生活亦随之变化。从高丽末期开始、到了朝鲜时期严厉实施的海禁政策给韩半岛的海洋活动带去深刻影响。另外，朝鲜时期较之海洋活动而更重视陆路贸易的倾向也是显而易见的。但是对于以海为生的人，尤其是岛民而言，他们的生活与海洋是密不可分的。因此尽管有国家层面的海禁政策，向海性对于以海为生的人而言仍是重要的部分。本文即着眼于此，并通过济州地域与中国的漂流民交流及海上活动来考察。虽然随着时期及国家政策的不同而略有不同体现，济州人仍是具有向海性，并靠着海洋而生存下去。换言之，国家的影响固然存在，韩民族内在的向海性是绝对不会被抹掉的，这一点不容忽视。

当然，本文仅仅局限于济州与中国之间的漂流民交流，可拓展的余地还很大。还望日后能有更多的研究，来补充完善这一问题的探讨。

参考文献

1. 史籍

（中国）

[宋]曾巩:《元丰类稿》,《四部备要》集部第 75 册，中华书局校刊本，1936 年。

[明]宋濂等撰《元史》，中华书局点校本，1976 年。

[明]王在晋:《海防纂要》,《四库禁毁书丛刊》史部第一七册，北京出版社，1997 年。

《清实录》，中华书局影印本，1985 年。

[朝鲜]崔溥著，葛振家点注:《漂海录：中国行记》，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2 年。

（韩国）

《朝鲜王朝实录》(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耽罗启录》,《各司誊录 19：全罗道篇 2》，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86 年。

《湖南启录》,《各司誊录 19：全罗道篇 2》，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86 年。

《同文汇考》，国史编纂委员会影印本，1978 年。

[朝鲜]丁若镛:《牧民心书》,《与犹堂全书》第五集,《韩国文集丛刊》285 册。

[朝鲜]李纲会:《云谷杂著》，大东文化研究院编《茶山学团文献集成 七》，成均馆大学出版部，2008 年。

[朝鲜]徐荣辅、[朝鲜]沈象奎等:《万机要览》，抄本（国立中央图书馆藏本），1808 年。

[朝鲜]鱼叔权:《稗官杂记》，朝鲜古书刊行会编《大东野乘 一》，1909 年。

[朝鲜]郑麟趾撰《高丽史》，木刻本（奎章阁藏本）。

2. 论著

[韩]金日宇:《高丽时期耽罗史研究》，新书苑，2000 年。

[韩]李镇汉:《高丽时期的贸易与海洋》，景仁文化社，2014 年。

刘序枫:《清代档案中的海难史料目录（涉外篇）》，中央研究院人文社会科学研究中心，2004 年。

3. 论文

[韩]裴淑姬:《元朝的耽罗统治和移居，以及其踪迹》,《中国史研究》第 76 辑，2012 年。

[韩]曹圭益:《古典文学与海洋》，[韩]曹圭益、[韩]崔荣镐编《寻找海洋文学》，集文堂，1994 年。

[韩]洪锡俊:《东亚的海洋世界与港口城市的历史和文化》，徐兴庆、陈明姿编《东亚文化交流：空间・疆界・迁移》，华东师范大学出版社，2012 年。

[韩]金普汉:《前近代“环韩国海”海域中韩半岛中心的海上网络》,《韩日关系史研究》第 45 辑,2013 年。

[韩]李康汉:《13 世纪末期高丽对外贸易船只的活动与元代“关税”的问题》,《岛屿文化》第 36 辑,2010 年。

六反田丰:《朝鲜前近代史研究と「海」——韩国学界の动向と「海洋史」を中心として》,《朝鲜史研究会论文集》第 51 号,2013 年。

2015년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입 상

419 항일전쟁시기의 한·중 공조 : 광복 70주년에서 보는 역사적, 현재적 의의
441 抗日战争期间的中韩合作
조대희, 야오쥔상 赵大熙, 姚锦祥
북경대학교 北京大學

460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한·중 영화산업의 경쟁력분석과 합작 전망
472 基于钻石模型的韩中电影业竞争力分析和合作展望
조은상, 류금전 赵恩祥, 劉金典
상하이이공대학교 哈尔滨理工大學

484 해상연행_중국 청나라 해관보고서에서 본 한·중 무역과 항구변화(1882_91)
493 海上燕行_从清国海关报告看中朝贸易与港口更迭（1882－91）
김성진, 엄지덕 金成真, 严智德
북경대학교 北京大学

501 반중vs.반한,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모델 연구
536 反韩 VS. 反华:消除相互文化偏见,改善形象的模型研究
_ 以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形象调查为中心 _
이정성, 우정 李廷性, 牛晶
서울대, 전북대 首尔大学, 全北大学

567 중국인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위한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582 迎接中国游客“千万”时代，韩中旅游业交流促进方案 —以导游问题及解决办法为中心
김예진, 최신 金艺真, 崔晨
한양대학교 漢陽大學

588 중국 내 한국어 교육시장의 부진원인 및 발전방향 모색
600 浅析中国国内韩国语教育市场不振的原因及发展方向 —以世宗学堂为中心
이준성, 최여여 李俊成, 崔茹茹
한양대학교 漢陽大學

605 한·중 FTA를 통한 지방경제협력과 발전방안 : 웨이하이(威海)·인천을 중심으로
624 中韩FTA背景下的区域经济合作与发展 : 以威海和仁川为例
김슬기, 장예즈 金슬기, 张延泽
KDI국제정책대학원 KDI韩国开发大学院

637 한·중 문화콘텐츠의 교류_우호증진을 위한 노력
647 韩中文化交流 —从增进友好关系的方向
허지강, 마성로 许智刚, 马圣璐
인하대학교 仁荷大学

657 “반한·반중” 속에서 한·중 관계 연구 및 해결 방안
670 “厌韩排华”下中韩关系的考量与解决方案
김은석, 장아문 金恩奭, 张雅汶
남경대학교 南京大學

항일전쟁시기의 한·중 공조 : 광복 70 주년에서 보는 역사적, 현재적 의의

조대희, 야오쥔상
북경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한•중 연합 항일투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정체성의 지니는 역사적, 현대적 의미에 대해 탐구이다.

고대부터 양국은 활발한 교류를 해왔지만 일제강점시기 한•중 양국이 연합 항일운동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였다는 것은 양국 교류사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 시기 역설적으로 양국은 이 시기에 기존 국가들의 일반적 교류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교류의 끈을 이어나갔다. 즉, 한민족과 중국의 공동항일투쟁을 통해 민족의 자립과 정상국가 회복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확인하며 항일의식을 통해 민족의식의 상호상승작용을 이끌었던 것이다. 특히 일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함양하게 된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이 동북아지역의 질서를 파괴하고 전장으로 만든 것에 대한 강한 반감과 민족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다시 아시아 수위국가 위치를 점하려는 과정에 있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복잡한 세력관계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안보역량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한•중 일 3 국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 중·일 관계하에서 3 국의 협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100 여 년 전 한•중 협력은 항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의 한•중 협력은 일본까지 포함하여 역내 번영의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특히 광복 70 주년을 맞는 해인 동시에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동북아 안보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한·중·일 3 국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혼란스러웠던 지난 세기 전반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현실적 의미 탐구는 바람직한 동북아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연관어

한중공조′ 일본′ 항일전쟁′ 지역질서

1. 한국과 중국 협력의 역사적 배경

1. 1 한국과 중국의 관계형성과 일본에 대한 전통적 인식

고대사회부터 이미 한 · 중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양국의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세기부터 시작된 신라와 당의 밀접한 관계는 한 · 중 관계사(史)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양국의 전방위적 교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시기의 양국의 특수한 정치적 군사적 협력관계는 경제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시켰다.[1] 이후 고려와 북송(北宋)간의 교류 역시 양국의 교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요를 견제하기 위한 상호간의 전략적 필요성차원의 교류를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관계로 승화시켜 고려의 국력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2] 40 여 년간의 대몽항쟁 이후 부마국이라는 특수관계가 말해주듯 고려는 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고 몽고풍과 고려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영향력이 주고 받던 시대였다. [3]

16 세기후반 발생한 임진왜란은 한•중일 삼국의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1]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第 4-11 页。

[2]【韩】姜吉仲:《北宋与高丽间的贸易及文化交流关系》，载《宋史研究论丛》2008 年第 1 期，第 180 页。

[3]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第 82 页。

전쟁을 통해 한민족에게 일본은 이후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대의 한반도와 왜(倭)국은 왕실을 비롯하여 [4] 각 국가의 영역 전반에 걸쳐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말 공민왕시기 이후 왜구들의 한반도 중부지역까지의 광범위한 침입과 16 세말 임진왜란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한 · 중 양국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 시기에 조선사회의 구성원들은 신분제 사회구조하의 불평등한 관계를 넘어 하나로 단합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韓)민족의 민족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5]은 당시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나라는 조선의 대일본 전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의 쇠락을 재촉하게 되었고 결국 청으로 왕조가 변하였다. 이렇게 왕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 2 근대 한•중 관계에 일본이 끼친 영향

한국과 중국이 임진왜란을 통해 "반일"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민족적 유대감이 강화시켰다면 [6]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자민족 우월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대륙진출을 추진한 영웅으로 추앙 받게 되었다. 300 여 년 이후, 이토 히로부미, 다나카 기이치, 도조 히데키등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의 정당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근대 한•중관계는 시간적으로 1860 년대부터 1945 년 광복까지의 시기를 일컸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 시기의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한 · 중 연합 항일운동은 근대 한 · 중 교류사 차원에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868 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역내 수위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서세동점의 시대 흐름을 따라 조선과 청을

[4] 2001 년 12 월 23 일, 아키히토 일왕은 「속일본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헤이안 시대를 연 간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역대 일왕의 백제와 일본왕실에 관한 첫 번째 공개적 발언이다. 중앙일보 2001. 12. 24, "백제왕 자손이 옛 천황생모"」, 중앙일보 2001. 12. 24, http://article. joins. com/news/article/article. asp?total_id=4196313&ctg=, 검색일: 2015 年 5 月 1 日

[5]이만열, 「21 세기 민족문화진흥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국학연구 제 8 집, 2006. 6, pp. 5-30。

[6]辽宁大学历史系:《简明中国古代史》, 第 304 页。

침략하여 국가의 역량의 확대를 시도한다. [7] 1870 년대 사이고 다카모리와 기도 다카요시등의 정한론은 그 당시에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1894 년 발생한 청일전쟁은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전체 국제정치학적 세력균형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이 규정하는 근대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일전쟁(1894-1895)은 한•중간의 교류를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이후, 중국에서 일본으로 동북아 수위국가가 변하게 되고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의 강제합병을 시도한다. 결국 1905 년 11 월 18 일,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치안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되고 1910 년 8 월 29 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합병된다. 이후 한반도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한 · 중 양국의 "항일"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6 세기 말의 도요토미 히테요시 시기부터 시작되어 19 세기 후반에 정한파가 재시도하려 했던 조선정벌 주장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항일전쟁시기의 한중공조

2. 1 만주지역 항일기지의 건설

식민지시기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심기지는 한반도가 아닌 만주(동삼성)지역이었다. 19 세기 중반부터 한반도에서 만주지역으로의 이주가 점차 이루어지지 시작하였고 식민지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만주지역으로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항일을 위한 협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20 세기 초 한•중의 항일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위해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특히, 1909 년 10 월 26 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의거는 당시 한인과 중국인이 하나의 항일전선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 우호적이던 구미의 여론은 이토의 죽음을 애도했고 통감부의 통제하에 있던 대한제국의 언론들 역시 안의사의 의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신문들은 의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매체 중에는 '중국의 원수를 갚았다'와

[7]王芸生:《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 1 卷，三联书店 1979 年版，第 4 页。

같은 직접적 표현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의 형세와 청조의 형세가 다르지 않다며 양국의 순망치한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고 "고려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통해 당시 중국 내 안중근의사의 의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8] 안의사를 통해 많은 중국인들의 한민족의 항일운동의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한민족과 중국인들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공통투쟁은 안중근의사의 의거에서 출발하였다" 주은래 총리의 언급은 당시 안의사의 의거가 한·중 공동항일의식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잘 표현하고 있다. [9]

1911 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는 일제의 신민회 같은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중국 만주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항일인력 양성의 병행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10] 특히, 국권피탈 직후부터 이시영, 이회영, 이상룡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길림성 집안 통화현의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1919 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아래 이 지역에 서로군정서부가 구성되었고. 신흥학교를 무관학교로 개편하고 본격적으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3.1 운동 이후 만주지역 항일 운동 발생 현황〉[11]

지역	발생횟수	참가인원	사망자 수	부상자 수	피검인 수
회인	13	7000		47	
용정	17	30000	20	23	
하얼빈	2	1000			
훈춘	4	5000			
연물	5	5000	14	40	
통화	2	불분명		15	

하지만 만주는 중국, 소련 그리고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역적

[8]관훈클럽, 「중국인 눈에 비친 안중근의사 의거」, Vol.- No.112, 2009, p.233, 238。

[9]新华网:《击毙伊藤博文的安重根义士纪念馆在中国开馆》,
http://japan.xinhuanet.com/jpnews/2014-01/19/c_133057040.htm，访问时间：2015 年 5 月 3 日。

[10]【韩】金俊烨:《我的长征》，东方出版社 1995 年版，第 18 页。

[11]参见朴殷植:《韩国独立运动之血史》（下），第 42 页。

특성을 지닌 곳으로서 1920 년대에 접어들며 중국과 일본의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제 1 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국제사회도 중국과 일본 충돌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염려하며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되었다[12]는 것은 만주가 지니는 역내 강대국간의 충돌위험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19 년부터 1931 년 만주사변사변 사이의 만주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은 중국과 일본의 외교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국민당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통치를 공고히 하며 만주지역의 독립활동을 진합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진출하여 "선만일체화(鮮滿一体化)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3]

2.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화민국

한반도에서 3·1 운동 직후 중국에서 5·4 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양국의 항일운동의식이 모종의 상호연관성이 존재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민의 항일의식과 행동의 연관성은 이후 1929 년 윤기섭(尹琦燮), 신익희(申翼熙) 등이 주도한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이 국민당정부와 적극적 연합을 시도하며 보다 구체화된다. 1919 년 3·1 운동 직후인 4 월 13 일 국내를 비롯한 중국의 만주, 화북지역과 미주지역, 소련지역의 해외 독립운동을 조직적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며 [14] 상해가 해외독립활동의 중심기지로 부각되게 된다. [15] 이후 26 년 동안 7 번의 이동이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중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은 현재 대한민국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과 한•중 교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활동 초기의 한•중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 중 하나는 1921 년 중국 각 지역에서 결성된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활동이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12]C. Walter Young, 「Sino-Japanese Interests and Issues in Manchuria」, *Pacific Affairs*, Vol. 1, No. 7 (Dec., 1928), pp. 6-15

[13]신규섭, 1920 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 鮮滿一體化'의 좌절과 '三矢협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9 집, 2004.6, pp. 185-194

[14]【韩】金俊烨:《我的长征》，第 293~294 页。

[15]【韩】赵琬九:《韩国临时政府奋斗史略》,《韩民》第 1 卷，第 5 期，1941 年 6 月 15 日。

중국인들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의 독립 지원과 반제국주의 활동을 강령으로 하는 단체였다. [16] 마오쩌둥과 천두슈도 한•중호조사 창사 시 지부에서 활동하였다. [17]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1921 년 3~8 월에 황영희(黃永熙), 조중구(趙重九)등 외무업무 담당자들이 주관하여 화남지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한국독립운동을 선전•이해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1945 년 광복까지 지속된 호조사 활동은 한•중양국의 항일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국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확대시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 즉, 양국의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협조에서 진일보하여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고 항일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3 한 · 중 항일연합과 만주지역의 항일활동

한 · 중 양국은 1931 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항일활동을 함께 전개 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중의 공통적이고 한민족이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때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도도 포기될 것이라는 1930 년 6 월 박용태 (朴龍泰), 유기석 (柳基石) 등이 주도한 대한대독립당주비회(大韓大獨立黨籌備會)의 기관지 『조선의 혈(朝鮮의 血)』 창간사는 [18] 양국은 항일이라는 무력저항 방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이며 이를 위한 연대의 불가피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19] 또한, 1930 년대부터는 북경, 상해 등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의 항일운동은 중국의 반일세력, 항일운동 단체들과의 제휴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중국인들의 한인항일활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 · 중 항일연합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다. 임시정부가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은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는 당시의 국제법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20] 이러한 군사적

[16]中韩协会《光明》月报 1 卷 1 号，第 20 页。

[17]康基柱, 『中韩互助社研究』, 亞細亞文化研究第二輯, 1997.12, pp. 307-308。

[18]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CF17ADF0185126B5C1755DF4993A4D0B?levelId=su_009_1930_06_15_0680

[19]김영범외,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 286。

[20]이용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 54 집, 제 1 호 (통권 제 113 호), 2009.4, pp.122-123; 그러나, 1940 년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동한 후,

수단에 의하여 타국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국제법의 확고한 입장은 국제연맹규약 서문(The Acceptance of Obligations not to resort to War)과 1928 년 켈로그-브리앙 협정 Briand-Kellogg Pact 혹은 파리협정) 제1조 80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건립 초기에는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본의 고위관료를 저격하거나 만주지역의 항일독립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는 중국측의 항일활동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임시정부와 국민당정부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임시정부산하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 단행한 1932 년 1 월 이봉창(李奉昌)의사의 동경의거 [21]와 4 월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상해의거는 한·중양국의 항일협력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를 통해 일본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등의 요인들을 처단한 의거는 당시 중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내 모택동과 장개석 등 국공노선의 각기 다른 지도자들 모두 상해의거를 높게 평가하였다. 윤의사의 의거를 통해 임시정부와 국민당정부의 관계 증진이 가능해졌다. [22] 또한 이 두 의거를 통해 1931 년 7 월 일제의 이간으로 발생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과 이에 영향을 받은 한반도 각 지역에서의 한인과 화교들간의 충돌로 격화된 한인과 중국인의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항일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1931 년 9 월,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관동군을 출병시켜 장춘, 길림, 하얼빈, 안동, 안산, 개원, 사평 등의 주요지역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중동철로 경비임무를 맡던 장학량군 소속의 마점산, 왕덕림, 소병문, 당취오등의 장교들이 이끄는 부대는 관동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때,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은 당취오부대와의 협조하여 관동군과 접전하였다. 당시 조선혁명군 참모장이었던 김학규장군(金學奎)은 1932 년 4 월 당취오부대와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중 연합 무장투쟁을 전개 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같은 헤 10 월 중순까지 한·중 연합군은 관동군과 200 여 차례에 걸쳐 교전하였다.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은 만주지역에서 항일활동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규모 전투가 아닌 유격대전술과 선전을 통한 아군의 단결강화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좌우익연합정부구성을 시도하여 무장투쟁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내독립운동과 연계하여 활동범위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한시준,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33 집, 2009. 8, pp. 68-92

[21]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6 집, 2006. 3, p. 158。

[22]김광재, 윤봉길의 상해의거 '중국측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p. 39-40。

만주사변 이후 역내 한인 주도의 항일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졌던 1930 년대에 한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연군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북항일연군 가운데 한인이 많았던 1 군과 2 군은 한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였다. 약 2 천 명으로 추정되는 동북항일연군 제 2 군의 경우 절반이 한인이었다. 연군은 관동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작전에 주력하고 성과를 거둬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1936-1937 년 경 동북항일연군내 주요 한인 간부 현황〉[23]

제1로군	1군	1936년7월	참모장 안광훈 , 1사 참모장 이민환, 2사 참모장 이희민·이광조, 정치부 주임 전광(본명: 오성윤) , 8단장 현기창,3사 정치부 주임 유만희
	2군	1936년3월	정치부 주임 전광, 4사 사장 안봉학, 참모장 박득범,1단장 최현, 정치위원 임수산, 6사 사장 김일성, 7단장 김주현, 정치위원 홍범·김재범, 독립여1단장 최춘국
제2로군	4군	1936년4월	정치국 주임 황옥청 , 정치주임 강산 , 2사부사겸4사단장 이학복 , 정치부 주임 최용화, 참모장 최용건, 4사정치부 주임 박덕산
	5군	1936년2월	2사 4단 정치위원 김광협, 5단 정치위원 박동화, 3사8단 정치위원 강신태, 경위여1단정치위원 강신일
	7군	1936년11월	대리군장 최용건, 군장 이학복, 당·정 위원회 집행위원 김철우, 특별위원 김품삼, 1사 정치위원 이일평 , 3단장 김창해, 2사 참모장 김탁, 4사장 김세창
	8군	1937년7월	1사 정치위원겸3사 정치부주임 김근
제3로군	3군	1936년8월	군장 허향식 , 정치국 주임 김책
	9군	1937년1월	정치국 주임 허향식
	11군	1937년10월	정치국 주임 김정국

2. 4 중국국민정부와 한국임시정부의 협력

1931 년 만주사변이후 한•중항일투쟁은 하북성 산해관 동쪽의 관외지역에서는 동북항일연군과 동북인민혁명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관내지역에서는 임시정부와

[23]국사편찬위원회, db.history.go.kr/item/pdfViewer.do?levelId=nh_050_0040, p.355。

국민당정부의 협조를 통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항일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한•중협력과정에서 양국이 수평관계를 유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 임시정부는 항일투쟁과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1943 년 11 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을 대신해 중국이 일제 패망후 한국의 독립을 제의한 것은 당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었다면 양국 정부주도의 협조는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일본의 중국본토 침략을 견제하고 소련의 남하정책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국민당정부는 소련의 팽창견제 [24] 와 해방후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염두 해두고 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이다. [25]즉, 양국의 항일협력은 명분에 실리가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1924 년 1 차 국공합작시기에 건립되었던 황포군관학교는 양국의 그 명분과 실리의 부합에 근거한 항일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인독립단체는 무장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의 충원과 중국측의 중국내에서 한국의 독립운동 역량 확대를 통한 항일전선의 강화라는 실리와 독립과 국권회복이라는 명분이 잘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군관학교 출신들은 이후 한인 좌우진영에서 항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24]구대열, 「2 차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 28 집 제 2 호, 1995. 5, pp. 750-751

[25]裴京漢, 「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中日战争时期蒋介石・国民政府的对韩政策」, 歷史學報 第 208 輯, 2010. 12, pp. 290-291

〈1930-40 년대, 황포군관학교졸업 한국인과 참가독립단체〉[26]

단체명칭	간부성명
조선혁명군 정치간부학교 (1932.10-1935.10)	김원봉, 이집중, 노일룡, 권준, 김종, 이검운, 박건웅, 신악, 이춘암
조선민족혁명군 (1935.7-1945)	김원봉, 이집중, 김종, 박효삼, 손두환, 채원개, 신악, 장흥, 박시창, 이춘암, 안동만, 송욱동, 조국동
조선의용군 (1938.10-1942.5)	김원봉, 이집중, 김종, 신악, 송욱동, 박효삼, 이춘암
한국광복군 (1940.9-1945)	김원봉, 이집중, 신악, 송욱동, 이해명, 김종, 권준, 채원개, 박시창, 양검, 이평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대 중경정부시기)	김원봉, 박건웅, 이집중, 손두환, 권준, 송욱동, 박시창, 이건후

1927 년 제 1 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 국민당 정부의 북벌에 참여한 한인청년들 중, 일부는 만주지역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광주의거에 참여하여 공산주의단체에서 항일운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청년들은 남경국민당정부 산하의 당, 정, 군 계열에서 종사하면서 국민당정부와 한국임시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1934 년 동아일보는 중국군대 내에 소속된 한국인 장교가 중앙군 130 여명, 서북군 40 여명, 동북군 38 명, 천군 27 명, 제 19 로군 18 명, 운남군 12 명 등으로 300 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는데 [27] 이들은 모두 한 · 중 연합항일활동의 중심추 역할을 하며 한인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일운동단체에 긍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1937 년 7 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한 · 중 항일작전은 일제와의 전면전을 위한 연합군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중일전쟁시기(1937-1945)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몇 차례의 청사를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투쟁의 방식이 변하게 된다. 특히 중경정부 시기 독립운동은 좌우합작을 시도하고 전면적 무장투쟁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26]김정현, 「 제 1, 2 차 국공합작기(國共合作期)의 한, 중 연대활동 -黃포軍官學校(황포군관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46 권 0 호 (2012), p. 141

[27]杨昭全等:《关内地区朝鲜人反日独立运动资料汇编》(上),第 716 页。

〈1937 년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

지역	시기
창사시기	1937년12월~1938년7월
광저우시기	1938년7월~1938년11월
류저우시기	1938년11월~1939년5월
치장시기	1939년5월~1940년9월
충칭시기	1940년9월~1945년11월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형세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중연합항일 투쟁의 새로운 전기로 이어지게 된다. 1942 년 8 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한국재화혁명역량부조운용지도방안(對韓國在華革命力量扶助運用指導方案)" [28] 을 정식 입안하였다. 당시 국민당정부는 재정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지만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산하의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 한•중 항일공조의 역사적, 현재적 의의

일제의 패망까지 한·중 항일공조는 지속되었고, 양국은 독립과 국권회복을 이루었지만 곧 이어진 냉전체제하의 한반도에 대한 미소갈등의 영향과 중국의 국공내전의 과정에서 한·중 항일공조의 기운은 승화되지 못한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 처음 다시 만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은 냉전기간 동안 서방진영에 속하며 반공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중공을 적대시하고 자유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접점을 이어갔다. 중국 역시 한국을 남조선으로 언급하며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통해 한민족과의 교류를 이어갔다. 하지만 1992 년 수교 이후 양국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며 한국은 중국을 이데올로기적인 중국 아닌 경제협력동반자로서의 중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5 년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정책과 "AIIB"에 한국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9] 이러한 배경에는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한반도와 중국의

[28]추현수, 『한국독립운동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673~674

[29]共识网：赵大熙、姚锦祥、王东阳,《韩国视角下的“一带一路“》,

교류가 형성한 우의가 깊다는 배경도 있겠지만 빠른 속도의 관계회복의 근저에는 작금의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민족역량 위기시기에 양국의 공동항일운동의 경험이 촉매역할을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1 동북아 지역 세력균형과 공존공영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일제의 침략을 받아 큰 시련을 겪었다. 이후 국권회복을 회복했지만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30]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흐트러지던 시기 때마다 강대국간의 충돌의 장은 한반도였다. 1894 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으로 중국은 역내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1904 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일본은 이 지역 수위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반세기 이후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냉전시기에도 한반도는 동서양 진영의 갈등이 표출되는 곳이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북핵문제가 동북아 안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31]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상승은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대 이후 대한제국 혹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에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이 지난 150 여 년 동안 일본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과거의 한•중 공조가 항일투쟁을 통한 민족역량의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면 오늘날의 한•중 공조는 작금의 동북아정세를 반영한 양국이 역내 안정을 주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파괴는 민족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세기 일제침략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양국만의 이익을 넘어서 역내 정치, 경제, 군사적 질서안정을 확보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3. 2 민족의식과 한반도

항일독립운동 시기 민족주의 계열은 당시 국민당과의 협력을 통해 항일전선을 형성했고 공산주의 세력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일본에 대항하였다. 이들 세력은 해방 이후에는

---

http://www.21ccom.net/articles/world/qqgc/20150526125087.html，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30]徐万民：《中韩关系史》（近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年版，第 1 页。

[31]金景一、金强一：《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载《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 年第 4 期，第 5~12 页。

남한과 북한에서 중심세력으로 국가 정체성 형성에 일정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중 협력은 현존하는 남한과 북한의 형성과 그 가치관아래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한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항일 투쟁의 역량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남북간의 체제이질화, 군사적 대치가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다.[32] 하지만 항일독립운동 시기 한민족이라는 명칭으로 민족역량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기억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고 한•중 연합항일전선에서 민족주의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공유했던 목표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념이나 장벽과 같은 유무 형의 장애물은 통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즉, 통일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33]

유럽은 19 세기가 민족의식 형성의 출발점이었다면 한민족은 이미 13 세기말 40 년의 대몽항쟁과 16 세기말 임진왜란시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공고히 하였다. 강력한 외세의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차별을 넘어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식했던 것이다 즉, 저항적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민족의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연합을 통한 식민지 시기의 항일운동은 통일 이후 세대의 민족정체성 함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중국과의 연대를 시도했다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또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단합의 또 다른 증거이며 민족주의의 발흥이 역내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다른 민족과의 공조를 통해 평화를 지향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다.

3. 3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국가정책과 구성원들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5 년 한국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개발자금을 지원받는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충분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발전을 진행한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었다. 또한 사회지도층인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32]参见刘福江:《朝鲜半岛和平统一进程中的难点问题论略》，载《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03 年 11 月，第 41~44 页。张琏瑰:《朝鲜半岛南北双方统一政策演变和南北关系》，载《韩国研究论丛》2003 年，第 42~51 页。

[33]曹长盛:《从德国的统一看朝鲜统一问题》，载《国际政治研究》1997 年第 4 期，第 27 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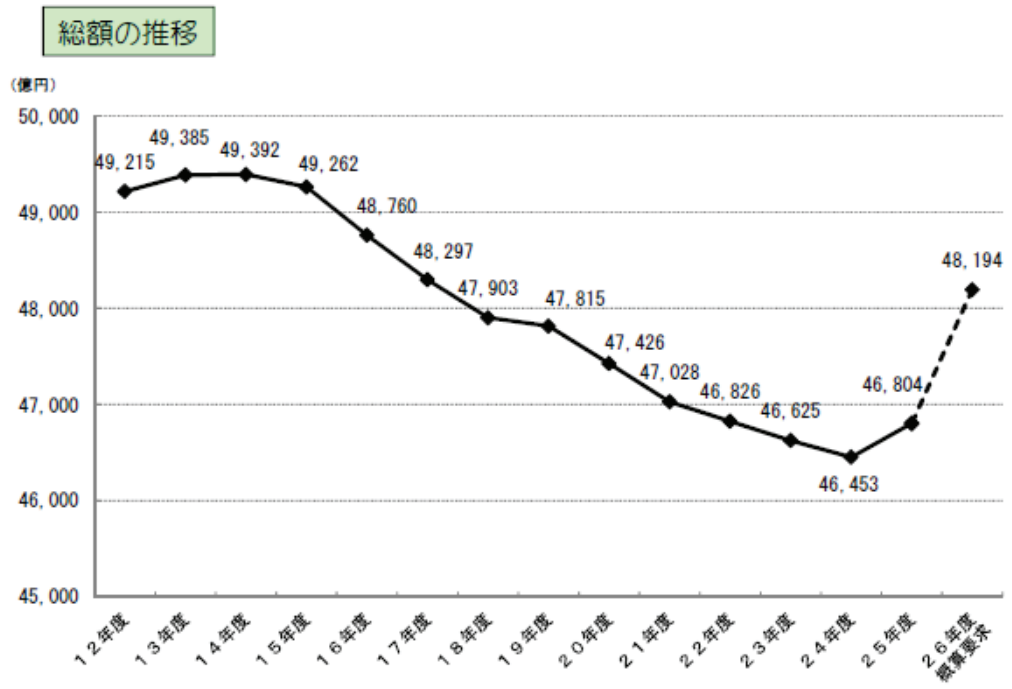
중요한 기준이 당사자 또는 직계존속과 친인척의 친일행위의 여부라는 것은 일제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끼쳤던 전 방위적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하게 한다. 또한 청산되지 친일파문제가 여전히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항일운동시기 중심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에 대한 재인식과 긍정적 평가는 작금의 일본의 안보역량강화가 가져오는 동북아 지역 지정학적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3 년 6 월 일본 내각 각의보고서 "일본부흥전략(日本再兴战略; Japan is back)은 90 년대부터 지속된 "잃어버린 20 년"이 일본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4] 그러나 아베정권의 일본부흥전략은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평화헌법하의 전수방위에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 중의원의 '신안보법제 '심의[35]는 이미 군사력 강화시도가 일정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34]「日本再興戦略(案)-JAPAN is BACK」、2013 年 6 月 14 日、1~4 頁。

[35] 《日本众院审议安保法案》，环球网
2015 年 5 月 27 日，http://world.huanqiu.com/hot/2015-05/6541853.html （검색일, 2015 년 5 월 29 일）

〈일본 방위비의 변화추이〉[36] (12 年度=2000 년)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증진과 질서유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7] 이는 기존 방위정책의 핵심인 전수방위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년 12 월 4 일, 일본안전보장회의 신설하고 정치와 안보영역의 연관성의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38] 12 월 17 일에는 이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통과시켰다. 2014 년 3 월 11 일, 일본은 방위장비이전 3 원칙"을 "무기수출 3 원칙"으로 변경하고 일본의 무기와 군수기술의 해외이전의 길을 열었다. [39] 즉, 일본은 경제대국이 아닌 정치대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

[36]日本防卫省:《我が国の防衛と予算ー平成２６年度予算の概要》,
http://www.mod.go.jp/j/yosan/2014/gaisan.pdf, 第 50 页, 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37]日本外務省:「日本の安全保障政策」、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6622.pdf、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38]日本首相官邸:「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aigi/konkyo.html、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39]日本外務省:「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824.pdf、
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40]日本防衛省・自衛隊,「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그리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41] 2015 년 4 월 27 일에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활동범위의 제한을 폐지하여 전세계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집단자위권의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과 중·일간에 분쟁이 있는 도서영토의 방위력 강화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협조메커니즘을 설립하여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었다.[42] 특히, 신 지침은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한미일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전후 70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은 다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정치학의 독립변수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염두 해두고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을 통한 중국의 견제력 강화라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대 동북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역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위험한 국가[43]로 일본은 덜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44] 그러므로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량은 미국의 인정하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41]産経新聞:「集団的自衛権　首相「専守防衛変わらず」掃海は非戦闘時に実施」、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78-san-pol、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42]防衛省:「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２０１５年４月２７日」http://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pdf/shishin_20150427j.pdf、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43]Stephen M. Walt，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1985 pp. 3-43

[44]2014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p.4, 6, 14.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4/0314_sdr/qdr.aspx.

〈미중일 삼국의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의 변화〉[45]

	1970年代	2000年代	近未来"一"	近未来"二"
	圈的大小：影响力的大小 地区主导权 美 中 日	美 中 日	美 中 日	美 中 日
特点	데탕트시기에 접어들면서 미소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양분한다. 일본은 더욱 미국의 군사역량에 의존하고 중국과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접촉한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주도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굴기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일본 역시 중국을 역내 수위국가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한다. 중일간의 갈등이 증가한다.	역내 중요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한다. 미중양국은 역내에서의 이해관계의 상당부분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무모한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는다. 미중일 역내 강국간의 신안보협력이 체결되고 일본은 아시아의 캐나다화 된다..	역내 주도권을 위한 미중일 삼국의 갈등이 증가한다. 이들국가간에 불안정다극체제가 형성된다. 일본은 1차세계 대전의 독일과 같은 역내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중미관계가 개선된다.	긍정:경제, 환경 등 부문의 협력증가 부정:경제마찰 증가	긍정:미중양국간의 공동이익이 증가. 양국이 역내질서안정을 주도. 부정: 양국의 갈등도 증가	긍정:양국모두 일본의 역량강화 억제시도 부정:책임회피(Buck-Passing)현상	
미일동맹	긍정:군사안보협력증가, 가치관 동맹형성 부정:동맹유지방위비 증가, 경제마찰	긍정:동맹역량의 상승 부정:일본은 부분적으로 역내 주도권을 발휘	부정: 양국간의 신뢰도 감소	
동북아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억제	긍정:반테러리즘과 북핵문제 공조 부정:중국과 미일동맹의 갈등증가	긍정:미중양국이 역내 질서의 안정 주도 부정:불안정 다극체제의 문제 발생가능성	부정: 불안정 다극체제 형성	

[45] 赵大熙：《日本安倍政权的安保政策研究》，《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2015，硕士

4. 결론

고대부터 지속된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는 지난 세기 주권회복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경험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냉전기간의 적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중 교류 이후 양국이 빠른 속도로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46] 관계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무역국이며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원료수입국이며 해외 투자국이기도 하다는 것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다시 한번 공동체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 일본의 동북아지역내의 영향력 확대는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수립한 평회헌법체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등으로 단기간내의 개선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역내 수위국가의 위치를 회복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일본을 미국과 관계정립이전에 거쳐야 하는 전초전 성격의 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47] 중•일관계의 회복 역시 낙관할 수 없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한•중 일 3 국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100 여 년 전 한•중 협력은 항일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의 한•중 협력은 일본까지 포함하여 역내 번영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한•중 연합 항일전선의 정신적 통합의 기반을 조성했던 안중근 의사는 일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동양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국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는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을 배격하였다.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안중근의사의 동북아번영을 위한 구상을 재고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북아의 미래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46]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p.169-172

[47]Lim, Yves-Heng, *China's naval power : an offensive realist approach*, Burlington: Ashgate Pub. Limited, 2013, p. 20.

참고문헌

한국어자료

구대열, 「2 차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 28 집 제 2 호, 1995.5

김영범외,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김정현, 「 제1,2 차 국공합작기(國共合作期)의 한,중 연대활동 -黃포軍官學校(황포군관학교) 인맥을 중심으로」,〈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46 권 0 호, 2012

신규섭, 1920 년대 후반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 鮮滿一體化'의 좌절과 '三矢협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9 집, 2004.6

이만열, 「21 세기 민족문화진흥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국학연구 제 8 집, 2006. 6,

이용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

추현수, 『한국독립운동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한시준,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33 집, 2009.8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6 집, 2006.3

裴京漢, 「 중일전쟁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中日战争时期蒋介石、国民政府的对韩政策」, 歷史學報 第208輯, 2010.12 관훈클럽, 「중국인 눈에 비친 안중근의사 의거」, Vol.- No.112, 2009

김광재, 「윤봉길의 상해의거 '중국측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2002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tem/pdfViewer.do?levelId=nh_050_0040 (검색일 : 2015 年 5 月 1 日)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CF17ADF0185126B5C1755DF4993A4D0B?levelId=su_009_1930_06_15_0680 (검색일 : 2015 年 5 月 1 日)

2001.12.24, "백제왕 자손이 옛 천황생모"」, 중앙일보 2001.12.2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96313&ctg=, (검색일 : 2015 年 5 月 21 日)

중국어자료

康基柱, 『中韩互助社研究』, 亞細亞文化硏究第二輯, 1997.12,

金景一´ 金强一 :《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 载《延边大学学报》(社会

科学版) 2008 年第 4 期

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 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

杨昭全等：《关内地区朝鲜人反日独立运动资料汇编》(上)

刘福江：《朝鲜半岛和平统一进程中的难点问题论略》, 载《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03 年 11 月

徐万民：《中韩关系史》(近代卷), 社会科学文献出版社

王芸生：《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 1 卷, 三联书店 1979 年版

张琏瑰：《朝鲜半岛南北双方统一政策演变和南北关系》, 载《韩国研究论丛》2003 年

曹长盛：《从德国的统一看朝鲜统一问题》, 载《国际政治研究》1997 年第 4 期

辽宁大学历史系：《简明中国古代史》

赵大熙：《日本安倍政权的安保政策研究》,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 2015, 硕士

【韩】姜吉仲：《北宋与高丽间的贸易及文化交流关系》, 载《宋史研究论丛》2008 年第 1 期

【韩】金俊烨：《我的长征》, 东方出版社 1995 年版

【韩】朴殷植：《韩国独立运动之血史》(下)

【韩】赵琬九：《韩国临时政府奋斗史略》, 《韩民》第 1 卷, 第 5 期, 1941 年 6 月 15 日 중앙일보

中韩协会《光明》月报 1 卷 1 号

共识网：赵大熙′ 姚锦祥′ 王东阳, 《韩国视角下的“一带一路”》, http://www.21ccom.net/articles/world/qqgc/20150526125087.html, 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新华网：《击毙伊藤博文的安重根义士纪念馆在中国开馆》, http://japan.xinhuanet.com/jpnews/2014-01/19/c_133057040.htm, 访问时间：2015 年 5 月 3 日

环球网：《日本众院审议安保法案》, 2015 年 5 月 27 日, http://world.huanqiu.com/hot/2015-05/6541853.html , 访问时间 ：2015 年 5 月 29 日)

2014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4/0314_sdr/qdr.aspx.

영어자료

C. Walter Young, 「Sino-Japanese Interests and Issues in Manchuria」, Pacific Affairs, Vol. 1, No. 7 (Dec., 1928)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1985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Lim, Yves-Heng, *China's naval power : an offensive realist approach*, Burlington: Ashgate Pub. Limited, 2013.

일어자료

日本防卫省：《我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２６年度予算の概要》, http://www.mod.go.jp/j/yosan/2014/gaisan.pdf, 第 50 页, 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日本外務省：「日本の安全保障政策」´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6622.pdf´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日本首相官邸：「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aigi/konkyo.html´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日本外務省：「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824.pdf´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日本防衛省•自衛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産経新聞：「集団的自衛権　首相「専守防衛変わらず」掃海は非戦闘時に実施」´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78-san-pol´ 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日本防衛省：「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２０１５年４月２７日」 http://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pdf/shishin_20150427j.pdf´ 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抗日战争期间的中韩合作

赵大熙, 姚锦祥
北京大學

摘要

本文首先叙述了中韩合作的历史背景，探讨了中韩两国的传统友谊以及在中韩交往中日本因素的不断上升。之后以抗日战争时期的中韩战争为例，叙述了两国军队和人民如何合作共同应对日本的殖民侵略，并最终取得独立。最后，本文试图分析抗日期间中韩合作的历史和现实意义，思考在反法西斯战争胜利 70 周年之际，我们如何去反思历史，面对未来。

由于长期以来中韩物质上和精神上的交流，尤其是上个世纪两国人民共同联合抗击日本侵略的历史记忆，使两国真正成为某种“命运共同体”。自从日本因素在东北亚出现以来，一直给地区带来了诸多不稳定的因素，乃至战争。目前中国正在重新恢复东亚地区内的主导地位，地区秩序面临着极大的挑战。日本不仅站在了目前中美竞争的最前台，而且不断强化自身的军事实力，突破二战之后对它的束缚。毫无疑问，日本未来的走向再次令我们担心。

东亚地区的繁荣与发展最终离不开中日韩三国的合作与协调。100 年前，中韩联合抗击日本侵略，最终取得胜利。100 年后，中韩需要再次携起手来，这并非是要与日本进行军事对抗，而是要通过合作使日本确立新的历史观和发展观。这是中韩两国的历史使命，也是亚洲发展繁荣的重要途径。

关键词

中韩合作、日本、战争、地区秩序

中国和朝鲜半岛国家的关系源远流长，两国人民的交往密切。中日甲午战争以后，中朝的宗藩关系正式宣告结束。这就为在平等基础上实现两国关系正常化提供了历史机遇。但是，日本的侵略、特别是日本对朝鲜的殖民统治中断了这一进程。在思考中韩关系的历史及未来发展时，这一段的历史非常重要。尤其是在今年反法西斯战争胜利 70 周年的特殊时刻，以及东北亚安全局势发生的微妙变化，思考这段历史以及它所给予我们的启示就非常重要。

一、中韩合作的历史背景

（一）古代中韩关系与日本因素的出现

中韩两国自古以来就有很密切的关系，其中唐代与新罗的关系，是中韩关系史上的一个重要篇章。在近三个世纪（公元 618~907 年）的时间中，两国在政治、军事、经济、文化方面都有着密切的交往与联系。尤其是双方的政治同盟和军事合作关系，为两国的经济往来和文化交流创造了有利前提。[1]

进入北宋时期，北宋与高丽长期友好，两国之间有着频繁的贸易往来和文化交流，从而对增进两国人民的友谊和促进两国社会的进步产生过积极作用。这种贸易主要通过“朝贡”、“回赐”的形式进行，两国之间经常互赠礼物，而这种互赠实际上就是一种变相的贸易关系。高丽对于宋朝的接近政策，比起政治军事方面在经济文化交流方面更积极地迎合，从而大大地促进了高丽经济文化水平的提高。[2]

而进入元代之后，两国之间的交往更加频繁，两国各阶层人士的频繁往来与广泛接触，不仅促进了两国经济、文化、科技方面的交流，而且对两国的传统友谊、社会进步、经济发展和文化进步都起到了积极作用。[3]

进入明代之后，一个重大的事件——“壬辰倭乱”改变了中韩关系未来的发展趋势，即“日本”因素开始浮现。中韩两国一开始对日本并不抱有消极看法，实际上古代韩半岛与倭国的关系非常密切。[4]但高丽末期倭寇的侵略，加上之后的壬辰倭乱，日本的形象和作用发生了实质性的变

[1] 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第 4~11 页。

[2] 【韩】姜吉仲：《北宋与高丽间的贸易及文化交流关系》，载《宋史研究论丛》2008 年第 1 期，第 180 页。

[3] 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第 82 页。

[4] 明仁日王谈及「续日本记」的桓武日王是百济武宁王的后裔。这是日王第一次正式表示日本王室跟百济的相关性。「"백제왕 자손이 옛 천황 생모"」，중앙일보 2001.12.2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96313&ctg=，访问时间：2015 年 5 月 1 日。

化。而在这个过程中，中韩两国的合作，尤其是军事协作水平发展到了一个相当的高度。通过两国军队的通力合作，最终把日本侵略军逐出了朝鲜半岛全境，保证了中韩两国的安全，维护了两国的统一和完整。

“壬辰倭乱”对中韩两国影响深远。通过在倭乱时期对抗日本，韩民族的民族同一性得以巩固，民众无论身份的差异，都团结起来破敌。从这时起，韩国逐渐形成了对日本的否定态度和对中国的肯定态度。而中国方面，在明朝支持朝鲜抗日后，陷入了更深的国家财政危机，不久之后被清朝所取代。这给中国人带来了巨大的影响，因为日本开始有能力影响到中原王朝的兴衰和更迭。

（二）近代中韩关系和日本因素的上升

可以这么说，中韩早在抗倭战争中用鲜血结成了牢不可破的战斗友谊。[5]然而丰成秀吉所发动的这场战争却激发了日本人的海外扩张精神，对其侵略罪恶的歌功颂德也为之后的伊藤博文、田中义一、东条英机侵略朝鲜和中国的行为提供了历史渊源和理论依据。

近代中韩关系的时间段大概是 19 世纪 60 年代到 1945 年抗日战争的胜利，联合抗击日本的侵略成为这一时期中韩关系史的基本内容。一方面，对中韩传统的宗藩关系要加以改变，构造新的平等的关系，以共同对抗殖民侵略。另一方面，日本在这个过程中也不断离间中韩关系，为两国的合作制造种种障碍。[6]

1868 年明治维新之后，日本迅速成为东亚地区最先进的国家。不幸的是，日本选择了侵略中国与朝鲜半岛的道路。[7]吞并朝鲜半岛，成为了日本实现其大陆政策的首要目标，木户孝允、西乡隆盛等人很快开始倡导“征韩论”。日本采取一系列措施，斩断了中朝之间宗藩关系的纽带，使朝鲜取得“独立”的同时，开始将殖民主义强加给中韩两国。在壬午兵变和甲申政变两次失败的教训后，日本开始积极扩军备战，集聚打败中国和朝鲜的力量。

一个重大转折是 1894 年的甲午战争，此后中日在东亚地区的地位发生了历史性的变化，日本开始在东亚真正占据主导地位，并加快了吞并朝鲜的进程。1905 年 11 月 18 日，日本通过非法的《乙巳保护条约》，将统监政治强加给了韩国。合并韩国的目的是占领通向中国的桥梁，韩国成为准备和进行战争的前沿阵地。这个时候开始，中韩成为了真正意义上的命运共同体，围绕“抗日”和“独立”展开了积极的合作。

---

[5] 辽宁大学历史系：《简明中国古代史》，第 304 页。

[6] 徐万民：《中韩关系史》（近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年版，第 1 页。

[7] 王芸生：《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 1 卷，三联书店 1979 年版，第 4 页。

二、抗日战争期间的中韩合作

韩国独立运动最根本的力量当然在国内，但韩国同时也在许多国家建立了广泛的独立运动根据地。而中国是韩国独立运动最大，也是最重要的根据地。中国根据地的重要作用也是其他地方所无法替代的。

当时的中国有数百万的韩国移民，可以向独立运动提供大量的人力资源和经济支持。在金九先生看来，“图们江、鸭绿江对岸的土地肥沃，地势险要，可以移民养兵，是很好的用武之地”。[8]“从目前形势来看，应迅速渡过鸭绿江，以图将来大业，方为上策。”[9]从 1895~1909 年期间，有大批的韩国人进入东北地区，继续斗争。

（一）东北抗日根据地的建立

殖民地时期，朝鲜人独立运动的主要地区不是韩半岛而是满洲地区。从 19 世纪中期，为了避免半岛内经济情况的恶化与社会动荡，很多韩国人逃往满洲地区。而韩国革命者大批移居中国，是在 1910 年日韩合并之后。这一时期值得一提的是 1909 年安重根义士在哈尔滨击毙元凶伊藤博文的事件。这一事件激发并强化了两国民众共同抗日战线的基础。1909 年 10 月 26 日，在安重根的义举之后，世界舆论纷纷为伊藤博文悼念，日本控制下的韩国的媒体也与此类似。但中国的媒体反而比较客观地介绍了安重根的义举，有些媒体用“报了中国的冤仇”来表现中日之间的外交摩擦。还有一些媒体表示，“清朝的处境跟朝鲜一样”，“高丽的仇敌就是我们的仇敌”，从而进一步强调中韩之间唇齿相依的关系。[10]中国的这种观点在当时是非常重要的，给予了韩国人民以巨大的支持。后来的周恩来总理曾说：“中日甲午战争后，本世纪初，安重根行刺伊藤博文，就在哈尔滨火车站。两国人民共同反对日本帝国主义的斗争就开始了。”[11]它构成了中韩抗日运动联合战线形成的重要契机。

此后为了防止新民会的主要人物被一网打尽，包括金九、安昌浩在内的许多革命义士，开始到中国东北活动，并制定了具有重要历史意义的“建设独立军计划”。许多独立运动革命者迁徙到满洲，倾注全力建立独立军。[12]

---

[8] 【韩】金九：《白凡逸志》，民主与建设出版社 1994 年版，第 45 页。

[9] 【韩】金九：《白凡逸志》，民主与建设出版社 1994 年版，第 108 页。

[10] 관훈클럽, 「중국인 눈에 비친 안중근 의사 의거」, Vol.- No.112，2009, p.233, 238。

[11] 新华网：《击毙伊藤博文的安重根义士纪念馆在中国开馆》，
http://japan.xinhuanet.com/jpnews/2014-01/19/c_133057040.htm，访问时间：2015 年 5 月 3 日。

[12] 【韩】金俊烨：《我的长征》，东方出版社 1995 年版，第 18 页。

实际上，在 20 世纪 20 年代左右，由于满洲地区特殊的地理位置，它成为地缘政治上的要冲地区，在中日关系、苏日关系中的地位非常敏感。在一战刚刚结束的时候，国际社会就开始关注满洲地区未来的均势方案会如何发展。[13]随着中日在满洲地区冲突的可能性逐渐增大，移居在满洲的朝鲜人成为中韩联合抗日的基础。其中，在吉林通化县，日本占领韩半岛后，李会荣，李始荣，李相龙等不少的独立运动家去建设独立军基地的新兴学校。1919 年大韩民国临时政府在该地区内设立西路军政署，新兴武官学校能够帮助培养独立军的军官。总体而言，东北根据地这一时期发挥的主要作用是：开展移民工作，保证足够的兵源；筹集军费，使独立军有稳定的资金来源。早期东北抗日根据地的建设为后来革命的发展做好了前期准备。

（二）中华民国与大韩民国临时政府

这一时期主要涉及 1919 年到 1931 年的九一八事变，这一时期韩国问题始终在中日外交中占据十分重要的位置。日本不仅要求中国政府与其合作，巩固其在韩国的殖民统治，镇压在东北的韩国独立军。而且还计划吞并中国东北，实行“鲜满一体化”，这严重恶化了中日关系。

当时的中韩两国，共同发生着两场伟大的运动，即“五四运动”和“三一运动”，它们都是东亚民族解放运动史上划时代的历史事件。韩国独立运动在中国也得到了极大的响应，中国所有有影响力的报纸都详细报道了三一运动的起因和规模。中国境内的数据统计如下所示：

县名	集会次数	集会人数	死亡人数	受伤人数	被捕人数
怀仁	13	7000		47	
龙井	17	30000	20	23	
哈尔滨	2	1000			
珲春	4	5000			
连物县	5	5000	14	40	
通化县	2	不明		15	[14]

我们看到，在三一运动爆发后不就，中国的五四运动相继爆发，这绝对不是一个巧合。两大运动实现了某种“合流”，中韩两国组织建立了新亚同济社，增进了韩国革命党领导人和孙中山领导的国民党人之间的了解和友谊，为之后双方的合作奠定了基础。

[13] C. Walter Young, 「Sino-Japanese Interests and Issues in Manchuria」, *Pacific Affairs*, Vol. 1, No. 7 (Dec., 1928), pp. 6-15

[14] 参见朴殷植：《韩国独立运动之血史》（下），第 42 页。

三一革命失败之后，由韩国国内及中国中国东北、华北及美、俄等地来上海的革命志士及侨民迅速增加。4 月 13 日，大韩民国临时政府正式宣告成立，政府所在地设在上海。[15]这是韩民族存在于国外的民族主权和唯一的政府，上海也自然成为了“韩人光复运动之总根据地”。[16]此后 26 年的时间里，大韩民国临时政府几经迁徙，但全部的时间都是在中国的土地上度过的，构成了中韩友谊史上十分重要的事件。

临时政府产生的另外的结果是 1921 年中国各地形成的中韩互助社活动，其目标是谋求韩国独立运动家跟中国民众的友好关系，并推行反帝国主义活动。[17]当时毛泽东、陈独秀等人也加入了该团在湖南长沙的支部。[18]临时政府外务部的赵重九等人于 1921 年 3 月至 8 月期间，在华南地区的主要城市巡回宣传韩民族独立运动，其运动一直继续到 1945 年。韩中互助社不但推动了两国共同抗日力量的强化，而且使两国的传统友谊发展到新的历史阶段。通过中韩互助社在政治、经济、文化领域上开展的运动，推动了抗日目标的实现。[19]

当时韩国临时政府对中国的要求是，一是在道义上和物质上给予援助，而是对临时政府在中国的活动给予最大限度的自由。但北京政府此时和日本有正常的外交关系，而且中国国力又很弱，所以也不敢公然表示支持韩国的独立运动。所以北京政府倾向于暗中给予同情和支持，而同时孙中山领导的南方政府也给予了韩国很大的支持。

实际上，当时有很多韩国人参与了中国 1927 年开始的大革命，并付出了巨大牺牲，对中国人民的解放事业做出了贡献。而韩国在东北的方针也从和平示威转向激烈的武装游击战争，给日军造成了沉重的打击，其中比较著名的是北路军政署和西路军政署。

（三）中朝联军和东北抗日游击战争

从 1931 年东北沦陷到 1945 年抗日战争的胜利，中韩两国共同推进了长达 14 年的抗日游击战争，这是最终取得战争胜利的重要保证之一。1930 年 6 月大韩大独立党准备会议机关报『朝鲜的血』在创刊号中说，“日本帝国主义是韩中共同的敌人，只有韩民族恢复自由与平等的时候，日本对中国的侵略野心才会放弃。这足以说明当时中韩之间休戚相关、利益与共的特殊关系。[20]而且，

[15] 【韩】金俊烨：《我的长征》，第 293~294 页。

[16] 【韩】赵琬九：《韩国临时政府奋斗史略》，《韩民》第 1 卷，第 5 期，1941 年 6 月 15 日。

[17] 中韩协会《光明》月报 1 卷 1 号，第 20 页。

[18] 康基柱，『中韩互助社研究』，亞細亞文化研究 第二輯，1997.12，pp. 307-308。

[19] 康基柱，『中韩互助社研究』，亞細亞文化研究 第二輯，1997.12，pp. 307-308。

[20] 김영범 외，『한국 근대 민족 운동과 의열단』，서울：창작과 비평사，1997，p. 286。

1930 年代以后，北京、上海等城市抗日活动的推进，有利于中韩知识分子之间的合作，提高对中韩抗日联合战线对中国民众的积极影响。

在此时在国际层面上，1919 年国际联盟盟约（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和 1928 年的白里安-凯洛格公约（Briand-Kellogg Pact）都能够能够证明大韩民国临时政府武力斗争合法性。[21]但是考虑到各种情况，狙击日本高级将领、支持满洲地区抗日独立活动是当时可以采取的合适的方法，能够极大地补充中方的抗日活动。其中，李奉昌义士于 1932 年 1 月在日本东京试图刺杀日本天皇，失败后被捕牺牲。同年 4 月，尹奉吉义士在上海刺杀日本陆军大将白川义则的义举也给中国社会留下了大的影响。当时无论意识形态的区别，毛泽东、蒋介石等社会精英们都高度评价了他们的行动，并与临时政府建立了密切的联系。中国媒体也做了集中报道。[22]同时，这两个义举也有助于克服 1931 年 7 月以来万宝山事件对中韩关系所造成的负面影响，并成为重新建立和巩固中韩联合战线的契机。[23]

1931 年 9 月 18 日，日本发动九一八事变，派关东军先后占领了长春、吉林、哈尔滨等重要城市，130 多万平方公里的土地被侵占。当地中国民众对日本的暴行十分愤慨，当时保护中东铁路的张学良属下的马占山、王德林等将领主导了满洲地区的抗日斗争。值得一提的是，后来成为韩国光复军第 3 支队长的金学奎将军，率领朝鲜革命军在满洲地区和中国军队展开有效合作。金学奎的朝鲜革命军保持着和中国部队之间的紧密联系，在 1932 年 4 月至 10 月期间，中韩联合军跟日军一共进行了 200 多次的周旋。

中韩东北抗日联军的作用是不可缺少的，联军不进行大规模战斗，却集中于游击战、宣传战等方法。韩国人积极参加到联军的抗日运动中。在联军第二军中，甚至一半是中国抗日军，一半是朝鲜人民革命军。因此，韩国人在最后东北的解放过程中也发挥了巨大的作用。1936~1937 年之间东北抗日联军主要韩国人干部的情况如下表所示[24]：

[21] 李庸中，「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國際法學會論叢第54卷，第1號(通卷 第113號)，

[22] 韓詩俊，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6집, 2006.3, p.158。

[23] 金光載, 尹奉吉의 上海義擧 ‘중국측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p. 39-40。

[24] 국사편찬위원회，db.history.go.kr/item/pdfViewer.do?levelId=nh_050_0040，p.355。

部队		成立日期	主要韩人职责和名单
第1路军	1军	1936年7月	参谋长 安光熏， 1师 参谋长 李敏焕, 2师 参谋长 李希敏·李兴绍, 政治部 主任 全光（原名：吴成崙），8团长 玄基昌，3师 政治部 主任 柳万熙
	2军	1936年3月	政治部 主任 全光，4师 师长 安凤学， 参谋长 朴得范，1团长 崔贤，政治委员 林水山，6师 师长 金日成，7团长 金周贤，政治委员 洪范·金在范，独立旅1团长 崔春国
第2路军	4军	1936年4月	政治部 主任 黄玉清，政治主任 康山，2师副师兼4团长 李学福， 政治部 主任 崔荣华， 参谋长 崔康健，4师 政治部 主任 朴德山
	5军	1936年2月	2师 4团 政治委员 金光侠，5团 政治委员 朴东和，3师8团 政治委员 姜信泰，警卫 旅1团政治委员 姜信一
	7军	1936年11月	代理军长 崔康健，军长 李学福，军·党 委员会 执行委员金铁宇，特别委员 金品三。1师 政治委员 李佾平，3团长 金昌海，2师 参谋长 金铎，4师长 金世昌
	8军	1937年7月	1师 政治委员兼3师政治部 主任 金根
第3路军	3军	1936年8月	军长 许亨植，政治部 主任 金策
	9军	1937年1月	政治部 主任 许亨植
	11军	1937年10月	政治部 主任 金正国

抗联部队始终坚持敌后斗争，不但破坏了敌人大量的交通、矿业、林业设施，鼓舞了东北人民的抗敌斗志，为后来苏联出兵东北对日作战提供了一批极为重要的第一手敌情资料，为东北抗日战争的胜利做出了巨大的贡献。[25]

（四）中国国民政府与韩国临时政府的合作

自 1931 年抗日战争全面爆发以来，关外有中韩联军在东北人民革命军、东北抗日联军的旗帜下英勇奋斗，而在关内则有中国国民政府和韩国临时政府的合作，韩国志士和中国人民及其军队并肩作战，共同迎来了抗日战争的伟大胜利。

事实上，中韩形成的这种联合抗日关系是不对称的，韩方势力更多地需要来自于中国的援助和支持。譬如，在 1943 年 11 月 23 日至 26 日的开罗会议上，中国建议韩国在日本败亡后获得独立地位，就很明显地表现出韩国在抗日运动中依靠中国的必要性。然而如果只是简单的依附关系的话，中韩联合战线不会持续多久，实际上韩国在整个抗日战争中给予国民政府以非常大的支持。而且，从 30 年代后期开始，国民党开始考虑遏制苏联的扩张，为了确保战争结束后对韩半岛的影

[25] 东北抗日联军斗争史编写组：《东北抗日联军斗争史》，人民出版社 1992 年版，第 467 页。

响力，国民政府试图援助和影响临时政府。[26]因此对中国而言，从地缘政治的角度出发，韩半岛对维护和提高中国的利益至关重要。

从第一次国共合作时期黄埔军官学校建立之后，就有许多韩国学生从中毕业，并在武装抗日运动中发挥了极大的作用。这意味着对国民政府来说，希望提高韩国人在抗日斗争中的整体力量，并培养能够领导独立运动的韩国军事人才。1930-40 年代，黄埔军官学校毕业的韩国人代表和参加的团体如下表所示：[27]

团体名字	干部姓名
朝鲜革命军事政治干部学校（1932.10-1935.10）	金元凤，李集中，卢一龙，权晙，金钟，李检云，朴建雄，申岳，李春岩
朝鲜民族革命党（1935.7-1945）	金元凤，李集中，金钟，朴孝三，孫斗煥，蔡元凱，申岳，张兴，朴始昌，李春岩，安东晚，宋旭东，赵国栋
朝鲜义勇对（1938.10-1942.5）	金元凤，李集中，金钟，申岳，宋旭东，朴孝三，李春岩
韩国光复军（1940.9-1945）	金元凤，李集中，申岳，宋旭东，李海鸣，金钟，权晙，蔡元凱，朴始昌，杨俭，李平山
大韩民国临时政府（1940年代重庆时期）	金元凤，朴建雄，李集中，孫斗煥，权晙，宋旭东，朴始昌，李健宇

1927 年国共合作破裂之后，参加北伐战争的韩国青年，一部分参加了广州起义，继续在共产主义者的队伍里奋斗；一部分去了东北，继续从事独立运动；而大部分则是留在南京国民政府所属的党、政、军系统里工作，成为连接中国国民政府和韩国临时政府的桥梁。《东亚日报》1934 年的报道指出，在中国军队内服役的韩国将校就多达 300 多人，中央军 130 余名，西北军 40 余名，东北军 38 名，川军 27 名，十九路军 18 名，云南军 12 名等等。[28]他们都是中韩合作当中的核心和骨干成员。实际上，等到 1937 年卢沟桥事变之后，中韩合作开始由秘密转向公开，由局部转向全面合作。

大韩民国临时政府在战争时期不断迁移，在重庆时期，金九领导的韩国独立运动有了很快的发展，以下是 1937 年以后大韩民国临时政府迁移情况的一览表：

[26] 구대열, 「2 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28 집 제 2 호, 1995.5, pp. 750-751。

[27] 김정현,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46 권 0 호 (2012), p. 141。

[28] 杨昭全等:《关内地区朝鲜人反日独立运动资料汇编》(上)，第 716 页。

地址	年月
长沙时期	1937 年 12 月~1938 年 7 月
广州时期	1938 年 7 月~1938 年 11 月
柳州时期	1938 年 11 月~1939 年 5 月
綦江时期	1939 年 5 月~1940 年 9 月
重庆时期	1940 年 9 月~1945 年 11 月

太平洋战争的爆发推动了远东形势的改变，也为中韩关系的发展注入了新的活力。1942 年 8 月正式拟定了中国国民党中央执行委员会《对韩国在华革命力量扶助运用指导方案》。[29]虽然当时中国国民政府的财政也是十分困难，但依然尽其所能，为韩国临时政府组建光复军提供帮助。

在二战即将取得胜利的时刻，中国政府和韩国临时政府继续谋求盟国保证韩国的独立并承认临时政府。以共同抗日为主要内容的近代中韩关系，最终在胜利的氛围下结束。但接踵而至的是美苏冷战，美苏加紧在韩半岛夺取自己的势力范围，把中国排除在外。而中国也受制于本国的国共内战，在半岛问题上力不从心。而当双方再次见面时，面对的竟然已经是一个分裂的半岛和一场残酷的朝鲜战争。

三、中韩合作的历史与现实意义

冷战期间，尤其是在韩国战争之后，韩国加入了西方阵营并把中国看作敌对的一方，跟台湾长期保持外交关系。而同样，中国也把韩国叫做南朝鲜，否认了韩国的正统性，同时跟北韩（中国称朝鲜）开展合作关系。在这种情况下，两国知道冷战结束以后的 1992 年才正式建立外交关系。虽然仍有很多韩国人对中国的社会主义意识形态持否定的态度，仅仅把中国看作是经济合作伙伴。但实际上许多韩国人真诚地将中国大陆视为朋友，2015 年韩国在一带一路和亚投行上的积极表态就是明显的证明。[30]这毫无疑问受到两国自古以来持续的友好关系的影响，更直接地来说就是上个世纪初跟中国共同抗日的记忆。

（一）地区稳定与发展共荣

历史一再地证明，中韩两国的命运始终是连在一起的。过去，我们共同遭受了日军的侵略和奴役，共同经历了民族复兴的艰难困苦，共同分享了战争胜利的喜悦，也都尝到了战后民族

[29] 【韩】秋宪树：《韩国独立运动》（1），第 673~674 页。

[30] 财新网：赵大熙、姚锦祥、王东阳，《韩国视角下的“一带一路“》，http://opinion.caixin.com/2015-05-25/100812369.html， 访问时间：2015 年 5 月 25 日。

分裂的痛苦。[31]在我们反思历史上的各场战争时，我们不能忽视一个出发点，就是思考朝鲜半岛的历史角色和历史地位究竟是什么？认清楚这点，我们才能对中韩关系未来的发展有一个整体的把握。

实际上，从历史角度来讲，每回东北亚发生秩序转变的时候，冲突爆发的中心都在朝鲜半岛。1894 甲午战争使得以中国为中心的东亚秩序就崩溃了，1904 年日俄战争实际为日本实现大东亚秩序开辟了道路，这些事件都与朝鲜半岛密切相关。本文所重点关注的抗日战争，朝鲜半岛也是一个重要的争夺点。甚至后来的朝鲜战争和冷战结束后的朝核问题，也是与东北亚地区的秩序转变与重塑有关。[32]因此，近代以来日本因素的上升和大东亚战争的发动，绝对不是一个巧合，它的背景正是东亚地区秩序的深刻变化。因此，当我们思考历史和现实问题时，要记住在构建一个新的东北亚秩序是关键。东北亚之所以无法形成合作的气氛，本质上还是因为几个主要大国围绕着朝鲜半岛在进行战略博弈。

从这个角度出发，中韩合作实际上就是在秩序变革期的一种稳定和正面力量。当东北亚地区秩序变化过快、或者有损于地区人民的利益时，中韩就会形成某种命运共同体，推动地区秩序的稳定和合理化。这一点在抗日战争的过程中体现得非常明显。当然，中韩合作的意义并不仅仅局限在这个方面，中韩完全可以通过合作进一步推动地区秩序的完善，以造福于地区人民，塑造出某种利益共同体，这可能也会是未来中韩关系发展的趋势。

（二）民族意识与半岛统一

中韩建交以来，中国一直支持朝鲜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协商改善关系，推进和解合作，最终实现和平统一。[33]但实际上朝韩分歧对朝鲜半岛的统一构成了极大的阻碍因素。[34]双方在统一主导权的争夺、政治体制、军事对峙、经济发展等方面的差异非常大，很难进行调和。[35]而抗日战争是属于朝韩双方最近的一个共同历史记忆。中韩抗日联合战线的共同记忆有助于消除南北的差异，并唤醒民族意识。在抗日运动时期，韩国民族主义系统跟国民党进行合作，形成一条抗日战线。

---

[31] 徐万民：《中韩关系史》（近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年版，第 1 页。

[32] 金景一、金强一：《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载《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 年第 4 期，第 5~12 页。

[33] 新华网：《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踏上新起点》，http://news.xinhuanet.com/world/2012-08/23/c_123618017.htm， 访问时间：2015 年 5 月 26 日。

[34] 陈向阳：《中国对朝鲜半岛统一政策浅析》，载《亚非纵横》2012 年第 5 期，第 23 页。

[35] 参见刘福江：《朝鲜半岛和平统一进程中的难点问题论略》，载《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03 年 11 月，第 41~44 页。张琏瑰：《朝鲜半岛南北双方统一政策演变和南北关系》，载《韩国研究论丛》2003 年，第 42~51 页。

而韩国共产主义系统跟中国共产党合作对抗日本，形成了另外一条抗日战线。这两大势力在解放以后，就成为朝韩两国建国的主要基础。因此在整个韩民族的同一性当中，联合抗日战线占据了很重要的一部分。

韩国民族意识的形成实际上比欧洲地区还要早。早在 13 世纪元朝侵略之前，就开始产生民族意识，之后的“壬辰倭乱”又进一步巩固了这种意识。[36]也就是说，在受到外国势力的侵略时，超越了不同的阶层，形成了一种共同的身份认同，使整个国家的成员团结起来对抗侵略势力。

这某种意义上和德国的统一进程有类似的地方。“柏林墙”也根本无法阻挡德意志民族的认同感，整个民族之间存在着统一的潜流，这是最终实现统一的深厚基础和精神保证。只要国际国内的形势发生变化，这些因素就会发生作用。尽管目前半岛的统一还存在很多障碍，但韩民族存在着强烈的认同感，认定一定要实现国家统一和民族团结，问题就在于采取什么样的形式？[37]而这完全是可以讨论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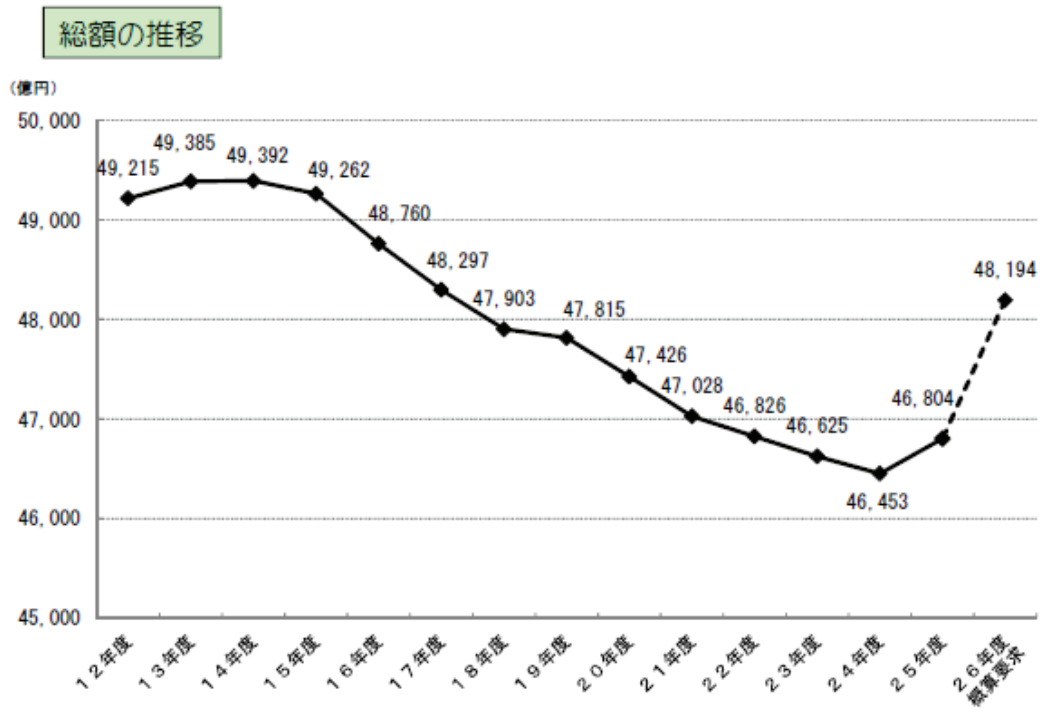
（三）日本因素的未来影响

1965 年韩国政府为了推动经济发展和满足美国的要求，推进了韩日国家关系正常化，但是却引发了民众强烈的反对。对韩国人而言，经过日本的支持来改善落后的经济是一种羞辱。而且，韩国人判断社会领导阶层的素质时，重要的标准之一是相关人物的家庭是否是亲日派。实际上，解放以来的 70 年间，韩国并没有完成对亲日派的清算。由于殖民地时期中国是韩国独立运动的核心地区，因此韩国人对中韩联合抗日有肯定的观点。在目前的现实条件下，这一点更是得到越来越多人的重视。

在 2013 年 6 月出台的《日本再兴战略——Japan is back》报告中，明确指出 20 多年持续的经济低迷对日本经济社会造成了深刻的影响。[38]但日本回归的不仅仅是经济，同时也是军事，日本最近的军事动向确实让周边国家不安。不久之前日本推动修订了新的安全保障法案。因此，在这里我们有必要对目前日本的安全动向做一个简单的分析。

下图即展示了日本国防费用的变化情况——

[36] 이만열, 「21 세기 민족문화진흥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국학연구 제 8 집, 2006.6, pp. 5-30。
[37] 曹长盛:《从德国的统一看朝鲜统一问题》，载《国际政治研究》1997 年第 4 期，第 27 页。
[38] 「日本再興戦略(案)-JAPAN is BACK」、2013 年 6 月 14 日、1~4 頁。



[39]

日本目前主张所谓“积极的和平主义”政策（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积极参与维护世界的和平、稳定和稳定。[40]这明显与之前日本专守防卫的原则不相符合。并与 2013 年 12 月 4 日建立了日本的国家安全保障会议，以加强在国家安全问题上的政治协调和机动性。[41]2013 年 12 月 17 日，安倍在国家安全保障会议和内阁会议上通过了《国家安全保障战略》，这是日本第一份国家安全保障战略。日本希望在诸多领域发挥主导作用，在新形势下提升国际地位、争做政治大国。[42]2014 年 3 月 11 日日本政府审议通过“防卫装备转移三原则”草案，以取代“武器出口三原则”。新的“三原则”将大幅放宽日本对外输出武器和军事技术。[43]

[39] 日本防卫省：《我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２６年度予算の概要》，http://www.mod.go.jp/j/yosan/2014/gaisan.pdf，第 50 页，访问时间 2015 年 5 月 27 日。

[40] 日本外務省：「日本の安全保障政策」、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6622.pdf、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41] 日本首相官邸：「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aigi/konkyo.html、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42] 日本防衛省・自衛隊，「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43] 日本外務省：「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824.pdf、

安倍首相大力推动日本正常国家化和解禁集体自卫权，并试图修改日本和平宪法。也就是说，在“威胁到日本的存亡，保护国家和国民，武力行使限于必要最小限度”这三种条件下，日本可以行使集体自卫权。[44]2015 年 4 月 27 日，日美两国出台了新版《日美防卫合作指针》，它让日本的军事活动范围扩展到了全球，让日本获得了集体自卫权，明确了岛屿防卫合作。美日之间还将建立健全“联盟协调机制”，加强美军和日本自卫队之间的协调，促进各个层次的信息、情报共享，及时协调双边演习。[45]这一《指针》将日本的军事行动范围扩大至全球，并鼓励日本开展三边和多边军事合作，日本的“野心勃勃”再次显现。更有人提出这种观点，这是否意味着日本军队可以再次登上韩半岛？

确实，日本的因素在战后 70 年之际，似乎又再次浮现在东北亚的历史舞台上。当今最突出的问题是中美两国的竞争，因此我们不难理解为什么美国会强化与日本的同盟关系，并一再容忍日本在历史问题、军事问题上的一系列主张。但问题是，美国如何把握这个尺度？日本毫无疑问仍是一个大国，并且战后反省很不彻底，我们如何确保日本未来不会再次走上对外扩张的帝国梦？

下面这张图反应了 70 年代中美日地区影响力的变化，所以，为了维持影响力，亚洲战略伙伴国家日本的帮助是必不可少的。而且，在沃尔特的威胁均衡理论观点上看，[46]对美国中国是在亚洲地区内会变成威胁国家，[47]日本是不太危险的国家：美国认定日美同盟内，日本积极主动的作用。因此，对于东北亚地区来说，未来日本因素可能会发挥更加重要的因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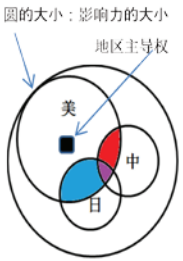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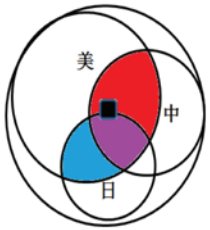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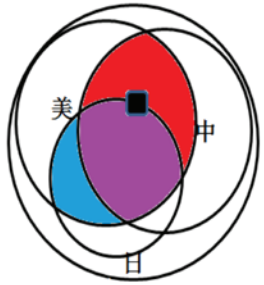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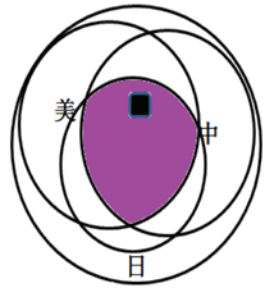
访问时间：2015 年 5 月 27 日。

[44] 産経新聞:「集団的自衛権　首相「専守防衛変わらず」掃海は非戦闘時に実施」、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78-san-pol、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45] 防衛省:「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２０１５年４月２７日」http://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pdf/shishin_20150427j.pdf、访问时间：2015 年 5 月 28 日。

[46]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 pp. 3-43

[47] 2014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p.4, 6, 14.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4/0314_sdr/qdr.aspx.

	1970年代	2000年代	近未来“一”	近未来“二”
				
特点	紧张局面的缓和时期（Détente）美国与苏联拥有东亚地区维持均势的主导权，而日本依靠美国的军事力量。为了牵制苏联，中美日关系得到一定程度的改善。	美国主导东亚地区的均势。但是，美国开始对中国的发展与崛起感到担忧。尤其是日本进一步把中国当做自己的对手，中日之间的矛盾也增加。	每当发生重要的地区案件，中美两国反复合作与对立。但是中美之间利益和损害的交集部分较多。所以不能冒冒失失做威胁对方的行为。中美日三国造成地区新安保体系。日本成为东亚的加拿大化。	为了取得地区均势主导权中美日三国之间的矛盾增加，三国之间的造成新安保体系成为不稳定的多极体系不容易。 日本在东亚地区有着如一战前的威廉德国的影响力。地区稳定性下降。
■	中美关系得到改善，中美建交	正：经济，环保等的合作增加。 负：经济摩擦增多	正：两国共有利益增加。两国主导东亚地区维持稳定性。负：共有损害增加	正：为遏制日本的增强发挥协调作用 负：推诿责任的可能性上升
■	日美同盟	正：增加军事安保合作，达成价值观同盟 负：美日同盟防卫费负担，经济摩擦	正：同盟力量上升 负：对地区主导权日本有一部分的影响力	负：两国之间的信赖度下降
■	在东亚地区内遏制苏联的影响力	正：反恐怖主义，朝核问题 负：中国和日美同盟之间矛盾增加	正：中美两国主导东亚地区维持稳定性增加 负：会产生多极体系下强国之间的问题	负：造成不稳定多极体系

四、结论

由于长期以来中韩物质上和精神上的交流，尤其是上个世纪两国人民共同联合抗击日本侵略的历史记忆，极大地强化了两国的历史情谊，使两国真正成为某种“命运共同体”。[48]因此，我们不难理解为什么在冷战结束之后，中韩能够迅速建立外交关系并扩展在各个领域的合作。目前中国已经成为韩国的最大贸易伙伴、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与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民众也因此认为，中国的作用对韩国来说是必不可少的。

自从日本因素在东北亚出现以来，一直给地区带来了诸多不稳定的因素，乃至战争。目前中国正在重新恢复东亚地区内的主导地位，地区秩序面临着极大的挑战。日本不仅站在了目前中美竞争的最前台，[49]而且不断强化自身的军事实力，突破二战之后对它的束缚。毫无疑问，日本未来的走向再次令我们担心。

东亚地区的繁荣与发展最终离不开中日韩三国的合作与协调，然而遗憾的是，三国并没有真正从历史上不愉快的记忆中走出来，日本还没有真正成为值得信任的地区合作伙伴。100 年前，中韩开始努力抗击日本侵略，最终取得胜利。100 年后，中韩需要再次携起手来，这并非是要与日本进行军事对抗，而是要通过合作使日本确立新的历史观和发展观。中韩需要对日本的右翼势力施加强大的压力，同时和日本的进步势力进行合作，推动三国找到解决历史问题和地区安全困境的钥匙。这是中韩两国的历史使命，也是亚洲发展繁荣的重要途径。

作为中韩联合抗日战线的精神支柱，安重根义士本来对日本有积极的观点，因为当时的日本是东亚地区唯一成功实现现代化的国家，并能够同西方帝国主义势力进行斗争。所以他非常讨厌以伊藤博文为代表的日本帝国主义势力，他的行为分裂了亚洲，并且让亚洲人民互相压迫。因此，安重根的义举不仅是审判一个帝国主义者的错误，而且是为了实现东亚地区和平发展的崇高的牺牲精神。中韩两国人民为先辈们联合抗日所展现出的拼搏精神而自豪，而真正实现中日韩三国的和解，开创亚洲合作的新局面，才是安义士真正的希望。

[48]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p.169-172

[49] *Lim, Yves-Heng, China's naval power : an offensive realist approach, Burlington: Ashgate Pub. Limited, 2013, p. 20.*

参考文献

中文资料

杨昭全：《中韩关系史论文集》，世界知识出版社 1988 年版。

杨昭全等：《关内地区朝鲜人反日独立运动资料汇编》（上）。

【韩】姜吉仲：《北宋与高丽间的贸易及文化交流关系》，载《宋史研究论丛》2008 年第 1 期。

【韩】金俊烨：《我的长征》，东方出版社 1995 年版。

【韩】金九：《白凡逸志》，民主与建设出版社 1994 年版。

【韩】朴殷植：《韩国独立运动之血史》（下）。

【韩】赵琬九：《韩国临时政府奋斗史略》，《韩民》第 1 卷，第 5 期，1941 年 6 月 15 日。

辽宁大学历史系：《简明中国古代史》。

【韩】秋宪树：《韩国独立运动》。

东北抗日联军斗争史编写组：《东北抗日联军斗争史》，人民出版社 1992 年版。

徐万民：《中韩关系史》（近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年版。

王芸生：《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 1 卷，三联书店 1979 年版。

中韩协会《光明》月报 1 卷 1 号。

金景一、金强一：《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载《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 年第 4 期。

陈向阳：《中国对朝鲜半岛统一政策浅析》，载《亚非纵横》2012 年第 5 期，第 23 页。

刘福江：《朝鲜半岛和平统一进程中的难点问题论略》，载《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2003 年 11 月。

张琏瑰：《朝鲜半岛南北双方统一政策演变和南北关系》，载《韩国研究论丛》2003 年。

曹长盛：《从德国的统一看朝鲜统一问题》，载《国际政治研究》1997 年第 4 期。

新华网：《击毙伊藤博文的安重根义士纪念馆在中国开馆》，

http://japan.xinhuanet.com/jpnews/2014-01/19/c_133057040.htm，访问时间：2015 年 5 月 3 日。

新华网：《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踏上新起点》，

http://news.xinhuanet.com/world/2012-08/23/c_123618017.htm，访问时间：2015 年 5 月 26 日。

财新网：赵大熙、姚锦祥、王东阳，《韩国视角下的“一带一路“》，

http://opinion.caixin.com/2015-05-25/100812369.html，访问时间：2015 年 5 月 25 日。

韩文资料

중앙일보, 「백제왕 자손이 옛 천황 생모」,
2001.12.24,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96313&ctg=，访问时间：2015 年 5 月 1 日。

관훈클럽, 「중국인 눈에 비친 안중근 의사 의거」, Vol.- No.112，2009。

김영범 외, 『한국 근대 민족 운동과 의열단』,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李庸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國際法學會論叢第 54 卷, 第 1 號，2009.4。

한시준, 「중경시기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33 집, 2009.8。

韓詩俊,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6 집, 2006.3。

金光載, 尹奉吉의 上海義擧 ‘중국측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국사편찬위원회，db.history.go.kr/item/pdfViewer.do?levelId=nh_050_0040。

구대열, 「2 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국민당 정권의 臨政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28 집 제 2 호, 1995.5。

김정현,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46 권 0 호 (2012)。

이만열, 「21 세기 민족문화진흥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국학연구 제 8 집, 2006.6。

英文资料

C. Walter Young, Sino-Japanese Interests and Issues in Manchuria, *Pacific Affairs*, Vol. 1, No. 7 (Dec., 1928).

Stephen M. Walt，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2014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p.4, 6, 14.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4/0314_sdr/qdr.aspx.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Lim, Yves-Heng, *China's naval power : an offensive realist approach*, Burlington: Ashgate Pub. Limited, 2013.

日文资料

「日本再興戦略(案)-JAPAN is BACK」、2013 年 6 月 14 日。

日本防卫省:《我が国の防衛と予算ー平成２６年度予算の概要》,
http://www.mod.go.jp/j/yosan/2014/gaisan.pdf，第50页，访问时间2015年5月27日。
日本外務省:「日本の安全保障政策」、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6622.pdf、访问时间：2015年5月27日。
日本首相官邸:「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aigi/konkyo.html、访问时间：2015年5月27日。
日本防衛省・自衛隊,「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访问时间：2015年5月27日。
日本外務省:「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824.pdf、访问时间：2015年5月27日。
産経新聞:「集団的自衛権　首相「専守防衛変わらず」掃海は非戦闘時に実施」、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78-san-pol、访问时间：2015年5月28日。
防衛省:「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２０１５年４月２７日」,
http://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pdf/shishin_20150427j.pdf、访问时间：2015年5月28日。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한·중 영화산업의 경쟁력분석과 합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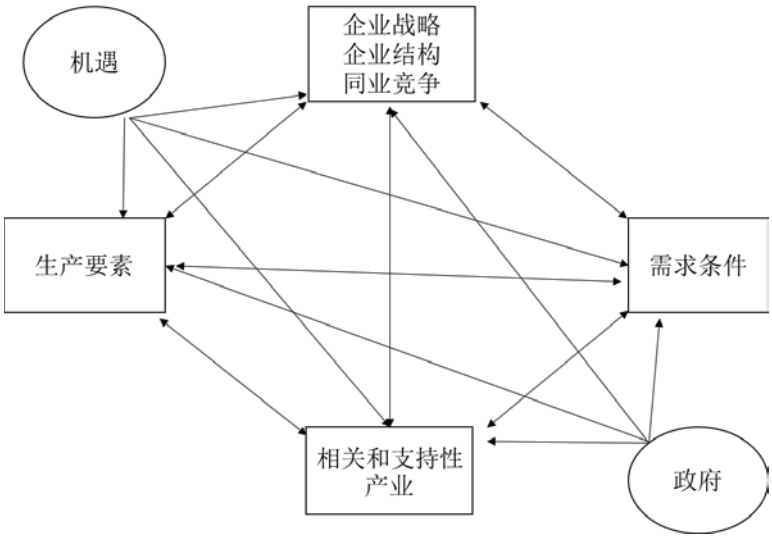
조은상, 류금전
상하이이공대학교

개요:

포터의다이아몬드모델을 이용한산업경쟁력분석모형이다. 다이아몬드모델 (Michael Porter diamond Model) 생산요소, 수요조건, 상관지지성기업, 기업전략,구조와동업경쟁 네가지영향이 산업경쟁력의관건요소와 구조 정부정책 두개의보조성요소, 한국과중국영화산업의 경쟁력분석 한중양국가의 영화산업 경쟁력의기초상 양국 영화합작의균형점. 국은 풍부한 문화창작의 자원과 전문적인기술, 인재, 중국은 방대한시장규모와 영화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와같은 바탕으로 한중 합작의 균형점이 되어있다. 한국영화에 있어 중국시장은 예전부터 거대한 흡입력이 있는 시장이었지만 진출하기에 매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할리우드 대작들에게 눌리거나 중국의 엄격한 영화심사제도 제한데 부딪히기도 했었다. 만약 한국과중국 양국이 합작 촬영을 한다면 한국은 풍부한 문화창작의 자원과 전문적인기술, 인재, 중국은 방대한시장규모와 영화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합작을 하면중국의 215 억 흥행생산량과 거대한 영화 산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한국영화산업의 이상적인 수출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영화제작에 창의적인대본과 전문화된 기술인원이 결핍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영화사의 중국시장 진입은 환영분위기에 있다. 한중영화자금의 심도있는 융합, 심도있는 연구를통해 한중합작영화는 앞으로의 한중영화합작의 주요형식이 될것이다.

口.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파이브 포스 모델 5forces model 은 1979 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제시한 산업구조분석 기법이다. 기업에 대한 5 개의 경쟁세력을 나타낸 모형이며 그 5 개 세력에는 1.기존 산업내 경쟁정도 2,신규 시장 진입자의 위협 3,대체재의 위협 4,구매자의 협상력 5, 공급자의 협상력. 경쟁력의 주체인 기업 또는 산업의 비교 우위 원천인 혁신, 개량,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요인이 분석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분석의 목적은 기업또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결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부의 창출 가능성을 경쟁력 창출 원천인 인프라, 금융환경, 인적자원, 과학기술, 고용관계, 정부의 행정서비스, 기업의 효율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口. 중국의 문화자원 풍부

(1) 생산요소

1. 중국의 문화자원 풍부

중국은 유구한역사와 풍부한 문화원형을 가지고 있다. 중국특색의 의향성 사고방식은 문화작품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더 한다. 예를 들어, 봉신연의, 서유기, 요재신편등 이와 같은 전지작품들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중국전통문화와 전통의식은 중국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오락방식, 영화에 풍부한 소재를 가지고 왔다. 유구한 역사문화는

대량의 고서와 인물사적 남겨 놓았다. 당대시대가 영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효과적인소재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벽, 동작대, 적인걸 측천무후의 비밀 등이 있다. 최근 인기있는 영화 모두 역사인물과 옛이야기를 다루고 영화로 각색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국 지역안의 문화차이성과 다민족 문화특색이 서로 융합하여, 전통문화특유의 포용성과 개방성이 형성됐다. 영화업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여 민족특색과 다른지역스타일을 가지고 더욱 더 매혹적인영화작품을창조해 낼 수 있다.

2. 융자방식

(1) 출시융자와 기업인수합병

2014 년은 중국영화기업이 끊임없이 상장하는 해였다. WIND 에 따르면, 자료와데이터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 현재 54 개의 매체업종이 A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 있다. 이번에 상장된 유도중, 중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명성주주"는 많은 영화계의 스타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가격의 주주로 영화기업 지분의중요 소지인으로 나타냈다. 한방면으로는 영화사가 이런방식을 통하여 스타주주에 대하여 주주권을 더욱 북돋워줄수 있다. 다른 한방면으로는, 스타들의 인지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화작품을 널리 선전 할 수 있다. 영화업종은 수억원의 자금이 신속히 조달을 통해 상장되었다. 또한, 영화기업 사이의 인수합병이 영화기업의 집중도,와 실현규모효과를 더욱 높일 수있게 되었다.

(2) 신용융자: 금융기구의 영화산업에 대한 신용역량증가

문화산업이 점차 경제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킴에 따라 영화산업은 점차 금융구조의 중요한 투자신용 대상이 되었다. 2002 년(영웅)영화 개막이후에, 신용융자가 점차 영화산업융자의 기본형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2010 년 베이징은행 통계에 따르면, 3 개월 이내에베이징시문화국, 베이징시광고영화드라마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10 억위안의 전문적인 신용공여 한도를 식별하고 제공한다고 밝혔다.

(3)영화기금의 융자작용 부각

영화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밀집시행에 대한 중국내 외국자본이 영화기금 조직을 세워 중국영화에 대한 영상산업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2013 년 8 월 초까지 중국내 VC/PE 설립된 기금중, 설립초기 정해진 영화투자방면의 기금은 24 주, 목표규모 322.81 억위안, 평균 기금규모 13.05 억위안.

(4)영화예매 융자

영화예매 또한 현재 원활한 융자방식이다. 영화촬영전에 목표시장이 예매자금을 획득하여 제작을해 나갈뿐만아니라, 그러므로 영화촬영에대한 보증이 된다. 영화예매 융자에 있는 어떠한자금은 아직 상당하다고 볼수있다 예를 들어, 야안, 흑적, 매란방 등이 있다.

(5)공동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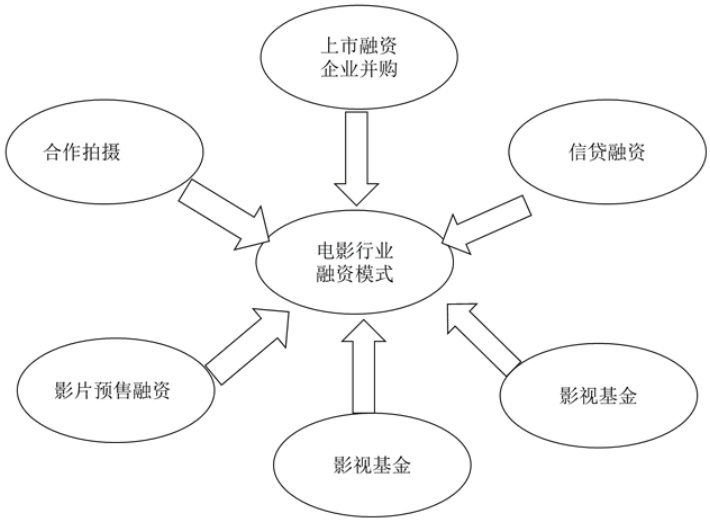
영화를 대량으로 조달해야하는 자금과 낮아지는 제작극을 위해서는 투자금액과 분산투자의 리스크, 중국내영화기업이 공동제작방식이 필요하다.

요즘, 공동제작은 국제영화산업합작의 새로운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0 년 영화〈비천무〉 는 한중 두나라의 공동제작의 출발점이 었다. 마소형의〈집결호〉는 한국전쟁을 나타내는 장면을 담으며 한중영화합작의 한걸음 더 나아갔다. 2013 년 〈이별계약〉은 영화예매 2 억명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한국공동제작을 지표하며 초기의 배우합작부터 투자, 공동제작, 마케팅, 폭넓은분야까지 합작으로 진행되고있다.

2014 년 서명한〈중한 합작영화 협의〉는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제작한 영화는 '해외합작제작영화'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한중양국에서 '국산영화;의혜택을 받게 된다. 영화는 수입할당제 제한을 받지 않고 각국의 국산영화 한중합작영화의 수를 급속도로 늘릴뿐 아니라 양국의 문화수출, 특히 한국문화의 수출을 앞당길것으로 예측한다

(6)영화주주

영화기획은 2013 년 영화시장의 출현으로 일종새로운 융자형식, 투자기획은대중들의 투자항목이 개시하면서 예측시간안에 예정된주주금액을 성공시켰다. 영화주주와같은 티켓판매의 개념은, 주주방식은 주주자금뿐만아닌 목표관중의 애호도 지불능력현황을 일정정도의 시장조사 작용을 통하여 알수있다.



(二) 수요조건

1.흥행 총 수요

2013 년 미국영화 협회〈MPAA〉 전세계영화시장통계데이터 13 년중국의영화흥행수익은 36 억달러를 도달하였다. 전세계 점유율 10.03% 비록영화흥행수익이 109 억달러인 미국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미 일본을 넘어 전세계영화흥행수익의 2 위를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일인평균 표값은 2.67 달러이다. 21 개의 국가와지역에서 중국은 일인평균 매표소의 끝에서 두번째이다. 2014 년 중국 일인평균 GDP 가 6995 달러까지 증가하고, 세계평균 2.3%이다. 국가경력에 따르면 GDP 가 5000 달러를 넘어설때 문화소비가 총 소비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중국 국민이 영화산업 소비잠재력과 시장수요가 거대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인평균의 GDP 가 높아지고, 중국인들의 문화소비에 대한지출 잠재력은 끊임없이 방출될것으로 보인다.

2-2 2013 년국가흥행 총수입과 평균흥행지출(그래프)

2. 세분화 관중분석 년국가흥행 촉수입과 평균흥행지출(그래프)

CMMS 관중분석데이터에 따르면 연령대 20~35 사이의 관중이 전체관중의 68%정도,대졸이상학력의 관중이 79%, 가정 월소득 8000 위안이상 관중이 전체관중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타낸다.

여기서 알수있듯이, 평균관중 연령층이 20~35 세로 젊은세대 위주에 있다. 그외, 고학력관중들이 영화에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며 가정소득과영화수요와의 상관관계가 드러낸다. 영상산업이 관중의 애호와 수요를 부합하여야 한다.

3. 해외수요

중국영상산업수출이 사유및 문화차이, 품질이부족한작품, 해외마케팅부진등 곤경에 직면하면서 영화수출무역 수지의 적자차이가 커지는현상을 야기했다. 2012 년 중국영화박스총 170.73 위안을 도달하였다. 하지만 외국영화의 점유율이 52%를 차지하며 87.77 억원을 도달하였다. 같은시기인 전년도 80 개국에 75 부의 영화판매, 해외영화박스매출수입은 10.63 억위안이였다.

2013 년 중국국내영화박스가 216 억위안의 기록을 깼다. 여전히 외국영화에대한 점유율은 41% 88.56 억 위안이지만, 동시에 45 부의 수출하는 영화의 흥행수익과 판매 수익은 14.14 억원에 그친다.

(三) 관련지지산업

영화산업과 그관련된 산업에서는 앞으로와의 연결이 되어있다. 영화산업의 체인은 영화제작, 영화발행, 극장과의 전체적인 주요연결 고리로 되어있다. 영화산업부서회사 사이의 경제성 시스템에 반영되어진다. 영상물의 전개부터 각종오락상품은 모두 영화와 상관되어있다. 영화산업이 비교적 발달된 국가에서는 흥행수익이 일반적으로 영화전체 수익의 3/1 을 차지하고있다. 그밖에 수익은 제작권과 후의영화작품수익이다. 중국영화수익의 대부분은 흥행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큰 상업가치의 다음영화작품의 개발을 가지고 여전히 개간해야 할 부분이 많다.

(四) 기업책략과구조, 기업경쟁

영화산업의 내용과 주체적인순위 추세경향은 다원화, 사회관심도와 열도가 높은 주제의 의향은 관중들의 강령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규모나 효응면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3000 여개의 영화사는 소규모 위주로 되어있다. 전 7 위 제작사의 산업내용생산량은 25%, 전 12 위는 36%를 차지한다. 이와 대응하여 미국 6 개의 규모가 큰 영화사는 내용생산량이 전 업종의 64%, 기타 300 영화사는 36%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영화제작효율 분산을 알수 있다. 규모경제효응과 자원최적화효응은 미래의 더욱 나은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영화발행과 방영회사의 경쟁구조는 책임기업과 협력회사 시장 구조이다. 2013 년 까지 완다기업은 영화사업 점유의 중국내 최고 흥행수익을 점유하고 있다. 제 2.3 도시의 관중들 잠재력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다음영화 방영회사의 시장쟁탈로 되었다. 영화마케팅 회사는 전문적인서비스마케팅을 하여 흥행수익의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전문적인 마케팅 책략과 실속있는 서비스 가격은 시장규모 30 억원의 자금투자를 매료시켰다.

(五) 정부정책 기회와 요인

2014 년 6 월 〈영화발전에 관한 경제정책 통지〉가 중국정부 정책에 의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세제혜택과 자금 지지등 방면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책이 5-10 부정도의 영향력있는 중점소재의 영화에 매년 1 억위안의 자금을 부양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전문적으로 설치한 기금이 영화산업발전에 안배되어있다. 2014 년 서명한 〈중한합작영화제작 협의〉는 앞으로의 중한합작영화작품에대한 뜨거운 열기를 불어일으킬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자금과시장우세 한국의 우수한선진기술이 힘을 합쳐 한중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것이라 보고있다.

三′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분석

(一) 생산요소

1.다방면의 자금지지와융자수단

한국영화와드라마의 자금능력과 지지는 한국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뒷받침 되어지고있다. 한방면, 한국정부는 4500 만위안 상당의 자금을매년 20 부의 영화촬영에 중점적으로 지지하고있다. 다른, 아직설립중에있는 영화사들의 보조금제도에서는 이를 영화위원회에서 영화보조금에대한 자금을 분배하여, 영화를 배우고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영화감독으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예술독립영화제작을 진행할수 있도록 보조해고 있는 상황이다.

4 억원혹은제작비 30%의 보조금을 부양지지하여 은영화인들이 더욱 늘어나 성장하고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는것이 주요목적이다. 일반상업영화는 보조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무이자방식으로 저이율융자 대출을 신청 할 수있는 방법 또한 있다. 또 한방면,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서 국내영화산업에 대해 자금투자와 지지를 하거나 정부의 선도로 대기업그룹이 나누어네트워크로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영화관건설 및 신흥부합영화관을 건설하고 있다. 제작자는 판매발행권과 제작권을 통해 은행대출, 저당제작권융자를 할수 있도록하여 민간자금의 능력을 높여 중소기업과 위험 자금투자영화업의 열성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것이다. 인터넷금융은 영화업의새로운방식이 되었다. 예를들어 큰 성공을 거둔〈조폭 마누라〉도 인터넷융자를 통해 280 만달의 촬영자금을 마련하였다. 영화기금은 한국영화업발전의 물질적기반이튼튼하도록 제공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영화투자기금 총액이 1.5 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충족한 자금은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의 선진제작기술 도입과 동시에 한국국내 극장 건설도 촉진케 된다.

2′ 人才优势 우수한 인재

한국에는 전문화수준의 높은 영화전문 인재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은 높은수준의 영화 교육이 발달 되어있다. 비록 5000 만의 인구 이지만, 200 개가 넘는 종합대학에서 연극학과가 없는 학교는 없다. 게다가 50 여개의 영화학교가 있다. 일반학교보다 입학조건이 높고, 매년 영화, 연극 전문의 100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고 있다.

(二) 수요조건

1. 국내의 수요를 잡고 국내시장에 침투해있다. 필터의관념에 따라, 예를들어 한기업이 국내시장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더 큰 세계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상에 국내영화시장에 50%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2. 세심한 동방문화 전략, 동아시아의 영합, 동남아관중의 수요. 한국드라마는 유가문화의핵심, 한국전통문화와 현대도시문화 및 서양문명이 융합된 한국드라마의 동방문화전략은 빠른속도로 성장을 보여줬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국가의 관중들로부터 높은 인정과 총애를 받고 있다.

(三)관련지지와 산업

1. 한국영화산업진흥은 한국문화산업발전과 뗄수없는 부분이다. 1998 년 한국은 "문화입국"을 제기로 부터 ,국가의영화, 만화, 게임등 문화산업에 있어 균등하게 큰 발전을 하였다.또한 상호촉진, 양성활동산업이 형성되었다. 문화산업과 기타산업의 산업관련성은 문화산업의 눈에띄는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통계에 따르면, 100 달러의 한국영화, 드라마의 문화산업수출은 412 달러의 산업을 이끌것이라고 나타낸다. 문화산업 100 만달러의 수출액은 14~15 명의 취업과도 연관되어있다. 산업 영향력이 강하다면 관련된산업분야의 발전도 가지고 올수 있다. 경제창조는 많은 취업문제또한 해결시켜 준다.

2.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은 국한성오락분야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한국전자제품, 의류, 요식업, 화장품,여행산업에 상호 연동되어 있어, 서로의 영향과 모순이 대동되어 도미노 골패같은 산업의 연결고리로 발전 되었다. 한방면,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은 화장품, 요식업, 의료미용, 생활요품공업등의 발전을 촉진케 하여 여행업의 번영까지 대동하였다. 다른방면으로, 이런산업의 발전은 역으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더욱 끌어올리게 되었다.

(四)영화전략과기업구조, 기업경쟁

1. 단계적 추진 포지셔닝 전략

2007 년 한국정부국무회의에서 "한류" 발전 현황제정에 따른 다른국가와 지역의 추진전략은 "한류"시장세분화를 잠재적확산해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있다.

문화와 지역접근개발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 시장사이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国际市场营销观念和先进的营销手段 국제시장 마케팅관념과 선진마케팅

한국문화시장은 미관주체의시장관념이 비교적 발달 되어 있다. 많은 영화사들도 국제시장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드라마는 대중유행문화시스템, 글로벌시장, 스타시스템, 메니저제도에 기대어 글로벌문화흡입력을 창출하였다. 한국영화작품은 제작부터 촬영, 선전, 마케팅까지 모든 면에서 아시아의 헐리우드모델이나 다름없다. 이밖에, 부산국제영화제 3 대 영화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본토영화의 홍보와 보급의 플랫폼이 되었다. 선진적인 마케팅 수단은 원할한 마케팅관개수로로,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은 해외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현재 중국, 일본,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시장조사와개발을 더욱강화하여 바로 완벽한 중개제대와 완전된 해외마케팅 관개수로를 이용하여 한국영화산업수출을 추진 하고있다.

(五)정부:정책요소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지지를 허락하고 산업발전을 보장한다. 우수한 영화산업발전환경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정책, 법률, 기구, 자금, 인재방면에 큰 노력을 하였다.

1. 제작관련법률, 전문기구 설립

20 세기 말, 한국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통해 문화사업이 21 세기창조 고부가 가치 산업중심 발전, 문화산업발전 제정중 장기 계획과목표를 위해 한국방송영향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영화발전기금구조, 산업발전정책제정에 정책, 영화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였다.

2. 세제우대정책 실시

1955 년, 한국정부는 국내모든영화제작에 면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늘날까지 각양각생의 세제우대는 다른방면에서의 보장과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영화계 진입을 격려하며 이에대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3 实施电影配额制° 영화배부할당제시행

국가의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는 영화배부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규정의무상영일이다. 한국〈영화진흥집행령〉에 따라, 한국영화원은 매년 최소 146 편의 영화를 방영하며. 방

송국의 국내영화방영은 25%를 필수 보장하고있다.

四. 한중영화합작분모와 협작방식

미국과유럽영화산업이 한중영화산업에대한 저항을 하고있는 시점에 한중 양국 영화자원우세를 이용하여 서로공동으로 보완하여 세계영화 점유율을 높여 한중 영화합작의 외적인구동력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풍부한 문화창작의 자원과 전문적인기술, 인재, 중국은 방대한시장규모와 영화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와같은 바탕으로 한중 합작의 균형점이 되어있다. 한국시장은 규모가 작아 확장에 따른 발전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215 억 흥행생산량과 거대한 영화 산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한국영화산업의 이상적인 수출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영화제작에 창의적인대본과 전문화된 기술인원이 결핍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영화사의 중국시장 진입은 환영분위기에 있다. 한중영화자금의 심도있는 융합, 심도있는 연구를통해 한중합작영화는 앞으로의 한중영화합작의 주요형식이 될것이다.

참고문헌 :

1. 李薇. 基于国家钻石模型分析比较中美影视产业竞争力[J]. 中国物价, 2009, (9): 56-59
2. 陈文轩. 中韩文化产业发展比较与合作展望[J]. 亚太经济, 2014, (1): 84-88
3. 张振宇. 中韩电影对话： 政府扶持´产业发展和文化研究 ——中韩影视研讨会综述[J]. 学术视野, 2013, (12): 121-123
4. 陈宜芳. 一茎花开两地香: 探讨中韩影视的共同制作之路[J]. 影像动漫, 2015, (2): 92-94
5. 胡璐. 韩国影视产业振兴的经济学分析 ———基于波特“钻石模型”的思考[J]. 中外企业家, 2009, (4): 96-97
6. 尹鸿. 世界电影产业发展趋势研究报告[J]. 现代传播, 2014, (8): 1-8
7. 孙永. 关于推进中韩文化产业合作的思考[J]. 当代史, 2009, (9): 420-431
8. 朴光海. 中韩文化交流的现状及问题[J]. 当代亚太, 2007, (7): 59-64
9. 刘宝全. 韩流在中国的传播及其对中韩关系的影响[J]. 文化研究, 2014, (1): 67-81
10. 张隽. 探析韩国文化产业的发展战略及启示[J]. 当代韩国, 2009, (7): 43-47
11. 丙明杰. 产业竞争力的“新钻石模型”[J]. 社会科学, 2006, (4): 68-73
12. 岳琦. 中韩 FTA 推动两国影视行业整合提速[EB/OL]. http://www.ce.cn/culture/gd/201501/09/t20150109_4302147.shtml.
13. 搜狐娱乐. 全球影市数据出炉：中国人均票房倒数第二[EB/OL]. http://yule.sohu.com/20140328/n397378481.shtml.
14. 网易财经. 韩国政府为何如此重视文化产业？[EB/OL]. http://money.163.com/15/0408/10/AMM0TDOH00253G87.html.
15. 陈少峰. 中国文化企业报告[M]. 北京: 2014. 46-63

基于钻石模型的韩中电影业竞争力分析和合作展望

赵恩祥 刘金典

摘要：本文应用迈克尔•波特提出的产业竞争力分析模型——钻石模型（Michael Porter diamond Model），从生产要素、需求条件、相关和支持性产业、企业战略、结构和同业竞争这四个影响产业竞争力的关键因素，和机遇、政府政策这两个辅助性因素，对韩中两国电影产业的竞争力进行定性和定量分析。在把握韩中两国电影产业竞争优势的基础上，找到两国电影业合作的契合点。并探讨韩中两国采取何种形式实现两国电影产业的深度融合和协同发展，以提高两国电影产业在世界范围内的竞争力和在世界电影市场中的市场份额，抵挡来自欧美电影产品对国内电影产品的冲击，使韩中两国合作影片走向世界市场。本文分为四个部分，第一个部分对波特的钻石模型做了简要的理论综述。第二部分应用钻石模型分析中国电影业的竞争力和优势。第三部分应用钻石模型对韩国电影产业的竞争力进行分析。最后探讨中韩电影业合作的契合点和合作方式。本文认为抵挡欧美电影产业对韩中国内电影产业的冲击，实现两国电影资源优势互补共同提升世界电影份额，是两国走向电影业合作的外在驱动力。韩国丰富的文化创意资源和专业的技术人才，中国的庞大的市场规模和充裕的电影资金，成为两国合作的契合点。中韩电影资金深度融合，中韩合拍影片成为未来韩中电影合作的主要形式。

关键字：电影业 竞争力分析 钻石模型

一、迈克尔•波特的钻石模型

美国哈佛商学院的迈克尔•波特（Michael Poter）在 1990 年出版的《国家竞争优势》一书中提出分析某国或某种产业竞争力的“国家竞争优势”理论。他把某产业的竞争力归因于四个关键因素和两个辅助因素。四个关键因素分别是：生产要素、需求条件、相关产业和支持产业、企业结构、企业战略和同业竞争。　生产要素反应产业生产要素状况，包括人力资源、天然资源、知识资源、资本资源和基础设施。他把各种要素按等级划分成初级要素和高级要素两大类，前者包括自然资源、气候、地理位置、人口统计特征，后者包括通讯基础设施、复杂和熟练劳动力、科研设施以及专门技术知识。波特认为，高级要素对竞争优势具有更重要的作用。需求条件是指对某个行业产品或服务的国内外需求性质，但波特更强调国内需求在刺激和提高产业竞争优势中的作用。相关产业和支持产业指国内是否存在具有国际竞争力的供应商和关联辅助行业。企业结构、企业战略和同业竞争是指企业在一个特定的国家环境中如何创立、组织、管理公司，以及竞争对手如何。两个辅助性因素是机遇和政府，二者通过影响四个关键性因素对产业竞争力产生重要影响。机遇是产业无法控制的外在的盈利机会，政府政策对产业的发展的影响也不容忽视。波特认为，四个关键因素的相互影响和相互作用，加上机遇和政府对四个关键要素的影响，形成分析产业竞争力的体系“钻石体系”。如图 1-1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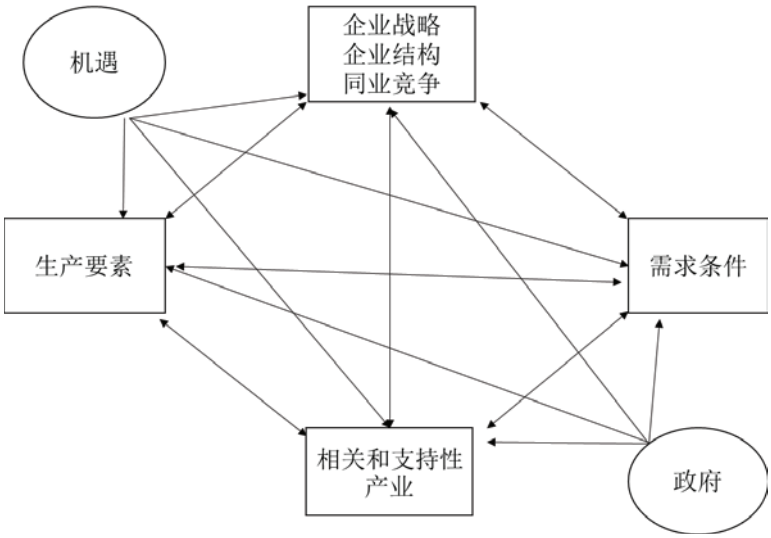


图 1-1 波特的钻石模型

二、 中国电影业竞争力分析

（一） 从生产要素来看

1.中国的文化资源丰富

中国具有悠久的历史和丰厚的文化底蕴。中国特有的意向型思维方式使其的文化作品充满了想象力，例如封神演义、西游记和聊斋志异等传奇作品就通过虚构的角色演绎出精彩绝伦的故事。中国传统文化和礼仪带来了中国独特的生活方式和娱乐方式，为电影剧提供丰富的素材。悠久的历史留下了大量的典籍及人物事迹，可以作为当代电影产业发展的有效素材。例如赤壁，铜雀台，狄仁杰之通天帝国等近期热播的电影都是以历史人物和故事进行电影改编。中国的地域间的文化差异性和多民族文化特色互相交融，形成了传统文化特有的包容性与开放性。电影业可以充分利用民族特色和异域风情创造出更加吸引眼球的电影作品。

2.融资方式

（1）上市融资和企业并购

2014 年是中国电影企业密集上市的一年，根据 WIND 资讯的数据显示，目前 A 股市场的传媒行业共有 54 家上市公司。在这次上市的浪潮中，出现了具有中国特色的“明星股东”，即众多电影界的明星以较低的价格入股并成为电影企业股份重要持股人。一方面电影公司可以通过这种方式对明星股东产生股权激励效应，另一方面，可以充分利用明星的知名度和影响力宣传推广公司的电影作品。电影行业通过上市迅速筹集到高达数亿元的资金。而电影企业间的并购能提高电影企业的集中度，实现规模效应。

（2）信贷融资:金融机构对电影行业的授信力度增强。

随着文化产业逐渐成为拉动经济增长的新引擎，电影产业逐渐成为金融机构投放信贷的重要对象。自 2002 年的《英雄》开辟电影信贷的先河，信贷融资逐渐成为电影产业融资的基本形式。据统计，2010 年北京银行在三个月内先后与北京市文化局、北京市广播电影电视剧签署协议，分别提供 100 亿元的专项授信额度。

（3）电影基金在电融资中作用凸显

随着电影产业的蓬勃发展，以及国家对文化产业扶植政策的密集出台，国内外资本开始以组建电影基金的形式，对我国电影、电视剧产业进行投资。截至 2013 年 8 月初，国内 VC/PE 设立的

私募股权基金中，在设立初期定位于电影投资方面的基金有 24 支，目标规模为 322.81 亿元，平均单只基金规模为 13.05 亿元。

（4）影片预售融资

预售影片也是当前比较通行的一种融资方式，即在电影拍摄之前，制片方在其目标市场获得预售资金，因此，也保证了电影的顺利拍摄。预售影片融资，有的资金还相当可观，比如《夜宴》、《墨攻》、《梅兰芳》等。

（5）合作拍摄，为了筹集拍摄影片的大量资金和降低制片方的投资金额与分散投资风险，国内电影企业选择合作拍摄的方式。近年来，合拍片成为国际电影产业合作的新潮流。2000 年的《飞天舞》是韩中合拍片的开端；冯小刚的《集结号》启用韩国特效团队打造战争场面标志着韩中电影合作更进一步，；2013 年拿下 2 亿票房的《分手合约》，标志着中韩合拍影片从初期的个别演员合作，到投融资，拍摄和制作，营销和推广等领域的深度合作。2014 年签署的《中韩关于合作拍摄电影的协议》不再将合拍影片视作进口片，预计将掀起新的中韩合拍影片热潮。

（6）电影众筹

电影众筹是 2013 年在电影市场出现的一种新的投融资模式，众筹即向大众筹资，筹资项目在发起人预设的时间内达到或超过预定筹资金额就算成功。电影众筹类似于门票预售的概念，通过众筹方式不但能筹集资金，而且能观察目标观众群的偏好和支付能力状况，一定程度上起到市场调研的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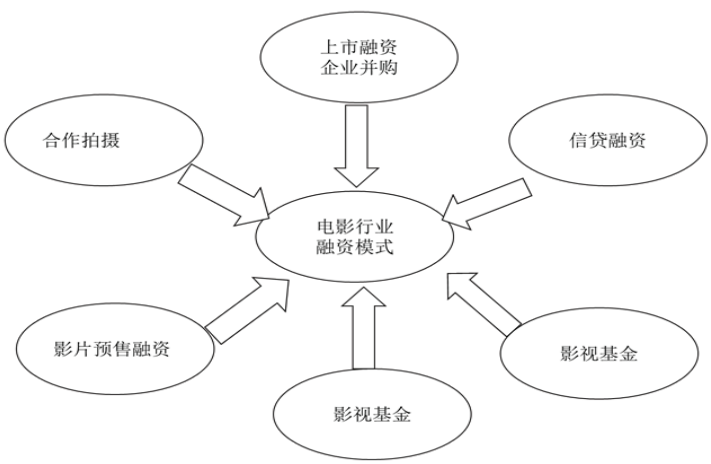


图 2-1 中国电影行业融资方式

（二）从需求条件来看

1. 票房总需求

根据 2013 年美国电影协会（MPAA）全球电影市场统计数据，13 年中国的年票房收入达到 36 亿美元，全球占比达到 10.03%，虽然与票房收入高达 109 亿美元的美国相比仍有较大的差距，但是已经超越日本成为全球票房收入和全球占比第二的国家。但是中国的人均年票房只有 2.67 美元，在票房前 21 个国家和地区里，中国年人均票房倒数第二。2014 年中国人均 GDP 增加到 6995 美元，为世界平均水平的 2/3。根据国际经验，人均 GDP 超过 5000 美元时，文化消费在总消费支出中的比重会急剧增加。这意味着中国居民电影产品的消费潜力和市场需求巨大。随着中国的城镇化进程加快和人均 GDP 的提高，中国文化消费支出的潜力正不断被释放出来。

图 2-2 2013 年前十位国家票房总收入和人均票房支出图

2. 观影人群构成细分

根据 CMMS 观影人群分析的数据可以看出，年龄在 20 到 35 岁之间的观影人数占总观影人数的 68%左右；大专以上学历者观影者占总观影人群的 79%左右；家庭月收入在 8000 以上的观影者占总观影者的 70%左右。由此可见，观影人群以 20 到 35 岁的年轻时尚群体为主，其次高素质高学历人群对观影需求比较大，家庭月收入和观影需求呈正相关的关系。影视产品应迎合和满足观影人群的偏好和需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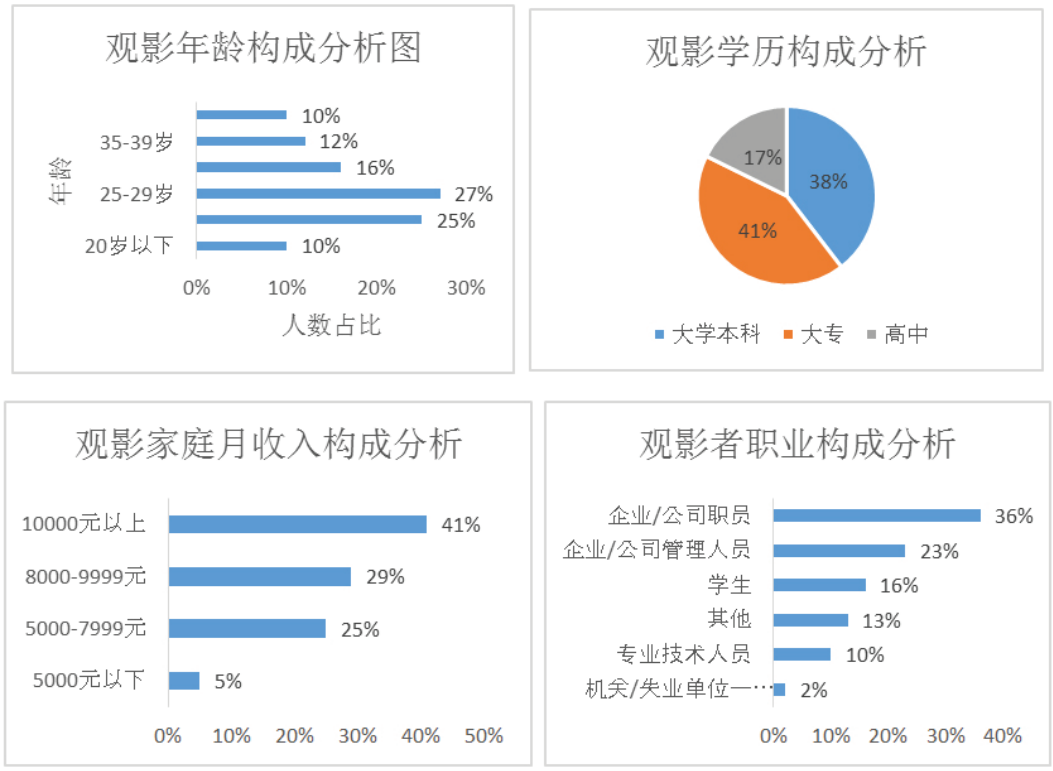


图 2-3 观影群构成分解组图

注：数据来源于中国市场与媒体研究（China Marketing & Media Study）

3. 国外需求

从图中可以看出从2010年到2012年中国的电影产品的出口收入出现了大幅度的下降，从2012年起才出现小幅度的缓慢上升。中国电影产品出口面临思维及文化差异、缺乏品质独特的作品、海外营销不力等困境，导致电影出口贸易逆差大。2012 年我国电影总票房达到了 170.73 亿元，但进口片票房份额占到 52%，达到 87.77 亿元，而同期全年仅有 75 部影片销往 80 多个国家和地区，海外票房和销售收入仅 10.63 亿人民币。到了 2013 年，国产票房达到了破纪录的 216 亿元人民币，进口片票房份额仍旧占到 41%之多，达到 88.56 亿元，而同期海外出口影片仅为 45 部，累积海外票房和销售收入也只有 14.14 亿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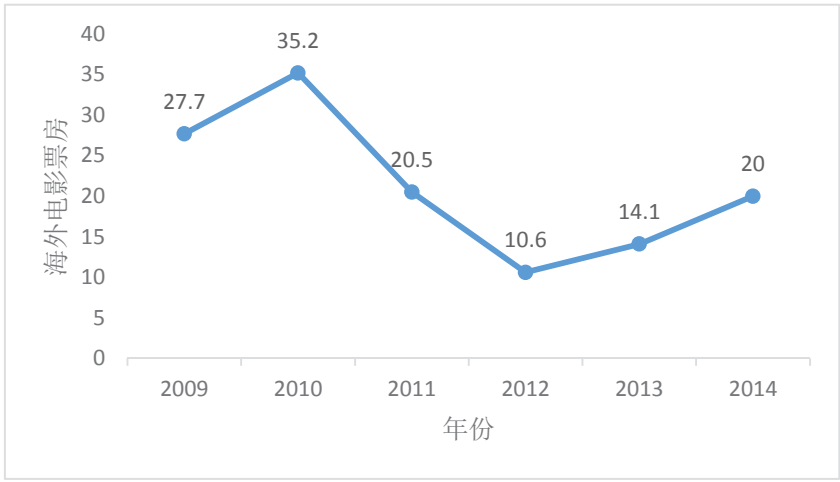


图 2-4 中国 2009-2014 年海外电影票房历年数据

（三）相关与支持产业

电影产业与其相关联的产业有着前向和后向的联系。电影产业链是电影制作、电影发行、电影院线、和影院的整体链条的统称，它反映的是电影产业单位公司之间的经济生态系统。电影后产品，就是与电影相关、从影片衍生出来的各种娱乐产品。在电影业较为发达的国家，票房收入一般只占一部电影全部收入的 1/3，此外的收入则为电视等版权和后电影产品的收益。中国影片收入的绝大部分要靠票房，最具有商业价值的后电影产品开发等，仍是待开垦的处女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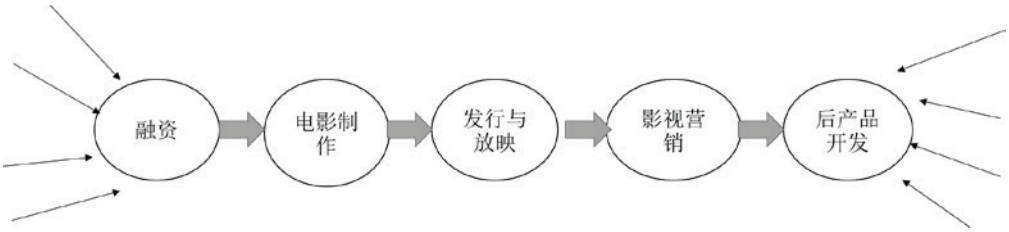


图 2-5 电影产业链图

（四）企业策略和企业结构、企业竞争

电影产品的内容和主题的定位趋向于多元化，抓住社会关注度和热度较高的话题和意向，引发观众的强烈共鸣。

中国电影制作公司产业集中度较低，规模效应尚未实现。据媒体统计，中国有 3000 多家电影

公司，且以小公司为主。前七位制作公司占产业内容生产量的 25%，前 12 位占 36%。与之对应，美国 6 家大的电影公司，内容生产量占全行业的 64%，其他 300 家占 36%。由此可见中国电影制作较为分散，规模经济效应和资源优化配置效应未得到更好的实现。

电影发行和放映公司的竞争结构是一个领导者企业加众多追随者企业的市场结构。截止 2013 年，万达影业占据电影票房最大的市场份额。二三线城市观影需求潜力巨大，成为下个电影放映公司争夺的市场。

电影营销公司提供专业化的营销服务对助推票房起到重要的作用，它们凭借专业的营销策略和实惠的服务价格，吸引了资金注入，市场规模达到 30 亿元。

（五）政府政策因素和机遇

2014 年 6 月中国政府出台《关于支持电影发展若干经济政策的通知》，以税收优惠和资金支持等方式来促进其电影产业的发展，新政策每年安排 1 亿元资金用于扶持 5-10 部有影响力的重点题材影片。并安排文化产业专项资金支持电影产业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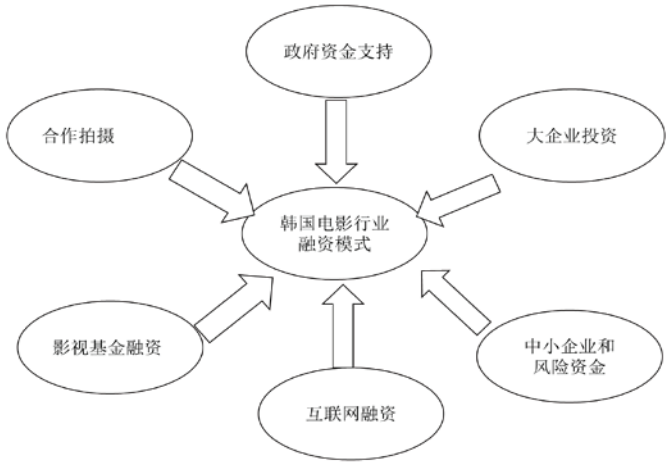
2014 年签署的《中韩关于合作拍摄电影的协议》不再将合拍影片视作进口片，预计将掀起新的中韩合拍影片热潮。中国的资金和市场优势和韩国的人才与技术优势产生合力，增强韩中电影产业的竞争力。

三、韩国电影产业的竞争力分析

（一）从生产要素来看

1、多渠道的资金支持和融资手段

韩国电影行业的资金来源包括韩国政府和大企业的资金支持，上市融资，互联网融资和电影基金融资等方式。韩国政府每年拿出相当于人民币 4 500 万的资金重点支持 20 部电影的拍摄，另外还设立电影辅助金制度，辅助的对象多为电影学院的学生和进行独立电影制作的导演，用以进行实验短片、纪录片和艺术独立电影的制作，最高可申请 4 亿韩元或者制作费 30%的辅助金。在政府的倡导下，韩国的大企业，如三星、现代等纷纷投入资金支持国产电影产业。制片人通过销售发行权和版权获取银行贷款、抵押版权融资，增强吸纳民间资金的能力，调动中小企业和风险资金投资电影业的积极性。互联网成为电影业融资新模式，比如大获成功的电影《我的老婆是大佬》就是通过互联网融资，筹得了 280 万美元的拍摄资金。电影基金为韩国电影业发展打造了



雄厚的物质基础。据统计，目前各种渠道的电影投资基金总额超过了 1.5 亿美元。充沛的资金让韩国电影有能力引进好莱坞的先进制作技术，同时也大大促进了韩国国内的影院建设。

图 3-1 韩国电影业的融资渠道

2、人才优势

韩国有一批专业化水平极高的电影专业人才。韩国电影高等教育发达，韩国虽然只有 5000 万人口，但有超过 200 所综合性大学设有表演系，且拥有 50 多所电影院校，入学门槛普遍高于普通高校，每年电影、戏剧专业的毕业生多达上千人。

（二）从需求条件来看

1. 抓住国人需求，渗透国内市场。按照波特的观点，如果一个企业连国内市场都做不好，那么所谓走向世界就是天方夜谭。韩国是世界上仅有的三个国产电影市场占有率超过 50%的国家之一。

2. 巧妙的“东方”策略，迎合了东亚、东南亚观众的需求。韩剧是以儒家文化为核心的韩国传统文化和现代都市文化及西方文明融合的产物。韩剧的“东方”策略非常有效，直接的成果是以最快的速度获得了东方文化范围内东亚、东南亚国家的高度认同和青睐。

(三)从相关与支持产业来看

1. 韩国电影产业的振兴是和韩国整个文化产业的发展密不可分的。自 1998 年韩国提出“文化立国”以来，该国的电影、动漫和游戏等文化产业均取得了很大的发展，且形成了相互促进、良

性互动的产业链条。文化产业与其他产业的产业关联性导致文化产业的拉动效应显著。据统计，100 美元的韩国电影剧等文化产品输出就会有 412 美元的产业拉动。文化产业每 100 万美元的出口额，就会带动 14 到 15 人就业。产业影响力较强能带动相关产业的发展，并为经济创造更多的就业。

2. 韩国电影产业的发展并没有局限在娱乐领域，而是与韩国电子产品、服饰、餐饮、化妆品和旅游等产业相互联动，发展了一个相互影响和带动的循环体系，形成了一个多米诺骨牌似的商业链条。一方面，韩国电影产业的成功促进了全国化妆品、饮食、医疗整容、日用品等工业的发展，带动了旅游业的蓬勃发展。另一方面，这些产业的发展也反过来推动了韩国电影产业的增长。

(四) 企业策略和企业结构、企业竞争

1．分阶段推进的市场定位策略

2007 年，韩国政府专门召开国务会议，根据“韩流”发展现状制定针对不同国家和地区的推进策略，将“韩流”市场分为深化、扩散和潜在三个等级，分阶段推进。从有着文化和地域贴近的地域开始开发，到逐步打开下一个市场，这三个市场之间都存在着“环环相扣”的关联。

2. 国际市场营销观念和先进的营销手段

韩国文化市场微观主体的市场观念比较发达，许多电影公司很注重国际市场营销。韩剧依赖大众流行文化机制，全球化的市场，明星制度、经纪人制度，产生了跨国界的文化吸附力。韩国电影作品，从制作到拍摄，再到包装、后期的宣传、推介和销售，是一套完整的亚洲版好莱坞模式。此外，釜山国际电影节等三大电影节也成为韩国向世界宣传和推广本土电影的平台。先进的营销手段少不了畅通的营销渠道，韩国文化产业振兴院在境外设立了办事处，目前已有中国、日本、美国和欧洲四个办事处，用以加强市场调研和开发，正是这样完善的中介机制和完整的海外销售渠道推动了韩国电影产品的出口。

(五) 政府：政策因素

政府对产业的支持和认可，是产业发展的重要保障。为优化电影产业的发展环境，韩国政府在政策、法律、机构、资金、人才方面作出了很大的努力。

1. 制定相关法律，成立专门机构。早在 20 世纪末，韩国政府就通过了《文化产业振兴基本法》，把文化事业提升为 21 世纪创造高附加值的重点发展产业，为文化产业发展制订中长期计划和目标，

并设立韩国放送（广播电视）影像产业振兴院，电影发展基金等机构，制定切实可行的产业发展政策并有效指导和支援韩国电影产业的健康成长和发展。

2.实行税收优惠政策。1955 年，韩国政府对国内所有电影制片商都实行免税。一直到今天各种各样的税收优惠还在从不同的方面保证和促进韩国电影产业的发展。韩国鼓励像三星、大宇那样的大财团进入电影界，对其实行减免税政策。

3.实施电影配额制。为保护本土的电影产业，韩国政府实施了电影配额制，即规定义务上映日。根据韩国《电影振兴法执行令》，韩国电影院每年至少播放 146 天国产影片（2005 年缩小为 73 日），电视台播放国产影片也必须保证达到 25%。

四、中韩电影业合作契合点与合作方式

抵挡欧美电影产业对韩中国内电影产业的冲击，实现两国电影资源优势互补共同提升世界电影份额，是两国走向电影业合作的外在驱动力。韩国丰富的文化创意资源和专业的技术人才，中国的庞大的市场规模和充裕的电影资金，成为两国合作的契合点。韩国本土市场太小，发展受限需向外扩张，与韩国一海相隔的中国，与其有相似的地缘文化。中国 215 亿的年票房产量和巨大的电影产品的需求潜力，是韩国电影产品较为理想的出口国。中国电影制作缺乏有创意的剧本和专业化的技术人员。所以对于韩国电影团队进入中国市场报以欢迎的姿态。中韩电影资金深度融合，中韩合拍影片成为未来韩中电影合作的主要形式。

参考文献:

1. 李薇. 基于国家钻石模型分析比较中美影视产业竞争力[J]. 中国物价, 2009, (9): 56-59
2. 陈文轩. 中韩文化产业发展比较与合作展望[J]. 亚太经济, 2014, (1): 84-88
3. 张振宇. 中韩电影对话： 政府扶持、产业发展和文化研究 ——中韩影视研讨会综述[J]. 学术视野, 2013, (12): 121-123
4. 陈宜芳. 一茎花开两地香: 探讨中韩影视的共同制作之路[J]. 影像动漫, 2015, (2): 92-94
5. 胡璐. 韩国影视产业振兴的经济学分析 ———基于波特“钻石模型”的思考[J]. 中外企业家, 2009, (4): 96-97
6. 尹鸿. 世界电影产业发展趋势研究报告[J]. 现代传播, 2014, (8): 1-8
7. 孙永. 关于推进中韩文化产业合作的思考[J]. 当代史, 2009, (9): 420-431
8. 朴光海. 中韩文化交流的现状及问题[J]. 当代亚太, 2007, (7): 59-64
9. 刘宝全. 韩流在中国的传播及其对中韩关系的影响[J]. 文化研究, 2014, (1): 67-81
10. 张隽. 探析韩国文化产业的发展战略及启示[J]. 当代韩国, 2009, (7): 43-47
11. 丙明杰. 产业竞争力的“新钻石模型”[J]. 社会科学, 2006, (4): 68-73
12. 岳琦. 中韩 FTA 推动两国影视行业整合提速[EB/OL]. http://www.ce.cn/culture/gd/201501/09/t20150109_4302147.shtml.
13. 搜狐娱乐. 全球影市数据出炉：中国人均票房倒数第二[EB/OL]. http://yule.sohu.com/20140328/n397378481.shtml.
14. 网易财经. 韩国政府为何如此重视文化产业？[EB/OL]. http://money.163.com/15/0408/10/AMMOTDOH00253G87.html.
15. 陈少峰. 中国文化企业报告[M]. 北京: 2014. 46-63

해상연행-중국 청나라 해관보고서에서 본 한·중 무역과 항구변화(1882-91)

김성진, 엄지덕
북경대학교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92 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투자, 유학, 외교 등 다방면의 교류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하나의 "운명공동체" 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교류가 있었다. 조선의 건국과 멸망은 중국의 명나라 건국과 청나라의 쇠락 까지,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청나라의 도광 황제 11 년(1831 년)에 조선의 유교학자 여신환은 청나라의 쇠망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청나라의 멸망이 곧 조선에도 화를 미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청나라가 두 번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을 겪은 후 그는"청나라의 안정이 곧 동방의 안정이고, 청나라의 위기가 곧 동방의 위기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과 중국은 근대에 모두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다. 근대의 이러한 고난들이 양국의 국민정서에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요즈음, 한중 무역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우리는 과거 조선과 청나라간의 무역 발전 역사 연구를 통해 국제무역 운송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본론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압록강 등의 하류를 건너면 왕래할 수 있다. 한반도 북부는 산악지대가 비교적 많긴 하나,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두 나라는 많은 교류가 있었다. 왕우랑(王禹浪)등의 총서에 따르면, 지식계층의 조선 사절단이 중국으로 출사할 때의 견문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 중 《老峰燕行日记》(노봉연행일기)´ 《老稼斋燕行日记》´ 《燕行录》(연행록)´ 《入燕记》(입연기)´ 《燕行日记》(연행일기)등 모두 사절왕래를 통해 남겨진 중요한 역사자료들이다 [1]. 이 책들의 제목을 보면, 모두'연'(燕)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은 단옥재(段玉裁)가 고대 한어사전에 포함시킨 '제비'라는 뜻 [2] 외에, 특정 지방의 명칭이기도 했다. 조선의 사절단이 중국 국경을 넘을 때는 현재의 요동부터 베이징 근처의 유주 (幽州) 라는 지역을 꼭 지나야 했다. 춘추전국시대에 그 지역에는 '연'(燕)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다. 한나라 초기와 삼국시대에 쓰인'연 나라'및 '연 군'이란 명칭은, 석경당(石敬塘)이 '연운'을 거란에 할양할 때까지 유주 지역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 선조들은 이렇게 묘사하였다. "산형이 험준하고, 하천과 못은 잘 흐른다. 외세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중국의 척추이다. 지역 형세가 강해서 천부(天府)라 부른다."이런 기록들은 당시 두 나라가 왕래하는 길이 얼마나 험준했는지 말해준다. 그렇다면, 조선반도 이북 백두산 등지의 험준한 지형적 한계로 인해 육로를 통한 무역교류의 물품 종류와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험준한 지리환경이 양국의 교류를 방해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중국으로의 진입방식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항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미 공업화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유럽국가들이 잇따라 동쪽으로 향하는 길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청과 조선이 외국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물론 두 나라와 일본에게 이것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청나라를 예로 들면, 청나라의 개국(开国)은 19 세기 중반의 아편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칙서(林则徐)가 청나라의 흠차대신(钦差大臣)으로 영국상인들의 아편을 불태운 것은 도화선에 불과했다. 아편전쟁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영국의 자유상인들이 청나라 정부의 보수적이고 왜화(矮化)적인 무역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나라를 전쟁선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결국 전쟁에 패한

[1] 王禹浪、程功、刘加明：〈迎二十年中国燕行录研究综述〉，《哈尔滨学院学报》，第 33 卷（第 11 期），2012 年 11 月，页 1。

[2] 段玉裁（清）：《说文解字注》。北京：中华书局，2013 年，页 587。

청나라가 개방에 동의하고 더 많은 연해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허락하게 만들었다. 아편전쟁은 본질적으로 무역으로 인한 전쟁인 것이다. 일본에서도 19 세기 중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페리 군함이 일본을 강제개방 하도록 했고, 《가나가와 조약》(《화친조약》)을 맺음으로, 일본 또한 정식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조선의 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다. 1876 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1882 년 미국과의 《제물포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일본은《강화도조약》이라는 근대의 조약 체계 이념에 의거해 중국과 조선의 조공관계를 부정했다. 한편, 이 조약은 중국과 조선의 근대 관계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측면의 통치기초에 직접적인 공격이 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 내릴 수는 없다. 어떤 국가이든 사회에 서로 다른 복잡한 이익 단체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국제 정치상황의 변화와 그로 인한 충격과 손해가 입에 겨우 풀칠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민간인, 혹은 장사로 부자가 된 상인들에게 똑같은 "악몽" 이었을까? 생계를 유지하기도 바쁜 그들은 그들은 어쩌면 국가의 성망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들 또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혹은 심지어 수혜자는 아닌지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시기의 청나라 해관보고서를 통해 본 진상은 더 복잡했으나 한중 무역이 이런 상황가운데 더욱 활발해진 흔적을 발견했다.

1. 청나라 해관(海关) 현대화의 유래

실제로 청의 해관보고서에서 당시 중국과 조선의 무역 발전 형태를 보기 위해, 먼저 그 자료들이 믿을 만한 지 알아야겠다. 청나라 함풍제 통치시기(1851~1861 년)에 국가의 주요 세금은 크게 토지세, 운하세, 관세와 염세 4 분류로 나뉘었다 [3]. 저자罗玉东은 노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는 것과 집권계층의 안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썼다. 만주족(청)이 중국의 중원지역(산해관山海关 안쪽 지역)에 들어와 한족을 통치했던 시기에, 강희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절대 부역을 늘리지 않겠다' 란 약속을 내세웠다. 50 년이 지난 후, 늘어난 인구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았다. 나중에 용정제는 인두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세가 세금의 범위에 들지 않게 되었다. 정부에서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있을 때는 국고에 모아둔 세금이나 기부를 받아 지출했다 [4]. 불행히도, 이런 원칙들은 나중에 청나라 중엽의 재정 긴축의 원인이 되었다. 청나라가 중반부터 안정을 찾은 후에, 징세 확장이 부족해 인구팽창, 상인들의 증가, 빈부격차의 문제를 야기했다. 상인 세력이 점점 커졌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점점 약해졌다. 청나라 정부가 재정 긴축의 국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새로운 정책——상품의

[3] 罗玉东：《中国厘金史》。上海：商务印书馆，民国 25 年（1936 年），页 1。

[4] 散见于罗玉东：《中国厘金史》，页 1—8。

지방통과세와 해관사서를 설립했다. 지방통과세란 상업활동에서 징수하는 두 종류의 세금을 뜻하고, 새롭게 설립한 해관총세무 (海关总税务) 는 서양인에게 위임하였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후자(해관총세무)에 집중된 일련의 개혁이 이 글의 내용 중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아편전쟁이 끝난 뒤 영국, 프랑스 연합군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날, 상해에서는 일련의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소도회 [5]가 그 중의 한 예이다. 1854 년 12 월 19 일, 강소성 순무 [6] 가 함풍제에게 올린 상소의 한 단락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 혼란스러운 청 조정의 상황 가운데, 영국, 미국, 프랑스 삼국이 함께 세무관리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때부터 외국인이 청나라의 해관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관리하는 해관의 예시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영국인의 주도하에 관리하는 해관세무는 곧 외국이 청나라의 국고에 간섭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처음 총세무사를 맡은 넬슨 레이(Horatia Nelson Lay,李泰国)와 로버트 하트(Robert Hart,赫德) 등, 영국인이 장관이 되어 세금을 걷을 때는 여전히 청나라의 개혁과 현대화 체제를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넬슨 레이가 1856 년 지방장관을 통해 강소성의 순무에게 복주(福州)의 중요한 길목에서 일어나는 탈세현상에 대해 자세히 보고한 것이 있다 [7]. 何桂清과 劳崇光이 광동 세관 관무를 정리할 때 李氏의 재능을 칭찬하며 추천하는 상소를 올렸다 [8]. 심지어 공친왕 혁흔이 나중에 李氏에게 각 항구의 세금 탈세현상을 해결하도록 지시했을 때, '한번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9].

따라서, 영국인이 청나라의 실제 해관사무를 지휘했다 하더라도 청 정부는 세금수입의 증가함과 동시에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청나라 신식(新式) 해관의 또 다른 개선된 점은, 베이징 중앙정부에 매년 수입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로 인해 상세한 보고서가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고 그 중 영국의 제도 방식에 맞춰 쓰여진 조사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중 무역의 실황을 보여주었다.

2. 19 세기 말의 조선무역

영국의 공공행정제도에 따라, 정부는 매년 해관기록을 종합하여 그 해의 동태기록을 남기고 보고서로 편집했다. 로버트 하트(赫德)가 쓴 보고서가 나온 것은 두 나라의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든 시기이다. 게다가 서양문물이 동양으로 유입됨에 따라, 로버트 하트가 묘사한 당시의 상업환경은 비교적 자유롭다. 무역상황이 예전과 많이

[5]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의 회복(반청복명反清復明)을 주장하는 청 말기의 비밀 결사단.

[6] 명청시기의 지방행정 장관.

[7]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457－458。

[8]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1725。

[9]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2705－2706。此外李氏接任人赫德亦曾具体地奏报新的徵税方案，详见页 2918－2922；2926－2943。

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은 청나라 초기의 두 나라가 종속관계일 때를 말한다. 장존무(张存武)가 쓴 내용에 따르면, 만주족이 산해관 안쪽으로 침입하기 전, 조선은 만주족을 문화소양이 부족한 외지민족으로 보았다. 게다가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청나라가 먼저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나중에 청나라가 산해관 이내 중원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조선으로 침략, 조선의 국왕을 청나라의 신하로 격하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청과 조선은 257 년간 종속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0]통계에 따르면, 1637 년부터 1894 년 사이 이조(李朝) 정부가 청나라에 바친 조공의 가치는 7790 만양의 백은(白银)에 다다른다. 일반적으로, 청 조정이 외국 사절단에게 받은 조공에 상응하는 회답을 하긴 하나, 그 구체적인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조선의 조공 사절단이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은 요동지역에서 바뀐다. 그들은 랴오양을 거치지 않고 지금의 성경(지금의 심양) 지역을 꼭 지나야 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베이징의 역로로 길을 이용했다. 청나라는 명이 하던 대로 조선 조공사절단이 북경의 회동관(京师会同馆)에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허락하고, 머무르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조선은 이러한 무역을 "연행무역"이라 불렀다 [11]. 조공무역이 한중 교역의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시기에 발전한 중한무역은 '조공'이라는 체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자유무역이라 할 수 없다. 조선 조정은 너무 많은 은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50 양 이상의 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게다가 청나라 초기에 조선 사절이 청나라 국경을 넘을 때 귀중품을 갖고 가려면 자문(谘文) 이 있어야 했고, 없으면 밀수로 여겨졌다 [12]. 모두다 간접무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정부주도 교왕의 무역을 제외하고, 양국의 국경선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무역은 어땠을까? 발전단계였다고 할 수 있지만 백성들에게 보급된 정도는 아니었다. 만주족 청나라가 중원지대로 온 뒤, 경제중심이 심양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청나라 초기 양국 무역의 이익을 본 사람들 중에는 변경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다. 무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사는 곳(고향)을 제한한 것이 무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3]. 큰 규모의 무역은 아니었지만, 나중의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은 크다. 장춘무의 말에 따르면, 길림성의 농경지와 요동지역을 개통하고, 조선의 수공제조업과 상업, 심지어 도시와 초기 자본주의의 발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선과 청의 국부지역의 경제와 무역발전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10] 张存武：《清韩中藩贸易》。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民国 74 年（1985 年），第二版，页 9。

[11] 陈尚胜：《中韩交流三千手》。北京：中华书局，1997 年，页 73。

[12] 张存武：《清韩中藩贸易》，页 65.

[13] 本文这一论点是参考张存武：《清韩中藩贸易》，页 167－175。张氏在书中指出的边界状况和清政府开市规则都有限制。

그러나, 청나라 초기의 무역관리가 비교적 엄격했다는 것과 그로 인한 상업무역의 잠재력이 다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 외에, 우리는 또한 청나라가 조선의 상업발전을 이끌었다는 해석이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청 말기에 두 나라는 모두 국제화 무역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었고, 하트(赫德)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 당시 조선은 오히려 청나라의 상업생산에 영향을 끼쳤다. 이 전환은 청나라 광서제 통치시기부터 명확히 나타났다.

3. 청의 중개무역항(中介贸易航) 뉴좡(牛庄)

현존하는 역사자료에 따르면, 19 세기말에 이르러서 한중 양국간의 무역은 더 이상 동북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해도시로까지 이어졌다. 뉴좡은 '잉커우'라고도 불리고, 산동과 요동반도 내에 발해라 불리는 항만에 위치해 있다. 심양은 그로부터 동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동남방향으로는 걸어서 단동에 도착할 수 있고, 계속 가면 조선이다. 두 번의 아편전쟁 기간 동안, 《천진조약》에 의해 몇몇 주요 항구도시들이 개시장(open market)으로 개방되었다. 영국 국적의 총세무사가 해관을 관리하기 시작한 후로, 항구 부 해관세무사(副海关税务司) 몽고메리(G. F. Montgomery) 가 상급에게 보고한 것에 따르면, 그 항구는 1881 년 대부분의 물류가 영국 식민지의 홍콩지역에서 왔다. 그 뒤로, 1891 년 전의 10 년동안 몽고메리가 관찰한 조선 상인들은, 처음엔 중개인을 통해 국경 근처의 중요한 길목에서 물품을 구매하곤 했다. 반면 뉴좡에서 진행한 무역은 대부분 봉황성과 연관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상인은 어떤 물품을 구매했을까? 몽고메리는 의류와 영국의 시추기계라 했다 [14]. 재미있는 것은, 조선 조정은 당시 서양물품의 반입을 금지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인회는 종종 면제품을 염색하고 중국식으로 포장해서 정부의 검열을 피했다 [15]. 몇몇 사료에서 볼 때, 조선사람들은 주로 영국에서 생산하는 면제품이 필요했던 것 같다. 또한 조선 본토에서 공업용품을 생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기록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시기의 중국과 조선의 무역은 더 이상 두 나라의 물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었다. 청나라 조정이 점점 더 외국에 개항(开航)함으로 인해, 유럽산 물품들이 홍콩을 통해, 다시 청나라 항구를 거쳐(이 때의 홍콩은 중국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에 공급하는 것이 당시의 무역방식 이었다. 그런데 몽고메리는 또한 보고서에 중개항 역할을 한 뉴좡에서 조선과의 무역이 점점 줄어들다 결국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조선무역은 줄어들게 되었을까? 다른 항구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자세히 연구해 보면, 뉴좡은 원래 조선무역의 발전추세 중 작은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금새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당시 멀지 않은 연태 항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4]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 8.

[15]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 8.

4. 교통 발전아래의 연태 항

연태 항은 뉴좡과 멀지 않은 남쪽에, 뉴좡과 마찬가지로 발해 [16]해안 범위 내에 위치해 있다. 산동반도 북안에 위치한 연태시(市) 역시 1858 년 천진조약에 의해 개방되었다. 뉴좡 항구에서 조선으로 가는 육로에서 중개무역이 진행되던 때에, 1882 년 조선도 대외개방을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1882 년부터 《제물포조약》,《강화도조약》이 차례대로 미국과 일본에 개방무역을 허락했고, 1883 년과 1885 년에 계속해서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와 조약을 맺었다.[17] 제물포, 부산, 원산이 차례로 대외개방을 했다. 따라서, 이 세 구역에서 뉴좡과 봉황성 사이의 무역 육로를 대체 할 새로운 무역 노선이 생길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연태 해관세무사를 대행한 제임스 캐럴(James W. Carrall)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1882 년 조선의 대외개방이 연태와 조선간의 무역을 촉진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추측은 틀렸다. 1886 년까지 연태와 조선의 무역에 별다른 좋은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18]. 1886 년부터 조선과 연태 사이의 무역은 연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태는 뉴좡보다 두 지역사이의 바다로부터 가까운데다가 요동반도의 해안선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나라 남쪽과 교류하기 더 편리한 이유로 청,조선,일본을 왕래하는 선박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케럴은 보고서에 기록하길, 이건 일본인이 설립한 선박 회사다. 이 회사는 고베, 부산, 제물포, 천진과 연태를 잇는 선박을 연간 64 번 운행했고, 조선과 연태는 중요한 무역관계를 만들게 되었다.[19] 2 년 후, 부산과 제물포에서 연태항으로 직행하는 항선 외에, 선박 투자국은 청 당국의 보조 하에 상해에서 연태와 조선 항구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도달하는 노선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청의 해관보고는, 이 노선이 곧바로 연태와 원산을 연결하고, 승객이나 화물에 상관 없이, 모두 다 이익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보고서 기록에 따르면, 연태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주로 외국 공업품, 예를 들어 철재, 성냥, 유리로 된 물품 등과 청나라 남쪽에서 온 식량과 식용유 부식(副食)품 또한 물론 포함했다. 조선에서 온 물품은 주로 제지와 어류 등이었다. 이 무역은 물물교환이 아닌, 황금이 화폐가 되었다.[20]

[16]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의 바다.

[17]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 Decennial Reports 1882-91, Appendix II p.xxxiv.

[18]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 Decennial Reports 1882-91, p.41.

[19]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41-42.

[20]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42-43.

그밖에, 연태가 조선무역의 중요거점이 된 후, 그로 인한 끼친 두 가지 영향에 대해 쓰려 한다. 일상 관련 선박의 편리함을 이용해, 부두에서 나간 우편물들은 각각 다른 우편 수집원에 의해 한곳으로 모이고 처리되었다. 즉, 조선에 오고 가는 우편물은 이미 연태와 조선간의, 전해주는 중개인이 있었다 [21]. 또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무역이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산동의 상점 사람들은 그들이 제물포와 서울,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무역 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산동 상점들은 자원하여 이 조직에 기부함으로 더욱 단합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 세기 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태는 조선반도와 왕래하는 중요한 항구가 되었고, 해로운송이 육로운송을 대체했다.

5. 교통망과 자유정책

청나라와 조선의 무역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두 가지 큰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양국 조정간 교류에서 비롯된 종속무역(조공무역)이 민간 자유무역으로 전환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역로가 육로, '입연(入燕)'에서 정기적인 대형 선박 항선(航线)으로 바뀐 것이다. 첫 번째의 육로는 무역교류의 규모와 참여하는 사람 수와 물품종류를 제한했다. 선박으로 무역을 진행할 만큼 현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무역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어찌되었건, 나중에 선박을 들여오고 중국과 조선의 민간무역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배를 타면 곧바로 청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지로 무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원래 육로로 꼭 거쳐야 했던 뉴좡시는 점점 무역노선으로의 의미를 잃었다. 반대로 무역선박이 연태항에 도착하자 마자 곧바로 물품매매를 시작할 수 있고, 운송량에 있어 육로보다 훨씬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태에서 많은 무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운송이 가능한 현대적인 무역 교통수단이, 무역 노선상에 있는 지역은 발달하고, 노선에서 먼 지역은 무역이 발달하지 않도록 하였다.

19 세기 말, 양국 정부는 어떻게 무역시장을 발전시킬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위의 문단에서도 알 수 있듯, 맨 처음 연태와 조선을 왕래하는 선박이 사실은 일본회사가 운영하는 것이었다. 청 정부의 보조를 받은 선박 운영국이 비슷한 노선을 만들었다. 대형 운송과 무역지점까지 편하게 도착하는 교통망이 만들어지자,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언제든 이루어 졌다. 두 곳 혹은 더 많은 선박 운영국이 무역교통 운송에 참여했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교통망 운영의 독점을 막고 가격을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청나라와 영국식민지인 홍콩정부가 광구철도를 운영했는데, 원래는 광주와 홍콩만 왕복하던 선박 노선이 가격은 비슷하지만 속도가 빠른 기차가 나타나서, 승객들이 더운 여름엔 배를, 겨울엔 기차를 이용하게 되자

[21]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 73.

선박 운영을 밤 시간대까지 연장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22]. 이런 경쟁력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무역정책과 편리한 교통망에 의해 민간사회에 중한무역이 주체가 되고 우편행정과 동향상회(同乡商会)합작소 등이 그 주체를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면서, 조선의 거주민들이 무역으로도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경상도, 황해 등지의 남쪽지방에서의 쌀 생산이 수요가 큰 일본에 파는 등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23]

결론

결론적으로, 근대의 한중 무역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나 민간이 육성한 대형 항운(航运)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업무역환경과 두 지역의 민간 사이에서, 서로의 지역 생산품 혹은 중개무역 상품에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난 것이 양국간 무역교류의 기반이 되었다. 즉, 청 말기 조선과의 무역발전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 환경에 의한 것이다.

세계는 이미 G2 시대가 되었다. 세계의 경제중심이 아시아로 바뀌는 추세에 중국이 또한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에게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연구와 양국간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한중 양국의 국가간 교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은 근대부터 그래왔듯,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공생'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2] 严智德：《九广铁路（英段）修筑、运营对香港民众生活的影响（1910－1914 年）》，硕士学位论文，北京大学历史系，2011 年，页 170－175。

[23]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Appendix II, XXXVII.

海上燕行-从清国海关报告看中朝贸易与港口更迭（1882—91）

金成真，严智德
北京大学

中韩两国自 1992 年建交以来，在经济、文化、投资、人员流动和外交等多个方面取得了突飞猛进的发展，成为唇齿之邦。当然，这一系列瞩目的成果并非一日建成，两国自古至今，就像一个“命运共同体”，关系密切、交流频繁。而且，朝鲜建国到灭亡，跟明朝建立到清朝衰落时期大致相同。早在道光十一年（1831），朝鲜儒学家俞莘焕为清朝的衰亡而担忧，因为清朝一旦覆灭便会殃及朝鲜。清王朝在经历两次鸦片战争和太平天国运动后，他叹息道“嗟乎，使中国而安也，东方亦安也，使中国而不安也，东方亦不安也。”到了近代，两国同时面对列强的侵略，经历了不少同甘共苦。到近代以来这些共享的历史也在两国国民情绪上形成一种“纽带”，构成共同成长与协作的关系。因此，对中韩贸易平衡和可持续增长的研究旺盛，但对近代中韩关系史研究还处在一个极为初级的阶段，需要深入研究。古代中国不仅在丝绸之路进行贸易，还有海上丝绸之路，宋元时期的海上贸易极其活跃。中韩两国间的海路很短，其实根本就不需要“海上丝绸”似的特定路线，而是从民间到官方随时进行交易。但对此的研究成果，到目前为止还算缺乏。我们相信，研究清朝和朝鲜的贸易发展史，面对国际交易运送环境的变化和东亚以及世界经济局势的改变，给中韩两国未来的贸易和交流发展指出新的道路。

正文

朝鲜半岛与中国东北地区接壤，跨过鸭绿江等河流便可以来往。虽然朝鲜北部山地较多，但双方早于中古时期已有往来，直到近代一直如此。根据王禹浪等人的综述，作为知识阶层的朝鲜使节，他们在出使中国期间普遍会对行程见闻作纪录，现今所见的《老峰燕行日记》、《老稼

斋燕行日记》、《燕行录》、《入燕记》、《燕行日记》等都是因为使节交往而留存得来的重要史料[1]，但如果观察这些史料的命名，我们可以发现朝鲜使者有一种共同习惯，那就是在他们自己的著作标题加上「燕」字。其实对于中国文化而言，「燕」除了像段玉裁以古汉语典籍所归纳出具有「玄鸟」的意思外[2]，还代表了对指定地方范围的称呼。因为朝鲜使团进入汉境时必定经过现时辽东至北京的幽州之地，春秋战国时代该地有一国称「燕」，汉初与三国时代仍沿用「燕国」及「燕郡」的称呼，及至石敬塘割让「燕云」入契丹仍然继续所指幽州，而前人所指该地「府關山險峻，川澤流通。據天下之脊，控夷夏之防，巨勢強形，號稱天府」[3]。这些纪录都证明了一种情况，当时的两地往来多走陆路，那么我们又不禁会继续推敲，受朝鲜半岛以北有长白山等高地限制，陆路携带物品种类和数量应该是非常有限的。换句话说，陆上地理位置限制了两国的交流。

当时人到底有否尝试改善或克服进入中国的方式和天然障碍，不得而知，但随着大航海时代的到来，已步入工业化的欧洲国家相继向东方展开探索之旅，清国与朝鲜半岛对外界交流的次数亦渐见频繁。当然，对于两国，或者是日本的统治阶层而言，这并不是什么愉快的经历。就以清政府为例，十九世纪中叶的开国可追溯至鸦片战争，当时林则徐作为清政府钦差大臣销毁英商鸦片其实只是导火线而已，冲突背后真正原因是因为英国自由商人早已对清政府对贸易的保守和矮化而感到不满，继而又成功地把其本国政府推向战争边缘[4]，最后清国战败同意开放更多沿海地区并允许自由贸易，所以本质上这是贸易因起的一场战争。相类似的情况亦同样在日本发生，美国军舰的到来引发「黑船事件」和《神奈川条约》的签订，日本正式开国。至于朝鲜，其开国则相对较晚，及至各在 1876 年与 1882 年，跟日本《江华条约》和美国《济物浦条约》才正式签订。尤其是《江华条约》，日本根据近代条约体制的理念而开始正面否定中朝两国之间传统的朝贡关系，同时成为近代中朝关系史的开端。

这些事件虽然直接冲击了国家层面的统治基础，但我们仍不应过于简单地给予评价。不论国别，社会内存在着不同利益群体是不可避免的，而且非常复杂。有时候，对于只求糊口谋生或经商致富的民间社会而言，政体层面的改变或备受冲击又是否真的会为他们带来相同的噩梦？

---

[1] 王禹浪、程功、刘加明：〈迎二十年中国燕行录研究综述〉，《哈尔滨学院学报》，第 33 卷（第 11 期），2012 年 11 月，页 1。

[2] 段玉裁（清）：《说文解字注》。北京：中华书局，2013 年，页 587。

[3] 《读史方舆纪要》卷一一《北直》二，中华书局，2005 年，页 439—441。

[4] 鸦片本来是英国商人的私产，当林则徐要求当时英国在华商务总监督查理．义律（Charles Elliot）交出所有英国鸦片时，义律本人其实是表现出合作姿态的，但没有想到当鸦片被交出时林则徐以高姿态的方式将所有鸦片销毁，甚至把英商驱逐出境，如此动作便给予英商和相关官员向英国国会报告英国公民在清国境内受到不公正对待、英国政府财产被侵夺的口实。当远在伦敦、只能从报告文书中判断情况的英国国会作出出兵决定后，事件最后演变成两国战争。也就是说，把鸦片战争描述成在自由贸易渐渐打破像东印度公司般的垄断情况下，英国商人运用法律灰色地带输入既是毒品也是医药用品的鸦片从而打破由清国造成阻碍自由贸易的障碍，最后在偏袒英商的驻华官员协助和清政府官员率直的销烟动作下，他们又成功地把私人纠纷演变成国际冲突，借用了国家体系方便将来的贸易前途和个人利益。

到底他们是纯粹的受害者，还是好坏参半？甚或者是受益者？其实在很多时候，忙于谋生的老百姓没余关心国家的盛衰，这也许这些问题至今仍然需要探讨。当翻开这一时期的清政府海关报告时，我们可以发现的真相是更为复杂的，而中韩贸易更有因为这样而兴旺起来的迹象。

一、清国海关现代化的由来

在真正动用清国海关报告书查找当时中朝贸易的发展形态时，我们有必要先了解一下为何这些资料可信。清咸丰帝统治（1851－61 年）以前，政府主要税收来源源自于地丁、钱漕、关税和盐课四大类 [5]。罗玉东先生还道出了轻徭薄赋与维护统治者稳定之间两者的关系，所以满族 [6]入关统治汉族中原初期，康熙帝为了安定民心亦以「永不加赋」为祖训，五十年后滋生人丁不征税金，后来雍正帝的「摊丁入亩」更使田税亦纳入不加税的范围，当遇有非恒常开支则以国库积累或者是捐纳来应付 [7]。不幸的是，这种原则刚好为后来清中叶的财政紧绌埋下了伏线。随着清中叶以来局势相对稳定，欠缺扩张性的税制又引伸出人口滋生、商贾抬头、贫富悬殊的局面 [8]。渐渐地，商人势力坐大而中央权力收缩，清政府为了挽救财政紧绌的局面，两项新措施在偶然性的推展，并合著中央政府考虑后面世。

这里所指的两项政策分别是厘金和设立海关司署。厘金所指的就是在商业活动上 征收两种税款，而委任洋人作为新成立的海关总税务则是另一项新税制措施。值得一提的是集中于后者的一系列改革为我们带来了在本文一系列讨论中的重要资料。就在鸦片战争结束后、和英法联军之役爆发前夕，上海发生了一系列的叛乱事件，其中小刀会便是一个例子。1854 年 12 月 19 日，江苏巡抚向咸丰皇帝上奏的一段内容反映了当时的混乱情况：

> 江苏巡抚吉尔杭阿奏：窃照上海逆匪之负嵎不下，皆由城外自东北洋泾滨迤南起至西北三茅阁桥一带，有各国夷商错杂寄居，再三要约官兵勿至其地，以免枪礮误伤其房屋人命。因而该逆转藉夷房为藏身之固，一被官兵击败，

[5] 罗玉东：《中国厘金史》。上海：商务印书馆，民国 25 年（1936 年），页 1。

[6] 满族亦即是位于中国东北地区的游牧民族，清皇室血统也属于此族。

[7] 散见于罗玉东：《中国厘金史》，页 1－8。

[8] 研究清政府晚期税收、白银、贸易，甚或与人口的关系是一个专门议题，例如孔飞力曾在《叫魂》一书中描绘了乾隆帝年间人口暴增下对粮食商业的需求，详见 Philip A. Kuhn, Soulstealers: The Chinese Sorcery Scare of 1768.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1990, p.34-47 ；林满红则研究白银与地方肆意铸钱之间引起的问题，详见其《银綫》一书；此外还有综述当时情况的篇章，例如《剑桥晚清史》，Susan M. Jones, Philip A. Kuhn. “Dynastic and The Roots of Rebellion” in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109-111。由于本文聚焦于中韩贸易的形态发展，无法再深入探讨此问题，所以暂且把此问题置于一旁。

> 即窜入夷房之后，官兵追至其地，夷兵即开枪轰击，以致兵夷互争，激成事端，几将不可收拾。[9]

在这种情况之下，英美法三国组织起税务管理委员会，从此外国人参与了管理清政府海关的事业[10]，而洋人管理海关的先例在后来获得延续。虽然海关税务交由以英国人为首的外籍官员掌管难免会使人产生外国干涉清政府国库的感觉，但首两任总税务司李泰国（Horatia Nelson Lay）、赫德（Robert Hart）等英国人作为客卿掌管征税时，仍然是为清政府带来改革和现代化体制的。例如李泰国在 1856 年通过道台人员向江苏巡抚详细报告福州关口漏税严重是具体而详细的[11]，何桂清与劳崇光在整理粤海关关务时又上奏并推举李氏并赞扬其才能[12]，甚至后来恭亲王奕訢在命令李氏主持各口岸完税防偷漏时同样称其「向来妥慎可靠」[13]，所以即使由英人实际操作海关事务，但清政府仍然在收入获得增长的同时掌握了实际权威。至于新式清国海关的另一种改善之处，是海关税务司为了向北京政府报告每年收入等情况，因此产生了一系列详细的报告书并留存至今，当中这种英国制式的调查纪录正好为我们提供了详尽的中韩贸易状况。

二、十九世纪末的朝鲜贸易

按英国式公共行政习惯，政府部门通常会在每一年终结以后把当年的动态纪录在案，并编成报告书。而赫德报告书的产生时间刚好处于两国官方干预息微的时刻，而且西渐东来，因此它所描述的商业环境是较自由的，情况并不像从前的一样。这里所指的从前，是清初宗藩关系的时候。根据张存武的成果，满清入关前一直被朝鲜视其为化外民族，缺乏文化教养，再加上与明政府站在同一阵线，对满清的多次主动接触显得冷漠。这种态度为后来满清入关，清军踏足朝鲜，并将朝鲜国王降为封臣，自此宗藩关系主导了两国关系达 257 年之久。[14]据统计，1637 年至 1894 年间，李朝政府对清朝的朝贡贸易总值达 7790 万两白银，一般来说，清朝廷对外国使团回赐的不少于进贡货物的总价值，但具体达多少不确定。这时期，朝鲜朝贡使团进入北京的路线，在辽东境内发生了变化，他们不必经过辽阳，却必经过盛京（今沈阳），然后由此取道从盛京至北京的驿道。清廷仍沿用明朝旧例，准许朝鲜朝贡使团在京师会同馆进行自由贸易，没有限制时间。朝鲜对此称为“燕行贸易”[15]。虽然朝贡贸易确实开启了中韩交易关系之门，在这一阶段发展而成的中韩贸易是以朝贡体系的本质而形成的，而且不见得是自由商业，例如朝鲜方面避免银元外流采取每人限带不超过五十两出关，况且清初朝鲜使节入清政府疆域时贵重货物需要先编谘

[9]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北京：中华书局，2014 年版，页 359。

[10] 陈诗启：《中国近代海关史》（民国部份）。北京：人民出版社，1999 年，页 2。

[11]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457－458。

[12]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1725。

[13] 中华书局编辑部整理：《筹办夷务始末》（咸丰朝），页 2705－2706。此外李氏接任人赫德亦曾具体地奏报新的徵税方案，详见页 2918－2922；2926－2943。

[14] 张存武：《清韩中藩贸易》。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民国 74 年（1985 年），第二版，页 9。

[15] 陈尚胜：《中韩交流三千手》。北京：中华书局，1997 年，页 73。

文，否则会被视为走私[16]，这些都是规限间接贸易发展的因素。那么除了官方式交往带动的贸易外，两国边界贸易又如何？其实尚在发展，并未达到全民普及的程度。满清入关后经济重心从沈阳往南迁移，所以清初边市互通惠及的很大可能是边境守军的补给，而限制参与人数及其居住地来源亦没法对贸易有多大的帮助[17]，充其量是将来的一些基础而已。用张氏的话语形容，是开辟了吉林省的农田和辽东地区，而且对朝鲜是更巨大的，因为激发了该国手工制造业、商业，甚至都市和前期资本主义的兴起是有巨大帮助的[18]，因此这些都可以定义成两国局部地区上的经济和贸易发展。

然而，除了得知清初贸易管理较严，商贸潜力未能完全释放的同时，我们又需要知道清政府带动了朝鲜的商业发展的这种理解其实是不正确的，因为晚清期间两国都正在面对着国际化贸易的到来，而且赫德的调查亦能显示出朝鲜甚至能反过来对清国商业产生影响。这些转变，主要从清朝光绪年间起变得明显。

三、牛庄作为中转贸易港

当历史发展至十九世纪末，现存史料所见两国贸易并不再局限于东北边界，反而是更加接近沿海城市。牛庄又名「营口」，位于山东和辽东半岛内名叫渤海的港湾，沈阳位处于其东北方不远之处，往东南方向行走则可以前往丹东，继而进入朝鲜。两次鸦片战争期间，根据《天津条约》开放成通商口岸。当英籍总税务司接掌海关管理以后，港口副海关税务司蒙哥马利（G. F. Montgomery）向上级报告[19]，此港口在 1881 年绝大部分的货品是来自英属香港殖民地。而在往后的日子里，截至 1891 年前夕的十年内，他所观察到的朝鲜半岛商人最初是通过中介经纪人在边界的关口购买物品，而这些在牛庄进行的贸易很大程度上是与凤凰城联系的。那么朝鲜商人到底购买了什么货物？蒙哥马利列举了衬衫衣料、和英国的钻机[20]。值得一提的是，朝鲜政府当时仍然禁止洋货的进口，所以商人会经常会把棉制品染色并包装成中国式风格从而避过官方监

[16] 张存武：《清韩中藩贸易》，页 65。

[17] 本文这一论点是参考张存武：《清韩中藩贸易》，页 167－175。张氏在书中指出的边界状况和清政府开市规则都有限制。

[18] 张存武：《清韩宗藩贸易》，页 225－228。

[19]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Decennial Reports on the Trade, Navigation, Industries, etc., of the Ports Open to Foreign Commerce in China and Corea, and on the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eaty Port Provinces, 1882-91, Shanghai, 1893, p.1.

[20]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8.

察[21]。从这些描述看来，朝鲜人是极其需要以英国为首所生产的棉品，而且朝鲜本土无法生产工业用具需求亦是明显的，只能依靠外国进口。那么，按这些在当时产生的资料所描述，我们还可以推论出，这一时期的中朝贸易不再是单纯的两地物产互换，随着清政府逐步对外国开放港口通商，欧洲货品先经过香港，再抵达清国港口并中转供应朝鲜已成为了当时的交易习惯。但是蒙哥马利在报告中又提到了朝鲜贸易在牛庄最终是息微并告终的。那么，到底是什么原因使朝鲜贸易息微？当仔细并合其他港口的报告时，我们又不难发现牛庄原来只是整个对朝贸易趋势发展中的一少部份，就在不远处的烟台港正在出现了一些变化。

四、交通线演进下的烟台港

就在距离牛庄不远的南端，同样是位处渤海海湾范围，但位处山东半岛北岸的烟台市也是在 1858 年的天津议和中开放的。就在牛庄港口前往朝鲜的陆路中转贸易正在进行的同时，朝鲜亦于 1882 年开始对外开放。从 1882 年起，《济物浦条约》、《江华条约》先后承诺对美国和日本开放贸易，而 1883 年和 1885 年又继续与英国、俄罗斯和意大利签订相关的条约[22]。济物浦、釜山、元山相继对外开放。因此，不难想像新的路线会从这三处作开端，取代牛庄与凤凰城之间的贸易陆路线。

如果按照署理烟台海关税务司贾雅格（James W. Carrall）所述，他们都认为朝鲜半岛 1882 年的对外开放能够促进烟台与半岛之间的贸易，然而他们的预料是错的，因为直至 1886 年仍然是没有任何起喜讯的[23]。可是从 1886 年起，两地贸易在烟台发生了重大变化，可能是因与牛庄比较更加接近公海，而且不需要绕过辽东半岛海岸线，甚方便于与清国南方省份沟通的原故，来往清朝、朝鲜和日本的轮船在这里投入服务。贾鸦格在报告中所说，这是一所日本人开设的轮船公司，他们投入了两艘轮船往来神户、釜山、济物浦、天津和烟台，一年共有 64 班次，所以朝鲜与烟台便构成了重要的贸易关系[24]。两年后，除了釜山和济物浦有直接航线往来烟台港，轮船招商局在清政府补贴下又开始经营来往上海经烟台和朝鲜半岛港口至海参威的航线，海关报告对此的描述是这立即把烟台和元山连接起来，不论客货运同样有利可图。此外报告又描述了在烟台出发的货品主要是外国工业品，例如铁材、火柴、玻璃品等等，当然亦包括了由清国南

[21]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8.

[22]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 Decennial Reports 1882-91, Appendix II p.xxxiv.

[23]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 Decennial Reports 1882-91, p.41.

[24]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41-42.

方而来的粮油副食品。至于朝鲜来货，主要是纸制品、鱼产品等，货品买卖时不是以物交换，而是以黄金作交易。[25]

此外，当烟台成为了朝鲜贸易的重要据点后，当中又有两项延伸而至的影响值得一提。趁着日常轮船之便，出埠邮件在不同行号中经由收件专员收集并处理，也就是说来往朝鲜的信件派递服务已经存在于烟台与朝鲜半岛之间，有中介人从事了这项业务。[26]另一方面，由于对韩国贸易日盛，山东人开始重视组织行会以保护他们在济物浦、首尔和海参威的利益，山东行号可以自愿性地捐献给行会以团结起来。于是，在十九世纪末，不论在直接或间接的形态下，烟台都成为了往返朝鲜半岛的重要港口，海路运输亦取代了陆路。

五、交通网与不干预政策

回顾清朝与朝鲜贸易的进展历程，可见两大突破。首先是从官方交往引伸而成的宗藩贸易改进为民间的自由商业，另一进展是从陆路「入燕」改成大型而定期的轮船航行。前者限制了贸易量、可参与者数量和货品种类，再加上没有现代化的轮船事业只得循陆路往来，贸易量非常有限。但无论如何，后来轮船的引入的确加强了中朝民间贸易的动机。由于乘坐轮船可以直达清国的境内，而且不需要循陆路往来，所以原本陆路必经的牛庄市息微了，而相反在轮船到达烟台港时却可以立即进行商品买卖，而且轮船不论载货或载容量亦明显地比陆路多，引致贸易改在烟台进行。由此可见，以最短时间运输最多东西的现代化交通工具其实具备了使航线所经过地方兴旺、并使与线路远离的地点息微的特性。

至于在十九世纪晚期，两国政府如何发展贸易促进互市，明显地双方皆没有直接参与其中。我们甚至从上文中可以得知，最初往来烟台港与朝鲜的轮船，其实是由日本公司运营的。其次，才是有清政府补助的轮船招商局创办第二条相似的航线。当具备大型运输和方便到达贸易点的交通网出现以后，只要有需要，供应便会恒常地到来。两所或以上大型民间公司投入交通网运营的好处，是能够为使用者提供选择，更能避免交通工具收费的垄断。就好像当时清政府和英属香港殖民地政府参与运营广九铁路一样，本来往返广州至香港两地只能乘坐轮船公司的航线，但基于火车较轮船速度更快，而且两者价格相当，所以在较炎热的夏天乘客会选用轮船，而冬天则火车使用率较多，最后轮船为了保持竞争力只能加开晚间班次[27]，这些竞争最终是有利于参与中朝贸易的商人。在政府不干预的贸易政策下，民间社会自然地会循着如交通网络等的方便因素，滋生出像中韩贸易作主体，服务于当中的邮政、同乡商会合作社……等等的事业当中，甚或朝鲜

[25]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 42-43.

[26]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p. 73.

[27] 严智德：《九广铁路（英段）修筑、运营对香港民众生活的影响（1910－1914 年）》，硕士学位论文，北京大学历史系，2011 年，页 170－175。

半岛上的居民亦会得知贸易能改善生活，最后全罗道、庆尚道、黄海等南方米产重镇在日本需求量大的情况下多买农地耕作，使贸易得以兴旺起来[28]。

结语

综上所述，观察近代中韩贸易的兴起，很大程度是取决于政府或民间扶植的大型航运事业，不干预而自由的商贸环境和两地民间社会之间对对方的本土产品或中转地位有长期需求的处境而得以兴旺的，这亦奠定了两国之间的交往基础。清末的中朝贸易发展归于官方不干预的环境。

世界已经进入了 G2 时代，世界经济的中心逐渐向亚洲，尤其是向中国转移。对于跟中国相邻的韩国来说，应该从多方面研究并图谋促进两国间的民间交易，来促使两国间的交流，共同成长，发展到合作与配合的关系。

[28]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Decennial Reports, 1882-91, Appendix II, XXXVII.

반중vs.반한,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모델 연구

이정성, 우정
서울대, 전북대

〈논문 요약〉

한·중 양국의 관계는 23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관계수립 후 경제적 영역과 정치외교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수준은 낮은 실정이고, 민간 교류와 국민상호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양적인 성장은 양국 교류 중 서로에 대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상호 반한, 반중 감정이 움터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를 주제로 하여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 국립전북대학교 학생들과 중국 산동성 제남(Jinan)의 재경(財經)대학교 학생들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 존재하는 상대국에 대한 문화편견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중 대학생들의 표본이 적어 이 결과를 한·중 양국에게 일반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지만,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대국 방문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대학생 응답자의 75%, 한국대학생 응답자의 56%가 '없다' 라고 응답했다.

2. 상대국의 언어 숙련도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 대학생 응답자 63%, 한국 대학생 응답자 중 81%가 '하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3. 상대국의 문화를 학습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중국대학생 응답자 81%, 한국대

학생 응답자 70%가 '없다' 고 응답했다.

4.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역사에 관하여 34%가 전혀 모르거나 모르고, 중국 대학생들 또한한국역사에 관하여 66%가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중 관계개선을 위한 상대국 가치문화 학습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51%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 대학생들은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6. 문화차이로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험에 관한 질문에 '조금 있다' 또는 '많이 있다' 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각각 51%, 8%이고, 중국 대학생은 각각20%, 5%로 조사 되었다.

7.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18%, 37%로 과반 이상의 중국대학생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 대학생은 각각 1%, 15%로 총 16%만이 중국에 대해 매우 좋거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한·중대학생들의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조사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15%, 37%로 과반 이상의 중국대학생이 한국 국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 대학생은 각각 1%, 16%로 응답하였다.

9.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중국 대학생의 경우 '정치외교' 와 '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기업'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6%, 27%였고, '대중문화' 와 '국민성'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1%, 15% 이다.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국민성' 을 선택한 응답자가 68%였고, '정치외교' 와 '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기업'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6%, 10% 이다.

10.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중국 대학생의 경우 '대중문화' 와 '시민의식'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6%, 20%였고, '과학기술성과' 와 '글로벌기업의 선전'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2%, 13%임에 반하여 반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들은 '시민의식' 을 선택한 응답자는 74%였고, '대중문화' 와 '글로벌기업의 선전'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3%, 11%로조사 되었다.

11. 중국 제품에 대한 인상을 '나쁘다' 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50%로 과반 이상이 중국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생산 제품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27%, 32%로 과반 이상의 중국 대학생이 한국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공동 인식과 이해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 모델을 제시한다.

1.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언어 학습 및 사용기회 확대
2. 인터넷을 이용한 상대국 문화 소개 채널의 다양화
3. 한·중 상품의 상호 체험기회 확대

4. 한중 양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노력

한중 양국은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중 양국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중 대학생들의 반대 정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문화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한중 양국의 관계는 23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이래, 2008년 한중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에 중대한 모멘텀과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때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진전을 위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의 하나로 "인적 ·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문유대 강화'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 양측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한중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 · 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기구로서 2013년 11월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술, 지자체, 전통예능 등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인문유대 세부사업들을 발굴하였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외교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의 수준은 낮은 실정이고, 민간 교류와 국민상호간의 인식방면에 있어서 각종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양국 간에 반한, 반중 감정이 생겨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에 존재하는 반대 정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는 없지만 중국 내에서 반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 청와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3.6.28., http://www.korea.kr 〉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외교/안보 〉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5.04.30. 방문

중국 내 반한 사이트인 '반한망' 은 〈표 1〉과 같이 매우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대중예술에 관한 비판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중국 여행객들의 피해사례까지 총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 표 1〉 반한망의 주요 섹션

구 분	섹션	구분	섹션
主讨论区	反脑残	反韩家园 (没有韩国棒子才能有好心情)	爱国联盟
	反韩流		谈天说地
	反韩联盟		国际观察
	反韩文章		沙场点兵
	反韩百科	反韩事务所	论坛管理
	反韩国		网站留言
	反韩货	反韩新闻站	嘲韩社
	反卖国		受害者
	反韩星	2015.05.19. 방문	

그러므로 한중 양국은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간 공동 인식과 이해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중 양국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중 대학생들의 반대 정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문화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양국 대학생들 간 존재하는 상호 문화편견과 관련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중 대학생들의 상호 문화편견 해소 당위성

1. 20대 한중 대학생들의 상호 사회·심리적 특성의 조화

'세대가 다르다' 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시기가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를 누리는 감수성과 개성까지 다름을 뜻한다.

본 논문을 위해 상대국의 이미지 조사에 참여한 한·중 대학생들은 모두 90년대에 출생한 자들이다. 그런데 한·중 대학생들 같은 시대의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으로 경제적 부를 이룬 199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를 주링허우(九零後 世代)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2기 소황제 세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로 외아들,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들의 과보호로 인해 연약하며,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족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상당히 크다. 약 2억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링허우 세대는 자기 위주의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며 어려서부터 소비에 익숙한 세대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익숙한 세대다. 집단적이고도 고가 위주의 소비 행태를 표출하고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 화장품, IT 제품에 관심이 많다. 향후 중국의 국외 관광과 쇼핑 관광을 주도할 핵심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달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시대 조류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였으므로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 2008년 티베트 유혈사태(2008 Tibetan unrest)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반(反) 중국 분위기와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제29회 올림픽경기대회(The 29th Olympic Games)보이콧 움직임 등에 맞서 인터넷과 집단행동을 통해 올림픽 개최 옹호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한국의 1990년대 출생자들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태어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가구당 2명 정도로 귀하게 자란 세대들이다. 물론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자들은 유년시절에 IMF를 목격하면서 직장과 결혼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학교 입학이 쉬워지면서 대학 졸업생들은 쏟아져 나오는 반면 한국 기업들의 신입사원채용은 그 만큼 증가하지 않아 현재 구직난을 한도 끝도 없이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탈권위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개성이 뚜렷하기도 하지만** 사회관계, 가족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 있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대단히 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극과 극의 세대로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에서만 사는 부류와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세대가 혼재되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사업체를 일으켜 경영인이 되고 싶어 하는 세대들이기도 하다. 과거 세대들하고 다르게 지금은 해외 나가기가 쉽고,**** 다양한 정보를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제공받

** 한국 대중문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서태지 이후의 세대로서 음악·패션은 물론 새로운 영상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정신과 감각적인 영상의 시대에 초·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

*** 이귀재, 「내일은 맑음」, 신아출판사, 2014.02.28., p.147.

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므로 그만큼 다른 아이디어, 다른 창의력으로 무장한 세대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1990년 이후 출생한 한·중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은 서로 상이하면서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점도 많이 있다.

〈표 2〉 20대 한·중 대학생들의 주요 사회·심리적 공통특성

1)	개인주의 확대,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투자
2)	다양성에 대한 존중(Mr. Beauty, Ms. Strong)
3)	본격적인 디지털 세대, Not DOS only Windows
4)	Trading Up & Down 소비성향*
5)	적극적인 놀이문화 향유
6)	취업 및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 양국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상호 협력의 긴밀성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출생한 한·중 대학생들이 향후 10년 안에 상대방 국가에게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양국은 창문에서 서로 손짓할 수 있을만한 두 집 사이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일상적인 관계 그 흐뭇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愛情)의 가지를 꽂을 만한 무른 부분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무른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중 대학생들이 상호 상대국에 대한 문화편견을 해소하는 일이 지름길이다.

2. 지속가능한 한·중 관계 유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갈등심화,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과 남북 간 소통부진 등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중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강화가 필수요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중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이 대 한·중 관계

****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해외 배낭여행과 어학연수의 일반화로 특히, 20대 초반은 초·중·고등학생 시절 유학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됨.

* 예) "햄버거로 끼니를 때워도 차는 BMW" 라고 할 때, 여기서 햄버거는 가장 실용성을 맞춘 하향구매(Trading down)이고 BMW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른 상향구매(Trading up)라고 할 수 있다.

* *The* KOREA FORUM *for PROGRESS* (http://www.kfprogress.org.) 2015.04.23.
한국선진화포럼 〉 선진화논단 〉 제94차 월례토론회 〉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민간차원의 관계발전이 순조롭고 건강하지 못하면 한중관계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 관계를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이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 · 문화적 교류 강화', '한중 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 관리', '인문교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 을 통하여 상대국가에 대한 상호 문화편견을 해소해야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한중 문화교류에 의한 상호 문화편견을 해소하면,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수시변동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한중 간 호혜적 교류에 의한 공존과 번영의 양국 관계가 전개되어 평화공존과 상호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한중 양국 간 민족적 고유성 강조보다 지역성(locality) 존중을* 통해 충돌 소지 억제 및 소통 가능성이 확대된다.

3. 국가 이미지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강화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문화편견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상대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신뢰도가 상승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빈도나 금액 측면에서 매우 크게 성장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한 국가의 상품과 친밀하지 않아 상품정보가 부족할 때 소비자들은 국가 이미지로부터 상품의 품질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이미지는 상품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산지로서의 국가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및 그 국가의 대표적인 상품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미지이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대리적 단서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상품 구매 시 제조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국가이미지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의 내용을 검토하면, 상품 구매 시 제조국가의 이미지를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5%가 '그렇다' 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25.5%였다.***** 이는 FTA 등으로 세계 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유형의 상품에 더해 무형의 국가 브랜드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나라를 대

---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12. p.116.

** C.M. Han(1989), "Country Image : Halo or Summa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6, p.224.

**** 조사기간 : 2012.10/8~10/31 〈휴일 제외 18일간〉
조사대상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514명
조사방식 : 전화, 팩스 조사

***** 2012년 11월 14일, 대한상의 보고서.
https://www.bcci.or.kr/html/EcoData/ecodata03.php?pg=12&mode=view&idx=5602

표하는 기업이나 경제적 위상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소비자들의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원산지효과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소비자가 경험이나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는 원산지이미지(국가 이미지)가 후광효과(Halo effect)로서 나타나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다른 정보를 탐색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해당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또한 자국의 해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한중 양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상호 이미지 개선은 바로 서로 상대방 국가의 자국에 대한 문화편견을 해소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Ⅲ.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및 분석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는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번 이미지조사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들은 국립전북대학교 학생들이고 중국 대학생들은 산동성 제남(Jinan)지역의 재경(財經)대학교 학생들이다. 설문조사는 직접조사 방식을 선택해 현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를 기초로 수집된 자료들은 상호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타 지역의 대학생들보다 상대국가에서 비교적 노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시 개인의 경험 개입이 적어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설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수는 한국, 중국 대학생 각각 100명으로, 한국 대학생 응답자 중 남성이 45%, 여성이 55%를 차지하고, 중국 대학생 응답자 중 남성이 35%, 여성이 65% 이었다.

* L.G. Schiffman & L.K. Leslie(1972), "Peceived Risk in New Product Trial by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Feb, pp.106-108.

〈 표 3 〉 설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한국

N : 유효(100), 결측(0)

구분		학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학생	1학년	0.0	0.0	0.0	0.0
		2학년	3.0	3.0	3.0	3.0
		3학년	25.0	25.0	25.0	28.0
		4학년	15.0	15.0	15.0	43.0
		대학원	2.0	2.0	2.0	45.0
		계	**45.0**	**45.0**	**45.0**	**45.0**
	여학생	1학년	0.0	0.0	0.0	0.0
		2학년	4.0	4.0	4.0	4.0
		3학년	28.0	28.0	28.0	32.0
		4학년	21.0	21.0	21.0	53.0
		대학원	2.0	2.0	2.0	55.0
		계	**55.0**	**55.0**	**55.0**	**55.0**
합계			**100.0**	**100.0**	**100.0**	

중국

N : 유효(100), 결측(0)

구분		학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남학생	1학년	17.0	17.0	17.0	17.0
		2학년	8.0	8.0	8.0	25.0
		3학년	3.0	3.0	3.0	28.0
		4학년	2.0	2.0	2.0	30.0
		대학원	5.0	5.0	5.0	35.0
		계	**35.0**	**35.0**	**35.0**	**35.0**
	여학생	1학년	24.0	24.0	24.0	24.0
		2학년	10.0	10.0	10.0	34.0
		3학년	9.0	9.0	9.0	43.0
		4학년	8.0	8.0	8.0	51.0
		대학원	14.0	14.0	14.0	65.0
		계	**65.0**	**65.0**	**65.0**	**65.0**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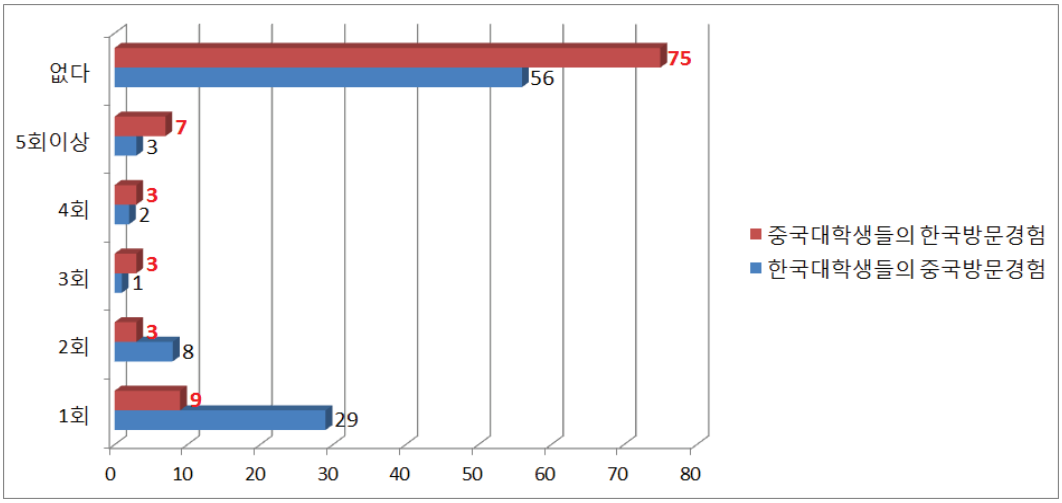
한국 대학생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학부 1학년이 0%, 2학년이 3%, 3학년이 25%, 4학년이 15%, 대학원생이 2%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1학년이 0%, 2학년이 4%, 3학년이 28%, 4학년이 21%, 대학원생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대학생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학부 1학년이 17%, 2학년이 8%, 3학년이 3%, 4학년이 2%, 대학원생이 5%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1학년이 24%, 2학년이 10%, 3학년이 9%, 4학년이 8%, 대학원생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2.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방문 경험

상대국 방문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대학생 응답자의 75%, 한국대학생 응답자의 56%가 '없다' 라고 응답했으며, 중국대학생 응답자의 9%, 한국대학생 응답자의 29%가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4〉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방문 횟수(%)



한서(漢書)의 조충국전(趙充國傳)에 '百聞不如一見' 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중 대학생들은 상대국가 방문과 교류가 많아야 한중 국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사려 된다.

3.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언어 숙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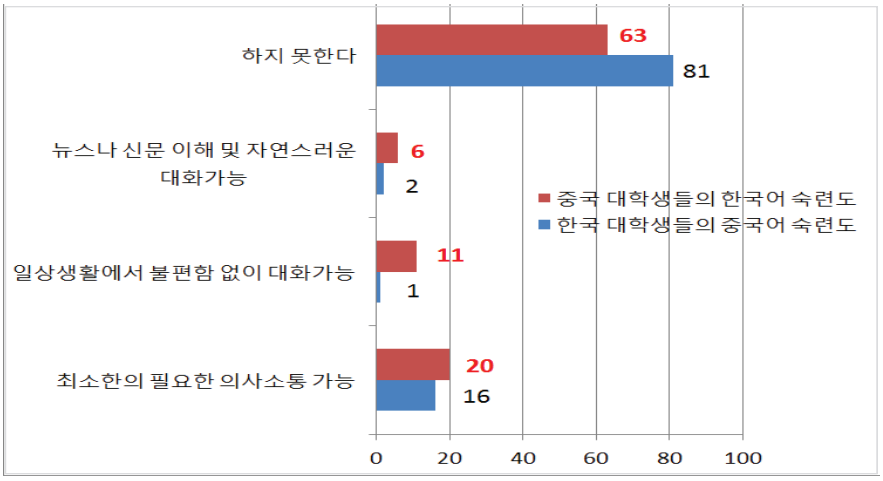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상대국의 언어 숙련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대학생 응답자 63%, 한국 대학생 응답자 중 81%가 '하지 못 한다' 고 응답했으며, 중국 대학생 응답자 20%, 한국 대학생 응답자 16%가 최소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대국의 뉴스나 신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가의 질문에 중국 대학생들의 6%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2%만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언어는 모든 인간집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신수단이 되어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며, 문화의 창조, 전달과 계승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인간에게 언어가 없다면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나 한 세대에서 이루어 놓은 문화적 업적을 다음 세대로 전수한다는 것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 언어와 문화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09.15.. p.213.

〈표 5〉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언어 숙련도(%)



현재 동북아 국가 중 한중일 삼국은 역사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서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로 상대 국가에 대해 서로 흉보고, 맘에 들어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한중일 국가가 상호 이해를 잘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서로 'Win-Win Communication(자국의 의견도 관철 하면서 다른 국가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하고 상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대화) '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따라서 한중 국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오해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의 언어를 학습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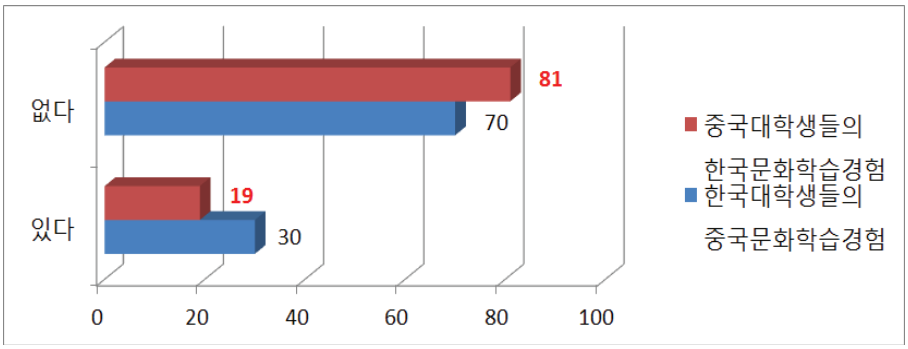
4.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문화 학습

응답자들에게 상대국의 문화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표 6〉에서와 같이 중국대학생 응답자 81%, 한국대학생 응답자 70%가 '없다' 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중국 대학생 응답자 19%, 한국대학생 응답자 30%가 상대국의 문화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어느 사람도 꼭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가의 구성원들 개개인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취향 또는 버릇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들의 행위에서 다른 국가의 것과 구별될 만한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이나 버릇이 아닌, 이런 공통적인 경향을 우리는 해당 국가의 문화라고 부른다.***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전게서, p.46.

〈표 6〉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문화 학습한 경험(%)



그러므로 한중 양국은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의 문화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하여 동북아에서 상호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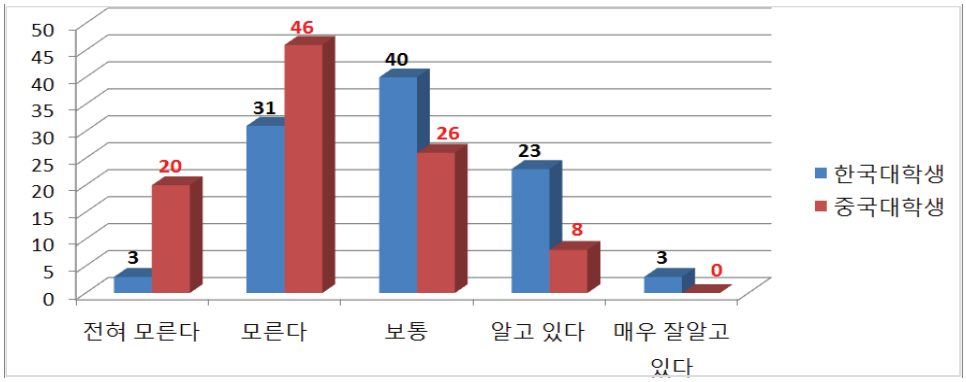
상대국의 문화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한중 대학생들에게 상대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하였나는 질문에서 이들은 〈표 7〉에서와 같이 대답하였다.

〈표 7〉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문화학습 방식(%)

구분	어학당	학부 교양수업	대학원 문화수업	개인 학습	상대국사람의 소개	국내 상대국 문화수업	대중문화 (영화, 드라마 등)	교환 학생	기타
한국대학생	2	6	1	3	2	8	2	3	3
중국대학생	2	3	3	4	1	2	3	0	1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 내 중국관련 문화수업과 학부 교양수업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학습한 반면 중국 대학생들은 주로 학부 교양수업과 개인학습,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 대학생들은 상대국에 대한 가치문화 학습경험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은 상대국에 관한 역사 이해도 역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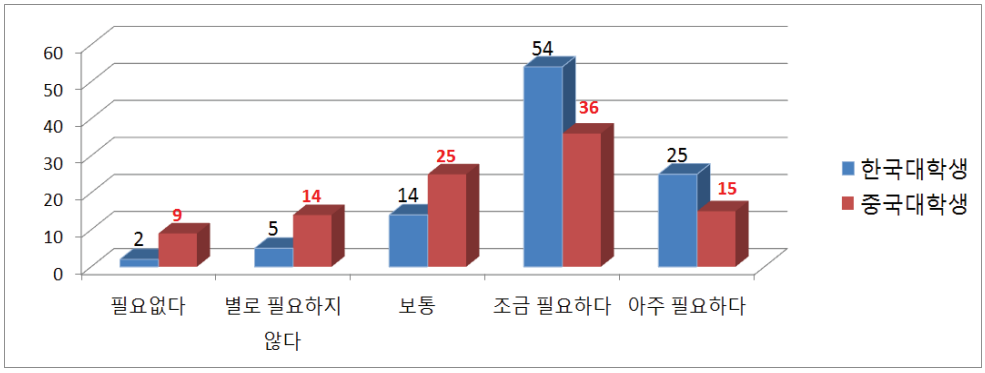
〈표 8〉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역사 이해(%)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역사에 관하여 34%가 전혀 모르거나 모르고, 중국 대학생들 또한 한국역사에 관하여 66%가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역사에 관한 이해도는 한국 학생들이 중국역사에 관한 이해도보다 약 2배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중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역사에 관하여 더 많은 학습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습이 더 필요한 이유는 〈표 9〉의 한중 관계개선을 위한 상대국 가치문화 학습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51%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 대학생들은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한중 관계개선을 위한 상대국 가치문화 학습 필요성(%)



그러나 한중 관계개선을 위한 상대국 가치문화 학습 필요성에 관하여 '별로 필요 없거나 필요 없다' 고 응답한 중국학생들의 비율이 한국 학생들의 응답비율보다 3배가 넘는 결과도 한중 양국 당사자들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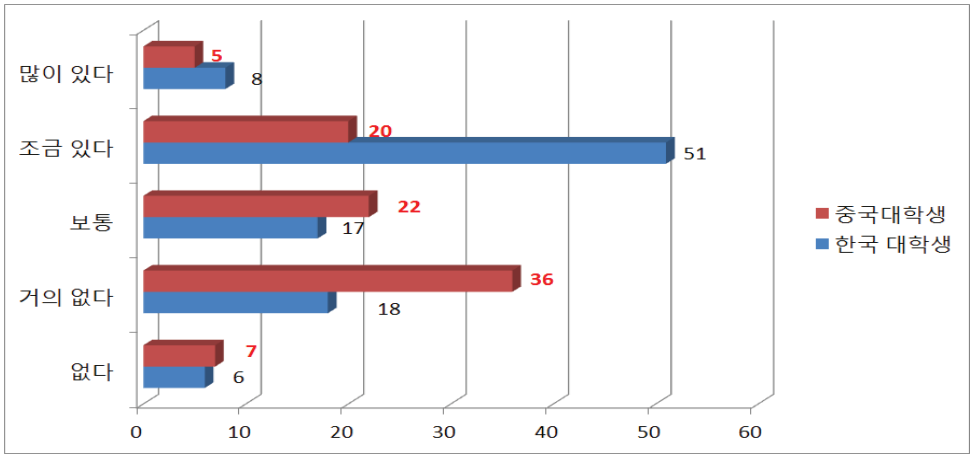
5. 문화차이로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험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공유해 왔다. 과거에는 다양한 중국문화가 한반도로 전달되며 한국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위 때문일까, 혹은 동일한 동양인의 외모 때문일까,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자신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근거 없는 기대 속에 행동하고 그러한 반응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문화차이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없다' 또는 '없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7%, 36%이고, '조금 있다' 또는 '많이 있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20%, 5%로 조사되었다.

문화차이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금 있다' 또는 '많이 있다' 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각각 51%, 8%이고, '거의 없다' 또는 '없다' 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각각 18%, 6%로 조사 되었다.

〈표 10〉 문화차이로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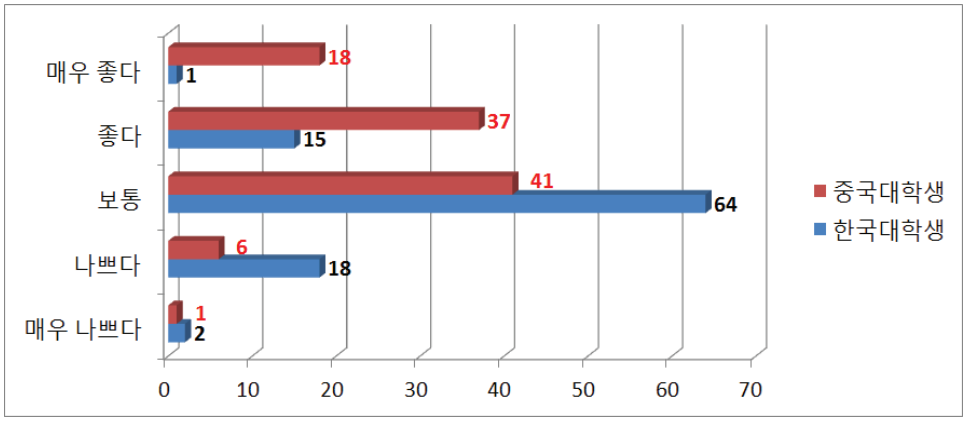
'어떤 영역에서 문화충격을 많이 받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은 70%가 '중국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관념' 이라고 복수 응답했으며, '중국 의·식·주·여가에 관한 일상생활문화' 라고 복수 응답한 한국학생들은 25%, '중국의 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에 관한 제도문화' 에 21%가 복수 응답하였다. 반면 중국 대학생들은 동일한 질문에 54%가 '한국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관념' 이라고 복수 응답했으며, '한국의 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에 관한 제도문화' 에 23%가 복수 응답했고 '한국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예를 들어 높임말, 속담, 소설 등' 에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중국 대학생들이 18%를 차지하였다.

**** 우수근,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주)살림출판사, 2008.7.20., p.52.

또 〈표 11〉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18%, 37%로 과반 이상의 중국대학생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상을 '보통' 이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64%로 과반 이상의 한국 대학생이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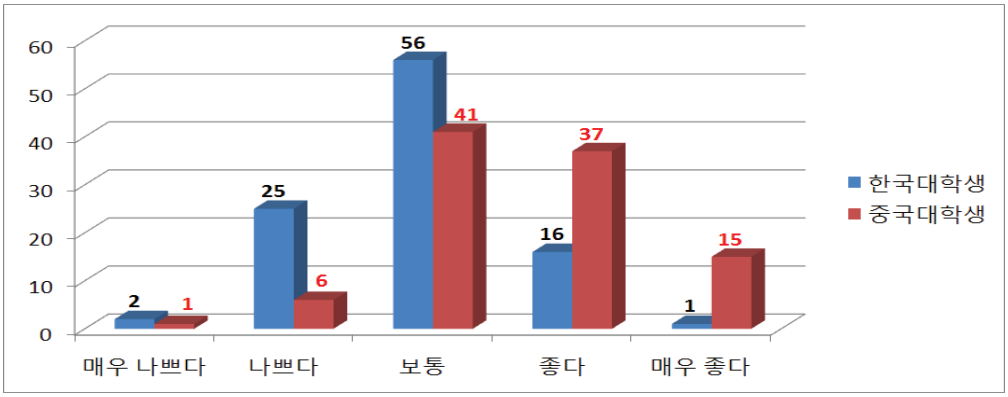
한중대학생들의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조사에서 한중 대학생들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국민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15%, 37%로 과반 이상의 중국대학생이 한국 국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 국민에 대한 인상을 '보통' 이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56%로 과반 이상의 한국 대학생이 중국 국민에 대해 중립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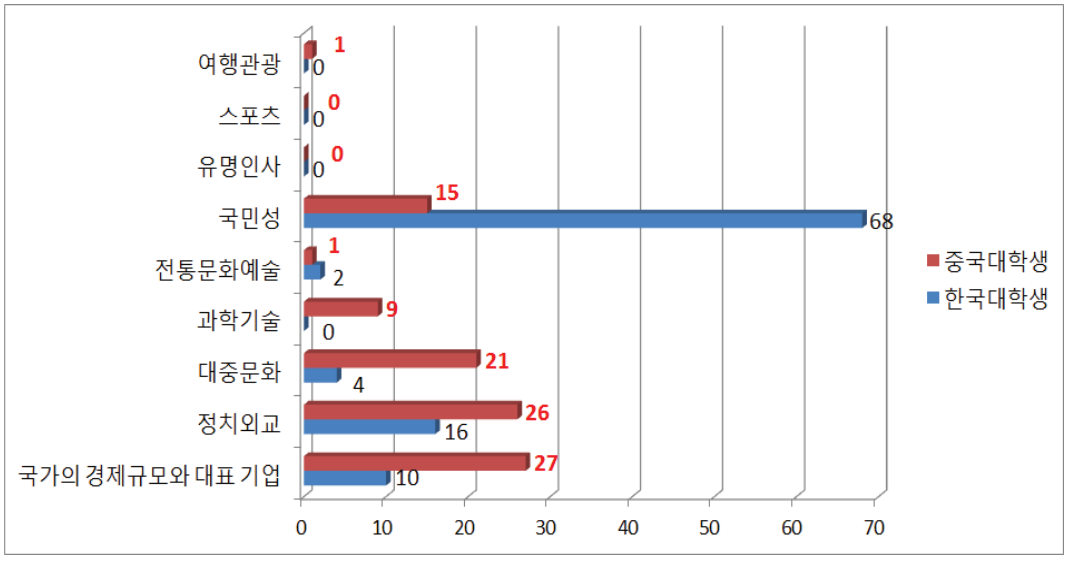


6. 한중 대학생들의 국가 이미지 결정요인

국가 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호감도·신뢰도 등 유형·무형의 가치들을 총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이미지는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활동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고, 국가의 국가 홍보와 관리 등으로 인하여도 향상될 수 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중국 대학생의 경우 〈표 13〉에서와 같이 '정치외교' 와 '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기업'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6%, 27%였고, '대중문화' 와 '국민성'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1%, 15% 이다.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국민성' 을 선택한 응답자가 68%였고, '정치외교' 와 '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기업'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6%, 10% 이다.

〈표 13〉 국가 이미지 결정요인(%)



이 둘을 비교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은 '해당 국가의 국민성' 이었으며, '정치외교' 와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기업' 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동일한 질문에서 중국 대학생들은 '해당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 기업' 이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최 우선순위로 선택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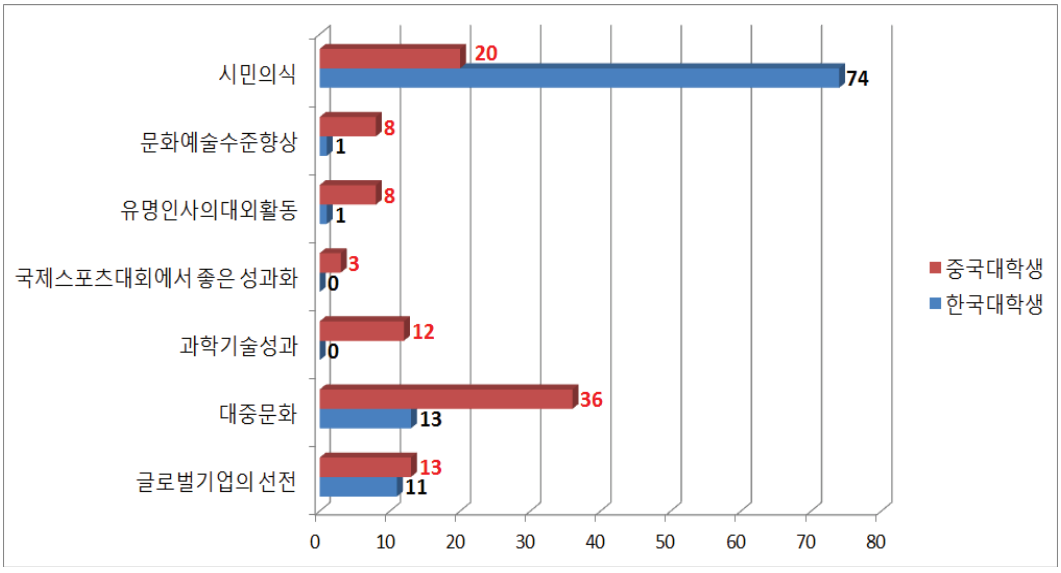
***** 차오리, "한국 국가이미지와 화장품 브랜드이미지가 중국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하지수외 2명,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 국민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 비교 –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Vol. 46.
사효람, "한국문화인식을 통한 국가이미지 및 관광지 이미지가 국가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며, 그 뒤로 '해당 국가의 정치외교', '대중문화'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중국 대학생의 경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와 '시민의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6%, 20%였고, '과학기술성과'와 '글로벌기업의 선전'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2%, 13% 이다. 반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시민의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74%였고, '대중문화'와 '글로벌기업의 선전'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3%, 11% 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국가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와 '글로벌 기업의 선전'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동일한 질문에서 중국 대학생들은 '대중문화'가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글로벌 기업의 선전'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표 14〉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



7. 한·중 양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미·중·러·일 4대 강대국의 세력권 안에 끼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남북 분단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여섯 세력이 한반도의 상황 변화에 관한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여섯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구도는 잘 활용하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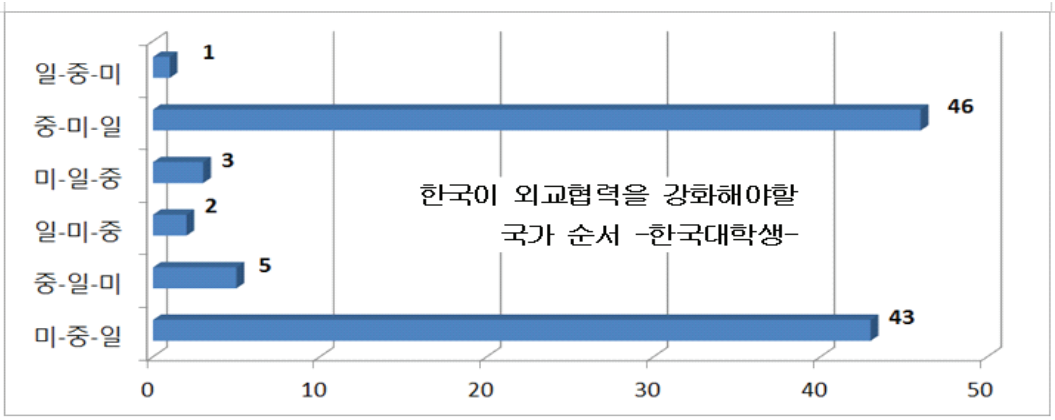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다. 근대에 와서 서방 열강의 대외 확장 영향으로 중국과 한국은 서방 열강에 능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

만, 양국 간의 외교는 중단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이 1919년 '한국민족 독립운동의 성전'으로 불리는 망명정부를 세워 중국인과 협력해 일제에 항쟁하면서 깊은 우정을 맺은 점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고자 한중 양국 민중은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남겼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순서를 묻는 질문에서 '중-미-일', '미-중-일'의 순서로 외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각각 46%, 43%로, 중국과 미국을 주요 외교협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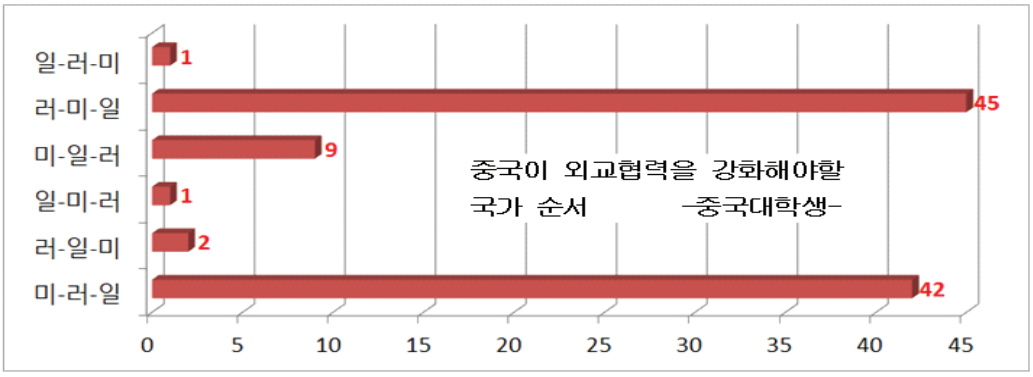
2012년 이와 동일한 질문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로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지만, 3년 지난 지금 그들은 중국을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 할 최우선 국가로 선택하였다.

〈표 15〉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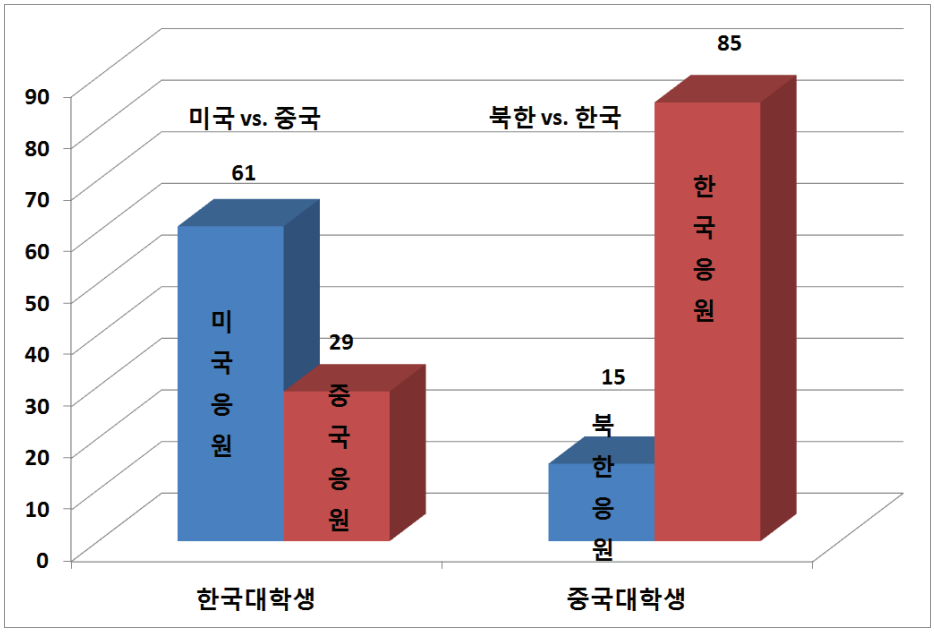
반면 중국 대학생들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중 '러-미-일', '미-러-일'의 순서로 외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45%, 42%로, 러시아와 미국을 주요 외교협력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표 16〉 중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순서(%)



또 한중 대학생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응원하고 싶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 〈표 17〉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의 61%가 월드컵경기에서 미국과 중국 중 미국을 응원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중국대학생의 85%가 월드컵경기에서 북한과 한국 중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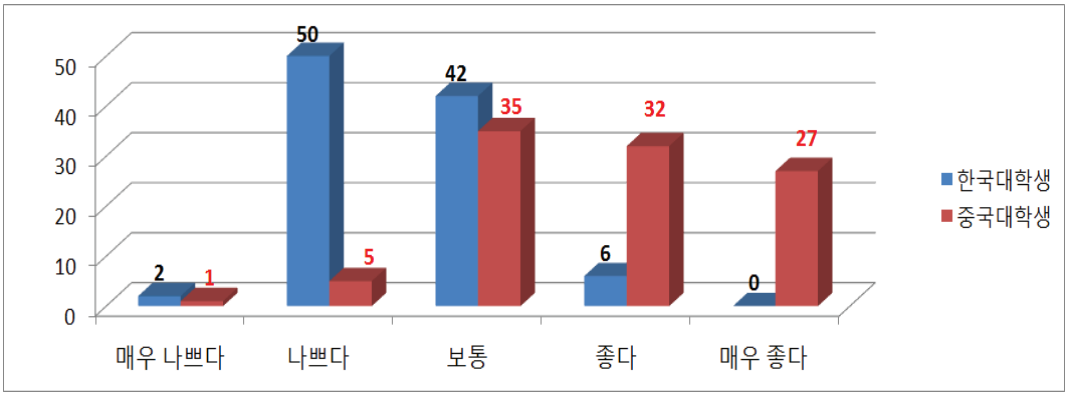
〈표 17〉 한중 대학생들의 월드컵경기에서 응원하고 싶은 국가(%)



8.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태도

중국 제품에 대한 인상을 '나쁘다' 이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로 과반 이상이 중국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생산제품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은 한국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도 자국의 상품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쌀을 예로 들면, 일본산 쌀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로 인식되면서 중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제농산물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일본쌀은 160톤으로 1년 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본쌀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구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 일본쌀 5Kg에 1499위안(241달러)이나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도 등장하고 있다. 쌀을 구매한 소비자는 후기를 통해 "중국산 쌀보다 식감이나 맛이 월등히 좋다"며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중국 윙윙은 "중국은 살충제를 사용하지만, 일본쌀은 살충제는 물론, 중금속 오염 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기 비결을 설명했다. 실제 산업화 등으로 중국 토양과 물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환경 보호청은 지난해 4월 중국내 토양의 16.1%가 오염됐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부가 스스로 재배한 쌀을 먹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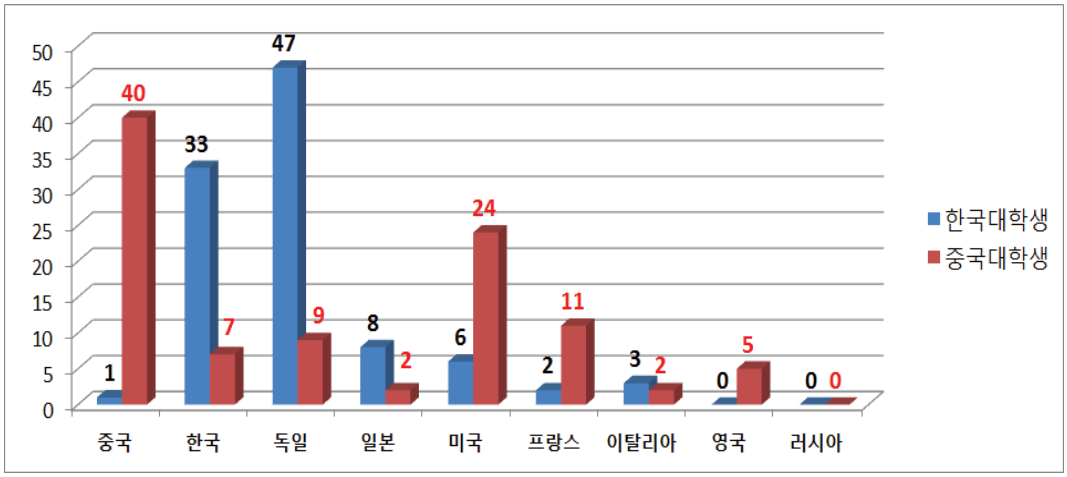
한국 생산 제품에 대한 인상을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라고 대답한 중국 대학생은 각각 27%, 32%로 과반 이상의 중국대학생이 한국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에 대해 중국 대학생은 40%가 자국 제품을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 미국(24%), 프랑스(11%), 독일(9%), 한국(7%), 영국(5%), 이탈리아(2%), 일본(2%), 러시아(0%) 순으로 나타났다.

---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0457, 입력 : 2015-01-26 오후 12:46:43 2015년 05월 15일 14시 40분 방문

〈표 19〉 비슷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에 대한 한중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국가 제품(%)



반면, 같은 질문에서 한국 대학생은 47%가 독일 제품을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 한국(33%), 일본(8%), 미국(6%), 이탈리아(3%), 프랑스(2%), 중국(1%), 영국(0%), 러시아(0%)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중 대학생들은 상대국 제품브랜드를 묻는 질문에서 샤오미와 화웨이, 칭다오맥주를 1, 2, 3위로 선택하였으며 반면 중국 대학생들은 삼성, 현대, 설화수를 1, 2, 3위로 선택하였다.

〈표 20〉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제품 브랜드인지도 8순위 (복수응답)

순위	한국대학생		순위	중국대학생	
1	샤오미	60	1	삼성	65
2	화웨이	14	2	현대	32
3	칭다오맥주	13	3	설화수	18
4	알리바바	12	4	LG	17
5	레노버	4	5	라네즈	13
6	장성자동차	3	6	후	6
7	하이얼	2	7	이니스프리	2
8	웨이보	2	8	기아	2

Ⅳ.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모델

20세기적 낡은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무한하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이 제대로 보일 리 만무하다. 또한 하나의 관점만을 고집한다면, 중국이 온통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들며 기괴한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는, 중국과의 제대로 된 교제와 교류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서로가 상대에 대한 경계와 대립 자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지만 한·중 양국의 윈-윈을 위해서도 대결 지향적이며 소모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 개선 모델을 제안한다.

1.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언어 학습 및 사용기회 확대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의 언어 숙련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 대학생 응답자 63%, 한국 대학생 응답자 중 81%가 '하지 못 한다' 고 응답했다. 또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비언어적 의사표시 포함)를 제외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10명 중 0.4명밖에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 말일부로 한국 내에는 전문대포함 340개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 수가 약 4백만 명을 감안하면, 영어 사용자 대비 중국어 사용자 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북대학교는 석·박사학위논문 작성 시 영어로 작성하는 학위논문을 허락하면서도 중국어로 작성하는 학위논문은 허락하지 않는다. 중국 재경대학 역시 한국어로 작성하는 학위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또한 이해하는 도구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다. 그러나 언어의 기능은 단순히 의사전달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 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하여 인류사회는 서로 관계를 맺고 협동하여 문화를 발전시킨다. 언어는 의사전달의 수단인 동시에 인류 문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언어의 이와 같은 기능을 이해한다면, 한·중 양국은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상대국 언어학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대학교부터 각 종 학위 논문들이 중국어 및 한국어로 표현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상대국 문화 소개 채널의 다양화

2014년 9월에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 21〉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코리아영화(http://www.koreayh.com/)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중국인들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추정할 수 있다.

** KOSIS, e-지방지표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시도), 위치 : 주제별 〉 교육여건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2015년5월16일 11:40 방문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예능에 대한 평균 1일 PV가 198만 뷰에 달하였다. 중국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소개하는 '韩国电影城' 보다도 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이 이외에도 'youku', 'sogou', 'tudou', TV sohu', 'iqiyi' 등이 있다. 반면, 한국 내에는 중국의 '코리아영화' 처럼 중국 영화와 음악,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없다. 이는 명백히 상대국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21> 韩国电影城 중국인 방문자 수

일자	IP(Internet Protocol)	PV(Page view)	일자	IP(Internet Protocol)	PV(Page view)
2014.9.15.	217,966	2,237,833	2014.9.19.	207,653	1,958,456
2014.9.16.	197,227	1,684,804	2014.9.20.	227,451	2,206,532
2014.9.17.	209,735	1,826,167	2014.9.21.	233,246	2,356,031
2014.9.18.	209,197	1,873,897			
2014년 11월1일부로 방문자수 통계 비공개			평균	215,231	1,985,852

한·중 양국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2013년에 제작되었던 중국영화 〈致我们终将逝去的青春〉***를 예를 들면, 중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같기도 하다. 영화는 주인공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졸업 후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얽히고설키고, 오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지켜주고 바라보는 등 이런 사랑의 방식들이 한국의 정서와 많이 닮아 있다.

3. 한·중 상품의 상호 체험기회 확대

중국 제품에 대한 인상을 '나쁘다' 이라고 대답한 한국 대학생은 전체 50%로 과반 이상이 중국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제품 중 이를테면, 샤오미와 레노버는 가성비가 뛰어나 2014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비자들에게 열광과 찬사를 받았다. 중국에는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대륙의 실수' 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많다. 대륙의 실수란 실수라고 밖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가격은 싸고 성능은 뛰어난 이른바 한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대륙의 실수 중 하나는 이어폰이다. 100만원도 훌쩍 넘는 독일 젠하이저(SENNHEEISER)사의 이어폰과 똑 같은 외양의 중국산 짝퉁을 중국 인

*** 중국 영화배우 Zhao Wei의 영화감독 첫 작품이자 그녀의 북경 대학원 졸업 작품. 2013년 4월 26일 중국 전역에 개봉하여 7.2억 위안의 수입을 남기며 중국영화 역대흥행 순위 9위 기록.

터넷에서는 3만~6만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성능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저 중국산 싸구려 짝퉁이라 무시하기에는 너무 뛰어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전에는 겉모습만 비슷하고 성능은 크게 못 미쳤던 중국산 짝퉁이 이젠 품질까지 거의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성능이 100만원인 대신 가격도 100만원인 진품과 성능은 90정도지만 가격은 10만원도 안 되는 짝퉁이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냐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묻고 싶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小米)가 처음 이름을 날린 것도 '대륙의 실수' 로 불리는 보조 충전기 덕이 컸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 깔끔하고 충전 속도 등도 빨라 중국에선 스마트폰은 삼성이나 애플을 써도 보조 충전기는 샤오미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샤오미가 2014년에 시장에 출시한 49인치 초고해상도(UHD) TV의 가격은 경쟁 업체의 4분의1 밖에 불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TV는 LG디스플레이 평판을 사용했다. 품질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짝퉁' 이라는 용어엔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무시와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산은 모두 싸구려고, 품질도 형편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양 국가는 한중 대학생들이 서로 상대국에 대한 무시와 선입견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중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제품을 서로 교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4. 한중 양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노력

2014년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Results) 결과는 〈표 22〉과 같다. 'Corruption' 는 특히 권력자들의 부패를 의미한다. 권력자들의 부패는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표 2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Results

Country Rank	Country / Territory	CPI 2014 Score	Surveys Used	Standard Error	90%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7	Singapore	84	8	1.75	81	87
15	Japan	76	8	3.16	71	81
35	Taiwan	61	7	4.17	54	68
43	Korea (South)	55	9	2.64	51	59
100	China	36	8	2.17	32	40

자료 : RBI(Royal Booster International.Pvt.Ltd.), 2015.04.12.15.07방문
http://007rb.blogspot.kr/2015/02/corruption-perceptions-index-2014.html
(NOTE:* Lower the RANK better is the country)

RBI에 따르면, 2014년 한국 부패순위는 43위이고, 중국은 100위이다. 싱가포르는 7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이다.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중국 대학생의 경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식'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6%, 20%였고, 반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시민의식' 을 선택한 응답자는 74%이었다.

그러므로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은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더불어 한·중 대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도덕교육 또한 필요하다.

Ⅴ. 결론

한국과 중국은 지근거리에서 수천 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공유해 왔다. 과거에는 다양한 중국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위 때문일까, 혹은 동일한 동양인의 외모 때문일까, 동북아의 한·중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자신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근거 없는 기대 속에 행동하고 그러한 반응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과 기대는 상호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관습, 전통, 문화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파악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습, 전통, 문화 등도 자신들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상대방이 지닌, 자기와는 다른 그들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질감을 느낀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다르므로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위주의 '상호발전장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로가 다르다는 기본 인식 속에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공생을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즉, 중국인들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에 맞는 행동이 교제와 교류의 토대가 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더 객관적인 자세에서 더 한층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 언어 학습 및 사용기회 장벽 제거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상대국 문화 공급 채널의 다양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셋째, 한·중 상품의 상호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넷째, 한·중 양국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또 자주 만나야 한다.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의 언어를 모르면, 같은 단어를 두고도 서로 잘 못 해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는 곧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여 결국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느낀 한계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양한 설문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대학생들은 한편으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한 상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호 편견해소 모델을 일률적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특성에 따라 차별된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한·중 대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편견 해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문지 내용에서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나 방안을 묻는 문제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점이 많이 부족하였다.

셋째,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한·중 대학생들 100명의 표본이 너무 적어 그 결과를 한·중 양국에 일반 적용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에서는 더 많은 한·중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한·중 대학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상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논문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설문지 조사에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설문지 내용도 한·중 대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나 필요한 제도와 방안을 묻는 문제도 구성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상대국가의 편견 해소 모델을 분리하여 각각 제시할 수 있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이귀재, 「내일은 맑음」, 신아출판사, 2014.02.28., p.147.

우수근,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주)살림출판사, 2008.7.20., p.52.

한상복·이문웅·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09.15.. p.213.

사효람, "한국문화인식을 통한 국가이미지 및 관광지 이미지가 국가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차오리, "한국 국가이미지와 화장품 브랜드이미지가 중국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하지수외 2명,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 국민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 비교 –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Vol. 46.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12. p.116.

C.M. Han(1989), "Country Image : Halo or Summa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6, p.224.

L.G. Schiffman & L.K. Leslie(1972), "Peceived Risk in New Product Trial by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Feb, pp.106-108.

청와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3.6.28.,
http://www.korea.kr 〉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외교/안보 〉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5.04.30. 방문

2012년 11월 14일, 대한상의 보고서.
https://www.bcci.or.kr/html/EcoData/ecodata03.php?pg=12&mode=view&idx=5602

The KOREA FORUM for PROGRESS (http://www.kfprogress.org.) 2015.04.23.
한국선진화포럼 〉 선진화논단 〉 제94차 월례토론회 〉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RBI(Royal Booster International.Pvt.Ltd.), 2015.04.12.15.07방문
http://007rb.blogspot.kr/2015/02/corruption-perceptions-index-2014.html

http://www.fanhanbbs.com/ 反韩网

http://oversea.huanqiu.com/article/2014-11/5210454.html 韩媒：在韩中国留学生遭偏见

易“反韩”
刘宝全 “韩流在中国的传播及其对中韩关系的影响” 当代韩国，Contemporary Korea. 2014年01期
赵玎； 黄多帅 中韩民间对立的探究与化解 云南行政学院学报， The Journal of Yunnan Administration College, 2014年01期

〈 설문지 1 〉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한국인들이 중국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향후 한중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 모델 연구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성 gothula@naver.com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① 남 ② 여

2. 귀하는 현재 대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_____
   ① 대학교 1학년 ② 대학교 2학년 ③ 대학교 3학년 ④ 대학교 4학년
   ⑤ 대학원 석사 이상

3. 귀하는 중국에 다녀 온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_____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없다

4. 귀하는 중국어를 얼마나 잘 하십니까? _____
   ① 최소한의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다.
   ③ 뉴스나 신문 등을 이해하며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④ 하지 못한다.

*** 가치문화 : 즉 관념문화, 정심문화.**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사고방식 등 관념적인 문화와 그것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문화를 일컫는 것이다.

예: 서양에서 스승에 대한 학술적인 질문과 비판은 학술정신으로 인정을 받는다. 동양에서 이러한 행위는 거만하고 예의 없다고 보기 쉽다. 동양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복종은 절대적이다.

5. 중국 가치문화(*위에 해석 참조) 내용을 포함한 중국 문화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__

① 있다 ② 없다

6. 5번 문제에서 ①번이라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_____

① 어학당 공부 ② 학부 교양 수업 ③ 대학원 문화 수업 ④ 개인학습
⑤ 중국인의 소개 ⑥ 한국에서의 중국문화 수업 ⑦ 대중문화(영화, 드라마, 음악 등) ⑧ 기타( )

7. 귀하는 아래 어떤 영역에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_____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지금까지의 중국역사 문화.
② 전통 · 현대의 무형 · 유형 문화재.
③ 의 · 식 · 주 · 여가에 관한 일상생활문화.
④ 음악, 무용, 미술, 연화 · 연극 등 예술문화.
⑤ 언어에 포함되는 있는 문화, 예를 들어 높임말, 속담, 소설 등.
⑥ 인문 과학,사회 과학, 자연 과학, 응용과학 등 학문문화.
⑦ 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에 관한 제도문화.
⑧ 중국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관념 등.
⑨ 농업, 임업, 수산업, 건축기술, 전자, 기계 기술, 섬유, 화공 등 산업 기술.

8. 문화 차이로 인해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_____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조금 있다 ⑤ 많이 있다

9. 귀하는 중국과 한국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중국 가치문화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조금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10. 귀하는 중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_____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1. 귀하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2. 귀하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3. 귀하는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해당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 기업 ② 정치와 외교 ③ 대중문화
④ 과학기술 ⑤ 전통문화 예술 ⑥ 국민성 ⑦ 유명인사
⑧ 스포츠 ⑨ 여행과 관광

14. 귀하는 한 국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__
① 글로벌 기업의 선전 ② 대중문화 ③ 과학기술성과 ④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과 ⑤ 유명인사의 대외활동 ⑥ 문화예술수준 향상 ⑦ 시민의식

15. 만약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중국과 미국이 시합을 한다면 어느 국가를 응원하겠습니까?___
① 중국 ② 미국

16.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순서는? _____
① 미-중-일 ② 중-일-미 ③ 일-미-중 ④ 미-일-중 ⑤ 중-미-일 ⑥ 일-중 -미

17. 중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8. 귀하는 같은 가격과 품질이라면 어느 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까? _____
① 중국 ② 한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미국 ⑥ 프랑스 ⑦ 이탈리아 ⑧ 영국 ⑨ 러시아

19.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알고 있는 중국 브랜드 상품을 적어 주십시오.

20. 중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쓰시오.

〈설문지 2〉

〈 问卷调查 〉

您好,为了把握中国人对韩国文化价值的理解和学习的需求,我们做了此调查问卷° 您真实的想法将成为以后缓解中韩之间相互文化偏见, 改善相互形象的重要参考资料° 本调查只作为研究参考之用, 不会对外公开, 请您安心回答° 如有任何疑问, 请发邮件给我°

niujing1988@gmail.com

1. 您的性别?
①男 ②女

2. 您现在是大学几年级?------
①大一 ②大二 ③大三 ④大四 ⑤研究生或研究生以上

3. 您有没有来过韩国?
①一次 ②两次 ③三次 ④四次 ⑤五次 ⑥没有来过

4. 您对韩语知道多少?
①可以进行最基本的沟通 ②可以进行日常生活交流 ③ 阅读报刊 欣赏电视节目, 和韩国人进行流畅的对话 ④不会韩语

文化价值:也就是文化观念, 文化精神°
是指社会集团的成员共同具有的思考方式, 其文化观念和它所投影出来的所有文化行为被称为文化价值°
例如:比如在西方, 关于老师在学术上的问题和批判, 学术精神上给予认证, 但是在东方这种行为被视为傲慢自大和没有礼仪° 在东方, 对老师的尊敬和权威的服从是绝对的

5. 您学过包括韩国文化价值内容在内的韩国文化吗?
①学过 ②没学过

6. 仅限选择了第五题的第一个选项的回答, 您是通过什么方式学习的韩国文化?
①语言学院 ②学部选修课 ③研究生文化课 ④个人学习 ⑤韩国人的介绍 ⑥在中国的韩国文化课 ⑦大众媒体(电影电视剧音乐) ⑧其他方式 ( )

7. 您在下面哪个领域中经历了文化冲击? (最多可以选两个)
①到现在为止, 韩国的历史文化 ②传统和现代的有形和无形的文化遗产 ③关于衣食住

行的日常生活文化　④音乐舞蹈美术话剧等艺术文化　⑤包括语言在内的文化，比如敬语，谚语，小说等　⑥人文科学，社会科学，自然科学，应用科学等学问文化
⑦法律，政治，社会，教育，言论等制度文化　⑧韩国人活动中表露出来的思考方式，价值观，思想，观念等　⑨农业，林业，水产业，建筑技术，电子，机械技术，石油，化工等产业技术

8. 因为文化差异，您是否对韩国人和韩国社会带有否定的情绪？
①完全没有　②基本没有　③一般　④有一点　⑤非常不满

9. 为了促进中韩两国友谊，您认为学习韩国的文化价值重要吗？
①不重要　②不怎么重要　③一般　④比较重要　⑤非常重要

10. 您对韩国历史了解多少?
①完全不了解　②不了解　③一般　④比较了解　⑤非常了解

11. 您对韩国总体印象怎么样？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2. 您对韩国人的印象怎么样？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3. 您认为决定一个国家形象的决定因素是什么？
①该国的经济规模和代表企业　②政治和外交　③大众文化　④科学技术　⑤传统文化艺术　⑥国民性　⑦知名人士　⑧运动　⑨旅游观光

14. 您认为对一个国家形象有积极影响的因素是什么？
①国际企业的宣传　②大众文化　③科技成果　④国际体育大赛上的优秀成绩　⑤知名人士的对外活动　⑥文化艺术水平的提升　⑦市民意识

15. 如果足球世界杯有韩国和朝鲜比赛，你会支持谁？
①韩国　②朝鲜

16. 下列国家中,您认为中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是？
①美 俄 日　②俄 日 美　③日 美 俄　④美 日 俄　⑤俄 美 日
⑥日 俄 美

17. 对韩国产品的印象？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8. 同样的价格和品质，您会购买哪个国家的产品？

①中国　②韩国　③德国　④日本　⑤美国　⑥法国　⑦意大利　⑧英国　⑨俄国

19. 在韩国生产的产品中，请写出您知道的韩国品牌°

20. 请写出 提起韩国，您脑海里会想起什么？

反韩 VS. 反华:消除相互文化偏见,改善形象的模型研究
– 以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形象调查为中心 –

李廷性, 牛晶
首尔大学, 全北大学

在短短23年间,中韩两国的关系在各领域取得了飞跃的发展° 两国正式建交以来,在经济领域和政治外交方面的相互合作关系不断扩大发展,但是在社会文化方面两国相互合作关系的水准还很低,民间交流和国民相互间对对方国家的认识问题上存在相互不同的观点° 特别是短时间内中国经济迅速增长,两国交流中引起了对双方的误会和矛盾,相互反韩反华情绪萌生,并且相互间的理解也越来越难°

我们以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形象” 为主题,在2015年4月28日到5月7日期间分别对韩国国立全北大学和中国山东财经学院的100名大学生进行了问卷调查°

本论文以问卷调查结果为基础,通过把握中韩两国大学生间对对方国家的文化偏见的实态,为解决上述问题构建了改善形象的模型,参加调查问卷的中韩大学生标本不多,所以这个结果对中韩两国适用有些勉强,以下是中韩两国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调查的结果°

1. 关于对对方国家访问次数的问题,分别有75%和56%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 “没有去过” °
2. 关于对对方国家语言熟练度的问题,分别有63%和81%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 “不会” °
3. 关于对对方国家文化学习经历的问题,分别有81%和70%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 “没学过” °
4. 关于对对方国家历史了解的问题,34%的韩国大学生回答不知道中国历史,66%的中国大学生回答不知道韩国的历史°
5. 关于为改善两国关系,对对方国家文化价值学习必要性的问题,分别有51%和79%的中国学生和韩国学生回答 “需要” °
6. 关于是否因为文化差异对对方国家有否定的情绪的问题,分别有51%和8%的韩国学生回

答“有一点”和“非常不满”,而中国学生的比例为20%和5%°

7. 关于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的问题,分别有18%和37%的中国大学生回答对韩国的印象“非常好”和“比较好”,一半以上的中国大学生对韩国持肯定的认识,而韩国大学生分别有1%和15%,共计16%的人对中国印象“非常好”和“比较好”°

8. 关于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国民印象的问题,分别有15%和37%的中国大学生回答对韩国人印象“非常好”和“比较好”,一半以上的中国大学生对韩国人持肯定的认识,而韩国大学生对中国人的印象,分别有1%和16%的人回答“非常好”和“比较好”°

9. 关于国家形象的决定因素的问题,分别有26%和27%的中国大学生选择“政治外交”和“国家经济规模和代表企业”,选择“大众文化”和“国民性”的分别有21%和15%° 而韩国大学生有68%选择“国民性”,分别有16%和10%的人选择“政治外交”和“国家经济规模和代表 企业”°

10. 关于对改善国家有积极影响因素的问题,分别有36%和20%的中国大学生选择“大众文化”和“市民意识”,选择“科技”和“国际企业的宣传”的分别有12%和13%,而韩国大学生有74%选择“市民性”,分别有13%和11%的人选择“大众文化”和“国际企业的宣传”°

11. 关于对对方国家产品的问题,有50%的韩国大学生对中国产品印象“不好”,一半以上人对中国产品印象不好,而中国大学生分别有27%和32%的人对韩国产品“非常好”和‘比较好”,一半以上的人对韩国产品印象不错°

只有以两国间的共同认识和理解变化为基础,才能促进中韩两国友好关系的持续发展° 为此本论文为了消除中韩两国间的相互文化偏见,构建了改善形象的模型°

1. 扩大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的学习以及语言的使用机会
2. 通过网络,使双方文化交流的渠道多样化
3. 扩大中韩产品相互体验的机会
4. 努力改善中韩两国国家形象

中韩两国通过扩大双向的国民体感上的人文交流,才能深化情感的纽带,从而构筑信赖关系° 为了中韩两国关系质的变化,需要把握中韩两国大学生间的反对情绪的实态,开展消除相互文化偏见方面的研究°

Ⅰ. 序论

从1992年8月24日中韩建交,在短短23年间,中韩两国的关系在各领域取得了飞跃的发展。特别是2013年6月27日朴槿惠总统访华时,中韩共同发表〈〈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为两国关系的发展绘制蓝图,成为两国关系史上新的里程碑。2014年7月3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访韩时,为进一步充实发展战略合作伙伴关系,中韩两国发表〈〈中韩联合声明〉〉,两国关系迎来新的转折期。

〈〈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中提出:为充实战略合作伙伴关系,重点推进三个领域合作特别是人文领域交流合作。确定了扩大人文交流,强化情感纽带的行动计划,而且两国以〈〈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和〈〈中韩联合声明〉〉为基础,协商促进发展两国关系。为了强化中韩人文纽带,经两国政府协商组织,于2013年11月举行了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会议,双方就深入进行学术和地方文化交流,以及开发传统艺术等19个领域的交流合作项目进行了卓有成效的探讨。*

虽然两国在经济领域和政治外交方面的相互合作关系上取得了可喜的较大发展,但是在社会文化方面两国相互合作关系的水准还很低,民间交流和国民相互间的认识方面还存在各种问题。两国间相互理解的困难以及反华反韩情绪的蔓延,这些问题从中韩两国大学生的言论中清楚地表露出来.实际上,虽然韩国没有,但中国国内有反韩网站运营。

中国国内的反韩网站“反韩网”如下表〈1〉所示,非常有组织的有秩序的在运营。该网站搜集并记录了对韩国社会、文化、政治、经济、大众文化的批判以及在韩的中国游客的受骗经历。

* 청와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3.6.28., http://www.korea.kr 〉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외교/안보 〉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5.04.30. 방문

表〈1〉 反韩网的主要组成

分 类	组 成	分 类	组 成
主讨论区	反脑残	反韩家园 (没有韩国棒子才能有好心情)	爱国联盟
	反韩流		谈天说地
	反韩联盟		国际观察
	反韩文章		沙场点兵
	反韩百科	反韩事务所	论坛管理
	反韩国		网站留言
	反韩货	反韩新闻站	嘲韩社
	反卖国		受害者
	反韩星	2015.05.19 访问	

因此,为了中韩两国友好关系的持续发展,两国间的相互认同和相互理解应该成为强有力的后盾° 通过扩大双向的国民体感上的人文交流,深化情感纽带,增进文化认同, 从而构建双方信赖关系° 为了中韩两国关系质的变化,需要把握中韩两国大学生间的反对情绪的实态,开展消除相互文化偏见方面的研究°

本研究是以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的问卷调查结果为基础,通过把握中韩两国大学生间存在的相互文化偏见和有关原因,为了解决上述问题而构建的模型°

Ⅱ. 消除中·韩大学生间的相互文化偏见的必要性

1. 90后的中·韩大学生相互社会 · 心理特性的调和

"世代不一样"不仅仅是说出生成长的时期不一样, 而是说看待世界的眼光和价值观不一样, 而且在享受文化过程中的感触和个性也不一样°

为此本论文选择的调查问卷对象均为90年代以后出生的大学生° 不过中韩大学生在相同的时代和相同的世代具有以下共同的特征°

中国改革开放以来, 经济实现巨大发展, 1990年以后出生的, 通常被称为"90后"或者"二代小皇帝世代", 因中国的计划生育政策限制, 这些孩子大多为独生子女, 得到父母疼爱甚至溺爱的不在少数,另外, 受中国改革开放政策带来的红利影响, 他们的家庭经济基础普遍较好, 养尊处优导致大多数孩子比较娇气, 个人主义倾向和自我满足´ 自我中心倾向明显° 约有两亿两千万的90后世代喜欢自我主义的自我满足, 是从小熟悉消费的世代, 是和互联网的发展一起成长, 熟练运用网络搜索的世代° 集体性的表现出以高价为主´ 偏好外国品牌的消费状态, 个性明显, 关注时尚和IT产品,以后将成为中国的海外观光和购物旅游的主导核心阶层° 而且和现有的保守世代不同, 他们是积极进取和开放的世代, 对外界和新鲜事物更加包容°

不过另一方面他们和中国高速发展的经济一起成长, 民族自豪感强烈° 面对2008年西藏动荡形成的国际社会的反华和抵制2008年北京奥林匹克运动会的活动, 他们积极带头, 通过网络和集

体行动拥护支持北京奥运会开幕°

韩国90年代以后出生者亦是伴随着韩国经济的高速发展，而且享受着丰富的物质生活,一家大概有两名孩子°虽然90年代初期出生的人在他们的幼年时代目睹了IMF，认为就业和结婚是最重要的°但是随着大学的普及以及毕业生源的增加，相反地，企业在新入职员的招聘数量上却没有相应的增加，导致现在经历着没完没了的就业难问题°因此他们不惧权威,自由奔放,个性明显，**但是通过社会和家庭得到的人际关系方面的训练不足,所以个人主义倾向严重°***

但是一方面他们又是非常果敢的世代°他们在两个极端并存,不仅仅只生活在电脑和智能手机世界里,而且搅乱着世界°他们自己创业,不乏有想成为企业家的人°跟过去不一样,现在出国变的容易,****在这个只要自己努力就能得到各种情报的时代里，他们是用与众不同的创意和想法来武装的世代°

谈到1990年以后出生的中韩大学生的社会心理特性,既有差异,也有如〈表-2〉所示的相似点°

〈表2〉 90后中·韩大学生的社会·心理的主要共同特性

1)	个人主义的扩大,对自己关注和投资
2)	对多样性的尊重
3)	真正意义上的数字世代
4)	趋优消费的消费趋向*****
5)	积极享乐娱乐文化
6)	对就业和安定的未来高度关注

中韩两国在政治,经济,军事上关系亲密,相互合作,而且在未来10年内,90年代出生的中韩大学生将在两国政治经济军事上成为影响生产和消费的主力°

中韩两国好比邻居，通过窗户就能打招呼，因此为了这种亲密感的形成,应互相丰富国家和国民感情的枝叶°而消除中韩大学生之间的文化偏见是其构建的捷径°

2. 维持可持续的中韩关系

最近韩半岛围绕外交安保,情况高速变化°日本的右倾化和韩日矛盾的加深,中国的突然成长和美国的欲图牵制,还有朝鲜的核问题和南北间的沟通不畅等,对韩国经济°安保带来巨大影响°其中最

** 한국 대중문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서태지 이후의 세대로서 음악·패션은 물론 새로운 영상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정신과 감각적인 영상의 시대에 초·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

*** 이귀재, 「내일은 맑음」, 신아출판사, 2014.02.28., p.147.

****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해외 배낭여행과 어학연수의 일반화로 특히, 20대 초반은 초·중·고등학생 시절 유학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됨.

***** 예) "햄버거로 끼니를 때워도 차는 BMW" 라고 할 때, 여기서 햄버거는 가장 실용성을 맞춘 하향구매(Trading down)이고 BMW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른 상향구매(Trading up)라고 할 수 있다.

近在关于末端高空区域防御系统的引进问题上，引发了中韩间关系的争议，并引起更多人关注°

但是韩国国内为了以后韩半岛的和平共存和统一，坚定地认为韩美同盟和韩美联合防御体系的维持以及强化是必需的°*随着这种形势的发展，中韩两国关系的发展方向显得尤为重要°中韩两国的战略就算是再完美，但是如果民间关系发展不顺利的话，中韩关系以后无论是在经济还是政治上都不能健康长远的发展°

所以韩国需要聚力于民间交流的健康发展，坚定巩固中韩稳定合作的关系,所以中韩两国通过“加强双方的国民体验式的人文交流”“中韩观光政策体系的建立管理”“人文交流委员会体系的运营”来试图达到消除对双方国家的文化偏见°

如果想要消除中韩文化交流中的相互文化偏见，只有消除韩半岛周边国际形势以及南北关系的随时变动和不确定性的影响，才能打开中韩间互惠交流，促进共存和繁荣发展的新局面，并在和平共处和相互发展上取得综合效果°跟强调中韩两国间民族固有性相比，更应该尊重**地域性，抑制冲突，扩大交流°

3. 改善国家形象，加强经济合作

如果想要消除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文化偏见，就要改善对方国家的形象°改善了对方国家形象就会提高对对方国家的好感和认知度，从而增加信赖，促进中韩经济合作的频率和金额的增长°

如果消费者对一个国家的产品情报了解不足，就会从国家形象开始,对商品的品质进行推断°这时国家形象对消费者的理念有直接的影响°***原产地国家整体形象依靠政治´经济´社会´文化历史及其国家的代表性商品而形成,这是消费者评价产品质量时作为代理线索作用的重要因素°

根据大韩工商会议所的调查，****韩国国内消费者每10人中有8人认为购买商品时会考虑生产国的形象°根据大韩工商会议所调查的“国家形象对购买的影响和启示”的内容，74.5%的人回答说购买商品时会考虑生产国的国家形象，25.5%的人回答说不会考虑°*****随着FTA等世界市场壁垒的倒塌，预示着不仅有形商品而且无形的国家品牌成为消费者重要的选择基准°特别

---

* *The* KOREA FORUM *for PROGRESS* (http://www.kfprogress.org.) 2015.04.23.
한국선진화포럼 〉 선진화논단 〉 제94차 월례토론회 〉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12. p.116.

*** C.M. Han(1989), “Country Image : Halo or Summa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6, p.224.

**** 조사기간 : 2012.10/8~10/31〈휴일 제외 18일간〉
조사대상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514명
조사방식 : 전화, 팩스 조사

***** 2012년 11월 14일, 대한상의 보고서.
https://www.bcci.or.kr/html/EcoData/ecodata03.php?pg=12&mode=view&idx=5602

是代表国家形象的企业在国家形象的形成中起着越来越重要的影响° 虽然影响消费者对商品评价的要因有很多, 原产地效果只是其一而已,但是消费者在几乎没有经验或者情报时, 原产地形象(国家形象)作为光环效应出现, 许多消费者在搜索产品或其他情报之前就得出了某些结论° *

所以企业应努力开发可以引领世界市场的优秀产品, 随着有的国家具有国际竞争力的企业不断出现, 要积极培育有潜力的企业并且着力通过商品和服务来改善本国的海外形象° 改善中韩两国对双方的形象, 首先应该从消除对双方国家的文化偏见开始°

Ⅲ.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调查结果及分析

关于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的调查从2015年4月28日到5月7日共进行了10天° 参加此次调查的韩国大学生为国立全北大学学生, 中国大学生为山东财经大学的学生° 调查采用直接问卷调查的方式进行,对当地大学生进行了面对面调查,并以问卷调查为基础,对搜集的材料进行相互比较分析° 参加问卷调查的两国大学生从地理上都位于内陆,跟其它地区的大学生比, 更容易暴露问题, 所以问卷调查时个人经验介入较少, 从而可以保证提高问卷调查的客观性和可信度°

1. 问卷调查标本在人口统计学上的特征

参加此调查问卷的中韩大学生各100名° 韩国大学生中男生占45%,女生占55%,中国大学生中男生占35%,女生占65%°

〈表3〉 问卷调查标本在人口统计学上的特征

* L.G. Schiffman & L.K. Leslie(1972), "Peceived Risk in New Product Trial by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Feb, pp.106-108.

韩国

N : 有效(100), 缺测(0)

		学年	频率	百分比	有效百分比	累积百分比
有效	男生	大一	0.0	0.0	0.0	0.0
		大二	3.0	3.0	3.0	3.0
		大三	25.0	25.0	25.0	28.0
		大四	15.0	15.0	15.0	43.0
		研究生	2.0	2.0	2.0	45.0
		合计	**45.0**	**45.0**	**45.0**	**45.0**
	女生	大一	0.0	0.0	0.0	0.0
		大二	4.0	4.0	4.0	4.0
		大三	28.0	28.0	28.0	32.0
		大四	21.0	21.0	21.0	53.0
		研究生	2.0	2.0	2.0	55.0
		合计	**55.0**	**55.0**	**55.0**	**55.0**
	总计		**100.0**	**100.0**	**100.0**	

中国

N : 有效(100), 缺测(0)

分类		学年	频率	百分比	有效百分比	累积百分比
有效	男生	大一	17.0	17.0	17.0	17.0
		大二	8.0	8.0	8.0	25.0
		大三	3.0	3.0	3.0	28.0
		大四	2.0	2.0	2.0	30.0
		研究生	5.0	5.0	5.0	35.0
		合计	**35.0**	**35.0**	**35.0**	**35.0**
	女生	大一	24.0	24.0	24.0	24.0
		大二	10.0	10.0	10.0	34.0
		大三	9.0	9.0	9.0	43.0
		大四	8.0	8.0	8.0	51.0
		研究生	14.0	14.0	14.0	65.0
		合计	**65.0**	**65.0**	**65.0**	**65.0**
	总计		**100.0**	**100.0**	**100.0**	

参加此调查问卷的韩国大学生年龄分布是男生中大一占0%,大二3%,大三25%,大四15%,研究生2%° 女生中大一占0%,大二4%,大三28%,大四21%,研究生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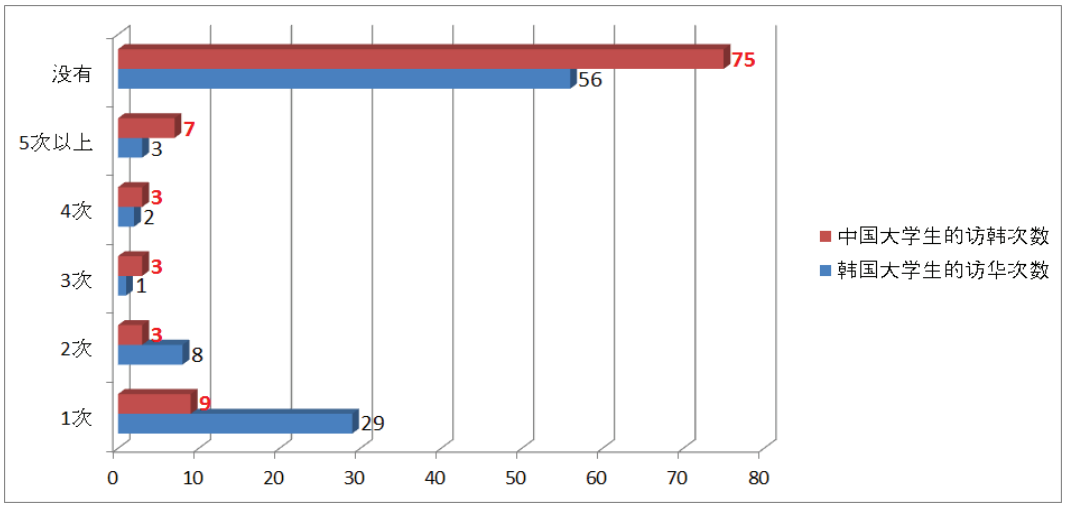
参加调查问卷的中国大学生年龄分布是男生中大一占17%,大二8%,大三3%,大四2%,研究生5%° 女生中大一占24%,大二占10%,大三占9%,大四占8%,研究生占14%°

2.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访问经历

对于“对对方国家的访问次数”这个问题,分别有75%和56%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没有访问过对方国家° 分别有9%和29%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有一次访问对方国家的经历°

《汉书 · 赵充国传》中有言“百闻不如一见”, 意思是说听到一百次也不如见到一次, 也就是说亲眼看到的更为确实可靠° 所以只有扩大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访问交流, 才能比现在进一步提高改善中韩关系°

〈表4〉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访问次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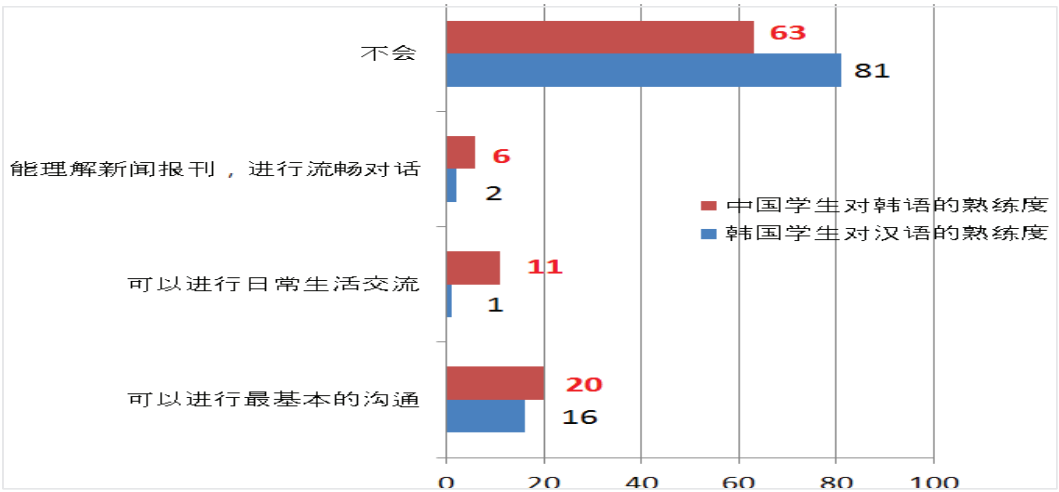


3.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的熟练度

对于“对对方国家语言的熟练度”这个问题,如〈表5〉所示,分别有63%和81%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不会对方国家语言°分别有20%和16%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可以进行最基本的沟通°

在对“是否可以理解对方国家的新闻报纸,熟练对话”的回答中,分别有6%和2%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表示可能°

〈表5〉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的熟练度(%)



语言是人类最重要的交流工具,使社会生活成为可能,并在文化的创造´传达和继承上担当重要角色°如果没有语言,不仅人们的感情和思想不能表达,而且一代代的文化也不能传承°语言

和文化是如果分离开就不能思考的非常密切的关系，由此可见语言的重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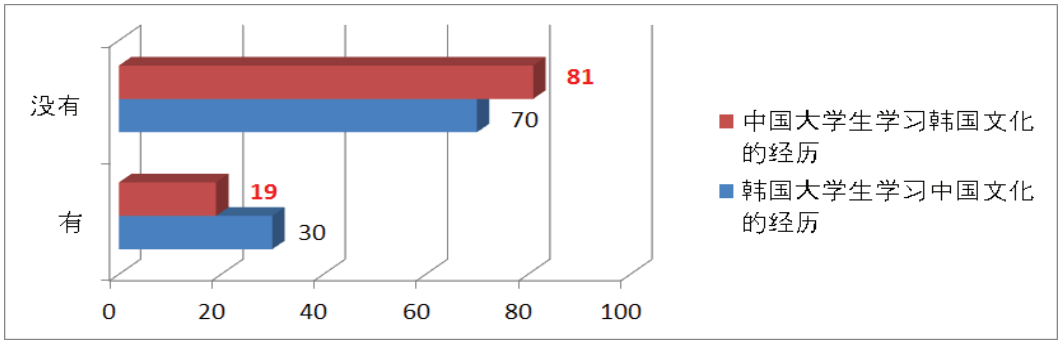
现在东北亚国家中，中日韩三国由于历史和政治的原因，相互爱憎相交，对彼此的不满也很多。只有中日韩相互理解，和平对话，才能实现双赢，而使其变为可能的关键就是语言。

因此为了使中韩两国相互共享情报，提升国家间的理解度，消除相互误会变为可能，从而判断得出中韩大学生需要学习对方国家的语言。

4.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文化的学习

对于“是否学过对方国家的文化”这个问题，分别有81%和70%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回答没有学过，剩下的19%和30%的人回答学过对方国家的文化。

〈表6〉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文化学习的经历(%)



仔细观察一个国家成员的活动时，一定会发现有的人没有一起行动。有的人喜欢辛辣的食物，有的人不喜欢，有的人对此毫不在意。同理，国家的成员也都有自己独特的爱好或者习惯，从另一方面来说从一个国家的成员的活动中，可以看出区别于其他国家的某些共同趋向，这种共同的趋向我们称之为该国的文化。***

所以为了实现东北亚地区的相互友好合作，中韩两国要通过两国大学生对对方国家文化的学习，使得以后在特定的状况发生时，对对方将有什么样的行动，以及什么样的期待和预测变为可能。学习过对方国家文化的学生中，他们的学习方式如〈表7〉所示。

韩国大学生通过国内有关中国的文化课和学部选修课学习中国文化，而中国大学生则通过学部选修，个人学习和电影电视剧来学习韩国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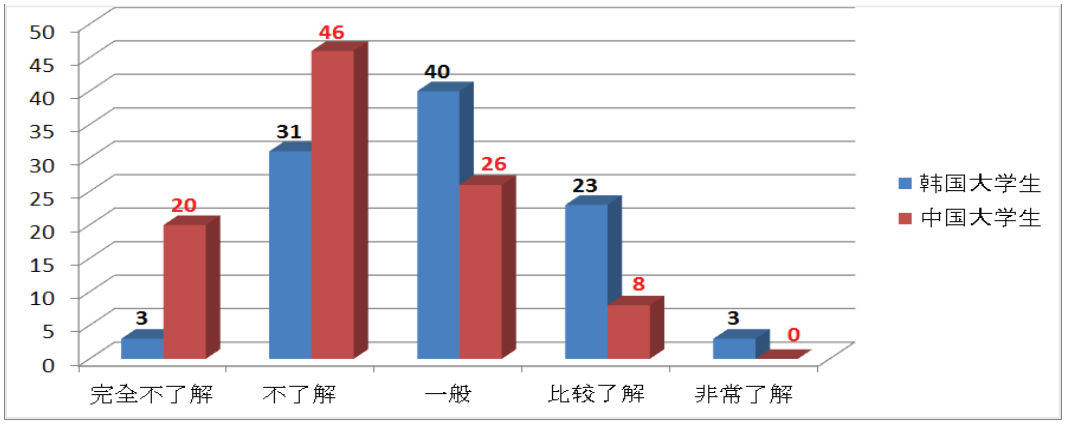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09.15., p.213.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전게서, p.46

〈表7〉 中韩大学生学习对方国家文化的方式(%)

分类	语言学院	学部选修课	研究生文化课	个人学习	对方国家国民的介绍	国内关于对方国家的文化课	大众媒体（电影，电视剧等）	交换生	其它
韩国大学生	2	6	1	3	2	8	2	3	3
中国大学生	2	3	3	4	1	2	3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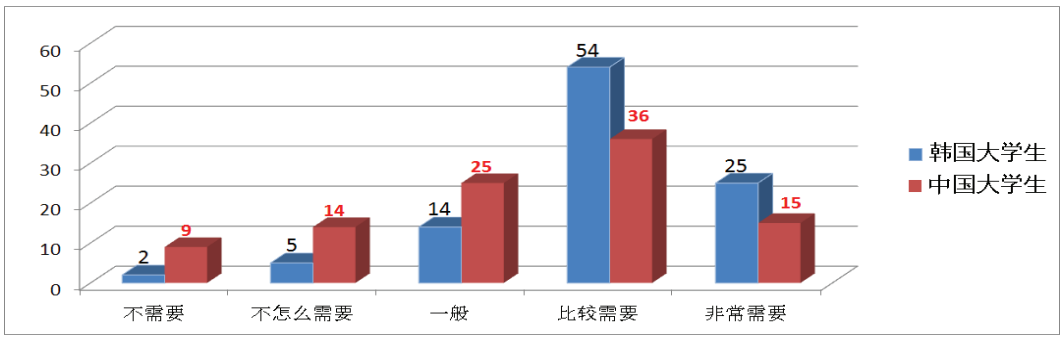
如〈表6〉所示，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文化价值的学习经历基本没有，所以如〈表8〉所示，对对方国家的历史了解也不足。调查结果显示，34%的韩国大学生对中国历史完全不了解，66%的中国大学生对韩国历史完全不了解，特别是中国大学生不了解的比例几乎是韩国大学生的两倍，所以以后为了增进中韩两国的相互理解，中国大学生更需要加强对韩国历史的学习。

〈表8〉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历史的了解(%)



中韩大学生需要进一步加强学习对方国家历史和文化的理由如〈表9〉所示，〈表9〉中为改善中韩关系，对对方国家文化价值学习必要性的调查结果显示，分别有51%和79%的中国大学生和韩国大学生都认为需要学习对方国家的文化价值。

〈表9〉 为改善中韩关系，学习对方国家文化价值的必要性(%)



关于”学习对方国家文化价值必要性”这个问题的回答,觉得”不怎么重要”的中国大学生比例是韩国大学生3倍多,这个结果也应该引起中韩两国当局的关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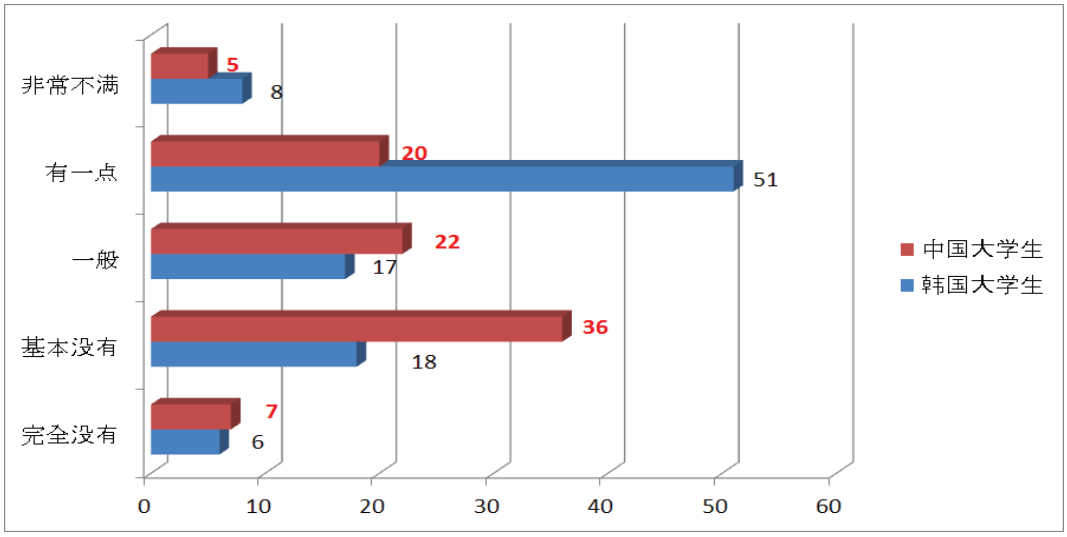
5. 由于文化差异,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带有负面情绪的经历

中韩两国有数千年的文化交流,过去的历史长河中,多样的中国文化传入韩半岛并形成了韩国独特的传统文化的基础。无论是这种历史的渊源还是相同的东方面孔,我们都在不知不觉中认为中韩间没有什么不同,这样认为的人不在少数。****

关于”对韩国带有负面情绪的经历”的调查中,回答”基本没有”和”完全没有”的中国大学生占36%和7%,而回答”有一点”和”非常不满”的中国大学生占到20%和5%。

关于”对中国带有负面情绪的经历”的调查中,回答”有一点”和”非常不满”的韩国大学生占51%和8%,而回答”基本没有”和”完全没有”的韩国大学生占到18%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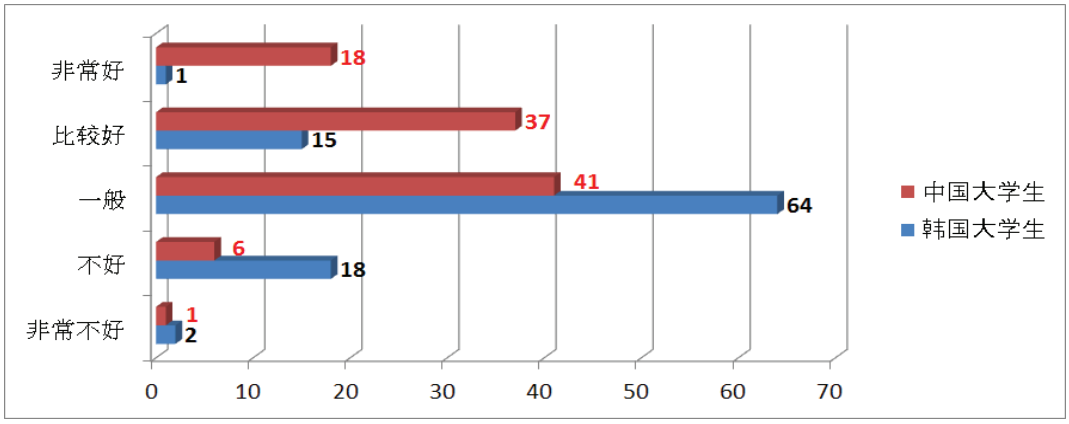
〈表10〉由于文化差异,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带有负面情绪的经历(%)



如下表〈表11〉所示,关于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形象的调查中,分别有18%和37%的中国大学生回答说对韩国印象”非常好”和”比较好”,由此可以看出一半以上的中国大学生对韩国持肯定的认识,而64%的韩国大学生回答说对中国印象“一般”, 由此可以看出一半以上的韩国大学生对中国持中立的态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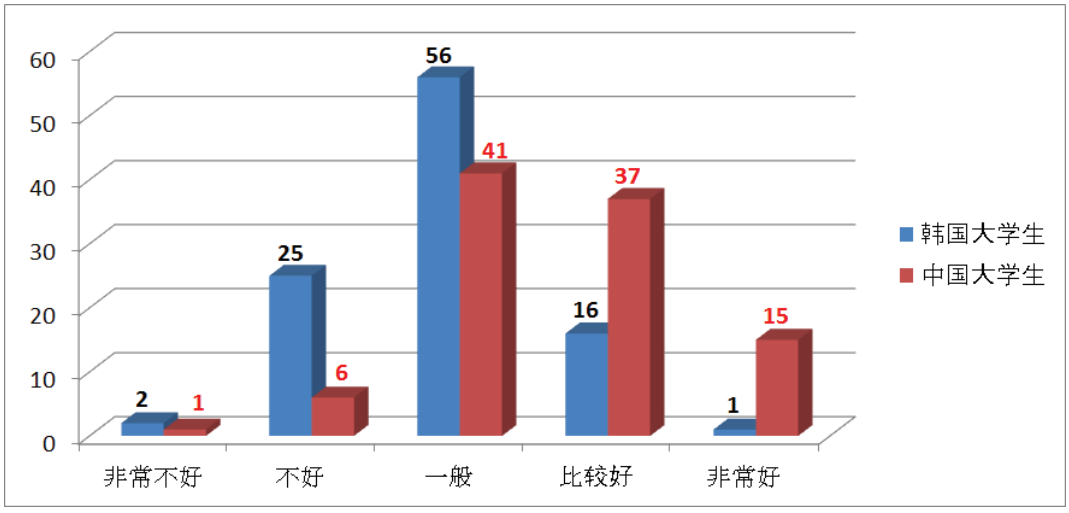
**** 우수근,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주)살림출판사, 2008.7.20., p.52.

〈表11〉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形象 (%)



中韩大学生对对方国民的形象调查如〈表12〉所示, 分别有15%和37%的中国大学生回答说对韩国人的印象 "非常好" 和 "比较好", 由此可以看出一半以上的中国大学生对韩国人持肯定的认识° 而56%的韩国大学生回答说对中国人印象 "一般", 由此可以看出一半以上的韩国大学生对中国人持中立的态度°

〈表12〉 中韩大学生对对方国民的印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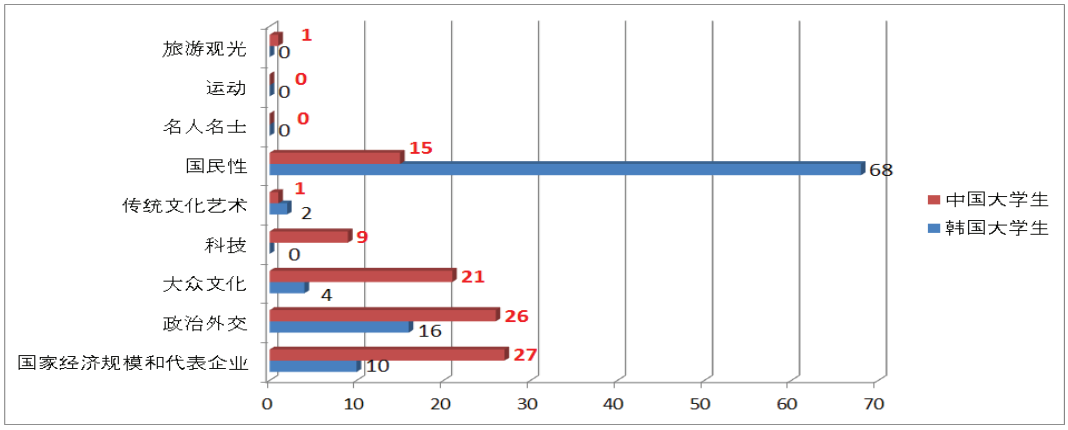


6. 中·韩大学生对国家形象的决定因素

国家形象是指对一个国家的认知度, 好感度, 信任度等有形和无形的价值观的总和° 如此看来通过国民或者企业等民间活动可以提高国家形象, 也可以通过国家宣传和管理等来提高国家形象° 国家品牌形象被认为对一个国家经济成就有巨大影响° *****

对国家形象的决定因素调查中，中国大学生的回答如下表〈表13〉所示，分别有26%和27%的中国学生选择“政治外交”和“国家经济规模和代表企业”。而韩国方面，68%的韩国学生选择了“国民性”，分别有16%和10%的韩国学生选择了“政治外交”和“国家经济规模和代表企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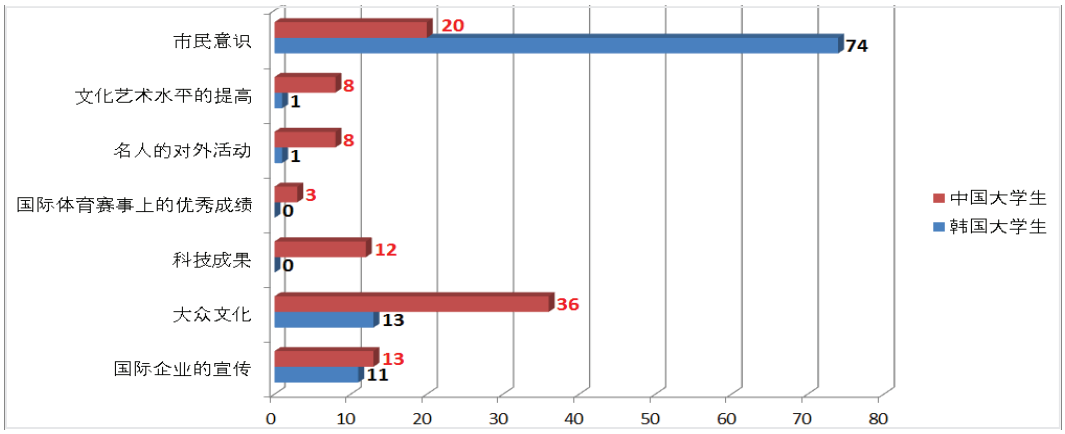
〈表13〉国家形象的决定因素 (%)



中韩比较来看，韩国大学生认为决定国家形象的决定因素中，最重要的是“该国的国民性”，其次为“政治外交”和“国家经济规模和代表企业”。而同一问题，中国大学生认为最重要的是“国家经济规模和代表企业”，其次为“该国政治外交”和“大众文化”。

〈表14〉对改善国家形象有积极影响的因素 (%)

***** 차오리, “한국 국가이미지와 화장품 브랜드이미지가 중국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하지수외 2명,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 국민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 비교 –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Vol. 46.
사효람, “한국문화인식을 통한 국가이미지 및 관광지 이미지가 국가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而对改善国家形象有积极影响因素的调查中，中国大学生的回答如〈表14〉所示，分别有36%和20%的中国大学生选择了“大众文化”和“市民意识”，12%和13%的人选择了“科技成果”和“国际企业的宣传”。相反地，74%的韩国大学生选择了“市民意识”，13%和11%的韩国大学生选择了“大众文化”和“国际企业的宣传”。

中韩比较来看，韩国大学生认为对改善国家形象有积极影响的因素中，最重要的是“该国的市民意识”，其次为“大众文化”和“国际企业的宣传”。同一问题，中国大学生认为最重要的是“大众文化”，其次为“市民意识”和“国际企业的宣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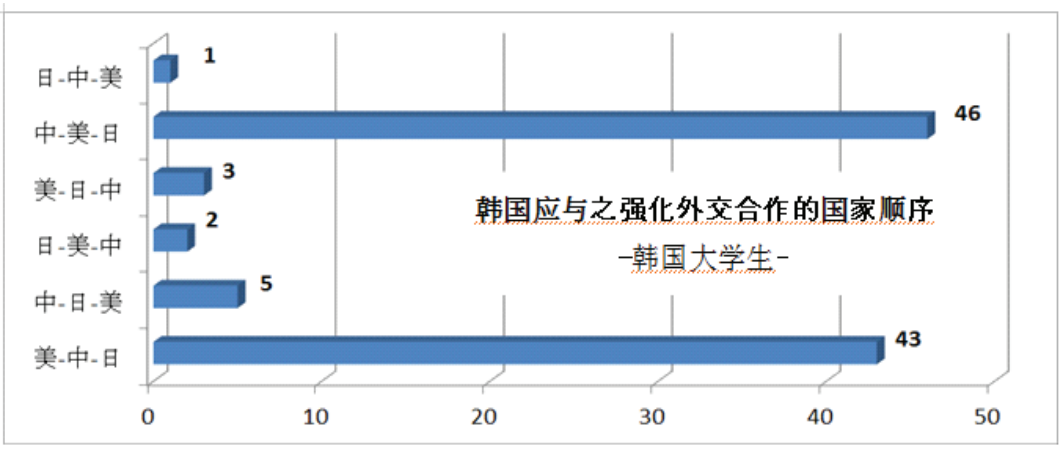
7. 中·韩两国应加强外交合作

韩半岛因为地缘政治之故，在中美俄日势力圈的影响力是众所周知的事实。再加上南北分裂的因素，六大势力成为关于韩半岛局势变化的主要变数。充分利用六大势力利害关系缠绕的格局，可能成为一个契机，但也不能排除一不小心就会给韩半岛上生活的人们造成巨大的灾难。

中国和韩国，两国地理位置相近，文化也相似。近代以来，在西方列强的对外扩张影响下，中国和韩国遭受西方列强的凌辱，度过了艰难的岁月，但是两国间的外交没有中断,特别是韩国1919年通过“韩国民族独立运动圣战”建立流亡政府，和中国人合作抗击日本帝国主义，建立了深厚的友谊。第二次世界大战时为了抵抗日本帝国主义的侵略，中韩两国国民同呼吸、共命运，相互支援，在公共外交史上留下了辉煌的一页。

如〈表15〉所示，对“韩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这一问题，分别有46%和43%的韩国大学生选择了“中-美-日”和“美-中-日”，中国和美国被选为主要外交合作对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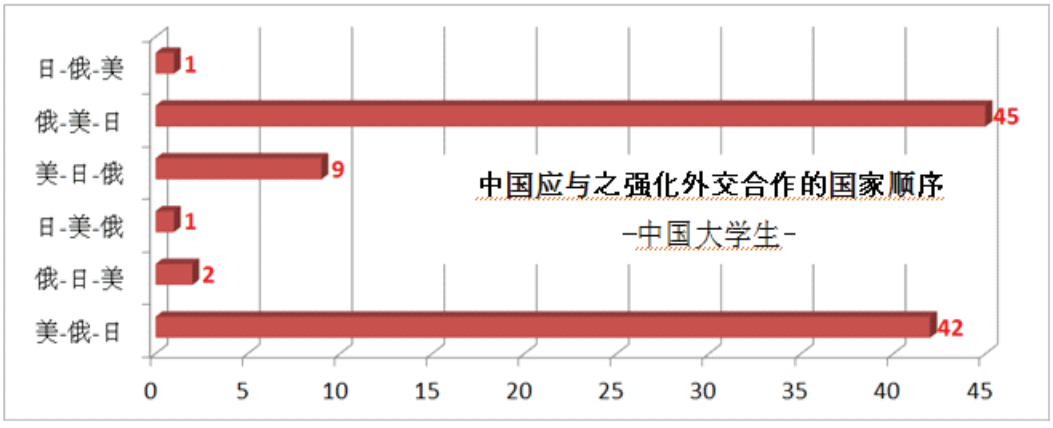
〈表15〉韩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 (%)



同一问题,在2012年调查时韩国大学生认为应强化外交合作的国家首选美国, 然而三年以后, 韩国大学生首选中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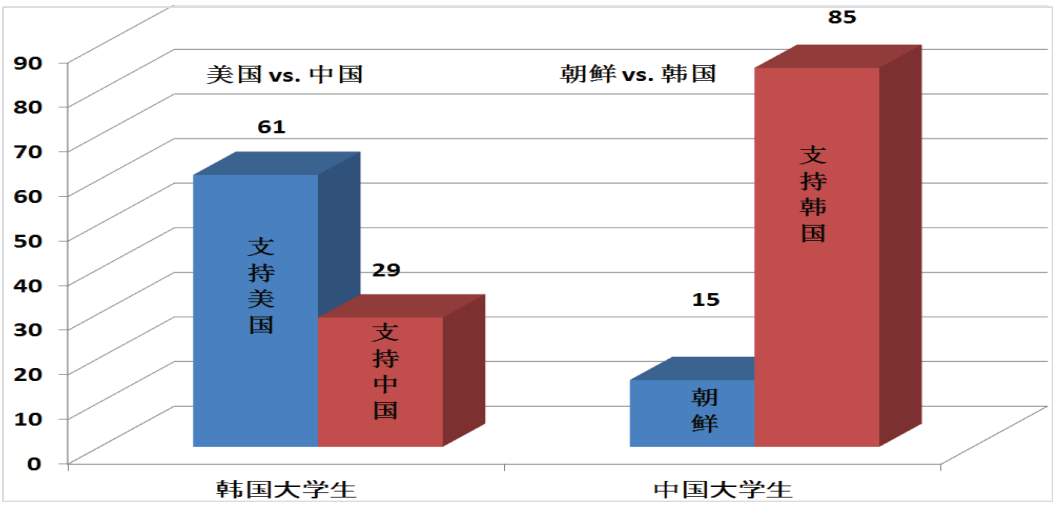
相反地,对 "中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 这一问题, 分别有45%和42%的中国大学生选择了 "俄–美–日" 和 "美–俄–日", 俄国和中国被选为主要外交合作对象°

〈表16〉 中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 (%)



对 "世界杯比赛支持的国家" 这一问题,如下表〈表17〉所示,如果世界杯有美国和中国比赛, 61%的韩国大学生支持美国° 如果世界杯有韩国和朝鲜比赛, 85%的中国大学生支持韩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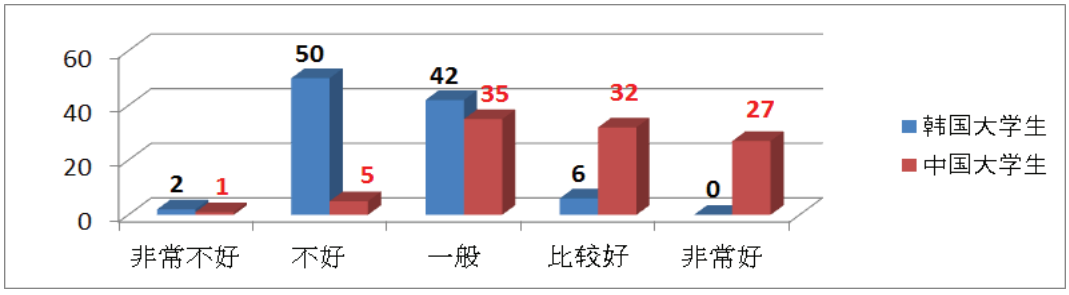
〈表17〉中韩大学生在世界杯比赛中想要支持的国家 (%)



8. 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产品的态度

如〈表18〉所示, 超过50%的韩国大学生认为中国产品不好, 由此看出韩国大学生对中国产品持否定态度°

〈表18〉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产品的印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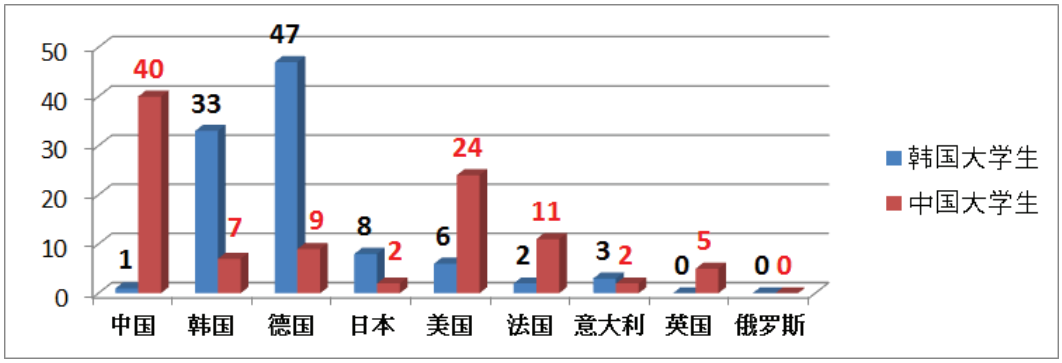


但是不仅韩国消费者信不过中国制造的产品, 就连中国消费者对自己的产品也深深的质疑° 以大米为例, 中国国内消费者觉得日本产大米新鲜安全, 所以对日本产大米消费增加° 依照日本国际农产品协会的资料, 2014年中国对日本大米的进口量为160吨, 比2013年增加了三倍° 但是日本大米在中国的价格不仅贵而且还很难买到,这样一来, 通过网上方式购买5千克1499元的日本大米的消费者不断增加° 购买大米的消费者通过后期评价说 "口感和味道明显比中国大米好" "贵的有道理"° "中国使用杀虫剂, 但是不会怀疑日本大米使用杀虫剂或者有重金属污染" 网上店家中国嗡嗡这样解释了日本大米畅销的原因° 实际情况也是由于产业化原因, 中国土壤和水污染严重,中国环保局去年四月指出国内土壤16.1%遭受污染, 有些地区的农民甚至不吃自家地里种的大米, 足见问题的严重性° *分别有27%和32%的中国大学生对韩国制造的产品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0457, 입력 : 2015-01-26 오후 12:46:43

表示“非常好” “比较好”，由此看出，中国大学生对韩国产品持肯定态度°
同样的价格和品质，40%的中国大学生表示会选择本国的产品，其次为美国（24%），法国（11%），德国（9%），韩国（7%），英国（5%），意大利（2%），日本（2%），俄罗斯（0%）°

〈表19〉同样的价格和品质，中韩大学生选择购买国家的产品（%）



相反地，同样的问题，47%韩国大学生表示会选择德国产品，其次为韩国（33%），日本（8%），美国（6%），意大利（3%），法国（2%），中国（1%），英国（0%），俄罗斯（0%）°
另外作为参考，中韩大学生在对对方国家产品品牌的认知度上，韩国大学生选择的前三位分别为小米，华为，青岛啤酒°中国大学生选择的前三位分别为三星，现代，雪花秀°

〈表20〉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产品品牌认知度前8位排名（回答）

排名	韩国大学生		排名	中国大学生	
1	小米	60	1	三星	65
2	华为	14	2	现代	32
3	青岛啤酒	13	3	雪花秀	18
4	阿里巴巴	12	4	LG	17
5	联想	4	5	兰芝	13
6	长城汽车	3	6	后	6
7	海尔	2	7	悦诗风吟	2
8	微博	2	8	起亚	2

Ⅳ. 改善中韩大学生们对对方国家形象的模型

20世纪的陈旧的思考和访问方式,在21世纪日新月异发展的的中国绝对不会看到°另外执着于一种观点的话，就会难以了解中国并只会看到奇怪的地方,以这种认识也很难实现和中国真正的

2015년 05월 15일 14시 40분 방문

交往交流° 所以中韩两国要从对对方的警戒和对立的姿态中摆脱出来, 虽然不容易, 但是为了两国双赢, 应该摆脱这种对决指向性的, 消耗性的观点° 为此为了改善中韩大学生们对对方国家的形象, 构建以下改善模型°

1. 扩大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的学习以及语言的使用机会

在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熟练度的问题时,63%的中国大学生和81%的韩国大学生表示”不会”,除去可以进行最基本沟通的,也就是说韩国大学生中每10名中只有0.4个人会中文° 截至2014年12月底,韩国包括专科学校在内共有340所大学**共计约400万名大学生,跟使用英语的人对比,使用中文的人数显得微不足道° 全北大学撰写硕士博士学位论文时,允许使用英语,但不允许使用汉语,山东财经大学同样也不认证韩文写的论文°

语言是我们表达想法和感受,也是相互理解的工具,这就是语言的功能,但是语言的功能不仅仅是一种沟通的手段,而且在促进人们精神世界的形成上起着重要作用° 人类社会通过语言相互建立关系,促进合作和发展文化语言是一种沟通手段的同时还是引领人类文化发展的源动力° 理解语言的这种功能,中韩两国就要通过依靠民办教育把对对方国语言的学习吸纳为一个制度,从大学开始允许各种学位论文用中文和韩语°

2. 通过网络,使双方文化交流的渠道多样化

根据2014年9月直接调查的材料,通过在中国的可以看韩国电影´ 电视剧´ 综艺和音乐的韩国电影网站((http://www.koreayh.com/),可以看出中国人对韩剧有浓厚的兴趣°

〈表21〉访问韩国电影城的中国人数

日期	IP(Internet Protocol)	PV(Page view)	日期	IP(Internet Protocol)	PV(Page view)
2014.9.15.	217,966	2,237,833	2014.9.19.	207,653	1,958,456
2014.9.16.	197,227	1,684,804	2014.9.20.	227,451	2,206,532
2014.9.17.	209,735	1,826,167	2014.9.21.	233,246	2,356,031
2014.9.18.	209,197	1,873,897			
2014年11月1日起不公开访问人数			平均	215,231	1,985,852

中国人对韩国电影´ 电视剧´ 综艺´ 音乐的页面浏览量达到了平均每天198万页,在中国除了介绍韩国电影电视剧的”韩国电影城”,还有更有名的网站,如”优酷”,”搜狗”,”土豆”,”搜狐电视”,”爱奇艺”等° 但是相反地,在韩国却没有介绍中国电影´ 电视剧´ 综艺的相关网站,这确凿地反证了在双方文化信息提供方面存在的不对称°

中韩两国在文化上有很多共同点° 以2013年的中国电影〈致我们终将逝去的青春〉***为例,这部电

** KOSIS, e-지방지표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시도), 위치 : 주제별 〉 교육여건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2015년5월16일 11:40 방문

*** 중국 영화배우 Zhao Wei의 영화감독 첫 작품이자 그녀의 북경 대학원 졸업 작품. 2013년 4월

影和韩国电影也有相似之处。电影讲述了主人公从上大学开始到毕业进入社会的过程中对爱的认识的转换。剧情错综复杂,误会、原谅、理解、守护、希望等这种表达爱的方式和韩国的情调有很多相似之处。

3. 扩大中韩产品相互体验的机会

有超过50%的韩国大学生表示对中国产品印象不好,可以看出韩国大学生对中国产品持否定态度。

不过在中国产品中,比如说小米和联想,凭借低价高性能不仅在韩国而且在全世界消费者中得到赞赏和认可。中国有很多韩国人常说的“大陆的失误”的产品,这个“大陆的失误”除了用失误来形容,找不到更好的形容,是指被所谓的韩国人称为低价高性能的中国山寨产品。最近最受好评的大陆的失误之一就是耳机,在中国网站上,只需3到6万韩元,就能容易的买到和100多万韩元的德国森海塞尔耳机(SENNHEEISER)外形一样的中国山寨品,而且卓越的性能也得到了专家们的肯定,以前只是外形相似,性能低下的山寨品,现在连质量都基本一致。如果有性能价值100万韩元,价格也值100万韩元的真品和性能价值90万,价格却不到10万韩币的山寨产品,很好奇韩国消费者到底购买哪个才是合理性的消费。

在全世界智能手机市场上引起热潮的小米手机,第一次扬名是凭借被称为”大陆的失误”的充电宝而不断壮大。低廉的价格、简洁的设计和快速充电的优点,在中国就算是用三星或者苹果手机的人也会选择小米充电宝。小米2014年向市场推出的49寸超高清电视的价格仅为其它竞争企业的四分之一,引起市场冲击,而且电视采用LG平板显示器,质量上没有大的差异。

实际上”山寨”这个词是对中国没有根据的无视和成见,对中国产品便宜, 质量差的偏见也根深蒂固。所以中韩两国为了消除两国大学生相互之间的无视和偏见,中韩企业间要有意识地创造扩大自己新产品的交叉体验的机会。

4. 努力改善中国两国国家形象

2014年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即居民消费价格指数)的结果如〈表22〉所示,‘Corruption’是掌权者腐败的意思, 掌权者的腐败是中国、韩国以及世界各国的经济增长的威胁。

〈表22〉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Results

26일 중국 전역에 개봉하여 7.2억 위안의 수입을 남기며 중국영화 역대흥행 순위 9위 기록

Country Rank	Country / Territory	CPI 2014 Score	Surveys Used	Standard Error	90%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7	Singapore	84	8	1.75	81	87
15	Japan	76	8	3.16	71	81
35	Taiwan	61	7	4.17	54	68
43	Korea (South)	55	9	2.64	51	59
100	China	36	8	2.17	32	40

材料 : RBI(Royal Booster International.Pvt.Ltd.), 2015.04.12.15.07访问
http://007rb.blogspot.kr/2015/02/corruption-perceptions-index-2014.html
(NOTE:* Lower the RANK better is the country)

根据RBI来看,2014年韩国清廉度排名43位,中国100位,新加坡排第7位是亚洲最清廉的国家°

关于对改善国家形象有积极影响因素中,如〈表14〉所示,选择" 市民意识" 的中国大学生有20%,而韩国大学生有74%°

所以为了改善中韩大学生对双方国家的形象,中韩两国要持续加强对掌权者不作为和腐败的管制处罚, 与此同时, 也需要加强中韩大学生的素质教育和道德教育°

Ⅴ. 结论

中韩两国有数千年的文化交流,过去的历史长河中,多样的中国文化传入韩半岛并形成了韩国独特的传统文化的基础。无论是这种历史的渊源还是相同的东方面孔,我们都在不知不觉中认为中韩间没有什么不同,并且这样认为的人不在少数。

但是这种想法和期待在相互理解的角度看存在巨大障碍,因为我们潜意识里以自己的习惯、传统、文化为中心来认识对方,并误以为对方的习惯,传统和文化和自己类似,但是发现对方和自己不一样时就会产生异质感,由于这种不同就自然而然的对他失望和指责。

考虑到这一点,韩国要在对中国深入了解的基础上,深化和中国的交流,应该先从以韩国为主的"相互发展的障碍性"思维中摆脱出来。在彼此不同的基本认识中互相尊重和忍让,追求共生的姿态是必须的,也就是说理性的看待和中国的差异,中国和韩国的关系才能在更自然更客观的姿势中进一步发展下去。

为此,首先,要扩大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语言的学习以及语言的使用机会;其次,通过网络,使双方文化交流的渠道多样化;第三,扩大中韩商品的相互体验机会;第四,为改善两国国家形象,两国都要尽最大努力。特别是为了使一切成为可能,中韩两国大学生要努力学会对方国的语言并经常交流,如果不了解对方国语言,就算是一样的单词,相互经常理解错误,就会引起误会和纠纷,从而形成纷争的导火索。

我们在写论文的过程中还有几个不足。

第一, 正如在各种各样的问卷内容中看到的一样,中韩大学生一方面有相同点,另一方面又有截然不同的地方,因此,为了消除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偏见,不建议一律地构建一样的模型,而是要根据国家特性提出差别化的模型,而本论文构建了对中韩大学生同样适用的,可行的消除偏见模型。

第二, 为消除中韩大学生对对方国家的偏见,调查问卷内容中也需要有关于必要的制度方案的问题的组成,但是我们在这一点上做的还不足。

第三, 参加调查问卷的中韩大学生标本不多,所以这个结果对中韩两国适用有些勉强,所以以后类似的问卷调查应该有更多的中韩大学生参与。

因此,以后在消除中韩大学生对对方国的偏见的论文中,要着眼于这一点,问卷调查中要有更多中韩大学生参与,内容中也要有为消除相互偏见,关于中韩大学生想法或者必要的制度和方案方面的问题,希望在此基础上,各自分开并构建消除对对方国家偏见必要的模型。

〈 参考文献〉

이귀재, 「내일은 맑음」, 신아출판사, 2014.02.28., p.147.
우수근,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주)살림출판사, 2008.7.20., p.52.
한상복·이문웅·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09.15.. p.213.

사효람, "한국문화인식을 통한 국가이미지 및 관광지 이미지가 국가브랜드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차오리, "한국 국가이미지와 화장품 브랜드이미지가 중국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하지수외 2명,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 국민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 비교 -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Vol. 46.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12. p.116.

C.M. Han(1989), "Country Image : Halo or Summa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6, p.224.
L.G. Schiffman & L.K. Leslie(1972), "Peceived Risk in New Product Trial by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Feb, pp.106-108.

청와대,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3.6.28.,
http://www.korea.kr 〉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외교/안보 〉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2015.04.30. 방문
2012년 11월 14일, 대한상의 보고서.
https://www.bcci.or.kr/html/EcoData/ecodata03.php?pg=12&mode=view&idx=5602
The KOREA FORUM for PROGRESS (http://www.kfprogress.org.) 2015.04.23.
한국선진화포럼 〉 선진화논단 〉 제94차 월례토론회 〉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위기인가? 기회인가?'.
RBI(Royal Booster International.Pvt.Ltd.), 2015.04.12.15.07방문
http://007rb.blogspot.kr/2015/02/corruption-perceptions-index-2014.html

http://www.fanhanbbs.com/ 反韩网
http://oversea.huanqiu.com/article/2014-11/5210454.html 韩媒：在韩中国留学生遭偏

见易“反韩”
刘宝全 “韩流在中国的传播及其对中韩关系的影响” 当代韩国，Contemporary Korea. 2014年01期
赵玎； 黄多帅 中韩民间对立的探究与化解 云南行政学院学报 , The Journal of Yunnan Administration College, 2014年01期

〈 问卷调查 1 〉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한국인들이 중국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향후 한중 상호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이미지 개선 모델 연구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성 gothula@naver.com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① 남　　② 여

2. 귀하는 현재 대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_____
   ① 대학교 1학년　② 대학교 2학년　③ 대학교 3학년　④ 대학교 4학년
   ⑤ 대학원 석사 이상

3. 귀하는 중국에 다녀 온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_____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없다

4. 귀하는 중국어를 얼마나 잘 하십니까? _____
   ① 최소한의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다.
   ③ 뉴스나 신문 등을 이해하며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④ 하지 못한다.

*** 가치문화 : 즉 관념문화, 정심문화.**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사고방식 등 관념적인 문화와 그것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문화를 일컫는 것이다.

예: 서양에서 스승에 대한 학술적인 질문과 비판은 학술정신으로 인정을 받는다. 동양에서 이러한 행위는 거만하고 예의 없다고 보기 쉽다. 동양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복종은 절대적이다.

5. 중국 가치문화(*위에 해석 참조) 내용을 포함한 중국 문화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__

① 있다 ② 없다

6. 5번 문제에서 ①번이라고 하신 분만 응답하십시오.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_____

① 어학당 공부 ② 학부 교양 수업 ③ 대학원 문화 수업 ④ 개인학습
⑤ 중국인의 소개 ⑥ 한국에서의 중국문화 수업 ⑦ 대중문화(영화, 드라마, 음악 등)
⑧ 기타( )

7. 귀하는 아래 어떤 영역에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_____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지금까지의 중국역사 문화.
② 전통 · 현대의 무형 · 유형 문화재.
③ 의 · 식 · 주 · 여가에 관한 일상생활문화.
④ 음악, 무용, 미술, 연화 · 연극 등 예술문화.
⑤ 언어에 포함되는 있는 문화, 예를 들어 높임말, 속담, 소설 등.
⑥ 인문 과학,사회 과학, 자연 과학, 응용과학 등 학문문화.
⑦ 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에 관한 제도문화.
⑧ 중국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관념 등.
⑨ 농업, 임업, 수산업, 건축기술, 전자, 기계 기술, 섬유, 화공 등 산업 기술.

8. 문화 차이로 인해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_____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조금 있다 ⑤ 많이 있다

9. 귀하는 중국과 한국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중국 가치문화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조금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10. 귀하는 중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_____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1. 귀하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2. 귀하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3. 귀하는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해당국가의 경제규모와 대표 기업 ② 정치와 외교 ③ 대중문화
④ 과학기술 ⑤ 전통문화 예술 ⑥ 국민성 ⑦ 유명인사
⑧ 스포츠 ⑨ 여행과 관광

14. 귀하는 한 국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__
① 글로벌 기업의 선전 ② 대중문화 ③ 과학기술성과 ④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과 ⑤ 유명인사의 대외활동 ⑥ 문화예술수준 향상
⑦ 시민의식

15. 만약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중국과 미국이 시합을 한다면 어느 국가를 응원하겠습니까?___
① 중국 ② 미국

16. 한국이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할 국가 순서는? _____
① 미-중-일 ② 중-일-미 ③ 일-미-중 ④ 미-일-중 ⑤ 중-미-일
⑥ 일-중 -미

17. 중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_____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18. 귀하는 같은 가격과 품질이라면 어느 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까? _____
① 중국 ② 한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미국 ⑥ 프랑스
⑦ 이탈리아 ⑧ 영국 ⑨ 러시아

19.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알고 있는 중국 브랜드 상품을 적어 주십시오.

20. 중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쓰시오.

〈问卷调查 2〉

〈 问卷调查 〉

您好,为了把握中国人对韩国文化价值的理解和学习的需求,我们做了此调查问卷° 您真实的想法将成为以后缓解中韩之间相互文化偏见, 改善相互形象的重要参考资料° 本调查只作为研究参考之用, 不会对外公开, 请您安心回答° 如有任何疑问, 请发邮件给我°

niujing1988@gmail.com

1. 您的性别?
①男 ②女

2. 您现在是大学几年级？------
①大一 ②大二 ③大三 ④大四 ⑤研究生或研究生以上

3. 您有没有来过韩国？
①一次 ②两次 ③三次 ④四次 ⑤五次 ⑥没有来过

4. 您对韩语知道多少？
①可以进行最基本的沟通 ②可以进行日常生活交流 ③ 欣赏电视节目, 和韩国人进行流畅的对话 ④不会韩语

文化价值：也就是文化观念, 文化精神°
是指社会集团的成员共同具有的思考方式, 其文化观念和它所投影出来的所有文化行为被称为文化价值°
例如：比如在西方, 关于老师在学术上的问题和批判, 学术精神上给予认证, 但是在东方这种行为被视为傲慢自大和没有礼仪° 在东方, 对老师的尊敬和权威的服从是绝对的

5. 您学过包括韩国文化价值内容在内的韩国文化吗？
①学过 ②没学过

6. 仅限选择了第五题的第一个选项的回答, 您是通过什么方式学习的韩国文化？
①语言学院 ②学部选修课 ③研究生文化课 ④个人学习 ⑤韩国人的介绍
⑥在中国的韩国文化课 ⑦大众媒体(电影电视剧音乐) ⑧其他方式 ( )

7. 您在下面哪个领域中经历了文化冲击？ (最多可以选两个)

①到现在为止，韩国的历史文化　②传统和现代的有形和无形的文化遗产　③关于衣食住行的日常生活文化　④音乐舞蹈美术话剧等艺术文化　⑤包括语言在内的文化，比如敬语，谚语，小说等　⑥人文科学，社会科学，自然科学，应用科学等学问文化
⑦法律，政治，社会，教育，言论等制度文化　⑧韩国人活动中表露出来的思考方式，价值观，思想，观念等　⑨农业，林业，水产业，建筑技术，电子，机械技术，石油，化工等产业技术

8. 因为文化差异，您是否对韩国人和韩国社会带有否定的情绪？
①完全没有　②基本没有　③一般　④有一点　⑤非常不满

9. 为了促进中韩两国友谊，您认为学习韩国的文化价值重要吗？
①不重要　②不怎么重要　③一般　④比较重要　⑤非常重要

10. 您对韩国历史了解多少?
①完全不了解　②不了解　③一般　④比较了解　⑤非常了解

11. 您对韩国总体印象怎么样？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2. 您对韩国人的印象怎么样？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3. 您认为决定一个国家形象的决定因素是什么？
①该国的经济规模和代表企业　②政治和外交　③大众文化　④科学技术　⑤传统文化艺术　⑥国民性　⑦知名人士　⑧运动　⑨旅游观光

14. 您认为对一个国家形象有积极影响的因素是什么？
①国际企业的宣传　②大众文化　③科技成果　④国际体育大赛上的优秀成绩　⑤知名人士的对外活动　⑥文化艺术水平的提升　⑦市民意识

15. 如果足球世界杯有韩国和朝鲜比赛，你会支持谁？
①韩国　②朝鲜

16. 下列国家中,您认为中国应与之强化外交合作的国家顺序是？
①美 俄 日　②俄 日 美　③日 美 俄　④美 日 俄　⑤俄 美 日
⑥日 俄 美

17. 对韩国产品的印象？

①非常不好　②不好　③一般　④比较好　⑤非常好

18. 同样的价格和品质，您会购买哪个国家的产品？

①中国　②韩国　③德国　④日本　⑤美国　⑥法国　⑦意大利　⑧英国　⑨俄国

19. 在韩国生产的产品中，请写出您知道的韩国品牌°

20. 请写出 提起韩国，您脑海里会想起什么？

중국인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위한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김예진, 최신
한양대학교

Ⅰ. 서론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이 붐을 일으키며 일명 '한류' [韓流] 즉,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한류 열풍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소비 수준의 증가와 맞물려 많은 중국인 관광객, 즉, 요우커(遊客)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수는 2014년 612만 7000명으로 2013년 약433만 명에 비해 41.6%가 증가했다. 향후 2~3년 내 요우커의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요우커들의 방한은 한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을 가장 뜨거운 산업으로 만들었으며, 관광 산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내수 경기 활성,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의 높은 부가가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는 명동, 동대문, 신촌, 홍대를 넘어서 청담동, 가로수길 등 서울의 곳곳을 한류 관광지로 만들고 있으며, 서울 외에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광객의 상승에 따른 해외여행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여행의 주요 형태였던 국외여행인솔자를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관광가이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체 패키지투어는 56.6%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외여행인솔자와 관광가이드가 동반되지 않는 에어텔(Airtel)과 같은 부분패키지투어 수요의 경우 3.5%에 불과했던 2005년에 비해 점차 증하여 2010년 19.9%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따라 관광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므로 외

1) 양효쌍, 김정아「투어가이드의 역량이 관광자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광경영연구』,2014.03 ,p.208

국인 관광객의 만족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가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마케팅의 접점이다.[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요우커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관광 가이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4년 한중 양국 방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현재, 이 논문을 통해 양국 관광객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 감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광가이드의 정의와 역할

관광가이드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로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일반 여행업에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3)]

관광가이드는 관광 산업의 최일선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행의 편의성 제공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관광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여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가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 가이드에 대한 만족은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며 향후, 여행지의 재방문 의사여부, 여행지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관광가이드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보와 단순 통역서비스 제공 그 자체 뿐 아니라 여행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서교류 및 여행지의 민간 특사 (ambassador)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2. 중국인 방한 관광객 현황 및 특징

2014년 한중 양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본인 중심의 관광시장에서 중국인 중심의 관광시장으로 바뀌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시기 위한 각종 마케팅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요우커의 국내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승용차 70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으며, 이에 따라 요우커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요우커 1인당 303만 4257원에 달하는 액수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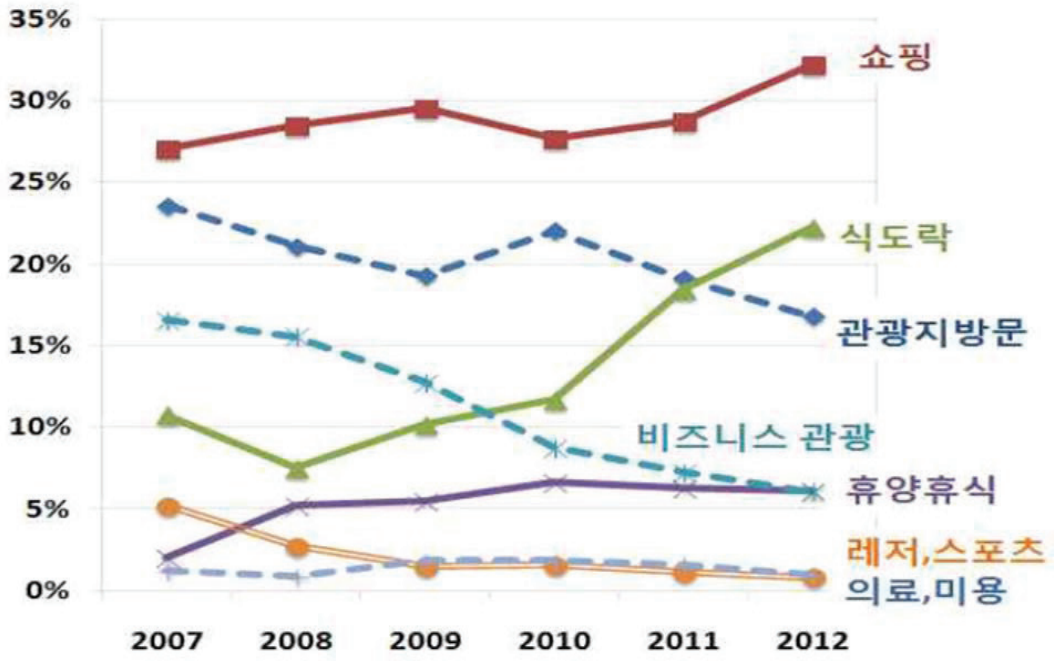
---

2) 홍성준, 나준희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가이드 서비스 : 중국 VS 일본」 『유통경영학회지』, 2011, p.2

3) 이형주, 「관광가이드의 라포형성 행동이 고객 공감 및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02 p.20

방한 중국인 관광객 목적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여가, 휴식, 쇼핑 등 순수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중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은 쇼핑으로 2012년 약 32%를 기록했으며, 식도락 활동도 약 22%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5)]

〈그림 1〉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별 비중



김주현,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현대경제연구원』, 2014.01.27, p.3

중국 관광객의 지역별 행선지를 살펴보면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쇼핑과 문화적인 요소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비자 정책의 완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 지방 항공편의 증가로 인한 강원도 등 각 지방 곳곳에 분포되고 있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는 주로 25세 이상의 중국 여성이 한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들은 한국 여행 시 화장품, 패션 등의 쇼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경수, 「지난해 '요우커' 방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8조 6000억원」, 『아주경제』, 2015.02.15일 기사
5) 김주현,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현대경제연구원』, 2014.01.27, p.3

3.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1) 점점 떨어지는 한국 재방문율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요우커가 한국 관광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서비스 직원들의 중국어 구사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불편함, 문화적 이질감, 중국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 등을 가장 불편한 요소로 들었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중 한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사람의 비율(재방문율)은 2010년 37.4%에서 2013년 25.8%로 11.6%나 떨어졌다.

그 중에서도 중국 전담 여행사들의 저가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인한 한국 여행의 낮은 퀄리티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요우커를 유치하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는 대부분이 중국 자본의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유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3인 이상) 유치 전담 여행사는 총 191개인데 그 중 약 5% 정도만이 국내의 대형 여행사들의 자회사이며, 85% 이상이 중국계 회사라는 것이다.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끈끈한 관계, 즉 ‘ 시’의 벽을 허물 길이 없고 언어 문제까지 겹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2) 무자격 관광 가이드로 인한 문제점

2003년 관광 조사원 의무종사제가 폐지되자 가이드의 자질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 이후 2010년 9월 이후부터 유자격 가이드 의무고용이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관광가이드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가이드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틈새시장을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저렴한 패키지 관광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무자격자 조선족 관광가이드들이 관광비자로 단기간 입국하여 패키지 단체 관광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왜곡된 한국 관광지에 대한 해설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이해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우리의 문화와 현실을 외국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리기 힘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훼손, 한국에 대한 반감 등의 부작용은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6)이한종, 「600만 요우커(遊客)에 관한 6가지 진실」, 『be SUCCESS』, 2015.04.27

Ⅲ.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거리, 명동 롯데 면세점에서 중국인 패키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 대상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 목적과 만족도, 가이드에 대한 만족도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중국어로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중국 패키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100부를 배포하여 9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무성의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9부를 제외한 85부를 분석하였다. 기간은 2015년 5월2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항목(8문항), 관광가이드에 대한 항목(7문항), 한국관광만족도에 대한 항목(7문항), 재방문의도에 관한 문항(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광가이드에 관한 문항과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에 관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type scale)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재방문의도에 관한 문항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여행기간, 방문 횟수, 정보 입수경로, 패키지 관광객 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총 85명의 유효한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32명(37%), 여성이 53명(6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20세~29세가 46명(54%), 만30~39세가 21명 (24%), 만 40~49세가 14명 (16%), 만 50~59세가 4명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30대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42명(49%), 미혼자는 43명(50%)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18명(21%), 주부 4명(4%), 공무원 7명(8%), 개인사업 23명(27%), 학생 23명(27%), 기타 9명(10%)로 나타났다. 여행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1박2일이 23명(27%), 2박3일이 20명(23%), 3박4일 11명(12%), 4박 5일 28명(32%), 5박6일과 6일 이상이 각각 1명으로 각각 1%로 나타났다.

한국방문 횟수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66명(77%)로 가장 많았고 2~4회 14명(16%), 5~7회 5명(5%)였으며, 관광지 정보 입수 경로는 가족 및 친구 동료가 41명 (48%), 여행 잡지나 여행신문 5명(5%), 여행사 12명(14%), 인터넷 21(24%), 기타 5명(5%)로 분포하고 있다. 패키지 구성 인원은 3~10명이 12명(14%), 11~15명 16명(18%), 16~20명이 29명(34%), 21~25명이 4명(4%), 26명이상이 1명(1%)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2	37%
	여	53	62%
결혼여부	미혼	43	50%
	기혼	42	49%
연령	만20~29세	46	54%
	만30~39세	21	24%
	만40~49세	14	16%
	만50~59세	4	4%
직업	사무직	18	21%
	주부	4	4%
	공무원	7	8%
	개인사업	23	27%
	학생	23	27%
	기타	9	10%
여행기간	1박2일	23	27%
	2박3일	20	23%
	3박4일	11	12%
	4박5일	28	32%
	5박6일	1	1%
	6일이상	1	1%
한국방문횟수	1회	66	77%
	2~4회	14	16%
	5~7회	5	5%
관광지 정보 입수경로	가족 및 친구동료	41	48%
	여행잡지, 신문	5	5%
	여행사	12	14%
	인터넷	21	24%
	기타	5	5%
패키지 인원수	3~10명	12	14%
	11~15명	16	18%
	16~20명	29	34%
	21~25명	4	4%
	26명이상	1	1%
합계		85	100%

2) 관광 가이드 만족도

관광가이드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총6개로 구성되었다. 첫째, 관광가이드의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에 대한 질문은 매우 그렇다 25명(30%), 그렇다 26명(31%), 보통 17(20%), 그렇지 않다 11명(13%), 매우 그렇지 않다 4명(4%)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가이드는 즐겁고, 예의바르며,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 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11명(13%), 그렇다 35명(42%), 보통 26명(31%), 그렇지 않다 8명(9%), 매우 그렇지 않다 3명(3%)라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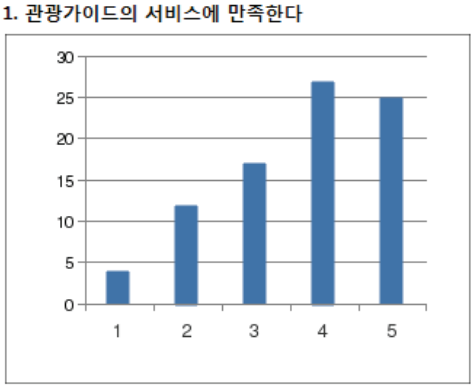
셋째, 관광가이드는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깊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11명(13%), 그렇다 35명(42%), 보통이다 26명(31%), 그렇지 않다 10명(12%), 매우 그렇지 않다 1명(1%)로 나타났다.

넷째, 관광가이드는 나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관광지에서 유의점, 응급 상황 시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라는 질문에는 18명(2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29명(34%), 보통 30명(36%), 그렇지 않다 4명(4%), 매우 그렇지 않다 1명(1%)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관광가이드는 여행코스와 시간약속을 잘 지킨다 의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30명(36%), 그렇다 30명(36%), 보통 19명(22%), 그렇지 않다 3명(3%), 매우 그렇지 않다 1명(1%) 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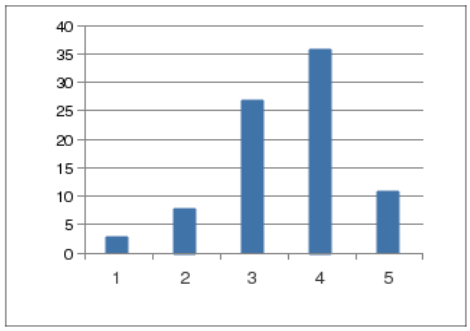
여섯째, 관광가이드는 관광지외에 쇼핑 코스를 권유한다. 라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16명(19%), 그렇다 32(38%), 보통 25명(30%), 그렇지 않다 10명(12%), 매우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림 2〉 관광가이드 만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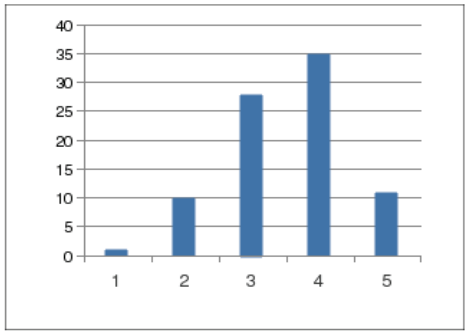
1	4	4%
2	11	13%
3	17	20%
4	26	31%
5	25	30%

2. 관광가이드는 즐겁고, 예의바르며,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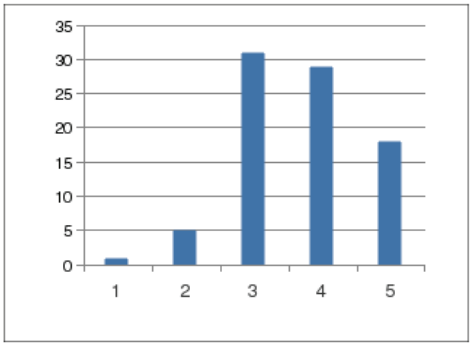
1	3	3%
2	8	9%
3	26	31%
4	35	42%
5	11	13%

3. 관광가이드는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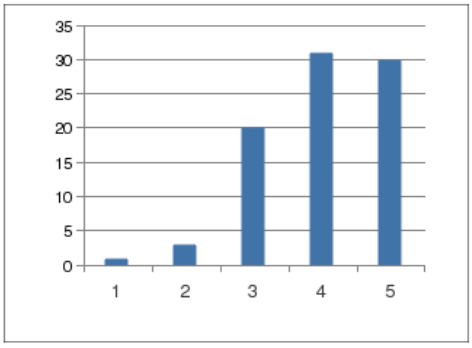
1	1	1%
2	10	12%
3	26	31%
4	35	42%
5	11	13%

4. 관광가이드는 나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관광지에서 유의점,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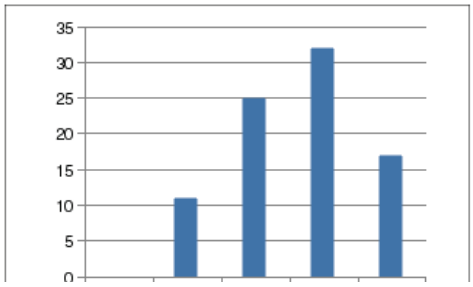
1	1	1%
2	4	4%
3	30	36%
4	29	34%
5	18	21%

5.관광가이드는 여행코스와 시간약속을 잘지킨다



1	1	1%
2	3	3%
3	19	22%
4	30	36%
5	30	36%

6. 관광가이드는 관광지외에 쇼핑코스를 권유한다



1	0	0%
2	10	12%
3	25	30%
4	32	38%
5	16	19%

3) 관광 만족도

관광만족도에 관한 질문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한국은 음식 종류가 다양하다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8명(9%), 그렇다 32명(37%), 보통 21명(24%), 그렇지 않다 17명(20%), 매우 그렇지 않다 5명(5%) 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음식은 맛있다 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13명(15%), 그렇다 27명(31%), 보통 24명(28%), 그렇지 않다 16명(18%), 매우 그렇지 않다 5명(5%)라고 답변했다.

셋째, 한국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가 잘 되어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16명(18%), 그렇다 29명(34%), 보통이다 21명(16%), 그렇지 않다 16명(18%), 매우 그렇지 않다 3명(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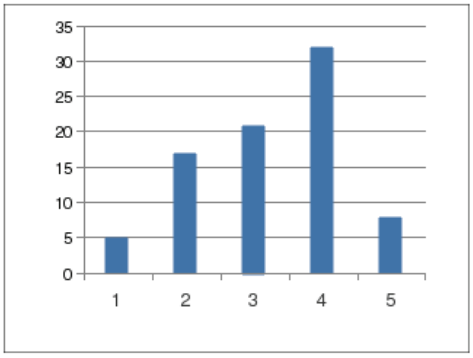
넷째, 관광지내에 편의 시설 관리가 잘 되어있다. 라는 질문에는 19명(22%)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35명(41%), 보통 17명(20%), 그렇지 않다 12명(14%), 매우 그렇지 않다 2명(2%)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관광지내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의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13명(15%), 그렇다 31명(36%), 보통 20명(23%), 그렇지 않다 16명(18%), 매우 그렇지 않다 4명 (4%) 라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관광지는 쾌적하다 라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19명 (22%), 그렇다 25(29%), 보통 21명(24%), 그렇지 않다 15명(17%), 매우 그렇지 않다 4명(4%)로 나타났다. 일곱째, 한국인들은 친절하였다. 라는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 25명 (29%), 그렇다 21(24%), 보통 22명(25%), 그렇지 않다 14명(16%), 매우 그렇지 않다 3명(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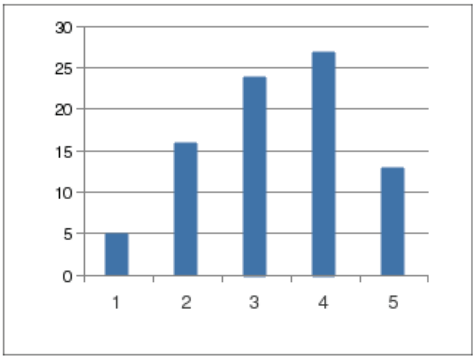
〈그림 3〉 관광 만족도 현황

1. 한국은 음식 종류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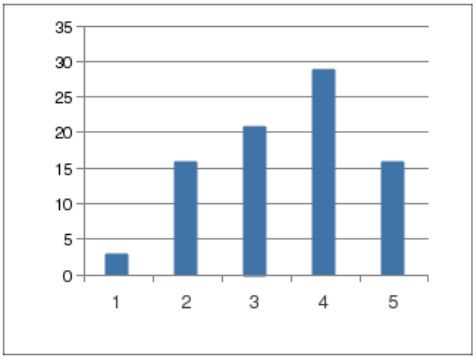
1	5	5%
2	17	20%
3	21	24%
4	32	37%
5	8	9%

2. 한국의 음식은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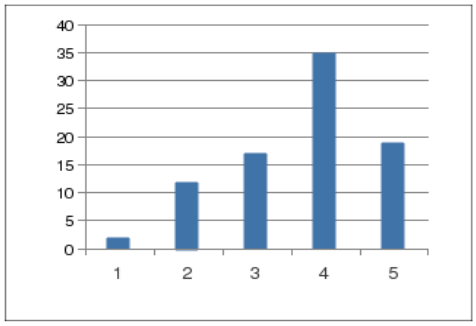
1	5	5%
2	16	18%
3	24	28%
4	27	31%
5	13	15%

3. 한국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가 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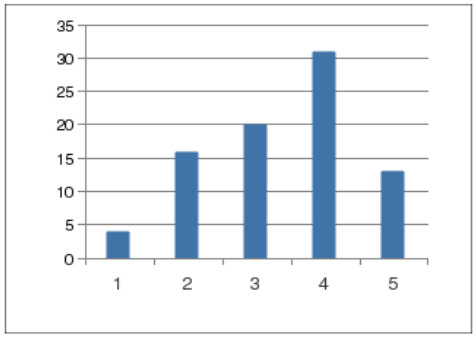
1	3	3%
2	16	18%
3	21	24%
4	29	34%
5	16	18%

4. 관광지내에 편의 시설 관리가 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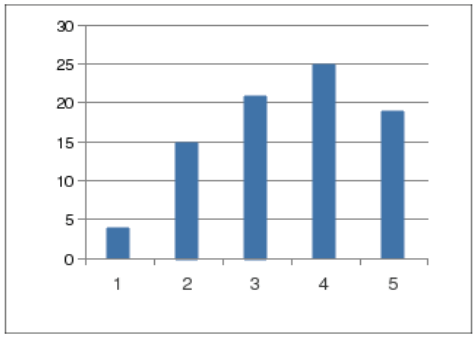
1	2	2%
2	12	14%
3	17	20%
4	35	41%
5	19	22%

5. 관광지내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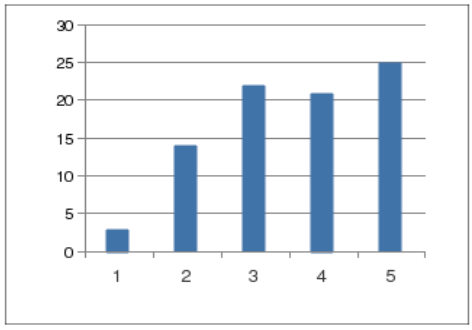
1	4	4%
2	16	18%
3	20	23%
4	31	36%
5	13	15%

6. 관광지는 쾌적하다



1	4	4%
2	15	17%
3	21	24%
4	25	29%
5	19	22%

7. 한국인들이 친절하였다.



1	3	3%
2	14	16%
3	22	25%
4	21	24%
5	25	29%

4) 재방문 의도

재방문의도에 관한 문항은 총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2명(14%), 그렇다 28명(32%), 보통 20명(23%), 그렇지 않다 22명(25%), 매우 그렇지 않다 3명(3%)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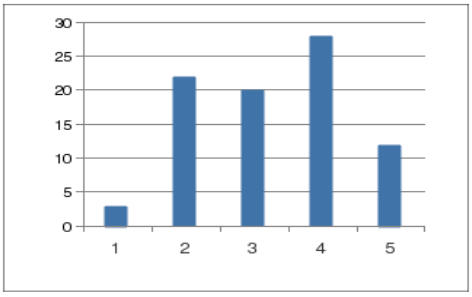
둘째, 한국을 주변 사람과 함께 오고 싶다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14명(16%), 그렇다 26명(30%), 보통 18명(21%), 그렇지 않다 22명(25%), 매우 그렇지 않다 4명(4%)라고 답변했다.

셋째, 한국은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13명(15%), 그렇다 31명(36%), 보통이다 15명(17%), 그렇지 않다 19명(22%), 매우 그렇지 않다 7명(8%)로 나타났다.

한국을 재방문 하고 싶은 이유에는 쇼핑, 저렴한 화장품,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등의 의견이 있었고 재방문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관광지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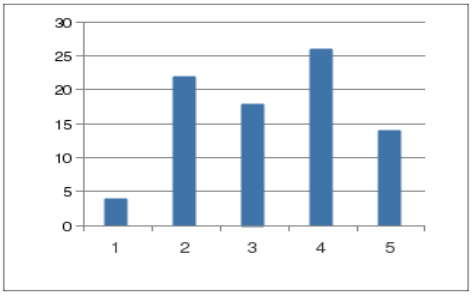
〈그림 4〉 재방문 의도 현황

1.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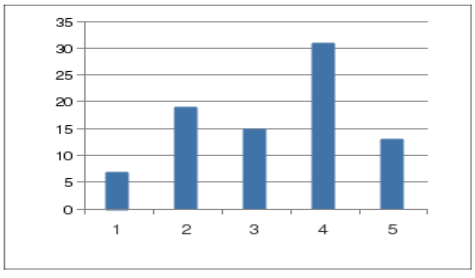
1	3	3%
2	22	25%
3	20	23%
4	28	32%
5	12	14%

2. 한국을 주변사람과 함께 오고 싶다.



1	4	4%
2	22	25%
3	18	21%
4	26	30%
5	14	16%

3. 한국은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이다.



1	7	8%
2	19	22%
3	15	17%
4	31	36%
5	13	15%

Ⅳ. 결론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광 가이드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 그리고 한국 관광 만족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으며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광가이드 평가에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기존 연구나 언론 자료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응대할 때 예의바른 태도와 유쾌함, 시간준수, 관광지에서의 유의점, 응급 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관한 문항을 보면 만족하는 관광객과 만족하지 못하는 관광객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관광지 외에 쇼핑코스를 권유하는 가이드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가패키지 여행상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쇼핑코스가 가이드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수수료 벌이 수단이 되며, 이를 위해 많은 관광객을 쇼핑코스로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광만족도에 관한 평가에 있어 대체적으로 한국 관광지와 음식, 한국 사람들의 친절도는 만족하는 답변이 높았으나, 그 중에서도 음식종류의 다양성과 관광지의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국 관광객도 많았다.

셋째, 한국의 재방문 의도 현황에 있어서는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관광객과 그렇지 않은 관광객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국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2. 개선 방안 제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이드의 역할로 인해 관광객의 만족감과 관광지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관광가이드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어 관광통역 가이드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관광가이드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우선 시행 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가이드 등급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가이드들의 성취도 향상 및 목적의식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넷째,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 가이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관광가이드의 서비스 관련 교육을 강화시켜 보다 친절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성화된 관광지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중국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24%의 관광객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다는 설문 조사를 참고하여 다양한 관광 앱 개발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안도 있다.

앱 방문 시 쿠폰이나 적립금을 제공하여 한국 관광 시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48%의 관광객들이 친구나 주위 동료로부터 관광지 정보를 얻는 다는 결과를 보면 한 관광객의 여행효과가 주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1박2일 혹은 2박3일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가 짧은 시간내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관광 가이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나섰지만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정성스러운 답변 보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주관식 답변들, 즉 재방문의도 문항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답변자가 답을 하지 않아 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광가이드가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문항이 없어 실제로 조선족 가이드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으며, 관광객들의 답변만을 설문조사대상으로 선택하지 말고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요우커들을 만나봄으로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된 요우커의 불만과 만족을 통해 향후 중국인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관광산업이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관광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징을 통해 한중 관광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고 나아가 양국의 우호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참고자료〉

양효쌍, 김정아「투어가이드의 역량이 관광자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광경영연구』,2014.03

홍성준, 나준희「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가이드 서비스 : 중국 VS 일본」『유통경영학회지』, 2011,

이형주,「관광가이드의 라포형성 행동이 고객 공감 및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2015.02

김경수, 「지난해 '요우커' 방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8조 6000억원」, 『아주경제』, 2015.02.15일 기사

김주현,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현대경제연구원』, 2014.01.27,

이한종, 「600만 요우커(遊客)에 관한 6가지 진실」, 『be SUCCESS』, 2015.04.27

임복순,「중국 관광시장 규모와 인센티브 여행 시장 현황」『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2013

김난영,「중국 관광객 유치 대비 관광여건 조성 전략」『선문대학교 평화학연구』, 제13권 3호 , 2012

迎接中国游客“千万”时代，韩中旅游业交流促进方案
—以导游问题及解决办法为中心

金艺真，崔晨
漢陽大學

Ⅰ．绪论

2000年，随着韩剧《冬季恋歌》和《大长今》等引发了韩流在中国的传播，韩国的大众文化在世界范围内被人们广泛接受。

随着中国经济迅速发展和人民消费水平的提高，越来越多的中国人来韩旅游，2013年访韩中国游客数约为433万名，2014年约为612万7千名，增加率为41.6%。预计2~3年内访韩中国游客数将超千万。

中国游客的访韩热潮给韩国旅游业发展带来巨大潜力，从而将拉动韩国内需市场，创造更多就业岗位，增加税收，等多附加价值，给韩国经济的发展带来新的活力。

如今中国游客的活动范围除首尔外逐渐向江原道，济州岛等各地扩散。随着游客人数的增加，从海外旅行的类别变化来看，初期影响旅行决策的主要因素为同伴，导游，和旅游信息的获得。

国外旅行的主要形态为导游带领的一条龙团体旅游，团体游客占游客总数的56.6%，这一比重在2005年以后逐渐减少。与此相比，2005年独自旅行的游客占3.5%，2010年逐渐上升制19.9%，并有逐渐增加的趋势。

随着旅行需求的不断增加，导游从始至终的参与了游客的整个旅游过程，在旅游业中担当重要的角色，导游提供的服务是旅游业市场营销与游客的重要接点。

本文通过阐述导游存在的一系列问题，来提出相应的解决方案。并希望能够通过两国游客对两国印象的改善，增加两国间的友谊。

Ⅱ. 理论背景

1.导游的定义和角色

导游是指具备一定资格，能够活用外语，并为外国游客提供旅游信息的旅游业从事者。成为导游要通过国家统一考试，是整个旅游业的中心环节。

导游站在两国民间交流的第一线，被称为民间外交官，为旅行提供便利的服务，解决游客沟通上的问题，通过为游客提供服务，提高外国游客的旅行满意度。增加再次访韩游客数。

简而言之，导游不仅仅只是提供旅行信息和翻译，而是通过和游客行动上的交流，提升情感上的沟通，起着民间外交官的作用。

2. 中国访韩游客现状及特点

随着来韩中国游客人数的不断增加，以日本为中心的中国海外旅游市场逐渐转移到了韩国。为了吸引中国游客，出台了一系列营销战略。去年游客带来的经济效益相当于出口70万台轿车，创造了18兆6000亿韩元的生产诱导效应，平均每名游客为韩国带来303万4257韩元的收入。

从中国游客的访韩韩目的上看，2009年后，休假，休闲，购物等纯观光目的为主的中国游客迅速增加，游客活动中，购物占33%，品尝美食占22%。

从中国游客的来韩滞留地来看，以京畿地区为中心，首尔为主要滞留地的同时，随着签证政策的放宽，济州岛也吸引了大量的中国游客，且游客的滞留地向江原道等交通便利的地方分散。

从性别及年龄分布来看，25岁以上的中国女性游客对韩国旅游的喜爱度最高，来韩旅行时主要购物为主。

3. 中国访韩游客的不满

1） 逐渐下降的再访问率

随着中国游客数的增加，中国游客对韩国旅游的不满也在增加，主要包括，不方便的服务，职员生疏的中文表达能力，文化上的排斥感，对待中国人相对恶劣的态度等，2014年文化体育观光部的调查表明，中国游客中愿意再次访韩的比率（再访问率）由2010年的37.4%降低为2013年的25.8%，降低了11.6%个百分点。

其中，一部分原因为中国部分旅行社推出的低价一条龙韩国旅游项目，降低了韩国旅游的质量，从而导致再访问率下降。

目前，韩国国内接待中国游客的韩国旅行社大部分都要依赖于中国旅行社，文化体育观光部

指定的国内接待中国团体游客（3人以上）的旅行社共191家，其中5%为国内大型旅行社的分公司，85%为中国公司。由中国旅行社在中国招收游客后，转接给韩国旅行社。

2） 非法导游引发的问题

自2003年废除观光调查员义务从事制后，导游资格问题引发了一系列争议，资格导游义务雇佣制自2010年9月起实行，但实际上，由于导游资格的限制，及数量不足，一部分没有导游资格证的非法导游十分活跃，特别是朝鲜族。为了迎合价格低廉的短期一条龙团体旅游形式，不具备导游资格的朝鲜族“导游”持短期旅游签证，在韩国以导游的身份进行活动。非法导游由于不具备专业知识，向游客曲解韩国历史，景点信息，给游客对韩国的理解造成了极大地负面影响。由于他们贬低韩国的言论使外国游客不能正确了解韩国的历史和现状，从而损坏了韩国的形象，长此以往会阻碍韩国的经济发展。

Ⅲ. 问卷调查分析

1. 调查对象和调查时间

为了进行本次研究，以来韩旅游的中国游客为对象进行调查，选取了中国游客聚集的明洞，乐天免税店进行调查。在向调查对象充分说明了调查目的和内容后实施调查，本次调查主要由中国游客的访韩目的及满意度，对导游的满意度等内容组成。本次调查问卷为中文问卷。

调查对象为中国团体游客，共发放问卷100份，回收94份，有效问卷85份。调查时间为2015年5月2日至23日，约三周时间。

2. 调查问卷构成及分析方法

研究项目共12项，由调查对象的基本特征（8项），韩国旅游满意度（7项），再次访问意向（4项）构成。再次访问意向的相关项目采用李克特5级量表（5-point Likert-type scale）进行测量。再访问意图要求调查对象尽量表达自己实际观点。

3. 调查结果分析

1） 调查对象的人口分布特征

为了分析样本的一般特性，按人口统计学的性别，年龄，职业，旅行滞留时间，访问次数，信息收集渠道，旅游团人数等标准分别进行调查。

在85名有效被调查者中，男性32名（37%），女性53名（62%）。从年龄分布上看，20~29岁游客46名（49%），30~39岁游客21名（24%），40~49岁游客14名（16%），50~59岁游客4名（4%），20~29岁游客占绝大部分。

从婚姻状况来看，已婚人数42名（49%），未婚人数43名（50%）。在职业状况分布上，职员18名（21%），公务员7名（8%），个体23名（27%），学生23名（27%），无业人员4名（4%）。从滞留期间分布来看，两天一夜23名（27%），三天两夜20名（23%），四天三夜11名（12%），五天四夜28名（32%），六天五夜和六天以上各一名，各占1%。

从韩国访问次数上看，第一次范文人数66名（70%）占最大比重。第2~4次访问人数14名（16%），第5~7次访问人数5名（5%）。旅游信息收集途径分布上看，亲友及同事41名（48%），旅行杂志及新闻5名（5%），旅行社12名（14%），网络21名（24%），其他5名（5%）。团队游客人数上看，3~10人12名（14%），11~15人16名（18%），16~20人29名（34%），21~25人4名（4%），26人以上1名（1%）。

2）对导游的满意度

游客对导游的满意度主要由六项构成。①对导游的服务是否满意?非常满意25名（30%），满意26名（31%），一般17名（20%），不满意11名（13%），非常不满意4名（4%）。②在这次旅行导游的礼仪是否规范，是否起到了很大作用？非常满意11名（13%），满意35名（42%），一般26名（31%），不满意8名（9%），很不满意3名（3%）。③导游是否具备专业的知识？有很多11名（13%），有35名（42%），一般26名（31%），没有10名（12%），绝对没有1名（1%）。④导游是否为了大家的安全，积极分享专业知识？积极分享18名（21%），分享29名（34%），一般30名（36%），不分享4名（4%），绝对不分享1名（1%）。⑤导游严格遵守预定的行程和时间？绝对遵守30名（36%），遵守30名（36%），一般19名（22%），不遵守3名（3%），绝对没遵守1名（1%）。⑥导游在行程中是否劝说购物？总是16名（19%），经常32（38%），一般25名（30%），没有10名（12%），没有回答“绝对没有”这一选项的应答者。

3）旅游满意度

游客的满意度主要由七项构成。①韩国食品种类多样？非常多8名（9%），多32（37%），一般21名（24%），不多17名（20%），很少5名（5%）。②韩国食品的味道？很好吃13名（15%），好吃27名（31%），一般24名（28%），不好吃16名（18%），很不好吃5名（5%）。③韩国为游客

准备的旅游信息很全面？很全面16名（18%），全面29名（34%），一般21名（16%），不全面16名（18%），很不全面3名（3%）。④景点设施便利？很便利19名（22%），便利35名（41%），一般17名（20%），不便利12名（14%），很不便利2名（2%）。⑤值得看的景点很多？很多13名（15%），多31名（36%），一般20名（23%），不多16（18%），很少4名（4%）。⑥在景点游览令人感到愉快？非常愉快19名（22%），愉快25名（29%），一般21名（24%），不愉快15名（17%），很不愉快4名（4%）。⑦韩国人很亲切？很亲切⑦⑦⑦25名（29%），亲切21名（24%），一般22名（25%），不亲切14名（16%），很不亲切3名（3%）。

4）再次访问意向

关于再次访问意向主要由4项构成。①想再次来到韩国？很想12名（14%），想28名（32%），一般20名（23%），不想22名（25%），很不想3名（3%）。②想和周围人一起来韩国？很想14名（16%），想26名（30%），一般15名（17%），不想19名（22%），很不想4名（4%）。想向周围人推荐来韩国旅游？很想13名（15%），想31名（36%），一般15名（17%），不想19名（22%），很不想7名（8%）。

Ⅳ. 结论

1. 结论摘要

本研究是为了通过改善中国游客对导游的满意度，来提高中国游客的满意度 ，分析了来韩旅游满意度现况，并在此基础上提出以下几点启示。

第一、本次研究的结果与现行研究结果和舆论资料存在差异，大体上对服务 满意的游客占61%。回答关于导游的提问时，态度亲和友善、礼仪规范，守时，景点的注意事项，突发事项的应对等大体上令游客满意。但是，在是否具备专业知识一项中，满意的游客与不满意的游客数量基本持平，另外劝说购物的现象普遍存在。指定购物可以使导游获得相当的提成，成为弥补低廉的参团费用的手段。

第二，在对韩国旅行满意度的评价上，总体上对韩国饮食，韩国人的亲切度等都有着较高的评价。但其中，仍有很多游客认为韩国食品不具备多样性和韩国值得看的景点较少。

第三，想要再次来韩和不想再次来韩的游客数相仿。对韩国旅游整体上为积极评价。

2. 改善方案

导游对游客的满意度有重要影响，为解决非法导游问题，提出以下方案。

第一，加快培养合格的中文导游。

第二、改善导游的工作环境，提高导游待遇。

第三、投入导游等级制和激励制度，提高导游的成就感和目的意识。

第四、强化对非法导游的管理和监督，出台必要的法律法规。

第五、创造让游客感到亲切和满足的旅游环境。

此外，开发有特点的景点和旅游项目，增加更多观光体验活动。有24%的游客通过网络获取旅游信息，所以可开发相应的手机软件，提供旅游优惠券，刺激中国人来韩旅游。从48%的游客通过亲友、同事获取旅游信息来看，很多游客的决策受周围人的影响，所以应尽可能的在较短的时间内，让游客对韩国留下最好的印象。

3. 研究的局限性和未来研究方向

部分被调查对象的态度不严谨给分析带来了很大难度，无法正确掌握导游到底是中国朝鲜族，汉族，或韩国人，且无法得知非法导游的具体数目。另外，没有对导游进行问卷调查也是本文的一个遗憾之处。通过这次机会了解到游客对韩国旅游业的不满，为迎接一千万游客时代和改善韩国旅游业发展有重要意义。

访韩 中国游客的不断增加，对韩中民间交流和友好有着重大意义。

중국 내 한국어 교육시장의 부진원인 및 발전방향 모색

이준성, 최여여
한양대학교

요약

발전하는 중국시장을 판도로 세계 유학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 평균 비율이 2011년 8%를 차지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유학이 하나의 트렌드로서 보편화 되었다. 유학이 과거에 지닌 보수적, 전통적 개념을 탈피하고 현재는, 자기계발, 취미생활 영위, 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세계 유학시장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에 성장치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다른 국가의 예비 유학생을 양성하고,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는 기관인 괴테인스티튜트, 영국문화원, 세종학당 등이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세종학당은 현재 52개국에 125개소를 설립하였고 최근 10개국에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학시장에서의 한글이 가지는 잠재력도 대단한데 전 세계에 700만 동포가 흩어져 있다. 181개국에 국내 전체 인구의 10%가 살고 있고 이는 세계 5위의 규모에 달한다. 한글에 대한 관심의 기저에는 한류와 저렴한 생활비가 주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K-POP과 드라마가 한국어 수요의 대부분이고 보다 나은 질의 고등교육을 위한, 또는 한국 내 취업을 위한 수요가 뒤를 따른다. 이들은 추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한, 친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관리와 피드백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세종학당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좋은 조건 아래에서 세종학당은 중국시장에서 여타의 언어, 문화학원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고

갈됨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한류의 영향력은 일정 수준에 제한되어있고, 중국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발달로 영어권에 밀리고 있다. 중국내 다양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진행 중이고 사설학원에 수강생을 빼앗기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곳에 출범함으로써 양적성장에 치우쳐 질적 성장이 도외시된 면이 있고, 컨텐츠의 노후화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세종학당재단 내부적인 문제도 발견된다. 국립국어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조직이 관여하고 있고, 예산집행 또한 복잡한 내 · 외부 구조적 문제로 비교적 까다롭다. 임기, 감사 등에 관하여도 관련 법규가 과도하고 교원양성에서도 지원자에 비해 수료자의 수가 저조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확대,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제완화, 유학생에 대한 사증심사 간소화, 한국어 교육기관의 단일화 등을 통해 한류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내야한다. 교육 컨텐츠의 질적 성장과 내부 행정절차의 간소화,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4조원에 달하는 교육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내 유학생의 60%가량이 중국인이고 그들이 한국을 유학국가로 택하는 이유로 높은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있기에, 중국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보다 나은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1. 서론

'한 국가를 제대로 지배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없애라.' 라는 말이 있다. 20세기 초반 조선을 지배했던 일제의 한글말살정책이 그러했고, 현재 티베트어를 서서히 없애가려는 중국의 개혁 정책이 그러하다. 그렇게 언어는 정신적, 문화적, 민족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한 강대국들은 일찌감치 언어와 문화 등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학당(괴테학당, British council, 공자학당 등)을 세계 각국에 설립하여 자국의 Soft Power, 문화 저변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언어 전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나라도 2008년 한글의 세계화 방안을 제고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하여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을 내놓기에 이른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 10월에 '세종학당재단' 을 출범시키며 세계에 한국말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당의 정확한 명칭은 한글을 창제한 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학당' 이며, 한국어를 한국 문화와 함께 세계인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다.

약 7년이 지난 현재, 세종학당은 중국 내에 위치한 24개의 학당을 포함하여 약 50개국에 130개 정도의 학당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단순 수치로 바라봤을 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학당 수가 늘어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생 수가 벌써부터 감소하는 등 감춰진 면이 많아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위치한 세종학당의 고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60%가 중국인임을 감안했을 때 곧 정부의 정책인 'Study in Korea 2020' 의 실패로 직결된다. 실제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의 수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1)]

2020년까지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는 한 정책에 대한 말 그대로 '목표치' 였기 때문에 실제는 그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의 문제는 다르다. 세종학당 사업은 목표치가 아닌 한글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내에 위치한 세종학당의 현황, 공자학당과의 비교, SWOT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탐색 등을 통해 앞으로 세종학당이 나아갈 수 있는 개선된 길을 연구하고자 한다.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063884&sid1=001

Ⅱ. 본론

제 1장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성장성 및 잠재성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었고 2004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해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달성했으며, 현재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으로 2020년 까지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를 잡았다. 또한 2013년, 정부초청장학생(GKS) 예산을 2015년 까지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류의 힘을 업고 정책적인 방법을 가미하여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한국으로 오는 중국유학생은 중국 내 상당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의 자제이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지한파로서 재계, 정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크게 '유학을 가기 위해', '한류와 관련한 취미활동을 위해', '직장 내 승진심사에 가산점을 받기위해' 이다.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류이기에 양적,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의 유학시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1975년 80만 명 수준의 유학생 수가 제3세계 국가의 발전으로 2013년에 약 430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강력한 유인 동기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2013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79만 명이다. 개혁개방 출범이후 35년간 약 134배 증가하였고 이는 세계 유학생 수의 18.5%에 달한다. 현재에도 매년 30여만 명을 해외로 보내고 있으며, 잠재적 유학생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장의 파이가 크다.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높은 교육열, 높은 질의 고등교육시설의 부족 그리고 최근 과열된 취업시장과 직장 내 극심한 경쟁 등으로 인해 유학에 대한 양적, 질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유학 장소를 정하는 이유 중 '학교 간 협약'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여하에 따라 중국인의 유인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출범하여 중국 내 24개 소를 설치하였다. 인구가 많은 5개의 직할시에는 물론,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요녕, 길림, 흑룡강 성에도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하기 위하여 인구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한 비례적 설치 측면이 미흡한 점이 한계이다.

제 2장 세종학당의 현황과 문제점

1절. 중국 내 세종학당 현황

“세종학당” 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어 또는 제 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브랜드 양성과 확산이 목적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언어와 문화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며, 2013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120개가 개설되어 있다.[2)]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중국 내의 세종학당은 총 24개소가 있으며 상해, 북경 등의 1선 도시뿐만 아니라 우한이나 청도 등의 2선 전방도시에도 위치하고 있다. 2011년까지 1차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학당들이며, 대부분의 학당이 다른 나라에 위치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진행되는 2차 계획에 따르면 중국 쪽에 더 이상의 학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실제 학당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초, 중, 고급 과정을 포함하여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교재비를 제외한 모든 초급 강의들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자들을 위한 고급 강의는 협의를 거친 후에 유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 반은 약 15~2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직장인도 있고 학생, 주부 등도 있을 것이므로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두 시간대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명사특강, 가요와 방송 등 총 8가지가 있는데 아직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는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또 그 자료들도 2006년에 올라온 자료 등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적합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중국어로 제공되는 것의 개수는 더 적었다. 온라인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컨텐츠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2절. 중국 내 세종학당의 문제점

중국 내에 위치한 학당 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종학당이 현재 처한 문제점을 몇 가지 꼽자면 예산 부족과 인력 수급, 현지화전략의 부족, 낮은 문화교육 비중 등을 들 수 있다.

2)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문화교육 비교연구” , 파려, 2014-08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이다. 2011년까지의 세종학당 예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년 평균 한 학당에 배정된 예산은 1억 4천 정도였다. 이 예산 자체도 설립 및 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이라 설립되는 곳에 지원이 집중되므로 운영 중에 있는 학당은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는 한국에서 그 급에 맞는 공무원이 받는 월급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근무 여건에 나와 있는데, 이는 타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인원이 받기에는 적은 액수이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수익성이 없는 세종학당에 양적, 질적 관리와 개선은 불가능하다.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언급한 예산 문제와 인기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두 가지이다. 1년에 2,900만 원(5급 공무원 기준)을 받으면서 외진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제시한 액수도 5급 기준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파견되고 있는 인원(7~9급)의 연봉은 더 적다. 또한 한국어를 알리겠다는 사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형태도 몇몇 인기 있는 도시로 몰리는 것이라서, 내륙지역이나 내몽골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인력수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심각해진다. 결국 중국 내 세종학당에서 목표로 했던 2015년까지 300명의 교사를 파견하는 것에 실패했다.

현지화전략의 부족이라는 것은 밑에 첨부한 세종학당 메인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를 선택해서 들어간 홈페이지에는 곳곳에 한국어가 눈에 띄었다. 공지사항이라고 써 놓고 그 내용들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 문화라고 쓰여 있는 링크에도 생활이나 전통 등의 단어로 표현을 해 놓아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홈페이지에 대해 물어보니 최소한의 것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나라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이트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종학당을 이용하려는 인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비중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Fries(1955)는 언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은 목표언어 학습과 함께 다루어야 하였으며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장하였다. 문화학습을 커리큘럼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Byram(1989)과 Kramsch(1993)는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불가분리의 두 부분이고, 문화교육 없이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체험, 문화교육 등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3)]

3) 김윤경(2010:17 재인용), “외국인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표 1〉 2014년 세종학당재단 수지총괄표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Ⅰ. 정부지원수입	**9,159**	**Ⅰ. 인건비**	**1,233**
- 세종학당재단운영	1,419	- 보수	1,107
- 세종학당지정	3,920	- 기타직보수	126
- 세종학당평가	1,018	**Ⅱ. 경상운영비**	**186**
- 한국어교원해외파견	1,451	**Ⅲ. 사업비**	**7,740**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400	- 세종학당지원사업	7,668
- 누리-세종학당구축	879	- 기타사업	72
- 유럽지역말하기대회	25		
- 한글발전유공자초청	47		-
총 계	**9,159**	**총 계**	**9,159**

출처 : 세종학당재단

제 3장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비교

1절. 공자학당의 현황

소프트 파워가 신흥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으로 인식되는 현재 중국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제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 방안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다. 중국어를 영어에 이어 세계 2대언어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공자학원을 설립하였다. 2004년에 설립되어 2010년까지 2009년 3월, 316개의 공자학원이 문을 열었고, 2013년, 112개국에 979개를 설립하였다. 이는 거의 4일마다 1곳씩 문을 여는 속도이다. 2009년의 예산 또한 2천 248억에 달하는 만큼 정책적 의지 또한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10만 명을 양성하여 해외에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중국은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중국어 교육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켰다.[4)]

중국어의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의 문화저력까지 보급하려는 의지를 관철 시키면서 소프트파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8년 공산당 대회에서 “문화는 국가의 성장 동력” 이라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은 문화의 번영과 함께 와야 한다.” 고 발표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실상부한 경제대국 2위의 자리에서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보인다. 중국 관료가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방문지의 공자학원을 방문하고, 공자학원 설립의 체결장소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4) “팍스시니카 세계경제를 바꾼다” , 한국경제 2008-10-29

외교적 수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 타임매거진 · 영국의 경제학지 ·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등의 매체는 공자학원이 현재 중국의 가장 좋은 수출상품이며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공자학원이라는 평화 외교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5)]

공자학원은 중국 지도부의 외교수단 등의 정치적 선전도구의 역할을 넘어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중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중국어의 보급 뿐 아니라 문화 이해의 창구로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주춧돌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출범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신중국' 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대한 바람직한 영향을 형성한다. 이는 공자학원 설립으로 표출된 중국의 문화저력 수출에 대한 염원은 8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 내 유가사상에 대한 재평가에 기인한다. 1966년부터 1976년 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에서 유가사상은 좌절을 겪지만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한 이후 유가사상의 세계화로, 화합, 단결을 구호로 윤리도덕의 미래적 가치에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2002년 국무위원 천즈리가 제안하여 해외에 언어보급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했고 2004년 11월 21일에 공자학원 1호가 한국의 서울에서 출범하였다. 2006년만 하더라도 10개 미만이었던 공자학원은 현재 120개국에 439개소가 설치되었다. 공자학원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다. 중국정부는2009년6월. 공자학원이외에 중국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 초、중、고교장과 교육관을 베이징(北京)으로 초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및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는 중국어 학습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공자학원을 성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6)]

2절. 공자학당과의 비교를 통한 세종학당의 발전방향

현재 세종학당의 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으로서 공자학원의 성공적인 발전 동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일원적인 교육기관 체계의 관리가 필요하다. 공자학원은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어, 중국문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지만 세종학당은 표준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기관 통합화로 언어교육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영역다툼을 방지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접근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 다른 기관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다. 실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은 2007년

5) "孔子學院的獨特影響力", 瞭望新聞周刊 2007年 第11期 3月12日
6)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의 운영 및 성과비교", 201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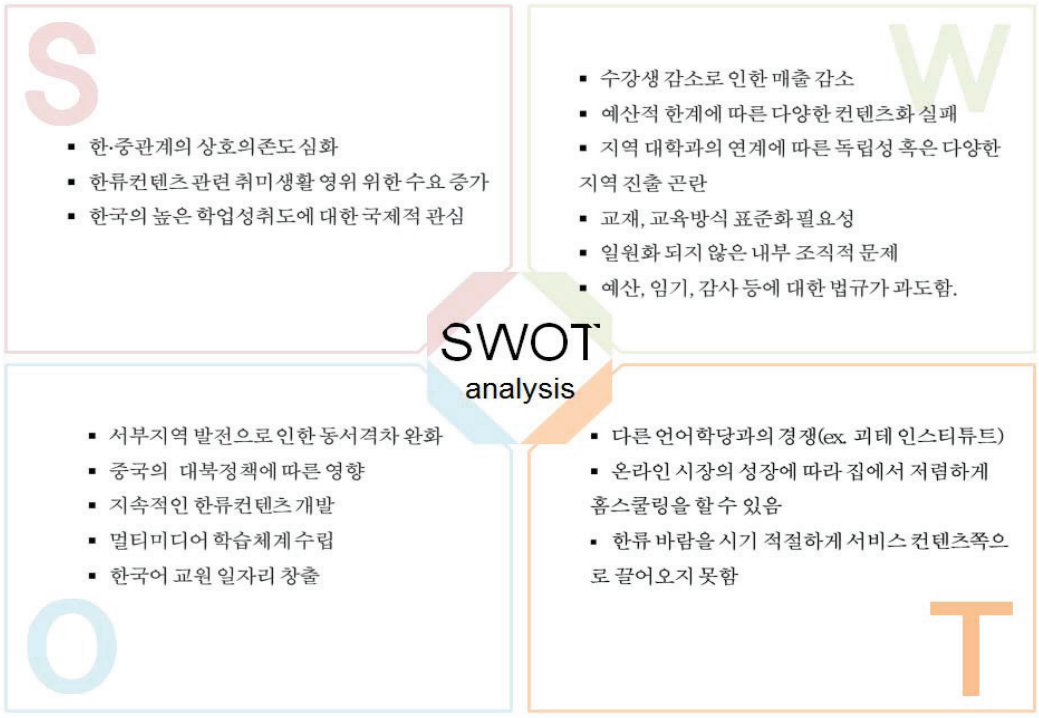
몽골과 아시아 국가 5개국 16개소에서 시작해 2012년 43개 4국 90개소로 늘었다. 그에 따른 예산은 2007년 95억 400만원에서 2012년 54억 3400만원[7]으로 늘었지만 공자학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 세종학당 뿐만이 아닌 여러 업체가 '한국어 교육' 을 내세운 체 난립하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서는 세종학당만의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요자에게 원조로서 당연히 인식되는 브랜드화가 중요시되며 이는 예산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내부 조직적 복잡성을 단순화, 단일화 시켜야한다. 세종학당의 운영본부, 운영협의회 등이 각각 국립국어원장, 재외한국문화원 등이 관리한다. 문화체육부의 권한이 가장 크지만 너무 많은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예산집행, 행정관리 분야 등의 절차에서 중첩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와 더불어 컨텐츠의 다양화, 고품질화,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공자학원의 경우, 교재인증제를 도입해 해당 국가와 문화,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인증을 받은 교재 중에서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세종학당 재단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인건비, 컨텐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공자학원은 여러 나라에서 한어교재와 책을 전시하고 이를 보급하기위해 도서전시회를 개최해 중국어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에 한류를 입혀 한국어의 수요에 대한 유인책으로 한층 발전된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수요가 낮았던 남미나 서유럽 국가에서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한류문화의 즉각적인 전파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문화적 교류가 적었던 남미에서는 최초로 2012년 1월 페루의 세종학당 지정으로 이어져 같은 해 5월 페루 카톨릭대학교에서 남미에서는 최초로 '리마 세종학당' 의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8]

7) "세종학당 예산지원 크게 부족해, 아시아투데이, 2012.10.08
8) http://plus.cnu.ac.kr, 충남대학교 신문, 2012-05-31

제 4장 수익성 개선 중점의 SWOT 분석



SWOT 분석에 따르면 강점보다는 약점과 위협 그리고 기회 측면에 요소가 많다. 현재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기회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SO, ST, WO, WT전략으로 분류하여 가능한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SO전략으로는 중국 서부지역에 IT산업 진출을 기반으로 한류확산을 들 수 있다. 현재, 서부지역에 팍스콘, HP등의 IT기업이 대거 진출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네트워크 기반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국내의 통신사와 합작하여 진출이 가능하다. ST전략으로는 한국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정부공인의 학당과 연계하여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인지도의 상승과 함께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WO, WT전략에서는 다양한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우선, WO전략 실행기반으로 서부 지역의 문화, 생활수준의 발전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층이 넓어 질 것이다. 이에 멀티미디어 학습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지역은 한국어 교육기관 진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조직의 내 · 외부적 단일화, 일원화는 고급 교원의 유입을 유인할 수 있다. WT전략을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산확충으로 교재 표준화와 컨텐츠 신규화를 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언어학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원, 학당의 일원화로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비용발생을 방지가 가능하다.

Ⅲ.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류라는 하나의 문화가 정착하기까지 제대로 된 한국어학당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세종학당이 채워줬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세종학당의 행보는 퇴보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학당은 수익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들을 끌어오기 위하여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예산으로는 지금까지 확충하지 못한 새로운 컨텐츠의 확보(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들을 가지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를 통해 다소 노후한 인상을 주는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체계를 단순화해서 여러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新東方은 알지만 세종학당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아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에게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보, 예산 등의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조사를 하는 동안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세종학당 내적인 문제는 자료 조사가 용이했으나 외적인 문제, 즉 중국인의 인식, 중국 내부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조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현지에서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산출 될 것이다. 현재 세종학당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 대한 유학 등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무쪼록 세종학당의 수익성이 재고되고 다른 방안들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한국에 오는 유학생의 수도 늘어나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Ⅳ. 참고자료

공자학원과 세종학당의 운영 및 성과비교, 윤지영, 2013-02
공자학원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윤상희, 2009-08
한 · 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10-11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운영 및 교원 양성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원준철, 2014-06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문화교육 비교연구, 파려, 2014-08
외국인유학생 유치 ·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14-06-27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浅析中国国内韩国语教育市场不振的原因及发展方向
—以世宗学堂为中心

李俊成，崔茹茹
漢陽大學

摘要

韩流效应引发了中国对韩国的关注，但以传授韩国语传播韩国文化为中心的世宗学堂在中国却面临着发展不振的难题。因此，探讨世宗学堂在中国市场发展不振的原因以及未来的发展方向成文本论文的核心内容。本论文通过对中国市场的发展潜力、中国国内世宗学堂的发展现状及发展问题、孔子学院的发展现状以及与孔子学院对比之下世宗学堂发展方向的分析得出导致世宗学堂发展不振的最关键原因为预算不足与组织结构不单一。而预算不足又会带来韩流文化项目开发投资不足、网站主页设计落后效果不明显以及宣传结果不理想等一些列问题。因此，世宗学堂未来的发展过程中扩大预算以及简化组织结构将成为重中之重。最后，本论文着重通过以扩大韩国语需求为中心的SWOT分析法，试图提出有助于世宗学堂的可能性发展战略。然而，因为研究人员缺乏与中国人的学习特性、中国人对韩国语的认识及变化、中国本地的韩国语教育机构相关的一手材料，所以本论文的研究分析仍有不足。倘若有机会可以亲自去中国做相关采访与调查，那与改善世宗学堂发展不振的研究势必会更加完善。同时，研究人员也期待与世宗学堂相关的周边研究，例如中国人对韩国的关注程度、赴韩中国留学生的数量变化等。

Ⅰ. 绪论

语言在精神、文化以及民族层面有着非常重要的作用。领悟到语言重要性的国家为了增强本国的文化软实力一般会率先在全世界各地努力构建可以传播本国语言与文化的学堂。2010年，韩国推出了将韩国语与韩国文化向全世界传播的世宗学堂，而其对韩国自2004年发布的 Study

Korea Project项目有重要的促进作用：扩大准备赴韩 留学的留 学生市场。如今，世宗学堂在全世界50个国家内建立了约130所学堂， 单看学堂的设立数量世宗学堂似乎发展得很成功，然而世宗学堂的实际发展状态却一直呈不振模式趋势，其中在中国的发展尤为不振。本论文旨在通过分析世宗学堂在中国市场的发展现状从而得出其发展不振的原因，同时通过与中国孔子学院的对比揭示其未来在中国市场上的发展方向，最后通过以扩大韩国语需求为中心的SWOT分析法归纳出有助于增强世宗学堂竞争力的可能性发展战略。

Ⅱ. 正文

1. 中国国内韩国语教育市场的发展过程及发展潜力

首先，韩流在中国的兴起引发了韩国留学热。为了吸引更多的留学生赴韩留学韩国政府于2004年开始实行 Study korea Project计划并在2013年推出1000亿韩元的政府邀请 奖学金学生 (GKS) 方案。韩流盛行与韩国政府的各种留学优惠政策极大促 进了赴韩留学人数的增加，其中中国留学生占赴韩留学生总人数的近60%。因此以中国人为对象的韩国语教育必不可少。中国人选择赴韩留学的理由 有想在韩国接受高等教育；受韩流影响赴韩留学；出于升职考虑等。截至2013年， 全世界的中国留学生数量约为79万名,比重约为18.5%。根据未来留学市场的 预测，日后中国每年将会有100万名学生出国留学。

2. 世宗学堂的发展现状及发展问题

2.1 中国国内世宗学堂的发展现状

“世宗学堂”作为韩国文化体育观光部的直属教育机关，旨在通过向外国人员提供学习韩国语以及理解韩国文化的机会。截至2011年，韩国政府制定了首先在中国一二线城市设立世宗学堂的计划；然而后期世宗学堂的建立计划却没有考虑中国市场。世宗学堂课程设置分为初中高三级六阶段，初级课程为免费课程，高级讲义经咨询后收费进行。网络课程更新不及时教学内容陈旧与韩国现代生活不符，韩国语相关学习资料无中文翻译。

2.2 中国国内世宗学堂的发展问题

目前，世宗学堂主要存在预算不足、人力资源缺乏、本地化战略欠缺以及文化教育比重较低等问题。

首先最严重的是预算问题。每年每座世宗学堂的预算仅为1亿4千万韩元难以维持正常的运营，因此世宗学堂在质与量方面的管理改善几乎不可能。

造成人力资源缺乏的原因主要是预算不足以及人力资源分配偏重在发达地区。这导致韩国于在2015年之前向中国派遣300名韩国语教师计划以失败而告终。

本地化战略欠缺主要体现在世宗学堂的主页设计上。虽然主页上可以选择中文浏览然而主页面上依旧是韩国语为主。这让初学韩国语的中国学员不能准确得理解韩国语。

最后是文化教育比重较低。Fries(1955) 认为在学习语言的时候 一定要和当地人的 文化及日常生活联系起来。Byram(1989)和Kramsch(1993)则认为外国语教育与文 化教育是不可分离的两部分。

3. 世宗学堂与孔子学院的对比研究

3.1 孔子学院的发展现状

孔子学院是中国在世界各地设立的推广汉语和传播中国文化与国学的教育及文化交流机构。首家孔子学院于2004年在韩国首尔成立, 截止2014年9月中国已在全球122国合作开办了457所孔子学院和707个孔子课堂。中国汉办制定了培养10万名教师海外派遣的计划；在中国和智利签订FTA协定的时候提到出了汉语教育计划；中国官僚海外访问时必定会访问当地的孔子学院。由此看出, 孔子学院还是中国政府进行政治外交的先进工具。而从孔子学院宣扬的核心理念来看, 儒家思想中对世界和谐以及世界团结的口号也因极具未来价值而得到了全世界的瞩目。

3.2 孔子学院对比之下世宗学堂的发展方向

首先，世宗学堂应实行一元化且系统性的管理同时确保职责分明。孔子学院作为国家经营的独立的教育机关有着较为系统的管理体系；而世宗学堂则欠缺标准化的运营与管理，各部门职责重复信任度教低。

第二, 世宗学堂有必要通过扩大预算进而加强高品质的系统性管理并实施品牌化战略。境外的孔子学院一般都是下设在大学与研究院之类的教育机构, 经费由中外双方协商承担预算充足运营管理到位。然而世宗学堂的预算经费虽然有所提高但预算基数仍低。

第三, 世宗学堂应使复杂的内部组织单一化。世宗学堂经由运营本部、运营协会等国立国语院或是海外韩国文化院等部门管理。虽然文化体育部的管理权限最大但是因为管理部门繁杂预算执行或是行政管理等领域的手续重复且办事效率低下。同时世宗学堂还应在文化项目多样化、高质化和品牌化等方面多做努力。

最后, 世宗学堂应借用韩流效应创新发展本土化战略。世宗学堂应借鉴孔子学院在世界各地开办汉语教材展览会等本土化发展战略。在南美、西欧等韩国语需求量较少的地区, 应借助网络媒体以及韩流效应积极开拓新市场。例如, 2012年5月, 南美最初的 '利马世宗学堂' 在秘鲁天主教大学正式投入运营。

4. 以扩大韩国语需求为中心的SWOT分析

S *韩中两国相互依存度高 *韩流效应引发韩国语学习需求增加 *韩国高等教育受国际认可	W *生源减少引发收益下降 *预算不足导致文化项目效果欠佳 *依附地区大学独立性差，市场覆盖率低 *教材˙教育方式不规范 *内部组织复杂不单一 *预算选址及审批程序太过严格
*西部地区得以发展，东西部地区发展差距缩小 *中国对朝鲜政策的影响 *持久的韩流项目开发 *多媒体学习体系建立 *韩国语教师雇佣 O	*与其他韩国语培训机构的竞争 *在线学习市场的发展让家庭教育更便利 *无法确保韩流效应对服务业的影响程度 T

根据上述分析，本论文试图从SO˙ ST˙ WO˙ WT四个角度提出有助于世宗学堂的可能性发展战略°

SO：可以通过IT产业在中国西部地区的发展扩大韩流效应° 世宗学堂可以利用并活用各企业的网络技术，也可以和国内的通讯公司合作进军中国西部地区°

ST：可以和在韩国知名度较高的培训机构携手营销° 在提高认知度的同时还可以获取线上市场竞争力°

WO：随着中国西部地区物质文化生活水平的提高，西部地区人民对韩国语教育的需求有可能增加，而这将可能促进多媒体学习模式的发展°

WT：通过扩大预算有可能实现教材规范化以及文化项目开发多样化，进而拥有其他机构不具备的竞争优势°

Ⅲ. 结论

通过上述分析，本论文认为导致世宗学堂发展不振的最关键因素为预算不足与组织结构不单一。而预算不足又带来韩流文化项目开发投资不足、网站主页设置落后效果不明显以及宣传结果不理想等一些列问题。因此，扩大预算简化组织结构是世宗学堂发展过程中的重中之重。

因研究人员缺乏与中国人的学习特性、中国人对韩国语的认识及变化以及中国本地韩国语教育机构相关的一手材料，所以本论文的研究分析仍存在较大不足。倘若有机会可以去中国做相关采访与调查，那有关改善世宗学堂发展不振的研究势必会更加完善。同时，研究人员也期待与世宗学堂相关的周边研究，例如中国人对韩国的关注程度、赴韩中国留学生的数量变化等。

한·중 FTA 를 통한 지방경제협력과 발전방안 : 웨이하이(威海) • 인천을 중심으로

김슬기, 장예즈
KDI 국제정책대학원

요 약

한 · 중 FTA가 정식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지방경제협력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웨이하이(威海)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FTA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3월, 인천과 웨이하이가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번 협력으로 한 · 중 경제교역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협력 시범지역을 조성하기로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1) 중국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전략 재편 및 한 · 중 FTA에 따른 산둥성의 전략변화 2) 웨이하이 · 인천 시범사업을 통한 협력모델 창출이다.

FTA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면 양국 모두 지역경제 발전 및 무역허브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아직 양국간 지방경제협력이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한계와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1) 한 · 중 지방정부간 협력 참여 2) 연계사업시설 및 관련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한 · 중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혁신적인 실행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Ⅰ. 서론: 한·중 FTA 체결 및 지역경제협력

'千里之行, 始於足下(천리지행 시어족하)' 라는 말이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으로 먼 길에 도달하기 위해 첫 걸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있어서 양국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역시

'천리지행 시어족하' 일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 첫번째 발걸음인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후의 협력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한국과 중국이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는 이제 정식 발효만을 앞두고 있다. 향후 10년동안 한국과 중국은 무역액 기준 95%, 품목 기준 90%에 수입관세 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소비자들은 양국으로부터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는 2004년 9월 아세안(ASEAN)+3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협상개시가 선언됐다. 2년여간의 협상 테이블을 거쳐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으며, 올해 2월 25일 양국 정부는 한·중 FTA에 가서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 중 25%를 차지하는 아시아 최대 시장이다. 한·중 FTA가 발표될 경우 향후 한·중 교역액(1,100억 달러 예상)이 한·미 교역액(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외국 직접투자는 2002년 27억 달러에서 2013년 1,000억 달러로 40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중국 자본 유치가 각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양국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FTA 가서명을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威海)[1]를 FTA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웨이하이시 정부는 지난달 한·중 FTA 발효 후 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물론 이전에도 양국의 지역적 협력이 있었고, 최근에도 한·중 FTA 체결에 힘입어 장쑤성 옌청시(盐城)·대구를 중심으로 한중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웨이하이·인천은 지역적으로 훨씬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내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성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웨이하이·인천의 지역경제 협력 사례에 초점을 맞춰 한·중간 지역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웨이하이(威海)는 중국 장쑤성의 북부에서 중부에 걸쳐 황해를 따라 위치한다. 면적은 14,562㎢로 장쑤성 제 1위이며, 인구는 약 810만 명으로 장쑤성에서 2번째로 많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목화가 주요 생산품인 가난한 도시였다가, 2002년 현지 합작법인 '동풍열달기아차' 가 설립되면서 공업화의 기반을 닦았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신흥 개발 도시로 인정되면서 2010년 12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급 개발구로 인증 받았다.

〈표 1〉 한·중 FTA 추진 과정

시 기	내 용
2004. 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 공동 연구 개시 추진합의
2005	2005 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6. 11. 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 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 03. 22 – 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 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08. 06. 11 – 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5 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10. 05. 23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방안 논의 (서울)
2010. 05. 28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 (서울)
2010. 09. 28 –2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 1 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11. 04. 11	한중 통상장관 회담 (베이징)
2012. 03. 01 –02	한중 FTA 추진관련 실무협의 개최 (서울)
2012. 03. 22 –23; 04.05	한중 FTA 추진관련 실무협의 개최 (베이징)
2012. 05. 02	한중 통상장관 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2012. 05. 14	한중 FTA 제 1 차 협상 개최 (베이징), 2 단계 협상 추진 합의
2012. 08. 22 – 24	한중 FTA 제 3 차 협상 개최 (웨이하이)
2013. 07. 02 – 04	한중 FTA 제 6 차 협상 개최 (부산)

출처: 외교통상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국과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 왔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 나라이자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양권 문화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친숙하고,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한중 관계를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한다.

이렇듯 한·중 FTA와 웨이하이·인천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히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직까지 지역간협력은 정부간협력보다 연구된 내용이 매우 미약한 만큼 본 논문은 양국 모두에게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다루고, 지역경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경제협력 발전 방안과 건설적인 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 논문을 통해 양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지방협력시범지역의 목적과 현황

1.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역: 인천·웨이하이

지난 2015년 2월, 한·중 FTA 가서명 이후 공개된 영문 협정문의 지방경제협력 관련 조항(10조 29항)[2]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를 FTA 단일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련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각 시정부의 논의를 통해 한·중 FTA의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산업을 두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범 결과를 검토하여 협력 사업을 양국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범지역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환경 및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사업의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양국의 실무진이 세부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국회로 넘어가 비준 동의안 심의를 벌이게 된다.

해당 FTA 조문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FTA 결과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지방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웨이하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인식함으로써 시범협력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웨이하이시와 인천시가 협의한다"고 설명한다. 두 도시간 협력 모델은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분야는 물론 "그것에 국한되지 않은 분야의 협력"까지로 사실상 범위를 막론하고 지방경제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한·중 FTA 제 10조 (경제협력) 부문의 제 29항 지방경제협력 (Local Economic Cooperation) (2015)

〈그림 1〉 인천-웨이하이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출처: 연합뉴스

올해 3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웨이하이시가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이번 협력으로 한·중 경제교역 확대의 마중물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웨이하이는 '8대 산업'에 대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8대 산업은 항공(항공정비),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서비스(물류, 의료, 교육), 해양(마리나)이다.

더불어, 상호간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상품 온·오프라인 전시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운송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위해 양국은 협의창구를 일원화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웨이하이시 발전 현황

1) 위치·인구·행정구역

산둥성(山东省)의 최동단에 위치한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삼면이 황해에 둘러쌓여 있는 해양도시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웨이하이항, 스다오항, 룽옌항, 리다오 등의 항만이 있으며, 2013년 기준 상주인구는 280.5만 명이다. 그 가운데 도시인구는 약 169.21만 명이다.

〈그림 2〉 웨이하이시 위치 및 행정구획

출처: ChinaBrief (2015)

2) 경제·산업 현황

2013년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2,549.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10.8% 증가했으며, 이는 9.6% 성장률을 기록한 산둥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웨이하이시의 1인당 GRDP는 약 91,010위안으로, 산둥성 전체의 1인당 GRDP인 56,323위안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산둥성 내에서 둥잉(东营)시에 이어 2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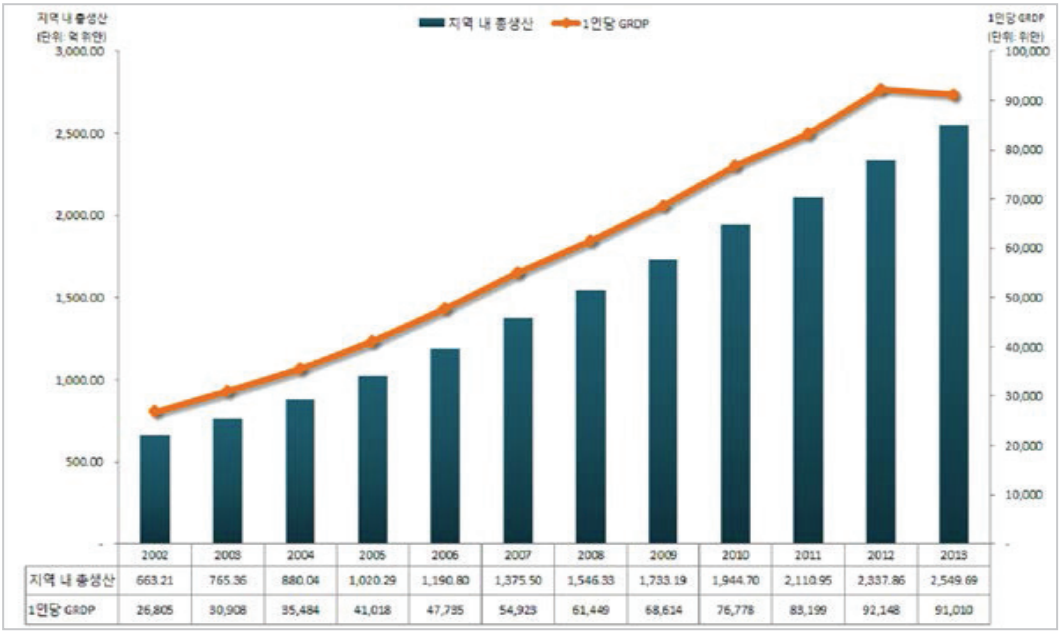
〈표 2〉 웨이하이시 2013년 주요 경제지표 및 산둥성 내 비중·순위

항목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	산둥성 내 비중 (%)	산둥성 내 순위
지역내총생산(GDP)	2,549.6억 위안	10.8	4.7	10
1차 산업생산	203.5억 위안	4.3	4.3	12
2차 산업생산	1,312.9억 위안	10.5	4.8	10
3차 산업생산	1,033.3억 위안	12.5	4.6	9
1인당 GRDP	91,010 위안	8.9	–	2
총인구	약 253.6만 명	–	2.9	15
공업생산총액	6,274.4억 위안	6.8	5	–
사회소비품소매총액	1,082.2억 위안	13,5	4.9	8
고정자산투자	1,923.7억 위안	20.5	5.4	10
수출입총액	171.5억 달러	0.2	6.4	4
수출	107억 달러	0.5	8	4
수입	64.5억 달러	−0.4	4.9	4
실질이용외자총액(FDI)	9.2억 달러	15.5	6.5	4
공공재정예산수입	195.2억 위안	23.2	4.3	8
공공재정예산지출	263.9억 위안	8	3.9	10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31,442 위안	9.8	–	5
도시주민 소비성 지출	20,127 위안	8.5	–	–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15,582 위안	11.6	–	2

주: 산둥성 내 순위는 산둥성 17개 지급시 내 순위임

출처: 「威海统计年鉴2014」, '威海市2013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그림 3〉 웨이하이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추이(200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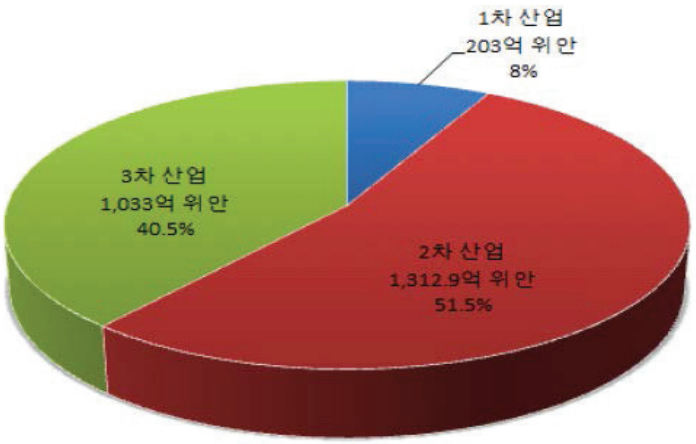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 내 총생산	663.21	765.36	880.04	1,020.29	1,190.80	1,375.50	1,546.33	1,733.19	1,944.70	2,110.95	2,337.86	2,549.69
1인당 GRDP	26,805	30,908	35,484	41,018	47,735	54,923	61,449	68,614	76,778	83,199	92,148	91,010

주: 2013년부터 1인당 GRDP는 상주인구 기준

출처: 威海统计年鉴 (2014)

〈그림 4〉 웨이하이 산업구조 (2013)



출처:「威海统计年鉴2014」

한편, 2013년 웨이하이시의 1·2·3차 산업 비중은 각각 8:51.5:40.5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특히, 3차 산업 부문은 전년대비 1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3) 대외경제 현황

2013년 웨이하이시의 수출입 총액은 약 171.5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계가 45.79억 달러(42.8%)로 가장 높고, 섬유의류수출 21.9억 달러(20.5%), 농산품이 14.9억 달러(13.9%)를 차지한다. 웨이하이는 현재 202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역액은 5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하락했지만, 웨이하이 수출입의 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 전기 및 전자제품, 선박, 전선 및 케이블 등을 수출하며, 한국으로부터는 플라스틱 원료, 기계 및 설비, 금속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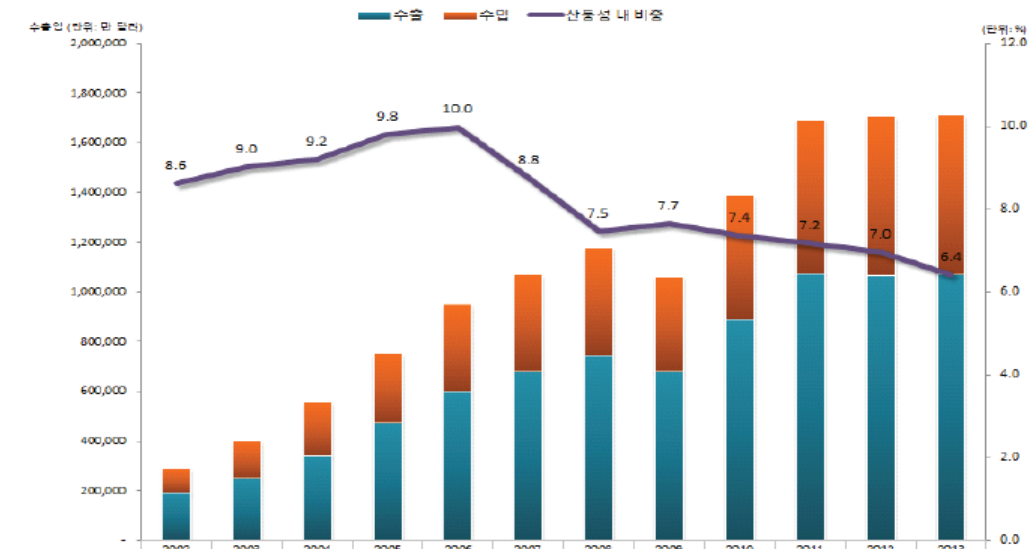
KORTA 칭다오무역관(2015)에 따르면 웨이하이 한국투자기업은 868개로 실제 사용 한국자본은 1.9억 달러로 총 실제사용 외자 중 20.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한국으로부터의 외상직접투자는 45건으로 금액은 약 21,119만 달러에 달한다. 웨이하이에 대한 한국투자는 주로 조선, 전자, 기계, 의류, 경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해운, 상업, 무역, 요식업 등 3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웨이하이에 대한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4]으로는 삼성중공업(총 투자액 3.4억 달러), 웨이하이삼진기업(1.3억 달러), 웨이하이세일전자(9,900만달러), 금호아시아나 골프클럽(9,840만 달러), 웨이하이선양수마과기(8,721만 달러), 웨이하이창성전자(8,260만 달러), 롯데백화점(5,800만 달러) 등이 있다.

[3] 김명아(2015), "한중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INchina Brief.Vol.285
KOTRA 칭다오무역관 (2015),<중국출장자료 - 산둥성>. 2015-1

[4] 2013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웨이하이시에 투자한 경우에 한함

〈그림 5〉 웨이하이 수출입 추이 (2002~201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100,346	150,278	214,514	281,329	350,417	392,701	435,009	379,524	499,285	617,518	645,642	644,731
수출	192,182	252,865	344,939	473,400	601,076	680,216	745,478	681,808	892,307	1,074,622	1,066,215	1,070,238
산동성 내 비중	8.6	9.0	9.2	9.8	10.0	8.8	7.5	7.7	7.4	7.2	7.0	6.4

출처: 「威海统计年鉴2014」

3. 천지역 개발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가능한 공항 및 항만 지역을 뜻한다.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 여건과 지정학적 입지조건 아래, 최적의 첨단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첨단허브(송도), 물류허브(영종), 레저허브(청라)로 구성되는 IFEZ는 또한 주변국 선발 경제 특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첨단 도시', '36%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친환경도시', '첨단 시스템을 갖춘 신교통도시'를 IFEZ 개발전략으로 확립하고 있다. 2003년에 한국 최초로 IFEZ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연세대 송도캠퍼스, 쌍둥이빌딩, 물류센터 AMB, GM대우, Gale, Celltrion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림 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조감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4.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역의 목적과 의의

1) 중국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전략 재편과 한·중FTA에 따른 산둥의 변화

중국은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 특히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표 3〉에 중국의 경제산업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정리해두었다.

〈표 3〉 산둥성 12차5개년 경제산업·대외개방 관련 주요 정책목표

과 제	목 표
경제·산업 구조 고도화	· 201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RDP 비중 45% 이상으로 확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40% 이상 · 5대 신산업(IT, 신약, 신에너지, 신소재, 해양산업) 발전 촉진, 신산업의 부가가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을 10%로 확대 · 첨단산업·첨단제품·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체계 구축
대외개방 확대	· 가공무역의 전환 및 고도화 추진: 전기전자·섬유의류·농산품·화공·경공업 등 비교우위 업종 수출단지 육성 · 첨단산업·신산업·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장려 · 상품무역 연평균 10% 증가, 서비스무역 연평균 15%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9% 증가,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40% 이상

출처: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최근 중국 최대의 가공무역 중심지였던 산둥성이 내수 중심의 발전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노력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산둥성 및 웨이하이시 등 연해도시의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및 소득·소비 관련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지역 경제총생산의 증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은 최근 새로운 경제발전모델 및 해외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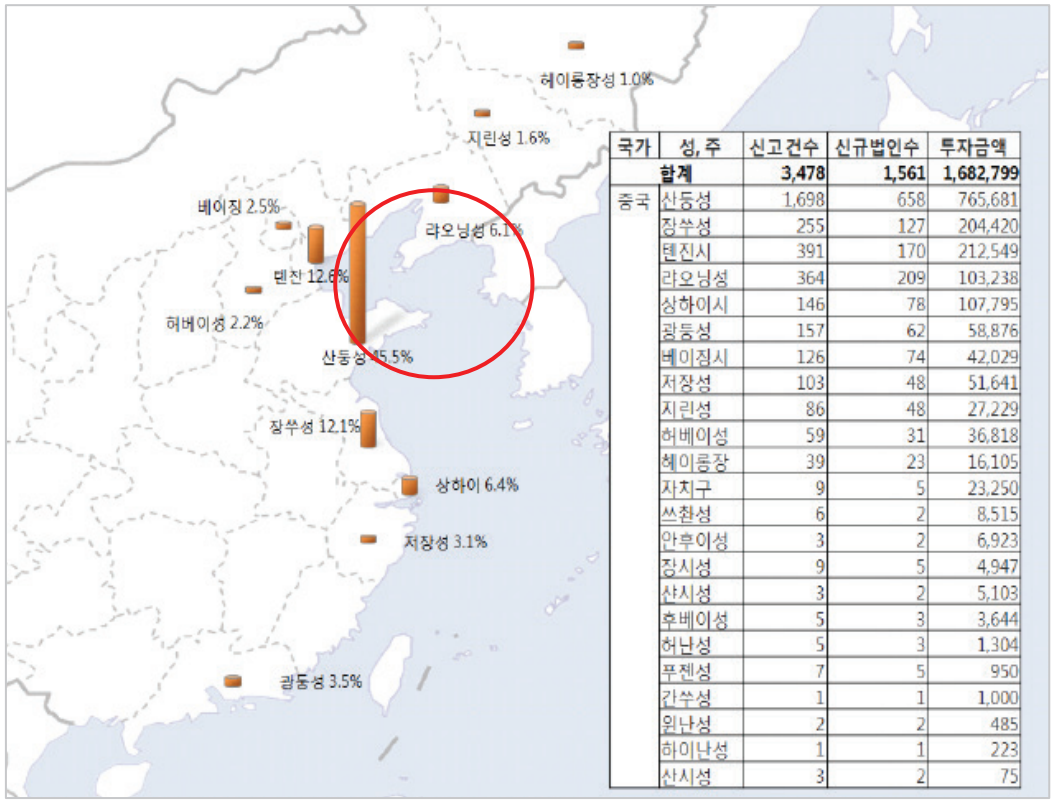
한편, 2008년 이후 경제지표의 변화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었던 산둥성으로의 해외투자 및 관련 무역의 퇴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상승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 경영여건 약화에 따라 주로 섬유, 의복, 전자, 기계, 신발, 완구 산업과 같은 전통적 경공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3차 산업발전 및 소비시장의 성장은 사실 더디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개발전략 재편 및 경영여건 악화는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역에 대한 기대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산둥성은 한·중 FTA를 활용하여 빠른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시장 확대, 대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웨이하이 · 인천 시범사업을 통한 협력모델 창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특히, 인천의 중국 지역별 투자를 보면 위엔하이가 위치한 산둥성이 약 45.5% (2013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인천의 중국 지역별 투자 총액 (2013 년 누적 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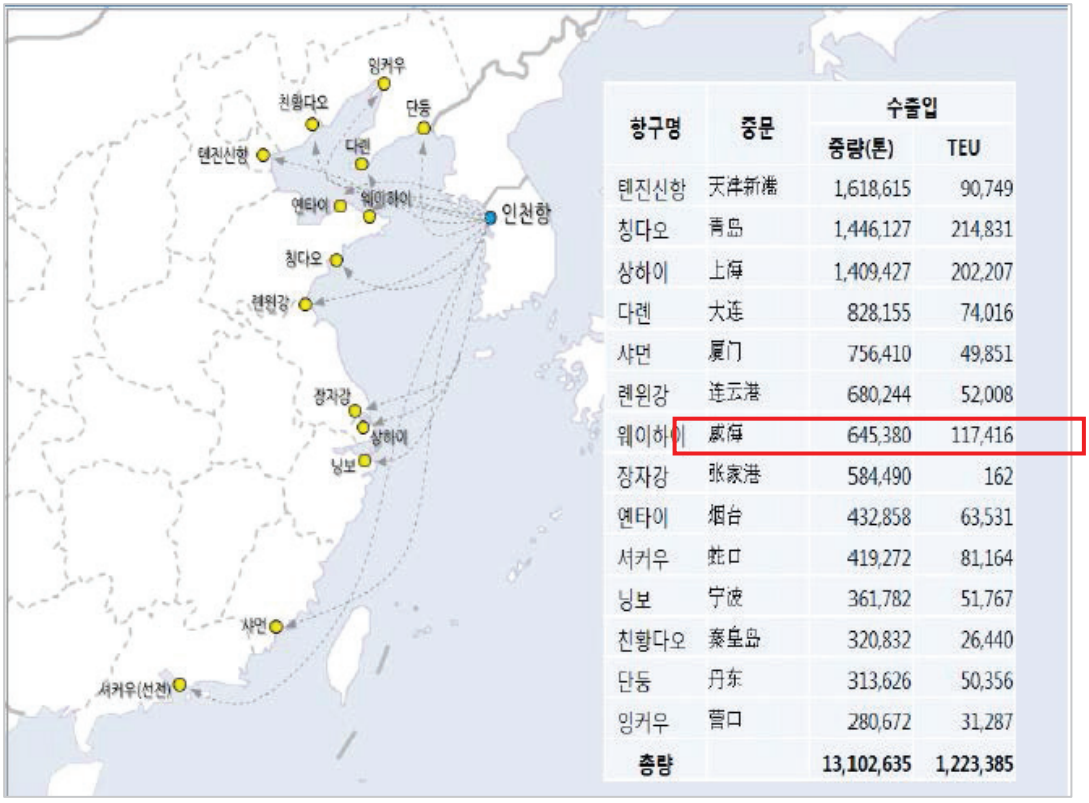
국가	성, 주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합계	**3,478**	**1,561**	**1,682,799**
중국	산둥성	1,698	658	765,681
	장쑤성	255	127	204,420
	톈진시	391	170	212,549
	라오닝성	364	209	103,238
	상하이시	146	78	107,795
	광둥성	157	62	58,876
	베이징시	126	74	42,029
	저장성	103	48	51,641
	지린성	86	48	27,229
	허베이성	59	31	36,818
	헤이룽장	39	23	16,105
	자치구	9	5	23,250
	쓰촨성	6	2	8,515
	안후이성	3	2	6,923
	장시성	9	5	4,947
	산시성	3	2	5,103
	후베이성	5	3	3,644
	허난성	5	3	1,304
	푸젠성	7	5	950
	간쑤성	1	1	1,000
	윈난성	2	2	485
	하이난성	1	1	223
	산시성	3	2	7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FTA 지방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산둥성 웨이하이가 추진하게 될 선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보자. 일단,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5] 수행을 통해 갖게 될 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류를 통한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 품목이 다른 만큼 국가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들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험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란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는 샘플 프로그램이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그림 8〉 인천항의 대중국 주요 교역항 (2012년 기준)



항구명	중문	수출입	
		중량(톤)	TEU
톈진신항	天津新港	1,618,615	90,749
칭다오	青岛	1,446,127	214,831
상하이	上海	1,409,427	202,207
다롄	大连	828,155	74,016
샤먼	厦门	756,410	49,851
롄윈강	连云港	680,244	52,008
웨이하이	威海	645,380	117,416
장자강	张家港	584,490	162
옌타이	烟台	432,858	63,531
서커우	蛇口	419,272	81,164
닝보	宁波	361,782	51,767
친황다오	秦皇岛	320,832	26,440
단둥	丹东	313,626	50,356
잉커우	营口	280,672	31,287
총량		13,102,635	1,223,385

출처: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Ⅲ. 지역경제협력의 한계 및 발전방안

한·중 FTA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면 양국 모두__특히 인천과 웨이하이 지역을 중심으로__에 지역경제 발전 및 무역허브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여러 한계 및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논문에는 현 상태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될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 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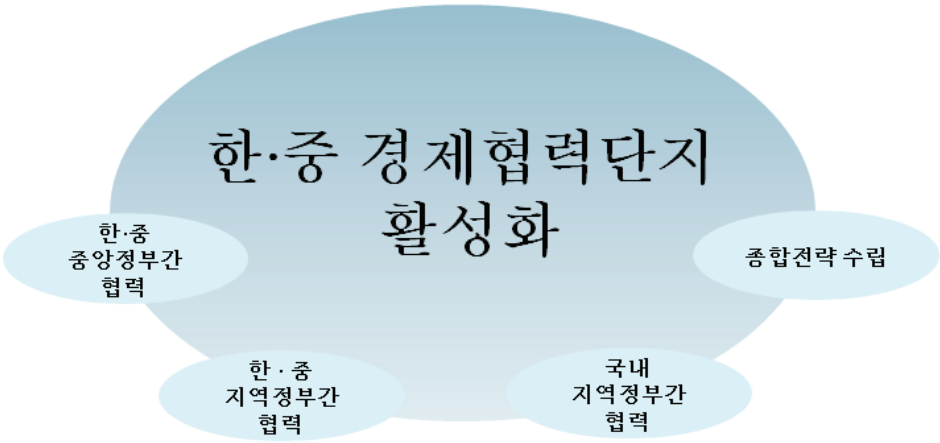
1.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 참여

FTA가 국가 간 협정인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정 체결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체결이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각국의 지방정부간 협의가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과 웨이하이의 지방정부간 교류가 있었으나, 지역 여건에 좀더 부합하는 시범사업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국가간 체결을 단순하게 따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간 참여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활동을 제한할 뿐더러 지역간 협력에 일차적으로 수반되는 협상·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한·중 경제협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전략과 지방정부간 균형 있는 한·중 협력 방안을 토대로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을 수행해 가야할 것이다.

〈그림 9〉 한·중 정부간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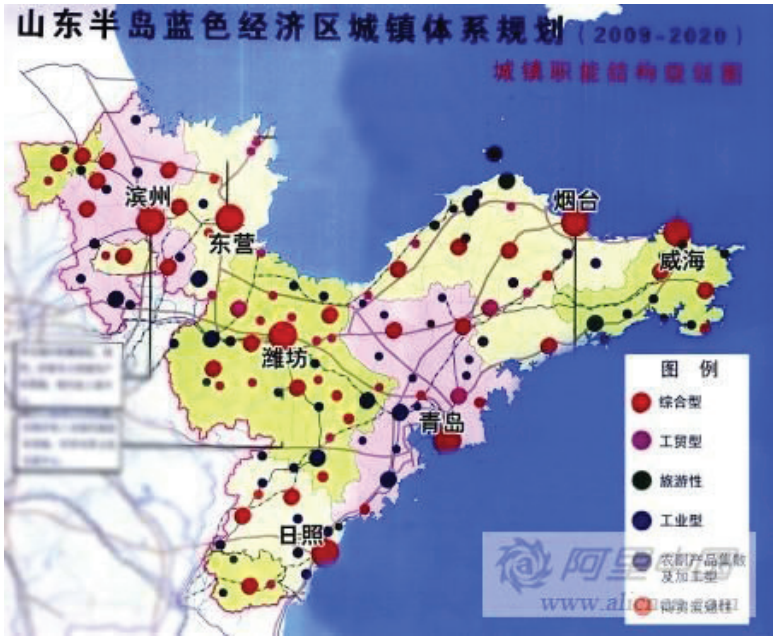
웨이하이시가 위치한 산둥반도에 건설되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이하 경협단지)는 국가 간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지방 간 협력에 가까워서 한국에서도 지방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한·중 간 경제협력을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인천시정부 혹은 웨이하이시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교류·비즈니스·외교 등이 필요하다. 즉, 투자자 활용안,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지방정부 간 협력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에는 지방도시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6]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도시간 협력은 한국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 네트워크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송도·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이나 각 특구 및 산업단지 소재 지방정부는 각 지역 산업별 특징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6] 지난 2011년,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을 정식 비준함으로써 해양경제를 중심으로 한 종합경제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10〉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출처: www.alicnes.com

마지막으로 경제산업, 관광, 투자, 해양항공, 다문화 및 유학생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적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조직 편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각 특구 및 산업단지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지방특화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각 정부부처 관계자와 지방단체 및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원기관을 구성원으로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연계사업시설 및 관련 인프라

지방경제협력은 단순히 국가간의 '하드웨어'적인 협력이 아닌 만큼 시민사회의 '소프트웨어'적인 협력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중앙정부 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기업인·학생·시민단체·공공기관·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신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일수록 현지 금융·통관·검역·운송·교통·법·제작권 보호·행정 등 제반 산업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양국의 진출 기업들이 주로 호소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유통망·물류 인프라 부족, 진출 정보 미흡 등이 있다.

더불어 교민들 역시 내국인을 위한 학교·유치원·병원·숙소 등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경협단지와의 상호연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노동규제 완화, 비자발급 간소화, 단기체류 무비자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국 내 시범지역 또는 경협단지와의 상호호혜적인 자유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또는 양측 지방정부간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협시범지역 내 금융업, 물류업, 문화산업, 교육·의료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인력이동, Joint-Venture 등에 대해 감면혜택 범위를 설정하는 등을 통해 양측 정부간 협력과 자금유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관·관세를 비롯한 수출입 분야, 투자 및 산업 협력, 관광 및 사회 문화 교류 각 방면에서 양 도시 간 공식적 카운트파트너를 선정해 교류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운트파트너 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 예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둥성 및 웨이하이가 육성하고 있는 관광, MICE, 전자상거래와 같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계 및 협력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인천대 중국학술원 화교센터는 인천이 공유하고 있는 화교 문화 등을 공유하고자 인문유대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도 기업인 교류, 청년학생 인턴십, 공공기관 인력 상호파견 등의 사회교류 채널의 다각화와 연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역경제협력 발전 방안과 건설적인 한중관계 수립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재정경제전략연구원(財政經濟戰略研究院)의 펑레이(馮雷) 교수는 "전체 아시아가 유럽처럼 하나의 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중국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우선 쉬운 일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말로 한·중 FTA의 핵심을 간파했다.

양국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협력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펑레이 교수의 말처럼 쉬운 일부터 하나씩 발전시켜나간다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협력 시범지역의 목적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현재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한계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방정부간 협력 참여를 향상시키고, 연계사업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킨다면다면 건설적인 한·중 관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한·중 경협단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 및 협력 연계망이 더욱 필요하다. 한·중 FTA가 현재 정식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는만큼 성공적인 실행 및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방경제협력은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기업에 더 넓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중국 교류와 관련해 이해관계간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연계망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 FTA는 세계 수출 1위와 7위 국가, 그리고 경제규모 1위와 15위 국가 간에 체결된 비중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치 이면에는 수천 년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도 양국 국민과 정상 간의 신뢰가 존재한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로 양국이 기나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만큼 향후 웨이하이·인천 경협단지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여년간 믿음을 쌓으며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이다. 양국이 앞으로도 '일덕일심(一德一心)'의 마음으로 한·중 FTA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로부터도 한·중 지역협력이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동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발간자료]

외교통상부. 2008. 『한 · 칠레FTA발효4주년 및한 · 싱사포르FTA발효2주년성과』

외교통상부. 2006. 『NAFTA가 멕시코경제에 미친 영향』

KOTRA. 2003. 『세계 시장개방 추이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KOTRA. 2005. 『WTO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KOTRA. 2015. 『중국출장자료 – 산둥성』. 2015-1

김명아. 2015.『한중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INchina Brief.Vol.285

김명아. 2014.『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김성철. 2010.『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조미진 외. 2008.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 규정 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엄부영 외. 2007. 『한·중 FTA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점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특성과한·중FTA에대한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원기. 2006. 『중국의한·중FTA추진배경과전망』.외교안보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8.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양호 2009. 『국제경제학세미나』.강의노트
박승록 외. 2008. 『베이징올림픽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박승록 2009. 『중국경제론』.강의노트
박승록 2009.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 현황과 투자환경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한·중 FTA대비 중국의 FTA서비스협정분석과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한·중일 3국의 FTA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추진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09. 『2008년도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威海统计年鉴2014』
『威海市蓝色经济区发展规划』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웹사이트]
국제무역연구원 www.kita.net(무역통계·중국경제DB)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WorldTradeOrganization www.wto.or
산둥성통계홈페이지 http://www.stats-sd.gov.cn/
웨이하이시통계홈페이지 http://www.stats-wh.gov.cn/
웨이하이시인민정부홈페이지 http://www.weihai.gov.cn/

中韩 FTA 背景下的区域经济合作与发展 ：以威海和仁川为例

金会기，张延泽
KDI 韩国开发大学院

摘　　要

在中韩 FTA 签订的最终阶段，两国的地区性经济合作已经开始提速。中韩两国将威海和仁川作为 FTA 经济合作示范区，两地的合作谅解备忘录也于 2015 年 3 月签订，预计将对扩大中韩贸易起到直接的推动作用。

本文首先介绍了威海、仁川两地的自然条件和经济发展状况，然后进一步阐释在这两个地区设立经济合作示范区的目的和意义：一是使得中韩 FTA 成为对中国内需驱动的发展策略的有益补充，二是通过试点来探索有效的中韩经济合作模式。

通过 FTA 协议，两国贸易中心的地区经济预计将得到加速发展。然而，因为地区经济合作尚处在规划阶段，所以还存在一些的问题和局限性。主要体现在地方政府之间的交流有待深化，相关基础设施建设需要完善。由此本文提出了关于优化合作的相关建议。首先要解决中央和地方政府之间存在信息不对称的问题，因地制宜地推动仁川与威海两个地方政府之间的交流，增加地方政府的参与积极性。其次，在经济示范区试点新政策，包括减少对外国人的就业限制，放松对劳动力的管制，简化签证签发流程，提供短期免签条件，简化设立公司的许可程序，减免税收，规范质量认证体系，增加便利通关的相关措施，加大对医疗保健和环境保护的投入等。通过制定专门有效的法律和法规，发掘双边合作的更多可能。最后，在着力发展商业往来的同时，也应推动文化的交流与分享。

Ⅰ. 绪论：中韩FTA的缔结与区域经济合作

古语有云：“千里之行，始于足下。”这句话强调的是迈出第一步对取得最终的成功有重要的意义。中韩自由贸易协定(Free Trade Agreement, FTA)就是密切两国之间经济合作的必要的第一步。为了将来能够取得更好的经济合作，两国克服了无数困难，达成了第一阶段的成功。在FTA的引领下，相信未来两国可以共同明智地应对变数。

中韩自由贸易区于2014年11月宣告正式生效。在未来10年，中韩两国将对90%以上的商品进行进口关税豁免，涉及95％贸易额。因此，两国消费者能够以低廉的价格购买到对方国家的优质产品。

中韩FTA发轫于2004年9月召开的ASEAN+3经济长官会谈上。2012年5月于中国北京正式开始谈判议程。经历了两年的协商谈判，2014年11月宣告达成合意。两国政府于今年2月25日完成FTA草签。

Ⅱ. 地方合作示范区的目的和现状

1. 中韩FTA地方合作示范区：威海和仁川

2015年二月中韩FTA草签，协定草案以英文进行发布。其中第10条29项[1]指定中国山东威海市和仁川经济自由区（IFEZ）为合作示范区。据相关协议，两地市政府按照FTA对贸易、投资、服务、产业合作等方面进行促进。进而根据试点的结果将合作扩展到全国层面。

特别是，通过试点来系统性识别与把握两国的环境与政策，为FTA的执行提供第一手材料。目前，两国工作人员正在继续进行细节协商。在这个过程结束，并审核通过之后，FTA将正式签订。

<图 1> 仁川 – 威海经济合作谅解备忘录的签署

资料来源：Yonhap News

2. 威海市发展现状

1) 地理位置、人口状况

威海市位于山东省最东端，三面环黄海，与朝鲜半岛隔海相望。截至2013年，有常住人口280.5万人，其中城镇人口约169.21万人。

<图 2> 威海市地理位置及行政区划

资料来源：ChinaBrief (2015)

2) 经济、行业现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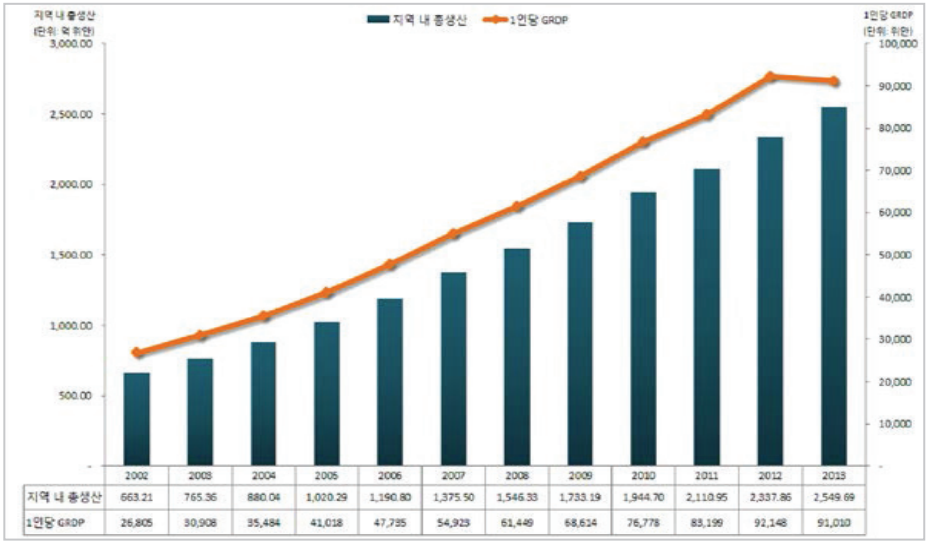
2013年，威海市地区生产总值（GRDP）达2549.6亿人民币，同比增长约10.8%，略高于山东省的9.6%的增长率。威海市人均GRDP约为91010元，约为山东省56323元的人均GRDP的1.6倍，紧接着东营市，在山东省各市人均GRDP中排名第二位。

〈表 1〉威海市2013年的主要经济指标以及在山东省内的份额排名

经济指标	2013年	同比增长率(%)	山东省内比重(%)	山东省内顺序
地区生产总值(GRDP)	2,549.6亿元	10.8	4.7	10
第一产业	203.5亿元	4.3	4.3	12
第二产业	1,312.9亿元	10.5	4.8	10
第三产业	1,033.3亿元	12.5	4.6	9
人均GRDP	91,010元	8.9	-	2
总人口	约 253.6万	-	2.9	15
工业生产总额	6,274.4亿元	6.8	5	-
社会消费品销售总额	1,082.2亿元	13,5	4.9	8
固定资产投资	1,923.7亿元	20.5	5.4	10
进出口总额	171.5亿美元	0.2	6.4	4
出口	107亿美元	0.5	8	4
进口	64.5亿美元	-0.4	4.9	4
实际利用外资总额(FDI)	9.2亿美元	15.5	6.5	4
公共财政预算收入	195.2亿元	23.2	4.3	8
公共财政预算支出	263.9亿元	8	3.9	10
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	31,442元	9.8	-	5
城市居民消耗品支出	20,127元	8.5	-	-
农村居民人均收入	15,582元	11.6	-	2

资料来源：《威海统计年鉴2014》《威海市2013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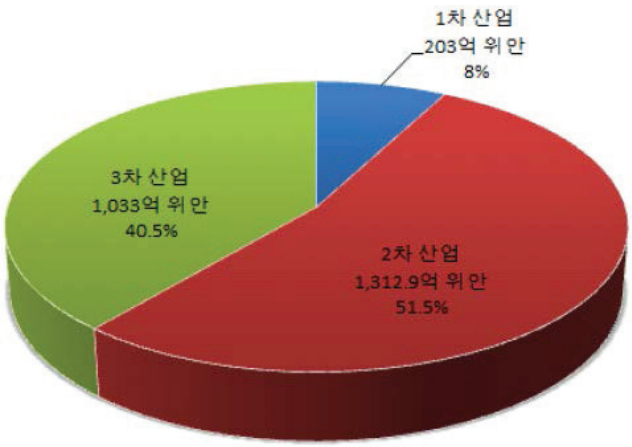
〈图 3〉威海地区生产总值和人均GRDP趋势（2001至2013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 내 총생산	663.21	765.36	880.04	1,020.29	1,190.80	1,375.50	1,546.33	1,733.19	1,944.70	2,110.95	2,337.86	2,549.69
1인당 GRDP	26,805	30,908	35,484	41,018	47,735	54,923	61,449	68,614	76,778	83,199	92,148	91,010

资料来源：《威海统计年鉴（2014）》

〈图 4〉威海产业结构（201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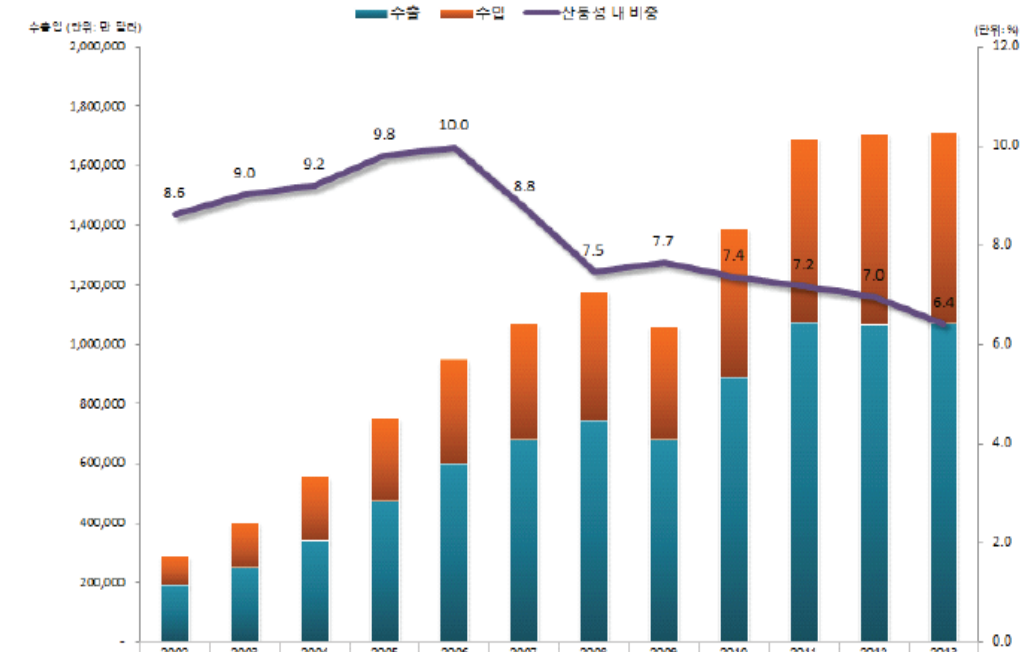
资料来源：《威海统计年鉴（2014）》

另一方面， 2013年威海市第一、第二、第三产业的比重分别为8：51.5：40.5，第二产业比重超过一半。特别地，第三产业同比增长12.9%，为山东省内增速最快的城市。

3） 对外经济状况

2013年威海市的进出口总额171.5亿美元，同比增长0.2%。主要出口产品为电子产品是45.79亿（42.8%），纺织品和服装21.9亿（20.5%），农产品14.9亿美元（13.9%）。目前威海与202个国家有贸易往来，与韩国之间的贸易额虽然同比下跌1.1%，但仍以52.3亿美元占据30.5%的进出口份额。主要向韩国出口电器及电子产品，船舶，电线和电缆；从韩国进口塑料原料，机械设备，金属制品等。

〈图 5〉威海进出口变化（2002至13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100,346	150,278	214,514	281,329	350,417	392,701	485,009	379,524	489,285	617,518	645,642	644,731
수출	192,182	252,865	344,939	473,400	601,076	680,216	745,478	681,808	892,307	1,074,622	1,066,215	1,070,238
산동성 내 비중	8.6	9.0	9.2	9.8	10.0	8.8	7.5	7.7	7.4	7.2	7.0	6.4

资料来源：《威海统计年鉴（2014）》

3. 仁川地区发展现状

仁川自由经济区（IFEZ）旨在成为具有国际竞争力的机场和港口区，以实现“东北亚物流中心的目标。由于具备对外国人亲和的生活条件和稳定的政治条件，该地区通过建立先进的基础设施，力争成为成为东北亚航空物流枢纽和商务中心。仁川自由经济区由三个城市构成，它们分别由各自的比较优势：高科技中心（松岛），物流中（永宗）和休闲中心（青罗）。

〈图 6〉仁川经济自由区（IFEZ）俯视图

资料来源：韩国土地及房屋公司（LH）

4. 中韩FTA地方合作示范区的目的和意义

1) 中国拉动内需的发展策略在中韩FTA达成之后的变化

开始于2011年的“十二五”规划将把中国从出口驱动型增长转型为以内需（尤其是消费）主导增长作为一个重要的国家战略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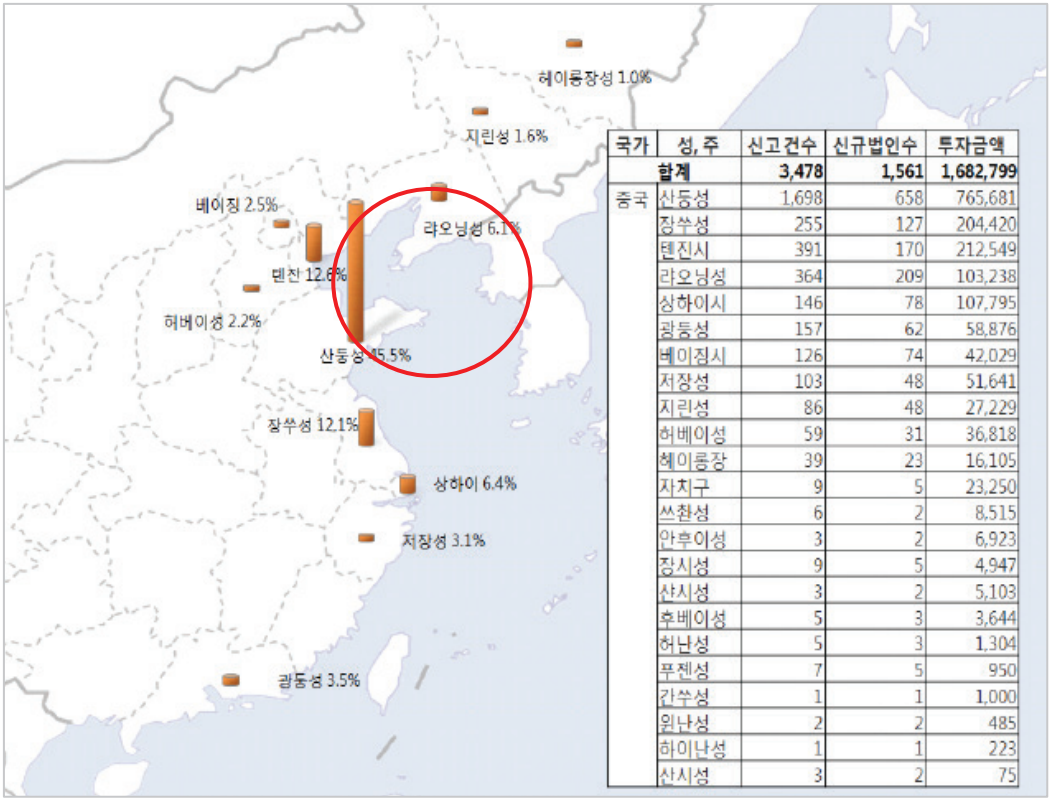
作为目前中国最大的外贸加工中心，中韩FTA的缔结可使山东省即使在以拉动内需为重心的经济大环境下也得到了加速发展。开放的战略决策近几年来为山东省和威海市等沿海城市带来了显著的经济发展。例如，威海在2008年世界金融危机的不利影响下，仍保持了经济的持续增长。然而，与收入消费比率增速相比，GRDP增速呈现持续下降趋势。因此，山东省对经济发展和国际开放的潜在新模式持有非常积极主动的姿态。

2008年以来，从有关经济指标的变化可以看出，由于劳动密集型产业的优势减弱，山东省的外商投资与相关贸易出现下滑。工资上涨等因素对劳动密集型轻工业产生了不同程度的不利影响，如在纤维、服装、电子、机械、制鞋、玩具和其他传统轻工业，直接投资和进出口均有所减少。在新的条件下，事实上第三产业和消费市场的增长是缓慢。为了克服这样的不利条件，山东省政府欲凭借中韩FTA为跳板，努力加快产业结构升级，扩大消费市场，搞活对外经济。

2) 通过仁川-威海示范区创建中韩经济合作模式

现在正是韩对中投资的最活跃时期。此外，仁川由于地理位置的接近性一直与威海保持着密切的经济往来关系。山东省占据仁川约45.5%的对中投资（2013年数据）。

<图 7> 仁川对中投资分布（2013数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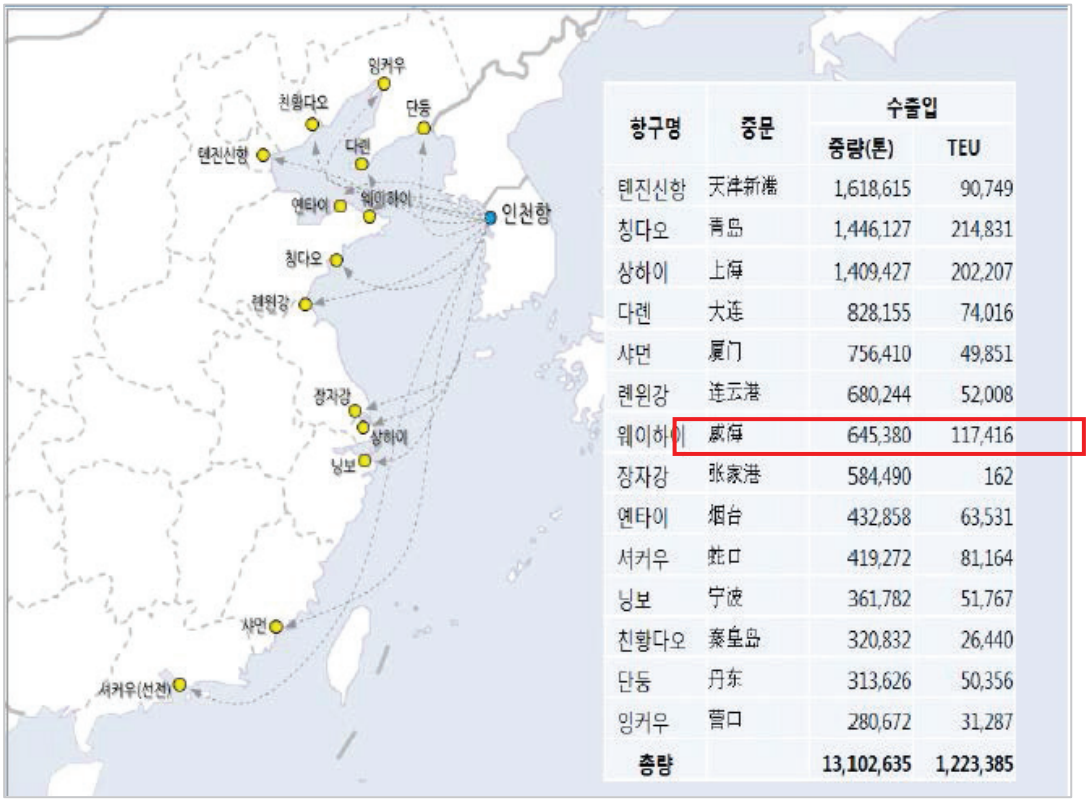


국가	성, 주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합계	**3,478**	**1,561**	**1,682,799**
중국	산둥성	1,698	658	765,681
	장쑤성	255	127	204,420
	톈진시	391	170	212,549
	라오닝성	364	209	103,238
	상하이시	146	78	107,795
	광둥성	157	62	58,876
	베이징시	126	74	42,029
	저장성	103	48	51,641
	지린성	86	48	27,229
	허베이성	59	31	36,818
	헤이룽장	39	23	16,105
	자치구	9	5	23,250
	쓰촨성	6	2	8,515
	안후이성	3	2	6,923
	장시성	9	5	4,947
	산시성	3	2	5,103
	후베이성	5	3	3,644
	허난성	5	3	1,304
	푸젠성	7	5	950
	간쑤성	1	1	1,000
	윈난성	2	2	485
	하이난성	1	1	223
	산시성	3	2	75

资料来源：韩国进出口银行

仁川自由经济区（IFEZ）和山东威海市作为合作示范区，具有试水和探索的重要作用。例如，近来韩流商品出口增长显著，韩国迅速将韩流需求作为商品出口的立足点。国家通过类似的思路来调整方向和侧重点，两国公司也可以通过试点项目获得必要的信息，以制定相应的差异化策略。

〈图 8〉仁川港对中贸易的主要港口城市（2012年数据）



항구명	중문	수출입	
		중량(톤)	TEU
톈진신항	天津新港	1,618,615	90,749
칭다오	青岛	1,446,127	214,831
상하이	上海	1,409,427	202,207
다롄	大连	828,155	74,016
샤먼	厦门	756,410	49,851
롄윈강	连云港	680,244	52,008
웨이하이	威海	645,380	117,416
장자강	张家港	584,490	162
옌타이	烟台	432,858	63,531
서커우	蛇口	419,272	81,164
닝보	宁波	361,782	51,767
친황다오	秦皇岛	320,832	26,440
단둥	丹东	313,626	50,356
잉커우	营口	280,672	31,287
총량		13,102,635	1,223,385

资料来源：海关总署，韩国贸易开发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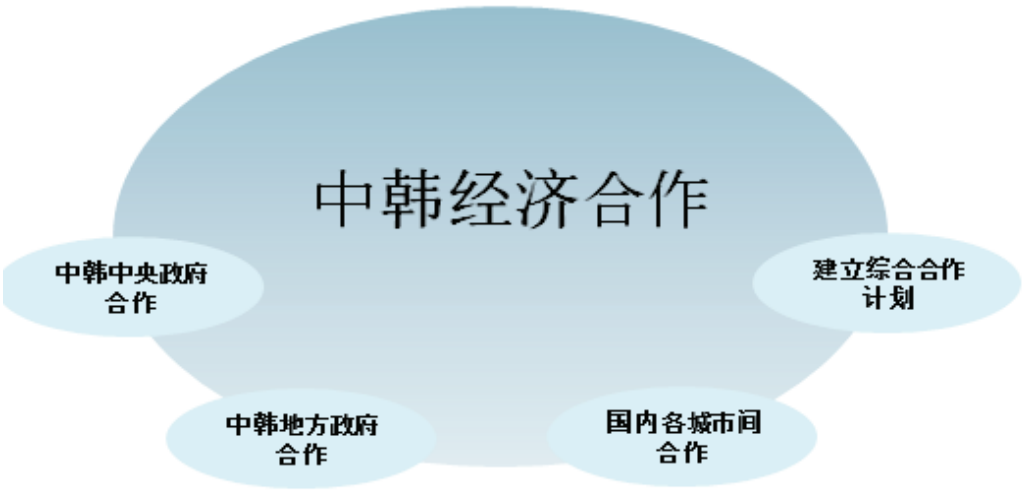
Ⅲ. 区域经济合作的局限性和解决方案

中韩FTA的起草对两国，尤其是以仁川-威海为中心的地区经济发展有积极影响。然而，未来执行阶段也可能出现局限于问题。本文将介绍合作中的潜在问题和当前可以进行的改进措施。

1. 中韩地方政府间的参与协作

FTA在国家之间进行谈判和签署，因此中央和地方政府之间存在信息不对称的问题，地方政府之间缺乏磋商机会，可能对跨区域合作造成负面影响。为使合作示范区的规划协调一致，应该寻找中央和地方政府的平衡方案，因地制宜地推动仁川与威海两个地方政府之间的交流。这样也可以增加地方政府的参与积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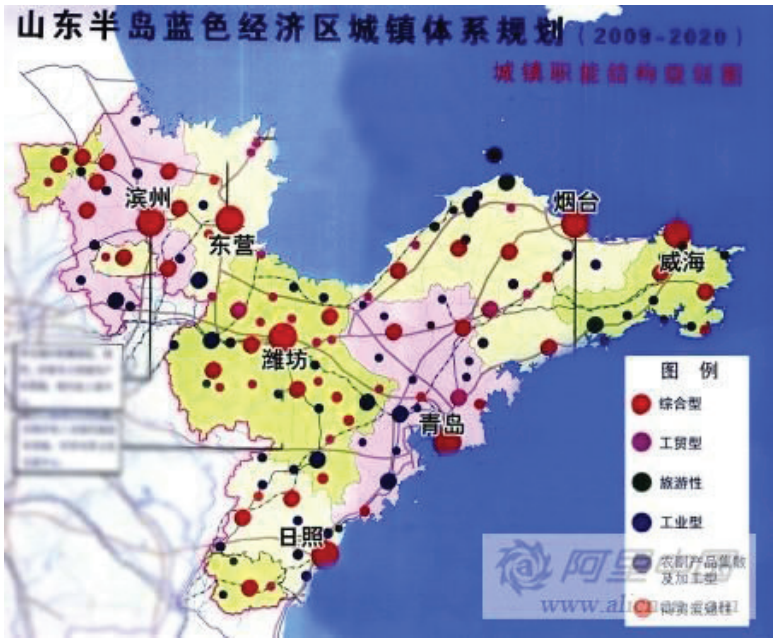
〈图 9〉 中韩政府之间的合作



仁川与威海的合作不单纯是国家之间的互动，而且要贴合当地的实际情况。因此需要可操作的合作行动路径。例如，双方地方政府需要提供方便的外汇政策和适合发展商务的区域条件，以投资活动。为了达成这一目标，需要分阶段、细分化的磋商的持续进行。

与此同时，也应强调国内间地方政府的交流与配合。已建成的山东半岛蓝色经济区旨在提升城市之间的往来与合作，经济合作示范区威海作为这一网络的一个关键节点，能够利用整个经济区域的优势。这对韩方也是一个利好条件。与此相应的，仁川的松岛和永宗新区各自发挥当地的产业特色和地域优势，加强地方政府之间的经济合作，提高其整体效率。

〈图 10〉中国山东半岛蓝色经济区



资料来源：www.alicnes.com

最后，统筹贸易、工业、投资、航运航空、旅游、多元文化、国际学生组织等各个领域，服务于区域合作规划。当地政府对各经济特区和工业园区进行综合性和战略性管理。成立由政府官员、当地组织和各领域专家组成专门化团队对相关工作进行规划和评估。

2. 相关基础设施项目

如果说国家层面决定的区域经济合作是一个“硬件”，那么民间的社会合作则可称之为“软件”。软件硬件应互相匹配，不同利益群体应协调平衡。

目前，大多数与进出口有关的基础设施并不完善。尤其给新企业进入市场带来了一定的阻碍和壁垒，体现在金融系统、海关检疫、交通运输、分销物流和信息共享等方面。

在生活设施方面，在威海等中国城市韩国学校、幼儿园、医院、住宅还很缺乏，阻碍了韩国投资者的长期商务活动。因此，教育和卫生服务作为基本的生活保障应该早日得以改善。

为了创造适宜的经济合作环境，可考虑以下措施：减少对外国人的就业限制，放松对劳动力的管制，简化签证签发流程，提供短期免签条件，简化设立公司的许可程序，减免税收，规范质量认证体系，增加便利通关的相关措施，加大对医疗保健和环境保护的投入等。通过制定专门有效的法律和法规，发掘双边合作的更多可能。

在另一方面，包括海关、投资、产业合作、旅游、社会文化交流的合作伙伴关系也需要以正式的形式得以确立。例如，仁川创意经济中心正在与山东威海就旅游服务业和电子商务展开会展、培训等活动；仁川大学华侨学院也在文化交流方面发挥着重要的作用。因此除了商业交流，

还可以举办青年学生实习、公共部门劳动力派遣互助等多样化的活动，以期建立社会文化交流、经验分享的长期渠道。

Ⅳ. 结语：对中韩区域发展合作规划的建议

中国社会科学院财政经济战略研究院冯雷教授称：“亚洲国家很难形成一个像欧盟那样的经济共同体。同样，中国很难与其他亚洲国家都达成有效合作。”他还认为，中韩FTA将可能是一个“先易后难”的过程。

中央和地方政府的协调同样不是一个容易达成目标。因此要采取分析问题，各个击破的应对思路。本文主要以威海和仁川为中心，分析现有当地经济条件，探讨存在的局限性和相关解决办法。总的来说，正如上文所阐释的，强调地方政府的交流协作，提高基础设施的发展建设是可行的执行路径。

为了发展如威海和仁川的经济合作区，社会各个群体的相互联系是很重要的。不仅要有政府官员的对话，还要有公民社会的互动。鉴于中韩FTA的签订已接近尾声，不同利益群体的意见应该及时纳入考虑范围。

因为涉及的双方为世界第一大和第七大出口市场，中韩FTA有很大的现实影响力。除此之外，两国之间几千年的历史渊源和邻邦关系也是促成FTA结成的重要因素。

中韩两国在近20年保持着友好的合作关系。希望两国能够“同心同德”，在中韩FTA的指引下发展贸易协作，通过地区经济合作带动各自经济发展。

参考文献

[发表]

『威海统计年鉴2014』

『威海市蓝色经济区发展规划』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외교통상부. 2008. 『한 • 칠레FTA발효4주년 및한 • 싱사포르FTA발효2주년성과』

외교통상부. 2006. 『NAFTA가 멕시코경제에 미친 영향』

KOTRA. 2003. 『세계 시장개방 추이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KOTRA. 2005. 『WTO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KOTRA. 2015. 『중국출장자료 - 산둥성』. 2015-1

김명아. 2015.『한중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INchina Brief.Vol.285

김명아. 2014.『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김성철. 2010.『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조미진 외. 2008.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 규정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엄부영 외. 2007. 『한·중 FTA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특성과한·중FTA에대한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원기. 2006. 『중국의한·중FTA추진배경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8.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양호 2009. 『국제경제학세미나』. 강의노트
박승록 외. 2008. 『베이징올림픽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박승록 2009. 『중국경제론』. 강의노트
박승록 2009.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 현황과 투자환경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한·중 FTA대비 중국의 FTA서비스협정분석과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한·중일 3국의 FTA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추진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09. 『2008년도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网站]

국제무역연구원 www.kita.net(무역통계·중국경제DB)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WorldTradeOrganization www.wto.or
산둥성통계홈페이지 http://www.stats-sd.gov.cn/
웨이하이시통계홈페이지 http://www.stats-wh.gov.cn/
웨이하이시인민정부홈페이지 http://www.weihai.gov.cn/

한·중 문화콘텐츠의 교류-우호증진을 위한 노력

허지강, 마성로
인하대학교

요 약

양국 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듯 문화교류 또한 그렇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한류를 통해 발생한 '친한' 감정엔 무시 못 할 효과를 보일 것이다. 올해 한중수교가 2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어느 정도의 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류와 같은 문화적 행위를 통해 양국의 사람들은 점점 정서적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더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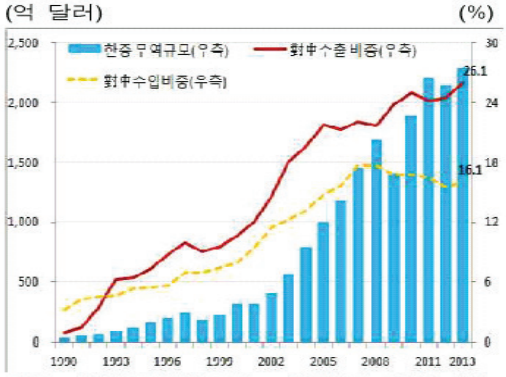
먼저, 서론에선 연구목적 및 한중 관계의 현황에 대해 파악했다. 이는 이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양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뤄낸 상태인지 알고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론에선 서론에서 확인한 한중 관계 중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교류 현황을 세밀히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효과를 논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마지막 결론에선 본론에서 논했던 요소들을 통해 앞으로 한중의 올바른 교류 방향을 제시하고, 우호증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고했다.

Ⅰ. 서론

1. 한·중 관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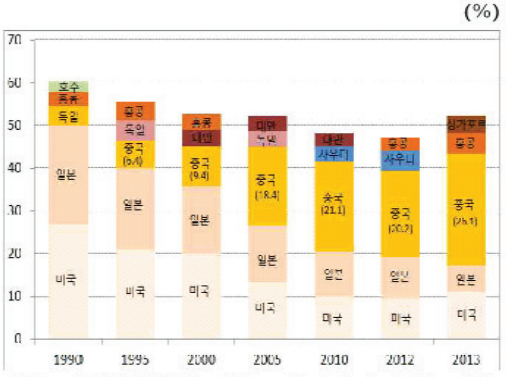
중국의 현재 GDP는 세계 2위. 후진국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2000년대부터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제치고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을 재치고 구매력 기준 GDP 1위를 하는 등[1] 지속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즉,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다[2]. 이는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국 우호를 발전시킨다는 관계이며 중국의 현재 외교정책[3]에 따르면 긍정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외교적 측면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역현황을 보면, 2013년 대중국 교역규모는 대중수출 1458억, 대중수입은 830억 달러로 총 2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교역대상국 중 3위이고, 중국은 한국 제 1위의 교역국, 수출국 및 무역흑자국인 것이다. 투자현황을 보면, 2013년 한국은 중국의 4위 투자유입국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다. 기업진출 현황을 보면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의 기업은 약 23,000여개이다[4].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세 번째, 지리상으로도 그리 멀지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양국이 별반 차이 없다. 게다가 한국 문화콘텐츠의 한류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인관광객의 방한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문화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1) 정세라, "중국, 올해 미 제치고 GDP 세계 1위 오를 것", 「파이낸셜타임스」, 2014.04.30
2)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index.jsp
3) 중국의 외교정책 :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5단계로 분류(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
4)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econ/index.jsp

2. 연구목적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 · 경제적 · 문화적 즉, 나라 전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전과 달리 21세기 정보 · 통신의 발달을 통해 k-pop, 드라마, 예능과 같은 문화콘텐츠의 한류가 중국인들의 정서를 '친한' 이 되도록 하는 영향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양국 문화콘텐츠의 교류현황 · 파급효과 · 한중 FTA 현안들을 파악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앞으로 양국의 전반적인 우호 협력을 증진 및 촉진시키고자함에 있다. 다만, 아직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는 미숙한 점이 많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낳은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전개한다.

Ⅱ. 본문

1. 한 · 중 문화콘텐츠의 교류현황

(1) 교류규모

중국은 한국의 문화콘텐츠 무역에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입액 중에서 대중수출 12억 3천 달러(27.6%, 규모 2위), 대중수입 1억 7천억 달러(19.2%, 규모 3위)를 기록했다[5]. 이러한 교류규모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 덕분에 더 커질 것이다.

5)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pp. 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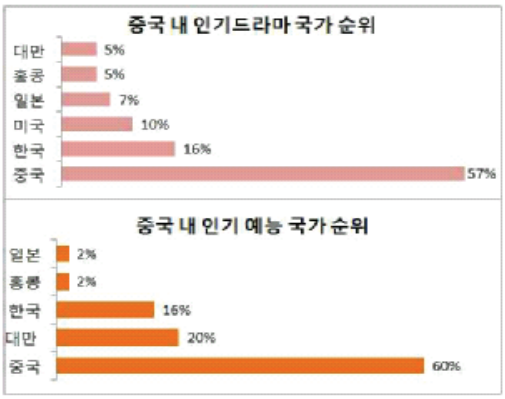
< 對중국 콘텐츠 수출입 추이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 1.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으로 구성됨.
2. 홍콩을 포함한 통계치임.
3. 광고산업 제외.

< 부문별 대중 콘텐츠 수출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콘텐츠산업동향 보고서 재인용.

주 : 2012년 기준.

(2) 업종별 교류현황

〈방송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27.1	168.9	179.7	18.9
대중국수출액	15.6	17.2	11.0	-15.9
(비중)	(12.3)	(10.2)	(6.1)	
총수입액	102.0	127.9	128.0	12.0
대중국수입액	0.4	0.4	0.3	-7.0
(비중)	(0.4)	(0.3)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201~202.

〈게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606.1	2,378.1	2,638.9	28.2
대중국수출액	595.9	907.3	1,018.7	30.8
(비중)	(37.1)	(38.2)	(38.6)	
총수입액	0.0	205.0	179.1	-12.6
대중국수입액	0.0	30.6	36.3	18.5
(비중)	n.a.	(14.9)	(20.3)	

주: 2010년의 경우 수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12년 증가율을 사용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 155.

〈영화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3.6	15.8	20.2	21.9
대중국수출액	0.5	1.0	0.8	27.2
(비중)	(3.8)	(6.3)	(4.1)	
총수입액	53.4	46.4	59.4	5.5
대중국수입액	1.1	0.3	1.2	4.6
(비중)	(2.0)	(0.7)	(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168~169.

〈에니메이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96.8	115.9	112.5	7.8
대중국수출액	1.6	1.7	1.7	4.2
(비중)	1.6	1.4	1.5	
총수입액	7.0	6.9	6.3	-5.1
대중국수입액	0.0	0.0	0.0	0.0
(비중)	0.2	0.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182~183.

(2) 교류 장애요소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수입규제와 투자 및 세제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투자제한을 보면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6]' 에서 장려업종 · 제한업종 · 금지업종의 세 분류를 통해 개방이나 외국인투자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 콘텐츠 분야에서 방송 관련 부분은 제한업종,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은 장려업종, 그 외 상당 부분은 금지업종으로서 분류하였다. 이처럼 현재 한국과 중국은 더 활발한 문화콘텐츠의 교류를 위해선 협소한 중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문화콘텐츠들의 유통과정은 상당부분 불법복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7]. 하지만 이러한 교류 장애요소들은 앞으로 한 · 중 FTA의 체결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 문화콘텐츠의 교류에 따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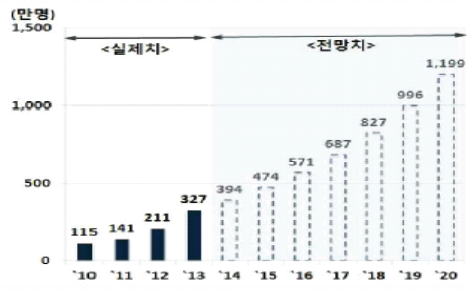
먼저, 한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연상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드라마가 25.8%로 제일 높았으며, 이외 미용, 한식, 연예인, IT 등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가 71.8%로 제일 높았으며, 이 '부유한 나라이다' ,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이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답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은 한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8].

6)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투자분야를 규정

7)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4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76

이처럼 전반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여러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대한상공회의소가 2012년 주요 서비스·제조 분야[9] 300여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한류의 경제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는 한류 덕분에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했으며, 이 중 51.9%는 실제적으로 매출에 이득을 봤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가 67.5%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 등 순으로 나타났다[10]. 두 번째, 서비스·제조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분야만큼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없다. 방한하는 중국인들 즉, 요우커들을 통해 한국은 2012년 약 8조 1000억 원의 직·간접적인 명목 생산유발효과, 약 3조 8000억 원의 직·간접적인 명목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0만 6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듯 요우커들 덕분에 한국은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맛보고 있으며, 2012년엔 280만 명, 2013년엔 4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점차 요우커들의 방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곧 한국의 여행수지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한국의 소비심리를 대체해주고 있다[11].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양국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적·학술·문화예술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전망>



자료: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일반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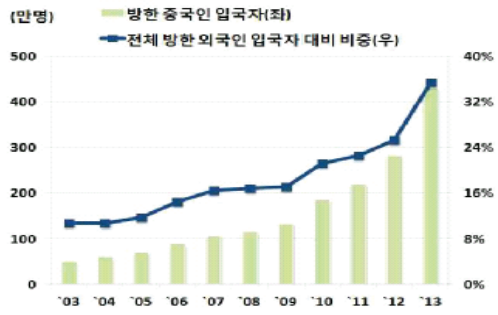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012년	2020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211만 명	1,199만 명
생산 유발액	8.1조원	68.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3.8조 원	32.4조 원
GDP 대비	0.3%	1.6%
취업 유발분	10.6만 명	89.8만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은행, 중국국가외환관리국,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1) 일반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객 기준
2) 명목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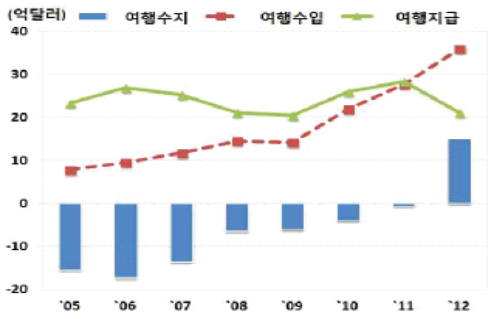
8)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4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59~60
9) 서비스 업종은 문화, 관광, 유통 순, 제조업은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순으로 이득
10)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4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83
11)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방한 중국인 입국자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주: 방한 입국자 = 일반관광+비즈니스관광+유학연수+기타

<한국의 대중국 여행수지>



자료: 한국은행.
주: 여행수지 = 여행수입 - 여행지급.

3. 문화콘텐츠 교류 관련 한 · 중 FTA

(1) 의의

1) 글로벌 3대 경제권(미국, 중국, EU)과 FTA 네트워크 완성
2) 중화권 국가 이외의 국가에 최초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
3) 한국은 경제적 역동성을 제고, 중국은 동아시아를 통합

(2) 분야별 주요 쟁점

1) 엔터테인먼트 분야
– 합자 · 합작 형태의 공연장 경영 및 공연 중개업 설립 허용
– 합자기업[12]의 경우, 49%로 투자비율이 제한
– 합작기업[13]의 경우, 최종 경영판단에 관한 권리가 중국 측 투자자에게 귀속됨
2) 영화 및 방송 분야
– 한 · 중 영화 및 방송 공동제작 협력
– 영화의 경우, 한 · 중 영화공동제작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중국영화와 동일한 혜택 부여
– TV 드라마나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공동제작 권고 근거규정 마련
3) 콘텐츠 저작권 분야
– 중국 내 한국 방송사업자의 인접권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14]
– 상대국 국민에 대한 보호는 상대국에서 부여하는 수준으로 한정[15]
– 방송사업자에게 동시중계방송, 복제, 고정[16]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12) 합자기업 : 중국과 한국이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갖고 지분율에 따라 손익 위험 부담
13) 합작기업 :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상호계약에 의해 권리와 의무 부담
14) 중국 내 한국 방송의 실질적 권리 증진 효과 기대
15) 협정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주의 대상임을 명기

(3) 영향

1) 한 · 미 FTA, 한 · EU FTA보다 장기적으로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 예상[17)]
2) 중국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국시장 및 한국 내수 활성화
3) 한류를 통해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을 향해 파급효과 확산
4) 비자 면제 범위의 확대 및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을 통한 인적 · 물적 교류 확대

(4) 특이사항

중국과 한국의 교류 방식은 국가가 수출입허용물품과 금지품목을 모두 지정해두는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에 따b라 개방 및 투자보호 이후,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만 정해두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에게 여타 국가들 중에서 최혜국으로서 대우해주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5) 문제점

한 · 중 FTA의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개방으로 인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자본이 이전보다 많이 개입될 예정이다. 이는 이전에 일본에서 불었던 한류와 달리 중국 거대자본의 하청업체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뺏기고, 단지 제작만 해주는 제작대행업체가 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만 뺏긴 채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18)]. 뿐만 아니라 한 · 중 간 분업구조 및 글로벌 경쟁관계로 인해 이번 한 · 중 FTA는 제한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16) 고정 :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및 이를 배포 · 송신하는 행위
17) 하나투자증권, 「한-중 FT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pp. 1
18) "방송업계 " 한중 FTA 위기의 시작 "..中자본 공제 우려", 「한중경영신문」, (2014.12.29)

Ⅲ. 결론

한국과 중국은 유리한 지리적 접근성, 한자와 유교라는 문화의 유사성이라는 타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사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축적된 선진 제작기법, 표현의 자유에서 오는 콘텐츠의 우수성, 결정적으로 한류의 새로운 시대 도래 등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이제 비상의 준비를 끝낸 상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 벗어나 한 · 중 FTA를 통해 여타 국가들보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한국은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 총재가 인재육성, 창조적인 상품 발굴, 시장개척 등의 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개방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중국은 아직 한국보다 문화콘텐츠의 상품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WIN-WIN 한다면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현재 일방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 및 한류로 인해 한국에선 중국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일방적인 교류관계가 아닌 소통적인 교류관계가 된다면 한 · 중, 양국의 정서적 공감을 나누게 됨으로써 한층 더 우호가 증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정세라, “중국, 올해 미 제치고 GDP 세계 1위 오를 것”, 「파이낸셜타임스」, (2014.04.30)

“방송업계 ”한중 FTA 위기의 시작“..中자본 공제 우려”, 「한중경영신문」, (2014.12.29)

○ 논문자료 및 게시물

정미경, 〈한-중 FTA오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 코카포커스, 2013.12.30

천용찬,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08.20

노수연 외 5명,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26

오수경,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12

허재환, 〈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KDB대우증권, 2014.11.11

문효진 외 4명, 〈2014 한류백서〉, KOFICE, 2015.04.17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보고서〉, KOFICE, 2014.12

안기태, 〈한국경제, 요우커 수혜 계속된다.〉, NH투자증권, 2015.02.16

김주현,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4.01.27

김현우, 〈한중 FTA와 문화서비스 협력〉, GB보스톤창업투자, 2015.01

〈한-중 FTA 의미와 기대효과〉

산업경제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11.20

허문종,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11.19

이지홍, 김민희, 〈K-POP과 드라마 검색 데이터로 본 한류의 현주소〉, 2014.02.18.

韩中文化交流 —从增进友好关系的方向

许智刚, 马圣璐
仁荷大学

摘要

两个国家之间的交流都是从寻常的人与人之间最先展开的，文化交流也是如此。因为人是在情感交流上更容易获得感知和共鸣的动物，所以中韩两国通过文化交流而使两国产生了“亲密”的感情，并取得了不可忽视的成果。今年韩中建交迎来第 23 周年。虽然再此期间，两国因为意识形态理念的不同存在着一定程度上的交流障碍。但是通过韩流，汉语热等文化交流活动使得两国人们渐渐的在情感上产生了共鸣。在这种情况下，韩中 FTA 的签署使两国在交流上的影响力扩大。因此，我们要对韩中自由贸易协定进行全面研究分析，为掌握如何增进友好关系而努力寻找对策。

首先，在绪论中要对研究目的和韩中关系的现状进行了解。还要知道在这样的意识形态下，目前两国形成的关系状态。正文部分就中韩两国文化交流的现状做仔细的分析，讨论其产生了哪些效果。还要对和文化交流相关联的韩中自由贸易协定的主要争议点，特征，和问题点做了解。最后在结论中，通过将讨论的几点内容做总结以后，分析韩中两国正确的交流发展方向，增进友好还需要双方的共同努力才能有所提高。

Ⅰ. 绪论

1. 韩中关系的现状

中国现在的GDP总量位居世界第二。被称为发展中国家的中国，从 2000 年代开始，持续的经济增长使得中国的GDP生产总值跃过世界第二大经济强国日本。不仅如此，现在的国民购买力还超越了美国，成为世界第一[1]。中国经济的飞速增长，使得中国在国际上的地位上升，韩国虽然和美国是友好同邦，却和中国不断在各方面发展着密切的交流合作。首先，在外交上，韩国和中国是“战略合作伙伴”[2]。两国在坚持相互尊重和互惠平等的原则下，相互不对抗的状态使两国不仅能够友好发展，而且在中国现行的外交政策[3]上也是在积极推动两国的关系。第二，在经济方面来说有比韩中政治层面更密切的交流关系。从贸易现状上来看，2013 年，韩国对中国贸易出口达 1458 亿美元，对中国进口达 830 亿美元，总交易达 2288 亿美元。而韩国也是中国的第三大贸易伙伴，中国则是韩国的第一贸易伙伴，是第一出口国和贸易顺差国。从投资状况来看，2013 年韩国成为中国第四大投资对象国。不仅如此，2008 年以来，中国紧接在美国之后成为韩国的第二大投资对象国。而在外企企业进驻市场的现状上看，往中国市场进驻的韩国企业有大约 23000 多个[4]个。因此中韩两国在经济上已形成是独一无二的密切关系。第三，在地理位置上不仅毗邻，历史的发展上也有找到很多相同点，所以文化上并没有很大差异。再加上，韩国文化领域的推出韩流产业的同时，中国不断的经济增长使得中国观光客的访韩规模逐年增加，因此通过这样的传播涌入，两国的文化交流变得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相似和亲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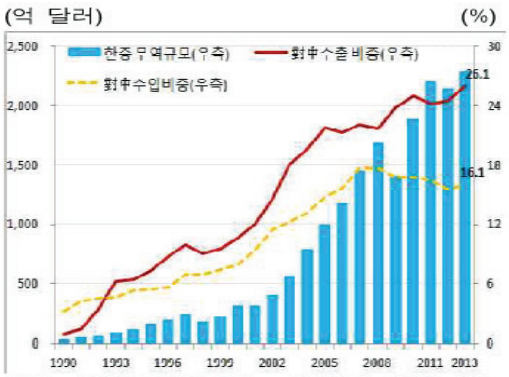
[1] 정세라, “중국, 올해 미 제치고 GDP 세계 1 위 오를 것”, 「파이낸셜타임스」, 2014.04.30

[2]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index.jsp

[3] 중국의 외교정책 :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5 단계로 분류(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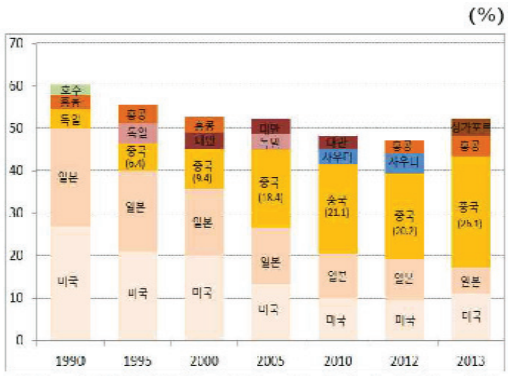
[4]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econ/index.jsp

<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2. 研究目的

中国和韩国建交以来的在外交政策，经济贸易，文化往来等方面整体上维持着亲密友好的关系。这种关系并不同于以往的任何时候。在 21 世纪情报通信发达的今天，韩国通过对 K-POP，韩剧，韩国综艺节目等韩流文化产业积极的建设传播使得很多中国人越来越多的从电视媒体中认识了解了韩国文化，在心理上产生了对这种优秀文化的喜爱，甚至于在相当一部分年轻人中出现了的狂热“哈韩”倾向。因此这次研究的目的是通过对两国在文化上的交流现状，取得的成果，韩中自由贸易协定问题的分析了解之后，找到比以前交往交流时更正确有效的方法使两国能够增加和促进全面友好互助。

Ⅱ. 正文

1. 韩中文化的交流现状

（1）交流规模

中国是韩国在文化上继美国和日本之后，进行以文化产业为中心的贸易交流的重要国家。以 2012 年为准的韩国文化产业出口额中对中国出口 12 亿 3 千美元（27.6%，规模第二）。从中国进口 1 亿 7 千美元（19.2%, 规模第三）[5]。这种交流规模还由于中国国内持续增加的韩流影响力而在逐渐扩大。

5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pp. 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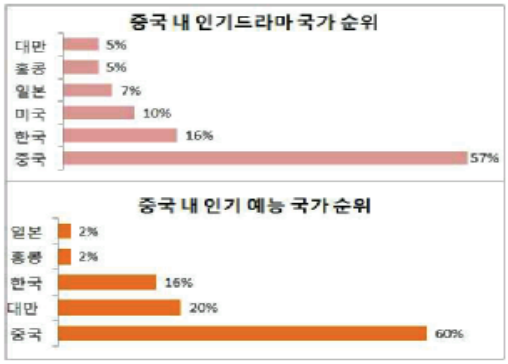
< 對중국 콘텐츠 수출입 추이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 1. 콘텐츠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으로 구성됨.
2. 홍콩을 포함한 통계치임.
3. 광고산업 제외.

< 부문별 대중 콘텐츠 수출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콘텐츠산업동향 보고서 재인용.

주 : 2012년 기준.

(2) 各领域的交流现状

《电视放送进出口现状》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27.1	168.9	179.7	18.9
대중국수출액	15.6	17.2	11.0	-15.9
(비중)	(12.3)	(10.2)	(6.1)	
총수입액	102.0	127.9	128.0	12.0
대중국수입액	0.4	0.4	0.3	-7.0
(비중)	(0.4)	(0.3)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201~202.

《游戏产业进出口现状》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606.1	2,378.1	2,638.9	28.2
대중국수출액	595.9	907.3	1,018.7	30.8
(비중)	(37.1)	(38.2)	(38.6)	
총수입액	0.0	205.0	179.1	-12.6
대중국수입액	0.0	30.6	36.3	18.5
(비중)	n.a.	(14.9)	(20.3)	

주: 2010년의 경우 수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12년 증가율을 사용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 155.

《电影产业进出口现状》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13.6	15.8	20.2	21.9
대중국수출액	0.5	1.0	0.8	27.2
(비중)	(3.8)	(6.3)	(4.1)	
총수입액	53.4	46.4	59.4	5.5
대중국수입액	1.1	0.3	1.2	4.6
(비중)	(2.0)	(0.7)	(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168~169.

《动画产业的进出口现状》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총수출액	96.8	115.9	112.5	7.8
대중국수출액	1.6	1.7	1.7	4.2
(비중)	1.6	1.4	1.5	
총수입액	7.0	6.9	6.3	-5.1
대중국수입액	0.0	0.0	0.0	0.0
(비중)	0.2	0.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pp. 182~183.

(2) 交流障碍

中国出于对本国产业的保护，为了控制外汇支出，而对进口管制，投资和税收实行限制。其中，从投资限制的方面来看，中国的《外向投资产业指导目录》[6]中，有鼓励发展，限制，和禁止投资的三大分类，作为对外开放和外国投资的基本框架进行设定。在《外国人投资产业指导目录》中的内容分类中，和电视放送有关的行业受到发展限制，和软件设备有关的技术行业则被鼓励发展，可这之外还有相当一部分产业作为被禁止的行业类型而无法交流投资。当前局势下，如此密切的韩中文化交流却只能被允许开放在狭小的市场范围之内。不仅如此，现在往中国流入的韩流文化产业在传播过程中有很大一部分通过非法复制的网络流媒体的方式而流通。严重阻碍了两国在交往中的利益。[7]好在这种交流上的障碍因素在韩中贸易协定的签署之后得到了一定程度上的解决。

[6]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분별한 투자 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투자분야를 규정

[7]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 4 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76

2. 文化交流取得的成果

首先，韩流文化的始发点可以说是一场以中国本土居住的中国人为对象的关于对说起韩国你会产生哪些联想印象调查后而引起的，调查结果中韩剧以 25.8%占据最高，之后是美容，韩餐，演艺明星，IT电子等顺序出现。而且，关于他们对韩国的认知程度的调查结果看来“是经济发达的国家”这一印象占 71.8%位居第一，“是个富裕的国家”，“和我们是相互友好的国家”等顺序展现出来，从人们的答辩结果来看整体上中国对于韩流文化的流入带有积极认同接受的好感[8]。

整体上中国对韩国印象是友好的，因此在各个领域都有能看到这一积极迹象。首先，大韩商会在 2012 年主要的服务制造企业领域进行了研究[9]。有三百多个公司作为对象被进行关于韩流引起的经济效果的调查结果看，参加调查的企业中 82.8%的企业感觉因为韩流的积极影响使得韩国形象和韩国商品的认知度有所提升。这其中还有 51.9%的企业在实际销售中得到了利益。还有，在中国人对韩国文化接触后，关于他们对韩国商品和服务的关心程度的调查结果中“想去韩国旅行”占 67.5%最高，之外有“想购买韩国的家电产品”“想吃韩餐”等顺序出现[10]。

第二点，虽然在服务制造领域也能看到积极增长的迹象，但却再也没有像观光领域一样蓬勃发展，成为收获惊人成果的领域，通过访问韩国的中国人，即中国游客，使韩国在 2012 年大约有 8 兆 1000 亿韩元的直接或间接的经济效果，约 3 兆 8000 亿韩元的直接或间接的附加价值效果，和约 10 万 6000 名的雇佣效果等影响。如此而来，由于这些到访游客使韩国在经济上收到全面就发展的受益效果，从 2012 年的 280 万名，到 2013 年上升到 400 万名，访韩的中国游客呈现逐渐增多的趋势。这不仅使韩国的旅游收支由逆差转为顺差，还正在逐步取代韩国已经冷却的消费心理。使韩国的消费业出现欣欣向荣的趋势[111)]。除了在经济上出现的波及效果，两国还为了在文化上达成共识，使人力，学术，文化艺术等方面呈现逐步扩大趋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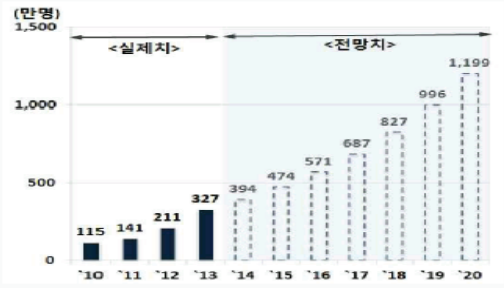
[8]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 4 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59~60

[9] 서비스 업종은 문화, 관광, 유통 순, 제조업은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순으로 이득

[10] KOFICE,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_제 4 장 국가별 결과 분석 : 중국」, pp. 83

[11]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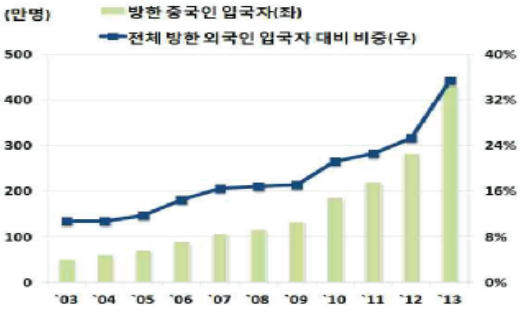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일반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객 기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012년	2020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211만 명	1,199만 명
생산 유발액	8.1조원	68.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3.8조 원	32.4조 원
GDP 대비	0.3%	1.6%
취업 유발분	10.6만 명	89.8만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은행, 중국국가외환관리국,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1) 일반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객 기준
2) 명목 GDP 기준.

<방한 중국인 입국자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주: 방한 입국자 = 일반관광+비즈니스관광+유학연수+기타

<한국의 대중국 여행수지>

자료: 한국은행.
주: 여행수지 = 여행수입 - 여행지급.

3. 与文化交流相关联的韩中 FTA

（1）意义

1）完成了韩国与全球三大经济圈（美国，中国，欧盟）的 FTA 关系网的建立。

2）有利于对中华圈国家之外的国家进行文化领域的开放。

3）自由贸易协定为韩国经济注入新活力，使中国与东亚交流更加和谐统一。

（2）各领域的主要争论点

1）娱乐领域

-合资，合作形式的演出场所经营和公演中介的要设立许可。

-合资企业中，49%投资比例受到限制。

—合作企业中，最终经营权裁决的权利归中国投资者所有。

2）电影和广播电视领域

—韩中要协力进行电影和广播放送的共同制作。

—在电影方面，要反映中韩电影共同制作协定的内容，赋予其和中国一样的优惠待遇。

—电视剧及电视动画的方面，建议根据规定来共同制作。

3）内容版权领域

—在中国国内的韩国媒体工作者的著作邻接权由 20 年延长到 50 年。

—国家队国民的保护在对方国家是有限的。

—赋予媒体工作者，电视转播，复制，同时赋予固定的专属权力。

（3）影响

1）从长期预测来看，与韩美FTA，韩国欧盟FTA相比，韩中FTA有两倍以上的经济效果[12]。

2）通过对中国资本有效的利用，在中国和韩国市场启动内需。

3）通过韩流，以文化产业为中心向其他产业扩散效应。

4）免签证范围的扩大及服务和投资领域开放，扩展人力，物力资源交流。

（4）特别事项

中国和韩国的贸易交流方式是，国家允许和禁止进出口的物品都通过被指定的方式进行开放流通和投资保护以后，限制或严禁进出口的商品再以被指定的方式进行后续协商，因此韩国在进行后续协商时，可以向中国提出作为相较于其他国家中最惠国的待遇要求。

（5）问题点

韩中 FTA 在关于文化领域的开放方面，使得中国在韩国文化上比以前投入了更多的资金成本。这和以前在日本掀起的韩流文化不同，韩国很可能会沦为中国巨大资本下的外包企业。韩国的优秀人才也可能会因此流失，此后只能成为制作作品的制作代理企业，此前在文化产业积累的经验技术可能都都会被巨大的中国市场抢去，文化产业就会失去竞争力。不仅如此，韩中两国之间由于产业分工结构的不同及全球竞争越来越激励的关系或许会使得这次韩中 FTA 能取得的成果和收获有限，达不到预期效果。

[12] 하나투자증권, 「한-중 FT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pp. 1

Ⅲ. 结论

韩国和中国自古以来就有地理位置上的优越性，交易往来频繁。由中国传播而来的汉字和儒家文化使得中韩两国在社会仪式和习俗上有很多相似性。因此，在文化领域的交流拥有很多其他国家难以相比较长处。不仅如此，韩国电视媒体在激烈的竞争中积累学习先进的制作技术，并且能够自由发挥和创作使得韩国作品在想象力和内容上比中国电视媒体具有优越性。而决定性的韩流新时代的到来，在中国，人们已经做好应对韩国文化的来袭准备状态。不断的引进韩国节目制作水平技术，学习韩剧和综艺奇特新颖的想象力。还要从“外向投资产业指导目录”中摆脱困境，通过中韩自由贸易协定的实施，与其他国家相比，韩国要在文化产业领域获得了更多的发展机会。再加上，中国总裁的创新人才培养，创造性的商品开发，市场开拓等方面对韩国进行中国文化市场的积极开放，扩大其影响。由此看来中韩两国在文化上还是可以互相借鉴学习实现双赢的积极性效果。现在韩国优秀的文化产业在中国兴盛发展的同时中国的优秀文化却艰难的在学习和借鉴成长。因此，中国的文化产业如若想实现跨越式的增长，就不能单方面的引进韩流文化，而是要学习借鉴中创新，还要建立好沟通，将中华文化作为大众容易接受的媒体娱乐形式更快更积极的传播给韩国民众，使两国产生更多情感上的共鸣，让友好关系能够更进一步。

参考文献

○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정세라, “중국, 올해 미 제치고 GDP 세계 1 위 오를 것”, 「파이낸셜타임스」, (2014.04.30)

“방송업계 ” 한중 FTA 위기의 시작 “..中자본 공제 우려”, 「한중경영신문」, (2014.12.29)

○ 논문자료 및 게시물

정미경, 〈한-중 FTA 오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 코카포커스, 2013.12.30

천용찬, 〈한 중 수교 22 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08.20

노수연 외 5 명,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2.26

오수경,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12

허재환, 〈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KDB 대우증권, 2014.11.11

문효진 외 4 명, 〈2014 한류백서〉, KOFICE, 2015.04.17

〈2014 해외한류실태조사보고서〉, KOFICE, 2014.12

안기태, 〈한국경제, 요우커 수혜 계속된다.〉, NH 투자증권, 2015.02.16

김주현,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4.01.27

김현우, 〈한중 FTA 와 문화서비스 협력〉, GB 보스톤창업투자, 2015.01

〈한-중 FTA 의미와 기대효과〉

산업경제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11.20

허문종, 〈한중 FTA 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11.19

이지홍, 김민희, 〈K-POP 과 드라마 검색 데이터로 본 한류의 현주소〉, 2014.02.18.

“반한·반중” 속에서 한 • 중 관계 연구 및 해결 방안

김은석, 장아문
남경대학교

요약

예로부터 특별한 지리조건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지속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양국은 2000년동안 역사, 경제, 사상, 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방면을 교류하고 서로에 대해 공부해 왔다. 특히 유교와 불교사상이 양국에 준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하던 중 미국과 소련이란 거대한 군사대국이 등장한 이후로 중국과 한국은 교류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1992년 8월 24일에 비로소 정식수교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민주화 혁명을 통하여 “아시아 4대 용” 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발전 속도는 원만해 졌다.

중국 또한 현재 GDP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지만 이후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럴 때 한·중 양국간의 경제 협력을 더 증진시켜 중국과 한국이 무역파트너로서 서로 성장하며 한국은 중국을 최대의 수출 시장 또한 최대의 수입국으로 더 나아가 최대의 해외 투자 대상국으로 만들며 중국 역시 부족한 부분을 한국과 채워나가며 원만해진 경제 성장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정치 문화 방면 양국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유학생 한국에서의 중국유학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서로의 역사상의 영토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이해 부족, 또한 무역을 할 때 마찰, 미국의 개입과 미디어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한·중 관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농산품 수출입 문제, 불법어선으로 인한 마찰, 고구려, 발해를 중심으로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중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한류와 차이나 드림이 중심이 되었던 우호적인 한·중 관계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한 이후 반한, 반중 감정으로 변화되었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 논문은 한·중 간 고대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며 한·중 간의 전형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술한 후 해결 방안에 대해 예기해 보려 한다.

Ⅰ. 한·중 관계의 개요

一, 고대 한·중 간의 교류

한국과 중국간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양국은 고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중 양국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사상적 교류가 3000년 전부터 기자조선과 고대중국이 이미 교역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대 중국과 고조선은 서로 경제 문학 교육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국의 예로 삼국시대가 시작된 이후 유교와 불교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중국 역시 신라의 최치원을 통해 한국의 문화나 정치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최치원의 유교사상은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예, 의학, 약학 등 다방면에 대한정보를 가져와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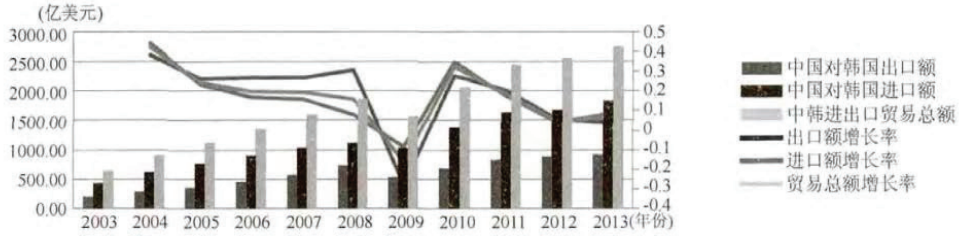
二, 현대 한·중 관계의 발전

근 현대 이후 한·중 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과 중국은 19세기말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으며 중국은 30만명이 학살당하는 남경 대학살과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아픔은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민족주의를 강화 시켜 주었으며 또 이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관계를 결속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후 가까워 질 줄 알았던 한·중 관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한 힘으로 인해 더 멀어지게 되었고 국교도 단절되게 되었다. 이때 지금의 북한은 북조선이 되었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 개혁을 실현 시키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아시아 4대 용'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한국과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중국은 주변 세력의 압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40년넘게 교역을 할 수 없었다.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외교를 해오던 한국과 중국은 마침내 1992년 8월 24일 정식적으로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 양국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서 2013년동안 한·중 양국간 무역 총량은 632.23억 달러에서 2742.38억 달러로 3.34배(39.43%) 증가 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외, 2003년부터 2013년까지무역량은 항상 증가 형태를 이루었었다. 그림1을 보면 알 수 있듯 2003년에서 2013년동안 중국과 한국의 중국의 한국 수출량과 수입량은 200.95억 달러와 431.28억 달러에서 911.65억 달러와 1830.73억 달러로 각각 3.54배 3.24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 되었으며 2015년 한·중 FTA채결 이후 한·중 양국은 동북아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 현황



转载自 "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1], 数据来源于UNCOMTRADE DATABASE, 并经计算得出

1992년 교류를 시작한 후 양국은 문화 방면 교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5년 대장금을 시작으로 중국에 한류라는 말이 생기며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며 중국에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각종 드라마와 가수들이 지속적으로 한류를 알리며 한국을 알리고 있었지만 '대장금' 때와 같은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고 한류의 인기 또한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하여 신 한류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한국을 알고자 하는 관광객이 증가 2012년 283만명이였던 중국인 관광객이 2014년 61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런닝맨', '우리결혼했어요', '아빠어디가' 등 중국의 예능프로의 판도 또한 바꾸며 한국의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재한 중국 유학생은 2012년 5만5천명으로 한국 내 총 유학생의 63.8%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장을 알고자 중국으로 유학간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은 2012년 6만 3천명으로 중국 총 유학생의 19.3%를 차지했다.

[1] 金缀桥、杨逢珉（2015），"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世界经济研究》第 1 期

표 1 한·중유학생 비율

年度	韩国在华留学生人数	所占比例	中国在韩留学生人数	所占比例
1999	11 731	26.2%	–	–
2000	16 787	32.2%	–	–
2001	22 116	35.7%	–	–
2002	36 093	42.1%	–	–
2003	35 353	45.5%	–	–
2004	43 617	39.3%	8 677	51.6%
2005	54 079	38.3%	12 312	54.7%
2006	57 504	35.3%	19 160	58.9%
2007	64 481	33.0%	31 829	64.6%
2008	66 806	29.9%	44 746	70.0%
2009	64 232	27.0%	53 461	70.5%
2010	62 957	23.7%	57 783	68.9%
2011	62 442	21.3%	59 317	66.2%
2012	63 488	19.3%	55 427	63.8%

转载自“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韩国在华留学生数据来源于中国教育部[2]，中国在韩留学生数据来源于韩国教育科学技术部[3]

Ⅱ. 한류와 차이나 드림에서 반한·반중으로

한·중 양국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들은 2008년에서 2009년때(중국에서는 이때를 긴장기라고 표현한다)처럼 양국간의 관계를 악화 시키기도 하고 양국간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 어떠한 문제들이 한·중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一, 한· 중간 갈등

(□) 중국의 불법어선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무자비한 어획량으로 인하여 한국의 수산품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중국의 어민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취득하고자 영해를 침범하여 자원이 풍부한 한국 영해로 불법 침입하여 해경과의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전에 2000년에 한·중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 http: / /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files/moe/s7567 /list. html

[3] http: / /www.mest.go.kr

2001년 6월 정식 효능을 발휘한적이 있다. 이때 양국간 영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영해를 침범했을 때에 대한 관련 규율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불법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보다 대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해경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반중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다.

(□)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동북쪽의 대학교의 학술주제로 2002년에 시작되었다. 발해 및 고구려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역사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중국 학자들은 가문과 혈연 등의 민족적인 요소들이 고구려와 고려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중국정부의 정치가들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치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양국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며 중국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탈북자 문제

탈북자문제는 20세기초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북한의 식량문제와 정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양국간 외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북한은 탈북자를 '범법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탈북자를 일종의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불법 체류자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남북간의 관계가 동북아의 외교에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二, 혐한과 반중

2008년 양국의 관계가 극에 달한 적이 있다. 이는 관계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유지 되었으며 양국간 "긴장기"를 연상시켜 주었다.

사건은 북경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다.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시장西藏의 독립과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북경올림픽 성화운송 과정 중에 시위를 통하여 이를 방해 하였다. 이때 중국의 반한 감정이 극대화 되었다고 한다.

북경올림픽 기간 중 한국 신문사의 〈중앙일보〉는 103명의 재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내 '반한'의 정도와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로 68%정도가 중국 내 반한 감정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동시에 60.2%가 빨리 해결하지 않을 시 반한 감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반한 감정은 한국의 한 방송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악화 되었다. 당시 그 방송국은 북경올림픽 개막식 유출 영상 및 汶川 지역 지진 보도 당시 편파적인 보도를 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을 악화시켜

주었다.

또한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의 몇몇 여자 운동선수가 '백두산은 우리 것' 이라는 문구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엔 "한류韩流" 는 식고 "한류寒流" 만 남게 되었다.

영국의 BBC는 2012년 "긴장기" 를 지난 후 양국간 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2010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36%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23%로 8년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61%를 차지 하였다. 이는 반한, 반중 감정이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2 한·중 간 자국 및 상대국에 대한 영향과 태도

年 份	中国人对中国		中国人对韩国		韩国人对中国		韩国人对韩国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2004	–	–	–	–	49%	47%	–	–
2005	–	–	–	–	40%	58%	–	–
2006	81%	6%	–	–	32%	48%	–	–
2007	90%	4%	–	–	40%	50%	–	–
2009	81%	8%	57%	20%	34%	61%	76%	19%
2010	77%	17%	36%	50%	38%	53%	84%	9%
2011	86%	5%	52%	28%	33%	64%	57%	34%
2012	77%	16%	44%	28%	23%	61%	64%	22%

转自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 现状评估与未来展望" ， 数据来源: BBC World Service[4]

Ⅲ. 반한·반중 정서는 왜 사그라지지 않는가

한·중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 똑같이 고통을 겪었고 이런 고난 속에서 강견한 민족주의정신이 형성되게 되었다. 바로 이런 민족정신이 반한, 반중 정서의 불씨를 더욱 쉽게 지폈다. 이외에 한·중 양국의 특별한 지리적 위치, 한반도의 정세의 미국의 간섭, 양국간의 무역모순 등의 원인으로 한중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구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4] 源于 BBC World Service 的民意调查 (2004—2012 年，2008 年的受调查国家中无韩国)，http://www.bbc.co.wk/worldserviceradio

□′ 강렬한 민족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 두개의 바퀴가 한국의 역사발전을 이끌어 나간다."고 말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한국은 민족압박에 대한 반하는 운동, 국가주권을 외치는 운동 등 독립전쟁을 통하여 기존의 애국주의 민족인식이 더욱 강렬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통일과 평화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현대의 사회전형에 따라 민족주의는 한층 더 발전 되였으며 정치민주의 욕구에 따라 신 민족주의가 형성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얇은 종이도 양면이 있듯 이는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이LG′ Samsung같은 세계적인 민족기업을 창립하고 "한강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한국인들의 건전한 민족정신과 민족산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민족정신은 쉽게 감성적이고 다혈질인 민족성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쉽게 영향을 받아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보호무역주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역사와 영토문제에 아주 민감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고구려사관련 문제, 일부 학자들의 역사 왜곡과 몇몇 한국매체의 과장되고 근거 없는 보도는 한 순간의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부 매체의 비정확한 보도로 인해 비 이성적인 외부배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012년 중일 조어도 영유권 분쟁 후 중국에서는 대규모적인 일제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일부 도시에서는 일제상품(중국인이 구매한 일제상품 포함)을 파괴하고 불태워 중국 현지인들도 적지 않은 물질적 손해를 받았다. 이처럼 중국인들도 역사와 영유권문제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한·중 양국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 맹목적인 민족배제현상이 더욱 쉽게 초래될 수 있다. 강릉 단오절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깊지 안았던 중국의 보도는 중국에서 순식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중국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二′ 의식형태, 문화역사인식에서의 갈등

중국과 한국은 모두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식형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중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자본주의이다. 한·중 수교이래 양국간 날로 활발해진 교류에서 비록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차이가 있으면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마찰이 격화될 때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는 그 마찰을 더 크게 만든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의 학자들이 문화역사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지 않다. 심지어 완전히 다른 의견 충돌이 정치적인 방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 몇 년 동안 한국민간학자들이 수 차례 유교문화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여 중국과 한국의 민간충돌을 일으켰다. 단순히 문화의 근원지를 따지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채워줄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흡수하고 배워야만 양국교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비정확한 인식은 양국의 문화교류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三′ 정치, 군사방면의 요구

(1)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래 중국은 북한와 밀접하게 연결하고 북한에게 여러 방면의 도움을 주었다.

3.8선이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갈라놓았다.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사회주의로. 한·중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북한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국가이익 등 방면에서 다르기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정책도 다르기 마련이다. 완전히 대립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 탈북자를 대할 때 한국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나라의 이익 또한 생각해야 하므로 북한의 태도를 인식해 탈북자들을 불법입국자로 대하고 있다.

(2) 한·중 관계중의 미국문제

한국은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한지는 20여년 되었다. 미국과는 60여년간 전력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집결되어 있고 북한 핵 문제로 인해 한미의 동맹관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2010년 "천안함"사건 후 이명박 전대통령 정부와 미국의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는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국사적 존재와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켰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국 근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예상외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천안함"사건은 본질적으로 한국과 북한사이의 갈등이지만 점차 중미, 중한 사이의 갈등으로 되였다. 중국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안음으로써 한국의 불만을 일으켰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통해 북한한테 경고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중국사람들은 이 사건이 중국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중국사람들의 반미 세력은 커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3) 한·중 무역갈등

한중간의 경제는 서로 보완하는 대로부터 많은 분야에서 경쟁 하는 것으로 변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늘어났고 한국의 흑자 현상이 지속 됨에 따라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설치함으로 국내시장 특히 농업시장을 보호하였다. 상무부가 발표한 〈2009년 외국시장 형세보고〉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이 중국의 63가지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할당액 관리를 실행하였으며 이의 관세율은 200%까지 달했다. 20세기 60년대 때 한국은 이미 "무역立国, 수출第一"이라는 기본 국책을 세웠으며 이 정책은 한국의 무역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쉽게 배외주의를 형성하였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거대한 잠재력 시장을 가진 수출대상국이다. 하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중국이 타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중 무역 관계에 있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중간의 무역이 초기의 수직보완관계로부터 수평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의 부단한 산업구조 발전으로 중국제품의 시장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한중의 수출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으며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다. 수출시장이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중국 제품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점령하였으며 중국 제품의 미국과 일본시장점유율이 이미 한국을 초과했다.

(4) 언론의 잘못된 유도

발전하는 정보화의 시대에서 주요매체들이 사회언론에 대해 막대한 유도작용을 하고 있다. 언론의 잘못된 유도로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한국드라마 〈피노키오〉에서는 신문 매체의 선택과 보도방식이 여론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자유인 국가로서 한국의 국민 발언권은 중국에 비해 더욱 자유롭다. 정치적인 측면으로 고려해 중국정부가 보도한 한국의 뉴스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한국의 언론사의 중국에 대한 보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여론 확대로 인해 작은 문제가 확대되고 대중의 반중 정서를 불러 일으켰다.

2005년 "김치파장"초기 1개월에 한국 일부 언론매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과장된 보도 및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 하였다. 〈불량 중국산 김치, 한국인의 식습관 파괴〉등 문장들이 한국의 주요 매체에서 보도 되어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는 모두 한국인이 중국에서 설립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점에 대해서는 일제히 보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의 보도가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외에 2007년 "한국공사 사망사건" 도 역시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지 주관적인 추측으로 보도함으로써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일으켰다.

언론의 이런 책임감 없는 보도는 한중 양국이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양국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편견이 있는 보도는 이성보다 분노를 자아내고 이런 감정들은 진실을 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게 한다.

Ⅳ. 한·중 관계 해결방안

□´ 정치적 신뢰와 협력강화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간 고위 간부간 정치적 협력과 결정이 필요로 하다. 2013 년 6 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했을때〈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에 대해여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두 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으로 첫째로는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두번째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세번째로는 존중과 평등을 원칙을 네번째로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똑같이 세계 관계의 중심에 그리고 국제적 이익이 교차하는 중심에 있는 동북아에 위치해있다. 동북아는 미국과 일본, 한·미동맹과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대조적인 동맹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 동맹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쉽게 견제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한·중 양국이 교류를 한다면 안정적인 양국 관계와 교류 그리고 양국간의 이해를 위해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 결과는 동북아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항상 예상외의 행동으로 우리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전으로부터의 불안함과 공포를 줄일 수 있으며 앞서 말했던 북한의 예상외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중 관계는 양국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외교관계의 증진이 양국의 민중들이나 동북아에 가져올 수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二´ 한·중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지구 추진

앞서 말했듯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무역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 마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양국간 경제영역의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 한다.

(一)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창출

한국과 중국은 WTO의 주요 국가이다. 이를 이용하여 양국간 관세를 조정한다면 무역의 장벽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무역에 있어 '특별보호조항'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산품에 대한 보호조치가 잘 되어있다. 중국은 농산품 안정 및 품질에 대해 좀더 신경 쓰고 발전시키며 한국은 농산품의 가격에 대해 조정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하여 농산품 무역시장을 개방 할 때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二) 통합자원조정 및 수출 상품 구조

모든 것이 세계화된 지금 단순한 제품의 무역형태는 한·중 양국간의 무역형태에 어울리지 않는다. 상품의 분업형태를 취득하여 발전을 이루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중국의 노동력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은 노동력에 대한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상품의 혁신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노동력 방면에서 동업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 양국에 자원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는 기술적인 발전을 한국에는 중국 시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三) 한·중 자유무역지구 건설과 자유무역화

2015년 2월 25일 한국과 중국은 이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만에 92%의 관세(한국에서 중국) 와 중국은 한국에 91%관세를 없셀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전자 제품과 화장품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다. 이러한 방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부분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게 될 마찰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양국간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은 양국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三, 민간 교류의 강화를 위한 방안

한·중 은 역사적으로 2000년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강한 민족주의로 인하여 양국의 민중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직시하여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크고 작은 일을 정치적으로 대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가간의 우호적인 교류는 민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국간의 인문교류, 문화교류와 같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로의 우의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행사나 교류를 촉진시켜줘야 한다.

양국간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여 보다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四, 정치와 미디어

한국의 정당은 민심을 얻기 또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국가간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틀어진 민심은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우며 한·중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눈앞에 이익을 위한 미디어 보도나 정치적 활동이 아닌 보다 성숙한 미디어 보도와 한·중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든 미디어의 영향력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꾸기도 하며 소비 구조를 바꾸어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언론사의 객관적인 보도가 중요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현재 한·중 간의 관계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 중 어떤 나라도 상대나라를 완전히 배척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두 나라의 민족주의가 특정한 사건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반한 혹은 반중 형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미디어 및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잘못된 보도를 방지하여 두 나라의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구나 FTA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두 나라의 군사적 안정감과 동북아의 평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부해 나간다면 반한·반중 현상을 해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

【1】李英武′ 郝淑媛 (2005)，“古代中韩文化交流探析”，《东北亚论坛》第 5 期

【2】刘群 (2003)， “中韩关系：二十年的回顾与展望”， 《当代韩国》第 4 期

【3】金缀桥′ 杨逢珉 (2015)， “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 《世界经济研究》第 1 期

【4】王星星′ [韩]殷棋洙 (2014)， “当前韩国民众对中国和中韩关系的认识的实证研究”，《东北亚论坛》第 2 期

【5】门洪华′ 刘笑阳 (2013)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 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6 期

【6】詹小洪′ 朴光海′ 王晓玲 (2009)， “中韩民众彼此厌恶了吗” 《世界知识》第 4 期

【7】金大中 (2009)， 《建设和平与民主——金大中哲学与对话集》， 世界知识出版社

【8】郭锐′ 刘依函 (2014)， “当前韩国民族主义对中韩关系的现实影响及我国对策”， 《辽东学院学报》第4期

【9】石源华′ [韩]文恩熙 (2012)， “试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中的美国因素”， 《东北亚论坛》第5期

【10】张键 (2014)， “中韩关系发展现状及展望”， 《当代韩国》第 1 期

【11】孟祥伟 (2008)， “中韩贸易摩擦之我见”， 《北方经贸》

【12】李熙玉 (2012)， “韩中建交二十周年及今后韩国对华政策的方向”，《当代韩国》第 3 期

【13】张文虎 (2011)， “中韩贸易摩擦的现状分析及对策思考”，《商业研究》第 13 期

【14】Kang D C. Between balancing and bandwagoning: South Korea’ s response to Chi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9, 9 (1) : 1 － 28.

【15】McVadon E A. Chinese military strategy for Korean Penninsula. In Lilley J, Shambaugh D (ed.) *China’ s military faces the future*. Armonk: M. E. Sharpe, 1999: 271 － 294.

【16】Scobell A. China and North Korea: The close but uncomfortable relationship. *Current History*, 2002, 656: 278 － 283

【17】Shambaugh D. Introduction: The rise of China and Asia’ s new dynamics. In Shambaugh D (ed.) *Power shift:China and Asia’ 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18】中研网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4/14163723.shtml

【19】 http: / /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files/moe/s7567 /list. html

【20】http: / /www.mest.go.kr

【21】http://baike.baidu.com/link?url=FH5QtkxBYGR2OL2VVVmhMDVEXR4R1GLLDKQ_2RGmUWy6QCmTuGVwbyt4R0Kx2kMcaweoRDQ6O3bJ36T7qcXMka

【22】中国海事服务网 http://www.cnss.com.cn/html/2013/currentevents_0103/89236.html

【23】BBC World Service： http://www.bbc.co.wk/worldserviceradio

【24】《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http: / /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 /t1053915.shtml

【2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88&cid=43792&categoryId=43793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교일지

【26】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70 동북공정(고구려,발해사)국제학술대회

【2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63934 성화 봉송 반대

【2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32414 한중 미래 공동 성명 내용

“厌韩排华”下中韩关系的考量与解决方案 究

金恩奭，张雅汶
南京大學

摘要

自古以来，因为特殊的地缘关系，中韩两国唇齿相依，有 2000 多年的友好往来历史，在经济、思想、文化、教育、科技上均有交流和学习，尤其是儒家思想对两国影响力都极为深刻。但是在冷战之后，受到美国和苏联两大军事集团的操纵，中韩两国彼此隔阂有 40 多年，直至 1992 年 8 月 24 日才正式建交。

韩国作为亚洲“四小龙”之一，经济飞速发展，但在金融危机之后，经济发展速度放缓。而 GDP 跃居至世界第二的中国，正值经济发展的高峰期，中韩两国在经济上的合作更加密切，中国成为韩国最大贸易伙伴、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在政治、文化方面，两国交流也逐渐增多，在华的韩国留学生和在韩的中国留学生人数逐年增加。但是，由于对历史问题和文化认知上的差异、领土上的争端、对朝鲜方面的不同态度、贸易上的摩擦、美国因素的存在、媒体不公正的报道等，都为中韩两国关系的发展设置了屏障，尤其是“脱北者问题”、农产品贸易问题、渔船纠纷、高句丽历史问题频频扰动中韩友好关系。2008 年北京奥运会之后，“厌韩”、“排华”的情绪更是达到一个峰值，中韩两国不甘示弱的民族主义也从中推波助澜。

本文先是简述中韩两国的关系发展历程和现状，接着列举了典型的中韩冲突，然后分析“厌韩”和“反华”情绪的成因，最后为中韩两国的发展提出了应对和解决方案。

Ⅰ. 中韩关系概述

一、 古代中韩的交流

一衣带水的特殊地理位置，决定了中原大陆与朝鲜半岛始终唇齿相依。根据已有的文字记载，早在3000多年前的箕子朝鲜和古代中国就已经开始了在各方面的交流。

古代中国与古朝鲜互通有无，双方在经济、政治、文学艺术、文化教育、科学技术、生活习俗等方面都对彼此有着深刻的影响。自古朝鲜的三国时代开始，儒家文化和佛教思想就非常盛行，五经三史[1]、明清四大小说也为人所熟知。儒学的“仁政”、“德治”等理念催生出一批有影响力的儒家学者，如崔致远、薛聪[2]。不仅如此，书法艺术、茶文化、医学医药对古代韩国的影响力也是巨大的。

二、 近现代的中韩关系发展

近现代以来的中韩关系，可谓是一波三折。中国与韩国在19世纪末20世纪初均遭受了帝国主义的入侵。日本侵华战争让中华大地时时处于水深火热，而日本对韩国的殖民统治，更是激起了韩人的民族主义。1945年日本的举旗投降并未让中韩两国的关系更加密切，反而更加疏远。在苏联与美国冷战的背景下，出现了意识形态的分裂。苏联控制了朝鲜半岛的北方，而美国控制了朝鲜半岛的南方，三八线的界定，形成了今日的大韩民国与朝鲜国的对峙。大韩民国经过多年的奋起抵抗与民主化改革，终于实现了经济的迅猛发展，成为“亚洲四小龙”之一。

然而，正是由于中国与韩国意识形态的冲突：一个奉行社会主义，一个奉行资本主义，再加上美国和苏联两大集团的干扰，在中国人民共和国成立之后的四十多年里，中韩两国并未有多大交流，直至1992年8月24日，中韩两国结束了互不承认、相互隔绝的历史，正式建立了外交关系。中韩建交二十多年来，双方均取得了飞速的发展，中韩两国在各个领域的联系愈加密切[3]。

在经济领域，2003年至2013年期间，中韩双边贸易发展较快，贸易总额从632.23亿美元增长至2742.38亿美元，增长了3.34倍，年均增长率为39．43%。除2008年全球金融危机对两国进出口贸易产生了不同程度的影响外，其他年份中国对韩国的进出口贸易均呈现增长态势。如图1所示，2003至2013年间，中国对韩国的出口额和进口额分别从200.95亿美元和4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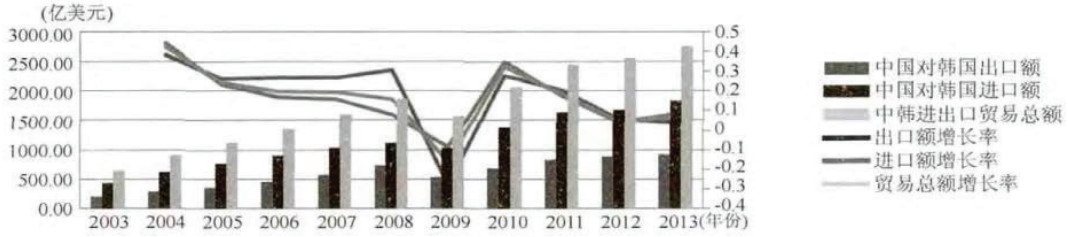
[1] 五经为《诗》、《书》《礼》、《易》、《春秋》，四史为《史记》、《汉书》、《后汉书》。

[2] 李英武、郝淑媛（2005），“古代中韩文化交流探析”，《东北亚论坛》第5期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88&cid=43792&categoryId=43793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교일지

亿美元上升至 911.65 亿美元和 1830.73 亿美元，分别增长了 3.54 倍和 3.24 倍，增长显著[4]。中国已经成为韩国最大贸易伙伴、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5]。此外，中韩自贸协定FTA也有望在今年正式启动，中韩双方的贸易以及整个东北亚地区，将会大大增加。

图 1 中国和韩国双边贸易额



转载自“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6]，数据来源于UNCOMTRADE DATABASE，并经计算得出。

在政治领域，中韩从 1992 年建交的突破，发展到睦邻合作关系，合作伙伴关系，全面合作伙伴关系，再到战略伙伴关系。虽然民间摩擦不断，但双方高层却频繁紧密的联系。

在文化交流方面，自从 2005 韩剧《大长今》在中国上映引起了收视狂潮之后，韩剧、韩风也开始风靡于中国大陆，诸如近几年的韩剧《来自星星的你》和综艺节目《Running Man》、《我们结婚了》。通过当代媒体和多样的社交工具，韩星、韩妆、韩饰等为更多中国人所追崇。此外，中韩留学生人数也逐渐增加，人员交流更加频繁。2012 年，韩国在华留学生 63488 人，占当年在华留学生总数的 19.3%，居世界各国来华留学人数首位。2012 年，中国留学生占在韩外国留学生总数的 63.8%，达 55427 人，同样位居在韩留学生之首。[7]

[4] 金缀桥、杨逢珉（2015），“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世界经济研究》第 1 期

[5] 资料源于中研网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4/14163723.shtml

[6] 金缀桥、杨逢珉（2015），“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世界经济研究》第 1 期

[7]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6 期

表 1 中韩留学生人数与比例一览表（1999-2012 年）

年度	韩国在华留学生人数	所占比例	中国在韩留学生人数	所占比例
1999	11 731	26.2%	–	–
2000	16 787	32.2%	–	–
2001	22 116	35.7%	–	–
2002	36 093	42.1%	–	–
2003	35 353	45.5%	–	–
2004	43 617	39.3%	8 677	51.6%
2005	54 079	38.3%	12 312	54.7%
2006	57 504	35.3%	19 160	58.9%
2007	64 481	33.0%	31 829	64.6%
2008	66 806	29.9%	44 746	70.0%
2009	64 232	27.0%	53 461	70.5%
2010	62 957	23.7%	57 783	68.9%
2011	62 442	21.3%	59 317	66.2%
2012	63 488	19.3%	55 427	63.8%

转载自“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韩国在华留学生数据来源于中国教育部[8]，中国在韩留学生数据来源于韩国教育科学技术部[9]

Ⅱ. 当“韩流汉风”变为“嫌韩疏华”

中韩两国关系大体上呈现出比较友好的画面，但是两国之间摩擦和纠纷也经常发生。两国关系的阻碍，体现在：对文化的认知和对历史解读上的分歧；中韩之间的贸易摩擦；对朝鲜半岛整体局势的态度和政策。中韩关系的变化，不仅取决于双方的政策，很大程度上还取决于双方民众对对方国家的认识。而总体来看，韩国民众对中国的认识主要分为三个阶段：1992 年到 2003 年为“蜜月期”，2008 年到 2009 年为“紧张期”，2009 年至今为“转型期”。[10]而嫌韩、反华的矛盾，在 2008 年至 2009 年期间，就尖锐地显现出来。

一、典型的中韩摩擦与冲突

中韩两国“紧张期”的冰山并非一日之寒，频有发生的渔船纠纷、朝鲜问题和历史问题的争议，常让两国民众的民族主义被自觉点燃。特别是在“东北工程”、高句丽历史、脱北者问题上。以下就分别简述两国冲突的焦点问题。

[8] http: / /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files/moe/s7567 /list. html

[9] http: / /www.mest.go.kr

[10] 王星星、[韩]殷棋洙（2014），“当前韩国民众对中国和中韩关系的认识的实证研究”，《东北亚论坛》第 2 期

（一）渔船纠纷问题

近年来因为全球气候变暖，环境受到破坏，鱼类产量减少，加之需求增加，渔民们为了获取更大的经济利益，驶出领海范围在公共海域上捕捞，而因此频发中国渔船与韩国渔民、海警冲突的事件。为了保护共同渔业资源，在 2000 年，中韩两国就签订了《中韩渔业协定》，并于 2001 年 6 月 30 日正式生效。该协定规定了中韩两国暂定措施水域、过渡水域和维持现有渔业活动水域的范围，渔民在暂定措施水域、专属经济区管理水域作业的管理方式和申请的相关问题，以及违反规定作业的处理方式 [11]。但是，由于中国沿海渔民的捕捞历史较早，很多渔民祖辈的渔场就在距离相对较远的海域，即较接近韩国水域一方。所以，近年来渔民的越界和争议行为仍时有发生。仅就 2012 年，就有 10 起较大的中韩渔船冲突事件，中国渔船大多数因为“非法捕捞”而被韩国海警逮捕、罚款，甚至发生斗殴 [12]。

（二）“东北工程”

“东北工程”的全称是“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是中国社会科学院和中国东北的大学、组织联合的学术项目，并于 2002 年正式启动，旨在深入研究东北边疆历史与现状的问题，高句丽问题就是其中的一个子课题。有关高句丽的历史归属问题引起了中韩两国学者的分歧。韩国学者认为，高句丽历史属于韩国历史的重要部分 [13]，而中国学者认为，从家族、血缘、姓氏来看，高句与后来的高丽王朝，都没有关联。关于高句丽的历史问题，本是学术界的争端，却因为韩国部分学者和媒体误认为中国政府资助此项目是为了灌以其政治色彩，从而使得这个项目和话题变为及其敏感。然而，事实上，在中国的历史类学术项目基本均由国家立项，并非有特殊的政治背景。[14] 将历史问题政治化，只会让两国关系被引入歧途。

（三）脱北者问题

脱北者原专指从朝鲜逃离至韩国的人，后来泛指所有从朝鲜逃离出来的人。此称呼针对的是

[11] 资料源于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FH5QtkxBYGR2OL2VVVmhMDVEXR4R1GLLDKQ_2RGmUWy6QCmTuGVwbyt4ROKx2kMcaweoRDQ603bJ36T7qcXMka

[12] 资料源于中国海事服务网 http://www.cnss.com.cn/html/2013/currentevents_0103/89236.html，并经总结。

[1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70
동북공정(고구려,발해사)국제학술대회

[14] 刘群（2003），“中韩关系：二十年的回顾与展望”，《当代韩国》第 4 期

通过非正常渠道，离开朝鲜到其他国家的公民。20 世纪初 90 年代，朝鲜因经济低迷、粮食短缺，大量脱北者投奔中国，或者经由中国逃至韩国。在对脱北者的问题上，中、朝、韩三方有着分歧。朝鲜官方认为脱北者是“叛国者”，而韩国则认为脱北者是难民，关乎人权和政治避难，并且要求其他国家给予援助。对于中方，则认为脱北者是“非法经济移民”，并未将其当作难民，界定为边境管理问题，并予以遣返。脱北者被冠之以人权和政治问题后，又关乎朝鲜半岛和整个东北亚的局势，变得紧张。此类问题的发酵，使中国陷入困境，影响了中韩两国关系。

二、激起的嫌韩与反华

2008 年是中韩两国人民群众彼此最为嫌恶的时期，2008 年至 2009 年期间为两国关系的“紧张期”。

北京奥运火炬在韩国首尔传递时，市内多个地点发生反对中国遣返“脱北者”和西藏政策的抗议示威，与欢迎圣火抵达首尔的支持中国的集会对峙 [15]。韩国一些保守势力团体要求中国实行西方民主化、反对共产党的领导，给在华朝鲜人难民地位、给予西藏独立 [16]。在圣火传递后，围绕着传递过程中出现的摩擦，韩国爆发了大规模的反华排外主义情绪，两国矛盾升温。

在北京奥运会期间韩国三大报业集团之一的《中央日报》对 103 名在华韩国人进行了以“‘反韩情绪’的实际情况及解决方法问卷调查”为主题的问卷调查，结果显示有 68%的人认为中国国内反韩情绪从十几到二十几岁的年轻人逐渐扩散到全社会，同时，大约有 60.2%的人认为“如果不及时化解，反韩情绪将会持续很长一段时间”。[17]韩国SBS电视台泄露北京奥运会开幕式彩排细节以及韩国某些网友在汶川地震的恶毒言论被认为是此次厌韩情绪的主要原因。

而在此前的第六届亚洲冬季运动会上，韩国的几名短道速滑女队员高举“白头山 [18]是我们的”韩文标语后，长白山突然成为中韩争论的焦点，也上升为外交事件，为此后爆发的一些列嫌韩、反华事情埋下火苗。加上高句丽历史问题、江陵端午申遗事件、脱北者难民问题、泡菜风波 [19]，火热的“韩风”就骤降为“寒流”。

英国国际广播公司 BBC 在一项 2012 年民意调查中显示（见表 2），在“紧张期”过后的 2010

[15] 资料来源于韩联社 4 月 27 日报道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63934 성화 봉송 반대

[17] 詹小洪、朴光海、王晓玲（2009），“中韩民众彼此厌恶了吗”《世界知识》第 4 期

[18] 白头山即为长白山，处于中朝边界。

[19]泡菜风波：2005 年 10 月 21 日，韩国食品药品安全厅称，对在韩国市场上销售的 9 种中国泡菜进行了食品安全性检测，检测出三种寄生虫卵。韩国食品药品安全厅立即对中国进口的泡菜采取了禁售和回收措施。由此中韩双方的贸易质检摩擦不断升级。

年，中国民众对韩国持较正面态度的人占 36%，较负面态度的人占 50%；韩国民众在 2012 年对中国最低持较正面态度的人士仅占 23%，为 8 年中的最低值，持较负面态度的人士则占 61%。这表明，在大规模的“厌韩疏华”的情绪爆发之后，中韩两国民众对彼此的了解都不够深入，在相互认知上还存在差距。

表 2 中韩国民对本国和对方影响力的态度

年 份	中国人对中国		中国人对韩国		韩国人对中国		韩国人对韩国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积极的	消极的
2004	–	–	–	–	49%	47%	–	–
2005	–	–	–	–	40%	58%	–	–
2006	81%	6%	–	–	32%	48%	–	–
2007	90%	4%	–	–	40%	50%	–	–
2009	81%	8%	57%	20%	34%	61%	76%	19%
2010	77%	17%	36%	50%	38%	53%	84%	9%
2011	86%	5%	52%	28%	33%	64%	57%	34%
2012	77%	16%	44%	28%	23%	61%	64%	22%

转自“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20]，数据来源: BBC World Service[21]

Ⅲ. 为何厌韩、排华星火难灭

中韩两国的人民在 19 世纪末和 20 世纪初同样饱受磨难，在水深火热之中形成了坚毅的民族主义，也正是如此强烈的感情，使得嫌韩、疏华的情绪也易被点燃。加之中韩两国特殊的地理位置和朝鲜半岛的局势，美国的掺和，中韩两国的贸易摩擦，使得维持中韩两国友好的关系难上加难。以下对厌韩、疏华的原因进行一一分析。

一、 强烈的民族主义

金大中曾经言明，韩国是用“民族主义和民主主义两个车轮推动历史前进”[22]。在近现代反抗

[20] 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6 期

[21] 源于 BBC World Service 的民意调查（ 2004—2012 年，2008 年的受调查国家中无韩国），http://www.bbc.co.wk/worldserviceradio

[22] 金大中（2009），《建设和平与民主——金大中哲学与对话集》，世界知识出版社

民族压迫，维护国家主权和独立的战争中，韩国觉醒的民族意识和爱国主义在争取国家和平统一中起着至关重要的作用。而在当代，社会的转型、政治民主的诉求形成了新的民族主义。但同时，它也是一把双刃剑，对韩国社会既有积极，也有消极的影响。

积极的作用毋庸赘言，韩国能够创造出汉江奇迹，挺进亚洲"四小龙"，催生出诸如LG、Samsung世界闻名的民族企业，与韩国人自强不息的民族精神和保护本国民族产业的理念是息息相关的。

然而，这种自强自立的民族精神，也容易导致情绪化的民族性格，使得韩人极易受到突然事件的影响，诱发过激行为并走向极端[23]，也容易引起贸易保护主义。韩国在历史问题和领土问题上非常敏感，如东北工程中的高句丽历史问题，因部分学者和韩国媒体的不客观报道，使得全国上下的民族主义情绪突涌。

而对于中国，这个有着全世界最多人口的国家，也常常因为部分媒体的错误引导而造成一哄而上的非理性和盲目排外。2012年中日钓鱼岛争端之后，中国国内掀起了大规模非理性的抵制日货行为，甚至打砸抢烧，伤及本国同胞的财产安全。中国人民在对待领土问题与历史问题上，也是寸步不让。

因此，当中韩两国在领土或历史问题上存在冲突和争端时，会极易激发起盲目的民族排外。比如江陵端午祭申遗成功之后，便在中国国内引起轩然大波，中国民众不分青红皂白，愤怒的矛头就直指韩方。

二、意识形态、文化历史认知上的分歧

中韩两国虽然都受儒家思想的影响，但由于四十多年的隔阂，形成了不一样的价值观和价值观。一个奉行社会主义，一个奉行资本主义，在社会形态和意识形态上有本质的区别。虽然随着两国的交往，社会形态的差异虽未涉及现实利益，却存在潜在威胁。当矛盾被激发时，价值观的不同便会火上浇油。

再者，虽然中韩两国在文化上有相同性，但是两国学者在文化历史上的认知并不尽相同，甚至意见相悖，又被标榜上政治烙印。最近几年来韩过民间学者多次提出曲解儒家文化的说法，导致中韩两国民间的口水战[24]。文化应共有共享，相互吸收和借鉴，单纯争夺文化渊源，满足民族尊严并无多大意义。对历史、对文化的狭隘解读只会不断干扰两国文化的接触，设置交流障碍。

[23] 郭锐、刘依函（2014），"当前韩国民族主义对中韩关系的现实影响及我国对策"，《辽东学院学报》第4期
[24] 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6期

三、政治与军事上的诉求

（一）朝鲜问题上的分歧

对于中国而言，朝鲜不仅仅是邻国。在“冷战”背景下，中国、苏联和朝鲜同处于社会主义阵营。自新中国建立以来，中国各届政府均保持着与朝鲜的密切联系，给予朝鲜各方面的援助。朝鲜对中国在政治和军事上的国家利益有直接和现实的作用。

美苏两国控制下的一条三八线，使朝韩处于分裂状态。一方是先进的资本主义，一方是封闭的社会主义。

谈及中韩关系，避不开朝鲜问题。但因为中国和韩国在社会制度、意识形态和国家利益上的差异，对朝鲜的政策也会有所不同，甚至出现对立的举措[25]。如前所述，在对待脱北者的问题上，韩方希望中国能以难民的身份接受逃离朝鲜的人，而中方出于本国利益，以及顾及朝鲜方面的情绪，只能以“非法入境”的身份对待。

（二）中韩关系中的美国因素

中国与韩国仅建交 20 多年，而美国与韩国则有 60 多年的战略同盟关系。冷战结束之后，美国军队依然驻扎在韩国，且由于朝核问题的出现，美韩同盟关系进一步强化。对于美国来说，韩国也在扮演着与日本一样的角色——美国远东战略中的桥头堡。

2010 年“天安舰事件”[26]发生之后，李明博政府与美国强化了战略同盟的关系，美国在朝鲜半岛的军事存在和影响力得到恢复与提升。美国的航母进入韩国近海参与美韩联合军演，实现了美国既威慑朝鲜，又试探中国战略底线的目的。[27]

“天安舰事件”本是韩国与朝鲜之间的矛盾，却逐渐演变为中美、中韩之间的矛盾。中国因在此事件的处理上未能保持与韩国同步的态度，而引起韩国的不满。同时，韩国积极要求美国航母进入黄海对朝示警，直抵中国华北的战略门户，虽非有意挑战中国的安全，却在客观上成为美国遏制中国的帮手。此事件之后，韩国对华政策也有所调整，改变了与美国保持距离，对华较为接近的做法。[28]而后发生的中国与韩国的脱北者争执也被引入美国等西方国家的势力，渔业冲突和苏岩礁[29]争端也逐渐让中韩两国的矛盾突出。

---

[25] 张键（2014），“中韩关系发展现状及展望”，《当代韩国》第 1 期

[26] “天安舰事件”是指 2010 年 3 月 26 日晚间，载着韩国海军 104 人的天安号护卫舰，在黄海海域白翎岛和大青岛之间巡逻时，突然沉入海底的事件，导致 46 名舰上官兵死亡。5 月 20 日，多国专家组成的军民跨国调查小组报告指称护卫舰遭朝鲜潜艇发射鱼雷击沉。后来朝鲜的一些文件暗示了金正恩制造了天安舰事件。

[27] 石源华、[韩]文恩熙（2012），“试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中的美国因素”，《东北亚论坛》第 5 期

[28] 石源华、[韩]文恩熙（2012），“试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中的美国因素”，《东北亚论坛》第 5 期

[29] 苏岩礁 ，又称离於岛，处于中韩两国的专属经济重叠区域内。根据《联合国海洋公约》，苏岩礁是没有领

因此，在中韩的战略伙伴关系的发展中，美国和韩国的同盟关系的影响不容小觑。

四、中韩贸易摩擦暗潮涌动

中韩经济已由过去的互补变为在多个领域的竞争，两国的贸易摩擦增多，贸易平衡问题也尤为突出，中国仍处于贸易逆差地位，且逆差额越来越大。

此外，韩国对中国设置了关税壁垒和非关税壁垒，如反倾销、反补贴、贸易救济手段，以保护本国市场，尤其是农产品市场。根据商务部发布的《2009 年外国市场的行情报告》，2009 年韩国对中国的 63 种主要农产品实施配额管理， 配额的关税率高达 200%。在 20 世纪 60 年代，韩国就确立“贸易立国，出口第一”的基本国策，此政策在促进韩国贸易发展的同时，也容易造成排外主义和贸易壁垒。中国于韩国而言是潜力巨大的出口对象，但日益强大的市场竞争力也使对韩出口颇为敏感。加上进出口结构的趋同，中韩贸易正从早期的垂直互补关系向水平竞争关系转变，伴随中国产业结构的不断升级以及中国产品竞争力的不断提升，中韩出口结愈来愈类似，竞争也越来越白热化。[30]出口市场的高度吻合，也使得有物美价廉之称的中国产品抢占了美国和日本市场。目前，中国产品在美日市场的份额已超过了韩国。

五、媒体的错误引导

在当今信息化高速发展的时代，主流媒体对社会舆论有强大的引导力。事实证明，如果舆论引导出现偏差，就可能引发社会矛盾，影响社会和谐。韩剧《匹诺曹》就向世人展现了新闻的筛选和报道方式对公众舆论的强大引导力。

韩国作为一个民主自由的国家，公民的话语权相对于中国较为自由。大体来看，中国政府处于政治方面的考虑，对于韩国社会的官方报道大体上是正面的。然而，一些韩国的媒体对中国的报道则不够公正和客观，加上互联网上的炒作，使得原本并无大碍的问题被放大化，引起受众和网民的反感。

2005 年的“泡菜风波”初期的一个月，韩国某些媒体不顾事实真相，大肆炒作，甚至为了吸引眼球而断章取义。《劣质中国产泡菜改变韩国人日常饮食习惯》等有煽动性的文章出现在韩国主流媒体上，煽动消费者不要食用中国泡菜，而对于中国产泡菜大多数都是韩国人在中国设立工厂

土主权归属的海底暗礁。因此，中韩官方也都曾声明两国间不存在领土海域纠纷问题，但双方在对苏岩礁的解读上存在分歧。中国认为，苏岩礁在中国的大陆架延伸线上，按照国法，苏岩礁属于中国海洋管辖范围内。韩国解读为：苏岩礁所在水域离韩国的距离比其他邻国近， 且属于中间线的韩国范围内，因此属于韩国的海洋管辖范围内。由此，苏岩礁争执只是涉及中韩东海专属经济区的划分问题，并不涉及中韩之间的领土争端。中韩两国应寻求解决之道，而并非让其成为两国关系的障碍。

[30] 孟祥伟（2008），“中韩贸易摩擦之我见”，《北方经贸》

生产的事实却只字不提。不过，随着时间的推移，韩国媒体的报道也逐变理性。此外，2007 年“韩国公使意外死亡事件”[31]，在没有经过取证和实地调查的情况下，韩媒主观臆断，加以炒作，严重影响了韩国民众对中国的看法，引起不良情绪。

媒体不负责任和有炒作之嫌的报道，对于中韩两国的关系，特别是在两国民众对对方民众和国家的认知上，百害而无一利。具有偏向性的报道，只会让愤怒多于理智，情绪隐埋真相。

Ⅳ. 中韩关系的应对和解决方案

一、 提升政治互信，加强战略合作

中韩关系的发展，离不开两国高层领导的政治合作和决策。2013 年 6 月韩国总统朴槿惠访华期间发表了《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32]，提出今后两国关系发展的基本原则：一是提高相互理解和相互信任；二是加强面向未来的互利合作；三是尊重平等原则和国际关系准则；四是为地区及国际社会和平稳定与共同繁荣、增进人类福祉做出贡献。[33]对于两国而言，均要重视中韩的战略合作关系，这不仅关乎政治，更对两国经济、文化上的协调有积极作用。

中韩两国同处于东北亚，是国际关系博弈的重要地区，国际利益交叉复杂，整个格局表现为轮辐体系（hub and spokes）、复合相互依赖（complex interdependence）、规范共同体（normative community）等因素交叉组合的局面[34]。在东北亚地区，主要是美日联盟、美韩同盟、中朝传统双边友好关系以及中俄朝等的单边力量结构，而较为完整的安全框架就是美国建立的双边军事同盟。[35]但是，军事同盟具有排他性，易造成对抗性思维和制衡行动，阻碍多边合作的达成。因此，中韩两国有必要稳定两国的关系，加强交流，加深理解，消除误会，以稳固中韩关系，促

[31] 2007 年 7 月，韩国驻北京大使馆政务公使黄正一在食用三明治之后，腹泻求医，最后出现呼吸困难等症状失救而死。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32414 한중 미래 공동 성명 내용

[33] 《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http: / /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 /t1053915.shtml

[34] Shambaugh D. Introduction: The rise of China and Asia’ s new dynamics. In Shambaugh D（ed.）*Power shift:*
China and Asia’ 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5.

[35] 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 6 期

进东北亚的合作与发展。

对于韩国而言，应承认中国崛起带来的力量变化。虽然韩国为解决朝鲜半岛问题迫切需要中国的合作，但是中韩关系并不是单纯为了解决朝鲜问题的附属产物，而应该被看成是具有地缘政治学价值的独立变数[36]。韩国应摒弃在美韩框架内发展中韩关系的消极战略，发展地区合作。中韩两国在朝鲜半岛上的合作，可以降低朝鲜方面对安全的恐慌和不安，改变美国对朝鲜的政策。

有外国学者认为，中国警惕若朝鲜半岛的现状被打破， 统一后韩国有可能编入美国的势力范围。[37]但是，事实证明，中国在寻求朝鲜半岛问题解决上的积极态度，促进了中韩、中美的关系[38]。因此，中国在中韩战略关系中应该侧重于共赢，而非权力的零和博弈（zero-sum game）[39]。

中韩关系虽然是非对称的，但是中韩两国关系发展潜力巨大，两国若能长期保持合作，提升外交关系，会对中韩两国民众，对整个东北亚地区产生不可估量的积极效应。

二、扩大中韩双边贸易，推动中日韩自贸区

如前所述，建交以来，中韩双边贸易规模大，增长速度快，但是，两国的贸易摩擦也逐渐增多，中国也一直处于贸易逆差地位，且逆差额越来越大。为了推进两国在经济领域的合作，双方应该要：

（一）创造公平竞争的市场环境

中韩两国同是WTO的重要成员国，不应利用反倾销，反补贴和贸易救济等手段设置非关税贸易壁垒。韩国利用“ 特别保护条款” 对进出口商品，尤其是农副产品加征弹性调节关税，对中国出口到韩国的商品设置“合法”的障碍，直接影响中韩两国贸易的正常发展[40]。韩国保护农产品市场，保护本国少数利益集团的行为应逐渐放开，这种行为不仅不利于本国农产品的发展，更不利于韩国消费者的选择。中韩两国应积极沟通，减少贸易摩擦。对于中国而言，也要提升商品品质，用质量而非价格赢取消费者的信任，才能使双方在贸易上的合作更加稳定长久。

---

[36] 李熙玉（2012），“韩中建交二十周年及今后韩国对华政策的方向”，《当代韩国》第3期

[37] Scobell A. China and North Korea: The close but uncomfortable relationship. *Current History*, 2002, 656: 278 — 283.

[38] McVadon E A. Chinese military strategy for Korean Penninsula. In Lilley J, Shambaugh D (ed.) *China' s military faces the future*. Armonk: M. E. Sharpe, 1999: 271 — 294.

[39] Kang D C. Between balancing and bandwagoning: South Korea' s response to Chi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9, 9 (1) : 1 — 28.

[40] 张文虎（2011），“中韩贸易摩擦的现状分析及对策思考”，《商业研究》第13期

（二）整合资源，加强技术合作

在全球化生产的背景下，单纯的产品间贸易已经不适合中韩两国的贸易发展。随着中国劳动力价格的提高，中国在世界市场上的价格优势已经不明显。当前，中国国内正面临经济的转型，与韩国加强在技术上的合作与创新，促进中韩企业合作，提高企业利用两国资源优势，既有利于中国加快产业的升级，也有利于韩国进一步打开中国市场。为经济注入新的推动力，实现互利共赢。

（三）完善中韩自由贸易区建设，推动中日韩自由贸易

2015 年 2 月 25 日，中韩双方已经完成中韩自贸协定（FTA）全部文本的草签，并对协定内容进行了确认。中韩 FTA 生效后 20 年内，韩国将取消对来自中国的所有商品 92%的关税，中国将消除对韩国产品 91%的进口关税。

近几年来，韩国产品，特别是电子产品、护肤品和服饰在中国大受追捧，加快 FTA 的生效必然会有利于韩国的出口市场。与此同时，韩国的一些薄弱市场，如农产品市场，势必会遭到打击。在此过程中，中韩两国应积极应对，加强合作，努力协商解决贸易摩擦。自由的贸易环境不仅会带给两国消费者有不可估量的利益，也会有利于双方企业的成长。

虽然缔结中日韩三边协议的时机还不够成熟，但是完善中韩自贸区的同时，也应该推动中日韩自贸区谈判和建设。日本在历史问题和政治问题的处理方式虽然遭受中韩两国的诟病，但并不妨碍日本产品在两国的畅销。中韩自贸区的建立能增进东北亚共同体的意识，拉动整个东亚的经济发展，也能为中日韩自贸区建设提供信任和借鉴。

三、 加强民间交流，相互包容

中韩虽然具有 2000 多年的友好交往历史，在文化上具有同根性，地缘相亲，人缘相近，但是双方有四十余载不相往来，学者、民众对彼此国家的了解和认知也不足。两国交往中应尽量避免激化民族主义情绪，从正面引导两国民众，避免将事件向情绪化和政治化方向引导。

国之交，在于民相亲。所以，两国应拓展人文交流，增加理解，消解误会，尊重对方的文化、价值观，化解民族情绪，相互包容、欣赏和借鉴。再者，要重视青年之间的交流，培养青少年的友谊。可以互相派遣青少年访问团，到对方国家学习参观，举办夏令营等，以加深了解，夯实民间互信的感情基础，也有利于未来促进中韩友好关系的保持和深入。此外，还应该加强学术、教育上的合作，促进两国学者的交流，开展共同研究项目，推动教育学术繁荣，增进对彼此文化的了解，以减少中韩在历史问题和文化归属上的摩擦。

中韩两国在商务签证上已经实现了免签，若积极推动旅游签证免签，必然会增进两国民众的交流和友谊的建立。

四、 排除政党政治和媒体干扰

韩国某些政党为了拉拢民心，争夺选票或为了政党利益，会出现转嫁国内矛盾，绑架中韩关系的现象。中韩两国的关系易受到政党冲击，这是不成熟的表现。另外，媒体出于自身利益，往往会夸大事实，未经求证就跟风报道，制造轰动效应来博人眼球，对两国的关系制造人为屏障。[41]

鉴于此，韩国政党应拉长眼光，不应为了短期利益而牺牲中韩之间的关系，一旦出现了裂缝，弥补之后也难以恢复原样，要避免政党恶斗和选举操控下被影响的中韩关系。

此外，两国政府在保证言论自由和新闻信息公开的同时，也要加强对主流媒体的管理和引导，培育成熟的媒体机制和舆论范围，避免恶意炒作而对中韩关系形成阻碍。在当今自媒体时代，中韩两国均应该加强民众的理性判断意识，而非盲目跟风，妥善处理分歧，增加正面认知和好感，增进理解与信任。对网络等的引导并不是意味着对其他国外网站、社交工具的封杀，而应提供多渠道的信息获取方式，让群众用自己的眼光看世界，中国政府在言论、舆论自由的道路上仍然任重而道远。

Ⅴ. 结论

中韩两国关系大体呈现出良好的态势，无论哪个国家，都不可能完全不存在排外主义，不能因为个别的居心叵测而影响两国的友好。中韩两国的民族主义，在特定的突发事件中，特别是历史归属和文化认知问题上，容易触发起大规模的厌韩和排华的情绪。而且在当今的自媒体时代，公民言论自由且发表途径多样，个别过激和非理性、不公正的言论也会导致民众对对方国家的好感度降低，以偏概全。此外，媒体的歪曲报道也会造成公众认知上的错误，成为影响两国关系发展的障碍。

同处于东北亚地区的中国和韩国，出于经济发展的考量，半岛局势的维护，都应该加强合作，政治和坊间都应加强交流，积极促进多边外交，而不是双边的军事同盟。中韩通过战略上的合作、FTA 的建设、学者和青少年的交流活动可以促进双方的理解和包容，也有利于厌韩排华情绪的舒缓。

[41] 张键（2014），“中韩关系发展现状及展望”，《当代韩国》第 1 期

参考文献

【1】李英武、郝淑媛（2005），“古代中韩文化交流探析”，《东北亚论坛》第5期
【2】刘群（2003），“中韩关系：二十年的回顾与展望”，《当代韩国》第4期
【3】金缀桥、杨逢珉（2015），“中韩双边贸易现状及潜力的实证研究”，《世界经济研究》第1期
【4】王星星、[韩]殷棋洙（2014），“当前韩国民众对中国和中韩关系的认识的实证研究”，《东北亚论坛》第2期
【5】门洪华、刘笑阳（2013）“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历史进程、现状评估与未来展望”，《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6期
【6】詹小洪、朴光海、王晓玲（2009），“中韩民众彼此厌恶了吗”《世界知识》第4期
【7】金大中（2009），《建设和平与民主——金大中哲学与对话集》，世界知识出版社
【8】郭锐、刘依函（2014），“当前韩国民族主义对中韩关系的现实影响及我国对策”，《辽东学院学报》第4期
【9】石源华、[韩]文恩熙（2012），“试论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中的美国因素”，《东北亚论坛》第5期
【10】张键（2014），“中韩关系发展现状及展望”，《当代韩国》第1期
【11】孟祥伟（2008），“中韩贸易摩擦之我见”，《北方经贸》
【12】李熙玉（2012），“韩中建交二十周年及今后韩国对华政策的方向”，《当代韩国》第3期
【13】张文虎（2011），“中韩贸易摩擦的现状分析及对策思考”，《商业研究》第13期
【14】Kang D C. Between balancing and bandwagoning: South Korea’s response to Chi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9, 9 (1) : 1 — 28.
【15】McVadon E A. Chinese military strategy for Korean Penninsula. In Lilley J, Shambaugh D (ed.) *China’s military faces the future*. Armonk: M. E. Sharpe, 1999: 271 — 294.
【16】Scobell A. China and North Korea: The close but uncomfortable relationship. *Current History*, 2002, 656: 278 — 283
【17】Shambaugh D. Introduction: The rise of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In Shambaugh D (ed.) *Power shift: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18】中研网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4/14163723.shtml
【19】 http: / /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files/moe/s7567 /list. html
【20】http: / /www.mest.go.kr
【21】http://baike.baidu.com/link?url=FH5QtkxBYGR2OL2VVVmhMDVEXR4R1GLLDKQ_2RGmUWy6QCmTuGVwbyt4ROKx2kMcaweoRDQ603bJ36T7qcXMka
【22】中国海事服务网 http://www.cnss.com.cn/html/2013/currentevents_0103/89236.html
【23】BBC World Service： http://www.bbc.co.wk/worldserviceradio

【24】《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http: / /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 /t1053915.shtml

【2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88&cid=43792&categoryId=43793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교일지

【26】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70 동북공정(고구려,발해사)국제학술대회

【2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63934 성화 봉송 반대

【2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32414 한중 미래 공동 성명 내용